한국과 국제정치

Korea and World Politics

(초 록 집)

1985~2022

IFES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차 례

【제1권 제1호 1985년(창간호) 통권 1호】

남북한간의 갈등과 화해에 관한 이론적 구상 / 곽태환 • 3

1984년 남북 경제회담에 대한 연구 / 김학준 • 3

한국과 중공의 관계개선에 관한 방안연구 / 신명순 • 4

미국·중공 관계: 상호 작용의 한계 / 스티븐 레빈 • 4

현대전략의 이해 / 백종천 • 5

영·불 양국의 핵전략이론과 한국의 핵개발에 관한 소고 / 김윤암 • 5

한·미방위조약과 미·일안보조약 비교 / 백봉종 • 6

아시아·태평양문제 기초연구: 지역협력 구상을 위한 방법론적 시안 / 박재규, 정태동, 염홍철 • 6

【제1권 제2호 1985년(가을) 통권 2호】

중공의 권력구조: 제도적 접근 / 최 명 • 7

중공의 정책집행과정: 당중앙과 지방단위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 서진영 • 7

중공의 외교정책 변화: 이데올로기와 이익의 갈등 / 장달중 • 8

중공: 혁명에서 개혁까지 / 마리-끌레르 베르제르 • 8

중공에 있어서 제개혁의 정치경제 / 안병준 • 9

중공의 군사정책변화와 국방현대화 / 김동성 • 9

중공의 경제법: 입법의 배경 및 현황 / 박춘호 • 10

일본과 남북한관계: 남북한대화에 있어 일본의 역할을 중심으로 / 신정현 • 10

【제2권 제1호 1986년(봄) 통권 3호】

일본의 선거제가 정당제에 미치는 영향 / 이갑윤 • 11

일본신문의 정치적 특성: 「조일」, 「독매」, 「매일」을 중심으로 / 이정복 • 11

현대일본외교와 상호의존의 국제정치 / 신희석 • 12

일본방위논쟁의 현실적 여건과 이론적 구조 / 김용서 • 12

전후 일본천황제와 일본인의 원형 / 김용운 • 13

일본기업의 중공시장진출과 한국기업의 대중접근방향 / 이종윤 • 13
미일무역분규 / 주준희 • 14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 이즈미 하지메 • 14
70년대 이후의 한일관계 / 한배호 • 15

【제2권 제2호 1986년(가을) 통권 4호】

베트남의 정치적 통합: 당·국가기구와 대중조직을 중심으로 / 박종철 • 16
베트남 정치리더쉽의 변화 / 이계희 • 16
베트남의 사회주의 경제개발계획의 내용과 특성 / 안승욱 • 17
캄푸치아분쟁의 원인과 경과 / 최청호 • 17
중·월전쟁의 원인과 결과 / 정천구 • 18
외교사적으로 본 베트남과 태국과의 분쟁: 베트남공산화 전후시기를 중심으로 / 김기태 • 18
베트남과 미국의 관계 / 김국진 • 19
베트남과 일본의 관계 / 강태훈 • 19
베트남의 팽창주의와 아세안 / 양승윤 • 20
베트남과 중공관계 / 황병무 • 20
베트남과 소련관계: 명암과 전망 / 문수언 • 21
북한의 대서방교역과 개방화정책 / 연하청 • 21
한국 안보문화에 대한 경험적 연구 / 백종천, 서춘식 • 22
SDI의 배치와 신냉전체제의 형성 / 최병운 • 22

【제3권 제1호 1987년(봄) 통권 5호】

한국과 국가이익우선의 문제점 / 구영록 • 23
한국안보와 해양력 / 박재규 • 23
미국의 대한정책, 1945~1948: 현실주의적 관점과 수정주의적 관점 / 오재완 • 24
한국의 통일방안 / 이경숙 • 24
북한의 통일정책 / 이만우 • 25
한반도의 통일방안: 종합적 검토 / 고병철 • 25

남한의 비정부차원의 통일논의 / 이정복 • 26
북한의 정책변화와 통일논의 / 오정만 • 26
남북한대화와 협상전략 / 곽태환 • 27
남북대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서울의 시각- / 김달술 • 27
남북대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평양의 전략- / 유석렬 • 28
미국과 남북한관계 / 신정현 • 28
남북한관계와 일본 / 안몽필 • 29
소련의 대내외정책속에서의 한반도: 주로 1986년의 경향을 중심으로 / 김학준 • 29

【제3권 제2호 1987년(가을) 통권 6호】

최근 중·소 관계의 발전과 전망 / 박두복 • 30
김일성의 「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 경험」에 대한 비판 / 허동찬 • 30
중공·북한관계와 한반도: 김일성의 중공방문이 지닌 의미 / 다케사다 히데시 • 31
방위력향상의 억지전략에 있어서 도덕성의 문제: 도덕적 논거에서 본 시론 / Douglas G. Bond • 31
2000년대의 한·소 경제관계 전망 / 김부기 • 32
포스트나카소네정권과 한·일 관계 / 장달중 • 32
한국전쟁과 한·미 관계의 성격; 전쟁의 원인, 과정, 결과에 비추어 본 양국관계의 역사적 성격 / 유재갑 • 33
한국과 미국간의 직접투자에 관한 연구 / 정구현 • 33

【제4권 제1호 1988년(봄) 통권 7호】

공화국의 국가와 사회: 국가구조와 정치과정 / 한배호 • 34
공화국의 국가형성과 농지개혁 / 박종철 • 34
국가구조와 국가능력: 한국과 멕시코의 대외불균형관리정책의 비교연구 / 김병국 • 35
권위주의체제 성립의 정치경제학적 분석: 「유신(維新)」체제의 경우 / 최완규 • 35
한국민족주의와 정치발전 연구의 상관성: 미국비교정치학 「파라다임」 적용의 적실성에 대한 비판 / 김동성 • 36

한반도의 평화정착구상: 4자회담(미국·소련과 남북한)의 제안과 대책 / 곽태환 • 36
자본주의 세계경제와 전세계적 군사화 / 이수훈 • 37
중공의 경제체제개혁에 관한 연구: 농촌·도시산업부문을 중심으로 / 조한수 • 37

【제4권 제2호 1988년(가을) 통권 8호】

한국과 대만의 경제개발과 농업정책 연구 / 김종덕 • 38
한국과 대만의 토지개혁 비교연구 / 신병식 • 38
한국과 대만의 수출산업화정책과 국가의 역할 / 박종철 • 39
아시아신흥공업사회의 이익대표체계연구: 자본가단체와 노동자단체를 중심으로 / 김영래 • 39
한국과 대만의 노동복지정책의 비교연구 / 현외성 • 40
동아시아산업화와 노동계급 / 류길재 • 40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한국유권자의 정치인지구성체계 연구 / 권혁남 • 41
전환기의 국제질서와 세계체제 논리의 연속성 / 배긍찬 • 41
계급갈등과 정치변동: 칠레(1973)와 태국(1976)의 경우 / 서병훈 • 42

【제5권 제1호 1989년(봄) 통권 9호】

베트남의 독립, 분단 및 통일: 농민혁명과 민족해방 / 함택영 • 43
베트남의 체제개혁: 정치제도와 권력구조의 변화 / 박종철 • 43
베트남의 사회주의 경제개발계획 / 안승욱 • 44
베트남의 사회문화적 통합노력에 관한 연구 / 이수훈 • 44
베트남의 대외경제관계와 한국·베트남의 경제협력방안 / 성태현 • 45
북한의 정치과정에서의 개인우상화정책: 「로동신문」 등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 이상민 • 45
한국에 있어서 민주화와 정치참여: 직접행동의 정치참여성, 폭력성 및 합리성에 관한 고찰 / 강정인 • 46
미국외교이념의 보수화의 배경, 1975~1984: 베트남 전쟁이후 미국외교와 제3세계 / 이삼성 • 46
최근 브라질 노동운동의 전개 / 이성형 • 47

현 파나마 정치위기: 배경과 원인 / 이남섭 • 47

【제5권 제2호 1989년(가을) 통권 10호】

사회주의 국가의 전도와 동북아 / 조영환 • 48

일본의 방위력증강과 대중·소관계의 전망 / 정광하 • 48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의 일·소관계 / 김호섭 • 49

북방정책과 한·미관계: 주한미군문제와 한국 북방정책의 한계 / 이삼성 • 49

북한경제연구: 일련의 방법론적 고찰 / 정상훈 • 50

남북한의 정치체제와 남북한 관계의 회고 / 이정복 • 50

백남운의 역사인식과 정치노선 분석 / 심지연 • 51

한국 반공주의이데올로기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그 국제정치사적 기원과 제특징 / 모리 요시노부 • 51

【제6권 제1호 1990년(봄) 통권 11호】

'신흥공업국'(NICs)의 국제정치경제학: 한국과 비(非) NICs개도국의 관계를 중심으로 / 손호철 • 55

한국의 대중남미 교역증진 및 경제진출확대를 위한 제언 / 강문구 • 55

한·중 관계발전과 한·소 관계발전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 박두복 • 56

국제정치체제의 힘의 분포상황과 전쟁 / 이춘근 • 56

자원안보의 이론과 실제 / 이민룡 • 57

페루의 새로운 민중운동: 센데로 루미노소의 기원과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 이남섭 • 57

주체사상의 혁명적 '수령론' 연구 / 정우곤 • 58

일본에 대한 미국인들의 사고방식의 변화 / 미하일 노소프 • 58

【제6권 제2호 1990년(가을) 통권 12호】

한국전쟁과 이데올로기 지형: 국가, 지배연합, 이데올로기 / 손호철 • 59

한국전쟁이 냉전과 한미관계에 미친 영향: 전통적 시각과 비판적 시각의 비교 / 이삼성 • 59

한국전쟁과 남한사회의 구조화 / 유석춘, 이우영, 장덕진 • 60

한국전쟁과 북한사회주의 건설 / 강정구 • 60

현대 정당(정치) 재편의 이론적 정향 / 이정식 • 61
페레스트로이카와 레닌주의 재해석의 문제 / 장원석 • 61
북한의 '인민민주주의혁명'과 통일전선정책: 토지개혁의 과정을 중심으로 / 신병식 • 62
재쏘조선사람들 / 유 게라씸 • 62

【제7권 제1호 1991년(봄·여름) 통권 13호】

계급과 평등: 기회균등과 능력주의의 문제점 및 그 한계 / 강정인 • 63
정부·민간기업관계의 재정립: 반도체산업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김형국 • 63
비교정치경제체제론의 이론체계와 전망: 비교정치와 정치경제의 통합적 접근 / 하봉규 • 64
중국의 통일정책과 대한반도정책의 상관성 연구 / 박두복 • 64
북한의 핵안전조치협정 미체결과 핵능력 / 송영선 • 65
세계체제의 구조변동과 19세기 후반기의 동양외교사 / 김기정 • 65
세계자본주의의 장기불황과 미국헤게모니의 위기 / 황병덕 • 66
유럽의 산업화와 그 후예: 젱하스와 멘쩰의 자주적 발전론 / 김호기 • 66
브라질의 경제위기와 정책대응: 성장과 쇠퇴의 정치경제학 / 정진영 • 67
한국근대변혁운동의 정치사상 연구: 개화파의 정치사상을 중심으로 / 조 민 • 67

【제7권 제2호 1991년(가을·겨울) 통권 14호】

걸프전쟁과 아랍 및 세계질서의 재편: 그 비판적 평가 / 문정인 • 68
탈냉전시대 미국외교와 세계질서: 미국안보정책의 지속성과 그 의미 / 이삼성 • 68
국제경제질서의 변화와 탈냉전: 무역 및 통화금융 질서를 중심으로 / 윤영관 • 69
탈냉전시대에 있어 소·중의 대내외정책변화 / 김성주 • 69
한반도주변 국제질서의 재편과 남북한관계의 구조 / 정대화 • 70
미국에서의 중동로비: AWACS 판매를 중심으로 / 이정희 • 70
미국·베트남 관계정상화과정과 요인분석 / 홍규덕 • 71
한국의 민중적 기독교세력과 국가권력 / 김일주 • 71
소련작가동맹에 대한 공산당정책의 변화 / 고재남 • 72

【제8권 제1호 1992년(봄·여름) 통권 15호】

한국의 정당과 지역주의 / 문용직 • 73

토지공개념제의 정치경제: 민주화, 국가, 사유재산 / 이 행 • 73

한국의 생산직 노동자가 본 노사관계: 노동자수기분석을 중심으로 / 강정인 • 74

부산·경남지방 인민위원회의 결성과 와해과정 / 신종대 • 74

제1공화국 초기 국가성격 형성과 정치균열에 관한 한 연구 / 신병식 • 75

제헌국회내 '소장파' 세력의 활동과 그 붕괴 / 백운선 • 75

북한법 연구: 그 현황분석과 방향모색 / 김동한 • 76

한반도 통일과 남북한 군축방향 / 정기웅 • 76

고르바쵸프시대의 소련·북한관계: 상호의존이론을 중심으로 / 윤해수 • 77

포스트 리버럴리즘?: 로버트 달의 「민주적 유토피아」 / 서병훈 • 77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사회·한국사의 인식 / 전상인 • 78

90년대 국가지도자의 조건과 리더쉽 / 김호진 • 78

【제8권 제2호 1992년(가을·겨울) 통권 16호】

미국 헤게모니론 / 이수훈 • 79

미국 헤게모니의 쇠퇴: 국내경제와 기술문제를 중심으로 / 이은진 • 79

미국 헤게모니 쇠퇴 경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대외 경제를 중심으로 / 장맹렬 • 80

미국의 대내외 군비부담과 헤게모니의 쇠퇴: 제2차 세계대전이후를 중심으로 한 실증적 연구 / 김우상 • 80

진보정당의 가능성에 대한 일고찰: 인천지역 조직노동자와 대학생들의 14대 총선 투표형태분석을 통해 / 정영태 • 81

한국학생운동의 쇠퇴와 전망: 제도화에서 탈제도화로 / 김도종 • 81

한국의 경제입법과 이익집단: 경제입법 및 정책에 대한 이익집단의 이익표출 활동분석을 중심으로 / 이병화 • 82

정치자금문제에 대한 정치제도론적 접근 / 박병석 • 82

한국의 자유화와 재벌의 정치참여: 통일국민당을 중심으로 / 양길현 • 83

자유무역, 공정무역과 국제체제: 19세기 유럽무역체제분석을 통한 한국적 의의 고찰을 중심으로 / 백종국 • 83

남북합의서 이후의 새로운 남북한 관계 / 곽태환 • 84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 정규섭 • 84

【제9권 제1호 1993년(봄·여름) 통권 17호】

5·10선거와 5·30선거의 비교연구 / 강정구 • 85

부산정치파동의 정치사적 의미 / 김일영 • 85

1990년 3당 합당의 분석 / 문용직 • 86

투표참여의 합목적성: 14대 대선에서의 기권행태를 중심으로 / 김재한 • 86

제3세계의 민주화 과정 / 신정현 • 87

영국 보수당에서의 신보수주의 등장의 정치과정 / 장훈 • 87

수출지향산업화의 정치경제학적 고찰: 한국과 대만의 비교연구 / 이국영 • 88

소득불평등의 결정인자들: 대만경험의 제도적 분석 / 박건영 • 88

한국 재벌규제 정책의 정치경제: 공정거래제도를 중심으로 / 이만희 • 89

북한 군사노선 변화의 합리성 고찰과 변화 전망 / 이성한 • 89

약소국으로서의 한민족 국가의 국제관계 / 유찬열 • 90

【제9권 제2호 1993년(가을·겨울) 통권 18호】

제14대 국회의원 선거결과에 대한 집합자료 분석 / 박찬욱 • 91

지역주의와 선거전략: 제14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 정영국 • 91

한국에서 중간계급의 확대가 정당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 안희수, 정영태 • 92

한국재벌의 존재양태와 정책과제 / 이병화 • 92

북한핵에 대한 인식이론적 접근 / 김용호 • 93

주체사상과 '우리 식' 사회주의 / 정우곤 • 93

현대 대중민주주의 산업사회에 있어서 사회적 법치국가(Sozialer Rechtsstaat)의 의미: 한국에서의 수용문제를 중심으로 / 이은정 • 94

스웨덴의 '국가주의적' 복지모델의 위기: 한국에 대한 시사점 / 김영순 • 94

지구환경보존을 위한 정책조정과 국제협력체제: '생물다양성협약'의 체결과정을 중심으로 / 강용진 • 95

사회, 국가, 그리고 제도: 정치경제의 제도론적 접근 / 이호철 • 95

【제10권 제1호 1994년(봄·여름) 통권 19호】

대외정치의 핵심개념으로서의 국가이익 / 구영록 • 96

2×2 게임과 국제관계에서의 갈등분석 / 박주식 • 96

국가이론의 비판적 종합: 계급국가, 국가이성 및 정치체계 개념의 재조명 / 함택영 • 97

통일한국의 체제 및 이념모형과 국민정치의식 정향 / 김동성 • 7

한국민주화 이행에 관한 연구: 코포라티즘 비판을 위한 시론 / 강문구 • 98

선거정치와 시민사회: 서구와의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선거정치의 발생론적 특성 / 김만흠 • 98

1945-1948년의 북한: 해방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까지 / 아·엔 란코프 • 99

경제발전의 삼각축 '성장·안정·분배'의 경험론적 재고찰: 한국·대만·싱가포르의 정치경제를 중심으로 / 전제국 • 99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베트남의 도이모이 / 양길현 • 100

신세계질서하의 미국 외교정책: 미주지역의 '거시적 지역주의' / 김성한 • 100

【제10권 제2호 1994년(가을·겨울) 통권 20호】

전환기적 이익집단정치의 특성과 과제 / 김영래 • 101

선거제도와 투표행태: 캐나다와 미국의 비교 / 김선종 • 101

유럽 통합: 발전과정과 그 현대사회적 의미 / 박길성, 김종길 • 102

베트남 발전노선에 관한 연구: 통합에서 편입으로 / 이수훈 • 102

두만강유역 개발계획의 정치경제 / 양운철, 유석진 • 103

미국의 문호개방정책과 미군정기 국무성의 대한경제정책의 형성 / 이상민 • 103

미·일의 통상정책 및 교섭전략 / 양기웅 • 104

국제기구 강화의 부머랭 효과: 국제연합 개발원조체계의 분석사례 / 박재영 • 104

환경자원의 군사적 사용과 그 생태적 영향: (비)연료광물질과 토지를 중심으로 / 손기웅 • 105

폴란차스 인식론의 지적 전통: 구조주의, 체계론, 기능주의를 중심으로 / 김성철 • 105

【제11권 제1호 1995년(봄·여름) 통권 21호】

해방의 의미와 해방정국의 전개 / 심지연 • 106

성별이 투표행위에 미치는 영향: 제14대 대통령선거결과를 중심으로 / 이남영 • 106

전국구 의원의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 분석 / 정영국 • 107

3당 통합의 원인: 3당 통합 과정 원인에 대한 정당체제론적 접근 / 조정현 • 107

한국의 1987년 민주화이행과 위로부터의 책략: 구조화된 가능성의 시각에서 / 양길현 • 108

남북한경제협력론 비판: 시장화의 사회·정치적 비용의 시각에서 / 박훈탁 • 108

청일전쟁을 전후한 일본의 대한반도정책에 관한 고찰 / 정광하 • 109

신사고 외교의 이념적 위상: 탈이념과 사회주의 이념간의 관계 / 김광린 • 109

사회민주주의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 황병덕 • 110

복지국가는 역전될 수 없는가?: 영국 복지국가의 신보수주의적 재편을 통해 본 '불가역성' 명제의 비판적 검토 / 김영순 • 110

농지개혁, 5·30선거, 그리고 한국전쟁 / 김일영 • 111

【제11권 제2호 1995년(가을·겨울) 통권 22호】

전환기 남북한 국내정치와 통일게임 / 최완규 • 112

통일한국의 정치적 갈등구조와 온건다당제 / 박종철 • 112

정부의 대북정책에 있어 핵문제와 경협의 상호연관성 고찰: 국내정치적 요인을 중심으로 / 김용호 • 113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시각에 바탕을 둔 전쟁원인 연구 / 김우상 • 113

민주화이행의 보수화와 개혁의 한계: 한국과 브라질 민주화과정을 중심으로 / 강문구 • 114

한국 과학기술의 대내정책 분석 / 김상태 • 114

국제화시대의 경쟁력 향상과 국가의 역할 / 이만희 • 115

전후 일본의 정치과정: 정치 이념과 제도의 변모 / 최은봉 • 115

일본의 국가/기업관계와 중간조직 / 진창수 • 116

【제12권 제1호 1996년(봄·여름) 통권 23호】

해방 후 중요 정치세력의 통일정책 분석 / 심지연 • 117

한일회담과 일본의 전후처리 외교 / 이원덕 • 117

일본의 정치개혁과 정계개편 / 김호섭 • 118

민주화에 있어 정당성위기의 정치적동학: 한국과 니카라과의 경험을 중심으로 / 양길현 • 118

러시아연방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안보질서 / 전홍찬 • 119

통일한국의 사회통합과 군의 역할 / 손기웅 • 119

코포라티즘없는 코포라티즘?: 일본의 자본과 노동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고려 / 김 정 • 120

【제12권 제2호 1996년(가을·겨울) 통권 24호】

제15대 국회의원 선거결과에 대한 집합자료분석 / 박찬욱, 김형준 • 121

포스트자민당의 일본외교 / 오기평 • 121

미국에서의 반핵운동과 의회정치 / 임성호 • 122

국제화의 도전과 독일, 영국 노동조합운동의 대응 / 유현석 • 122

세계경제의 대변동과 OECD 국가들에서의 노동조직 변화 / 강명세, 김형준 • 123

글로벌경제와 한국의 이중노동시장: 비공식 경제의 변화(1967-1994), 인과적 추론, 그리고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 박훈탁 • 123

한국 농산물 시장개방의 정치경제: 담배, 쇠고기, 쌀 사례에 대한 비교분석 / 김성민 • 124

북한과 중국의 체제개혁에 대한 비교연구: 혁명지도자 사후를 중심으로 / 차성섭 • 124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연방공산당〉의 정체성 / 김창진 • 125

지역협력기구로서의 ASEAN: 성과와 한계 / 전황수 • 125

미·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주변 정세 변화: 미·북 핵협상을 중심으로 / 전 웅 • 126

성리학적 관점에서 본 통일 한국의 이념연구 / 배병삼 • 126

【제13권 제1호 1997년(봄·여름) 통권 25호】

한국 정당구조의 재편성 연구: 위기와 통합의 정치(1945-1948) / 심지연 • 127

한국의 탈권위주의 정치변동의 '쇠퇴'과정에 관한 연구: 민주운동의 전략적 결정을 중심으로 / 조현연 • 128

대기업도시의 성장연합과 권력엘리트: 울산과 포항의 사례를 중심으로 / 박재욱 • 129

'한국사회'는 '분단'되었는가?: 1980년대 '한국사회구성체논쟁'에 대한 철학적/실천적 문제제기 / 정성기 • 130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개혁 비교연구: 기업개혁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 조원호 • 131

일본의 정계재편과 정책의 변화 / 진창수 • 132

고르바쵸프 개혁정책의 이론과 실제: 비판적 고찰 / 이영형 • 133

지역연구와 사회과학: 소련학(Sovietology)의 경우 / 장덕준 • 134

세계화하는 자유주의자와 현실주의적 세계화: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 이호철 • 135

다자주의의 동아시아 적용의 문제 / 신욱희 • 136

1965년 한일수교협정체결에 대한 현실주의적 고찰 / 빅터 차 • 137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과 중국 / 고상두 • 138

【제13권 특집호 1997년 통권 26호】

인도차이나 저발전국의 개혁·개방 / 함택영 • 139

베트남의 개혁개방과 경제발전전략 / 안승욱 • 139

베트남·미얀마의 개혁·개방 비교: 도이모이와 군부통치자유화 / 양길현 • 140

캄보디아의 통일과 개혁·개방 / 박성관 • 140

라오스의 농업발전과 개혁·개방 / 신병식 • 141

베트남의 대외관계: ASEAN을 중심으로 / 뉴엔 반 릭 • 141

통일 이후 남북 베트남의 사회문화적 통합 / 트란 덕 쿠웅 • 142

【제13권 제2호 1997년(가을·겨울) 통권 27호】

한국 민족주의와 세계화전략 / 김동성 • 143

한국사회에서의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의 등장과 사회적 균열구조의 변화 / 마인섭, 장 훈, 김재한 • 144

교육변수와 정치형태: 선거과정을 중심으로 / 이남영 • 145

제1공화국 시민사회변화와 정치사회 구조: 선거정치를 중심으로 / 오유석 • 146

현대 한국사회의 관료지배적 권력구조와 그 형성요인 분석 / 노병만 • 147

국회의원선거에서의 현직 국회의원 효과 / 문용직 • 148

게임 이론으로 살펴 본 돈 쓰는 선거의 논리 / 강원택 • 149

러시아의 정치문화와 민주화 전망 / 주승호 • 150

1960년대 경제자유화에 대응한 일본 통산성의 산업정책: '외압과 반응'의 동학 / 김용복 • 151

유럽통합과 독일의 새로운 딜레마 / 김성형 • 152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 김광린 • 153

【제14권 제1호 1998년(봄·여름) 통권 28호】

동북아 질서와 한·러 관계: 러시아의 시각 / 미하일 노소프 • 154

한·러 군사협력의 현황 및 발전방향 / 세르게이 로고프 • 155

국가론의 시각에서 본 'IMF개혁': 김대중 정권의 재벌개혁을 중심으로 / 손호철 • 156

과학기술시대의 도래와 정치권의 역할 / 최영식 • 157

북풍의 정치학: 선거와 북한변수 / 정준표 • 158

지역통합 이론의 재검토: 국가중심주의와 탈국가중심주의 / 구갑우 • 159

기술-경제적 패러다임 이론과 기술종속적 테제의 비판적 고찰: 과학적 현실주의와 세계체제이론의 시각에서 / 박훈탁 • 160

APEC를 중심으로 하는 아태지역 경제협력의 가능성: 제도주의적 접근 / 유현석 • 161

국제기구로서의 KEDO: 각국의 이해관계와 한국의 정책 / 정옥임 • 162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진출: 기회와 제약 / 백태열 • 163

양반과 부르조아 / 전상인 • 164
족군·종족·민족·그리고 중화민족 / 방중영, 허종국 • 165

【제14권 제2호 1998년(가을·겨울) 통권 29호】

한국의 민주적 공고화와 사회협약의 가능성: 김대중 정부하의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 강문구 • 166
민주주의와 관료제: 관료제의 비대화 및 병폐의 정치적 원인 / 임성호 • 167
인권과 한국의 민주화: 김영삼 정권 시기를 중심으로 / 김 녕 • 168
1980년대 OECD 국가의 조세개혁: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중심으로 / 김기석 • 169
러시아에서 자본주의적 사회계층구조의 형성과 그 특징 / 강혜련 • 170
미얀마의 장외 정당정치: 1990년대 SLORC정권 시기를 중심으로 / 양길현 • 171
Icarus의 비운: 김영삼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요인 분석 / 최완규 • 172
한미통상마찰과 미일통상마찰의 비교연구: 1995년 자동차협상의 사례분석 / 양기웅 • 173
동아시아와 케난의 딜레마 / 김영호 • 174

【제15권 제1호 1999년(봄·여름) 통권 30호】

미국의 대북한 정책의 재조정: 기본합의와 그 이후 / 박건영 • 175
외교정책과 여론: 'Almond-Lippmann Consensus' 와 그 비판적 검토 / 남궁 곤 • 176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전략적 투표자 / 경제희, 김재한 • 177
대기업도시 울산시와 도요타시의 기업권력과 지방정치: 한일간 자동차생산도시의 비교연구 / 박재욱 • 178
정보통신혁명과 정체성 / 유석진 • 179
복지국가와 경쟁력: 영국의 신자유주의적 실험 / 김영순 • 180
"아시아적 가치" 관련 동서논쟁의 재조명 / 전제국 • 181
록크의 자연상태 평화상태인가 전쟁상태인가 / 이충식 • 182

【제15권 제2호 1999년(가을·겨울) 통권 31호】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 제도에 대한 비판적 재성찰 / 박수헌 • 183

19세기 유럽협조체제에 대한 국제제도론적 분석: 현실주의와 구성주의 제도론의 시각에서 / 전재성 • 184

김대중 정권과 한국 지역주의의 장래 / 최영진 • 185

선거제도에 따른 지역주의 효과의 변화: 6·4 광역지방선거 시뮬레이션 / 이현우, 황아란 • 186

90년대 시민사회의 의식변화와 시민운동의 성장 / 조대엽 • 187

한국 '발전국가'에서의 국가-기업 관계와 '지원-규율' 테제: 조선산업 3대기업(현대조선, 대우조선, 삼성조선)을 중심으로 / 김주환 • 188

일본의 정계재편과 오자와 이찌로: 오자와 이찌로의 정치이념과 전략을 중심으로 / 김태기 • 189

시장개방은 자유화인가?: 미일건설마찰과 이중기준의 정치 / 손 열 • 190

정치가의 합리적 선택, 연합정권, 그리고 일당우위정당체제: 일본의 사례 / 김 정 • 191

90년대 이탈리아 정치 사회 변동과 중도-좌파 정치 / 이해영 • 192

【제16권 제1호 2000년(봄·여름) 통권 32호】

세계화의 압력과 새로운 통일논의: 쟁점과 과제 / 최완규 • 195

민족공동체 개념에 대한 연구 / 한석태, 김재현 • 196

국가통합이론과 분단국 통합사례가 남북한 통일에 주는 시사점 / 김국신 • 197

남북한 교류실태와 통합의 전망: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 배종렬 • 198

남북한-미국 관계의 역사적 고찰: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과 남북·북미관계의 전망 / 이상민 • 199

남북한 통합과정 모델 비교분석 / 함택영 • 200

남북한의 정치통합과 민족공동체 건설의 방향 / 김세균 • 201

한국정당의 지구당 조직과 기능: 문제점과 대안 / 정영국 • 202

금융위기를 촉발한 정치적 불안정성: 금융시장의 성립에 관한 비교경제사회학 이론을 중심으로 / 박훈탁 • 203

유럽통합과 다층적 체제의 등장 / 장 훈 • 204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시론적 고찰: 현대 한국정치사상의 빈곤 원인에 대한 탐색 / 강정인 • 205

【제16권 제2호 2000년(가을 · 겨울) 통권 33호】

단극시대 미국패권전략의 이해 / 이혜정 • 206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의 현실과 전망: 탈냉전, 세계화, 한반도 상황 변화가 가지는 함의를 중심으로 / 박건영 • 207

외환·금융위기와 동아시아 발전의 미래: 발전모델, 구조조정, 지역협력을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 정진영 • 208

동아시아지역 국제경제기구의 형성 및 제도화: 유럽통합의 경험 / 김용복, 구갑우 • 209

친미주의 공공여론의 세대간 차이에 관한 한국·일본 비교연구 / 남궁 곤 • 210

박정희정부 하의 정당구도 분석(1) 1961. 5 ~ 1972. 10 / 심지연 • 211

남북경협에 있어서 정경분리 원칙의 현실성과 효용성: Box-Jenkins 시계열 분석을 바탕으로 / 김 욱 • 212

'중국식사회주의' 이념의 생성과 전개에 대한 고찰 / 고성빈 • 213

일본의 헌법조사회발족과 개헌논의 / 전황수 • 214

인터넷 거브넌스(Internet Governance)의 정치: 온라인상의 정보유통 논쟁에 대한 일본사례의 분석 / 김유향 • 215

1997년 영국 총선에 미친 유럽통합 이슈의 영향 / 강원택 • 216

자유주의, 공동체, 그리고 문화: 킴리카(Kymlicka)의 정치적 자유주의 비판 / 설 한 • 217

현대 자본주의 노동과정에 대한 맑스의 이론: 정치적 해석 / 최형익 • 218

【제17권 제1호 2001년(봄 · 여름) 통권 34호】

한국의 선거와 투표행태: 지역주의가 표출된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 양재인 • 219

NGO 그리고 국가: 실업극복 국민운동의 사례를 통해 본 NGO의 역할에 관한 고찰 / 유현석 • 220

정조의 정치와 수원성: 화성건설의 정치적 의미 / 박현모 • 221

한반도의 탈냉전과 통일안보정책 / 권만학 • 222

부시정부와 한반도: “무엇을 할 것인가?” / 박건영(가톨릭대 국제학부) • 223
안보론에 있어 구성주의와 현실주의의 만남 / 이 근, 전재성 • 224
아이덴티티 정치와 동북아 지역 협력 / 이진영 • 225
일본-ASEAN 경제관계 제도화에 대한 연구: 특혜무역제도 설립 논의를 중심으로 / 최영종 • 226
중국의 제2차 향진기업 창업전략을 통해서 본 지방정부의 역할: 수난지역을 중심으로 / 이정남 • 227
동남아시아와 사회적 자본: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지역학적 연구 / 박은홍 • 228
사회과학에 있어서 과학적 설명 / 이동수 • 229
서구 ‘권위’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이봉철 • 230

【제17권 제2호 2001년(가을 · 겨울) 통권 35호】

쇠퇴기 패권국 대외경제정책의 국내정치적 기반 / 백창재 • 231
미국패권 지속 경향에 관한 실증 고찰 / 정항석 • 232
국제정치경제내 유럽연합 자리찾기: 행위자와 분석수준 그리고 추상화의 사다리 / 양오석 • 233
러시아에서 동아시아 모델의 진화 가능성 / 임경훈 • 234
지역주의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역대 대통령 선거를 기반으로 / 강명세 • 235
한국선거에서의 여야 균형률: 측정방법의 논의와 경험적 함의 / 진영재 • 236
인터넷과 선거운동: 제16대 총선 후보자의 인터넷 활용 및 네티즌의 참여 실태 분석 / 김용철, 윤성이 • 237
한반도 통일과 재일한국인: 통일문제를 둘러싼 민족단체의 분열을 중심으로 / 김태기 • 238
“정치적인 것(le politique)” 의 발견: 프랑스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부활 / 홍태영 • 239
IMF 외환위기 이후 발전국가 개혁논의와 한국의 민주주의: 비판적 고찰 / 최형익 • 240
위기의 산업전환: 한국의 사례와 대만·일본과의 비교분석 / 임혜란 • 241
위천공단조성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의 정치경제학 / 박재욱 • 242

【제18권 제1호 2002년(봄) 통권 36호】

신자유주의 시대의 선거와 '사회정책': 1996년 미국 연방선거를 중심으로 / 손호철 • 243

탈냉전기 일본 방위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의 변화와 그 중요성 / 최운도 • 244

한국과 일본의 경제성장과 위기의 동학 / 강원택, 박병영, 배 영 • 245

한반도·독일의 냉전구조 해체방안 비교연구와 정책적 함의 / 황병덕, 김학성, 박종철, 전성훈 • 246

남북한 민족주의 비교 연구: '역사의 이용'을 중심으로 / 전재호 • 247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부의 국방정책과 군사전략개념: 새로운 군사전략 개념의 모색 / 이수형 • 248

한국 NGO의 공공재 추구행위와 민주화 / 김혁래, 김영래 • 249

【제18권 제2호 2002년(여름) 통권 37호】

부강한 중국의 등장과 중국위협론, 그리고 한반도 / 서진영 • 250

북한의 국교정상화 제안과 일본의 대북한 정책: 정부·자민당 및 사회당의 대응을 중심으로 / 신정화 • 251

탈냉전기 일본 안보정책의 변화에 대한 고찰: 촉진요인과 제약요인을 중심으로 / 신지호 • 252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회고와 전망 / 김근식 • 253

햇볕정책과 여론: 지속성과 변용의 관점에서 본 실증분석 / 박선원 • 254

지역주의의 정치적 정향과 태도 / 이갑윤 • 255

【제18권 제3호 2002년(가을) 통권 38호】

기로에 선 동아시아 발전모델: 한국과 대만 비교연구 / 윤상우 • 256

'2003년 위기설' 전망과 한·미·북 삼각관계 / 전봉근 • 257

대북화해협력정책과 북한의 변화에 대한 실증적 분석 / 노정호, 김용호 • 258

복지축소 시대의 복지국가: 이념과 정치 / 김인춘 • 259

한국정치자금의 규모와 조달패턴: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 김의성, 임성학 • 260

한국 정당의 수입구조 연구: 1997~2000년도 정당회계보고자료를 중심으로 / 심지연, 김민전 • 261

【제18권 제4호 2002년(겨울) 통권 39호】

국제레짐의 강제집행력과 개별국가들과의 관계: 1970년대 국제핵비확산레짐과 한국과 일본의 핵재처리정책 비교연구 / 김기정, 박한규 • 262

미국의 동북아 동맹전략과 동맹의 안보딜레마, 그리고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에 대한 함의 / 박건영, 남창희, 이수형 • 263

오스트리아, 호주, 캐나다, 독일의 연방주의 비교 / 이옥연 • 264

정보화와 한국인의 의식변화: 네티즌의 동호회 활동을 중심으로 / 강정인, 이현우, 이원태 • 265

한국의 재외동포정책: 재외동포법 개정의 쟁점과 대안 / 이진영 • 266

연변조선족의 북한·통일관 조사연구 / 임채완 • 267

제주 평화의 섬 구상과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 양길현, 장원석 • 268

【제19권 제1호 2003년(봄) 통권 40호】

21세기 중국의 대국화 신안보 전략: 미중 간의 안보외교를 중심으로 / 김재관 • 269

러시아의 동북아정책과 안보협력의 제도화 / 이웅현 • 270

동티모르 재식민지화와 독립: 서방권 국가들의 구성주의적 행위를 중심으로 / 김열수 • 271

동아시아모델 논쟁의 극복: 새로운 발전론을 위하여 / 김진영 • 272

남북한 군사통합·통일한국군 건설 및 쟁점들 / 제정관 • 273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제3후보에 대한지지 분석: 정주영과 이인제의 비교 연구 / 강원택 • 274

국민국가의 위기와 재편: 제3차 국가형성에 관한 연구 / 성경륭 • 275

【제19권 제2호 2003년(여름) 통권 41호】

미완의 계획: 1960년대 전반기 미 행정부의 주한미군철수논의 / 마상윤 • 276

인도네시아의 테러리즘과 대테러정책 결정요인: 국제 환경과 국내 환경의 역학관계 / 이동윤 • 277

근대 한국민족주의의 행태적 특성 / 김동성 • 278

후보경선유형이 의원의 이념성향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제106대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 김민전 • 279

동북아 비대칭 안보위협과 한국의 대응방안 / 백광일, 남창희, 이수형 • 280

북핵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과 역할 / 홍완석 • 281

【제19권 제3호 2003년(가을) 통권 42호】

서구중심주의의 사상사적 연원과 전개과정 / 강정인 • 282

신제도론의 이론적 쟁점: 제도개념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 김기석 • 283

단극시대 미국패권전략의 이론적 기초: 다자주의 vs. 일방주의 / 박인휘 • 284

존슨 정권 후반기의 한미관계: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한 한미간의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 조진구 • 285

정당연합과 지역주의 / 이정진 • 286

2002년 6.13 지방선거 선거자금 수입 및 지출 형태에 대한 연구: 기초단체장선거 후보자 회계보고서 분석을 중심으로 / 김범석, 전용주 • 287

비대칭 권력구조 하에서의 양면게임: 한국·미국·EC간 농산물협상 비교 / 이호철 • 288

【제19권 제4호 2003년(겨울) 통권 43호】

민주화운동, 민주화, 민주주의: 개념과 한국적 특성을 중심으로 / 손호철 • 289

카르텔 정당체제의 형성과 발전: 민주화 이후 한국의 경우 / 장 훈 • 290

유권자 선거관심도: 사회환경변수 및 대중선거유세/TV토론의 선거관심도에 미친 효과를 중심으로 / 강경태 • 291

한국 국방정책의 도전과 선택 / 함택영 • 292

햇볕정책의 일관성과 여론 분열에 관한 실증적 연구 / 남궁 곤 • 293

연합과 연방: 통일방안의 폐쇄성과 통일과정의 개방성: 6·15 공동선언 2항을 중심으로 / 김근식 • 294

북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과 정책: 공식적 차원과 새로운 시각 / 이지수 • 295

대북정책의 국내정치적 결정요인: 분석틀과 사례분석 / 고대원 • 296

북한의 대남협상행태: 지속과 변화를 중심으로 / 양무진 • 297

교통의 국제정치: 시베리아횡단철도(TSR) 국제화와 동북아 협력을 위한 한국의 대응전략 / 신범식 • 298

【제20권 제1호 2004년(봄) 통권 44호】

한·미 동맹의 이론적 재고 / 김우상 • 299

2002년형 반미(反美): 그 정치심리학적 근원과 정치외교적 의의 / 김태현 • 300

북미관계의 전개와 전망,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의 전략: 핵문제를 중심으로 / 박건영 • 301

후진타오(胡錦濤)체제의 대내외 과제와 전망 / 문흥호 • 302

일본 장기침체의 정치경제 / 김용복 • 303

동북아경제중심 비전 실현을 위한 조건 / 김진영 • 304

변방에서 중심으로?: 한국의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을 위한 대외전략 / 정진영 • 305

동북아 에너지 협력과 극동 러시아 / 장덕준 • 306

【제20권 제2호 2004년(여름) 통권 45호】

동북아경제중심의 가능성과 추진과정 / 양길현 • 307

한반도문제와 중국역할: 의미와 한계 / 이희옥 • 308

북한 핵개발 전략과 그 지정학적 함의 / 최용환 • 309

서구 자유주의권리이론에 나타나는 '일방향 권리-의무/책무관계구조'의 오류비판 / 이봉철 • 310

영국 노동당, 탈각된 사민주의: 1987-1992년 '정책검토'(Policy Review)와 정책전환 / 박경미 • 311

미국 주정부 업무수행 능력의 상이성 분석: 사회자본과 제도적 요인을 중심으로 / 가상준 • 312

한국 기업의 다국적화: 경제사회학적 해석 / 김명수 • 313

【제20권 제3호 2004년(가을) 통권 46호】

동북아 국제질서의 구조적 특성과 한반도 문제 해결방향 / 길병옥, 김학성 • 314

'자원 전쟁' 시대 한국의 에너지안보 전략: 동시베리아·극동 지역을 향하여 / 강봉구, 한구현 • 315

세계화 시대 북한과 중국의 민족주의 / 전재호 • 316

북한요인과 국내정치: 1968년 북한요인의 영향을 중심으로 / 신종대 • 317

신민주주의 혁명시기 중국공산당의 민족정책 및 민족구역자치제 채택 배경 / 허종국 • 318
인터넷 정치 집단의 형성과 참여: 노사모를 중심으로 / 강원택 • 319
일본통신시장 자유화의 정치과정: NTT 분할 논의를 중심으로 / 김유향 • 320

【제20권 제4호 2004년(겨울) 통권 47호】

미군재편과 자주국방론 분석: 한국 안보정책에 대한 함의 / 정세진 • 321
김정일 정권의 국가발전전략: '강성대국'을 중심으로 / 정우곤 • 322
한·미관계에 대한 미디어보도 분석: 조선일보, MBC, New York Times 보도에 대한 프레임 분석을 중심으로 / 김용호, 김용순, 한정택 • 323
지구화·정보화시대 동북아 국제사회의 균열과 협력: 동북아의 국제사회화와 문명에 관한 성찰 / 장인성 • 324
시베리아 공간의 지정학적 의미와 러시아: 지정학적 요소/분석단위를 중심으로 / 이영형 • 325
예방외교와 국제평화: 동티모르 사태의 분쟁해결 과정을 중심으로 / 최운도 • 326
중국 온라인 공간의 주도권 쟁탈전: 국가-사회의 경쟁 / 이민자 • 327
인터넷을 통한 NGO의 정치참여: 유형과 현황 / 김의영 • 328

【제21권 제1호 2005년(봄) 통권 48호】

중국의 국가전략: '전면적 소강사회론'을 중심으로 / 이희옥 • 329
중국의 정치전략: 정치개혁을 중심으로 / 김영진 • 330
중국의 대외전략: 동북아 및 한반도정책을 중심으로 / 문흥호 • 331
중국의 경제전략: 성장과 균형의 관계를 중심으로 / 지만수 • 332
중국의 경제성장과 도시 실업 문제 / 장영석 • 333
중국의 물류전략과 동북아 물류중심지론의 재검토 / 원동욱 • 334
중국의 동북진흥전략: 한중협력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강승호 • 335

【제21권 제2호 2005년(여름) 통권 49호】

동북아공동체의 이상과 현실: 문화적 대안의 모색 / 김명섭, 이동윤 • 336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동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에 관한 연구 / 구갑우, 박건영, 최영종 • 337
동아시아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공간적 확산효과 측정: 분석모형의 구축과 사례분석 / 안승국 • 338
미국 부시행정부의 통상정책: 이념(Ideas)과 이해(Interests)의 역할 / 임혜란 • 339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 관한 국제정치이론적 고찰 / 조한승 • 340
경계와 시민: 국민국가의 국경통제는 정당한가? / 김남국 • 341
재분배의 정치와 인정(認定)의 정치 / 설 한 • 342

【제21권 제3호 2005년(가을) 통권 50호】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주의: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 김영철, 박창건 • 343
9/11테러 이후 미국 국제주의 여론의 지속성과 변동에 관한 실증연구 / 남궁 곤 • 344
전쟁의 그늘: 베트남전쟁과 미국의 동아시아정책 / 마상윤 • 345
민주화와 복지정치의 변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 김영순 • 346
정보화, 정당 정치와 대의민주주의: 변화 혹은 적응? / 강원택 • 347
지역본위투표와 합리적 선택이론: 공간모형 분석 / 문우진 • 348
국회의원의 표결 요인분석: 정당, 이념 그리고 지역구 / 이현우 • 349

【제21권 제4호 2005년(겨울) 통권 51호】

한국의 대북한 정치적 영향력 평가: 사례 비교와 원인 분석 / 김근식 • 350
중국 국가-사회관계의 변화 연구: 사회단체의 지방의회 입법 참여를 중심으로 / 조영남 • 351
화순항 해군기지 논쟁에 대한 비판적 재평가: 협력안보의 시각 / 양길현 • 352
2004 미국 대선 평가와 전망: 공화당 상승세 정체와 양극화, 약화되는 일방주의의 기반 / 김장수 • 353
독일 민주주의의 실험과 정착: 바이마르(Weimar) 공화국과 본(Bonn) 공화국의 의회민주주의 / 오향미 • 354

일본의 과거 역사인식과 야스쿠니신사 문제 / 조진구 • 355
1980년대 학생운동의 이념과 민주화운동의 급진적 확산: 반미주의의 분화와 대중화전략을 중심으로 / 조대엽 • 356

【제22권 제1호 2006년(봄) 통권 52호】

한반도 정전체제: 등장, 구조, 특성, 변환 / 박명림 • 357
한반도 평화체제: 남북한의 구상과 정책 비교검토 / 전재성 • 358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문화, 시민사회 / 김귀옥 • 359
한반도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 / 박종철 • 360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체제: 이상과 현실 / 류상영 • 361
군비통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선순환 관계를 위한 제언 / 한용섭 • 36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 전략 / 박건영 • 363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미동맹 / 이상현 • 364
한반도평화협정의 쟁점: 주체, 절차, 내용, 평화관리 방안 / 백승주 • 365

【제22권 제2호 2006년(여름) 통권 53호】

정당경쟁과 한국 지방선거의 구조화 / 황아란 • 366
사이버커뮤니티와 정보접근, 그리고 정치참여: 17대 총선과정에 나타난 인터넷의 정치적 효과 / 조성대, 정연정 • 367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협력 발전방안 / 길병옥 • 368
한국의 FTA 정책결정과정 / 최태욱 • 369
반응국가로부터 지역패권 국가로?: 패권체제의 변화, 경제위기 그리고 일본 대외경제정책 / 김기석 • 370
동북아체제구조 측면에서 본 한국의 '동북아중재자' 역할 / 송백석 • 371
러시아와 동북아 지역협력: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 장덕준 • 372

【제22권 제3호 2006년(가을) 통권 54호】

중국의 주변외교전략과 대아세안 정책 / 윤덕영 • 373
중국의 '한류' 수용과 저항: 중국 문화정체성의 국제문화관계학적 함의 / 윤경우 • 374
북한 미사일 사태와 한반도 평화 / 조 민 • 375

북한 내각의 경제적 역할과 당정관계 / 김갑식, 이무철 • 376
동아시아 거버넌스에 대한 문헌연구 / 김의영 • 377
동북아 도시의 성장전략과 거버넌스 비교연구: 부산·오사카·상하이를 중심으로 / 박재욱, 강문희, 정해용 • 378

【제22권 제4호 2006년(겨울) 통권 55호】

한국 국제정치이론의 발전과 반성: 이론과 역사의 만남 / 함택영 • 379
동아시아 국제질서 성격에 관한 일고: '대분단체제'로 본 동아시아 / 이삼성 • 380
차가워진 피: 21세기 한미 동맹정치 시론 / 강봉구 • 381
중국의 부상과 대만의 대응 / 김애경 • 382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전제조건 모색: 북한핵무장화 원인해결방안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 노병렬 • 383
민족문화자치제(National Cultural Autonomy)의 사상적 기원과 실제 / 심헌용 • 384
사이버공간의 이념과 정치: 한국 사이버 공론장의 구조 변동 / 장우영 • 385

【제23권 제1호 2007년(봄) 통권 56호】

국가정체성의 강화와 정당 양극화: 미국정치의 패러독스? / 임성호 • 386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의 정당편향적 의회전략: 유권자 성향과 개인적 리더쉽 스타일을 중심으로 / 손병권 • 387
정치양극화 시대에서 '개혁보수주의'(reform conservatism)의 특징과 한계: 존 맥케인(John McCain) 공화당 상원의원의 사례 / 안병진 • 388
양극화시대 소득수준에 따른 미국 유권자 정당일체감의 이념적 재편성 / 조성대 • 389
정치엘리트 양극화, 유권자 양극화 그리고 정치참여: 미국 연방선거조사 자료의 경험적 분석 / 엄기홍 • 390
미국 민중운동의 양극화와 정치적 영향 / 주미영 • 391
외교여론 양극화 가설의 허와 실: 이라크 전쟁과 미국여론 / 남궁 곤 • 392

【제23권 제2호 2007년(여름) 통권 57호】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변화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문제 / 김학성 • 393

한국사회 남남갈등: 기원, 전개과정 그리고 특성 / 김갑식 • 394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부신뢰: 노무현 대통령 사례를 중심으로 / 조기숙, 남지현 • 395
정치문화와 투표행위: 5.31지방선거에 나타난 인지적, 정서적, 평가적 정향과 투표참여 / 이재철 • 396
통일 이후 독일청소년 일탈문화에 대한 연구: 스킨헤드의 극우적 폭력실태를 중심으로 / 이영란 • 397
세계화와 한국 정당: 정당개혁에서의 세계모델 확산과 탈동조화 / 유진숙 • 398
문화대혁명과 그 연구 동향 및 쟁점 / 안치영 • 399

【제23권 제3호 2007년(가을) 통권 58호】

사회주의체제 전환과 이데올로기 변화: 지배이데올로기의 수정 및 퇴조 과정을 중심으로 / 양무진, 이무철 • 400
동아시아 지역안보거버넌스의 모색: 다자안보협력, 지역기구, 지구시민사회의 다층적 거버넌스 / 유 현 • 401
탈냉전기 중국의 다자안보협력 정책: 참여방식과 지지정도 / 강택구 • 402
유엔에서의 중국 외교행태에 대한 실증 연구: 안보리 표결행태를 중심으로 / 이동률 • 403
대북정책에 있어 보수·진보논쟁에 대한 고찰: 대외위협 인식의 역사적 고찰을 통한 현재의 조명 / 김용호, 최연식 • 404
'이주의 세계화'에 따른 한국의 '외국인 정책' 변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 전재호 • 405

【제23권 제4호 2007년(겨울) 통권 59호】

한국의 민주화와 외교정책: 위임형 외교정책결정의 등장과 구조 / 장 훈 • 406
정치적 세련됨과 당파적 단서: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 김도경 • 407
한국인의 이념성향 인식과 후보자 및 정당 지지 행태와의 상관관계: 16대 대통령선거와 17대 국회의원선거 비교 분석 / 진영재, 김민욱 • 408
연방제도 정립과정 비교: 안정된 연방국가 7개국의 다층구조 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 이옥연 • 409
개혁 개방에 관한 비교사회주의 연구: 중국과 러시아의 체제전환 / 장윤미 • 410

'중국적 사유화'의 역사적 경로와 함의 / 이홍규 • 411
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의 진전과 전망 / 김진영 • 412

【제24권 제1호 2008년(봄) 통권 60호】

대북포용정책의 개념, 평가, 과제: 포용의 진화 관점에서 / 김근식 • 413
북핵문제와 6자회담: 전개과정, 평가 및 과제 / 홍현익 • 414
전환기의 한미동맹: 이론과 현상 / 김기정 • 415
참여정부 국방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 백승주 • 416
동북아시대구상의 현실과 과제 / 배기찬 • 417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현황과 과제 / 박종철 • 418
중추적 중견국가론과 참여정부의 균형적 실용외교 / 이수형 • 419

【제24권 제2호 2008년(여름) 통권 61호】

한·중·일 3국의 정치적 태도 비교 연구: 민주주의와 사회경제체제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 김두식 • 420
북핵문제와 남북러 삼각 에너지협력 / 박정민 • 421
남·북한 통일방안과 통일지향적 과도체제로서의 복합국가체제: 그 수렴 가능성 탐색 / 강광식 • 422
세계화 시기 한국 재외동포정책의 쟁점과 대안: 재외동포법과 이중국적을 중심으로 / 전재호 • 423
적극적 평화 구현을 위한 멀티트랙 외교와 다층적 거버넌스의 함의: 제주 '세계평화의 섬' 사업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고경민 • 424
국내 정보활동과 기본권: 미국의 사례를 통해 본 교훈 / 신유섭 • 425
북한의 의사(疑似) 시장 기제와 생존 전략 연구: 이중경제(Dual Economy)와 버츄얼경제(Virtual Economy) 전략을 중심으로 / 이정철 • 426
박정희 시대의 민중운동과 민주주의: 재야의 기원, 제도관계, 이념을 중심으로 / 박명림 • 427

【제24권 제3호 2008년(가을) 통권 62호】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의 지지 변화: 누가 왜 바꿨나 / 강원택 • 428
정당 이합집산의 조건: 열린우리당의 변화(2003-2007) / 박경미 • 429

주체사상과 선군사상: 지배이데올로기의 변화 가능성 / 양무진 • 430
한반도적 맥락의 비판적 평화·안보담론: '평화국가담론' 재론 / 구갑우 • 431
동북아 공동체 형성의 인식론적 장애 요인: 한국에서의 반일 반중 의식 / 지병근 • 432
동아시아 통화·금융협력과 일본: 동인, 구상 그리고 한계 / 조재욱 • 433
지역경제통합과 조세경쟁: 유럽단일시장과 신자유주의적 조세정책 / 배병인 • 434

【제24권 제4호 2008년(겨울) 통권 63호】

한미동맹복원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이수훈 • 435
박정희 시대의 야당 연구 / 김수진 • 436
원내 의석분포, 대통령의 권력, 그리고 국회법개정의 방향: 민주화 이후 국회를 중심으로 / 김민전 • 437
한국 정당경쟁의 이념적 차원: 권위주의시기와 민주주의시기의 비교 / 이지호 • 438
87년체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제도변화의 논리를 중심으로 / 현재호 • 439
중국 정치 엘리트의 특성: 유형화와 그 변화 / 주장환 • 440
데칼로그 협상과 독일문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주는 함의 / 홍기준 • 441
유럽통합과 스웨덴 중립노선: 역사, 성격, 진화 / 김인춘, 김 욱 • 442

【제25권 제1호 2009년(봄) 통권 64호】

민주화 20년의 정당정치: 회색지대 속의 현실과 이론의 전개 / 장 훈 • 443
정당정치와 책임정당정치 / 가상준, 윤종빈 • 444
참여민주주의와 정당체제 / 임성학 • 445
정당정치와 진보정당의 과제: 이념구도 변화에 따른 한국 진보정당의 전망 / 정병기 • 446
정당발전과 내부 개혁 / 김영태 • 447
지방정치에서 정당정치의 위상과 과제 / 유재일, 정상호 • 448
신갈등사회와 정당정치의 위기 / 조대엽 • 449
세계화 시대의 욕망의 정치와 가치의 정치 / 김호기 • 450

정당체제와 정치적 대표성 / 윤상철 • 451

【제25권 제2호 2009년(여름) 통권 65호】

한반도의 냉전 엔드게임(Endgame)과 북미대립 / 장달중 • 452

'한국체제' 논쟁을 다시 생각한다: 87년 체제, 97년 체제, 08년 체제론을 중심으로 / 손호철 • 453

헬싱키 틀(Helsinki Framework)의 성립과정 연구: 미국, 소련, 서유럽의 전략적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 서보혁 • 454

유럽연합 지역정책의 거버넌스 방식 / 김학노 • 455

유엔글로벌컴팩의 성격과 발전방향: '사회책임(CSR)'과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ship) 되기' 대한 쟁점 검토를 통해서 / 여현덕, 박정민 • 456

중국의 조선족 인식: 용의 옆구리의 가시 / 김예경 • 457

러시아의 민주주의 발전과정과 주권민주주의 자극요인 / 이영형 • 458

기업지배구조 수렴론 비판: 국제기준/모범규준의 역사적 및 규범적 함의 / 이왕휘 • 459

【제25권 제3호 2009년(가을) 통권 66호】

탈냉전·세계화·지역화에 따른 동북아 질서 형성과 남북관계 / 이수훈 • 460

20세기 '전후보상' 개념의 형성과 변용: 한국과 일본 간의 보상문제를 중심으로 / 김명섭, 김승배 • 461

일본 FTA 정책의 형성과 변화: 행위자와 제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 이승주 • 462

'다케시마(竹島)의 날' 조례 제정에 대한 한국의 반응: 상응적 대응의 유효성과 딜레마 / 박창건 • 463

미얀마 군사정부의 장기집권 토대와 책략: 1988~2008년 / 양길현 • 464

2009 유럽의회 선거, 또 다시 이 순위 국내정치 경쟁장인가? / 한정훈 • 465

한국 정치세대의 이념적 특성과 정치행태 / 황아란 • 466

【제25권 제4호 2009년(겨울) 통권 67호】

한국에서의 중국 부상의 성격: 시각과 실제 / 이희옥 • 467

패권국 지위 변화와 동북아 질서 재편: 동북아 다자협력질서의 특징을 중심으로 / 최종건 • 468

중추적 중견국가로서의 폴란드와 국제안보제도: 안보딜레마 극복전략과 나토(NATO) 가입 결정 배경 / 이수형 • 469
북핵 문제의 성격과 해결을 위한 전략 구상 / 류길재 • 470
미국 연방의회의 의사진행방해(filibuster) 제도의 실증적 접근: 의사진행방해란 무엇이며, 왜 발생하는가? / 김준석 • 471
한국 야당의 영향력과 역할에 대한 제도적 평가 / 강원택 • 472
민주노동당의 '개방형 경선제' 논의과정과 정당 거버넌스 / 채진원 • 473
인터넷 감성이 온라인 항의 참여와 오프라인 시위 참여에 미친 영향: 2008년 촛불집회 분석 / 정일준, 김상돈 • 474

【제26권 제1호 2010년(봄) 통권 68호】

코리아, 러시아, 유라시아: 거대변동과 장기지속의 지정학 / 김명섭 • 477
유라시아의 민주주의: 통합적 설명모형의 모색과 색채혁명 / 엄구호 • 478
푸틴시대 러시아 국가자본주의의 형성과 발전: 국가경제발전모델의 관점에서 / 이종문 • 479
러시아 에너지정책의 원천: '철저한 경제'인가 혹은 '전략적 정치'인가? / 이유신 • 480
나토 확대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 고상두 • 481
'동'과 '서' 사이에서: 우크라이나의 대외전략 / 홍완석 • 482
러시아의 중앙아시아정책과 다자주의 / 고재남 • 483

【제26권 제2호 2010년(여름) 통권 69호】

한-러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공유이익과 실현전략의 관점에서 / 신범식 • 484
4월 혁명의 순환구조와 6.3 항쟁: 역사주기론의 시각 / 조대엽 • 485
설문조사의 투표율 과장 현상에 대한 연구: 거짓응답자 추출을 중심으로 / 이현우, 전시홍 • 486
체계, 선거, 그리고 대통령: 무엇이 미국의 대북정책을 결정하는가? / 이상신 • 487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에서의 대만의 대응과 딜레마 / 윤상우 • 488
중국 자원민족주의의 부상과 실태: 희토류(REEs)를 중심으로 / 김동환, 오병석 • 489

소규모 개방경제와 해외직접투자: 덴마크의 사례를 중심으로 / 배병인 • 490
세계화 시대 집단권리와 문화정체성 이슈에 관한 한 고찰 / 설 한 • 491

【제26권 제3호 2010년(가을) 통권 70호】

한국 외교정책과 여론: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시위의 이론적 함의를 중심으로 / 김학성 • 492
방패와 창의 안보딜레마: 일본의 TMD 구축과 중국의 대응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 최종건, 박창원 • 493
G20 체제의 국제정치경제적 함의와 한국의 국가전략 / 정상화 • 494
공적개발원조(ODA)와 국익: 한국 ODA 정책의 발전을 위한 함의 / 고경민, 김순임, 홍진혁 • 495
미국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사용자의 특성과 정치참여 / 송경재 • 496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둘러싼 역사인식 갈등 연구: 한국 민족주의의 '균열'을 중심으로 / 전재호 • 497
한국 정치학 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과 국제정치』를 중심으로 / 이호철 • 498

【제26권 제4호 2010년(겨울) 통권 71호】

2010 지방선거에서의 분할투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 강원택 • 499
18대 총선의 현직의원 득표율 분석 / 윤종빈 • 500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인식과 신뢰: 대중매체의 재판 관련 보도와 법원 판결에 대한 평가 / 유성진 • 501
중국의 법치 논쟁과 정치개혁 / 조영남 • 502
김정일-후진타오 시대의 북중관계: 불안정한 북한과 부강한 중국의 비대칭협력 강화 / 이상숙 • 503
후진타오 정부의 대북정책: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 이계란 • 504
북일 수교교섭에서의 미사일문제: 국제사회의 경계를 넘어서 / 박창건, 손기영, 최청호 • 505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 이후 북한 권력구조 확립의 쟁점 및 과제 / 이기동 • 506

【제27권 제1호 2011년(봄) 통권 72호】

핵무기와 국제정치: 역사, 이론, 정책, 그리고 미래 / 박건영 • 507

핵확산의 추세 vs. 비확산의 방책 / 조동준 • 508
핵폐기 사례연구: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례의 함의와 한계 / 한인택 • 509
북핵문제와 동북아 6자회담의 지정학: 역사적 성찰과 전망 / 김명섭 • 510
북한의 핵협상: 주장, 행동, 패턴 / 김근식 • 511
북핵협상 20년의 평가와 교훈 / 전봉근 • 512
21세기 변화 중의 미중관계와 북핵문 / 김흥규 • 513
한국의 핵비확산 외교와 원자력정책 / 이상현 • 514

【제27권 제2호 2011년(여름) 통권 73호】

한국 민주주의의 그늘과 사회통합의 제고: 정치사회학적 시각 / 김호기 • 515
한국 정당연구의 적실성 문제와 역사적 접근으로의 전환 / 장 훈 • 516
소셜 네트워크 세대의 정치참여 / 송경재 • 517
핵억지 형성기 최초의 전쟁으로서 6·25전쟁과 미국의 핵전략 / 유진석 • 518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와 중한관계: 천안함 사건 이후를 중심으로 / 박동훈 • 519
일본 분점국회의 교착상태에서 본 양원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최희식 • 520
러시아 북극권의 잠재력: 가능성과 문제점 / 한종만 • 521
헬싱키 최종의정서 이행과정 연구: 인권과 바스켓3을 중심으로 / 김수암 • 522

【제27권 제3호 2011년(가을) 통권 74호】

관계적 계약이론과 한미 전략동맹에서의 잔여통제권 문제 / 이수형 • 523
'서로주체적 통합'의 개념 / 김학노 • 524
월츠의 환영(幻影) / 양준희, 박건영 • 525
한국에서 정치 균열 구조의 역사적 기원: 립셋-록칸 모델의 적용 / 강원택 • 526
지역민 호감도가 정당지지에 미치는 영향 / 이갑윤, 박정석 • 527
문화적 세계관, 민주주의적 지지, 그리고 민주주의 공고화 /
박영환, 이상우, 김정도 • 528

【제27권 제4호 2011년(겨울) 통권 75호】

'제2판' 급변사태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이수훈 • 529
탈냉전 이후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 대외정책의 '주도적 위상'과 그 가능성 /
배종윤, 명세진 • 530

미중관계의 장래와 한국 외교 / 백창재 • 531
통화통합의 정치적 동인: 유럽의 경험과 동아시아에의 함의 / 배병인 • 532
유럽의회의 정책책임성: 한-EU FTA 체결과정을 중심으로 / 한정훈 • 533
미국 대통령 선거와 군사개입, 그 숨겨진 상관성 / 박종희 • 534
정당재편성 이론으로 분석한 2007 대선 / 조기숙 • 535

【제28권 제1호 2012년(봄) 통권 76호】

대변환기의 국제정치경제질서: 패권과 신자유주의 질서의 변환 / 임혜란 • 536
글로벌 금융위기, 유로존 재정위기, 유럽통합의 심화 / 최진우 • 537
글로벌 위기와 동아시아 지역주의 / 최영종 • 538
2008년 경제위기와 미중관계의 변화, 한국의 전략 / 전재성 • 539
세계경제위기와 한국형 자본주의 모델: 발전국가, 자본주의 모델 그리고 경로의존성을 중심으로 / 류석진 • 540
포스트 신자유쥬의 시대의 한국 정치: 거버넌스의 정치에 대한 소고 / 김의영 • 541

【제28권 제2호 2012년(여름) 통권 77호】

남북한 '적대적 의존관계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1972년 남한 유신헌법과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정을 중심으로 / 손호철, 방인혁 • 542
제2차 북핵위기와 미국 패권의 능력 그리고 한계 / 문병철 • 543
김정은 유일지도체계의 이행 가능성에 관한 시론적 연구: 권력엘리트 간 수평적 균열을 중심으로 / 이기동 • 544
김일성·김정일의 상징정치: 구호와 상징조형물을 중심으로 / 이승현 • 545
정치학 입문서에 나타난 서구중심주의의 완화·극복 방안 / 강정인, 정승현 • 546
한국 민주주의에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의 정치적 효과: 민주주의의 효능성에 대한 효과를 중심으로 / 강우진 • 547
석패율제도와 지역주의 완화 / 경제희, 정준표 • 548

【제28권 제3호 2012년(가을) 통권 78호】

동아시아 안보질서에서 강대국과 중견국의 헤징전략 / 이수형 • 549

콕스가 휴전선에 간 까닭: 한반도 비평화 구조와 그 작동양식 / 서보혁 • 550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숙의, 그리고 정치참여 / 박영환, 이상우 • 551
정당일체감 형성요인 분석: 정강 정당지도자 및 정당활동가 / 한정훈 • 552
동아시아 금융안전망의 실효성 제고방안 탐색: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고찰을 중심으로 / 조재욱 • 553
아태지역의 군사비 결정요인에 대한 시계열 횡단면 분석 / 김치욱 • 554
탈식민적 분단국가의 재생산: 남북한과 아일랜드-북아일랜드의 사회적 장벽 비교 / 구갑우 • 555

【제28권 제4호 2012년(겨울) 통권 79호】

중국의 부상과 한중관계의 새로운 위상 / 이희옥 • 556
중국의 공세적 외교정책 / 김재철 • 557
행위자-네트워크이론의 적용: 주요 선거에서의 북한변수를 중심으로 / 허재영, 김용호 • 558
북한의 국제경제 세계관 분석: 이미지 이론을 중심으로 / 김도형, 최종건 • 559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투표행태: 긍정적·부정적 정당태도와 회고적·전망적 평가를 중심으로 / 황아란 • 560
전후 영국의 보편적 복지국가의 발전 조건과 전환 / 김인춘 • 561
마스트리트 이후 '사회적 유럽'의 전개 / 김학노 • 562

【제29권 제1호 2013년(봄) 통권 80호】

헤게모니 퇴조와 동북아 지역정치 / 이수훈 • 563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정책: 평가와 전망 / 김용호 • 564
중국의 대(對)한반도정책: 책임대국과 시진핑의 대북정책 딜레마 / 차창훈 • 565
'수정주의적 보통국가론'의 대두와 일본 외교: 자민당 아베 정권의 재출범와 한반도정책 전망 / 박영준 • 566
푸틴 3기 러시아의 한반도정책: 변화하는 동북아에서의 적극적 역할 모색 / 신범식 • 567
유럽연합의 동북아전략과 한반도정책 / 이수형 • 568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와 대남정책: '선택적 병행' 전략을 중심으로 / 김근식 • 569

【제29권 제2호 2013년(여름) 통권 81호】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국내정치: 문제는 '밖'이 아니라 '안'이다 / 신종대 • 570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이슈가 투표행태에 미친 영향: 긍적적·부정적 이슈를 중심으로 / 이지호 • 571

박정희 신드롬과 한국의 민주주의: 네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 강우진 • 572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와 가치체계의 부조응 / 이양호, 권혁용, 지은주 • 573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정치문화의 영향력: 정치체제, 사회자본, 인류발전 접근 분석 / 우정무, 이재철 • 574

중국에서의 한국정치 연구 동향과 과제: 『韓國硏究論叢』과 『當代韓國』을 중심으로 / 박동훈 • 575

시진핑 시대의 중국 외교 전망: 중국공산당 제18차 당대회의 정치보고를 중심으로 / 조영남 • 576

【제29권 제3호 2013년(가을) 통권 82호】

오바마의 주판(珠板)과 긴 파장(波長)?: 재균형과 한반도에 대한 함의 / 박건영 • 577

햇볕정책 이후 통일담론의 지형 / 김학노, 김두현 • 578

'복합적 유권자층'의 등장?: 안철수 지지집단의 이념성향 분석 / 최종숙 • 579

정부신뢰의 선거적 기원: 이명박 집권 중반 시기를 중심으로 / 조영호 • 580

산업표준 보유 및 표준화 활동 추이로 본 한국 산업표준 정책의 특징과 변화 / 정병기, 김찬우 • 581

아일랜드섬 평화과정 네트워크의 형태변환: 합의 이후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이념과 세력의 변화를 중심으로 / 구갑우 • 582

【제29권 제4호 2013년(겨울) 통권 83호】

한국 현대정치의 이념적 지형: '민족주의의 신성화' / 강정인, 정승현 • 583

헤브라이즘 국가론 연구 / 강문구 • 584

북한이탈주민의 정치적 정향: 20·30대의 남한 거주기간 의미 분석 / 김종원, 이현우 • 585

1960년대 중반 한국의 종합제철 건설사업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전략 / 박영구 • 586
상하이협력기구(SCO) 발전과정에 대한 고찰: 러중 전략적 안보관계를 중심으로 / 박정민 • 587
화폐케인스주의와 유럽연합의 금융위기 / 구춘권 • 588

【제30권 제1호 2014년(봄) 통권 84호】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치와 경제의 동학: 장성택 숙청의 구조적 배경 / 박형중 • 589
김정은 정권의 수령제와 당·정·군 관계 / 김갑식 • 590
김정은 시대의 '김일성-김정일주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추상화 / 김근식 • 591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의 변화 가능성: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 양문수 • 592
북한에서의 국가와 시장 그리고 사회의 발견 / 정영철 • 593
김정은 시대 북한의 주변부 국가성과 국가과제 / 윤철기 • 594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전략: 지속과 변화의 '병진노선' / 황지환 • 595

【제30권 제2호 2014년(여름) 통권 85호】

극동에서 소련의 전략적 이익보장: 한국전쟁의 기원과 스탈린의 정책결정 동기 / 션즈화 • 596
한국전쟁 초기 중국군 조기파병을 둘러싼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의 동상이몽 / 김동길 • 597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중국 대북정책의 역사적 형성과 지속 / 신욱희 • 598
대북인식의 변화와 연속성: 스테레오타입적 경향을 중심으로 / 정세영, 김용호 • 599
남북관계의 국내정치적 제약요인에 관한 연구: 2007 남북정상회담을 중심으로 / 이규정 • 600
세대와 생애주기, 그리고 투표선택: 1992~2012 대통령선거 분석 / 허석재 • 601
중국 경제개혁 심화에 내재된 제도적 제약: 영도소조, 혼합소유제, 정치화된 기업지배구조 / 여유경 • 602

【제30권 제3호 2014년(가을) 통권 86호】

제18대 대선의 투표선택에 대한 방법론적 재검토: 한국 유권자는 정말로 전망적 투표를 했는가? / 장승진, 길정아 • 603

통합과 갈등의 지방정치: 통합창원시 사례를 중심으로 / 조재욱 • 604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사용자는 참여적인가?: 미국의 정치참여 유형과 SNS / 송경재 • 605

폴란드 유권자의 투표 정당 선택: 2005년 총선 이슈를 중심으로 / 박경미 • 606

지역 국제기구의 제도화와 강대국의 내전 개입 가능성 / 김상기 • 607

남북관계사의 분석 수준과 주요 의제 / 신종대 • 608

시민의 선거참여와 민주주의의 질 / 이정진 • 609

【제30권 제4호 2014년(겨울) 통권 87호】

안철수 현상의 등장과 쇠퇴: 정치사회학적 관점 / 김호기 • 610

현직후보의 선거경쟁력 분석: 2010년 기초단체장선거를 중심으로 / 황아란 • 611

제13대 국회의 원내 균열·연합 구도: 3당합당 이전 26개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 박찬표 • 612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 분석 / 한동호 • 613

시진핑 정부의 대중앙아시아 안보·경제 병진전략 탐구: 상하이협력기구(SCO)와 '신 실크로드' 구상을 중심으로 / 박병인 • 614

제2차 북미 핵갈등의 담론적 기원: 2002년 10월 3일~11월 26일, 말의 공방과 담론의 생태계 / 구갑우 • 615

한일 외교협력의 전개와 50년의 평가 / 기미야 다다시 • 616

【제31권 제1호 2015년(봄) 통권 88호】

데탕트기 북중관계의 변화와 북일관계의 전개: '두 개의 조선' 정책과 한일기본조약에 대한 시사 / 박정진 • 617

전후 한일 정책커뮤니티의 생성과 변화 / 최희식 • 618

한일 외교·통상정책 50년: 대립과 협력의 프로세스 및 메커니즘 / 김영기 • 619

한일 문화교류와 '반일' 논리의 변화: '왜색문화' 비판 언설의 궤적 / 이지원 • 620

한일 지방자치단체 협력의 전개: 자매도시 결연전략 / 오니시 유타카 • 621

【제31권 제2호 2015년(여름) 통권 89호】

미국의 재균형 전략과 한미동맹: 신현실주의 패권축소론의 관점에서 / 이수형 • 622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북일관계의 변화: '상황적 경직화'에서 '전략적 유연화'로 전이된 교섭 외교 / 박창건 • 623

초국적 이주, 중국조선족과 경계 설정 / 이상우 • 624

핵확산금지레짐과 관련한 유엔안보리의 역할과 한계: 북핵사례를 중심으로 / 문병철 • 625

한국 평화연구의 현황과 과제 / 서보혁 • 626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과 복지선호: 기술특정성과 국가정체성의 역할 / 이보윤, 김동훈 • 627

복지부문 정부역할 확대 여부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 황아란, 이지호 • 628

【제31권 제3호 2015년(가을) 통권 90호】

지식인의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 강문구 • 629

사람들은 왜 성장주의를 지지하는가?: 성장주의 결정요인에 대한 경험분석 / 강우진 • 630

주체사상의 순수 이데올로기화와 새로운 실천 이데올로기의 등장 / 정영철 • 631

유라시아의 지정학, 민족 균열, 그리고 재민주화: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사례 비교 / 이선우 • 632

한국의 對중국 공공외교 전략과 실행 분석 / 백우열 • 633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의 딜레마: 전환과 지속의 갈림길에서 / 이정남 • 634

【제31권 제4호 2015년(겨울) 통권 91호】

김정은 정권의 현지지도 수행빈도를 통해 본 엘리트 변동 연구: 주요 인사의 로동신문 등장빈도 분석을 중심으로 / 진희관 • 635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전략과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 거부권 행사자 이론의 관점에서 / 오성익 • 636

평화협상과 지역 국제기구의 역할 / 김이연 • 637

그리스 채무드라마와 유로위기: 유로위기의 구조적 배경과 유럽연합의 위기 대응 변화 / 구춘권 • 638

지역발전 격차론과 지역투표에 관한 탐색적 연구: 1988~2012년 총선의 선거구별 집합자료 분석 / 박경미 • 639

동성결혼 합법화는 어떻게 가능하였는가?: 여론과 정당정치 그리고 연방주의 / 유성진 • 640

【제32권 제1호 2016년(봄) 통권 92호】

내부 정체성 갈등과 외부 개입의 정치: 중동 민주주의 발전의 근원적 불안정성 고찰 / 김강석 • 641

『야만의 경영』을 넘어: IS의 이슬람국가와 지하드 / 박현도 • 642

이란 핵협상 타결과 북한 핵문제: 오바마의 적대국 관여외교와 한반도 통일문제 / 황지환 • 643

시리아 난민사태: 인도적 위기의 안보적 접근과 분열된 정치적 대응 / 이신화 • 644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두 국가 해결론(Two-State Solution)'에 대한 고찰 / 안승훈 • 645

이란-사우디아라비아 관계: 결정요인과 전개방향 / 유흥태, 한인택 • 646

미국과 러시아의 대(對)중동정책 변화 고찰: 오바마와 푸틴 정부의 지정학적 중동전략을 중심으로 / 인남식 • 647

【제32권 제2호 2016년(여름) 통권 93호】

한반도 문제의 해결방법에 관한 제도주의적 접근 / 김학성 • 648

카터 행정부기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3자회담 / 홍석률 • 649

북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과 대응: 북한의 제1~4차 핵실험을 중심으로 / 박정민 • 650

민주화 이후 정권변동에 따른 복지정책의 변화 / 이정진 • 651

국회의 이민정책 결정과 정당정치: 제18대 국회를 중심으로 / 설동훈, 전진영 • 652

'좋은 정부' 인식의 구성요소: '정부의 질' 속성을 중심으로 / 황아란, 이지호 • 653

【제32권 제3호 2016년(가을) 통권 94호】

미국의 미사일방어정책: 역사적 고찰과 전략적 함의 / 이수형 • 654

한국의 안보와 사드(THAAD) / 박건영 • 655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쟁과 평가기준: 전문가 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 최영미, 곽태환 • 656

대북 경제제재의 실효성 분석: 식량지원 중단을 중심으로 / 허재영, 정진문 • 657

OECD 국가의 내부자-외부자 정치와 세대: 사회정책 선호와 정부당파성 효과 / 박연수, 권혁용 • 658

정당의 정치사회화 기능에 관한 탐색적 연구: 동·서독 출신의 정당일체감과 정치적 태도 / 박경미 • 659

탈냉전기 미국과 중국의 국제정치적 영향력 변화에 관한 실증분석 / 김상기 • 660

【제32권 제4호 2016년(겨울) 통권 95호】

분점정부와 법안흥정: 일본의 사례, 1986~2009 / 김 정 • 661

일본 포퓰리스트 극우정당의 약진과 한계: 일본 유신회를 중심으로 / 조재욱 • 662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분쟁 가능성에 대한 연구: 군사전략 분석을 중심으로 / 김대성 • 663

북한의 '수령권력'체제의 생성과 메커니즘 / 최경희 • 664

유로자본주의의 형성과 독일모델의 재편 / 구춘권 • 665

【제33권 제1호 2017년(봄) 통권 96호】

중국의 부상, 세계질서의 위기, 그리고 동아시아: 한국의 전략 / 김태현 • 666

중국의 부상과 지정학의 귀환 / 이호철 • 667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외교의 잭슨주의 전환 / 서정건, 차태서 • 668

중국과 자유주의 무역질서: 중국, 보호주의, 그리고 WTO 분쟁을 중심으로 / 문 돈 • 669

중국의 부상과 국제통화·금융질서의 미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붕괴될 것인가? / 정진영 • 670

동아시아 지역경제질서의 다차원화: 지정학과 지경학의 상호작용 / 이승주 • 671

【제33권 제2호 2017년(여름) 통권 97호】

경제안보연계분석: 동아시아에 대한 적실성의 점검 / 김기석 • 672

한국 유권자 투표행태의 지속과 변화: 통합자료 분석 / 문우진 • 673

지역주의 정당구도의 지속과 변화: 경쟁적 가설의 경험적 검증을 통한 전망 / 김용철, 조영호 • 674

박정희 정권은 '군부' 지배체제였나: 군 출신 정치엘리트 충원을 중심으로 / 김인균, 강원택 • 675

제헌헌법 전문(前文)의 "대한민국"은 무엇을 지시하는가: 전문 삽입과정과 당대 정치현실을 중심으로 / 황하빈, 강정인 • 676

제임스 로즈노(James Rosenau)의 변화 개념으로 본 분단국가의 대(對)정책: 대북정책 수립에 주는 역설 / 박정진 • 677

【제33권 제3호 2017년(가을) 통권 98호】

미-중관계와 한국 대미편승전략의 한계: 사드배치의 사례를 중심으로 / 김재철 • 678

한국 민주주의에서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민주적 지지 / 강우진 • 679

정당의 후보 경선과 유권자 인식: 제19대 대선의 주요 정당을 중심으로 / 한정훈 • 680

아프리카에서의 대한민국 국제평화활동 확대 방향 / 박동순 • 681

남북한 체제성격의 비교: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체제성격 변화를 중심으로 / 윤철기 • 682

북한의 시장화 실태와 시장권력 관계 고찰: 향후 북한 정치변동에의 함의 / 김근식, 조재욱 • 683

【제33권 제4호 2017년(겨울) 통권 99호】

촛불의 정치적 효과: 정치적 불만과 참여의 활성화 / 유성진 • 684

'성균형의회'에 대한 제20대 국회의원의 인식 분석 / 신기영, 황아란 • 685

1960년대 한국의 중립국 및 공산권 정책 수정에 대한 논의 / 도지인 • 686

김정은 리더십과 북한의 대외정책 / 이상근 • 687

북한 전략군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연구 / 장철운 • 688

【제34권 제1호 2018년(봄) 통권 100호】

지방 분권과 민주주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지방 분권의 이론과 요건 / 정병기 • 689

한국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 성공을 위한 제도적 고려사항 / 강원택 • 690

주민참여와 지방 거버넌스 / 가상준 • 691

지방분권 실현의 제약 요인과 정치적 대표성: 정치적 매개체로서 정당의 필요성 / 박경미 • 692

한국의 정당분권과 지방분권: 메시지, 정치적 분권과 재정적 분권 / 임성학 • 693

남북통일과 지방분권: 쟁점과 과제 / 김용복 • 694

지방정부와 국제정치: 다층거버넌스 시대 지방정부의 대외관계 / 차재권 • 695

『한국과 국제정치』 발간 100호로 본 정치학 연구의 동향과 과제 / 이호철 • 696

【제34권 제2호 2018년(여름) 통권 101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 상징정치이론과 경제이익이론을 이용한 시계열 분석 / 김기동, 김효빈, 정재도, 오건영, 엄광용, 이재묵 • 697

케네스 월츠의 핵확산 낙관론과 북한 핵문제 / 유진석 • 698

북한문제의 과잉정치화와 극단적 양극화 분석: 갈등전환(Conflict Transformation)의 제도화 모색 / 이무철 • 699

대북 및 안보정책 평가의 세대 및 이념요인 / 배진석 • 700

평창 '임시평화체제'의 형성 원인과 전개: 한반도 안보딜레마와 한국의 '삼중모순(trilemma)' / 구갑우 • 701

세계금융의 바퀴에 모래 뿌리기: 토빈세/금융거래세의 정치경제 / 정진영 • 702

【제34권 제3호 2018년(가을) 통권 102호】

'태극기 집회', 박정희와 한국 보수주의 / 양웅석, 황선영, 강성식, 강원택 • 703

2000년대 한국의 '탈민족주의' 논쟁 연구: 주요 쟁점과 기여 / 전재호 • 704

남북관계의 변화와 남남갈등 / 정영철 • 705

'북핵' 위협인가, 북핵 '위협'인가: 북핵 안보담론 구성 요소 고찰 / 윤성원 • 706

북미화해와 한일균열: 센토사 합의 이행 협상의 구조적 속성과 귀결 / 김 정 • 707

한중 수교에서 '북한요인'의 변화 및 영향 / 이동률 • 708

【제34권 제4호 2018년(겨울) 통권 103호】

미국 패권은 예외적인가?: 아이켄베리의 자유주의 국제질서 이론 비판 / 이혜정, 전혜주 • 709

1990년대 비대칭적 한미동맹 변화와 한국의 선택 / 황지환 • 710

한국 비구속성 원조의 실질적 구속화 현상에 대한 탐색적 연구 / 남수정, 정헌주 • 711

2018년 교육감 선거의 투표행태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 강우진, 배진석 • 712

김정은의 신외교와 독재자의 딜레마(Dictator's Dilemma), 그리고 빅데이터 역설(Big Data Paradox) / 김용호 • 713

북중 접경도시의 스케일의 정치: 신압록강대교 건설 18년을 중심으로 / 이경수 • 714

시진핑 친정체제 구축 방식과 그 함의에 관한 연구: 지도이념, 권력구조 개편과 통치 정당성 강화를 중심으로 / 이상만, 김동찬 • 715

【제35권 제1호 2019년(봄) 통권 104호】

북한 내외 대외·대남 전략 구상의 특징과 결정요인: 북핵문제와 강압전략을 중심으로 / 정성윤 • 716

비핵화 모델의 사례와 교훈: 문재인 정부의 '코리아 모델'은 성공 가능한가? / 김근식 • 717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귀환: 미국우선평화 대 병진평화 / 황지환 • 718

북핵과 북미 관계: 미국 주도 질서 속 북한의 주권적 지위 문제 / 전재성 • 719

미국의 대북제재와 경제적 관계정상화 전망 / 임수호 • 720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전략과 역할 / 이동률 • 721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와 일본 아베 정부의 입장 / 박영준 • 722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 이호철 • 723

정당의 명칭변경에 대한 한국 유권자의 인식과 정당일체감 / 한정훈 • 724

지역균열의 유지와 변화: 제19대 대선의 경험적 분석 / 윤광일 • 725

【제35권 제2호 2019년(여름) 통권 105호】

2018년 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이념성향과 정책 공약에 관한 연구 / 서현진 • 726

한국의 반일(反日) 민족주의 연구: 담론의 변화와 특징 / 전재호 • 727

김정은 시대 북한 핵 개발의 국내정치동학: '정당성의 정치'와 '핵 민족주의' / 조영임, 안경모 • 728

미국의 중국정책 전환과 미중 무역분쟁 / 이지용 • 729

중국 엘리트 정치의 제도화 과정 분석: 연령제와 민주추천제의 도입 사례 / 조영남 • 730

【제35권 제3호 2019년(가을) 통권 106호】

'한국조항'의 문제: 한미일 관계 속의 한일관계 / 신욱희 • 731

휴전협상에서 북·중·소 3국의 태도 변화 및 결과 / 김동길 • 732

미국의 대한정책을 통해 본 한반도 중립국화 방안 / 박태균 • 733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성격은 변화하고 있는가?: 당·정·군 현지지도 네트워크 분석 / 표윤신·허재영 • 734

숙의민주주의 지향의 선거법규제의 전환: 선거운동방식규제에서 비용중심규제로 / 채진원 • 735

저출산·고령화 시대 아베 정부의 성장전략 / 송지연 • 736

【제35권 제4호 2019년(겨울) 통권 107호】

영국 거주 북한이주민의 고국 정치 / 이수정 • 737

한국군 유엔 평화유지활동 평가와 과제: 위임명령, 제도화, 주민만족도를 중심으로 / 박순향 • 738

앙골라 분쟁 해결이 평화통일을 위하여 한반도에 주는 의미 / 김정기 • 739

신흥무대의 중견국 보건외교: 브라질, 스웨덴, 스위스 사례와 한국 / 조한승 • 740

촛불시위의 정치학: 미시적 분석, 거시적 주장, 다층적 비교연구 / 정재관 • 741

2019년 홍콩 시위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인권 정치학의 제이론을 통해 본 중국의 행동 / 유영수 • 742

【제36권 제1호 2020년(봄) 통권 108호】

탈냉전 "30년의 위기": 다시, 에드워드 할렛 카를 읽는 시간/ 차태서·류석진 • 743

단극의 환상과 현실: 탈냉전기 미국 대전략의 진화 / 이혜정 • 744

탈냉전 이후 세계화: 심층 통합, 보호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기 / 이승주 • 745

탈냉전기 미 동맹질서의 변화 양상과 자유국제주의 질서의 지속성 / 김영호 • 746
수용과 충격: 중국의 부상과 자유주의 세계질서 / 김재철 • 747
'중국특색적 자유주의국제질서' 하의 예외주의 정치문명의 충돌? / 박건영 • 748
탈냉전 30년과 한반도: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 전봉근·김태현 • 749
제2기 김정은 정권의 정책방향과 권력 조직의 구조: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를 중심으로 / 박정진 • 750

【제36권 제2호 2020년(여름) 통권 109호】

온라인 환경이 청중비용 메커니즘에 미치는 영향 고찰 / 김재학·김이연 • 751
중견국 이론 정교화: 구조적 접근과 한국의 중견국 정치 / 반길주 • 752
아베 시기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전략 / 조은일 • 753
중국은 왜 코로나19의 초기 대응에 실패했는가? / 조영남 • 754
디지털 시대 민주주의의 지능성: 대의 정부에 대한 이론적 검토 / 김 정 • 755

【제36권 제3호 2020년(가을) 통권 110호】

한국의 샌프란시스코평화회담 참가문제와 배제과정 / 정병준 • 756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한미일 관계의 위계성 구성 / 신욱희 • 757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한일관계: 한일냉전의 기원으로서 '제4조' 문제 / 남기정 • 758
'식민지 건축 유산'에 대한 인식 변화와 반일(反日) 민족주의: 일제 잔재에서 근대문화유산으로 / 전재호 • 759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정치적 갈등이 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 송지연 • 760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중·한중 관계 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이재영 • 761

【제36권 제4호 2020년(겨울) 통권 111호】

한국인들은 어떤 민주주의를 왜 선호하는가?: 엘리트민주주의 대 참여민주주의 / 구본훈·민정훈·조영호 • 76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개발재원으로서 한국의 기타공적자금(OOF) 배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정헌주·변지영·남수정·김은미 • 763
유엔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관련 논쟁의 구조와 쟁점 / 손한별 • 764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북한 관련 인식태도: 2018년과 2019년 비교를 중심으로/ 이성우 • 765
1950년대 북한의 독일 국가연합 통일방안 수용과 한반도 평화공존의 상상 / 김태경 • 766
김정은 정권의 대남전략(2018-2020): '세 가지 기둥'과 '정면돌파전'을 중심으로 / 안경모·강혜석 • 767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전략적 선택: 21세기 부국강병의 길 / 정영철 • 768

【제37권 제1호 2021년(봄) 통권 112호】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정부-시민관계: 정치신뢰를 중심으로 / 오현진 • 769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의 국가 자긍심: 방역 주체의 코로나 대응 평가와 유권자의 정당 선호를 중심으로 / 길정아 • 770
당파적 태도가 코로나19 관련 대응평가에 미치는 영향 / 배진석 • 771
코로나19 위기 속 돌봄의 공공성과 국가 역할에 대한 인식 / 박선경·김희강 • 772
코로나19와 국가역할 확대에 대한 국민 인식: 이념성향, 재난피해, 정부대응, 재난지원금의 영향 / 박선경·신진욱 • 773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성공 조건: 한국 사례의 비교연구 / 김 정 • 774

【제37권 제2호 2021년(여름) 통권 113호】

미국패권 변화의 동학과 세계체계분석의 경계들: 이론적 대안 모색을 위한 시론 / 공민석 • 775
신냉전 시대 북극해 딜레마: 국제체제적 분석과 전망 / 반길주 • 776
김정일의 권력 승계 과정에 대한 연구: '216'의 정치상징화 지속과 북베트남의 교훈을 중심으로 / 김상범 • 777
아베 정권기 개헌 실패의 분석: 개헌과정의 합의제적 특성과 개헌 프레임의 모순을 중심으로 / 김성조 • 778
바이든 행정부의 동아태 전략과 한미관계: 관여-헤징의 전략모순 / 윤대엽 • 779
중국의 데이터 자원화와 미중 전략경쟁의 성격 변화 / 이인우·이희옥 • 780
한반도 평화체제 만들기의 국제정치적 기원: 북한자료를 통해서 본 정전협정 4조 60항의 합의과정 / 구갑우 • 781

【제37권 제3호 2021년(가을) 통권 114호】

의회-지배인(Council-Manager) 모델은 한국 지방정치에 적실한 정부형태인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에 관한 비판적 검토 / 김한나 • 782

지경학의 시대: 주체/구조와 안보/경제의 수평적 상호작용 / 신욱희 • 783

보장과 통제: 1987년 수출통제 양해각서로 본 한미동맹의 교환 메커니즘 / 이재원 • 784

대중문화, 소프트파워, 역사에 대한 기억: 일본 대중문화와 일본 정부 과거사 사죄에 관한 미국 국민의 정치인식 / 장기영 • 785

중국의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인식 및 정책: 중국몽(中國夢) 실현 과정 속 '도전'을 '기회'로 만들기 / 서정경 • 786

【제37권 제4호 2021년(겨울) 통권 115호】

해방 후 단군 인식의 변화에 관한 연구: 단군 민족주의의 약화와 국수주의의 확산 / 전재호 • 787

비대칭 동맹에서 자율-안보 교환 모델의 적실성에 대한 비판적 연구: 1988년 한국의 SDI 참여 결정과 이후 전개를 중심으로 / 김재학·김성현·배종윤 • 788

탈냉전기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역할 변화 / 임기훈 • 789

2018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구조적 분석: '제재의 정치'와 북한의 미래 / 안경모 • 790

러시아의 영토확장 행동에 대한 나토와 미국의 군사적 대응 연구: 2008년 러시아-조지아 전쟁, 2014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심으로 / 남보람 • 791

【제38권 제1호 2022년(봄) 통권 116호】

한반도 국제관계, 1972~2022: 시공간 복합체 시론 / 이혜정 • 792

1972년 데탕트의 한계와 국제질서의 혼돈 / 김명섭 • 793

한국 외교정책 50년의 검토와 평가: 중소국 외교론의 관점에서 / 김태현 • 794

미중 경쟁과 한국의 대응: 냉전의 역사로부터 교훈 찾기 / 마상윤 • 795

한일관계: 50년의 경험과 교훈 / 박철희 • 796

남북관계: 50년의 경험과 교훈 / 홍용표 • 797

기술과 국제정치: 기술 패권경쟁시대의 한국의 전략 / 이승주 • 798
미래 50년 한반도 국제정치와 한국의 선택 / 전재성 • 799
유권자 정책 평가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패널 데이터로 본 문재인 정부 후반기 신뢰 하락 분석 / 노기우·신정섭·조영호 • 800
한반도 평화협정과 한반도 영구평화: 평화협정 전문과 목표·이론·내용·과제의 축조해설 / 박명림 • 801

【제38권 제2호 2022년(여름) 통권 117호】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전략경쟁: 쟁점과 접점 / 김예경 • 802
해상수송로 안보와 미국의 외교정책: 레이건 행정부의 쿠웨이트 유조선 군사적 보호 결정 / 장성일 • 803
중국의 정보통제와 코로나19 초기대응 / 정연주 · 신은비 • 804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아베 정부의 노동시장과 사회복지정책 / 송지연 • 805
북한 시장화의 정치학: 김정은 시대, 경제적 변화의 정치적 함의 / 윤철기 • 806
한국 유권자의 정치 양극화와 투표 선택: 2012년 및 2022년 대통령 선거 비교 / 김 정 • 807

한국과 국제정치

KOREA & WORLD POLITICS

1985 ~
1989

남북한간의 갈등과 화해에 관한 이론적 구상

곽 태 환

1984년 남북 경제회담에 대한 연구

김 학 준

Ⅰ. 머리말
Ⅱ. 한반도 주변환경의 변화와 그것이 남북한 관계에 준 영향
Ⅲ. 한반도 내부에서의 변화와 그것이 남북한 관계에 준 영향
Ⅳ. 남북한 경제회담의 전망과 대책

한국과 중공의 관계개선에 관한 방안연구

신 명 순

Ⅰ. 서론
Ⅱ. 한국 · 중공관계의 전개
Ⅲ. 한국과 중공간의 관계개선에 관한 인식과 태도
Ⅳ. 한국 · 중공관계개선의 분야와 방안
Ⅴ. 결론

미국 · 중공 관계:
상호 작용의 한계

스티븐 레빈

Ⅰ. 서언
Ⅱ. 미 · 중공관계의 제도화(1979~81)
Ⅲ. 미 · 중공관계에 드리운 암운
Ⅳ. 1980년대 미 · 중공관계의 전망
Ⅴ. 미 · 중공관계의 장래에 관한 몇 가지 단상
Ⅵ. 결론

현대전략의 이해

백 종 천

Ⅰ. 분석의 시각
Ⅱ. 전략의 다양한 의미
Ⅲ. 전략의 내용
Ⅳ. 전략의 유형
Ⅴ. 전략의 접근방법
Ⅵ. 현대전략의 고려요소
Ⅶ. 결론: 전략가의 문제의식

영 · 불 양국의 핵전략이론과 한국의 핵개발에 관한 소고

김 윤 암

Ⅰ. 서언
Ⅱ. 영국의 핵전략이론
Ⅲ. 프랑스의 핵전략이론
Ⅳ. 한국의 핵개발정책
Ⅴ. 결론

한 · 미방위조약과 미 · 일안보조약 비교

백 봉 종

Ⅰ. 서언
Ⅱ. 체결배경과 발전
Ⅲ. 주병권과 적용범위
Ⅳ. 협의사항
Ⅴ. 결론

아시아 · 태평양문제 기초연구: 지역협력 구상을 위한 방법론적 시안

박 재 규
정 태 동
염 홍 철

Ⅰ. 서 론
Ⅱ. 아시아 · 태평양 지역권의 개념 및 지역주의
Ⅲ. 아시아 · 태평양 지역협력체 구상의 배경과 그 전개
Ⅳ. 아시아 · 태평양 지역협력체 시안들의 분석
Ⅴ. 아시아 · 태평양 지역협력체 구상의 주요 문제점
Ⅵ. 한국과 아시아 · 태평양 지역협력체 구상
Ⅶ. 결 론

중공의 권력구조:
제도적 접근

최 명

Ⅰ. 머리말
Ⅱ. 공산당
Ⅲ. 정 부
Ⅳ. 군
Ⅴ. 문제와 전망

중공의 정책집행과정:
당중앙과 지방단위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 진 영

Ⅰ. 문제의 제기
Ⅱ. 정책결정과 정책집행과정
Ⅲ. 사례연구: 다자이(大寨)운동의 전개
Ⅳ. 결론

중공의 외교정책 변화:
이데올로기와 이익의 갈등

장 달 중

중공:
혁명에서 개혁까지

마리-끌레르 베르제르

Ⅰ. 중공의 새로운 변모
Ⅱ. 개혁(réforme)과 조정(readjustment)
Ⅲ. 鄧(등)은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중공에 있어서 제개혁의 정치경제

안 병 준

Ⅰ. 제개혁의 대방향: 정책, 권력 및 노선
Ⅱ. 4개현대화와 개혁정책
Ⅲ. 정치제도화와 세대교체
Ⅳ. 대만 및 홍콩문제와 민족주의
Ⅴ. 중국식 사회주의란?

중공의 군사정책변화와 국방현대화

김 동 성

Ⅰ. 서론
Ⅱ. 국방정책 형성의 내외조건
Ⅲ. 중공군의 성장과 정책변화: 건국이후 1970년대까지
Ⅳ. 신국방전략과 군사독트린
Ⅴ. 국방현대화와 군대의 정돈
Ⅵ. 문제점과 전망

중공의 경제법:
입법의 배경 및 현황

박 춘 호

Ⅰ. 서론
Ⅱ. 6법전서 폐기
Ⅲ. 헌법의 변천
Ⅳ. 경제법 입법작업
Ⅴ. 몇가지 특성
Ⅵ. 경제법규 편람현황
Ⅶ. 기본법과 전문법
Ⅷ. 합영과 합작
Ⅸ.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경제법
Ⅹ. 타법령의 경제관계조항
Ⅺ. 결어

일본과 남북한관계:
남북한대화에 있어 일본의 역할을 중심으로

신 정 현

Ⅰ. 서론
Ⅱ. 일본의 대한반도정책
Ⅲ. 일본과 남북한대화
Ⅳ. 결론

일본의 선거제가 정당제에 미치는 영향

이 갑 윤(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Ⅰ. 서론
Ⅱ. 일당지배적 정당제와 중선거구제
Ⅲ. 선거관리의 효율성
Ⅳ. 후원회
Ⅴ. 야당의 다원화
Ⅵ. 선거구 크기의 불평등
Ⅶ. 결론

일본신문의 정치적 특성:
「조일」, 「독매」, 「매일」을 중심으로

이 정 복(서울대 정치학과 부교수)

Ⅰ. 서언
Ⅱ. 일본신문의 역사적 특성
Ⅲ. 일본신문인의 태도
Ⅳ. 일본신문의 구조적 특성
Ⅴ. 전후일본신문의 정치적 특성

현대일본외교와 상호의존의 국제정치

신 희 석(외교안보연구원 교수)

Ⅰ. 서언: 문제의식의 소재
Ⅱ. 전후 일본외교정책의 기조형성
Ⅲ. 경제성장과 일본외교의 변용
Ⅳ. 경제대국으로서의 일본외교의 시련
Ⅴ. 현대 일본외교의 전망: 내쇼날리즘

일본방위논쟁의 현실적 여건과 이론적 구조

김 용 서(이화여대 행정학과 부교수)

Ⅰ. 서론
Ⅱ. 논쟁의 단계별 전개과정
1. 제1기: 이상주의의 도전기
2. 제2기: 현실주의우위의 안정기
3. 제3기: 다원화에의 전환기
Ⅲ. 결론

전후 일본천황제와 일본인의 원형

김 용 운(한양대 도서관장)

Ⅰ. 서론
Ⅱ. 일본인의 원형과 천황제
Ⅲ. 천황제의 변천
Ⅳ. 전후의 천황
Ⅴ. 천황의 위치
Ⅵ. 맺음말

일본기업의 중공시장진출과 한국기업의 대중접근방향

이 종 윤(한국외대 무역학과 조교수)

Ⅰ. 문제의 설정
Ⅱ. 중공경제의 발전구조와 개방화 정책
Ⅲ. 일본형 해외직접투자의 논리구조
Ⅳ. 일본기업의 대중공진출과 그 전략적 특징
Ⅴ. 한국기업의 대중공접근방향
Ⅵ. 결론

미일무역분규

주 준 희(한국여성개발원 책임연구원)

Ⅰ. 서론
Ⅱ. 미일무역분규의 개요
Ⅲ. 미일 양측의 입장
Ⅳ. 분규의 주요원인
Ⅴ. 결론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이즈미 하지메(일본 평화 · 안보보장연구소 연구원)

Ⅰ.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기본적 입장
Ⅱ. 「한일경제협정」에 대한 일본의 정책
Ⅲ. 나카소네(中曾根)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70년대 이후의 한일관계

한 배 호(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양국관계에 미친 국내외적 조건
Ⅱ. 미중관계와 한일간의 긴장관계
Ⅲ. 국교정상화 이후의 한일관계 기본 골조
Ⅳ. 80년대의 한일관계

베트남의 정치적 통합:
당 · 국가기구와 대중조직을 중심으로

박 종 철(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Ⅰ. 머리말
Ⅱ. 당의 조직과 운영
Ⅲ. 국가기구와 행정조직
Ⅳ. 대중조직
Ⅴ. 맺는 말

베트남 정치리더쉽의 변화

이 계 희(충남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Ⅰ. 머리말
Ⅱ. 해방전쟁에서 통일의 정치로
Ⅲ. 당 · 정부엘리트의 변동
Ⅳ. 정치적 리더쉽의 문제점
Ⅴ. 맺는 말

베트남의 사회주의 경제개발계획의 내용과 특성

안 승 욱(경남대 경제학과 조교수)

Ⅰ. 머리말
Ⅱ. 제2차 5개년계획
Ⅲ. 제2차 5개년계획의 결과와 평가
Ⅳ. 경제자유화 정책
Ⅴ. 신경제정책 이후의 동향
Ⅵ. 베트남 경제개발계획의 특징
Ⅶ. 맺는말

캄푸치아분쟁의 원인과 경과

최 청 호(경남대 정치외교학과 전임강사)

Ⅰ. 서론: 캄푸치아분쟁을 보는 눈
Ⅱ. 분쟁발생의 배경
Ⅲ. 분쟁의 진전
Ⅳ. 분쟁관련국들의 입장과 분쟁해결 노력
Ⅴ. 결론

중 · 월전쟁의 원인과 결과

정 천 구(인천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Ⅰ. 서론
Ⅱ. 전쟁이전의 양국관계발전
Ⅲ. 전쟁의 원인
Ⅳ. 전쟁의 성격과 결과
Ⅴ. 결론

외교사적으로 본 베트남과 태국과의 분쟁: 베트남공산화 전후시기를 중심으로

김 기 태(한국외대 베트남어과 교수)

Ⅰ. 서론
Ⅱ. 역사적으로 본 태국과 베트남
Ⅲ. 태국공산당과 베트남
Ⅳ. 미국의 대인도차이나정책과 태국의 베트남전 개입
Ⅴ. 베트남전 종전과 태국
Ⅵ. 베트남 통일정부수립과 태국
Ⅶ. 베트남의 캄푸치아침공 이후의 태국과 베트남
Ⅷ. 결론

베트남과 미국의 관계

김 국 진(외교안보연구원 교수)

Ⅰ. 서론
Ⅱ. 베트남의 유엔가입문제
Ⅲ. 월남전 중 발생한 미국인 실종자의 확인문제
Ⅳ. 미 · 베트남간 외교정상화이슈
Ⅴ. 캄푸치아분쟁과 미 · 베트남관계
Ⅵ. 결론

베트남과 일본의 관계

강 태 훈(단국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Ⅰ. 서론
Ⅱ. 캄푸치아분쟁 이전의 베트남과 일본관계(1940-1978)
Ⅲ. 캄푸치아분쟁 이후의 베트남과 일본관계(1978-현재)
Ⅳ. 요약과 결론

베트남의 팽창주의와 아세안

양 승 윤(한국외대 말레이 · 인도네시아어과 전임강사)

Ⅰ. 서론
Ⅱ. 베트남의 지역패권추구와 아세안의 딜레마
Ⅲ. 베트남 팽창주의의 한계와 인도차이나의 국제환경
Ⅳ. 아세안의 부각과 베트남의 접근정책
Ⅴ. 결론

베트남과 중공관계

황 병 무(국방대학원 교수)

Ⅰ. 머리말
Ⅱ. 베트남통일 이전의 베트남 · 중공 관계
Ⅲ. 베트남통일 이후의 베트남 · 중공 관계
Ⅳ. 맺는말

베트남과 소련관계:
명암과 전망

문 수 언(숭전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Ⅰ. 베트남과 소련관계의 근황
Ⅱ. 베트남과 소련관계의 이면
Ⅲ. 베트남과 소련관계의 전망
Ⅳ. 맺는 말

[연구논문]

북한의 대서방교역과 개방화정책

연 하 청(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Ⅰ. 서론
Ⅱ. 북한의 합영법의 내영과 문제
Ⅲ.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추이
Ⅳ. 북한의 무역규모 및 수지
Ⅴ. 북한의 대서방권무역
Ⅵ. 요약 및 결론

[연구논문]

한국 안보문화에 대한 경험적 연구

백 종 천(육군사관학교 사회과학과 부교수)
서 춘 식(육군사관학교 사회과학과 조교수)

Ⅰ. 서론
Ⅱ. 설문결과 분석
Ⅲ. 요약 및 결론

[연구논문]

SDI의 배치와 신냉전체제의 형성

최 병 운(공군사관학교 전임강사)

Ⅰ. 서론
Ⅱ. SDI개발의 필요성
Ⅲ. 소련의 대응조치
Ⅳ. 신냉전체제의 형성
Ⅴ. 신냉전체제의 문제점
Ⅵ. 결론

[연구논문]

한국과 국가이익우선의 문제점

구 영 록(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Ⅰ. 서론
Ⅱ. 국가이익의 개념
Ⅲ. 국가이익과 외교정치
Ⅳ. 국가이익과 한국
Ⅴ. 국가이익과 한국의 문제
Ⅵ. 결론

[연구논문]

한국안보와 해양력

박 재 규(경남대 총장)

Ⅰ. 서론
Ⅱ. 남북한의 해양력
Ⅲ.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변화와 한국해군력
Ⅳ. 결론

[연구논문]

미국의 대한정책, 1945~1948: 현실주의적 관점과 수정주의적 관점

오 재 완(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강사)

Ⅰ. 머리말
Ⅱ. 신탁통치와 점령
Ⅲ. 미군정의 초기 점령정책
Ⅳ. 대소강경정책과 미 · 소협상
Ⅴ. 봉쇄전략과 대한민국의 수립
Ⅵ. 맺는 말

한국의 통일방안

이 경 숙(숙명여대 정치학과 교수)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한국 통일정책의 기조, 목표 및 전략
Ⅳ. 한국 통일정핵의 변천과정
Ⅴ. 한국의 통일방안
Ⅵ. 결론

북한의 통일정책

이 만 우(미 펜실바니아 밀러스빌주립대 정치학 교수)

Ⅰ. 머리말
Ⅱ. 북한당국 고위관리들의 통일관
Ⅲ. 북한측 태도에 대한 평가
Ⅳ. 맺는말: 통일의 꿈과 현실

한반도의 통일방안: 종합적 검토

고 병 철(미 일리노이대 정치학 교수)

Ⅰ. 북한의 통일방안
Ⅱ. 남한의 통일방안
Ⅲ. 공통분모
Ⅳ. 불일치 또는 불확실의 영역
Ⅴ. 합의점을 찾아서
Ⅵ. 난국의 타개책

남한의 비정부차원의 통일논의

이 정 복(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Ⅰ. 제1공화국시대부터 제4공화국 시대까지의 비정부차원의 통일논의
Ⅱ. 제5공화국시대의 비정부차원의 통일논의

북한의 정책변화와 통일논의

오 정 만(일본 가나가와대학 교수)

Ⅰ. 서론
Ⅱ. 민족해방운동과 투쟁수단
Ⅲ. 북한의 통일정책의 추이
Ⅳ. 북한의 통일정책과 외압
Ⅴ. 통일정책에 있어서의 연속성과 비연속성
Ⅵ. 결론에 대신하여

남북한대화와 협상전략

곽 태 환(미 이스턴켄터키대 정치학 교수)

Ⅰ. 서문: 문제의 제기
Ⅱ. 남북한대화: 1971-1983
Ⅲ. 1984년 이후 남북한대화와 협상
Ⅳ. 남북한대화의 재개와 지속을 위한 협상전략
Ⅴ. 결론: 남북한대화의 전망

남북대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서울의 시각-

김 달 술(국토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 자문위원)

Ⅰ. 1970년대의 남북대화
Ⅱ. 1980년대의 남북대화
Ⅲ. 내일의 남북대화

남북대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평양의 전략-

유 석 렬(외교안보연구원 교수)

Ⅰ. 서론
Ⅱ. 70년대의 남북대화
Ⅲ. 변측대화와 총리회담 준비접촉
Ⅳ. 수재물자전달과 남북대화 재개
Ⅴ. 전망 및 결론

미국과 남북한관계

신 정 현(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서론
Ⅱ. 한미관계의 형성과 변화
Ⅲ. 미국과 북한간의 관계
Ⅳ. 남북한관계와 미국의 입장
Ⅴ. 결론: 방향과 과제

남북한관계와 일본

안 몽 필(일본 대동문화대학 교수)

Ⅰ. 서론
Ⅱ. 한국과 일본의 관계
Ⅲ. 북한과 일본의 관계
Ⅳ.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일본

소련의 대내외정책속에서의 한반도: 주로 1986년의 경향을 중심으로

김 학 준(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Ⅰ. 머리말
Ⅱ. 제27차 소련공산당대회와 고르바쵸프의 대내외정책
Ⅲ. 고르바쵸프의 블라디보스토크 선언과 한반도
Ⅳ. 김일성의 소련방문
Ⅴ. 맺음말

최근 중 · 소 관계의 발전과 전망

박 두 복(외교안보연구원 교수)

Ⅰ.문제의 제기
Ⅱ.중 · 소 관계개선의 환경요인
Ⅲ.중 · 소관계개선의 전망
Ⅳ.결론

김일성의 「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 경험」에 대한 비판

허 동 찬(일본 도쿄도립대학 비상근 강사)

Ⅰ. 머리말
Ⅱ. 「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 경험」의 개요
Ⅲ. "제1장: 당창건을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투쟁"의 주요내용
Ⅳ.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투쟁논조에 대한 축조적 비판
Ⅴ. 맺는 말

중공 · 북한관계와 한반도: 김일성의 중공방문이 지닌 의미

다케사다 히데시(일본방위청 방위연구소 교관)

Ⅰ. 서론
Ⅱ. 일정, 수행원, 방문시간
Ⅲ. 중공 · 북한간의 불일치
Ⅳ. 중공 · 북한관계의 흐름과 쌍방의 의도
Ⅴ. 중공 · 북한관계의 전망
Ⅵ. 결론

방위력향상의 억지전략에 있어서 도덕성의 문제: 도덕적 논거에서 본 시론

Douglas G. Bond(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Ⅰ. 서론
Ⅱ. 평가를 위한 지침
Ⅲ. 핵무기의 역할변화
Ⅳ. 공격-보복의 억지
Ⅴ. 방위력향상의 억지
Ⅵ. 공동안보를 향하여

2000년대의 한 · 소 경제관계 전망

김 부 기(외교안보연구원 교수)

포스트나카소네정권과 한 · 일 관계

장 달 중(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전쟁과 한 · 미 관계의 성격;
전쟁의 원인, 과정, 결과에 비추어 본 양국관계의 역사적 성격

유 재 갑(국방대학원 교수)

Ⅰ.서론
Ⅱ.한국전쟁의 발발과 미국의 대한 정책: 억제전략의 불사용
Ⅲ.미국의 참전과 종전
Ⅳ.결론

한국과 미국간의 직접투자에 관한 연구

정 구 현(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Ⅰ. 양국의 교차투자의 규모와 특징
Ⅱ. 두나라 직접투자의 동기 및 유형
Ⅲ. 두 나라의 직접투자가 상대국에 미친 영향
Ⅳ. 결론과 확대해석

공화국의 국가와 사회:
국가구조와 정치과정

한 배 호(고려대 정책과학대학원 원장)

Ⅰ. 서언
Ⅱ. 관리적 시각에서 본 국가와 사회관계
Ⅲ. 제1공화국의 국가구조
Ⅳ. 정책과정의 특징
Ⅴ. 결언

공화국의 국가형성과 농지개혁

박 종 철(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Ⅰ. 머리말
Ⅱ. 국가형성의 보수적 권위주의체제
Ⅲ. 국가재정과 경제적 기반
Ⅳ. 농지개혁과 국가의 역할
Ⅴ. 맺는말

국가구조와 국가능력:
한국과 멕시코의 대외불균형관리정책의 비교연구

김 병 국(미 하버드대 정치학 박사)

Ⅰ. 머리글
Ⅱ. 이론적 가원
Ⅲ. 실증적 분석: 한국(1964~1982)과 멕시코(1954~1970)의 비교연구
Ⅳ. 결론: 대통령의 자율성과 국가능력

권위주의체제 성립의 정치경제학적 분석:
「유신(維新)」체제의 경우

최 완 규(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서론
Ⅱ. 분석의 틀
Ⅲ. 허용요인
Ⅳ. 유인요인
Ⅴ. 기속요인
Ⅵ. 결론: 세 가지 요인의 동시적 상호작용

한국민족주의와 정치발전 연구의 상관성:
미국비교정치학「파라다임」적용의 적실성에 대한 비판

김 동 성(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서론
Ⅱ. 미국학계의 사회과학적 접근방법
Ⅲ. 미국적「파라다임」의 문제점
Ⅳ. 한국정치학계의 정치발전과 민족주의 연구
Ⅴ. 결론

[연구논문]

한반도의 평화정착구상:
4자회담(미국 · 소련과 남북한)의 제안과 대책

곽 태 환(미 이스턴켄터키대 정치학 교수)

[연구논문]

자본주의 세계경제와 전세계적 군사화

이 수 훈(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Ⅰ. 서론
Ⅱ. 전세계적 군사화
Ⅲ. 전세계적 군사화의 구조적 원인
Ⅳ. 맺는말: 탈군사화를 위하여

[연구논문]

중공의 경제체제개혁에 관한 연구: 농촌 · 도시산업부문을 중심으로

조 한 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원)

Ⅰ. 문제의 제기
Ⅱ. 경제체제개혁의 기초
Ⅲ. 농촌경제체제의 개혁
Ⅳ. 도시농업경제체제의 개혁
Ⅴ. 경제체제개혁의 문제점 및 전망
Ⅵ. 결론

한국과 대만의 경제개발과 농업정책 연구

김 종 덕(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Ⅰ. 서론
Ⅱ. 영국 농업정책의 비교
Ⅲ. 농업정책의 유사점과 차이점의 원인
Ⅳ. 결론

한국과 대만의 토지개혁 비교연구

신 병 식(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원)

Ⅰ. 머리말
Ⅱ. 토지개혁과 미국의 대외정책
Ⅲ. 한국과 대만의 토지개혁
Ⅳ. 요약 및 결론

한국과 대만의 수출산업화정책과 국가의 역할

박 종 철(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Ⅰ. 머리말
Ⅱ. 수출산업화정책과 국가중심적 접근법
Ⅲ. 정치연합구조의 성격과 국가 기구의 역할
Ⅳ. 국가의 수출촉진정책
Ⅴ. 맺음말

아시아신흥공업사회의 이익대표체계연구: 자본가단체와 노동자단체를 중심으로

김 영 래(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문제의 제기
Ⅱ. 아시아 신흥공업사회의 정치적 특성
Ⅲ. 자본가단체와 경제성장
Ⅳ. 노동자단체와 사회적 갈등
Ⅴ. 결론

한국과 대만의 노동복지정책의 비교연구

현 외 성(경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Ⅰ. 서론
Ⅱ. 비교연구의 틀
Ⅲ. 한국과 대만의 노동복지정책의 배경과 전개
Ⅳ. 한국과 대만의 노동복지정책의 분석
Ⅴ. 결론: 한국과 대만의 노동복지 정책의 비교

동아시아산업화와 노동계급

류 길 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Ⅰ. 머리말
Ⅱ. 산업화와 노동계급의 성장 및 내부 구성의 변화
Ⅲ. 노동계급의 조직화외 노동통제
Ⅳ. 정치세력으로서의 노동계급의 등장
Ⅴ. 맺음말

[연구논문]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한국유권자의 정치인지구성체계 연구

권 혁 남(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강사)

Ⅰ. 서론
Ⅱ. 연구방법 및 표본의 특성
Ⅲ. 연구 결과
Ⅳ. 결론

[연구논문]

전환기의 국제질서와 세계체제 논리의 연속성

배 긍 찬(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강사)

Ⅰ. 머리말
Ⅱ. 세계체제론의 두시각
Ⅲ. 세계정치의 역사적 전개과정
Ⅳ. 전후 국제질서의 재편과 변화
Ⅴ. 맺는말

[연구논문]

계급갈등과 정치변동:
칠레(1973)와 태국(1976)의 경우

서 병 훈(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강사)

Ⅰ. 머리말
Ⅱ. 칠레와 태국의 근대 정치사
Ⅲ. 좌파 급진세력의 대두
Ⅳ. 보수 우파세력의 대응동원
Ⅴ. 좌 · 우 대립의 양극화현상
Ⅵ. 맺는말

베트남의 독립, 분단 및 통일:
농민혁명과 민족해방

함 택 영(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역사적 배경
Ⅱ. 현대 뷔엣남의 독립투쟁
Ⅲ. 뷔엣남 민족해방전쟁
Ⅳ. 뷔엣남 혁명의 이해
Ⅴ. 결 론

베트남의 체제개혁:
정치제도와 권력구조의 변화

박 종 철(현대사회연구소 책임연구원)

Ⅰ. 머리말
Ⅱ. 베트남의 체제개혁
Ⅲ. 당기구와 국가기구의 개편
Ⅳ. 인사개편과 권력구조의 변화
Ⅴ. 맺음말

베트남의 사회주의 경제개발계획

안 승 욱(경남대 경제학과 교수)

Ⅰ. 머리말
Ⅱ. 제2차 5개년 계획
Ⅲ. 제2차 5개년 계획의 진행내용
Ⅳ. 경제자유화 정책
Ⅴ. 신경제정책이후의 동향
Ⅵ. 베트남경제개발계획의 특성
Ⅶ. 맺는말

베트남의 사회문화적 통합노력에 관한 연구

이 수 훈(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Ⅰ. 머리말
Ⅱ. 통일베트남의 교육
Ⅲ. 통일베트남의 종교에 대한 개혁조치
Ⅳ. 맺는말

베트남의 대외경제관계와 한국 · 베트남의 경제협력방안

성 태 현(경남대 경제학과 교수)

Ⅰ. 베트남의 대외경제교류
Ⅱ. 한국 · 베트남의 경제협력방안

[연구논문]

북한의 정치과정에서의 개인우상화정책: 「로동신문」 등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이 상 민(부산대 교수)

Ⅰ. 서론
Ⅱ. 북한의 정책노선과 「로동신문」 내용의 중요성
Ⅲ. 김일성 · 김정일 우상화 전개과정
Ⅳ. 북한의 「로동신문」 등에 나타난 개인우상화 실태
Ⅴ. 북한의 우상화 정책의 특이성과 허 · 실성
Ⅵ. 결론

[연구논문]

한국에 있어서 민주화와 정치참여:
직접행동의 정치참여성, 폭력성 및 합리성에 관한 고찰

강 정 인(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머리말
Ⅱ. 직접행동의 정치참여성
Ⅲ. 직접행동의 폭력성
Ⅳ. 두 개의 반론
Ⅴ. 직접행동의 합리성
Ⅵ. 맺음말

[연구논문]

미국외교이념의 보수화의 배경, 1975~1984:
베트남 전쟁이후 미국외교와 제3세계

이 삼 성(고려대 강사)

Ⅰ. 베트남전쟁이후 미국의 제3세계 시각의 변화요인들
Ⅱ. 제3세계에 관한 진보적이면서도 현실성있는 명확한 대안의 부재
Ⅲ. 보수세력의 '정치적' 부상
Ⅳ. 베트남전쟁과 보수적 외교이념의 이론적 부각
Ⅴ. 결어

[연구논문]

최근 브라질 노동운동의 전개

이 성 형(동국대 강사, 서울대 정치학과 박사과정)

Ⅰ. 머리말
Ⅱ. 브라질 노동운동의 전통
Ⅲ. 계급운동의 부활
Ⅳ. 부르조아지의 대응
Ⅴ. 노동운동세력의 분열
Ⅵ. 맺으면서

[연구논문]

현 파나마 정치위기: 배경과 원인

이 남 섭(국립 멕시코자치대학 박사과정 수료)

Ⅰ. 머리말
Ⅱ. 오마르 또리호스의 민족적 민중주의
Ⅲ. 미국의 대파나마 외교노선의 변화와 이해관계
Ⅳ. 국내지배계급의 세력변화와 민중의 반응
Ⅴ. 맺음말

사회주의 국가의 전도와 동북아

조 영 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직대))

Ⅰ. 서론
Ⅱ. 미래상
Ⅲ. 변화의 선풍
Ⅳ. 동구관계
Ⅴ. 중국관계
Ⅵ. 소련관계
Ⅶ. 북한관계
Ⅷ. 결론: 미래론과 동북아

일본의 방위력증강과 대중 · 소관계의 전망

정 광 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Ⅰ. 머리말
Ⅱ. 일본 방위력의 평가
Ⅲ. 방위력 증강수준에 관한 전망
Ⅳ. 대중 · 소관계에 미치는 영향
Ⅴ. 맺음말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의 일 · 소관계

김 호 섭(세종연구소 연구위원)

Ⅰ. 고르바초프정권에서의 일 · 소 관계의 변화
Ⅱ. 북방영토문제
Ⅲ. 고르바초프 이후의 소련측의 입장변화
Ⅳ. 결론

북방정책과 한 · 미관계:
주한미군문제와 한국 북방정책의 한계

이 삼 성(숙명여대 강사)

Ⅰ. 한 · 미관계의 핵심으로서의 군사 문제에 대한 접근
Ⅱ. 북한의 군사문제 논의 제의와 그 성격
Ⅲ. 북한의 군사문제논의 제의를 거부 혹은 유보하는 논리와 그 문제점
Ⅳ. 노태우 정부의 대북정책의 성격과 군사문제
Ⅴ. 미국이 주도하는 철군논의의 문제점
Ⅵ. 결론

[연구논문]

북한경제연구:
일련의 방법론적 고찰

정 상 훈(미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경제학과 교수)

Ⅰ. 북한 경제통계의 가용성
Ⅱ. 북한 통계자료의 신빙성과 질
Ⅲ. 북한의 무역에 대한 평가
Ⅳ. GNP의 평가
Ⅴ. 요약 및 결론

[연구논문]

남북한의 정치체제와 남북한 관계의 회고

이 정 복(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Ⅰ. 서론
Ⅱ. 남북한 국가의 수립
Ⅲ. 남북한의 정치체제
Ⅳ. 남북한 관계
Ⅴ. 결론

[연구논문]

백남운의 역사인식과 정치노선 분석

심 지 연(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서론
Ⅱ. 사상적 배경
Ⅲ. 한국사에 대한 인식
Ⅳ. 해방후의 정치노선
Ⅴ. 역사인식과 정치노선의 정합
Ⅵ. 결론

[연구논문]

한국 반공주의이데올로기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그 국제정치사적 기원과 제특징

모리 요시노부(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Ⅰ. 문제의 소재-조선민족주의와 반공주의
Ⅱ. 한국 반공주의이데올로기의 기원
Ⅲ. 한국 반공주의이데올로기의 형성과 제특징
Ⅳ. 결론을 대신하여

한국과 국제정치

KOREA & WORLD POLITICS

1990 ~
1999

‘신흥공업국’(NICs)의 국제정치경제학: 한국과 비(非) NICs개도국의 관계를 중심으로

손 호 철(서울대 정치학과 강사)

Ⅰ. 문제의 제기
Ⅱ. NICs에 관한 이론적 제입장들
Ⅲ. NICs의 국제정치경제분석: 한국과 개도국을 중심으로
Ⅳ. 결론

한국의 대중남미 교역증진 및 경제진출확대를 위한 제언

강 문 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Ⅰ. 서론
Ⅱ. 최근 중남미의 정치 · 경제 현실과 전망
Ⅲ. 한국과 중남미, 그 경제관계의 역사적 구조
Ⅳ.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 대한 한국의 교역현황
Ⅴ. 한국과 아르헨티나 · 브라질과의 교역관계의 구조
Ⅵ. 대중남미 교역증진 및 진출확대를 위한 몇 가지 제언

한 · 중 관계발전과 한 · 소 관계발전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박 두 복(외교안보연구원 교수)

Ⅰ. 문제의 제기
Ⅱ. 중 · 소 대립 하에 있어서 한 · 중, 한소 · 관계
Ⅲ. 중 · 소관계발전과 한 · 중, 한 · 소 관계발전의 상호관계

국제정치체제의 힘의 분포상황과 전쟁

이 춘 근(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강사)

Ⅰ. 서론
Ⅱ. 세력균형체제와 전쟁
Ⅲ. 세력불균형체제와 전쟁
Ⅳ. 경험적 평가
Ⅴ. 결론

자원안보의 이론과 실제

이 민 룡(육군사관학교 교수)

Ⅰ. 여는말
Ⅱ. 국가안보의 새로운 개념화
Ⅲ. 자원안보의 중요성: 역사적 경험
Ⅳ. 자원안보의 요건과 과제
Ⅴ. 자원안보 환경
Ⅵ. 국가적 대응책
Ⅶ. 맺는말

페루의 새로운 민중운동:
센데로 루미노소의 기원과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이 남 섭(국립 멕시코자치대학 박사과정 수료)

Ⅰ. 머리말
Ⅱ. SL혁명운동의 사회경제적 배경
Ⅲ. SL혁명운동의 기원과 형성과정
Ⅳ. 맺음말

주체사상의 혁명적 '수령론' 연구

정 우 곤(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원)

Ⅰ. 연구의 목적
Ⅱ. 수령론의 이론적 배경
Ⅲ. 수령론 확립과정
Ⅳ. 수령론의 내용과 특징
Ⅴ. 결론

일본에 대한 미국인들의 사고방식의 변화

미하일 노소프(미국-캐나다연구소 아시아연구실장)

한국전쟁과 이데올로기 지형: 국가, 지배연합, 이데올로기

손 호 철(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문제의 제기
Ⅱ. 방법론적 문제
Ⅲ. 한국전쟁과 이데올로기 지형
Ⅳ. 한국전쟁과 국가
Ⅴ. 한국전쟁과 지배연합
Ⅵ. 결론에 대신하여

한국전쟁이 냉전과 한미관계에 미친 영향: 전통적 시각과 비판적 시각의 비교

이 삼 성(한국외대 강사)

Ⅰ. 세계적 냉전의 전개와 한국전쟁의 위상
Ⅱ. 한국전쟁과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발전의 역사적 관계
Ⅲ. 한국전쟁이후 강화된 한미군사동맹과 한국전쟁의 역사적 관계
Ⅳ. 한국전쟁이후 강화된 한미군사동맹의 실태와 의미

한국전쟁과 남한사회의 구조화

유 석 춘(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이 우 영(연세대 사회학과 강사)
장 덕 진(연세대 사회학과 석사과정)

Ⅰ. 머리말
Ⅱ. 전쟁과 정치적 지배세력의 변화: 항일세력에서 반공세력으로
Ⅲ. 전쟁과 군 지배세력의 변화: 이북 출신에서 영남출신으로
Ⅳ. 참전과 계층구조
Ⅴ. 전쟁의 사회구조적 결과

한국전쟁과 북한사회주의 건설

강 정 구(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Ⅰ. 한국전쟁 성격에 대한 북한의 인식
Ⅱ. 북한민중의 전쟁체험
Ⅲ. 전쟁과 북한 사회주의 건설
Ⅳ. 맺음말

[연구논문]

현대 정당(정치) 재편의 이론적 정향

이 정 식(서원대 교수)

Ⅰ. 머리말
Ⅱ. 정당이론 재조명의 배경
Ⅲ. 정당(정치)재편의 구체적 요인들
Ⅳ. '새로운 정당(정치)이론' 전환의 계기
Ⅴ. 정당(정치)상황 분석의 세차원
Ⅵ. 미래의 정당(정치)론을 위한 이론 방향

[연구논문]

페레스트로이카와 레닌주의 재해석의 문제

장 원 석(제주대 국민윤리교육학과 교수)

Ⅰ. 서론
Ⅱ. 진정한 레닌주의론
Ⅲ. 트로츠키주의와 부하린주의의 재평가문제
Ⅳ. 결론

[연구논문]

북한의 '인민민주주의혁명'과 통일전선정책: 토지개혁의 과정을 중심으로

신 병 식(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Ⅰ. 머리말
Ⅱ. 소련의 대외정책과 동구의 인민민주주의혁명
Ⅲ. 북한의 토지개혁 과정
Ⅳ. 북한의 토지개혁과 통일전선정책
Ⅴ. 맺음말

[특별기고]

재쏘조선사람들

유 게라씸(소련 모스크바 조선인협회 부총장)

계급과 평등:
기회균등과 능력주의의 문제점 및 그 한계

강 정 인(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머리말: 성공담 뒤에 숨은 정치
Ⅱ. 기회균등과 능력주의
Ⅲ. 기회균등이론의 문제점 및 한계
Ⅳ. 실질적 기회균등의 보장: 능력주의의 문제점
Ⅴ. 맺는 말

정부 · 민간기업관계의 재정립:
반도체산업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김 형 국(중앙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Ⅰ. 머리말
Ⅱ. 반도체산업 구조전환과 국가능력
Ⅲ. 초기 반도체산업화 전략과 기술도입
Ⅳ. 반도체산업 고도화전략
Ⅴ. 결론

비교정치경제체제론의 이론체계와 전망: 비교정치와 정치경제의 통합적 접근

하 봉 규(동아대 강사)

Ⅰ. 머리말: 신정치경제학을 기다리며
Ⅱ. 비교정치경제체제론의 기본개념
Ⅲ. 정치 · 경제합리성: 비교체제의 이론적 실체
Ⅳ. 비교체제분석론의 정치경제학적 위상
Ⅴ. 맺음말: 비교체제분석론의 전망

중국의 통일정책과 대한반도정책의 상관성 연구

박 두 복(외교안보연구원 교수)

Ⅰ. 서론
Ⅱ. 중국의 통일정책
Ⅲ. 중국의 통일원칙과 대한정책
Ⅳ. 결론: 중국의 통일정책과 대한반도정책의 '이분화' 추세

북한의 핵안전조치협정 미체결과 핵능력

송 영 선(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Ⅰ. 서론
Ⅱ. 북한의 핵전면안전조치협정 미체결 배경과 체결 전망
Ⅲ. 북한의 핵개발능력 분석
Ⅳ. 북한의 핵무기개발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 평가

세계체제의 구조변동과 19세기 후반기의 동양외교사

김 기 정(연세대 강사)

Ⅰ. 머리말
Ⅱ. 동양외교사연구의 새로운 분석틀: 근대화이론, 세계체제론과 외교사연구
Ⅲ. 영국의 패권적 지위상실과 세계체제의 다중심부 구조의 형성
Ⅳ.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중심부 주변부구조의 성립
Ⅴ. 미국의 문호개방정책: 다중심부적 위계구조에서의 새로운 형태의 억압
Ⅵ. 세계체제의 구조변동과 외교정책
Ⅶ. 맺음말

세계자본주의의 장기불황과 미국헤게모니의 위기

황병덕(성균관대 강사)

Ⅰ. 머리말
Ⅱ. 이윤율 경향적 저하의 법칙의 재구성
Ⅲ. 현대 선진자본주의의 축적위기 경향
Ⅳ. 1990년대는 자본주의의 황금기인가?

유럽의 산업화와 그 후예:
젱하스와 멘쩰의 자주적 발전론

김 호 기(연세대 강사)

Ⅰ. 문제제기
Ⅱ. 유럽의 산업화와 자주적 발전의 유형
Ⅲ. 자주적 발전과 한국과 대만의 산업화
Ⅳ. 비판적 토론
Ⅴ. 맺음말

브라질의 경제위기와 정책대응: 성장과 쇠퇴의 정치경제학

정 진 영(국민경제제도연구원 전문연구원)

Ⅰ. 서론
Ⅱ. 1960년대: 경제위기로부터 "브라질의 기적"으로
Ⅲ. 1970년대 중반: 제1차 석유위기와 외채의존적 성장전략
Ⅳ. 1979-1985: 경제위기와 국가의 무력화
Ⅴ. 1980년대 중반이후: 신공화국과 경제위기의 심화
Ⅵ. 결론

한국근대변혁운동의 정치사상 연구: 개화파의 정치사상을 중심으로

조 민(고려대 강사)

Ⅰ. 문제의 제기
Ⅱ. 연구방법의 검토
Ⅲ. '개화'의 개념
Ⅳ. 개국체제와 개화사상
Ⅴ. 갑신개화파의 정치사상

걸프전쟁과 아랍 및 세계질서의 재편: 그 비판적 평가

문 정 인(미국 켄터키대 정치학과 교수)

Ⅰ. 서론
Ⅱ. 걸프전을 보는 세가지 이론적 시각
Ⅲ. 걸프전의 발생원인
Ⅳ. 걸프전의 확전과 종전: 대항전략을 중심으로
Ⅴ. 걸프전의 여파: 아랍정치와 세계질서의 재편
Ⅵ. 결론

탈냉전시대 미국외교와 세계질서: 미국안보정책의 지속성과 그 의미

이 삼 성(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Ⅰ. 국제환경과 미국외교
Ⅱ. 탈냉전시대 미국의 안보인식과 목표
Ⅲ. 미국의 안보정책
Ⅳ. 탈냉전시대 미국의 헤게모니와 세계질서
Ⅴ. 미국의 안보전략과 동북아

국제경제질서의 변화와 탈냉전: 무역 및 통화금융 질서를 중심으로

윤 영 관(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Ⅰ. 서론
Ⅱ. 국제무역질서의 변화
Ⅲ. 국제통화 및 금융질서의 변화
Ⅳ. 1990년대 이후의 국제경제질서에 대한 전망
Ⅴ. 한국경제를 위한 제언

탈냉전시대에 있어 소 · 중의 대내외정책변화

김 성 주(성균관대 교수)

Ⅰ. 머리말
Ⅱ. 소련의 대내외정책변화의 배경
Ⅲ. 중국의 대내외정책변화의 배경
Ⅳ. 소련과 중국의 개혁과정 비교
Ⅴ. 소 · 중의 대외정책변화와 국제정세
Ⅵ. 맺음말

한반도주변 국제질서의 재편과 남북한관계의 구조

정 대 화(한국사회연구소 연구원)

Ⅰ. 문제제기
Ⅱ. 분단의 기원에 대한 인식: 냉전과의 관련
Ⅲ. 냉전체제의 해체와 한반도주변 국제질서의 변화
Ⅳ. 남북한 국내정세의 변화와 통일정책
Ⅴ. 남북한관계의 변화
Ⅵ. 남북한관계의 구조와 성격 및 약간의 전망
Ⅶ. 통일정세의 문제점과 대안의 모색

미국에서의 중동로비: AWACS 판매를 중심으로

이 정 희(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서론
Ⅱ. 미국에서의 유태인로비와 아랍로비
Ⅲ. 방공시스템 판매와 논쟁점
Ⅳ. AWACS 판매를 둘러싼 로비활동
Ⅴ. 결론

미국 · 베트남 관계정상화과정과 요인분석

홍 규 덕(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Ⅰ. 서론
Ⅱ. 미국의 베트남개입의 역사적 배경
Ⅲ. 1975년 이후의 관계개선 실패요인
Ⅳ. 베트남의 변화요인
Ⅴ. 미국의 정책적 대응
Ⅵ. 결론

한국의 민중적 기독교세력과 국가권력

김 일 주(고려대 평화연구소 책임연구원)

Ⅰ. 서론
Ⅱ. 민중적 기독교세력 등장에 관한 이론구성과 연구의 주요 개념들
Ⅲ. 한국의 권위주의체제와 기독교의 정치세력화
Ⅳ. 결론

소련작가동맹에 대한 공산당정책의 변화

고 재 남(외교안보연구원 교수)

Ⅰ. 머리말
Ⅱ. 레닌주의적 문학관과 작가동맹의 결성배경
Ⅲ. 스탈린부터 브레즈네프까지
Ⅳ. 고르바쵸프시대의 작가동맹
Ⅴ. 맺는 말

한국의 정당과 지역주의

문 용 직(서울대 정치학과 박사과정 수료)

Ⅰ. 서론
Ⅱ. 파벌과 지역주의
Ⅲ. 파벌경쟁과 지역주의의 확대
Ⅳ. 결론

토지공개념제의 정치경제:
민주화, 국가, 사유재산

이 행(연세대 강사)

Ⅰ. 서론
Ⅱ. 토지공개념제의 등장과 사회경제적 배경
Ⅲ. 정부와 기업 사이의 새로운 관계
Ⅳ. 결론

한국의 생산직 노동자가 본 노사관계: 노동자수기분석을 중심으로

강 정 인(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Ⅰ. 들어가는 말
Ⅱ. 가부장적 노사관계
Ⅲ. 자본주의적 계급제도
Ⅳ. 노동자가 추구하는 '인간화'의 모습
Ⅴ. 만족스럽지 못한 노사관계에 대한 노동자들의 태도
Ⅵ. 맺는 말

부산 · 경남지방 인민위원회의 결성과 와해과정

신 종 대(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원)

Ⅰ. 머리말
Ⅱ. 도인민위원회의 결성과정
Ⅲ. 각 시 · 군 인민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Ⅳ. 미군정의 실시와 인민위원회 탄압
Ⅴ. 맺음말

제1공화국 초기 국가성격 형성과 정치균열에 관한 한 연구

신 병 식(상지전문대 교수)

Ⅰ. 머리말
Ⅱ. 국가성격 형성과 정치균열에 관하여
Ⅲ. 1공화국 정부와 미군정 · 미국
Ⅳ. 한민당의 야당화와 양면적 성격
Ⅴ. 소장파의 형성과 정치활동
Ⅵ. 맺는말

제헌국회내 '소장파' 세력의 활동과 그 붕괴

백 운 선(호남대 행정학과 교수)

Ⅰ. 머리말
Ⅱ. 냉전의 내재화와 분단이익 고착화의 논리
Ⅲ. 소장파의 계보와 구성
Ⅳ. 소장파의 노선
Ⅴ. 소장파 세력의 붕괴
Ⅵ. 맺음말

북한법 연구:
그 현황분석과 방향모색

김 동 한(경희대 강사)

Ⅰ. 머리말
Ⅱ. 북한법 연구현황
Ⅲ. 맺음말 -방향모색-

한반도 통일과 남북한 군축방향

정 기 웅(한국정경연구소 책임연구원)

Ⅰ. 한반도 통일과 남북한 군축
Ⅱ. 몇가지 개념의 정리
Ⅲ. 남북한 군축과 주변환경
Ⅳ. 남북한 군축방안과 그 방향
Ⅴ. 맺는 말

고르바쵸프시대의 소련 · 북한관계:
상호의존이론을 중심으로

윤 해 수(명지대 조교수)

Ⅰ. 머리말
Ⅱ. 고르바쵸프 이후의 소련 · 북한 관계
Ⅲ. 맺는말

포스트 리버럴리즘?:
로버트 달의 「민주적 유토피아」

서 병 훈(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자유주의의 〈반란〉?
Ⅱ. 자유주의의 자기수정
Ⅲ. 다원주의 패러다임의 좌초
Ⅳ. 〈민주적 유토피아〉에 관한 구상
Ⅴ. 민주적 경제 질서의 구축
Ⅵ. 포스트 맑시즘 그리고 포스트 리버럴리즘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사회 · 한국사의 인식

전 상 인(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Ⅰ. 머리글
Ⅱ. 커밍스의 사회인식 구조
Ⅲ. 조선조 및 일제시대 한국의 국가와 사회
Ⅳ. 해방과 분단, 그리고 전쟁
Ⅴ. 한국의 경제발전, 정치변동
Ⅵ. 맺는 글

90년대 국가지도자의 조건과 리더쉽

김 호 진(고려대 교수)

Ⅰ. 들어가는 말
Ⅱ. 국가지도자와 지도이념
Ⅲ. 현단계 한국사회의 시대정신과 국가목표
Ⅳ. 한국 국가지도자의 당면과제
Ⅴ. 1990년대 국가지도자의 리더쉽
Ⅵ. 맺는말

미국 헤게모니론

이 수 훈(경남대 사회학과 부교수)

Ⅰ. 서 론
Ⅱ. 헤게모니 이론과 미국 헤게모니에 대한 입장들
Ⅲ. 헤게모니의 역사적 사례
Ⅳ. 미국 헤게모니체제와 그 퇴조
Ⅴ. 미국 헤게모니 퇴조이후 세계질서
Ⅵ. 결 론

미국 헤게모니의 쇠퇴:
국내경제와 기술문제를 중심으로

이 은 진(경남대 사회학과 조교수)

Ⅰ. 최근의 미국의 경제 상황
Ⅱ. 국제적인 경쟁과 미국의 헤게모니
Ⅲ. 기술발전의 수준
Ⅳ. 미국 경제위기의 원인
Ⅴ. 결론

미국 헤게모니 쇠퇴 경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대외 경제를 중심으로

장 맹 렬(경남대 무역학과 부교수)

Ⅰ. 머릿글
Ⅱ. 대외 경제와 헤게모니 결정 변수
Ⅲ. 근대적 패권국
Ⅳ. 미국의 대외 경제에서의 쇠퇴
Ⅴ. 맺음말

미국의 대내외 군비부담과 헤게모니의 쇠퇴: 제2차 세계대전이후를 중심으로 한 실증적 연구

김 우 상(Texas A&M대 정치학과 조교수)

Ⅰ. 서 론
Ⅱ. 이론적 근거
Ⅲ. 미국의 군비부담과 국력쇠퇴관계의 실증적 연구
Ⅳ. 결 론

진보정당의 가능성에 대한 일고찰: 인천지역 조직노동자와 대학생들의 14대 총선 투표형태분석을 통해

정 영 태(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문제제기와 조사방법
Ⅱ. 인천지역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의 특성
Ⅲ. 진보정치운동진영의 14대 총선전략
Ⅳ. 투표결과에서 나타난 정당별 지지율과 민중당의 한계
Ⅴ. 학생과 노동자들의 투표행위에 미친 요인분석을 통해본 진보정치 세력의 한계
Ⅵ. 요약과 이글의 한계

한국학생운동의 쇠퇴와 전망: 제도화에서 탈제도화로

김 도 종(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Ⅰ. 머리말
Ⅱ. 학생운동의 퇴조
Ⅲ. 전 망
Ⅳ. 맺는말

한국의 경제입법과 이익집단: 경제입법 및 정책에 대한 이익집단의 이익표출 활동분석을 중심으로

이 병 화(부산여대 교수)

Ⅰ. 서 론
Ⅱ. 경제입법 및 정책결정과 이익집단
Ⅲ. 한국 이익집단의 이익표출 활동
Ⅳ. 이익집단의 이익표출활동에 대한 평가
Ⅴ. 결 론

정치자금문제에 대한 정치제도론적 접근

박 병 석(성균관대 강사)

Ⅰ. '중개적 정치제도'로서의 정치자금
Ⅱ. 정치자금일반
Ⅲ. 양성적 정치자금제도
Ⅳ. 음성적 정치자금
Ⅴ. 정치자금제도의 파생문제와 그 대안
Ⅵ. '중개적 정치제도'로서의 정치자금 실천을 위하여

한국의 자유화와 재벌의 정치참여: 통일국민당을 중심으로

양 길 현(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Ⅰ. 머릿말: 자유화의 의미와 결과
Ⅱ. 재벌의 직접 정치참여: 정주영의 개인적 동기와 정치사회적 배경
Ⅲ. 재벌의 정치참여의 구조적 요인: 재벌구조의 상대적 취약성
Ⅳ. 통일국민당의 자원: 정강정책, 인적자원, 그리고 정치자금
Ⅴ. 결 론: 통일국민당의 정치적 함의와 파급영향

자유무역, 공정무역과 국제체제: 19세기 유럽무역체제분석을 통한 한국적 의의 고찰을 중심으로

백 종 국(한국외대 강사)

Ⅰ. 서 론
Ⅱ. 패권적 안정이론의 자유무역체제 이해
Ⅲ. 19세기 유럽무역체제의 재해석
Ⅳ. 19세기 유럽무역체제논쟁의 한국적 의의

남북합의서 이후의 새로운 남북한 관계

곽 태 환(미 이스턴 켄터키대 국제정치학 교수)

Ⅰ. 서 론
Ⅱ. 남북합의서의 내용과 의의
Ⅲ. 남북합의 실천기구의 발족
Ⅳ. 남북 비핵공동선언 합의와 실천의 문제
Ⅴ. 남북합의서 실천과정에서 기본 장애물과 문제점
Ⅵ. 결 론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정 규 섭(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Ⅰ. 서 론
Ⅱ. 남북관계 현황
Ⅲ. 북한의 변화방향
Ⅳ. 북한의 대남전략과 대남협상 태도
Ⅴ. 결론: 남북관계 발전방향

5 · 10선거와 5 · 30선거의 비교연구

강 정 구(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Ⅰ. 요 약
Ⅱ. 머리말
Ⅲ. 양 선거의 특징
Ⅳ. 비교방법론 논의
Ⅴ. 비교분석
Ⅵ. 맺음말

부산정치파동의 정치사적 의미

김 일 영(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Ⅰ. 문제제기
Ⅱ. 정부수립부터 전쟁발발 이전까지의 정치과정
Ⅲ. 한국전쟁의 성격과 그것이 각 계급 및 정파에 미친 영향
Ⅳ. 부산정치파동: 보나파르트 쿠데타
Ⅴ. 부산정치파동이 1950년대 한국정치에 미친 영향

1990년 3당 합당의 분석

문 용 직(서울대 정치학과 박사과정 수료)

Ⅰ. 서 론
Ⅱ. 한국의 민주화와 지역주의: 여소야대 국회의 등장
Ⅲ. 3당 합당: 의도와 조건
Ⅳ. 결 론

투표참여의 합목적성: 14대 대선에서의 기권행태를 중심으로

김 재 한(한림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Ⅰ. 서론
Ⅱ. 투표/기권의 결정요인
Ⅲ. 종합적 검토

제3세계의 민주화 과정

신 정 현(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서 론
Ⅱ. 민주주의의 의미
Ⅲ. 민주화의 조건들
Ⅳ. 민주화의 전개과정
Ⅴ. 결론: 효율성과 개혁

영국 보수당에서의 신보수주의 등장의 정치과정

장 훈(이화여대,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강사)

Ⅰ. 문제의 제기
Ⅱ. 정당 이데올로기 변화의 모델
Ⅲ. 영국 보수당의 신보수주의 이데올로기
Ⅳ. 신보수주의 등장의 사회 · 경제적 배경
Ⅴ. 선거 정치의 동학과 신보수주의의 등장
Ⅵ. 보수당 리더쉽의 교체와 신보수주의의 등장
Ⅶ. 새로운 리더쉽과 신보수주의로의 전환
Ⅷ. 결론

수출지향산업화의 정치경제학적 고찰: 한국과 대만의 비교연구

이 국 영(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Ⅰ. 수출지향산업화의 분화
Ⅱ. 한국의 정치경제적 발전
Ⅲ. 경제정책과 사회발전에서의 차이
Ⅳ. 요약

소득불평등의 결정인자들: 대만경험의 제도적 분석

박 건 영(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강사)

Ⅰ. 목적과 동기
Ⅱ. 연구사례 선택 이유
Ⅲ. 문헌비평
Ⅳ. 데이타분석
Ⅴ. 통계분석 결과
Ⅵ. 요약 및 연구방향 제시

한국 재벌규제 정책의 정치경제:
공정거래제도를 중심으로

이 만 희(아시아 · 태평양경제연구소 연구위원)

Ⅰ. 서 론
Ⅱ. 재벌규제 정책의 정치 · 경제적 배경
Ⅲ. 재벌의 규제와 산업전문화
Ⅳ. 결 론

북한 군사노선 변화의 합리성 고찰과 변화 전망

이 성 한(미 듀크대 정치학과 박사과정 수료)

Ⅰ. 머리말
Ⅱ. 북한 군사노선 변화의 합리적 해석
Ⅲ. 한반도 안보환경의 구조적 변화와 북한의 딜레마
Ⅳ. 북한의 선택: 합리성과 가능성의 시나리오
Ⅴ. 맺는말

약소국으로서의 한민족 국가의 국제관계

유 찬 열(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Ⅰ. 서론
Ⅱ. 약소국 국제관계 분석의 틀
Ⅲ. 한민족 국가의 역사적 국제관계
Ⅳ. 결언

제14대 국회의원 선거결과에 대한 집합자료 분석

박 찬 욱(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Ⅰ. 서론
Ⅱ. 선거구제와 선거결과
Ⅲ. 선거구 획정의 문제
Ⅳ. 투표율 분석
Ⅴ. 정당득표율 분석
Ⅵ. 결론

지역주의와 선거전략: 제14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정 영 국(아주대 강사)

Ⅰ. 문제의 제기
Ⅱ. 지역주의의 선거전략적 의미
Ⅲ. 제14대 대통령 선거와 주요 후보자들의 선거전략
Ⅳ. 결론: 이론적 함의

한국에서 중간계급의 확대가 정당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안 희 수(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 영 태(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Ⅰ. 문제제기
Ⅱ. 기존의 연구동향
Ⅲ. 한국에서의 신중간계급의 정치행태와 정당정치의 변화
Ⅳ. 맺음말

한국재벌의 존재양태와 정책과제

이 병 화(부산여대 교수)

Ⅰ. 서론
Ⅱ. 재벌의 경제력 지배
Ⅲ. 재벌의 정치적 활동
Ⅳ. 재벌문제 해결의 정책과제
Ⅴ. 결론

북한핵에 대한 인식이론적 접근

김 용 호(미 콜롬비아대 국제정치학 박사)

Ⅰ. 머리말
Ⅱ. 북한 핵문제에 대한 이론적 해석
Ⅲ. 북한 핵개발의 인식론적 배경과 목표
Ⅳ.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한 · 미의 인식
Ⅴ.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한 · 미의 대응
Ⅵ. 맺음말

주체사상과 '우리 식' 사회주의

정 우 곤(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Ⅰ. 사회주의 발전국가
Ⅱ. 북한 사회주의발전의 정치경제
Ⅲ. '우리 식' 사회주의론
Ⅳ. 결론: 발전과 한계

현대 대중민주주의 산업사회에 있어서 사회적 법치국가(Sozialer Rechtsstaat)의 의미: 한국에서의 수용문제를 중심으로

이 은 정(목원대 강사)

Ⅰ. 사회국가 성립의 역사적 기원
Ⅱ. 사회적 법치국가로의 결단
Ⅲ. 사회적 법치국가 정책
Ⅳ. 사회적 법치국가와 경제적 효율성
Ⅴ. 한국에 있어서 사회적 법치국가의 현실성(Aktualitaet)

스웨덴의 '국가주의적' 복지모델의 위기: 한국에 대한 시사점

김 영 순(서울대 정치학과 박사과정 수료)

Ⅰ. 머리말
Ⅱ. 스웨덴의 '국가주의적' 복지모델의 형성
Ⅲ. '국가주의'를 잠식한 일반적 원인들
Ⅳ. 연금제도에서의 공/사부문의 중요성 변화와 그 계급적 효과
Ⅴ. 결론: 스웨덴 모델의 전망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지구환경보존을 위한 정책조정과 국제협력체제: ‘생물다양성협약’의 체결과정을 중심으로

강 용 진(한국외대 대학원 국제관계학과 강사)

Ⅰ. 머리말
Ⅱ. 협상전략
Ⅲ. 민간단체의 계몽역할: 원주민과 생물다양성
Ⅳ. 생명공학 기술이전
Ⅴ. 보전기금과 관리기구
Ⅵ. 미행정부의 입장변화
Ⅶ. 맺음말

사회, 국가, 그리고 제도: 정치경제의 제도론적 접근

이 호 철(경남대 · 성균관대 강사)

Ⅰ. 마르크스주의와 사회
Ⅱ. 베버주의와 사회
Ⅲ. 제도
Ⅳ. 제도와 기구

대외정치의 핵심개념으로서의 국가이익

구 영 록(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Ⅰ. 국가이익의 개념
Ⅱ. 국가이익의 정의
Ⅲ. 대외정책과 국가이익
Ⅳ. 국가이익의 내용과 우선순위
Ⅴ. 결론

2×2 게임과 국제관계에서의 갈등분석

박 주 식(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강사)

Ⅰ. 서론: 2×2 게임의 방법론적 의의
Ⅱ. 2×2 게임의 분류기준
Ⅲ. 비협력게임으로서의 PD
Ⅳ. 상호협조와 기타 2×2 게임
Ⅴ. 결 론

국가이론의 비판적 종합:
계급국가, 국가이성 및 정치체계 개념의 재조명

함 택 영(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문제의 제기
Ⅱ. 국가이론의 세가지 시각
Ⅲ. 국가이성 비판
Ⅳ. 국가와 시민사회
Ⅴ. 결 어

통일한국의 체제 및 이념모형과 국민정치의식 정향

김 동 성(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서론
Ⅱ. 자유민주주의이념 및 체제와 쟁점
Ⅲ. 사회주의이념 및 체제와 쟁점
Ⅳ. 연방주의체제와 조합주의 모델
Ⅴ. 통합과 발전논리로서의 민족주의
Ⅵ. 국민정치의식과 민족조의 정향
Ⅶ. 결론

한국민주화 이행에 관한 연구: 코포라티즘 비판을 위한 시론

강 문 구(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문제제기
Ⅱ. 정치변동과 민주화, 국가와 사회에 관한 이론과 코포라티즘 논의
Ⅲ. 결론: 한국민주화 이행과정의 특이성과 코포라티즘 적실성의 한계

선거정치와 시민사회: 서구와의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선거정치의 발생론적 특성

김 만 흠(성심여대 강사)

Ⅰ. 머리말
Ⅱ. 비교의 준거로서 서구의 경험
Ⅲ. 한국 선거정치의 발생론적 특성
Ⅳ. 요약 및 한국 선거정치의 과제

1945–1948년의 북한:
해방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까지

아 · 엔 란코프(러시아 국립페테르부르크대 극동역사학과 교수)

경제발전의 삼각축
'성장 · 안정 · 분배'의 경험론적 재고찰:
한국 · 대만 · 싱가포르의 정치경제를 중심으로

전 제 국(고려대 국제대학원 강사)

Ⅰ. 서 론
Ⅱ. 성장 · 안정 · 분배의 삼각관계: 이론과 실제
Ⅲ. 일석삼조의 정치경제: 대만 국민당 정부의 발정정치
Ⅳ. 일석이조의 정치경제: 싱가포르 PAP 정부의 발전책략
Ⅴ. 한국의 불연속성 정치경제
Ⅵ. 비교 정치경제: 성공과 실패의 정치적 조건 탐색
Ⅶ. 결 론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베트남의 도이모이

양 길 현(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Ⅰ. 문제의 제기
Ⅱ. 베트남의 자주적 발전모델의 위기와 도이모이
Ⅲ. 도이모이와 한국의 경험
Ⅳ. 결론

신세계질서하의 미국 외교정책: 미주지역의 '거시적 지역주의'

김 성 한(사회과학원 상임연구원)

Ⅰ. 신세계질서와 지역주의
Ⅱ. 라틴아메리카의 지역주의와 미국
Ⅲ. 지역주의의 한계: 구심적, 패권적 지역주의
Ⅳ. 결론

전환기적 이익집단정치의 특성과 과제

김 영 래(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문제의 제기
Ⅱ. 이익집단이론의 재조명
Ⅲ. 이익집단정치의 환경변화
Ⅳ. 전환기적 이익집단정치의 특성
Ⅴ. 전환기적 이익집단정치의 과제
Ⅵ. 결 론

선거제도와 투표행태:
캐나다와 미국의 비교

김 선 종(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선거연구와 이론
Ⅱ. 정치와 선거재도
Ⅲ. 선거와 투표행태
Ⅳ. 문제와 전망

유럽 통합:
발전과정과 그 현대사회적 의미

박 길 성(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김 종 길(서울시립대 강사)

Ⅰ. 문제제기
Ⅱ. 유럽공동체 출현의 역사적 배경 및 발전 과정
Ⅲ.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의 유럽
Ⅳ. 유럽 통합과 민주주의 적자(赤字)의 문제
Ⅴ. 유럽인들은 통합을 어떻게 보는가?
Ⅵ. 유럽 통합의 모델들
Ⅶ. 유럽 통합의 방향: 통합의 심화냐 연합의 확대냐
Ⅷ. 유럽 통합의 현대적 의미

베트남 발전노선에 관한 연구:
통합에서 편입으로

이 수 훈(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Ⅰ. 머리말
Ⅱ. 통합과 전환의 정치경제: 사회주의 모델 적용의 시행착오
Ⅲ. 도이 모이의 정치경제: 편입의 전주곡
Ⅳ. 편입의 심화: 1989년 이후
Ⅴ. 맺음말

두만강유역 개발계획의 정치경제

양 운 철 · 유 석 진(세종연구소 연구위원)

Ⅰ. 들어가기
Ⅱ. 두만강유역 개발계획의 정치경제적 의미
Ⅲ. 개발현황과 문제점
Ⅳ. 맺는말

미국의 문호개방정책과 미군정기 국무성의 대한경제정책의 형성

이 상 민(고려대 강사)

Ⅰ. 서 론
Ⅱ. 미국의 문호개방정책과 냉전적 봉쇄정책의 형성
Ⅲ.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문호개방정책
Ⅳ. 문호개방정책 틀내에서의 대한경제정책: 미국의 남한경제 경영
Ⅴ. 결 론

미 · 일의 통상정책 및 교섭전략

양 기 웅(서울대 강사)

Ⅰ. 서 론
Ⅱ. 가설의 검토
Ⅲ. 결 론

국제기구 강화의 부머랭 효과:
국제연합 개발원조체계의 분석사례

박 재 영(한국외대 강사)

Ⅰ. 서 론
Ⅱ. 기존문헌의 분석과 명제
Ⅲ. 중앙집권화 이전의 개발원조 제공의 특징
Ⅳ. 중앙집권화 이후의 개발원조 제공의 특징
Ⅴ. 특별목적 기금의 유형과 특징
Ⅵ. 원조국의 기금제공 패턴
Ⅶ. 전통적 다자주의의 변질과 국제개발원조체계의 분권화
Ⅷ. 결 론

환경자원의 군사적 사용과 그 생태적 영향: (비)연료광물질과 토지를 중심으로

손 기 웅(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Ⅰ. 연구목적
Ⅱ. (비)연료광물질의 군사적 사용과 그 생태적 영향
Ⅲ. 토지의 군사적 사용과 그 생태적 영향
Ⅳ. 결 론

풀란차스 인식론의 지적 전통: 구조주의, 체계론, 기능주의를 중심으로

김 성 철(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Ⅰ. 머리말
Ⅱ. 행태주의 비판과 국가론에 대한 관심
Ⅲ. 풀란차스의 구조주의적 인식론
Ⅳ. 풀란차스 인식론의 체계론과의 친화성
Ⅴ. 풀란차스 인식론의 기능주의적 성격
Ⅵ. 맺는말

해방의 의미와 해방정국의 전개

심 지 연(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머리말
Ⅱ. 해방의 의미와 과제
Ⅲ. 미 · 소 양군의 진주와 해방정국의 전개
Ⅳ. 단독정부 수립과정
Ⅴ. 맺음말

성별이 투표행위에 미치는 영향: 제14대 대통령선거결과를 중심으로

이 남 영(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들어가는 말
Ⅱ. 성별과 투표행태
Ⅲ. 성별과 투표참여
Ⅳ. 여성의 투표성향
Ⅴ. 결론

전국구 의원의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 분석

정 영 국(대통령자문 21세기위원회 전문위원)

Ⅰ. 문제의 제기
Ⅱ. 한국 구회의 상임위원회 제도의 변천
Ⅲ. 전국구 의원들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Ⅳ. 전국구의원들의 상임위원회 활동 양상
Ⅴ. 결론

3당 통합의 원인:
3당 통합 과정 원인에 대한 정당체제론적 접근

조 정 현(서강대 강사)

Ⅰ. 서론
Ⅱ. 3당 통합 원인에 대한 다양한 시각
Ⅲ. 새로운 대안: 정당체제론적 시각
Ⅳ. 결론

한국의 1987년 민주화이행과 위로부터의 책략: 구조화된 가능성의 시각에서

양 길 현

Ⅰ. 문제의 제기
Ⅱ. 한국의 민주화에 대한 기존 논의의 검토
Ⅲ. 전두환정부의 정당성 결여와 첫번째로 시도된 위로부터의 책략으로서의 2.12총선
Ⅳ. 전두환정부의 권력승계 위기와 두번째 위로부터의 책략으로서의 4.13호헌선언
Ⅴ. 6월항쟁과 세번째 위로부터의 책략으로서의 6.29선언
Ⅵ. 결론

남북한경제협력론 비판: 시장화의 사회 · 정치적 비용의 시각에서

박 훈 탁(세종연구소 상임객원연구원)

Ⅰ. 문제의 제기
Ⅱ. 남북한경제협력론
Ⅲ. 전시장사회로서의 북한 분석을 위한 틀
Ⅳ. 남북한경제협력론의 비판적 고찰
Ⅴ. 요약과 함의

청일전쟁을 전후한 일본의 대한반도정책에 관한 고찰

정 광 하(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머리말
Ⅱ. 메이지정부의 대외정책기조와 대한반도인식
Ⅲ. 청일전쟁 이전의 대한반도정책
Ⅳ. 청일전쟁기의 대한반도정책
Ⅴ. 맺는말

신사고 외교의 이념적 위상: 탈이념과 사회주의 이념간의 관계

김 광 린(서강대 강사 및 동 대학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Ⅰ. 문제의 제기
Ⅱ. 신사고 외교의 목표: 총체적 위기의 타개
Ⅲ. 신사고 외교의 주요 내용
Ⅳ. 신사고 외교의 의미와 이념적 위상
Ⅴ. 맺는 말

사회민주주의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황 병 덕(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Ⅰ. 서론
Ⅱ.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합일체로서 자유민주주의
Ⅲ. 자유민주주의의 양대 이념
Ⅳ. 결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갈등의 재연

복지국가는 역전될 수 없는가?: 영국 복지국가의 신보수주의적 재편을 통해 본 '불가역성' 명제의 비판적 검토

김 영 순(서울대 강사)

Ⅰ. 서론
Ⅱ. 영국 복지국가의 위기와 복지동맹의 붕괴
Ⅲ. 복지국가의 재편과 그 사회적 결과
Ⅳ. 결론

농지개혁, 5 · 30선거, 그리고 한국전쟁

김 일 영(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논쟁의 구도
Ⅱ. 5 · 10선거에 대한 평가
Ⅲ. 5 · 30선거에 대한 평가: 정파별 의석수 집계 및 승패판정 문제
Ⅳ. 5 · 30선거 결과에 대한 원인분석
Ⅴ. 5 · 30선거와 한국전쟁: 이승만정권의 위기라는 신화
Ⅵ. 맺음말

전환기 남북한 국내정치와 통일게임

최 완 규(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서 론
Ⅱ. 남한의 통일정치 게임
Ⅲ. 북한의 통일정치 게임
Ⅳ. 결 론

통일한국의 정치적 갈등구조와 온건다당제

박 종 철(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Ⅰ. 머리말
Ⅱ. 통일후 정치 · 사회적 갈등구조
Ⅲ. 온건다당제와 정당통합
Ⅳ. 선거제도: 지역구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병행
Ⅴ. 맺음말

정부의 대북정책에 있어 핵문제와 경협의 상호연관성 고찰: 국내정치적 요인을 중심으로

김 용 호(중앙일보 통일문제연구소 전문기자)

Ⅰ. 머리말
Ⅱ. 대북정책의 전개과정: 북한핵문제를 중심으로
Ⅲ. 대북정책과 국내정치적 요소
Ⅳ. 북한핵문제와 경협의 상관성 도출
Ⅴ. 맺음말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시각에 바탕을 둔 전쟁원인 연구

김 우 상(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머리말
Ⅱ. 현실주의 시각에 바탕을 둔 전쟁원인 연구
Ⅲ. 자유주의 시각에 바탕을 둔 전쟁원인 연구
Ⅳ. 맺음말

민주화이행의 보수화와 개혁의 한계: 한국과 브라질 민주화과정을 중심으로

강 문 구(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문제제기
Ⅱ. 민주화이행의 보수화와 한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브라질과 한국의 민주화 이행경로
Ⅳ. 브라질과 한국의 민주화이행의 보수화와 개혁의 관계
Ⅴ. 결론을 대신하여

한국 과학기술의 대내정책 분석

김 상 태(한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서 론
Ⅱ. 공급측면의 과학기술정책
Ⅲ. 수요측면의 과학기술정책
Ⅳ. 한국의 과학기술 촉진정책
Ⅴ. 과학기술정채과 정치환경
Ⅵ. 결론: 문제점과 정책 대안

국제화시대의 경쟁력 향상과 국가의 역할

이 만 희(아시아태평양연구소 연구위원)

Ⅰ. 머리말
Ⅱ. 국제화현상과 후발국의 비용
Ⅲ. 거시적 구조조정과 상대적 신축성
Ⅳ. 산업구조조정과 상대적 생산성
Ⅴ. 맺는말

전후 일본의 정치과정:
정치 이념과 제도의 변모

최 은 봉(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문제의 제기
Ⅱ. 일본정치에 대한 문화적 설명
Ⅲ. 전후의 일본정치과정의 특징
Ⅳ. 일본정치의 문화적 조망
Ⅴ. 맺음말

일본의 국가/기업관계와 중간조직

진 창 수(서울대 지역종합연구소 특별연구원)

Ⅰ. 문제제기: 중간조직의 역할
Ⅱ. 공공법인
Ⅲ. 심의회
Ⅳ. 업계단체
Ⅴ. 결 론

해방 후 중요 정치세력의 통일정책 분석

심 지 연(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머리말
Ⅱ. 해방정국에서 통일정책의 위상
Ⅲ. 중요 정치세력의 통일정책
Ⅳ. 통일정책의 수렴과 갈등
Ⅴ. 맺음말

한일회담과 일본의 전후처리 외교

이 원 덕(세종연구소 연구위원)

Ⅰ. 서 론
Ⅱ. 1950년대의 한일회담과 일본의 대한정책
Ⅲ. 이케다정권의 대한정책과 청구권 타결
Ⅳ. 사토정권의 대한정책과 기본관계의 타결
Ⅴ. 결 론

일본의 정치개혁과 정계개편

김 호 섭(중앙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Ⅰ. 서론: 정치문화와 정치제도
Ⅱ. 일본의 정치제도 개혁
Ⅲ. 정치제도의 변화와 정치발전
Ⅳ. 요약 및 결론

민주화에 있어 정당성위기의 정치적동학: 한국과 니카라과의 경험을 중심으로

양 길 현(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Ⅰ. 문제의 제기
Ⅱ. 민주화와 권위주의정권의 정당성 위기
Ⅲ. 정당성위기의 경제적 연원
Ⅳ. 정당성위기의 저이적 동학
Ⅴ. 정당성위기의 두 유형: 한국의 전두환정권과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정권
Ⅵ. 결론

러시아연방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안보질서

전 홍 찬(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소련의 관심과 정책
Ⅱ. 러시아연방의 다자주의 (multilateralism) 안보정책
Ⅲ. 종합 및 결론

통일한국의 사회통합과 군의 역할

손 기 웅(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Ⅰ. 서론
Ⅱ. 통일한국사회에서의 갈등양상
Ⅲ. 통일국군의 형성과 군내 갈등양상
Ⅳ. 통일한국의 사회통합과 군의 역할
Ⅴ. 결론

코포라티즘없는 코포라티즘?:
일본의 자본과 노동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고려

김 정(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원)

Ⅰ. 서론
Ⅱ. 산업관계의 거시적 구조:
'조직화된 시장'의 형성
Ⅲ. 산업관계의 미시적 구조:
'기업 내부의 코포라티즘'의 형성
Ⅳ. 코포라티즘의 기능적 등가물:
'기업 연계망'과 '춘투방식의 임금
결정기구'
Ⅴ. 결론

제15대 국회의원 선거결과에 대한 집합자료분석

박 찬 욱(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김 형 준(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

Ⅰ. 서론
Ⅱ. 선거구제와 선거결과
Ⅲ. 투표율 분석
Ⅳ. 정당득표율 분석
Ⅴ. 결론

포스트자민당의 일본외교

오 기 평(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문제의 설정
Ⅱ. 현대 일본 외교정책 이론의 새로운 구성
Ⅲ. 외교 과제
Ⅳ. 결 언

미국에서의 반핵운동과 의회정치

임 성 호(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서론
Ⅱ. 반핵운동의 전략적 행동과 그 성과의 평가 방법
Ⅲ. 미국 반핵운동의 확산과 의회정치: 1970년대
Ⅳ. 원자력정책 결정과정의 분권화와 반핵운동의 성과: 1980년대와 그 이후
Ⅴ. 결론: 미국 반핵운동의 성과와 시사점

국제화의 도전과 독일, 영국 노동조합운동의 대응

유 현 석(연세대 강사)

Ⅰ. 서언
Ⅱ. 국제화의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영향
Ⅲ. 독일의 사례
Ⅳ. 영국의 사례
Ⅴ. 결언: 한국노동조합운동에의 함의

세계경제의 대변동과 OECD 국가들에서의 노동조직 변화

강 명 세(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김 형 준(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

Ⅰ. 세계경제의 구조변동
Ⅱ. 노동시장구조와 임금협상 수준: 이론적 쟁점
Ⅲ. 경험 분석
Ⅳ. 결 론

글로벌경제와 한국의 이중노동시장: 비공식 경제의 변화(1967-1994), 인과적 추론, 그리고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박 훈 탁

Ⅰ. 서론: 글로벌경제(global economy)와 한국의 이중노동시장
Ⅱ. 한국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비공식경제의 변화(1967년-1994년)
Ⅲ. 비공식경제의 변화를 설명하는 조건들
Ⅳ. 비공식경제 변화의 설명: 인과적 추론
Ⅴ. 요약과 대안: 비교시각에서 보는 한국과 이태리의 정치경제

한국 농산물 시장개방의 정치경제: 담배, 쇠고기, 쌀 사례에 대한 비교분석

김 성 민(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객원교수)

Ⅰ. 이론적 재고: 경제외교 정책 결정의 통합적 분석
Ⅱ. 담배: 압력에 순응
Ⅲ. 쇠고기: 압력의 분산
Ⅳ. 쌀: 압력에 저항
Ⅴ. 결론

북한과 중국의 체제개혁에 대한 비교연구: 혁명지도자 사후를 중심으로

차 성 섭(성신여대 강사)

Ⅰ. 서론
Ⅱ. 환경적 요인
Ⅲ. 정치체제의 특징
Ⅳ. 중국 체제개혁의 특징
Ⅴ. 북한 과도기체제의 특징과 체제개혁에 대한 전망
Ⅵ. 결론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연방공산당〉의 정체성

김 창 진(연세대 강사)

Ⅰ. 머리말
Ⅱ. '민족 · 공산주의 운동'의 복원 또는 새로운 조건에의 적응
Ⅲ. 〈러시아연방공산당〉은 무엇이 아닌가?
Ⅳ. 〈러시아연방공산당〉은 무엇을 지향하는가?
Ⅴ. 맺음말

지역협력기구로서의 ASEAN: 성과와 한계

전 황 수(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선임연구원)

Ⅰ. 문제의 제기
Ⅱ. 제3세계 지역협력기구의 일반적 특징
Ⅲ. 지역협력기구로서의 성과
Ⅳ. 문제점과 한계
Ⅴ. 결 론

미 · 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주변 정세 변화: 미 · 북 핵협상을 중심으로

전 웅(국가정보연수원 교수)

Ⅰ. 서론
Ⅱ. 미 · 북 핵협상의 전개과정 및 내용
Ⅲ. 미 · 북 관계개선과 주변 4각의 대한반도 정책
Ⅳ. 남북관계와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 전망
Ⅴ. 결론

성리학적 관점에서 본 통일 한국의 이념연구

배 병 삼(성심외국어전문대 교수)

한국 정당구조의 재편성 연구: 위기와 통합의 정치(1945-1948)

심 지 연(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문제의 제기
Ⅱ. 정당구도의 이론적 배경
Ⅲ. 정당정치의 기원
Ⅳ. 정당구도의 재편성 유형
Ⅴ. 맺음말

ABSTRACT

The Party Realignment in Korea, 1945~1948:
The Politics of Crisis and Integration

This paper looks into party politics in Korea to advance a theory explaining the frequent party realignments in Korean political history. Many parties were organized after the 1945 Liberation, but none of them could survive more than 3 years. Through integration or absorption many parties disappeared from the political arena.

Korean parties in general have the tendencies to integrate in crises. Through integration, parties intended to overcome the crises and seize power. These tendencies might be adjusted both to the government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ies.

This pattern has been repeated in the present and will continue in the future.

Key words: party systems; party realignment; Korean Democratic Party; South Korean Labor Party; North Korean Labor Party; Coalition Committee

한국의 탈권위주의 정치변동의 '쇠퇴'과정에 관한 연구: 민주운동의 전략적 결정을 중심으로

조 현 연(한국외대 강사)

Ⅰ. 서론
Ⅱ. 민주화 이행론의 논리구조와 그 비판
Ⅲ. 한국사회 정치변동의 대안적 접근틀
Ⅳ. 탈권위주의 정치변동의 궤적과 민중운동의 전략적 결정
Ⅴ. 분석 결과의 정치적 함의

ABSTRACT

A Study of the 'Decay' of Post-Authoritarian Political Change in Korea: Centering on the Strategic Decision of 'Minjung' Movements

The 1980s in Korea is characterized as "the period of little outcome in spite of strong passion and continuous practice." How can we explain the fact that the very moment we felt, as though we were passing the threshold of new possibility and hope, we was, in fact, at the starting point of a paradoxical transition into anti-climactic political decay, the tragic origins and causes of Korean democracy. This resulted from the fallacy of strategic decision within the leading part of Minjung movements and the inability of Minjung movements to control the decline of opportunitions in the decisive phase.

Key words: Democratization; Transition; Political Change; 'Minjoong' Movements; Strategic Decision; Democratic Consolidation; Political Decay

대기업도시의 성장연합과 권력엘리트: 울산과 포항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 재 욱(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Ⅰ. 서론
Ⅱ. 성장연합과 반성장연합
Ⅲ. 성장연합의 엘리트구성과 분절화
Ⅳ. 성장연합의 집합적 이해관계와 성장이데올로기
Ⅴ. 결론

ABSTRACT

The Growth Coalitions and Power Elites in Big Corporation-led Cities: Ulsan and Pohang

To understand the power structures of large corporation-led cities in Korea such as Ulsan and Pohang, this article introduces the theory and concept of "the growth coalition" that prevails in U.S. urban politics. The growth coalition is the core concept of "the growth-machine theory" which means the capitalist coalition pursues community development. The theory of growth coalition supposes that the power of business elites is more important than that of other elites, and anti-growth coalitions, namely local social movement organizations, appear according to increases in the political and eco-social costs of growth. This article discusses the structures of elites and the mobilization process of growth ideology though case studies of Ulsan and Pohang, and examines the impact of growth ideology.

Key words: big corporation; growth coalition; growth ideology; local business elites

'한국사회'는 '분단'되었는가?: 1980년대 '한국사회구성체논쟁'에 대한 철학적/실천적 문제제기

정 성 기(경남대 경제학과 교수)

Ⅰ. 무엇을 문제삼는가?
Ⅱ. '한국사회구성체 논쟁'과 국가/사회의 공간적 존재 문제
Ⅲ. '한국사회'와 '분단'의 공간적 실체: 독일과의 비교
Ⅳ. 무엇을 할 것인가?

ABSTRACT

Is Korean Society Divided?: The Korean Social Formation Debate' in the 1980s and Its Philosophical/Practical Problems

In the 1980s many Korean economists engaged in the hot debate known as "The Character of Korea Society Debate" or "Korean Social Formation Debate" it focused on the stage of Korean capitalism and the position of Korea in the world capitalist system. Korean society in the 1980s was described as dependent monopoly capitalism, independent semi-developed capitalism, or peripheral capitalism.

However, the boundaries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society as a divided nation were never clarified. This paper examines the debate,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North Korea's position and the experience of Germany. In this way, it attempts to gain a clearer understanding of Korea society as a divided nation.

Key words: Korea; Germany; Divided Nation; One nation-one state; One nation-two state; Korean debate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개혁 비교연구: 기업개혁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조 원 호(경상대 러시아학과 교수)

Ⅰ. 서론
Ⅱ. 러시아: 사유화
Ⅲ. 중국의 국유기업개혁: 기업의 자율성 확대
Ⅳ. 향촌기업
Ⅴ. 결론

ABSTRACT

Comparative Analysis of Russia and Chinese Economic Reforms: Focused on the Correlation Between Enterprises Reform and Economic Growth

One of the main directions of Russia and China's economic reforms is to restructure state enterprises, focusing on separating enterprises management from government control and eventually improving the enterprises' efficiency. But the two countries have taken different approaches toward enterprises reforms. The Chinese state enterprises have been protected rather than subjected to privatization like Russia's state enterprises.

This study analyzes whether restructuring state enterprises in both countries have affected each country's economic growth. It finds that one of the main causes of Chinese economic growth is the rapid increase of so-called TVEs. In this respect, Russia's privatization strategy is quite correct and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in the foreseeable future.

Key words: Economic Reforms; Russia; China; Economic Growth; Ownership; TVEs

일본의 정계재편과 정책의 변화

진 창 수(세종연구소 연구위원)

Ⅰ. 서론: 불확실한 일본의 정치변화
Ⅱ. 자민당 붕괴와 정계개편
Ⅲ. 쟁점구조의 희석화
Ⅳ. 정책결정과정의 변화
Ⅴ. 연립정권시대의 외교정책
Ⅵ. 결론

ABSTRACT

Party Coalition and Policy Change in Japan

The formation of a coalition government based on the Liberal Democratic Party(LDP) and the Social Democratic Party coalition changed the Japanese system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industry(economics). However, political change under a coalition government has tended to be conservative in terms of converging policies and ideologies rather than constructing a new state through reforming the established structure. This paper aims to explain these political changes, by analyzing the power games and issue structures over the period. It will examine the rigidification of the LDP's organizations, the social Democratic Party's policy change, the establishment of the coalition government, and the effects on Japan's foreign policy.

Key words: Party coalition; Policy change; Japanese Politics

고르바쵸프 개혁정책의 이론과 실제: 비판적 고찰

이 영 형(국제평화전략연구원 연구위원)

Ⅰ. 들어가는 말
Ⅱ. 개혁정책의 이론과 실행의 모순성
Ⅲ. 자유주의적 개혁정책의 제문제
Ⅳ. 끝맺는 말

ABSTRACT

Theory and Practice of Gorbachev's Reform Politics:
Critical Analysis

The failure of perestroika turned into a catastrophic breakdown of society and economy, spelling the end of the Soviet system. During the six years of perestroika from 1985 to 1991, Mikhail Gorbachev sought not only to revive the Soviet system but also to rejuvenate the socialist idea. It increasingly became apparent, however, that not only was the political system unreformable but that nationalist aspirations were threatening the Soviet State itself. Political reform is proceeding much faster and more successfully than economic reform. So long as material short-ages get worse rather than better and there is no improvement in the standard of living of the average Soviet citizen, the continuation of political reform cannot be taken for granted. During perestroika, Gorbachev created new institutions which gave voice to some of the long—suppressed aspirations of society, but lacking, however, the legitimacy or ability to resolve any of the key problems facing the country.

Key words: Gorbachev's reform politics; Dependence on the West

지역연구와 사회과학:
소련학(Sovietology)의 경우

장 덕 준(인천대 동북아발전연구소 연구원)

Ⅰ. 머리말
Ⅱ. 냉전에서 화해로: 서구 소련학의 역사적 개관
Ⅲ. 지역연구의 발전방향: 거대이론에서 중범위이론으로
Ⅳ. 공산주의의 몰락 이후의 구소련 지역연구
Ⅴ. 맺음말

ABSTRACT

An increasing number of scholars have been involved in looking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mainstream social science theories and post-communist area studies. This paper discusses the possibilities (and utility) and limitations of applying social science theories and concepts to area studies, particularly Soviet and post-Soviet studies. After the collapse of the U.S.S.R., there is a growing possibility of combining social science theories and enriched data in post-Soviet area studies. At the same time the task for integrating methodology, theories, and concepts into area studies entails such problems as cultural bias, the ignorance of historical context, and the overemphasis on a break with the past rather than continuity.

Key words: Methodology; Social Sciences; Area Studies; Sovietology; Middle-Range Theory

세계화하는 자유주의자와 현실주의적 세계화: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이 호 철(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Ⅰ. 서론
Ⅱ. 세계화하는 자유주의
Ⅲ. 현실주의적 세계화
Ⅳ. 세계화속의 동아시아
Ⅴ. 결론
에필로그

ABSTRACT

Global Liberalism and Realist Globalization in East Asia

The post-Cold War world is characterized by globalizing liberalism. But liberalism is globalizing under the framework of political realism. Liberalism implies individual wealth maximization based on economic rationality and institutions of individual rights and liberties. States act on political rationality which takes into account power, strength, and legitimacy. The *realist globalization of liberalism* is the sources of current dynamics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and particularly prominent in East Asia, where liberalism is itself somewhat differently conceived with more emphasis on national wealth and power rather than on individual liberty and liberal democracy, where authoritarian strong states are markedly visible in managing globalization and adjusting domestic political economy, and where regional geopolitics conditions liberalization of regional economies. The findings lead u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formulating a synthesis of liberalist and realist elements, both of which are empirically observable in current process of globalization.

Key words: globalization; economic liberalism; political realism; East Asia.

다자주의의 동아시아 적용의 문제

신 욱 희(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Ⅰ. 들어가는 말
Ⅱ. 다자주의의 본질
Ⅲ. 동아시아의 특성
Ⅳ. 남북한 관계와의 연관
Ⅴ. 제도화의 조건
Ⅵ. 맺는 말

ABSTRACT

The Relevance Problem of Multilateralism in East Asia

This paper first looks into the meaning of multilateralism by comparing its idealistic and realistic types. Second, while considering the historical context of East Asia, it examines the effectiveness and limits of the idea in the region. Third, it analyzes the possible interrelationships between North-South Korean rel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multilateral cooperation. The paper concludes by suggesting some preconditions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multilateralism in East Asia.

Key words: multilateralism; cooperation; institution; East Asia; colonialism

1965년 한일수교협정체결에 대한 현실주의적 고찰

빅터 차(조지타운대 정치학과 교수)

Ⅰ. 서론
Ⅱ. 역사적 적대감: 지배적견해
Ⅲ. 결론

ABSTRACT

Bridging the Gap:
The Strategic Context
of the 1965 Korea-Japan Normalization Treaty

The June 1965 normalization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followed 14 years of acerbic and seemingly unnecessarily protracted negotiations.

Recently declassified U.S. government documents and new primary source materials shed new light on the importance of broader geostrategic variables in the 1965 settlement. This article contends that the heightened Cold War security environment in East Asia compelled a normalization settl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The primary causal factor in this regard was the United States. Rising threats from China, coupled with burdensome entanglements in Vietnam, prompted the U.S. to place the highest priority on reconciliation between its two key allies in the region. While U.S. pressure for an ROK-Japan settlement had existed since the start of negotiations in 1951, these became particularly pronounced from 1964 and were critical to the treaty's conclusion in 1965.

Key words: Japan; U.S.; East Asian security; American foreign policy; Cold War; Japan-Korea relations; Vietnam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과 중국

고 상 두(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객원연구원)

Ⅰ. 서론
Ⅱ. 러시아 외교정책의 세 가지 방향
Ⅲ.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
Ⅳ.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
Ⅴ. 결론

ABSTRACT

East-Asian Policy of Russia and China

When Russia emerged in early 1992 as the successor to the Soviet Union in the international arena, its foreign policy favored the West. Yeltsin's appeals for partnership with the European Community and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U.S. revealed an overriding concern in alleviating domestic economic difficulties. Dissatisfied with Western discrimination_, in late 1992 and early 1993, Russia shifted its attention to the "near abroad" and the East. Since then relations between Russia and China have developed dynamically. Russia's foreign policy is significantly different now than it was a few years ago. Russia attempts to use the Chinese card in relations with the West. Although this does not signal a return to a revived East-West hostility, it does suggest that the "romantic period" of Russia's relations with the West is drawing to a close.

Key words: junior partner; border agreement; economic cooperation; strategic partnership

인도차이나 저발전국의 개혁 · 개방

함 택 영(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서론
Ⅱ. 빅뱅과 점진주의:
동구 사회주의 국가와의 비교
Ⅲ. 인도차이나 4개국의 개혁 · 개방정책
Ⅳ. 결론

베트남의 개혁개방과 경제발전전략

안 승 욱(경남대 경제학과 교수)

Ⅰ. 서론
Ⅱ. 구시대의 유산
Ⅲ. 사회주의 경제발전계획
Ⅳ. 결론

베트남 · 미얀마의 개혁 · 개방 비교: 도이모이와 군부통치자유화

양 길 현(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Ⅰ. 서론
Ⅱ. 베트남의 경제개혁 · 개방
Ⅲ. 미얀마의 경제개혁 · 개방
Ⅳ. 결론

캄보디아의 통일과 개혁 · 개방

박 성 관(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책임연구위원)

Ⅰ. 서론
Ⅱ. 캄보디아의 분열과 파벌들의 발생과정
Ⅲ. 캄보디아의 위기와 주변국가들
Ⅳ. UNTAC와 캄보디아의 통일
Ⅴ. 캄보디아의 경제와 개혁개방
Ⅵ. 결론

라오스의 농업발전과 개혁 · 개방

신 병 식(상지전문대 행정학과 조교수)

Ⅰ. 서론
Ⅱ. 사회주의 혁명 이전의 라오스
Ⅲ. 사회주의 체제하의 발전전략
Ⅳ. 라오스의 개혁 · 개방과 발전방향
Ⅴ. 결론

베트남의 대외관계: ASEAN을 중심으로

뉴엔 반 릭(호치민 시립대 교수)

Ⅰ. 베트남 · ASEAN의 연관관계: 1967-1975.4
Ⅱ. 베트남 · ASEAN 양자수립단계: 1975.5-1978
Ⅲ. 베트남 · ASEAN의 연계단계: 1979-1989
Ⅳ. 베트남 · ASEAN의 강화단계: 1990-현재

통일 이후 남북 베트남의 사회문화적 통합

트란 덕 쿠웅(호치민 시립대 교수)

Ⅰ. 통일: 베트남의 사회 · 문화 통합을 위한 조건
Ⅱ. 사회 · 문화 통합

한국 민족주의와 세계화전략

김 동 성(중앙대 정치학과 교수)

Ⅰ. 서론
Ⅱ. 세계화의 가시적 현상과 논리
Ⅲ. 세계화의 위기구조와 국가
Ⅳ. 한국의 세계화 전략과 민족주의
Ⅴ. 결론

ABSTRACT

Korean Nationalism and the Globalization Process

The concept of globalization, as an epistemological stance in this paper, implies the restructuring of the capitalist market system in which dynamics are activated by global communications, information, and the renov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Economic globalization weakens the economic sovereignty of individual nation states and removes borders, causing the dissolution of indigenous cultures and bringing about wider structural inequality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The core discussion here, therefore, revolves around the existential question of the nation states system and the question of a responsive strategy by individual states to confront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The Korean case is not exceptional.

Key words: nationalism, economic globalization, modernity, segyehwa

한국사회에서의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의 등장과 사회적 균열구조의 변화

마 인 섭(성균관대 교수)
장 훈(중앙대 교수)
김 재 한(한림대 교수)

Ⅰ. 서론
Ⅱ. 한국에서의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의 성장
Ⅲ.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의 사회적 배경1
Ⅳ.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의 사회적 배경2
Ⅴ. 탈물질주의적 가치관과 정치적 성향
Ⅵ. 결론

ABSTRACT

The Social and Economic Origins of a Newly Emerging Social Cleavage in Korean Society

The goal of this article is two-fold. To explore the social and economic origins of a newly emerging social cleavage in Korean society. and to examine the political orientation of the post-materialism and assess the consequent change in political demand. Based on an examination of survey data,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cultural shift toward post-materialism is a pervasive phenomenon among the public although there is a considerable variation among social groups in adopting post-materialism.

Key words: post-materialism, social cleavage, political efficacy, political culture

교육변수와 정치형태:
선거과정을 중심으로

이 남 영(숙명여대 교수)

Ⅰ. 들어가는 말
Ⅱ.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Ⅲ. 자료 및 분석방법
Ⅳ. 교육과 선거에 관련된 주요변수들 사이의 관계양식
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Ⅵ. 맺는말

ABSTRACT

Education and Political Behavior:
Focused on the Electoral Process

Current empirical studies on mass political behavior have foun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an individual's educational status and different socio-psychological variables are very strong. However, such findings rely heavily on date from western political systems. This study attempts to discern these relationships from data collected in Korea. The results of the data analysis clearly show that the education variable does not have the same effect on mass political behavior in Korea. The relationships can be curvilinear, negative and sometimes neutral suggesting that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se variables are not uniform across different political systems. We must therefore be cautious to adopt hypotheses from existing empirical theories when analysing mass political behavior in Korea.

Key words: electoral behavior, western political systems, most different system's design,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mobilization

제1공화국 시민사회변화와 정치사회 구조: 선거정치를 중심으로

오 유 석(전남대 강사)

Ⅰ. 서론
Ⅱ. 접근방법
Ⅲ. 시민사회의 변화와 정치사회구조
Ⅳ. 결론

ABSTRACT

A Study on the Formation of the Structure of Political Society and Social Cleavages in Korea based on General Elections in the 1950s

This study examines the formation of the political society and the social cleavages in Korean society that emerged in the initial stages of the nation's division and its early institutionalization, in terms of analyzing the general elections in the 1950s. The perspectives and theories developed on the same topic in western society is useful in explaining the third world's experiences, but cannot be extended to the global level. This study will try to examine the formation of political society in a third world nation that became independent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Korea.

Key words: political society, social cleavage, civil society, conservative versus progressive political consciousness

현대 한국사회의 관료지배적 권력구조와 그 형성요인 분석

노 병 만(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강사)

Ⅰ. 서론
Ⅱ. 연구방법
Ⅲ. 관료지배적 권력구조
Ⅳ. 관료지배적 권력구조의 형성요인
Ⅴ. 결론

ABSTRACT

An analysis of the Power Structure of Bureaucratic Rule and its Formative Factors in Modern Korea

This thesis first examines the power administrative area of the state. structure of bureaucratic rule analyzing The bureaucrat group have never modern Korea society. For this purpose, taken political power, but they have built it follows the fundamental careers of the up and sustained a power structure of power elites in the political and bureaucratic rule.

Key words: power structure, power elites, political elite, administrative elite, bureaucratic rule, formative factors, political culture, organization and scale, role and function

국회의원선거에서의 현직 국회의원 효과

문 용 직(서울대 정치학박사)

Ⅰ. 서론
Ⅱ. 현직자 가설
Ⅲ. 현직자 효과
Ⅳ. 현직 국회의원과 지역개발
Ⅴ. 결론

ABSTRACT

The Incumbency Effect in the General Elections:
Analysis and Interpretation, 1963-1988

This paper analyzes the incumbency effect and finds that though effect in general elections in South regional development produced certain Korea. It first provides an analysis of the social conditions for voting behavior, incumbency effect and finds it to be they did not automatically generate the minimal. It then examines the influences incumbency effect. of regional development on the incumbency effect and finds that though regional development produced certain social condition for voting behavior, they did not automatically generate the incumbency effect.

Key words: voting behavior, general election, incumbency effect, regional development

게임 이론으로 살펴 본 돈 쓰는 선거의 논리

강 원 택(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Ⅰ. 들어가는 말
Ⅱ. 돈 쓰는 선거에 대한 게임 이론적 모델
Ⅲ. 논의
Ⅳ. 결론

ABSTRACT

Rational Candidates and Vote-buying:
A Game-Theoretic Analysis

In spite of democratization, money politics, especially in elections, remains prevalent in South Kore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lluminate why rational candidates, who would prefer "cheap" elections, try to spend hefty amounts of campaign money. This paper begins with the assumption that spending "more" money raises the likelihood of a candidate's success in elections. A two-person zero-sum game theoretic model finds that it is rational for a candidate to spend a lot of money on a campaign if he or she believes that the other's are also. However, if a penalty is imposed for spending large amount's of campaign money, it will discount the payoff of money politics. If it is not threatening, it will still be rational to conduct a "money election". Therefore, where the belief of the effectiveness of money politics is prevalent, the role and willingness of watch-dog institutions seriously matter.

Key words: vote-buying, money politics, game theory, elections

러시아의 정치문화와 민주화 전망

주 승 호(미네소타대(모리스) 교수)

Ⅰ. 서론
Ⅱ. 정치문화와 민주주의
Ⅲ. 전통적인 러시아 정치문화의 원천과 특징
Ⅳ. 러시아의 정치문화와 지도력
Ⅴ. 러시아 정치문화의 지속성과 변화
Ⅵ. 결론

ABSTRACT

Political Culture and Democracy in Russia

This article analyzes the origins and nature of Russian political culture and the prospects for democracy. It begins with a discussion of political and civic culture. It then extrapolates the authoritarian nature of Russian political culture in terms of social-psychology, geography-climate, history, Caesaro-Papism, and political leadership, and sheds light on the continuity of the authoritarian, egalitarian, and collectivistic nature of Russian political culture. The author's main argument is that since Russian political culture still retains authoritarian elements, the attainment of a civic culture and democratization in Russia is not likely in the short- and mid-term. In the long term, however, successful market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will create favorable circumstances for democracy.

Key words: Russia, political culture, democratization

1960년대 경제자유화에 대응한 일본 통산성의 산업정책: '외압과 반응'의 동학

김 용 복(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Ⅰ. 머리말
Ⅱ. 경제자유화와 산업정책의 조정
Ⅲ. 일본의 경제자유화: '자유화' 외압과 단계적 양보
Ⅳ. 통산성의 산업정책: '역자유화' 반응
Ⅴ. 경제자유화에 대한 일본 산업정책의 특징

ABSTRACT

The Economic Liberalization and the MITI's Industrial Policy during 1960s

This study focuses on the Japanese characteristic of responsive industrial policy to economic liberalization pressure during 1960s. The MITI's responses to economic liberalization were an advocation of both New Industry Order and Reorganization Strategy and an active promotion of industrial restructuring. However these policies were a reverse adjustment to liberalization. MITI sought for a new form of industrial policy rather than a weakening of bureaucratic intervention. Therefore theses reverse-liberalization policy responses resulted in a distoration of domestic market and brought on a trade friction.

Key words: industrial policy, economic liberalization, MITI, New Industry Order, Reorganization Strategy

유럽통합과 독일의 새로운 딜레마

김 성 형(통일시대연구소 연수실장)

Ⅰ. 서론
Ⅱ. 유럽연락(EU)의 전개: 심화와 확대
Ⅲ. 독일외교정책의 당면과제와 딜레마
Ⅳ. 결론: 독일의 새로운 선택

ABSTRACT

European Integration and the New German Dilemma

The fall of the former Soviet Union and the East-European system and Germany's reunification have shaken the existing international political structur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long term implications Europe's integration might have for Germany's national interests. Germany must deal with the question of how to satisfy the demands of its citizens domestically and harmonize these demands with the demands of the other European nations, which have some reservations about Germany's intentions. These suspicions are related to the German geopolitical position and its enhanced political power. In order to satisfy all these domestic and foreign demands, this paper argues Germany will possibly pursue an interdependent foreign policy.

Key words: Germany and foreign policy, EC/EU, convergence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김 광 린(아태평화재단 연구위원)

Ⅰ. 연구목적
Ⅱ. 고르바초프 등장 이전 소련의 한반도 정책
Ⅲ. 80년대 중반 이후 93년도까지의 한반도 정책
Ⅳ. 94년 이후의 한반도 정책
Ⅴ. 전망 및 평가
Ⅵ. 맺는말

ABSTRACT

Russia's Policy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For about a decade, the Soviet Union and then Russia pursued a 'Two-Korea Policy.' Since 1994, however, Russian policy has changed from a higher priority on South Korea to a so-called balance between the two Koreas. Arguing that its changed policy line better contributes to peace and stability on the peninsula,

Russia is presently making an effort to rekindle its old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regain its influence over the Korean peninsula. In this situati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urged to be highly prudent in diplomatic considerations in order to secure Russia's support to our commitment to a peaceful and gradual reunification.

Key words: Two-Korea policy, dismantling the Cold War structure, balance between the two Koreas, peaceful reunification

동북아 질서와 한 · 러 관계: 러시아의 시각

미하일 노소프(러시아 미국 · 캐나다 연구소 부소장)

Ⅰ. 서론
Ⅱ. 한반도의 상황
Ⅲ. 중국의 상황
Ⅳ. 러시아의 상황
Ⅴ. 지구화와 아시아에서 러시아의 미래

ABSTRACT

The Korean-Russian Cooperation and the Northeast Asian Regional System: A Russian View

Strategic balance in East Asia to substantial extent depends on the future of the Russian foreign and military policy and also its internal development. But till now, oriented first of all on Europe and U.S., Russian foreign policy appears more and more isolated in Asia-Pacific. Today Russia is in search of a new concept of foreign policy. Region which includes China, Japan, ASEAN countries, both Koreas, and also Pacific part of the U.S. and Russian Far East became important and very dynamic part of the world politics and economy. In post Cold War period region, with its great economic development potential, preserved relative security stability. But there are at least three main areas where political and military developments can undermine stability and security of the East Asia: two Koreas, China, and Russia. The presented work is an attempt to analyze security balance in East Asia not on the level of hardware confrontation, which is important, but more or less clear and stable, but proceeding from evaluation of political correlation of forces and strategic intentions of main actors in Asian power play.

Key words: East Asia, Korean-Russian cooperation, Russia, China, U.S. strategic balance

한 · 러 군사협력의 현황 및 발전방향

세르게이 로고프(러시아 미국 · 캐나다연구소 소장)

Ⅰ. 서론
Ⅱ. 한 · 러 군사협력의 과거와 현재
Ⅲ. 한국의 방위산업 현황
Ⅳ. 러시아의 군산복합체 현황
Ⅴ. 한 · 러 군사협력의 미래

ABSTRACT

The Current Status and Future Development of the Russian-Korean Military Cooperation

The story of relations between Russia and Korea in the field of arm trade is rather simple and till now very short. In 19% Russia signed an agreement with South Korea to provide Seoul with 30 BMP-3 armored combat vehicles, 30 T-80U tanks, Igla portable antiaircraft missiles, Metis-M portable antitank missiles, worth a total of $150 million, to pay part of the country's $1.47 billion debt For two years all the plan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military cooperation did not go beyond contracts realized in 1996. Now, South Korean government agencies and private companies are carefully studying Russian possibilities on technical assistance for the production of airs. Russian military industrial complex also have good prospects on the Korean technological market in the field of space and nuclear technologies. The paper is devoted to the analysis of the problems of arms trade and military industry of both countries.

Key words: Russia, Korea, Russian-Korean military cooperation, arms trade, military industry

국가론의 시각에서 본 'IMF개혁': 김대중 정권의 재벌개혁을 중심으로

손 호 철(서강대)

Ⅰ. 여는 글
Ⅱ. 이론적 전제: 국가론을 다시 생각한다
Ⅲ. 지적 우회: 김영삼정권과 김대중 정권 가상비교
Ⅳ. 김대중 정권의 재벌개혁: 국가론적 해석
Ⅴ. 맺는 글

ABSTRACT

An Analysis of Kim Dae-Jung Government's Chaebol Reform: From the Perspective of State Theor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recent chaebol initiated by the Kom Dae-Jung government as a part of its 'IMF reform' from the perspective of state theory. In particular, the paper employed four types of relative autonomy of the state, i.e. 'internal-instrumental' autonomy, 'internal-structural' autonomy, 'external-instrumental' autonomy and 'educational-structure' autonomy from the viewpoint of 'Neo-Marxist' state theory. First of all, paying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previous Noh Tae-woo and Kim Young-sam governments were well aware of the necessity of the chaebol reform and even tried it with little success, the paper traced the causes of their failure and contrasted them with the 'relative intensity and success' of Kim Dae-Jung government's reform, even though its future is still uncertain. By this analysis it attempted to prove that the 'relative intensity and sucess' of the recent reform is attributable not to the fact that the new government is more democratic and more reformist than the previous ones (related to the 'internal-instrumental' autonomy of the state from chaebols) but to the fact that the recent national crisis which led Korea to a near moratorium increased internal-structural autonomy of the state from chaebols drastically and decreased its external-instrumental and external-structural autonomy from the IMF and foreign capital which are demanding the chaebol reform. In fact, it was argued that without the IMF crisis because of the resistance of chaebols the new government would have launched chaebol reform with less success than Kim Young-sam government. Furthermore, even under the condition of the allegedly 'biggest crisis' in Korea since the Korean War, the internal-structural autonomy of the state is still limited and the chaebol reform is not strong enough. Bu this cast study, the paper also tried to prove that despite many problems such as functionalist explanation neo-Marxist state theory in general and the concept of relative autonomy of the state in particular is still a valuable asset for understanding the capitalist state and that recent neo-institutionalist state theory is overvalued then its real value. In fact, the recent crisis le to a near theoretical bankruptcy the neo-institutionalists who has been busy in praising as the cause of the success of Korean economy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peculiar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society in Korea with the new concepts such as 'embedded autonomy'.

Key words: IMF, chaebol, reform, Kim Dae-Jung, state autonomy

과학기술시대의 도래와 정치권의 역할

최 영 식(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정치외교학 박사)

Ⅰ. 서론
Ⅱ.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현위상과 주요 정책과제
Ⅲ. 과학기술 발전과 정치권의 역할
Ⅳ. 21세기 과학기술시대의 준비를 위한 정치권의 대응

ABSTRACT

Advent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Era and Role of Political Authorities

As knowledge becomes synonymous with power in the coming 21st century knowledge-based society, the interface between science, technology and politics will become more direct than ever before. Accordingly, the roles of political authorities, and the scientific community will be required to accommodate this change by creating an environment conducive to the promotion of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as a critical means of generating new knowledge.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Korea's science and technology capabilities and the current activities of the political authorities of major industrially-advanced countries. It will then outline some of the political implications for the role of Korean political authorities in establishing national vision and goals for new science and technology enterprises in the information age.

Key words: knowledge-based society, science and technology, politics

북풍의 정치학:
선거와 북한변수

정 준 표(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머리말
Ⅱ. 북풍은 무엇인가?
Ⅲ. 북풍은 왜 발생하는가?
Ⅳ. 북풍은 얼마나 강한가?
Ⅴ. 북풍은 어떻게 피해를 주는가?
Ⅵ. 맺음말: 앞으로의 전망과 제안

ABSTRACT

Politics of Northern Winds:
Elections and North Korean Variables

It seems that there was no election where the so-called "North-Korean Variables"—incidents that were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North Korea—did not affect the result. The April 11th general election in 1996 was no exception. The election marked the first time that the tilling party outperformed the major opposition party in recent general elections. It is widely believed that this result was at least partly caused by North Korea's military incursions into the Demilitarized Zone before the election. Mass media coined the term "Northern Wind" to describe this DMZ incident. How many seats were lost by the opposition NCNP due to this Northern Wind? Why did North Korea send such a wind? Why did it cause disproportionate damage to the NCNP? These are some of the questions this paper will attempt to answer based on available data.

Key words: Northern Wind, North-Korean variables, DMZ, regional voting, election, color dispute

지역통합 이론의 재검토:
국가중심주의와 탈국가중심주의

구 갑 우(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Ⅰ. 서론
Ⅱ. 근대적 딜레마로서 지역통합
Ⅲ. 신지역주의의 출현:
지역통합의 역사적 맥락
Ⅳ. 통합이론의 분류:
유럽통합 이론을 중심으로
Ⅴ. 통합이론의 쟁점정리 및 이론의
재구성을 위한 출발점
Ⅵ. 결론

ABSTRACT

Theories of Regional Integration Revisited:
State-centric Versus Non-state-centric Views

This paper examines the existing theories of regional integration from a critical perspective. The author classifies them into state-centric, non-state-centric and electric theories—beyond the traditional division between neorealism and neofunctionalism. State-centric views, including intergovernmentalism and neoliberal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place the emphasis on relations between member governments as driving forces pushing for regional integration. They also perceive the outcome of regional integration to be an international regime. Non-state-centric views, including neofuctionalism, large-firm-centric theory and the theory of a regulatory state, focus upon the activities of social groups at the transnational and national levels. They regard regional integration bodies as chiefly transnational policies. Eclectic approaches lie between these. This paper argues that globalization and regional integration since the 1980s should be understood as the spread of non-state-centric ideas and actions in real terms. It suggests the reformulation of the theory of regional integration and concludes that regional integration should be understood as the internationalization of political authorities where transnational and national levels, in consideration of the dynamic interaction between interstate relations and capitalist social relations in the contemporary age.

Key words: regional integration, state-centric view, non-state-centric view, international regime, transnational polity, European Union

기술-경제적 패러다임 이론과 기술종속적 테제의 비판적 고찰: 과학적 현실주의와 세계체제이론의 시각에서

박 훈 탁(건국대 강사)

Ⅰ. 문제의 제기
Ⅱ. 한국경제에 관한 기술종속적 테제와 기술- 경제적 패러다임 이론의 설명과 예측
Ⅲ. 비판적 고찰을 위한 분석틀: 실증주의, 과학적 현실주의, 그리고 세계체제이론
Ⅳ. 기술-경제적 패러다임 이론과 기술종속적 테제의 비판적 고찰
Ⅴ. 요약과 함의: 구조조정의 목적과 방향

ABSTRACT

A Critical Review of Techno-Economic Paradigm Theory and the Technology-based Dependeny Thesis: Scientific Realist and World System Theory Perspectives

At this critical juncture, both the society in general and the ruling regime in particular are rife with unwarranted optimism. But estimating fundamental without considering competitiveness is, in fact, meaningless. To the extent that the Korean society and government continue to stick around the optimism produced in this selective way, we may lose the chance to put the economy on the right track.

Finding out some methodological flaws in the optimistic understanding of the Korean Economy developed by Freeman & Perez and Skolinikoff, this essay suggests a proper direction of restructuring to strengthen the country's competitiveness. Those are authors of the influential Techno-Economic Paradigm Theory and Technology-based Dependency Thesis respectively. The evaluative framework used here consists of basic methodological points of positivism, scientific realism, and world system theory.

Key words: Positivism, Scientific Realism, World System Theory, Techno-Economic Paradigm, Technology-based Dependency, Economic Sociology

APEC를 중심으로 하는 아태지역 경제협력의 가능성: 제도주의적 접근

유 현 석(중앙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Ⅰ. 서론
Ⅱ.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지역경제협력: APEC을 중심으로
Ⅲ. APEC의 제도적 성격에 관한 논의
Ⅳ. APEC의 제도적 성격에 관련한 득실 구조
Ⅴ. APEC의 제도적 성격을 둘러싼 갈등의 측면에서 본 APEC의 전망
Ⅵ. 결론: APEC의 미래와 한국의 대응전략

ABSTRACT

A Study on the Future of APEC: An Institutional Approach

The future of APEC, in terms of its institutionalization, function, and even nature, has been the subject of intense scholarly discussion. This study argues that institutional features of APEC influence not only the workings of the institution but also the nature and character of the institution itself. This study, adopting an institutional approach, suggests that we have to keep an eye on interactions among major members of APEC over the issue of APEC's institutional features, especially the openness of the institution, the size of the institution and the level of institutional authority. The future direction of APEC will be mainly influenced by the struggle between the U.S. and ASEAN. The role of Japan is critical in the sense that it can change the balance between two actors.

Key words: APEC, institutional features, institutionalization, regional cooperation, open regionalism

국제기구로서의 KEDO:
각국의 이해관계와 한국의 정책

정 옥 임(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Ⅰ. 서론
Ⅱ. KEDO의 탄생
Ⅲ. 구조, 운영 및 역학
Ⅳ. 결론

ABSTRACT

KEDO as an International Institution:
Interests and Roles of Concerned Parties
and South Korea's Policy toward KEDO

This is a case study of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which was created for the purpose implementing the Geneva Agreement of 1994. The paper attempts to explain and review the process leading to the conclusion of the Geneva Agreement and the formation of KEDO, each party's vested interests as reflected in the bargaining process based on the controversy of liberal institutionalism versus realism, and the role and limitations of an international hegemon (in this case the United States) as an institution builder, which does not bear the lion's share of the financial burden. It also examines the preferences of participant countries and their respective perceptions of absolute and relative gains. The author asserts that KEDO provides a good example of a realistic third way whereby countries can band together in an ad hoc fashion to tackle specific, common tasks, even if thorny issues remain among the participants such as the cost sharing and supply of heavy oil.

Key words: KEDO, Liberal Institutionalism, KEPCO, ROM, IOLA, TSC, LWR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진출: 기회와 제약

백 태 열(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교수)

Ⅰ. 서론: 문제의 제기 및 목적
Ⅱ. 일본의 의도와 시도
Ⅲ. 일본의 진출목적: 세 가지 목적
Ⅳ. 일본의 제약
Ⅴ. 결론: 요약과 전망

ABSTRACT

Japan's Pursuit for Permanent Membership on the U.N. Security Council: Opportunities and Restraints

This paper explores Japan's challenges, efforts and restraints in its bid for permanent membership on the U.N. Security Council. Following the end of the Cold War, the Japanese government began to make vigorous efforts to seek permanent membership on the Council.

Such efforts were designed to enable Japan not only to play a more important political role but also to assume larger global responsibilities in the international arena. However, Japan's bid was challenged by the U.S. and the Third Word.

Despite these restraints, Japan is expected to become a permanent member of the worldwide organization before the end of this century.

Key words: Japan, Permanent Membership, United Nations, Opportunity, Restraint, Response, U.S., the Third World

양반과 부르조아

전 상 인(한림대 교수)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조선조의 지배계층: 양반
Ⅳ. 한국사회의 지배계층: 부르조아
Ⅴ. 결론

ABSTRACT

Yangban and Bourgeoisie

This paper aims to contrast the two historical ruling classes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hegemonic domination. They are the *yangban* aristocracy of the Chosun dynasty and the contemporary South Korean bourgeoisie. The *yangban* were able to exercise an extraordinary degree of power over their society as well as over the state. They were hegemonic as a ruling class, which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remarkable political and social stability of the five-century long Yi dynasty. However, the South Korean bourgeoisie, especially the Chaebol, remains a decidedly unhegemonic class, despite its enormous concentration of wealth and increasing political influence. The ruling class in South Korea today continues to be surrounded by an aura of public disapproval and illegitimacy due to charges of "illicit accumulation" and "compradorism."

Key words: *yangban*, bourgeoisie, class, hegemony

족군 · 종족 · 민족 · 그리고 중화민족

방 중 영(중국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허 종 국(북경대 박사과정)

Ⅰ. 서론
Ⅱ. "족군" 개념에 대한 해석
Ⅲ. 민족은 "종족"과 동일시 할 수 없다.
Ⅳ. 민족 개념에 대한 재분석
Ⅴ. 중화민족과 중국내부의 각 족군간의 모순과 통일

ABSTRACT

Ethnic Group, Race, Nation, and the Chinese Nation

This paper differentiates and defines ethnic group, race, and nation. Broader than ethnic group or race, nation implies political and economic community as well as cultural commonalities and blood ties.

That is, the concept of nation encompasses 'political nation (democratic citizenship)' and economic nation (unified economic life).'

Nation building is a dynamic process where human communities progress form dissimilarity to similarity, China is composed of diverse ethnic groups and has a problem of 'competing identities' between the Chinese nation and minority ethnic groups. But China's rational option would be to transcend ethnic nationalism and achieve Chinese nationalism in a progressive sense.

Key words: ethnic group, race, nation, nationalism, China

한국의 민주적 공고화와 사회협약의 가능성: 김대중 정부하의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강 문 구(경남대 정치외교학과)

Ⅰ. 문제제기
Ⅱ. 노동문제와 민주적 공고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정치협약을 통한 민주화이행과 노동배제의 정치
Ⅳ. 노사정위원회의 활동과 노동 포섭의 정치
Ⅴ. 노사정위원회의 성립과 사회협약의 가능성
Ⅵ. 결론에 대신하여

ABSTRACT

Democratic Consolidation and the Feasibility of a Social Pact in the Kim Dae-jung Government:
With an Emphasis on An Analysis of the Tripartite Commission

This research explores a trajectory of democratic consolidation in relation to experiments around the Tripartite Commission under Kim Dae-jung Government. This paper, presupposes that the democratic consolidation in Korea has is connected to the lot to do with feasibility and a type of socio-economic pacts. Experiments with feasible socio-economic pacts were underway when President Kim Dae-jung announced the establishment of Tripartite Commission. The formation of this Commission is a critical juncture in the democratization process in the sense that it is the first commission in which labor representatives are able to participate in national talks as equal partner remains. The results of these talk are still biased.

Key words: Democratic consolidation, socio-economic pact, Tripartite Commission, political pact, democratic transition

민주주의와 관료제:
관료제의 비대화 및 병폐의 정치적 원인

임 성 호(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서론
Ⅱ. 관료제 비대화와 폐해에 대한 두 시각
Ⅲ. 관료제 비대화의 정치적 원인
Ⅳ. 관료제 병폐의 정치적 원인
Ⅴ. 관료제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제의 변화 방향

ABSTRACT

Democracy and Bureaucracy:
Political Motivations behind the Growth and Malfunctions of Bureaucracy

This paper theoretically assesses the two competing explanations of why the growth of modern bureaucracy continues and why the with is charged of so many problems. A conventional explanation regards the bureaucratic growth and malfunctions as a result of macro social environmental changes; it also emphasizes reforms of bureaucratic institutions to better adjust them to new social environments. By contrast, according to a more recent, politics-oriented explanation, the motivations of politicians seeking their selfinterest through democratic governing processes are the actual driving force behind the limitless expansion and rampant problems of the modern bureaucracy. This paper highlights a theoretical and logical validity of the latter perspective, and argues that fundamental changes in the behaviors of politicians as democratic lawmakers, not merely bureaucratic reforms, are required to maintain an appropriate sized of bureaucracy and cure bureaucratic problems.

Key words: Democracy, Bureaucracy, Political Motications Growth

인권과 한국의 민주화:
김영삼 정권 시기를 중심으로

김 녕(서강대 교양과정부 교수)

Ⅰ. 서론
Ⅱ. 인권, 민주주의, 민주화
Ⅲ. 김영삼 정권 시기의 인권과 한국의 민주화
Ⅳ. 결론

ABSTRACT

Human Rights and Democratization of Korea:
With Focus on the Kim Young Sam Regime Period

The present paper begins with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democratization and the human rights. Then, it shows that human rights were taken into very little consideration by the Kim Young Sam government. It was mostly due to the fact that the government had no will to resolve the human rights problems or had no right concept of human rights from the beginning, It was exemplified by the following four failures: its failure to resolve the human rights violations of the past, to reform 'bad news' such as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the labor law, to abide by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s a signatory, and to promote policies and educations for improving human rights situation in Korea. Then, it concludes by emphasizing that the future direction should be guided by the human rights concerns in order no to keep off the right track for democratization.

Key words: Human Rights, Democratization, Kim Young Sam Regime

1980년대 OECD 국가의 조세개혁: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중심으로

김 기 석(아주대 세계지역연구센터 전임연구원)

Ⅰ. 들어가는 말
Ⅱ. 경제적 요인
Ⅲ. 정치적 요인
Ⅳ. 분석
Ⅴ. 결론

ABSTRACT

Tax Reforms in the OECD Countries in the 1980s:
The Cases of Individual Income Tax and Corporate Tax

This article puts forward empirical explanations for the spontaneous and widespread tax reforms that ware inplementel in the OECD countries in the 1980s. The standard explanation for many changes in tax policy across industrialized countries has been "economic integration." This argument suggests that the increase in capital mobility and the exposure to trade tended to encourage tax competition among states resulting in the convergence of taxation policies across the states. This paper contends that accnratc explanations of the success, failure and scope of tax reforms must include systematic considerations of domestic economic/political variables such as economic growth, unemployment, inflation, partisanship of the ruling party, and the number of veto players. The statistical study of this paper implies that international variables affect tax reform through the mediation of such domestic factors.

Key words: OECD, Tax, Reform, Internationalization, Neo-Institutionalism

러시아에서 자본주의적 사회계층구조의 형성과 그 특징

강 혜 련(러시아연방 국립 삐찌고르스끄 언어학대)

Ⅰ. 머리말
Ⅱ. 러시아 경제개혁의 전개와 사회적 영향
Ⅲ. 신흥자본가계층의 출현과 그 기원
Ⅳ. 중간계층과 노동계급의 재편
Ⅴ. 맺음말

ABSTRACT

The Formation and Specific Features of Capitalist Social Groups in Russia

This research is focused in the quickly developing changes within the Russian social structure. For this purpose, the following two problems are to be discussed. Firstly, how the Russian economic reform affected the society. The economic reform policy, directly affecting the life of people and causing quick changes in social composition was also accompanied by the emergence of the new social strata. Secondly, what is the present state of the social groups in the light of quick social disintegration and formation of new groups. The origins and emergence of the long-negated by the former Soviet Union new bourgeoisie, the quick dissolution and restructuring of the excessively grown middle class, the return of the working class from the allegedly ruling position into the reality of exploited class, the phenomenon of its extreme impoverishment-these and some other important topics will be discussed below.

Key words: Russian social structure, Russian economic reform, Social composition

미얀마의 장외 정당정치:
1990년대 SLORC정권 시기를 중심으로

양 길 현(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Ⅰ. 머리말
Ⅱ. 미얀마 민주화운동과 정당정치의 태동
Ⅲ. 1990년 총선과 정당정치의 봄
Ⅳ. SLORC의 신헌법제정작업과 장외 정당정치
Ⅴ. 아웅산수지의 연금해제 이후의 장외 정당정치
Ⅵ. 맺는말: 미얀마 정당정치의 미래

ABSTRACT

The Outdoor Party Politics of Myanmar During SLORC Rule

Party politics in Myanmar was reborn in 1988 through pro-democracy demonstrations. Ironically, after the NLD won an overwhelming victory in the 1990 election. Myanmar's party politics has largely been deprived of its dynamic force. Myanmar's party politics has barely managed to survive outdoors, while military rule has continued to thrive.

This paper explains Myanmar's outdoor party politics, focused on the conflicting issues and confrontations between the SLORC-NUP-USDA and the NLD. Through the use of outdoor party politics, the NLD confirms its presence and role as a legitimate and meaningful opposition party in Myanmar. Outdoor party politics also acts as a vehicle to legitimize Aung San Sun Kyi as a popular political leader and an alternative to the current military leadership.

Through Myanmar's outdoor party politics is characterized by indirectness and confrontation, it may help to act as a means to provide democratic institutions. Therefore, this paper's aim is to describe the possibility of Myanmar's future democratization.

Key words: Myanmar's democratization, Myanmar's outdoor party politics, Aung San Suu Kyi, SLORC, NLD, NUP, USDA

Icarus의 비운:
김영삼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요인 분석

최 완 규(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여는글
Ⅱ. 실패한 대북정책
Ⅲ. 대북정책 실패요인 분석
Ⅳ. 맺음말: 김영삼정부 대북정책 실패의 교훈

ABSTRACT

The Sad Fate of Icarus:
The Kim Yongsam's Governments Policy toward North Korea

Recently, there has been a lot of discussion's on the Kim Yongsam govern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The majority of these discussions simply enumerated examples only and primary principals of this failed policy. However, in order to undertake a systematic analysis, it si necessary to understand the inter-connections between the primary factors and the current situation which may lead to different forms of failure.

This research attempts to formulate a desirable policy towards north Korea water than simply to analyzing the reasons behind the Kim Yongsam government Northern illfated policy. For this purpose, the analysis of the policy towards the North over the last five years will be undertaken from the perspective of conflict between the "state-centered paradigm" and the "nation-centered paradigm."

Key words: Kim Yongsam government, North Korea, State-centered paradigm, Nation-centered paradigm

한미통상마찰과 미일통상마찰의 비교연구: 1995년 자동차협상의 사례분석

양 기 웅(한림대 정치외교학과)

Ⅰ. 들어가는 말
Ⅱ. 미일자동차협상(1995)
Ⅲ. 한미자동차협상(1995)
Ⅳ. 미국의 대일-대한 협상전략 비교
Ⅴ. 한국과 일본의 대미 협상전략 비교
Ⅵ. 한국-일본의 국내정치 비교
Ⅶ. 맺음말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wo Trade Conflicts:
Korea-US and US-Japan Automobile Negotiations in 1995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iveness of two-level game approaches by analyzing two trade negotiations; Korea-US and US-Japan Automobile Negotiations in 1995. Two negotiations closed in 1995 and had same counterpart. Clinton Administration sent threats to both of Korea and Japan. However, the strategies of Korea and Japan were different. And negotiations outcomes are also different. This paper provides and examines several hypotheses that explain the difference of negotiation outcomes.

Key words: Korea, US, Japan, automobile negotiation, two-level game

동아시아와 케난의 딜레마

김 영 호(세종연구소 연구위원)

Ⅰ. 서론
Ⅱ. 케난 전략의 이론적 기초
Ⅲ. 케난의 봉쇄전략과 동아시아
Ⅳ. 케난의 딜레마
Ⅴ. 결론

ABSTRACT

East Asia and the Dilemmas of George F. Kennan

Despite the end of the Cold War in Europe, the East Asian regional order established by the Yalta agreement has not yet been supplanted with a new ord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and the emergence of Japan as an economic superpower Were anticipated by theorists of the Riga tradition who opposed President Roosevelt's cooperative policies with the Soviet Union through the Yalta agreement, Roosevelt's Soviet policies emphasized friendly and cooperative policies toward the Soviet Union. In contrast, George F. Kennan is the prominent theorist of the Riga tradition which emphasizes the Soviet threat to the security of the U.S. and the efforts to contain the spread of Soviet power and prestige.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explain the strategies of the U.S. toward East Asia put forwarded by Kennan after World War II. This essay also explains the theoretical basis of Kennan's realism and how his containment strategy was related to U.S. strategies toward East Asia. Finally this essay analyzes the dilemmas Kennan faced in formulating the U.S. East Asian strategy.

Key words: George F. Kennan, Containment Strategy, East Asia, Yalta Agreement, Cold War

미국의 대북한 정책의 재조정: 기본합의와 그 이후

박 건 영(가톨릭대 교수)

Ⅰ. 서론
Ⅱ. 미국의 국가안보전략과 대북한 정책
Ⅲ. 미국의 대동북아 정책의 개입
Ⅳ. 미국의 대북한 정책의 재조정
Ⅴ. 결론: 정책적 함의

ABSTRACT

Readjustment in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The Agreed Framework and Beyond

This paper purports to make a prediction about the upcoming readjustment in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which was caused in major part by incidents involving North Korea's suspect nuclear site and the firing of long range missile (or multistaged rocket) in 1998. Considering North Korea's potential to disrupt the status quo in East Asia, which has served well the U.S. national security objectives in the post Cold-War era, and its increasing strategic value,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U.S. is expected to come up with a comprehensive package deal, once again, which would require North Korea to address and eliminate the totality of its security threat while ensuring its soft landing and survival as a sovereign state. Based on this prediction, a number of policy implications for South Korean government are discussed.

Key words: national security strategy, comprehensive package deal, totality of security threat, soft landing, survival, SPSS, NPT, CTBT, TMD, CWC, MTCR, the Nye Report, the Perry Report, engagement, the Sunshine policy

외교정책과 여론:
'Almond-Lippmann Consensus'와 그 비판적 검토

남 궁 곤(서울대 강사)

Ⅰ. 머리말
Ⅱ. 외교정책과 여론에 대한 현실주의-자유주의 전통
Ⅲ. 현대전쟁와 현실주의-자유주의 논쟁
Ⅳ. 외교정책과 여론에 관한 'Almond-Lippmann Consensus'에 관해서
Ⅴ. 'Almond-Lippmann Consensus' 의 한계점과 반전의 패러 다임
Ⅵ.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여론의 역할
Ⅶ. 맺는말

ABSTRACT

Foreign Policy and Public Opinion:
'Almond-Lippmann Consensus' and Its Critique

The present study provides an overview the broad range of literatures in the public opinion and foreign policy field. It examines new liberal challenges to the realist tradition that specifies the roles of public opinion in the formation and conduct of foreign policy. Since the Vietnam War, a series of studies show that a new consensus with respect to the properties, structure, and impact of public opinion on foreign policy have emerged. They center on three major propositions as following: public opinion is stable and rational; public opinion is structured and coherent; and public opinion has a significant impact on foreign policy. However, this study provides a few intervening variables to be considered. The roles of public opinion in foreign policy depend on the domestic structure of nations, policy situations, policy issues and timing to activate public opinion.

Key words: foreign policy, public opinion, foreign policy belief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polling, Realism and Liberalism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전략적 투표자

경 제 희 · 김 재 한(한림대 정치외교학과)

Ⅰ. 서론
Ⅱ. 전략적/직설적 투표 행태에 대한 개념과 조작정의
Ⅲ. 개별 배경별 전략적 투표 성향
Ⅳ. 종합분석

ABSTRACT

Strategic Voters in the 15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Some people vote strategically while others do not. With the survey data of the 15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who votes strategically. First, the concepts of strategic voting and sincere voting are analytically and empirically. Second, the residents of Honam area, the aged, the conservative are found to be more likely to vote strategically than are others. Third, the residents of Honam area are shown to be more likely to vote sincerely as well than are others. Finally, with the concept of the relative strategic voting, we concluded that age and conservativeness explain best the strategic voting in the 1997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Key words: strategic voting, sincere voting, strategic voters, sincere voters, the 15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대기업도시 울산시와 도요타시의 기업권력과 지방정치: 한일간 자동차생산도시의 비교연구

박 재 욱(신라대 법정학부 행정학전공 전임강사)

Ⅰ. 서론
Ⅱ. 대기업도시의 개념과 특성: 울산시와 도요타시
Ⅲ. 지방재정의 대기업 의존과 기업 주도형 도시정치 · 행정
Ⅳ. 대기업의 지역관리체제와 주민조직
Ⅴ. 결론

ABSTRACT

Business Power and Local Politics in Big Corporation-led Cities, Ulsan and Toyota:
A Comparative Study on Automobile City between Korea and Japan

This article begins with an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urban political structure and focussing on the political power of a big corporation on a local community by comparing Ulsan with Toyota. In both cities, big corporations have dominant roles in local economics in a similar way, so are their political influences on local community. In particular, Toyota Motors has direct control over municipal management, electoral process and local politics. Furthermore, the powers of these corporations are further reinforced by local hegemonies, established by community management systems. In the case of Hyundai Motors, such local hegemony tends to be maintained by corporatism available through the monopolistic supply of collective consumption provided under the basis of corporate welfare.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oyota such local hegemony tends to be more organised: Yukata Association is composed of laborers of Toyota Motors; Jijiku and Jijiku Community that are self-organizations by Toyota civil society, and are affected by Toyotaism. In conclusion,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ower expressed by big corporations on local community between Ulsan and Toyota. The power of Hyundai has hardly been challenged by civil society hue to its weak self-organization and its inactivity, while that of Toyota ha been relatively restrained by the dynamics of Jijiku Community and Jijiku Head Meetings.

Key words: Business Power, Local Politics, Local Hegemony, Automobile City, Ulsan, Toyota

정보통신혁명과 정체성

유 석 진(서강대 정치외교학과)

Ⅰ. 정체성의 문제
Ⅱ. 정보양식론: 포스터의 논의를 중심으로
Ⅲ. 정보양식과 정체성
Ⅳ. 맺는 말을 대신하여: 정보양식과 정체성에 대한 반론

ABSTRACT

Information Revolution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Ongoing revolution in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makes us rethink the politics of identity. The "new" logic of identity is replacing the "old" logic of identity, which is constrained by the spacial and historical context. The new logic emphasizes the constructive aspects of identity, that is, identity is always in the process of formation and construction. The mode of information argument supplements this new identity. As Poster argues, electronic mode of information creates a new identity for the individual, group and the nation-state. One school argues that the new identity will take the form of global citizen replacing the nation and nationalism, while others argue that it will take the form of electronic feudalism. Like feudal society, various agents will claim the loyalty, including the global firms, state, NGOs and ethnos.

However, mode of information argument suffers critical shortcomings. First, there is an imbalance between the "in" group and the "out" group of information revolution. Mode of information analysis can be best applied to the "in" group, while mode of production to the "out" group. Second, information revolution can be a necessary condition for new identity but it is not a sufficient condition. Sufficient condition lies in how the individual will digest and utilize that revolution. Finally, mode of information analysis sufferers from technological determinism. Technology is not neutral. It embodies power relationship at a given time and space.

Key words: information revolution, identity, mode of information, nation-state

복지국가와 경쟁력:
영국의 신자유주의적 실험

김 영 순(아주대 세계지역연구센터 전임연구원)

Ⅰ. 머리말
Ⅱ. 경쟁력: 개념과 측정지표
Ⅲ. 신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재편
Ⅳ. 경쟁력의 변화: 성과와 한계
Ⅴ. 맺음말

ABSTRACT

The Welfare State and Competitiveness:
A Neo-liberal Experiment of Britain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a welfare state and its competitiveness by focusing on the British case under Thatcher government. Based on the neo-liberal logic of "welfare-growth trade-off", Thatcher government carried out restructuring of the major institutions and policies of the welfare state. As a result income inequality increased faster in Britain than any other advanced countries. Nevertheless, any indictor does not show that Britain improved its competitiveness notably throughout this period. The research outcome reveals that, 1) the Thatcherite kind of supply-side economics hardly improved the competitiveness of a nation, if it lacks a long-term and consistent state policy to provide the base of underlying competitiveness and, 2) that contrary to the neo-liberal logic, the retrenchment of the welfare state does not guarantee automatically the recovery of competitiveness.

Key words: neo-liberalism, welfare state, competitiveness, Thatcherism

"아시아적 가치" 관련 동서논쟁의 재조명

전 제 국(미국 국방대학원 초빙연구원)

Ⅰ. 문제의 제기
Ⅱ. 동서논쟁의 뿌리 원인과 정치적 파장
Ⅲ. 아시아적 가치와 사회발전: 공동체주의의 허실
Ⅳ. 아시아적 가치와 정치발전: 「아시아식 민주주의의」의 이상과 현실
Ⅴ. 아시아적 가치와 경제발전: 「경제기적vs금융위기」
Ⅵ. 정치체제와 경제발전: 정보화시대의 전망
Ⅶ. 결론

ABSTRACT

East-West Debates on "Asian Values" Reconsidered

This paper explores new avenues of viewing East-West cultures that are free of judgement-based ideology. Any culture like Christianity, Confucianism, and Islam is highly complex and holds a variety of values, ideas, beliefs, doctrines, assumptions, traditions, customs, and behavioral patterns. Confucianism contains some democratic elements no less significant than those in Christianity. On the other hand, Christianity also holds some authoritarian views. As a result, it cannot be said that one culture is superior to another. There is no concrete correlation between cultures and types of political regimes, between dominant values and economic development and liberal democracy.

Now, it is the time to harmonize both Asian and Western values in a mutually complementary fashion, away from the mono-dimensional debates over the superiority of one over the other. Solutions to social ills in the West lie in Asian communitarianism. Likewise, Western individualism and liberalism could remedy the chronic deficiency of diversity and creativity in Asian societies.

A new social construct that embraces particular aspects of both Western and Eastern values is beneficial for the East and the West. It is imperative for contemporary societies to redefine cultural mores away from a negative dichotomy of good/bad, superior/inferior and embrace the positive values rooted in every culture.

Key words: Asian values, Western values, Confucianism, Christianity, communitarianism, liberalism

록크의 자연상태 평화상태인가 전쟁상태인가

이 충 식(조선대 강사)

Ⅰ. 자연상태와 자연상태에서의 인간
Ⅱ. 자연법과 인간의 불평등
Ⅲ. 자연상태의 실체: 홉스적 전쟁 상태인가 록크적 평화상태인가?
Ⅳ. 결론

ABSTRACT

J. Locke's State of Nature

T. Hobbes and J. Locke were concerned with emphasizing the social contract as an explanatory concept of origin and the nature of society. But the origin of society and the relation between the individuals and their obligation to obey government and laws are fundamentally contractual. The social contract proposes that the state of nature, the law of nature and the equal natural right and freedom are all interconnected. They try to put these things together to get a theory of right and obligation. But the central concern between them is different.

As is generally recognized, Hobbes's state of nature is a state of war, while Locke's state of nature is a state of peace, good-will and mutual assistance. But, I think Locke's state of nature has been misunderstood. Most interpretations fail to account for contradictions in Locke's postulates; men are both on the whole rational and not rational and that the state is rational, peaceful. It is not essentially different form Hobbe's state of War. both Asian and Western values in a mutually complementary fashion, away from the mono-dimensional debates over the superiority of one over the other. Solutions to social ills in the West lie in Asian communitarianism. Likewise, Western individualism and liberalism could remedy the chronic deficiency of diversity and creativity in Asian societies.

A new social construct that embraces particular aspects of both Western and Eastern values is beneficial for the East and the West. It is imperative for contemporary societies to redefine cultural mores away from a negative dichotomy of good/bad, superior/inferior and embrace the positive values rooted in every culture.

Key words: J. Locke, T. Hobbes, State of nature, Social contract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 제도에 대한 비판적 재성찰

박 수 헌(경희대 국제관계학과)

Ⅰ. 머리말
Ⅱ. 자유민주주의의 형성과 전개
Ⅲ. 자유민주주의의 이념
Ⅳ. 자유민주주의의 제도
Ⅴ. 맺음말

ABSTRACT

The Ideas and Institutions of Liberal Democracy: A Critical Reconsideration

Liberal democracy is a combined product of liberal elements and democratic principles in the course of the modem capitalist development. Liberal and democratic ideas go together well with a common base on individuality, complementary relationships between individual freedoms and rights and democratic popular participation, and recognition of autonomous civil society.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two reveal conflictual relationships in the different conceptions of individualism, tensions between individual pursuits of freedom and public rule of the people, and conflicts between equality in the right to freedom and equality in the pursuit of substantive democratic values.

The representative system as the core institution of liberal democracy is regarded as the most realistic way of practicing democratic politics. Nevertheless, it contains undemocratic elements in the gap between ordinary citizens and elected politicians, the translation of socio-economic into political inequalities, and the weakening of the public nature of politics by the privatization of political affairs.

Accordingly, liberal democracy cannot be conceived as an ideal combination of liberalism and democracy. The capitalist order embedded in liberalism provides some fundamental infringements upon democratic values and principles, particularly in the conflicts between "negative freedom" and "substantive democracy."

Key words: idea, institution, liberalism, democracy, representative system

19세기 유럽협조체제에 대한 국제제도론적 분석: 현실주의와 구성주의 제도론의 시각에서

전 재 성(한국외대 강사)

Ⅰ. 서론
Ⅱ. 국제협력과 국제제도에 대한 이론적 견해들
Ⅲ. 유럽협조체제에 대한 이론적 설명
Ⅳ. 결론

ABSTRACT

The 19th Century Concert of Europe Analyzed by International Institutionalism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Concert of Europe which seems to have contributed to the maintenance of the so-called "one hundred years' peace," in 19th

century Europe. This article reviews four theories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neorealism, neoliberal institutionalism, constructivism, and classical realism-with the conclusion that constructivism and classical realism can provide sound explanations of the form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Concert of Europe.

The Concert of Europe reflected the underlying balance of power among 5 great powers (England, Russia, France, Austria, and Prussia) and other weaker countries, which supports the classical realist claim. Also it was strengthened by the "balance of rights" or collective security among European states which have evolved in common historical environments. The conclusion that the maintenance of implication to the post-cold war world stable international order depends on where the function of multilateral realistic balance of power and ideational consensus, may give some implication to the post-cold war world where the function of multilateral institutions has been stressed.

Key words: the Concert of Europe, constructivism, classical realism, balance of power, the function of multilateral institutions

김대중 정권과 한국 지역주의의 장래

최 영 진(중앙대 정치외교학과)

Ⅰ. 서론
Ⅱ. 분석틀
Ⅲ. 지배집단의 재구성과 경제개혁
Ⅳ. 한국 지역주의의 현실과 장래
Ⅴ. 결론

ABSTRACT

The Kim Daejung Regime and the Future of Korean Regionalism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future of Korean regionalism during the Kim Daejung regime considering following three major factors; (1)the political identity in each region, (2)the political incentive structure, and (3)the possibility of a new(post regionalistic) political realignment cross-cutting the regionalism. The national demands on the Kim regime can be summarized as the reconstruction of a state domination system and the normalization of the Korean economy over the IMF system. But the Kim regime is criticised by the voters of the Youngnam province as being "regionally discriminatory" in pushing forward the reconstruction strategy of state domination system. Though the strategis can be seen as inevitable measures in the process of grasping of the state apparatus by the new government and the normalization of the existing regional discrimination, negative effect on regionalism have taken place. Actually, the political identity of the each region has been reinforced and the political incentive structure strategies continues. The political reform planning by the regime is expected to result in a strategical coalition between tainted politicians, not in a reform-oriented and post-regionalistic coalition. In this respect, it can be expected that regionalism in Korea will not easily disappear without a structural and fundamental reform.

Key words: regionalism, political identity, political incentive structure, Kim Daejung regime, reform coalition, regional discrimination, state reconstruction

선거제도에 따른 지역주의 효과의 변화: 6 · 4 광역지방선거 시뮬레이션

이 현 우(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황 아 란(한국지방행정연구원)

Ⅰ. 서론
Ⅱ. 선거실시 방법에 따른 선거 결과
Ⅲ. 모델과 가설
Ⅳ. 분석결과
Ⅴ. 요약 및 결론

ABSTRACT

Implementation Methods of Local Elections and their Impact on Electoral Outcomes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electoral system of simultaneous implementation the 1998 local electrons on turnout and party support. By comparing the simulation outcomes of a separate implementation with the simultaneous one, we try to explain the surge and decline of regional support in Korea. The analysis shows that there is not much difference in electoral outcomes for chief executive offices but that the separate election for local councils leads to stronger regional when the separate implementing system. Although this finding contrasts the surge and decline phenomenon found in the congressional elections in U.S., the result implies the proportion of core and peripheral voters are critical to electoral changes in party support.

Key words: regionalism, simultaneous election, local election, surge and decline

90년대 시민사회의 의식변화와 시민운동의 성장

조 대 엽(고려대 사회학과 강사)

Ⅰ. 머릿말
Ⅱ. 정치권력에 대한 인식과 시민운동의 성장
Ⅲ. 개혁의 한계에 대한 인식과 새로운 운동이슈
Ⅳ. 대의체에 대한 불신과 시민운동의 성장
Ⅴ. 맺음말

ABSTRACT

The Change in Public Perception and the Growth of the Citizens' Coalition Movement in the 1990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future of Korean regionalism during the Kim Daejung regime considering following three major factors; (1)the political ideality in each region, (2)the political incentive structure, and (3)the possibility of a new(post regionalistic)political realignment cross-cutting the regionalism. The national demands on the Kim regime can be summarized as the reconstruction of a state domination system and the normalization of the Korean economy over the IMF system. But the Kim regime is criticised by the voters of the Youngnam province as being 'regionally discriminatory' in pushing forward the reconstruction strategy of state domination system. Though the strategis can be seen as inevitable measures in the process of grasping of the state apparatus by the new government and the normalization of the existing regional discrimination, negative effect on regionalism have strategical coalition between tainted taken place. Actually, the political identity of the each region has been reinforced and the political incentive structure strongly continues. The political reform planning by the regime is expected to result in a strategical coalition between tainted politicians, not is a reform-oriented and post-regionalistic coalition. In this respect, it can eb expected that regionalism in Korea will not easily disappear without a structural and fundamental reform.

Key words: citizens' coalition movement, people's consciousness, democratic movement, civie groups, small government

한국 '발전국가'에서의 국가-기업 관계와 '지원-규율' 테제: 조선산업 3대기업(현대조선, 대우조선, 삼성조선)을 중심으로

김 주 환(경기대 국제학부 강사)

Ⅰ. 머릿말
Ⅱ. 발전국가에서의 국가-기업 관계와 '지원-규율'테제
Ⅲ. 한국 조선산업에서 기업의 발전 유형
Ⅳ. 사례연구
Ⅴ. 맺음말

ABSTRACT

State-Business Relations and the 'Support-Discipline' Thesis in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sults and limits of the developmental state through the framework of "governed strategic interaction," by analysing state-business relations in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in the Korean shipbuilding industry. The focus of this analysis is on the critical assessment of the 'support-discipline' thesis which is the basis and assertation at the developmental state model. Three corporations are chosen as study cases. They are Hyundai Heavy Industries (HHI), Daewoo Heavy Industries (DHI), Samsung Heavy Industries (SHI).

The main argument of this paper is that 'support-discipline' thesis applies to market-conforming state business relations (HHI, SHI) better than market-repressing ones (DHI).

Key words: developmental state, governed strategic interaction, 'support-discipline' thesis, state-business relations, ship-building industry

일본의 정계재편과 오자와 이찌로:
오자와 이찌로의 정치이념과 전략을 중심으로

김 태 기(호남대)

Ⅰ. 서론
Ⅱ. 자민당 붕열과 오자와
Ⅲ. 오자와 대 반오자와
Ⅳ. 자자공체제의 성립
Ⅴ. 결론

ABSTRACT

The political Reorganization of Japan and Ozawa Ichiro

Since the collapse of the Liberal Democratic Party's, (LDP), the predominant political system in 1993, Japan's political environment is in a transition period. This essay analyzes the process of Japanese political reorganization, focusing on Ozawa Ichiro's political vision and strategy. After settling the internal strife within the LDP, Ozawa left the party. He advocated political reform before he left, and established himself as leader of a new party that promoted newconservatism. However, many conservative politicians did not subscribe to his ideology because of his self-proclaimed leadership and his tenacious views about creating a conservative party coalition. As a result, his political influence became weak. But new-conservatism became mainstream in the Japanese political environment and had the support of public opinion. Today, if Ozawa wishes to become a key political figure once again he must create another political strategy that can persuade conservative politicians. Furthermore, the new political strategy has to include political compromise and a change in Ozawa's personal political style and behavior.

Key words: liberal Democratic Party, Ozawa lchiro, political reform, new-conservatism, Japan

시장개방은 자유화인가?:
미일건설마찰과 이중기준의 정치

손 열(서울대 외교학과 강사)

Ⅰ. 서론
Ⅱ. 일본의 건설규제레짐
Ⅲ. 외압과 협상
Ⅳ. 합의이후
Ⅴ. 시장개방은 자유화인가?

ABSTRACT

Does the Opening of a Market Signify a Liberalized Market?

This paper questions and analyzes the U.S. influenced opening and liberalization of Japanese market. In regards to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results have been negative and found to be detrimental to the Japanese market. U.S. trade negotiators initially Promised the removal of structural impediments (i.e., exclusionary bidding system and bid-rigging practices), However the they compromised on a deal in which American firms were granted privileged access to the Japanese market in return for admitting the regulated system of the political economy in that sector. The positive result was that this non-liberal market opening denied non-U.S. firms to have access to areas where only U.S. firms could operate. This paper concludes with an evaluation of the implications of the negotiations.

Key words: liberalization, construction industry, Japan, U.S. negotiation

정치가의 합리적 선택, 연합정권, 그리고 일당우위정당체제: 일본의 사례

김 정(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원)

Ⅰ. 서론
Ⅱ. 첫 번째 퍼즐: 일당우위 정권의 붕괴
Ⅲ. 두 번째 퍼즐: 연합정권의 형성과 붕괴
Ⅳ. 세 번째 퍼즐: 소수파 정권의 형성
Ⅴ. 결론

ABSTRACT

The Politician's Rational Choice, Coalition Governments and the Predominant Party System:
The Case of Japan

In 1993 Japan' s longstanding and typical predominant party system was suddenly and dramatically brought to its knees. In attempting to explain this breakdown one could use a macro analytical framework taking into account voter' s grievance, economic depression or the collapse of the cold war system. Another option could be a micro analytical exploration concentrating on the rational choice of the actors. Following the latter, this paper seeks to understand the cause of the Liberal Democratic Party's fall in 1993, the actor's strategies of coalition government formation in 1993 and 1994 and the catalysts behind the LDP's return to one party dominance in 1996. In doing so various 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t approaches are adopted including the spatial competition theory, the portfolio allocation model and the electoral strategic coordination analysis. By this, it is argued that the strategic interaction of the actors, that is to say the politicians or the parties, i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in explaining the making and breaking of governments and the demise and restoration of party systems.

Key words: coalition government, Japan, politician, party, party system

90년대 이탈리아 정치 사회 변동과 중도-좌파 정치

이 해 영(한신대 국제관계학과)

Ⅰ. 서론
Ⅱ. 90년대 이탈리아 정치 사회 변동
Ⅲ. 월계수 연맹의 집권 과정
Ⅳ. 월계수 연맹 정부의 정책
Ⅴ. 평가와 전망

ABSTRACT

Italian Political-Social Change in the Nineties and the Center-Left Government

Italian politics could be characterized by 'stability in the unstability'. Since WWII, it has experienced over 50 shifts in government rule. During much of the period the ruling DC has repeatedly and successfully blocked the advancement of the CP and has maintained control of the Italian ruling block without great turbulence. But after the sudden bankruptcy of realexistent socialism in 1989 and 1990, the favoring Italian '*clientelismo*' political style disappeared in Italy and all of Western Europe. It brings the total crisis of old-fashioned Italian political system as a whole. It was a legitimation crisis. The success story of the 'Ulivo' could be understood only on such a background.

Italian society, a 'hyper-politicized' society suffered a severe challenge from both outside and inside factors during the 90's: globalization, European integration, neoliberalism (flexiblization, privatization), economic crisis, and political corruption, the malfunction of the *'partitocrazia*'. The Italian people sought another alternative; the 'Ulivo', a center-left coalition, which they felt was the answer. In 1996 many small-medium sized parties gathered around the PDS (a leftist democratic party) and defeated the right -wing block inclusive the sesessionist(*Lega Nord*), and neo-fascist(*Forza Italia*). The traditional communist (PRC) gave tacit assent to the Ulivo and obtained a casting vote at the price of its support.

Key words: ltacian politics, political change, I' Ulivo, Partitocrazia, center-left coalition

한국과 국제정치

KOREA & WORLD POLITICS

2000 ~
2009

세계화의 압력과 새로운 통일논의: 쟁점과 과제

최 완 규(경남대 북한대학원)

Ⅰ. 서론: 탈 국민국가 방식의 통일
Ⅱ. 기존의 남북한 통일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Ⅲ. 세계화와 'IMF 위기' 그리고 새로운 통일논의
Ⅳ. 결론

ABSTRACT

Emerging Issues and Tasks of Unification Discussion in the Globalization Age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emerging issues and tasks fo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under consideration in South Korea during the new globalization age. Thus in this paper we criticize the theories of unification instituted in both South and North Korea.

We then consider the hypothesis that globalization can help the unification form a postNation State, and analyze the problems that would result in this course. Finally, we recommend the proper direction of theory most suitable for unification in a post-Nation State.

Key words: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globalization. post-Nation State

민족공동체 개념에 대한 연구

한 석 태(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김 재 현(경남대 철학과)

Ⅰ. 서론
Ⅱ. '민족'의 의미 규정
Ⅲ. 공동체 개념
Ⅳ. 민족공동체에 대한 하버마스의 논의
Ⅴ. '분단체제론'과 '다국적 민족 공동체론'
Ⅵ. '한민족공동체'(Korean Community)론
Ⅶ. 결론

ABSTRACT

A Study on the Concept of National Community

This paper tries to define the concept of National Community. For this, it begins to define ethnic group, race, and nation. Although nation has various meanings, it can be defined as 'an imagined community'. Nation implies political and economic community as well as cultural communalities and blood ties. Next this paper explores the concept of community. And we compare 'citizenship community' with 'national community' in Haberrmas. In this connection, we can examine 'the Korean Community' and 'multi-national ethnic community' critically. Based on this,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concept of National Community can be used as a 'procedural', 'normative', 'international' concept.

Key words: nation, community, national community, citizenship community, the Korean Community, multi-national ethnic community

국가통합이론과 분단국 통합사례가 남북한 통일에 주는 시사점

김 국 신(통일연구원)

Ⅰ. 서론
Ⅱ. 국가통합이론 개관
Ⅲ. 분단국 통합사례: 독일 · 베트남 · 예멘 · 중국
Ⅳ. 국가연합 사례: 유럽연합 · 통일아랍공화국
Ⅴ. 통합이론 및 사례의 시사점
Ⅵ. 결론

ABSTRACT

Integration Theory and the Reunification of Divided Nations:
Their Implications for Korean Unification

The four approaches of international integration-pluralism, functionalism, neofunctionalism, federalism-diverge over the major variables by which they explain the integrative process. The pluralist approach suggests that changes in the political attitudes and behavior of individuals are central to the creation of a community of states. In the functionalism, changes in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system are said to follow closely on technological and economic changes. The neofunctionalist argues that political integration comes about less through pressures from functional needs or technological changes, and more through the interaction of political forces-interest groups, parties, governments, international agencies. The federalist theory emphasizes the role of power in the process of political change. In the federalism, political problems of peace and security could be solved by juridical and institutional means.

North Korea takes a federalist approach to Korean reunification, while South Korea takes a neofunctionalist approach. However, the most valuable lesson of the unification efforts of the divided nations - Germany, Yemen, Vietnam, China - as well as the experience of the European integration and the United Arab Republic is that North and South Korea should begin unification process gradually on the basis of a neofunctionalist approach. In this regard, North Korea needs to readjust its unification formula to adopt a neofuntionalist approach. On the other hand, South Korea should not exclude the possibility of the federalist approach at the last stage of unification process.

South Korea's unification plans are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road to unity will be peaceful and gradual. The passibility must be admitted, however, that an unexpected turn of events could precipitate an abrupt unification. In any case, either peaceful unification by mutual consent or sudden unification through absorption, South Korea may face a rough road ahead in achieving unification, if it fail to increase its national capability - that is, political democracy, economic development, diplomatic power, etc. - substantially.

Key words: integration theory, Unification of Germany, Unification of Yemen, Unification of Vietnam, China-Taiwan Relations, confederation, Unification of Korea.

남북한 교류실태와 통합의 전망: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배 종 렬(한국수출입은행)

Ⅰ. 머리말
Ⅱ. 남북한 경제교류실태 분석
Ⅲ. 남북한 경제교류여건 평가
Ⅳ. 남북한 경제통합의 방향
Ⅴ. 맺음말

ABSTRACT

Economic Exchanges in South and North Korea:
The Short-term Agenda for Economic Integration

Since the "Sunshine-policy" of the new Korean government, South-North economic exchanges have increased their Quantitative volume. Mt. Kumgang tour continued, contact with North Koreans and visits to North Korea increased, and intra-Korean trade expanded. However, their Qualitative structure remains intact in spite of meaningful transition from decline trend to growth trend in total volume.

The Berlin Agree Framework will be expected to open a new negotiation era in solving process of the Korean Peninsular problem and change the context and prospects for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most significant changing drives are the enforcement of the Kim Jong Il's bargaining power searching for the external economic resources, and the increasing challenges to the "Sunshine-policy" for initiating Korean peace process.

Kim Dae Jung Government should reshape its policy toward North Korea successfully before the changing power balance in the Korean Peninsula causes to make new obstacles. At the same time, Kim Dae Jung should develop new international negotiation vehicles to control the reform process of the North Korea and outside forces so as to avoid an unexpected change in he collapse process of the Kim Jong Il's regime.

Expanding the commercial trade and business-based transaction, efficient management of the operating cooperation projects, and enlargement of the new economic exchanges will be the most critical elements of the short-term agenda for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Key words: economic integration, South-North Korean relationship, economic exchange, the Sunshine Policy

남북한–미국 관계의 역사적 고찰: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과 남북 · 북미관계의 전망

이 상 민(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Ⅰ. 서론
Ⅱ. 한반도주변 국제관계의 변화: 탈냉전적 동아시아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시대적 배경
Ⅲ.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탈냉전 국제관계의 역사적 전망
Ⅳ. 결론: 평화체제 수립과 대외관계의 전망

ABSTRACT

International Relations among Two Koreas and the United States in Historical Perspective:
Toward the Mutual Recognition in the Post-Cold War Era

This study examines and apprais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relations among South Korea,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Post-Cold War era. The study focuses on how S. Korea, N. Korea, and the U.S. perceived each other, especially under the rigid cold war perspectives formulated during the Cold War, how they were changed, and how did the changed affect their policies on each other. Two distinct historical periods are examined; first, from the liberation of Korea to the 1980s-the cold war period and the post-cold war period, especially from the Agreed Framework of 1994 to Mr.Wiliam Perry's visit to North Korea.

The antagonistic and misleading perspectives formulated and consolidated during the Cold War still effectively obstructed Korean peoples' efforts to achieve the North-South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and to establish a peace system in East Asia. For the United States, only a "Big Stick" policy has been applied to North Korea. When North Koreans rejected the investigation of nuclear facilities by IAEA in 1994, the Americans sought the solution, first by "coercion" and then, by negotiating with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began to recognize North Korea as a nation qualified for a "diplomatic give-and-take."

Under severe economic crisis, and threatened by Washington's firm stance, North Korea responded with locking up the nuclear facilities, but in exchange for the light water reactor power plants. The Agreed Framework of 1994 marked a beginning of the U.S.-North Korean direct relations and face-to-face negotiations. It also precipitated South Korean involvement in North Korea by making South Korea as a main supplier of light water reactors.

South Korea's new president, Kim Dae Jung's "engagement" policy sought a gradual and peaceful approach to achieve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instead of seeking directly unification. Kim Dae Jung's policy was a de facto recognition of North Korean regime. This is a historic progress breaking the chain of the Cold War in North-South relations.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clashed again when North Korea lunched a long-range ballistic missiles or a "satellite rocket" flying over Japan in 1998. Again, after a series of hard-headed negotiations, the United States succeeded in halting North Korean missile development and exports in exchange for economic aids. William Perry's visit to North Korea and his observation evaluated North Korean diplomatic stance positively and recommended more active U.S. engagement and negotiation with North Korea.

The post-Cold War provided a historic chance to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o achieve peaceful coexistence, and reunification of the peninsular ultimately. The United Sates still holds "a Big Stick and a Carrot" to affect upon this development. It should recognize the Korean people's right to determine their destiny and should support both Koreas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to promote peace and stability in the East Asia regions, which also serves to their own national interests.

Key words: Two Koreas,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relations, post-Cold War era

남북한 통합과정 모델 비교분석

함 택 영(경남대 정치외교학과)

Ⅰ. 서론: 세계화시대의 민족공동체
Ⅱ. 남북한 정치통합의 형태
Ⅲ. 남북한 통합과정 모델
Ⅳ. 경제통합, 공동안보, 국가연합
Ⅴ. 남북한관계의 현실과 북한의 선택
Ⅵ. 결론 및 정책제언

ABSTRACT

Alternative Models of the North-South Korean Integration Process

The integrated "national community/commonwealth" of Korea can be achieved without the establishment of a centralized national state in the age of globalization. The "(neo-)functional approach" toward the Korean integration would be superior to federal or "unification by force" approach in terms of human, material, and social cost. The long-term economic integration model is based on North-Sou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exchanges, common market, and cultural communication networks.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should be support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KADO or KIDO. Yet a minimal "security complex," or the inter-Korean "joint security" is a must. The 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peace process, including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multilateral security talks, and a peace treaty, should be simultaneously pursued.

Key words: globalization, functional approach, integration model, joint security

남북한의 정치통합과 민족공동체 건설의 방향

김 세 균(서울대 정치학과)

Ⅰ. 들어가면서
Ⅱ. 남-북한의 사회경제적-정치적 발전의 성격과 특징 및 남북한관계의 변화
Ⅲ. '통합을 수반하는 통일'을 위하여
Ⅳ. 결론

ABSTRACT

The Political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The Construction of a Nation Community

This paper critiques the political integration process necessary to form a "unification with integration." Unification is defined as making one state system from already existing hostile two state systems - to construct one United States. If unification were the common good and goal of everyone, the united state would become a nation community. A nation community or a democratic progressive community can be differentiated from other forms of the unification process such as Germany has undergone, which was one of concealed internal oppression-exploitation. In order to call unification of two states a democratic- progressive community, it must be through integration, not forced amalgamation.

Key words: political integration, democratic-progressive community, unification, forced amalgamation

한국정당의 지구당 조직과 기능: 문제점과 대안

정 영 국(한국정신문화연구원)

Ⅰ. 문제의 제기
Ⅱ. 정당조직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논의
Ⅲ. 지구당 조직 구성과 기능의 분석
Ⅳ. 지구당 폐지론과 대안적 논의
Ⅴ. 결론

ABSTRACT

Organizational System and Functions of the District Party Chapters in Korean Politics: An Alternative Argument

This paper analyzes organizational system and functions of the Korean district party chapters, and explores an alternative model in terms of organizational system. This analysis shows that the district party chapters are too subordinated to the chairmen to lost their public status as sub-constituent units of political party, that their organizational systems are aimed not to make policies, but to mobilize their voters, and that most of their members are just non-active participants mobilized for their chairmen's electoral campaigns.

The author insists to reform the organizational system of the district party chapters; from the voters-mobilizing system into a policy-oriented system and from the chairman-monopolism to a committee-consensus system which are consisted of the chairmen of the policy-oriented committees.

Key words: district party chapter, organizational system, chairman-monopolism, committee- consensus system

금융위기를 촉발한 정치적 불안정성: 금융시장의 성립에 관한 비교경제사회학 이론을 중심으로

박 훈 탁(위덕대 국제관계학과)

Ⅰ. 서론: 금융위기를 촉발한 정치적 불안정성
Ⅱ. 예비적 고찰
Ⅲ. 분석 틀: 금융위기와 정치적 불안정성의 인과관계
Ⅳ. 금융위기를 촉발한 정치적 원인: 1997년 1월-11월
Ⅴ. 결론과 정책적 함의

ABSTRACT

Political Instability Triggered Financial Crisis:
With a Comparative Economic Sociological Study of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Recently, an economist repor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financial crisis and political instability with reference to his own panel time-series regression analysis.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 1) political instability is a cause of financial crisis; 2) and the other way around is not true. This is to say that political instability creates financial crisis but financial crisis does nor instigate political instability. Then why political instability can create financial crisis? The author remains silent to this crucial questi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wofold. First, it provides the correlation between financial crisis and political instability with deductively plausible causal mechanism suggested by Carruthers's comparative economic sociological study of modern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Second, it describes the causal process in which several political incidents create political instability and thereby engender financial crisis in 1997.

Key words: Contagion, Economic Sociology, Financial Crisis, Financial Market, Herd Effect

유럽통합과 다층적 체제의 등장

장 훈(중앙대 정치외교학과)

Ⅰ. 서론
Ⅱ. 유럽통합의 심화와 국가권력의 다중화: 다중적 체제의 기원과 구조
Ⅲ. 다층적 체제의 미래: 민주적 대표성을 중심으로
Ⅳ. 결론: 유럽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향하여

ABSTRACT

European Integration and the Rise of Multi-Level Polity

The deepening integration in economic and political spheres among Western European states has evoked a heated debate with regard to the future of state sovereignty. On the one hand, it has been repeatedly emphasized that the nation state's sovereignty declines irrevocably with the accumulation of policy-making powers in the European Union. On the other hand, many observers still stick to the centrality of the nation state even in the age of European Union. This article rejects these two approaches to the European Union as uni-dimensional explanation. It sees the evolution of European Union as a crucial sign for the rise of the new type of state sovereignty. With the rise of European Union, this article argues that sovereignty is now being shared between the nation states and European Union. In other words, we are witnessing the rise of multi-level polity in Western Europe. The article explores the economic backgrounds and institutional factors that contributed to the rise of multi-level polity. And it investigates the prospects of the new polity focusing on the democratic representativeness.

Key words: European Integration, Multi-Level Polity, Political Integration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시론적 고찰:
현대 한국정치사상의 빈곤 원인에 대한 탐색

강 정 인(서강대 정치외교학과)

Ⅰ. 들어가는 말
Ⅱ. 서구 중심주의의 반영
Ⅲ. 서구중심주의의 연원과 세계사적 전개과정
Ⅳ. 서구중심주의의 폐해
Ⅴ. 결론

ABSTRACT

A Preliminary Reflection on Eurocentrism as a Cause to the Poverty of Contemporary Korean Political Philosophy

This paper analyzes Eurocentrism, under the premise that it is one of the primary causes which have obscured the identity of contemporary Korean political science. The author is painfully aware of theoretical-practical situation in which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suggest alternatives or strategies to overcome Eurocentrism, although it is relatively easy to describe or diagnose the problems it has caused. With this awareness, the author analyzed the concept of Eurocentrism, comparing it with other similar concepts such as ethnocentrism, racism, cultural imperialism and so on. Then he summarized its historical origin and global expansion in the modern world since Columbus's discovery of America. He also investigates its negative influence upon Koreans in terms of "unconscious internalization of Eurocentric worldview." Finally, he links Eurocentrism to the poverty of Korean political philosophy, while discussing its impact upon contemporary Korean intellectuals.

Key words: Eurocentrism, Korean Political Philosophy, Eurocentric Worldview

단극시대 미국패권전략의 이해

이 혜 정(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Ⅰ. 서론
Ⅱ. 탈냉전의 혼란
Ⅲ. 탈냉전의 종언
Ⅳ. 탈근대 세계화의 도전
Ⅴ. 결론

ABSTRACT

American Hegemony after the Cold War

The end of the Cold War dislodged the lode star of American hegemony-containment of the Soviet Union. Based upon the Clinton administration's national security reports and plans for restructuring American military forces, this articles traces how American national security strategists have devised new rationale and objectives for American hegemony. Arguing that the United States has responsibilities for the international system for the sake of America's well-being, American national security strategists have invented and put diverse,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including unforeseen ones of the future, in the historical context of globalization. Since 1996, and especially after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of 1997-8, the new lode star of American hegemony has been, at least in the perceptual terrain of American national strategists, the harnessing of globalization by reaping the latter's benefits and containing its disruptive forces.

Key words: American hegemony, American national security strategists, globalization,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the end of the Cold War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의 현실과 전망: 탈냉전, 세계화, 한반도 상황 변화가 가지는 함의를 중심으로

박 건 영(가톨릭대 국제학부)

Ⅰ. 서론
Ⅱ. 다자간 안보협력의 개념과 역사
Ⅲ.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에 대한 전망
Ⅳ. 결론

ABSTRACT

The Reality and the Prospect of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This article explores the possibility of institutionalization of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lthough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regime seems unlikely in the near future, in the longer term the possibility is enhanced by the regional politico-economic and strategic changes that are expected to take place in conjunction with the expansion/deepening of "normal competition system," acceleration of globalization, and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the Korean peninsula.

Key words: balance of power, cooperative security, multilateralism, nationalist myth of victimhood, cross recognition

외환 · 금융위기와 동아시아 발전의 미래:
발전모델, 구조조정, 지역협력을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정 진 영(경희대 국제관계학과)

Ⅰ. 서론
Ⅱ. "동아시아 발전모델" 논쟁의 시사점
Ⅲ. 구조조정의 정치경제학
Ⅳ. 동아시아 지역협력: 가능한 대안인가?
Ⅴ. 맺는말

ABSTRACT

Debating East Asia's Currency and Financial Crisis and Its Developmental Future:
Development Model,
Structural Adjustment, and Regional Cooperation

The East Asian crisis of 1997-98 has raised serious debates about its causes and consequences. Among the topics drawn much attention very recently include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the political economy of structural adjustment, and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It is now commonly accepted that the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is no longer a valid development strategy for regional countries. Domestic and international circumstances for its effective operation have disappeared. However, there are on-going debates concerning whether the development model itself was the cause of the crisis or it was made inoperative externally. Structural adjustment is a buzzword nowadays as a cueball therapy for East Asian diseases. It is certain that IMF's therapy has contributed to stabilizing East Asia foreign exchange markets. However, the external achievement was gained at the cost of aggravating banking and corporate crisis. The extent of non-performing loans and national public debt has greatly increased with the possibility of coming East Asian debt trap. Structural adjustment following IMF's conditionally can be a dangerous poison to kill the prospect of East Asia's future development. Accordingly it has to be modified and conditioned by the development of East Asia regional cooperation. In the post-crisis situation, many East Asian countries are very positive towards the idea of combining them together with some region-wide cooperative institutions. Many leaders have expressed their belief that East Asian countries are now on the same boat in their journey toward development. It is now East Asian countries' best interest to pursue structural adjustment and regional cooperation together and with a complementary manner.

Key words: currency crisis, financial crisis,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structural adjustment, East Asia's regional cooperation

동아시아지역 국제경제기구의 형성 및 제도화: 유럽통합의 경험

김 용 복(서울대 국제지역원)
구 갑 우(경남대 북한대학원)

Ⅰ. 문제제기
Ⅱ. 지역 국제경제기구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제도적 형태: 이론적 모색
Ⅲ. 동아시아지역의 부재 및 발명
Ⅳ. 경제위기와 동아시아 지역협력: 일본의 역할
Ⅴ. 동아시아지역 국제경제기구 형성의 가능성
Ⅵ. 맺으며: 유럽의 교훈

ABSTRACT

Regional International Economic Organization: Its Formation and Institutional Form in East Asia

This article explores the possibility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in East Asia. Since the economic crisis of 1997 spread in East Asian countries, this region has increasingly had a shared identity, as well as the intensification of the demand and supply factors for the formation of a regional international economic organization. The Japanese government plays a crucial role in this process due to the hierarchial structure of the East Asian economies where Japanese firms predominate. However, the emerging economic regionalism in East Asia will be inevitably a defensive one in comparison with Europe and North America for two primary reasons. East Asian countries hesitate to cooperate with Japan as a result of past memory, and at the same time, the catalyst for East Asian regionalism is due to the external shock caused by global capitalism. The form of the regional international economic organization will, therefore, take on a minimalist institutionalization. Finally, we propose a 'Social East Asia' to prevent a neoliberal regionalization in East Asia.

Key words: East Asia, Japan, regional international economic organization, regional identity, regionalism, Social East Asia

친미주의 공공여론의 세대간 차이에 관한 한국 · 일본 비교연구

남 궁 곤(동아일보 21세기평화연구소 상임연구위원)

Ⅰ. 미국의 공공외교와 친미주의 여론
Ⅱ. 친미주의 공공여론과 세대교체
Ⅲ. 측정의 문제와 분석방법
Ⅳ. 친미주의 여론의 세대간 특성과 내용: 한국의 경우
Ⅴ. 친미주의 여론의 세대간 특성과 내용: 일본의 경우
Ⅵ. 토론: 친미주의 공공여론의 대물림과 세대교체
Ⅶ. 결론

ABSTRACT

Pro-American Public Opinion and Intergenerational Replacement in Korea and Japan in the Post-Cold War Era

This paper intends to explore differences of Pro-American public opinion between Korean and Japan with regard to the inter-generational replacement, Both Korean and Japanese Pro-Americanism are aligned to changes of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in the post-Cold War era.

In the Korean case, the postwar generation are less favorable than the prewar generation to the United States in terms of the cognitive, affective, and behavioral dimension of Pro-Americanism. This generational gap cannot be interpreted as the rise of Anti-Americanism, but as the rise of balanced attitudes toward the United States.

In terms of intergenerational difference in Japanese Pro-American public opinion, it is noteworthy that the younger Japanese in the 20 to 39 age cohort clearly have more negative evaluations of the U.S. military roles than their old counterpart despite their more favorable U.S. images and more confidence in the U.S. international roles. Considering the value changes in the Japanese society should be traced toward more libertarian values, it is possible to suppose that the Japanese intergenerational replacement is to some degree making a contribution to the variation in Japanese Pro-American public opinion among different political age cohorts.

Key words: pro-Americanism, anti-Americanism, public opinion, intergenerational replacement, age cohort, Korea and Japan

박정희정부 하의 정당구도 분석(1)
1961. 5 ~ 1972. 10

심 지 연(경남대 정치외교학과)

Ⅰ. 문제의 제기
Ⅱ. 군부의 정당구도 개편 시도
Ⅲ. 정치활동 재개와 정당구도의 재편성
Ⅳ. 공화당의 승리와 신민당 출범
Ⅴ. 3선개헌과 40대 기수론
Ⅵ. 71년도 선거와 정당의 무력화
Ⅶ. 맺음말

ABSTRACT

Pro-American Public Opinion and Intergenerational Replacement in Korea and Japan in the Post-Cold War Era

This article explores the political circumstances and the formation of political parties under the Park Chung Hee regime-this period witnessed a "crisis and integration" of political parties. In critiquing the crisis of the political parties in Korea, it showed that a successful integration with other parties can alleviate a crisis situation. However, failure to integrate results in a deepening of political party disintegration.

In summary, I believe that the conditions under the Park Chung Hee regime were not conducive for the successful formation of political parties. This analysis is supported by the third-time presidential and national assembly election of President Park Chung Hee, which the Democratic Republican Party and the New Democratic Party won.

Key words: democratic republican party, new democratic party, the constitutional reform for presidential elections, Yushin Declaration, unification of the opposition

남북경협에 있어서 정경분리 원칙의 현실성과 효용성: Box-Jenkins 시계열분석을 바탕으로

김 욱(배재대 정치외교학과)

Ⅰ. 서론
Ⅱ. 연구방법
Ⅲ. 정치적 요인이 경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계열분석
Ⅳ. 정경분리 원칙의 현실성 및 효용성에 대한 평가
Ⅴ. 요약 및 시사점

ABSTRACT

Evaluating the Practicality and Utility of the Principle of "Separating Politics and Economy" i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 Application of Box-Jenkins Time Series Analys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practicality and utility of the principle of separating politics and economy, which is being adopted by the government in its policy o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o build empirical basis for such an evaluation, the study first analyzes the effects of political events o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by employing the method of Box-Jenkins time series analysis, and intervention analysis, in particular.

Major findings of the analysis are threefold, First, the effects of political events o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vary depending on whether we take as our dependent variable "trade" or "investment." While political events have no significant effects on inter-Korean trade, they have some impacts on investment. Second, the positive effects of political factors are shown more clearly than their negative effects. Third, and relatively, the effects of political events o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seem to be qualified by an intervening variable, the government's response to them.

On the basis of these empirical findings, the study discusses and evaluates the practicality and utility of the principle of separating politics and economy. For conceptual clarity, the study first distinguishes the principle of separating politics and economy into two different forms: "strict" and "loose." The strict form of the principle has little practicality and also scores low in terms of its utility. On the other hand, the principle in its loose form, which is judged to be what the government has in mind, can be highly evaluated in terms of both practicality and utility.

Many people, including scholars, journalist, and the general public, are confused about what the principle of separating politics and economy exactly means. One could argue, therefore, that the government would have been able to garner more wide public support for its North Korea policy, only if it had been able to clarify what it meant by the principle.

Key words: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he principle of separating politics and economy, Box-Jenkins time series analysis, ARIMA model, intervention analysis, political economy, inter-Korean relations, North Korea policy

'중국식사회주의' 이념의 생성과 전개에 대한 고찰

고 성 빈(가톨릭대 국제학부)

Ⅰ. 서론
Ⅱ. 개념과 조망의 해설
Ⅲ. 5.4운동 반전통주의와 신전통주의사조
Ⅳ. 중국식사회주의이념의 생성: 모택동의 실천적 융합
Ⅴ. 등소평 실용주의이념의 등장
Ⅵ. 결론

ABSTRACT

The Study on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Chinese Socialism'

This paper proposes that the manifestation of Chinese political ideology is a synthesis of exogenous ideas, which is usually derived from the Western influence and traditional values deeply entrenched in Chinese society. In this regard, this study leads us into the argument that the Maoist revolutionary vision and Dengist reformist ideas can be viewed as a product of a combination of traditional ethos and anti-traditional iconoclasm through political-social practice and incremental adaptation toward changeable situation in China's society. The core set of intellectual currents following the May-Fourth Movement, totalistic iconoclasm, democracy and science, were reconciled to Chinese tradition and finally gave birth to a syncretic Maoist political ideology, Sinified Marxism or Chinese socialism. Deng Xiaoping's ideology, adopting different approaches than Mao's notwithstanding, could be seen as a practical response toward the dogmatized Maoism after the Great Leap Forward. The Deng's reformist ideas owe much of its' essence to the synthetic adjustment of both the early Maoist ideas and Neo-confucian values, pragmatism and political social practice.

Key words: Chinese socialism, traditionalism, anti-traditionalism, political-social practice

일본의 헌법조사회발족과 개헌논의

전 황 수(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Ⅰ. 서론
Ⅱ. 개헌논의의 쟁점과 변천과정
Ⅲ. 헌법조사회 발족과 국내외 반응
Ⅳ. 결론

ABSTRACT

Japan's Constitutional Research Committee and the Debate for Constitutional Revision

The Japanese Constitution was drafted under the auspices of th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the middle of the 1950s, there was an abortive attempt to revise the constitution by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Since the1991 Gulf War, however,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demand for constitutional revision. The drive for revision has found an impetus in the form of the conservative coalition government which was launched in March of 1999, comprising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the Liberal Party, and the Komeito Party. Pursuing its own agenda for reform, the circle established the Constitutional Research Committee at the Diet in 2000.

The faction advocating constitutional revision tactfully tried to avoid stirring any controversy by camouflaging their effort of constitutional revision by dealing with public rights for government information, establishing environmental rights, and the protection of rights of privacy.

Key words: conservative circle, constitutional research committee, constitutional revision

인터넷 거브넌스(Internet Governance)의 정치:
온라인상의 정보유통 논쟁에 대한 일본사례의 분석

김 유 향(고려대 정치외교학과)

Ⅰ. 머리말
Ⅱ. 온라인상의 정보유통문제를 둘러싼 논의들
Ⅲ. 일본에서의 인터넷의 발전과 통신 규제체제
Ⅳ. 「풍속영업법」개정안을 둘러싼 논쟁
Ⅴ. 맺는말

ABSTRACT

The Politics of Internet Governance:
Analysis of the Debate on the Dissemination of On-line Contents in Japan

This article explores the recent and sudden growth of the Internet and its subsequent problems with cyberspace control. The collision between the rules of cyberspace and the rules of the real world is most revealing in the dissemination of contents via on-line systems. This study has analyzed the reality of 'Internet governance' citing the case in Japan where there has been heated debates on the revision of the existing law against public mores. The significance of this analysis lies in that it not only focuses on the common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et but also the roles played by the political economy system in each countr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he debate in Japan has, despite the significance of the issue, not yet touched upon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liberty and regulations in virtual space. However, Japan has defined the role of related ministries and the limited responsibility of ISP within the bureaucratic framework of regulations in Japan. This was due to the weak growth of the civilian society such as the free Internet campaigns, the inertia of the Japanese bureaucratic regulations, and the rivalry among ministries. The debate on the revision of the law clearly shows the discrepancy among the inertia of the Japanese relations, the democratic nature of the Internet and the authoritative top-down structure of an interventionist state. Also, it is clear that the tradition of 'Internet governance' as a policy decision process based on liberty and demo□a□ is moving towards governance form the top level. This again demonstrates the fact that drastic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brings similar problems in all societies. Although this may provide opportunities for social and political change in the every country, in reality, the changes are determined within the real political context, which is unique for each different society.

Key words: internet governance, regulation, cyberspace, Japanese political economy system

1997년 영국 총선에 미친 유럽통합 이슈의 영향

강 원 택(이화여대 지역연구협동과정)

Ⅰ. 서론
Ⅱ. 유럽 이슈와 영국 정치
Ⅲ. 1997년 영국 총선에 미친 유럽 이슈의 영향: 경험적 분석
Ⅳ. 결론

ABSTRACT

How much did Europe matter in the 1997 the British General Election?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se how much impacts the Europe issue made on voters' decision in the 1997 British General Election. Since long before the election the then ruling Conservative Party suffered serious internal party conflicts over the British policy towards deepening of the European integration. This article seeks to find wether such a division of the Conservatives caused the disenchantment with the long standing Conservative ruling among the public, which led to its disastrous defeat. This article finds that the Europe issue did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1997 election. In particular, the political disarray within the Conservative Party helped many of their former supporters dissatisfied with and desert it. A policy platform of 'wait and see' which John Major employed was seen too lukewarm to meet demands from either the Europhiles or Eurosceptics.

Key words: British general election, European integration, The Conservative Party, Tony Blair, Referendum Party

자유주의, 공동체, 그리고 문화:
킴리카(Kymlicka)의 정치적 자유주의 비판

설 한(동아대 정치외교학과)

Ⅰ. 서론
Ⅱ. 공동체주의자들의 자유주의 비판
Ⅲ. 킴리카의 정치적 자유주의
Ⅳ. 킴리카의 공동체주의 비판
Ⅴ. 평가 및 결론

ABSTRACT

Liberalism, Community, and Culture:
Critique of Kymlicka's Political Liberalis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Kyrnlicka's argument for political liberalism as a major defense against the communitarian critique. The chief concern is to see how he can credibly claim to meet the objections of communitarians. This is done through the conceptual analysis. Trying to accommodate communitarian themes and at the same time deflect communitarian criticism by adopting a contextualist approach to the issue of justice, Kymlicka proposes a liberal theory of cultural membership through a reconstruction of Rawls's theory. My argument is that even though by acknowledging the historical and cultural saturatedness of liberalism Kymlicka attempts to transcend universalism, formalism, and metaphysical abstraction which the communitarians criticize, the liberal ideal of the person as free and equal, the liberal culture of choice based on individual autonomy, liberal individualism, the priority of the right over the good, and liberal neutrality are still his firm base. Most simply, Kymlicka justifies his version of liberalism with liberalism.

Key words: liberalism, communitarianism, Kymlicka, Rawls, Dworkin, community, culture, autonomy

현대 자본주의 노동과정에 대한 맑스의 이론: 정치적 해석

최 형 익(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Ⅰ. 서론: 자본주의적 노동과정에 대한 정치적 해석의 필요성
Ⅱ. 노동의 자본에의 형식적 포섭과 실질적 포섭: 숙련개념을 중심으로
Ⅲ. 현대자동차 생산체제의 일반적 발전경향: 노동원리를 중심으로
Ⅳ. 사회적 노동생산력 발전의 구조 변동: 정치적 독해의 관점
Ⅴ. 결론

ABSTRACT

K.Marx's Theory on the Labour Process of Modern Capitalism: A Political Reading

This article examines the position of his labour theory in Marx's political thoughts. Marx exploits the notions of 'the formal subjection of labour to capital' and 'the real subjection of labour to capital' to signify the situation that capitalist classes overpower in the production process of the modern society. Their social and economic power in the labour process enables that class to rule all modern society. So, Marx's theory of the labour process is similar to Michel Foucault's discipline power theory to subject living men's body under the modern society. This modern discipline power and ruling's political project are named value-law. From this theoretical insight of Marx, it is possible to judge that in his political economy writings Marx shows that value-law is concerned not only with social labour process in sphere of economic production, but also with capitalists' political time-project, i.e. value-law, to discipline and dominate over others' humanistic social life and lively activities by means of labour action as an objective and material practice. With above statements, this article intends to examine how Marx analyzes the aspect that the modem bourgeoisie's time-project really penetrate into an immediate labour process. Also, it proves that conflicts between working class and capitalist class founded on each other's different time-project come about not in such a social production sphere where labour carries on, but in all social spheres that include labour activities and other social practices. From this, it elucidates Marx's arguments that the basis of workers' social rights is presented by the needs of social life, not through labour process.

Key words: K. Marx, labor process, capitalism, political reading, value-law

한국의 선거와 투표행태:
지역주의가 표출된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양 재 인(경남대 정치언론학부)

Ⅰ. 문제의제기
Ⅱ. 역대선거에서의 지역주의 표출사례
Ⅲ. 지역주의선거의 개선책
Ⅳ. 맺음말

ABSTRACT

Election and Voting Behavior in Korea:
A Case Study of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and Localism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outcome of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s held from the 13th of 1988 to the 16th of 2000. In these general elections, voters in Korea's two important districts such as Kyongsang-do and Chol-la-do have rendered an one-sided support to the political party based on their region, thus resulting in an overwhelming majority of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Such localism in voting behavior is considered to be a serious obstacle to political development. This paper tries to suggest a model to overcome localism in both of the two districts.

Key words: localism, voting behavior, general election

NGO 그리고 국가:
실업극복 국민운동의 사례를 통해 본 NGO의 역할에 관한 고찰

유 현 석(중앙대 국제관계학과)

Ⅰ. 서론
Ⅱ. NGO와 국가의 관계: 이론적 논의
Ⅲ. 한국의 실업문제와 정부의 실업대책
Ⅳ. 실업극복 국민운동을 통해본 NGO의 역할과 국가
Ⅴ. 결론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NGOs and the State:
The Case of "Unemployed-Relief Civil Movement"
(sylop kekpok kukmin undong)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NGOs in measures to address unemployment problem caused by the economic crisis in 1997. Through the case study of 'Unemployed-Relief Civil Movement' this study argues that the active role of NGOs in fighting unemployment problem is not always desirable. In a country that lacks a proper welfare system which takes care of unemployment problem, the strong role of NGOs which in effect takeover the role of the state is counterproductive in the sense that it could prohibit the state from preforming what it supposed to do. Despite the success that "the Movement" has made, the nature of the activities of the 'Unemployed-Relief Civil Movement' could be detrimental to the development of welfare function of the state. The proper role of NGOs is to monitor state's welfare policies, to push state to have proper welfare system rather than taking over the role of the state.

Key words: NGO, Unemployment, State, Class

정조의 정치와 수원성:
화성건설의 정치적 의미

박 현 모(한국정신문화연구원)

Ⅰ. 서론: 화성가는 길
Ⅱ. 영조시대의 정치적 유산과 '정치가' 정조의 대응
Ⅲ. 정조의 군제개혁
Ⅳ. 화성 건설과 화성 행차의 정치적 의미
Ⅴ. 결론

ABSTRACT

King Chong-Jo's Military Reform and Soowon Castle

This article explores King Chong-jo's military reform politics, including the construction of the Soowon Castle. The purposes and meanings of his military reform may be sumed up as following. First, he intended to restore the king-centered military command system like the early Chosun. For this, he consolidated the position of the Minister of War which was under the direction of the king. Second, he tried to strengthen the King's military bodyguard, Chang Yong Young which was organized by king himself. He had a plan to make the Chang Yong Young the headquarter of all other military camps. For this, he refused or abolished the existing military camps, Five Military Camps. Third, he wanted to rally the proking political forces through the construction of Soowon Castle. King's construction and visits of Soowon Castle themselves were the very symbolical events, because Soowon was the place where the tomb of King's father, the Crown Prince SaDo who died for the political reason was located. King often marched the grandeur parade from Seoul to Soowon with the intents to exalt king's political legitimacy by means of the retrieval of his father's lost honor on the one hand, to concentrate the political forces who supported for his reform policies on the other hand. In result of military reforms, he could have the well-ordered military camp (Chang Yong Young) and the Soowon castle, but also made the preparations for other reform policies successfully.

Key words: military reform, Soowon Castle, Chang Yong Young, political legitimacy

한반도의 탈냉전과 통일안보정책

권 만 학(경희대 국제관계학과)

Ⅰ. 들어가면서
Ⅱ. 21세기 국제환경과 한반도
Ⅲ. 통일정책
Ⅳ. 안보정책
Ⅴ. 맺으면서

ABSTRACT

Reconcili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outh Korea's Unification and Security Policy

Kim Dae Jung government's "Sunshine Policy" has led North Korea to formulate a new survival strategy including its concerted efforts at opening and economic reorientation. The end of the global Cold War implies that the north has no alternative but to change, the inter-Korean regime competition is over, and the peninsula will be reunified on the southern terms. In the process,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policy is preferable to confrontation, though it is challenged by "unilateralism" of the Bush administration. The prospect of attenuating military tensions on the peninsula will increasingly press Seoul to change its Cold War orientations and arrangements including ROK-US alliance. It's time Seoul should undertake an overall review of its unification and security policy.

Key words: North Korea Policy, Northeast Asian Security, U.S. Foreign Policy, Korean Unification

부시정부와 한반도: "무엇을 할 것인가?"

박 건 영(가톨릭대 국제학부)

Ⅰ. 북미관계의 최근 역사와 현황
Ⅱ. 부시정부의 대북 강경 발언의 배경
Ⅲ. 남한정부의 대안
Ⅳ. 시험 사례들(Two Test Cases)
Ⅴ. 발상의 전환

ABSTRACT

The Bush Administration and the Korean Peninsula:
"What Is to Be Done?"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policy options that would help prevent the so-called "Bush effect" from interfering with the on-going peace process between the two Koreas. The options include South Korea's diplomatic prudence, active diplomacy toward the U.S., promotion of the EU's role in the peace process, as well as an upgrade of the inter-Korean relations. Issues involving missile defense and the import of hi-tech weapons are examined as cases that would test the government's will and capability to become more autonomous in its diplomacy.

Key words: diplomatic prudence, engagement, ABM, EU, missile defense, elastic diplomacy

안보론에 있어 구성주의와 현실주의의 만남

이 근(서울대 국제지역원)
전 재 성(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Ⅰ. 머리말
Ⅱ. 현실주의와 구성주의의 보완가능성: 메타이론적 기초
Ⅲ. 안보이론에 있어서 현실주의와 구성주의의 접점
Ⅳ. 구성주의 시각에서 본 동북아 안보의 경험적 연구 가능성
Ⅴ. 맺는말

ABSTRACT

Constructivism and Realism on Security:
How they Complement Each other

Constructivism has established itself as one of the most prominent paradigms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With its distinctive theoretical perspective on most fundamental aspects of international relations using concepts such as identity, mutual construction of agent and structure, constructivism has developed various middle-range theories concerning national security, foreign policy making,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This article tries to discuss and evaluate constructivist contribution to the issue of national security by exploring how constructivism criticizes and complements existing neorealist discussion of national security. Using multi-level approach from the levels of meta-theory, conceptual frameworks, to that of empirical analysis, this article argues that; 1) constructivism offers a better understanding of national security when combined with neorealist analysis; 2) constructivism retains metatheoretical commensurability with classical realism; 3) constructivism elaborates neorealist central concepts such as security dilemma, balance of power, and security institutions. This discussion leads us to the conclusion that constructivism is useful in the analysis of security environments of South Korea, and also in policy suggestions with regard to lessening security dilemma in inter-Korea relations, constructing a better balance of power in the Northeast Asia region, and promoting intra and inter-regional cooperation based on international institutions such as ASEAN and ASEM.

Key words: constructivism, realism, security, security dilemma, balance of power, international institutions

아이덴티티 정치와 동북아 지역 협력

이 진 영(연세대 통일연구원)

Ⅰ. 서론
Ⅱ. 지역 통합과 동북아 지역 협력에 대한 이론
Ⅲ. 동북아의 특수성
Ⅳ. 지역 협력 촉진을 위한 대안들
Ⅴ. 결론

ABSTRACT

Identity Politics and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This paper focus on the problems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on the perspective of 'identity politics.' The author lists irrational, emotional, psychological, historical and cultural factors based on the identity politics as the factors of undermining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In reviewing trends of regional cooperation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this paper suggests that ethnicity and multi-cultural identities are important factors in identity politics, which embraces certain aspects of constructivist approach. In East Asia, nationalism has been intensified in each country for formulating modern nation-state. However, in this post-modern era, excessively consumed nationalism is still being prevailed in three countries in East Asia. This excessive nationalism such as territorial dispute, textbook issues, a different understanding of historical facts, has been consumed mainly by the state and hinders various identity groups to understand each other. Therefore, various identities should be encouraged to correspond each other for regional cooperation. These non-governmental cooperation can be built up by INGOs, policies toward ethnic minorities and roles of ethnic diasporas such as ethnic Koreans in Japan and China and ethnic Chinese in Korea and Japan. In doing so, enmity and distance can be narrowed each other. For explaining limited regional cooperation in East Asia, therefore, identity politics is a useful tool.

Key words: identity, ethnicity, politics, regional cooperation, East Asia, nationalism

일본-ASEAN 경제관계 제도화에 대한 연구: 특혜무역제도 설립 논의를 중심으로

최 영 종(고려대)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 상대적 힘, 국내정치, 그리고 제도화
Ⅲ. 일본-ASEAN 특혜무역제도 논의
Ⅳ. 대안적 제도화의 추구
Ⅴ. 결론

ABSTRACT

Institutionalization of Japan-ASEAN Economic Relations

The motivating puzzle of this paper is why Japan avoided formal preferential trade arrangements (PTAs), different from other advanced countries like the EC, requested by its former colonies, particularly the ASEAN countries. This question is important to exploring the origin of Japan's well-known reluctance toward formal institutions in Asia and the Pacific, as well as the dynamic links between relative power, domestic politics, and institutionalization.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power struggle between Japan and the ASEAN countries, precipitated by the formation of ASEAN in 1967 and the surge of Japan's economic power, set the tone for the discussion of a Japan-ASEAN PTA. In addition, Japan's closed domestic political economy, its compartmentalized bureaucracy and domestic political gridlock, and the financial capabilities to buy-off ASEAN's complaints with ODA and FDI have contributed to its reluctance toward a PTA. While avoiding formal, binding institutions then and after, Japan constructed instead informal, less-binding institutions to manage increasing economic interdependence with ASEAN. Examples include various channels of inter-governmental dialogue, dense marketing and production networks, intricate human networks, and broader Asia-Pacific organizations.

Key words: Institutionalization, Japan-ASEAN relations,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s (PTAs)

중국의 제2차 향진기업 창업전략을 통해서 본 지방정부의 역할: 수난지역을 중심으로

이 정 남(고려대)

Ⅰ. 서론
Ⅱ. 지방정부의 경제적 행위의 동기와 개발 국가적 역할
Ⅲ. 향진기업의 발전 위기와 제2차 창업전략의 배경
Ⅳ. 제2차 향진기업 창업전략과 지방정부의 역할
Ⅴ. 결론

ABSTRACT

The Role of Local State in the Second Development Strategy of Township-Village Enterprises: A Case Study of Sunan Region

This paper analyzes the role of local state in The Second Development Strategy of Township-Village Enterprises in the Sunan Region. As China made a decisive turn to a market economy in the 1990s, local state actively pursued The Second Development Strategy of Township-Village Enterprises that township-village enterprises can perform well in a new, highly competitive environment. The plan included a property right reform in the direction of privatization, which substantially lessened local state's capability to intervene in the micro-management of local firms. With its executive authority and financial resources under its control, the local state attempted to increase the scale of production, raise technological level, set up industrial parks, and rationalize enterprises.

The above analysis implies the next. First, as China made a decisive turn to a market economy in the 1990s and proceeded a property right reform in the direction of privatization, local state playes developmental state role in development of township-village enterprises. Second, local state not only playes economic actor in development of township-village enterprises but also leads the transition to market economy at the local level. Third, the developmental role of local state changed the original character of township-village enterprises, supporting agriculture and possessed by township-village people, into large or small enterprises in rural region.

Key words: the Second Development Strategy of township-village enterprises, the role of local state, Sunan Region.

동남아시아와 사회적 자본: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지역학적 연구

박 은 홍(성공회대)

Ⅰ. 문제의 제기
Ⅱ. 근대화론과 동남아시아
Ⅲ. 근대화와 '사회적 자본' 의 생성
Ⅳ. 결론

ABSTRACT

The Social Capital in Southeast Asia:
A Regional Study of 'Asian Value'

Southeast Asia consists of transitional vortex societies which are characterized by that conventional capital has been replaced with social capital. It is very effective for us to choose the methodology which balances historicism with modernism. Southeast Asia has experienced not only original continuity but also dependent change. Southeast Asia has showed dynamics which adapted to world time through intensive interaction between traditionality and modernity. The driving forces that enabled these dynamics was rather ensemble among states, societies, elites, mass, colonialism, and nationalism. We should note that transforming conventional capital proceeded with genesis and evolution of social capital. At this time dominant traditionality retreated to self-dependent position, and consequently was transformed. But it is worthy for us to keep our eyes upon that transformed traditionality contributed to shape modernity. The realties of 'Asian values' focused on Southeast Asian societies is complexive and multiple like this.

Key words: Asian values, social capital, conventional capital, historicism, modernism

사회과학에 있어서 과학적 설명

이 동 수(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Ⅰ. 서언
Ⅱ. 과학적 설명의 전통
Ⅲ. 헴펠(C. G. Hempel)의 연역-법칙적 (deductive-nomological) 설명
Ⅳ. 코헨(G. A. Cohen)의 기능적 (functional) 설명
Ⅴ. 윈치(P. Winch)의 맥락적 (contextual) 설명
Ⅵ. 결어

ABSTRACT

Scientific Explanation in Social Science

As science has developed to an unprecedented degree, there has been a claim that social phenomena should also be explained with as much exactness as is required in natural science. There have been many criticisms on such a claim as the scientification of social studies. However, scientific explanation should not be removed in itself, but it will be better to draw some limits on the scientification with a deconstructive metho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hilosophy of science," first, C. G. Hempel's Deductive-Nomological explanation model does not completely realize the deductive.

causality because it acknowledges the necessity of the approximate D-N explanation model which has a less exactness. Second, G. A. Cohen, who has initially intended to complement Hempel's scientific explanation with the functional causality, rests finally on the concept of propensity in order to sustain the functional relation between cause and effect. Third, P. Winch, confronting such limits, attempts to make lower the level of laws required in the exact scientific explanation. At last, he substitutes the rules for the laws, and claims that the scientific rules can be varied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contexts from which they are formulated.

The history of logical empiricism shows that the scientific exactness has been adjusted by degrees. Here comes a necessity what we should not pay more attention to causa efficiens, but to the three other dimensions of causality on which Aristotle already discussed: causa materialis, causa formalis, and causa finalis. I think that scientific explanation in social sciences will be more successful when the other dimension of causality is properly understood by social scientists.

Key words: scientific explanation, deductive-nomological explanation, functional explanation, contextual explanation, causality, philosophy of science

서구 '권위'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 봉 철(한남대 정치외교학과)

Ⅰ. 문제의 제기: 권위에 대한 전통 이론과 그 문제점
Ⅱ. 문제의 구체화
Ⅲ. 현시대적 권위개념의 모색
Ⅳ. 맺는말

ABSTRACT

"Western Concept of 'Authority' Reconsidered"

This essay is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Western concept of 'authority' and grope for a new conceptual frame work consistent with today's democratic values.

Most of the Western theories of authority have the room for supporting all sorts of 'natural aristocracy' which go against today's democratic values such as 'equal autonomy' and 'respect for the otherness'. And this is due to the 'possessive conception of authority' which is not only enforcing 'surrender of judgement' but imposing one-way authority relationship. As well as, it is due to the neglect of authorization process which is to be required for bringing out democratic authority perse.

Authority, to be democratic or non-aristocratic, must be the institutional one established through authorization by the ruled or by the concerned individuals. And the person in authority or of an authority should have only the positional duties and positional rights followed from them.

Such a new concept of authority understood thus can be consistent with today's democratic values of 'equal autonomy' and 'respect for the otherness', and can be a model concept both to that of 'in-authority' and that of 'an-authority'. In this sense, a new theory of authority, if there to be, should be based on this new conception of authority.

Key words: Authority, Authorization, Democracy, Autonomy, the Otherness, Possessive conception

쇠퇴기 패권국 대외경제정책의 국내정치적 기반

백 창 재(서울대 정치학과)

Ⅰ. 패권의 쇠퇴와 대외경제정책
Ⅱ. 영국
Ⅲ. 미국
Ⅳ. 비교와 설명

ABSTRACT

The Domestic Political Basis of a Declining Hegemon's Foreign Economic Policy

Hegemonic stability theorists have long argued that the decline of a hegemon's economic power would result in the closure of international economic system. This argument is based on two theoretical hypotheses, drawing on neorealism: (1) Decline makes a hegemon less willing and able to maintain liberal policies; (2) Less liberal policy of a hegemon makes the existing liberal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more hard to maintain. The former hypothesis, decline-closure thesis, will be tested and criticized in this paper. For various reasons specified in the text, I chose two cases of the responses of hegemons to their decline: the rise and fall of Chamberlain's Tariff Reform Movement in Britain in 1900's and the making of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in the U.S. in 1980's. By examining each and comparing them, I will show how a declining hegemon makes its own choice of responding to the decline. A variety of factors such as the nature of hegemonic power, alignment of domestic social coalitions, and domestic institutions, etc., other than a simple structural change of decline, will be suggested as explanatory variables.

Key words: Declining Hegemon, Foreign Economic Policy, International Economic System, Decline-Closure thesis

미국패권 지속 경향에 관한 실증 고찰

정 항 석(전주대 법정학부 정치외교학과)

Ⅰ. 서론
Ⅱ. 패권의 정의와 결정 변수
Ⅲ. 미국의 군사력
Ⅳ. 미국의 경제력
Ⅴ. 결론

ABSTRACT

Evidences of The Durable American Hegemon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ee the evidences with the American economic and military power which the American hegemony is durable. As you know, the American hegemony had been regarded as falling down relatively in the 70s and 80s, not absolutely. Even though her hegemony was acknowledged politically and militarily as to be durable, it is not in the economic section. Simply speaking, the American hegemony was considered that it is not any longer continuous. However it is difficult for the above estimate to be escaped from criticizing on it in the post cold-war era. Because she has experienced the highly growth rate of her economy after World War II as well as her firm military power. And besides there are no the challengers against her hegemony yet after the dismantle of the soviet Union. So, today' debate on the American hegemony is not on her relative falling from the hegemonic status, but on her new role in the 21st century.

Key words: American Hegemony, Economic Power, Military Power, Hegemonic Challenger, Hegemonic Status.

국제정치경제내 유럽연합 자리찾기: 행위자와 분석수준 그리고 추상화의 사다리

양 오 석(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Ⅰ. 들어가는 말
Ⅱ. 추상화의 사다리: 내포와 외연
Ⅲ. 국제관계 내 행위자의 뿌리 개념
Ⅳ. 추상화의 최고점과 최저점
Ⅴ. 감소된 하부형태로 표준낮추기: 행위자성의 확대
Ⅵ. 결론을 대신하여: 대안적 분석들을 위한 함축

ABSTRACT

Putting the EU in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Actorness and Level of Analysis on the Ladder of Abstraction

In light of the series of questions concerning the linkag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s, the state-society relationship and the methodological debates of comparative politics, international relations and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this paper will examine the conceptualisation of an actor by using Sartori's ladder of abstraction, focusing on the statehood and actorness of the EU. Sartori's strategy is to climb the ladder to avoid conceptual stretching, which implies moving up to concepts with fewer defining attributes and a correspondingly broader range of cases. Such an ascent, however, generates a drawback in the sense that it may cause a loss of conceptual differentiation caused by addressing more general things. This paper suggests four criteria of actorness in international relations such as recognition, authority, autonomy and cohesion. According to these criteria the EU is considered to be an actor-like entity instead of a state. This type is an incomplete form of actor because they have less of its fewer defining attributes. Thus, they would be higher on the ladder of generality, and would therefore provide less differentiation. The recognition of the EU as a provisional actor, however, strengthens differentiation and makes it possible to avoid conceptual stretching by specifying the missing attributes and consequently creating new analytic categories.

Key words: Actorness, the ladder of abstraction, European Union, diminished subtype

러시아에서 동아시아 모델의 진화 가능성

임 경 훈(서울대 정치학과)

Ⅰ. 서론
Ⅱ. 내부자 우위의 기업지배구조
Ⅲ. 은행 중심의 금융시장
Ⅳ. 금융-산업 그룹(Financial-Industrial Groups)
Ⅴ. 국가-시장 관계의 맥락
Ⅵ. 결론

ABSTRACT

Will the Russian Economy Converge to the East Asian Model?

This paper argues that the Russian economy is not likely to converge to the East Asian model of market economy. The skepticism is based on the comparison between the emerging market institutions in Russia and the model of developmental state in Northeast Asia. The foci of the comparison are 1) the ownership structure and corporate governance, 2) the enterprise-bank relationship, 3) the dominant forms of enterprise organizations in economy, and 4) the role of state in economy.

In a sense the Russian case seems to be similar to the East Asian model. In fact, due to the weakness of state power, the Russian mass privatization has failed to institutionalize an Anglo-American model of corporate governance and arms-length bank-enterprise relationship. Instead, a system of insider control and bank-led capital market has been established, and business groups emerged as a dominant form of enterprise organization in economy. Nevertheless, unlike the East Asian counterparts, the Russian banks are extremely fragmented and do not play the role of long-term production-oriented lender. More than anything else, given the structure of state bureaucracy and decentralized center-province relationship, the Russian economy is severely handicapped in pursuing effective industrial policy that made the East Asian economic miracle possible.

Key words: developmental state, East Asian model, industrial policy, bank-led capital market

지역주의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역대 대통령 선거를 기반으로

강 명 세(세종연구소)

Ⅰ. 역대 대통령 선거와 지역주의 투표성향
Ⅱ. 1971년 7대 대통령
Ⅲ. 한국정당체제의 연속성과 변화
Ⅳ. 지역정당체제와 형성
Ⅴ. 결론

ABSTRACT

When Did Regionalism in Presidential Elections in Korea Begin?

This paper aims to seek political origins of regional cleavage in Korea: when regionalism began in the presidential elections? A lot of works has been produced to explain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regional cleavage. And many accounts have provided the various ways to reduce regional conflicts. However, few analytical works attempt to account for the exact starting point of regionalism. I will analyze electoral competition in the presidential elections in which regional cleavage has been most highlighted. In the first part of the paper, I will provide a historical description of regional voting patterns among Youngnam and Honam regions from the 2nd election to 15th election. The second part will be spend in finding out the precise beginning by utilizing statistical analysis. The final part reemphasizes when political regionalism did start by referring to statistical outcomes, and proposes implications of this study for the direction of Korean party system.

Key words: regionalism, regional cleavage, regional voting patterns, party systems

한국선거에서의 여야 균형률:
측정방법의 논의와 경험적 함의

진 영 재(연세대 정치외교학과)

Ⅰ. 연구의 의업
Ⅱ. 정의와 분석수준
Ⅲ. 여야균형률의 측정
Ⅳ. 경험적 논의
Ⅴ. 결론

ABSTRACT

A Balance Between Government Party and Opposition Parties:
Methodological Discussions and Implications in Korean Elections

Korean politics has been characterized by the cleavage between the blocs of voters who repeatedly support the government party and the blocs of those who repeatedly support the opposition party. The aim of the paper is twofold. First, it methodologically tries to create the formula in measuring the degree of a balance between government party and opposition parties. Second, it illustrates the implications of the balance between them with empirical data from 1988 to 2000 election. Consequently, based on the empirical measurement formulated by the paper, implications can be summarized into two. First, the degree of the regional balance between government party and opposition parties is low, while that of the national balance is high. It is because of regionalism. Second, a high level of national balance between government party and opposition party suggests a high level of turn-over in presidential elections held on the national level.

Key words: Balance, Volatility, Cleavage, Government Party, Opposition Party, Election, Regionalism

인터넷과 선거운동:
제16대 총선 후보자의 인터넷 활용 및 네티즌의 참여실태 분석

김 용 철(전남대 정치외교학과)
윤 성 이(경상대 정치행정학부)

Ⅰ. 서론
Ⅱ. 인터넷과 선거운동
Ⅲ. 총선 후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Ⅳ. 홈페이지의 선거운동 활용실태
Ⅴ. 네티즌의 홈페이지 방문 및 참여 실태
Ⅵ. 결론

ABSTRACT

Internet and Election Campaign:
Political Use of Internet and Netizen's Participation in the 16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Korea

This paper analyzes the Web sites of those candidates who ran for the 16th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2000. We look into various aspects of homepage operation and the interactive aspects between candidates and netizens. After a content analysis of the Web sites we find the following. First, every candidate's use of homepages and netizen's participation was fairly high in quantity. About 50% of candidates built personal homepages for their campaign, and the average hitting rate of each candidate's homepage was over 700 a day during the campaign. Second, however, quality of Web sites fell short of a healthy use of new information technology. Most homepages provided more propaganda than helpful and factual information, and lacked information on the political positions of the candidates. Netizens very seldom use the Web sites for public discussion on political and social issues, instead a large part of the bulletin board was filled with irrelevant opinions about the election. To be a useful means to an election campaign, the Web sites should provide more political information in a systemic way and the bulletin board should turn into a public sphere where practical interactions can take place between candidates and voters.

Key words: Internet and Election Campaign, Netizen's Participation, National Assembly

한반도 통일과 재일한국인:
통일문제를 둘러싼 민족단체의 분열을 중심으로

김 태 기(호남대 외국어학부)

Ⅰ. 서론
Ⅱ. 해방 후 민족단체 결성과 새조국 건설
Ⅲ. 이승만 정부의 출범과 우익민족단체의 분열
Ⅳ. 조총련 결성과 민단의 자주적 통일논의
Ⅴ. 박정희 정부시기의 민단의 통일운동과 분열
Ⅵ. 제5공화국 이후 민족단체의 통일운동
Ⅶ. 결론

ABSTRACT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Koreans in Japan:
The Problem of Korean Unification and the Disruptions of Korean Organizations in Japan

The role of Korean residents abroad in the making of 'a Worldwide Korean Community' and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discussed.

It is natural for us to expect the over 550million Korean residents living abroad to play some role in unification. But, I think that we have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specific situation they are and were, in during our discussion of their role for unification, especially those Koreans in Japan, because the specific role of Koreans in Japan can divide the Korean society in Japan and may have a negative effect on unification.

This study examines how the thoughts and acts for 'unification' influenced the Korean community in Japan from after World War II to the present, in particular, the meaning of 'unification' to Koreans in Japan, the acts of Koreans in Japan for 'unification' and the policy of Korean Government on Koreans in Japan for 'unification.'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points we have to consider when we discuss the role Koreans in Japan play for 'Unification.'

Key words: Korean residents abroad, Koreans in Japan, mindan, zochongryun, unification

"정치적인 것(le politique)" 의 발견: 프랑스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부활

홍 태 영(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Ⅰ. 서론: 1995년 겨울
Ⅱ. 전체주의 논쟁과 정치적인 것의 발견
Ⅲ. 프랑스 자유주의 전통과 대안
Ⅳ. 맺는말

ABSTRACT

The Discovery of the Political: Renewal of the Liberal Political Philosophy in France

This article examines French liberal political philosophy which had recently influence on the intellectual milieu in France. The renewal of political philosophy originated in the debate of totalitarianism that resulted from the crisis of Marxism in the 1970s. Through the debate, French liberals explained the regime of Stalin and of Nazi with a viewpoint of political philosophy, and discovered the political (= le politique). The political is not a part of social life, but totality of genetic principles of human relationship. The political philosophy such as "thinking the political" put much importance on the relation with history. French liberals attempted to discover their tradition of political liberalism, particularly after the French Revolution. These are attempts of French liberals to surmount limit of modern democracy such as crisis of the representation and attempts to fit on neo-liberalism.

Key words: Political philosophy, Totalitarianism, The political, Democracy

IMF 외환위기 이후 발전국가 개혁논의와 한국의 민주주의: 비판적 고찰

최 형 익(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Ⅰ. Lacrymosa, Libera Me!
Ⅱ. 접근방법: 비판이론적 접근
Ⅲ. IMF 구제금융이후의 정치경제학 연구 비판: 발전국가론과 민주적 시장경제론을 중심으로
Ⅳ. 결론: 비판으로서의 민주주의론의 회복을 위하여

ABSTRACT

Post-Financial Crisis Developmental State Reform Debates and Democracy in Korea: A Critcal Review

This article is a critical review on Korean political economic studies in the period of the financial crisis. Since the economic crisis of 1997, many political economic studies criticized developmental state theory as the main cause of the crisis, but, which had been broadly recognized as the cause of the east asian economic miracles. By the theoretical assault from the neoliberal market-oriented developmental one, especially, the democratic market economy theory, so called, 'DJ-nomics,, it now seems to be accepted that the developmental state model is no longer a valid developmental strategy for the recovery therapy of the crisis. However those critics also did not submit the alternative to be able to substitute developmental state theory. As a result, there are on-going debates concerning the relevancy of the developmental state thesis. This article grasps that such a deadlock came about from the developmentalism episteme of each theories. In other words, those theories commonly sustain the episteme of the market economy development first, which is under a bias toward the technical cognitive interest from the emancipatory cognitive interest of the critical theory perspective. But this developmental episteme was gained at the cost of social and political democratic one that has been a main theme of Korean politics before the economic crisis. In conclusion, this articles explores the possible principles of the reconstitution of democracy theory as a critical one and the necessity of democracy-first structural adjustment. In spite of difficult condition of the economic crisis, our theoretical option is only alternative courses of democracy or market.

Key words: developmental state, critical theory, DJ-nomics, developmentalism episteme, reconstitution of democracy

위기의 산업전환:
한국의 사례와 대만 · 일본과의 비교분석

임 혜 란(가톨릭대)

Ⅰ. 서론
Ⅱ. 외적환경과 내부제도와의 연계: 이론적 논의
Ⅲ. 한국의 산업전환: 성장과 위기
Ⅳ. 대만과 일본의 산업전환
Ⅴ. 결론

ABSTRACT

Crisis in Industrial Transformation: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 Taiwan and Japan

This study is designed to compare the case of Korea with Taiwan and Japan, by focusing on issues of how these countries have undergone the process of industrial transformation, what major obstacles of transformation they have faced, and why Korea and Japan have experienced some difficulties in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 compared to Taiwan. Industrial transformation evolves with rising and declining industrial sectors. Successful industrial transformation requires the timely shift of competitive industrial sectors over time. Although these countries have succeeded to transform their economies into the Information Technology period since the 1990s, we could find divergent paths and different degree of success in industrial transformation. In the case of Korea and Japan, the institutional inertia and fixation of domestic structure have resulted in the sluggish transformation, which functioned as one of structural causes for the recent economic downturn. Taiwan, however, could properly respond to the changed external environment with the flexible institution and domestic structure. The previous developmental institution in Korea and Japan should have been changed to fit into the new IT period.

Key words: Industrial transformation, Industrial policy, East Asian crisis, East Asian model

위천공단조성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의 정치경제학

박 재 욱(신라대 법정학부 행정학과)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과 기존연구
Ⅲ. 지방정부간 관계: 오염정치의 현상화와 지역 간 갈등의 심화
Ⅳ. 지방정치와 지역성장 연합의 형성: 지역이해관계의 표출과 의제화
Ⅴ.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 중앙정부의 조정역할 약화와 시민참여의 필요성
Ⅵ. 결론: 위촌공단문제의 정치경제적 성격

ABSTRACT

The Political Economy of Regional Conflicts in the Policy-making Process on the Building of Wicheon Industrial Complex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regional conflicts in the policy-making process on the building of 'Wicheon Industrial Complex' through the approach of political economy. There are the characteristics of pollution politics in this regional conflicts between local governments, which have conflicted with the environment reservation policy and the development one stemmed from land uses. We suggest that the areas of analysis are local politics, intergovernmental relations, and central local governmental relations, and then the level of analysis are separated into institutional, actors, and ideological. In conclusion, first, the crisis consciousness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on water pollution is not to be solved by an economic compensation, that is not reduced to the economic level. Second, there is the political contexts. Not only local governments, such as Busan and Taegu related with this conflicts, but also central government have more emphasized the political symbolization and mobilization in use of local sentiments as policy instruments rather than an arbitration and a compromise approach, which have added trobles to the resolution of this regional conflicts. Third, because local residents have accumulated distrusts on the policy decision making process and implement of the environmental reservation policy by central government in several years, they demand to pursue the resolution of this regional conflicts by themselves.

Key words: Wicheon Industrial Complex, regional conflicts, local politics, intergovernmental relations, local growth coalition

신자유주의 시대의 선거와 '사회정책':
1996년 미국 연방선거를 중심으로

손 호 철(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여는글
Ⅱ. 역사적 맥락
Ⅲ. 1996년 선거와 노동, 사회정책

ABSTRACT

Election and Social Policy in the Age of Neo-liberalism:
The Case of the 1996 Election in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lection and social policy in the age of neo-liberalism with the case of the 1996 elec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1996 election is an important election since the American voters virtually fired the Democratic Party (DP) in 1994 election, that is, two years after they presented the presidency to the DP. In particular, the paper tries to focus on impact and implications of the election on social policy.

First of all, the election forced the Republican Party (RP) and the DP to accept a minimum wage increase and welfare reform respectively as election strategies. Secondly, the election showed that, contrary to the mainstream perception, the American voters were still in favor of the New Deal programs owing to economic insecurities resulting from neo-liberalism. The voter surveys show that the DP succeeded in dissolving the Gingrich revolution by defending the New Deal programs. Finally, neo-liberalism politicized the trade unions and the political campaigns of the AFL-CIO helped the dissolution of the Gingrich revolution.

Key words: neo-liberalism, election, 1996, social policy, the United States

탈냉전기 일본 방위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의 변화와 그 중요성

최 운 도(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연구교수)

Ⅰ. 문제제기: 일본방위정책 결정과정의 존재
Ⅱ. 냉전기 방위정책 기조의 연속: 기존의 논의들
Ⅲ. 탈냉전기 방위정책 결정과정에서의 변화들
Ⅳ. 결론: 정책정당성의 확보와 방위규범의 변화 가능성

ABSTRACT

Changes in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Japanese Defense Policy in the Post Cold War Era

Variables at the structural level such as the end of Cold War and the U.S. pressure have the limited utility in explaining Japan's defense policy of the latter part of the 1990s. Even though change in the U.S. strategy has been the primary factor affecting Japan's defense policy in the same period, it is not a sufficient condition to consider in explaining the changes that have occurred since the 1980s. We need to figure out the domestic political background of Japan in order to understand the dynamics of its defense policy in the future. This study focuses on the significant changes and efforts at the levels of institution, the political process, and political leadership. At the institutional level, political reform in electoral system is realized. The first general election of 1996 under the new electoral system marked the emergence of the "1996 party system" and the disappearance of ideological division between the LDP and the JSP. Diet members of LDP are trying to propose to the Diet the promotion of the JDA to the level of Defense Ministry. At the process level, expansion of the role of politicians over the bureaucrats, the introduction of the Intelligence Headquarter and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technical advise of SDF in U.S.-Japan cooperation, forecast the policy changes in the future. Prime Ministers also displayed strong initiatives in pursuing active defense reforms. This study reveals that changes in the pacifist norm and public opinion in defense matters are within arm's reach, which will be realized in the revision of Constitution.

Key words: Japanese defense policy, institution, political process, political leadership, 1996 party system

한국과 일본의 경제성장과 위기의 동학

강 원 택(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 병 영(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원)
배 영(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Ⅰ. 문제제기
Ⅱ. 한국과 일본의 발전 모델
Ⅲ. 정부의 역할, 금융시스템, 기업 지배구조: 비교
Ⅳ. 성장과 위기의 동학: 금융시스템과 기업 감시
Ⅴ. 한국과 일본: 성장과 위기의 상이성

ABSTRACT

The Dynamics of Economic Growth and Crises in Korea and Japan

Japan and South Korea had been well-known for their rapid economic success, while recently having severely suffered economic recessions. This study assumes that such economic crises in both countries, like their remarkable economic achievements in the past, are closely related to characteristics of economic institutions. Focusing on financial system, this article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business relationship in South Korea and Japan. In doing so, this study explains the dynamics of economic growth and crises in both countries. In spite of seeming similarities, this article argues, the two countries had distinctively different patterns of economic growth and causes of the crisis. In South Korea government directly supervised the business sector by effectively controlling financial resources, while main banks in Japan were able to oversee business activities of corporations. Due to the growing accumulation ability of Japanese business sector in 'financial restraint' system, the financial sector has been excessively capitalized. It is the cause of the Japanese economic recession. However, the economic crisis of South Korea was caused by the weakening of the supervising role of government and the excessive investments of business sector without any effective supervision.

Key words: financial restraint, developmental state, government-business relationship, financial system, economic institution, main bank

한반도 · 독일의 냉전구조 해체방안 비교연구와 정책적 함의

황 병 덕(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 학 성(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 종 철(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 성 훈(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Ⅰ. 서론
Ⅱ. 독일 및 신동방정책
Ⅲ. 대북포용정책
Ⅳ. 비교분석
Ⅴ. 결론: 비교분석이 대북정책에 주는 정책적 함의

ABSTRACT

Dismantling Cold War Structures in Korea and Germany:
A Comparative Study and Its Policy Implications

A Cold War structure, underlined an international order pivoting Washington and Moscow for the latter half of the 20th century, was dismantled with the demise of communist regimes in the Soviet Union and the Eastern Europe. A remnant of the Cold War era,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unfortunately remains without resolution at the beginning of the 21 century. So freeing the peninsula and its people from the custody of the outmoded ideological confrontation must be an important task of the contemporaries for the benefit of peace and stabili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new century.

One way to attain this is to learn practical lessons for application of the other parts of the globe that experienced some similarities in the past. In particular, West Germany's Ostpolitik and Germany policy are worthy of pursuing a serious investigation. West German policy toward East Germany and South Korea's sunshine policy toward North Korea are overlapping in the following two points: (1) the two policies try to overcome the limits of existing unification policies and to propose new visions for their people and (2) they focus on fostering auspicious environments for unification through peaceful management of division in the first place rather than hastily justifying the virtues and necessities of unification. Noting these commonalities, this paper attempts to draw valuable lessons from the German experiences and apply them in the Korean case with due consideration of the strains of the Korean peninsula.

The paper first performs an analysis about West Germany's Ostpolitik. Its background, basic policy thinking and the result of policy implementations are thoroughly reviewed. West German's efforts for dismantling Cold War structure are explained in two dimensions: inter-German and European. A similar analytic framework is used to analyze the sunshine policy in the case of Korea. South Korea's efforts for getting rid of a Cold War remnant are also detailed in two dimensions: inter-Korean and Northeast Asian. Based on the analyses, the two policies are compared and policy implications are drawn for the peaceful management of Korean division and for ultimate unification in the end.

Key words: Cold War structure, Ostpolitik, sunshine policy, unification policies

남북한 민족주의 비교 연구: '역사의 이용'을 중심으로

전 재 호(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Ⅰ. 들어가는 말
Ⅱ. 이론적 논의
Ⅲ. 남한의 민족주의와 역사의 이용
Ⅳ. 북한의 민족주의와 역사의 이용
Ⅴ. 나아가는 말

ABSTRACT

A Comparative Research of South and North Korea's Nationalism:
On the Focus of 'the Use of History'

This study addresses the comparison of South & North Korea's nationalism. Especially, this study focuses on the use of the national history and the national heroes, which were sponsored by the competing and opponent regimes. History itself became part of the competition between the two Korean states. While Park ChungHee regime in the South used the Korean history textbook and rediscovered the national heroes, Admiral Yi Soon-Sin and King Sejong, Kim Il-Sung regime in the North used the Korean history writing and rediscovered the founding father of the Korean nation, Dangoon. That is, both regimes constructed the different national history and emphasized the different national heroes. This difference was caused by the different historical viewpoints, for example historical materialism in the North and positivism in the South. The reason why they constructed their own national history was that they tried to monopolize and legitimize each regime's national identity. In short, as using the history, North and South Korean regimes wanted to identify their political identity with ethnic identity (Korean nation).

Key words: South and North Korea's Nationalism, the use of history, rediscovery of the national hero, Admiral Yi Soon Sin, King Sejong, Dangoon, national identity, ethnic identity, political identity

노태우 · 김영삼 · 김대중 정부의 국방정책과 군사전략개념: 새로운 군사전략개념의 모색

이 수 형(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 특별연구원)

Ⅰ. 서론
Ⅱ. 국가안보, 군사정책, 군사전략개념
Ⅲ. 한국의 국방정책과 군사전략개념
Ⅳ. 한국의 군사전략개념 평가와 변화 필요성 모색
Ⅴ. 결론

ABSTRACT

National Defense Policy and Military Strategic Concept in The Rho Tae-Woo, The Kim Young-Sam, and The Kim Dae-Jung Government: Searching for a New Military Strategic Concept

During the past several years, a significant rapprochement has been achieved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hich manifested on many fronts. Most of all, a historic summit meeting between President Kim Dae-Jung and Chairman Kim Jong-Il in June 2000 has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easing tensions between the two Koreas and to moving one-step closer to unification. However, enormous efforts are still needed to reinforce and consolidate this momentum of peace and stability. And military force must be maintained and further developed in a consistent manner to serve the post-Summit South Korean political objectives.

Within this context, this article reviews South Korean national defense policy and military strategic concept from the Rho Tae-Woo to the Kim Dae-Jung government and searches for a new military strategic concept of South Korea in post-Summit Korean Peninsula. Now that the Korean Summit took place, South Korea has fundamentally adapted deterrence by punishment strategy as well as deterrence by denial strategy based on the ROK-U.S. combined forces.

But in this relatively peaceful, post-Summit Korean Peninsula, it is necessary to develop South Korean military strategic concept minimizing the negative aspects of the Cold War legacies and at the same time maximizing the positive aspects of the Korean Summit. For this purpose, South Korean military strategy should more focus on deterrence by denial strategy rather than deterrence by punishment strategy. Not only South Korean new military strategy must be designed to promote the normalcy of South-North relations after the Korean Summit, but also it should have prepare South Korea's own military strategic concept which is independently provided from the ROK-U.S. combined strategies.

Key words: Searching for a New Military Strategic Concept

한국 NGO의 공공재 추구행위와 민주화

김 혁 래(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 영 래(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서론
Ⅱ. 비정부단체의 성장과 공공재 추구 행위
Ⅲ. 한국의 민주화와 제도환경의 변화
Ⅳ. 한국 비정부단체의 공공재 추구행위: 소액주주권과 주권
Ⅴ. 결론

ABSTRACT

Korean NGOs in Pursuit of Public Goods and Democratization

Recently, the global community is witnessing the growing impact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in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spheres. NGOs actively shape perceptions of what is in 'the public interest' and organize people and events to pursue those interests through providing goods and services. They also propose and assist in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and form organizations dedicated to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s by monitoring government and business activities. The prioritization of state and business interests in determining 'the public interest' is now challenged with increasing frequency and effectiveness of NGOs in Korea. In particular, the Small Shareholders' Rights Campaign instigated by th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began to draw attention to the rights of small shareholders that had been overshadowed by the arbitrary power of large-scale business. Also, in the sixteen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2000, 1,055 civil organizations formed a coalition called the Citizens' Alliance for General Elections for the purpose of eradicating corrupt politics and restoring citizens' sovereignty power in the political arena.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ole of NGOs and their coalition both as institutional alternatives and as policy entrepreneurs in pursuit of intrinsic goods - most particularly, 'the public good' of small shareholders' rights in business and citizens' sovereignty in politics. This study hopes to illustrate how NGOs influence popular notions of what sorts of collective goods are for 'the public good' in democratic transition in Korea.

Key words: Korean NGOs, the public good, Democratization

부강한 중국의 등장과 중국위협론, 그리고 한반도

서 진 영(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중국은 위협인가 기회인가
Ⅱ. 개혁개방과 부강한 중국의 등장
Ⅲ. 탈냉전과 중국위협론의 확산
Ⅳ. 중국과 미국, 그리고 한반도
Ⅴ. 미·중 관계와 한반도 문제의 시사점

ABSTRACT

The Rise of a Strong China and the Theory of China Threat:
Their Implic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substance of the so-called theory of China threat and to exam the implications of the Sino-American tensions produced by the rise of a strong China in the process of dealing with the Korean issues.

Thus the first part of the paper focuses on the analysis of the China threat theory in terms of China's economic and military power as well as in terms of Chinese nationalism aspiring to recover China's great power status in the 21century. Based on this analysis, I argue that the China threat theory is somewhat exaggerated, but not a totally groundless fallacy. That is, there are some reasons to believe that a strong China becomes the subject of "challenge to and competition with" them, if not a threat. Therefore the Sino-American relations in the post Cold War era can be characterized with the complicated dynamics of cooperation and competition between them.

This dual relationship of cooperation and competition between the hegemonic US and a strong China may keep each other from intervening too much in the Korean issue. The Sino-American tensions produced by the rise of a strong China therefore can create a historic opportunity for the two Koreas to bring about the peaceful coexistence and gradual reunification based on the inter Korean dialogue and negotiation.

Key words: a strong China, the China threat, Sino-American relations

북한의 국교정상화 제안과 일본의 대북한 정책: 정부 · 자민당 및 사회당의 대응을 중심으로

신 정 화(서강대 강사)

Ⅰ. 문제제기
Ⅱ. 1995년 '남일성명'과 여야대립 관계의 형성
Ⅲ. 1972년 '박성철 제안'과 여야 대립의 고착화
Ⅳ. 1990년 '김용순 제안'과 여야 협조 관계의 성립
Ⅴ. 맺는말

ABSTRACT

North Korea's Propositions of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and Japan's Policy o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Responses of Government·LDP and SDJP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policy and responses of Japan's domestic political powers in connection with North Korea's suggestions of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The secondary purpose is to analyze Japan's policy on North Korea and the dynamics among the domestic political powers involving Japan's policy on North Korea.

During about 50 years of post war, North Korea had formally proposed 3 times (by A Deputy Prime Minister Sung Chul Park in 1972, and Secretary Yong Soon Kim in 1990, Foreign Minister Ii Nam in 1995)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to Japan. Government·LDP and SDJP have positively pursued the improvement in the relations with North Korea in connection with the fact that North Korea's propositions on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were made in the background of world situation of an easing of political tensions.

Nonetheless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parties' policy on North Korea resulting from domestic security policy. For last 55 years of the party system, Government and LDP carried out the interchange with North Korea in the frame of making much of friendly relations with South Korea under the Japan-U.S. Security Treaty. On the other hand, SDJP consistently pursued the policy in favor of North Korea against Government·LDP's pro American political line through asserting abrogation of the Japan-U.S. Security Treaty. This fact tells that Japan's policy on North Korea has been built on the confrontation of one domestic party's political line against another's.

Key words: japan's domestic political powers,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 government, LDP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SDJP (the Social Democratic Party)

탈냉전기 일본 안보정책의 변화에 대한 고찰: 촉진요인과 제약요인을 중심으로

신 지 호(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Ⅰ. 문제제기
Ⅱ. 새로운 법제의 정비
Ⅲ. 변화의 촉진요인
Ⅳ. 변화의 제약요인
Ⅴ. 향후 전망 및 한국의 선택

ABSTRACT

A Study on the Changes of the Japanese Security Policy in the Post-Cold War Era: With Emphasis on the Factors Surrounding Both Promotion and Restriction of Its Changes

Japanese security policy has been showing essential departure from its policy in the Cold War that framed by exclusively defence-orientation and prohibition of the right of collective self defense. This departure seems to be made possible through the three major Japanese legislations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1) International Peace Cooperation Law in the aftermath of the Gulf war, 2) the Law Concerning Measures to Ensure Peace and Security of Japan in Situations in Areas Surrounding Japan in the face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missile threat, 3) the Anti-Terrorism Special Measures Law after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

The promotion factor for this change can be reasoned with the Japan's desire for becoming a normal state, the pressure and the demand form the U.S., and the external threat to Japan. In the meantime, the U. S.-Japan Security Treaty, the existence of the Peace Constitution, and Japanese public opinion constrains the scope of the change as the restriction factors. In sum, this change of Japanese security policy can be viewed as the movement towards a normal state, and the potential resurrection of militarism in Japan does not appear so far. However, the complication between normalization and rightest leaning poses as a considerable problem, due to the Japan's inconclusive accounts for its past problem.

Consequently, Korea must send Japan a supportive message regarding normalization while making it clear to object the Japan's rightest leaning. In addition, Korea must urge Japan to strengthen not only a military deference, but also more active role in its preventive diplomacy. This will also require Korea to improve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order not to provide Japan with reinforcing its military power.

Key words: Japanese Security, the Law Concerning Measures to Ensure Peace and Security of Japan in Situations in Areas Surrounding Japan, the Anti-Terrorism Special Measures Law, Normal State, the US-Japan Security Treaty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회고와 전망

김 근 식(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Ⅰ. 서론
Ⅱ. 햇볕정책의 내용과 특징
Ⅲ.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과 평가
Ⅳ. 햇볕정책의 향후 전망
Ⅴ. 결론에 대신하여: '정권'의 대북 정책이 아닌 '국가'의 대북정책으로

ABSTRACT

The Kim Dae-jung Government's Sunshine Policy:
Evaluation and Prospects

The subjects of this article is evaluating the Sun-shine Policy of Kim Dae Jung government generally and objectively, in order to find out what would be needed for the success of this policy. The Sun-shine Policy, aimed at promoting "peace,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be understood as North Korean policy, rather than a reunification policy.

This policy has been criticized for such reason: this "neo-liberal" approach would be too much biased to idealism; this "appeasement" policy would pay little regard to security problems; this "one-side give" policy would not be able to cause any change in North Korea. These critics will be analyzed and evaluated in this article.

In order to let the Sun-shine Policy produce desirable results, an internal political consensus is indispensable that this policy is not mere a policy of the Kim Dae Jung government, but of this country, as well as external situations, such as North Korea's acceptance of change, and international situations friendly to this policy.

Key words: sunshine policy, unification policy and North Korean Policy, peace·reconciliation·cooperation, crisis and chance, government's policy and national policy

햇볕정책과 여론:
지속성과 변용의 관점에서 본 실증분석

박 선 원(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교수)

Ⅰ. 문제제기
Ⅱ. 방법론: 외교정책과 여론, 그리고 언론의 역할
Ⅲ. 개괄적 추이: 김대중 정부의 국정운영 지지율과 햇볕정책 지지율간 격차
Ⅳ. 지속성과 변용, 그리고 갈등 완화의 관점에서 본 실증분석
Ⅴ. 맺는말

ABSTRACT

The Sunshine Policy and Public Opinion:
Empirical Analysis of Surveys
from the Perspective of Continuity and Alteration

This paper examines continuity and alteration of the sunshine policy in the next government by analysizing survey data the Kim Dae-jung government, conservative newspapers, and liberal newspapers have respectively taken for last four years. Let alone the governmental data, survey outcomes of the liberal and conservative newspapers suggest that the sunshine policy has strong public support that is roughly higher than 65% on average and the lowest rate was 33.9% in early 2001. The supporting rate of the sunshine policy is 20% higher on average than that to the general performance of the Kim government. This finding can be interpreted that the public tends to regard their support to the government with the support to the sunshine policy, which is to be conducive to the continuity of the policy.

In terms of ideological preference, the conservative elements of South Korean journalism are critical while the liberals are supportive to the policy. Much larger circulation of conservative newspapers is burdensome to the continuity, but pressing the policy to be altered or discarded. One of the most tangible characteristics of South Korean politics, the regionalism, also affects to the sunshine policy to be altered, rather than to be maintained as it has been. Kyongsang province, the largest region in South Korea, has critical attitudes, while much smaller Cholla province shows demonstrate strong support to the sunshine policy in general.

However, two other sociological factors captured in the survey data such as age and education play a role to buttress the sunshine policy. The younger their ages, the higher the supporting rate; the higher their educational background, the higher the supporting rate. These two factors countervalue the ideological influence of the conservative journalism and gerional factor enforcing the public disapproval to the policy. To sum up, considering the strong public support per se up to present seen in the survey date, the higher educational elements and the younger generation, continuity is has stronger inertia than regionalism and ideological traits forces the policy to be altered. In conclusion, therefore, the next government, whatever the candidate, would not change the basic propositions of the sunshine policy, although some parts of it would be inevitably altered. Continuity will undercurrent in the next government's policy towards North Korea.

Key words: The sunshine policy, public opinion, continuity, alteration

지역주의의 정치적 정향과 태도

이 갑 윤(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서론
Ⅱ. 지역별 정향과 태도의 특성
Ⅲ. 지역별 정향과 태도의 변화
Ⅳ. 정치적 정향과 태도와 정당지지와의 상호관계
Ⅴ. 결론: 지역주의와 정치적 경쟁

ABSTRACT

Political Orientations and Attitudes of Regionalism in Korea

This study compares political orientations and attitudes of four major regions in korea, and finds that while general orientations and ideologies hardly differ among the regions, noticeable regional differences exit in issue position and partisan attitude. Honam people tend to be favorable toward government policies and performances of which youngnam people are critical.

Two-stage least square results measuring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s and partisan support show that regional attitude differences are primarily the result of persuasion effects of partisan support. People take their party's issue position as their own because they like the party, but not vice versa. Consequently regionalistic voting, the dominant voting in Korea since democratization, is unrelated to issue or performance voting.

Key words: Regionalism, Voting behavior, Election, Political party, Political orientation and attitude

기로에 선 동아시아 발전모델:
한국과 대만 비교연구

윤 상 우(고려대 강사)

Ⅰ. 문제의 제기
Ⅱ. 발전국가 위기의 삼중구조
Ⅲ. 발전국가모델의 재편과 전환
Ⅳ. 맺음말

ABSTRACT

East Asian Model at a Crossroad:
A Comparative Study on Korea and Taiwan

This study,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developmental states have been playing crucial roles in achieving economic success in East Asia, is designed to compare the crises and transformations of the developmental state in Korea with those in Taiwan. State-led development in early industrialization has created contradictory tendencies to undermine state autonomy and state capacity, and resulted in the crisis of the developmental state itself. This study identify world system constraints, democratic transition, and rise of big business as key factors in bringing about the crisis of the developmental states. The crises implicate the transformations of the development model. In Taiwan, we could find a tendency towards a 'soft-developmental state,' in which the characteristics of developmental state can, though in a limited form, still be found. In korea, however, because of intense conflict between the state and the societal forces, and of the failure of policy response, the developmental state has precipitously declined, winding up with a 'post-developmental state.'

Key words: developmental state, crisis of the developmental state, soft-developmental state, post-developmental state

'2003년 위기설' 전망과 한 · 미 · 북 삼각관계

전 봉 근(서울대 강사)

Ⅰ. 서론
Ⅱ. 북한의 대량살상 능력과 미국의 비확산 정책
Ⅲ. 이슈별 전망
Ⅳ. '2003년 위기설'의 분석
Ⅴ. 결론

ABSTRACT

North Korea's WMD and the Trilateral Relations among South, North Koreas and the U.S.

North Korea has been demanding political and economic compensation from the U.S. for the latter's failing to meet the completion of the KEDO's Light-Water Reactor project by 2003 and to maintain political dialogues between the two. On the other hand, the Bush administration despises such demands and presses North Korea to accept IAEA's nuclear inspections immediately. The so-called '2003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may not be as disastrous or dramatic as the one in 1994. First, the North Korean economy has become weaker and dependent further on foreign aid for its survival. Second, North Korea's hard line policy may bring about military countermeasures from the U.S. instead of concessions as was the case during the Clinton period. In addition, North Korea does not want to hurt the sunshine policy in the South. But, if Pyongyang found that Seoul adhere to the sunshine policy regardless of its misbehavior, it might be attracted to appeal to a hard line policy. In summary, in consideration of weakened Pyongyang and hardened Washington recently, big crises followed by big deal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may not repeat themselves in 2003.

Key words: North Korea (DPRK), North Korean nuclear issue, KEDO, sunshine policy, KEDO LWR project,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istraction, South-North relations, US-DPRK relations

대북화해협력정책과 북한의 변화에 대한 실증적 분석

노 정 호(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김 용 호(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연구의 목적
Ⅱ. 대북 상호주의와 정경분리: 이론적 검토
Ⅲ. 햇볕정책과 북한의 변화: 실증적 검토
Ⅳ. 실증적 검토의 함의

ABSTRACT

The Sunshine Policy and North Korea's Change:
An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is an empirical approach for measuring North Korea's changes after the inter-Korean summit in June 2000. North Korea's changes are often referred as the most agreeable criteria for determining validity of the Sunshine policy since most debates over the Sunshine policy are centered on whether the policy really brought changes on the part of North Korea. After theoretical discussions on reciprocity and the Sunshine policy, this study employs two different methodology, content analysis and event data analysis. For content analysis, we coded reports of Chosun Central News Agency and while for event analysis, coding event regarding inter-Korean relations by applying COPDAB codification. Two approaches yield an observation that the Sunshine policy has accompanied North Korea's feasible changes, in spite of two armed conflicts on the western sea. As for the reason why the Sunshine policy has become the target of domestic criticisms, the study illustrates inherent limitation embedded in neoliberal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policy.

Key words: Sunshine Policy, Kim Dae-jung, North Korea, commercial peace

복지축소 시대의 복지국가: 이념과 정치

김 인 춘(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연구교수)

Ⅰ. 문제 제기
Ⅱ. 위기 이후 복지국가의 이론과 쟁점
Ⅲ. 위기 이후 복지국가의 사례
Ⅳ. 위기 이후 복지국가의 정치
Ⅴ. 서유럽 복지국가의 미래

ABSTRACT

Welfare State in the Era of Retrenchment:
Its Ideology and Politics

The welfare state lies at the core of European democracies in general and social democracy in particular.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welfare state after WWII in Western Europe has reflected many characters of political ideology and partisan politics. They are the belief of social right, legitimacy of the state intervention into market, politicization of working class, class politics and class compromise, among others. Especially, it has been much emphasized of the significance of social class in the politics of welfare state in Western Europe. Long recognized as a defining feature of the European democracies, the welfare state currently commands greater attention then ever. Even at a time of worsening inequality, demands for retrenchment have grown more insistent. The social democratic governments in Sweden and the Netherlands have implemented a number of important reforms of social security, both retrenchments and institutional adjustments. The pattern of recommodification in the Netherlands and Sweden constitutes a puzzle for the welfare state literature. The most influential accounts of welfare state development emphasize the institutional stability of welfare state arrangements because of the political difficulty of reform. Meanwhile, others argue that this retrenchment may fundamentally change the ideology and politics of the welfare state in Europe.

This paper argues that the process of recommodification in the era of expansion and recommodification in the era of retrenchment can be studied using the same analytical approach. The issue of class and welfare state politics is still one that provokes vigorous and complex argument even in the era of welfare retrenchment. In European societies, especially in the era of welfare expansion, interest groups and political partisanship were in fact largely class-based. Recent welfare reforms in Sweden, the Netherlands, and in Britain provide ample empirical grounds for questioning the idea that a progressive weakening of the class character of welfare state represents a generic feature of the politics of advanced societies. I focus on the role of class and politics as the principal players defending and reforming welfare state. Compared to Sweden, the relative weakness of organized labor and social democracy in the Netherlands is an important factor for explaining the greater degree of recommodification in the Netherlands than in Sweden.

Key words: welfare state, redistribution, welfare ideology, politics, retrenchment, welfare reform, globalization, Britain, Sweden, the Netherlands

한국정치자금의 규모와 조달패턴: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김 의 성(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임 성 학(연세대 리더십센터 연구교수)

Ⅰ. 문제 제기
Ⅱ. 정치자금의 개념과 공식자료
Ⅲ. 한국 정치자금 규모와 조달패턴
Ⅳ. 결론

ABSTRACT

Financing of Political Funds In South Korea: New Evidence based on Official Data

There is a commonly shared belief among Koreans that a critical problem in Korean politics is that is much too costly yet inefficient. The issue of money politics has repeatedly dominated the media and public debate every election year and yet what we know about it is often limited to unscientific hearsay and unsubstantiated claims. This paper uses financial statements reported by local party offices and their political support groups during the 1996-2000 period to unveil the size and sourcing pattern of Korea's political funds. While the credibility of the official data on political funds has always been in question, this paper argues that, since the 1994 reform of Political Funds Act, the credibility of the official data has much improved and it would be imprudent to judge it useless without a critical analysis. The paper does show that the official data do provide meaningful and significant patterns which suggest it's usefulness as an instrument to proxy the actual political funds. Moreover, the real value of the official political funds data used in this analysis is the very fact that it is funds sourced through the "official" channels. While full understanding of the political funding in Korea cannot ignore its illicit nature, there is a more urgent and basic need to understand the officially revealed aspect of political funding and how it impacts upon the political process in South Korea.

Key words: campaign finance, money and politics,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incumbent advantage

한국 정당의 수입구조 연구:
1997~2000년도 정당회계보고자료를 중심으로

심 지 연(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 민 전(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서론
Ⅱ. 정치자금법상의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 방식
Ⅲ. 정당의 수입구조 분석
Ⅳ. 결론

ABSTRACT

Revenue Structure of Korean Political Parties

The financial reports of Korean political parties have not attracted the attention of researchers: because under-the-table-funds are judged to exceeds legal fund and such funds are omitted from the reports. Yet, even though they are imperfect, our examination of the financial reports, 1997-2000, shows that many facts about the flow of Koreas political funds can be discovered from them.

First of them is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central partys share is decreasing, while the district partys share is increasing. From this we can say that decentralization is now under way in political fund raising.

Second, in the case of the central party, a change of partisanship in the Blue house has a large influence on the political parties revenues; in the district partys case, the difference is not that big. At the level of the district party, whether the chairperson of the district party is the Member of the Assembly or not has a greater influence on revenues than the partisanship of the Blue House. From this we can expect that if decentralization in political fund raising further progresses, the influence of presidential partisanship has on political fund raising will be mitigated.

Third, in the event of a National Assembly or the local elections, the central party shares state subsidy with the district parties. However, in the event of a presidential election or no election at all, it appears that all the funds are used by the central party.

Key words: political party revenues, state subsidy, party expenditure, political funds, political party finances

국제레짐의 강제집행력과 개별국가들과의 관계: 1970년대 국제핵비확산레짐과 한국과 일본의 핵재처리정책 비교연구

김 기 정(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 한 규(경희대 국제지역학부 교수)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국제레짐의 강제집행력과 개별국가의 정책
Ⅲ. 국제핵비확산레짐의 목표와 강제집행력
Ⅳ. 한국의 재처리 프로그램 개발정책
Ⅴ. 일본의 재처리 프로그램 개발정책
Ⅵ. 비교연구: 한국과 일본에 대한 강제집행력의 상이한 효과
Ⅶ. 결론

ABSTRACT

The Relations between Coercive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Regime and the Individual Nation-States:
International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and Nuclear Reprocessing Policies of South Korea and Japan in the 1970s

This study seeks to explain why Japan and Korea had different consequences in their nuclear reprocessing policies when they both faced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pressures form the United States in the 1970s. Although both countries began to develop nuclear reprocessing programs as part of long-term nuclear power development programs, Korea had to drop the reprocessing program due to the strong pressure from the United States while Japan succeeded in continuing its reprocessing program as originally planned despite the similar pressure from the United States.

The authors argue that the different policy outcomes with regard to the reprocessing programs between Japan and Korea mainly resulted from the different effects of the coercive enforcement of the international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that were applied to them.

The coercive enforcement of the international regime has different effects on the behaviors of the individual states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targeting state in the regime, the relational characteristics of core state and targeting state in the regime, and the availability of negotiation strategies such as issue-linkage strategy.

In the 1970s, Japan and Korea showed a big difference in terms of their position in the international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Japan not only entered into a group of advanced nuclear countries but also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in maintaining the international regime in the 1970s. On the other hand, Korea only remained a targeting state that should be controlled in terms of nuclear nonproliferation. The difference of their positions in the regime brought about different effects of the coercive enforcement on Japan and Korea respectively with regard to the reprocessing issue.

The different effects of the coercive enforcement also resulted from the different relational characteristics betwee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The United Sates and Japan maintained a very close interdependent relations in the political security and economic arenas, while Korea had a very dependent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both militarily and economically. This gap between the US-Japan relationship and the US-Korea relationship brought about different responses of Japan and Korea against the American nonproliferation pressure.

Lastly, Korea did not have effective negotiation strategies such as issue-linkage strategy to enhance its position in dealing with the reprocessing issue with the United States while Japan effectively exercised issue-linkage strategy to fend off the US pressure on its reprocessing program. The availability of effective negotiation strategy also determined the difference in the degree of the coercive enforcement applied to the reprocessing programs of Korea and Japan.

Key words: international regime, coercive enforcement, nuclear nonproliferation, reprocessing, Korea's nuclear power program, Japan's nuclear power program

미국의 동북아 동맹전략과 동맹의 안보딜레마, 그리고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에 대한 함의

박 건 영(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남 창 희(인하대 사회과학부 조교수)
이 수 형(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강사)

Ⅰ. 서론
Ⅱ. 탈냉전기 세계안보환경과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Ⅲ. 동북아 안보환경과 미국의 아·태 안보전략
Ⅳ. 동북아 안보관계의 핵심 변수와 미국의 동맹전략
Ⅴ. 미국의 동맹전략과 동맹안보딜레마
Ⅵ. 결론: 미국의 동북아 동맹전략과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에 대한 함의

ABSTRACT

The U.S. Alliance Strategy toward Northeast Asia, Alliance's Security Dilemma,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s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S. emphasizes, one the one hand, its capability to exercise its power unilaterally to promote its and its allies' interests throughout the globe. One the other hand, the U.S. is seeking to build a system of regional security networks that would connect Europe-the Atlantic Asia as a means to help realize the objective. However, the U.S. alliance strategy toward Northeast Asia may produce somewhat different outcome than it used to produce in the Cold War period. The end of the Cold War caused the loosening of the camp-consciousness among the nations and the emergence of a new national strategy paradigm in which the nations freely pursue their individual interests. As a result, the U.S. influence in the region is likely to decrease. It would subsequently cause alliance's security dilemma which is likely to intervene as a constraint between the U.S. intentions and the security reality in the region.

Key words: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regional security networks, the U.S. alliance strategy, alliance's security dilemma

오스트리아, 호주, 캐나다, 독일의 연방주의 비교

이 옥 연(가톨릭대 국제학부 강사)

Ⅰ. 서론
Ⅱ. 오스트리아, 호주, 캐나다, 독일의 연방체제
Ⅲ. 결론

ABSTRACT

Comparing Federalism in Austria, Australia, Canada and Germany

What does the constitution tell us about intergovernmental balance in a country at a specific time? Which aspects of national-subnational relations cannot a codified constitution reveal? A possible answer to the first question is that a vital feature of a constitution is the relation of states or regions to the federal or national government, as Woodrow Wilson claimed (Posner 1998). Indeed, each country's constitution sheds formal-legal insights into how different levels of government finalize the intricate task of assigning the specific functions of governing among themselves. In practice, however, such national-subnational relations are constantly subjected to redefinition because different regimes envision their own distinct pattern of multi-level governance even within the same country. To answer the second question, I first explore how four advanced federal states, Austria, Australia, Canada, and Germany, institutionalize the national-subnational relations and put them into practice over a period of 1960-1995. Then, I draw a conclusion that federalism is not a uni-dimensional concept, and thus its practice requires more than a mere reconstruction of specific institutional features that are often found in a federal state.

Key words: multi-level governance, national-subnational relations, federalism, constitutional contract,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nstitutions

정보화와 한국인의 의식변화: 네티즌의 동호회 활동을 중심으로

강 정 인(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 현 우(서울대 미국학 연구소 책임연구원)
이 원 태(한신대 국제관계학과 강사)

Ⅰ. 서론: 인터넷과 의식변화
Ⅱ. 자료 및 분석방법
Ⅲ. 네티즌의 인터넷 사용현황
Ⅳ. 인터넷과 사회의식
Ⅴ. 함의

ABSTRACT

Influence of Internet on Social Consciousness in Korea: Focusing on Involvement of Cyber Communities

This paper studies the possibility that going online changes netizens' social consciousness. There are two opposite arguments about internet users. One is that heavy internet users become more depressed, lead more stressful lives, and have fewer friends. On the contrary, the other sees the Net as the great opportunity to rebuild lost sense of and trust. People come together on the Net e-mail lists, affinity groups, support groups, and chat rooms. According to this argument, internet is the great leveller to the barriers disintegrating people by economic or social class.

Analysis of the empirical data reveals that respondents who have the strong affiliation to the internet community they belong to are more likely to show the high level of social consciousness after other important factors such as age, education, ideology are controlled. Furthermore, we find that the extent to which respondents participate in the internet communities influences tolerance and political ideology. That is, the more actively they are involved in the internet, through the experience of altruistic behavior, the higher level of tolerance and liberal ideology they have. Although we cannot generalize these findings because of limits of the data, we may conclude that internet usage does not make people remote from the society but increases interaction with others. Thus, it gives netizens chances of improving social trust and civic engagement which is one of the critical factors for participatory democracy.

Key words: netizen, cyber community, social capital, tolerance, collectivism

한국의 재외동포정책:
재외동포법 개정의 쟁점과 대안

이 진 영(경희대 국제관계 지역학부 강의전임 강사)

Ⅰ. 문제의 제기
Ⅱ. 재외동포법 연관 쟁점
Ⅲ. 재외동포정책 연관 쟁점과 방향
Ⅳ. 미래의 정책 주제: 한인계 상호관계와 정체성
Ⅴ. 결론

ABSTRACT

Korea's Policy towards the Ethnic Koreans Abroad:
Issues and Implications

Decision (November 29th 2001) of "constitutional discor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owards the Act on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of 1998 resulted a hot debate again on the policy of the Koreans abroad. According to the decision, the legal provision excluding overseas Koreans who moved to China and the former Soviet Union before 1948 and their descendants from receiving legal benefits is unconstitutional and the provision will remain effective only through 2003. The Act divides Koreans abroad into Korean citizens living abroad and Koreans with foreign citizenship. It grants various benefits to them while staying in Korea and the right to get jobs and do business in Korea.

The question of The Act is an indicator of the legal, political, societal and even conceptual discrepancies of the South Korean society. Issues related to the Act can be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1)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2) foreign intervention, especially China's deep concern, 3) labour market, and 4) existence of The Act itself.

This paper discusses these issues above and adds some more normative questions on the policy towards the Koreans abroad. These are mainly conceptual issues related to ethnicity and nationality. Also, a positive way of inter-relations among the ethnic Korean groups in the world is addressed.

These issues are fairly new in the Korean academic circles. Therefore, the basic studies are woefully inadequate. Meanwhile, development of the issues are moving faster and faster. Lega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industrial relations approaches are being developed in recent years. But, it is very rare to see the development in a wider sense such as an international or an East Asian context.

In coping with issues arising from the encounters with foreign workers as well as ethnic Korean migrators in their country, South Koreans have begun to rethink about their concepts of nation and ethnicity. As their society becomes rapidly open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South Koreans are trying to find a solution to embrace national unity as well as global standard at the same time. Here, nationalism and globalism cannot contradict each other. However, to accept an ethnocentric view on nationalism is likely to cast away the notion of global standard in South Korea. Thus, the case of Chosonjok in Korean society is a good indicator to see development of the society, internally as well as internationally.

Key words: overseas Koreans, policy, nationality, foreign workers, ethnicity, globalism

연변조선족의 북한 · 통일관 조사연구

임 채 완(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서론
Ⅱ. 북한관
Ⅲ. 통일관
Ⅳ. 조선족의 역할
Ⅴ. 결론

ABSTRACT

Survey Research on the view of Yanbian Korean Ethics in China about North Korea &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views of korean-chinese about North Korean and unification of two koreas. That is to say, it will show that how korean-chinese in Yanbian recognize North Korean society and unification of korea. This study used the method of the structured interview. It was written on the basis of research by 500 people selected in the area of china-Yanji, Longjing, Tumen, Hunchun-from December 1. 2000 to January 15 2001. The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society, the understanding of rel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view of unification, the understanding of korean-chinese' roles were questioned to investigate.

The results are as follows. Korean-chinese in Yanbian took much interest in North Korea. They also agreed that North Korea has been changing. Meanwhile they highly expected the possibilities of making an invasion upon South Korea by the North, therefore they recognized North Korea to be warlike.

The majority of korean-chinese regarded the situation of North Korea's human rights as serious. For this reason, they thought that North Koreans didn't give much support to the Kim Jong-il regime. They expected that North Korea would be opened, but the extent of that would be insignificant. Korean-chinese in Yanbian evaluated that South Korea has been superior to North Korea in liberty, equality, democracy, human rights and economy, but inferior to North Korea in culture, art and military power.

They also evaluated that the degree of two korea's heterogeneity has been deteriorated by priority of leisure, family life, language, job style and custom. They suggested that the best way to improve the relationships between two koreas should be the way driven by the governments and private sectors along, being given priority to economic and cooperations. Most of chinese-korean insisted that the unification between two koreas should be accomplished by the mutual consent through exchanges and cooperations.

Key words: Human rights in North Korea, Opening and Reform of North Korea, Support to the Kim Jong-Il regime, Degree of Two Korea's heterogenity, Refugee from North Korea in China

제주 평화의 섬 구상과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양 길 현(제주대 윤리교육과 교수)
장 원 석(제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문제의 제기
Ⅱ. 제주 평화의 섬: 개념과 영역
Ⅲ.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모형: 국제적 보장하의 '무방호지구'
Ⅳ. 결론

ABSTRACT

The Formula of 'Peace Island of Jeju' and Peace by Peaceful Means

This study attempts to define and develop the formula of 'Peace Island of Jeju' (FPIJ),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of the peace order in the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r in the 21st century. Based on the Johan Galtung's 'peace by peaceful means' idea, the study puts its emphasis o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s, communications and cultural exchanges.

FPIJ has been presented to contribute to the world peace by taking advantage of geopolitical situation of Jeju and its image of 'peace island.' First, FPIJ aims at stabilizing North Korea by providing North Korea with the humanitarian aids and benevolent exchanges, and creating 'zone of peac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us leading to peaceful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Second, FPIJ is to define its firm identity and leading role as a peace island with progressive viewpoint to free Jeju from the conflict-ridden fluctuation of the region, thus helping improve the level of reconciliation-cooperation in the Northeast Asia. Third, FPIJ aims for the buffer-zone among North-South Korea, China, and Japan, thereby holding military competitions in check, and bringing about cooperation among them.

While seeking its transformation into the International Free City, Jeju is currently furnished with a lot of opportunities, especially with FPIJ positioning Jeju as a zone of 'Peace and Freedom.' This study proposes an alternative policy of 'non-defended locality' guaranteed by international laws and the countries concerned. The non-defended locality provides Jeju with the 'peace by peaceful means.'

Key words: Peace by Peaceful Means, Formula of 'Peace Island of Jeju,' Zone of Peace, Buffer Zone, International Free City, Non-Defended Locality

21세기 중국의 대국화 신안보 전략: 미중 간의 안보외교를 중심으로

김 재 관(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중국학과 대우교수)

Ⅰ. 머리말: 중국의 부상과 동요하는 미중관계
Ⅱ. 중국의 21세기 신안보전략 수립의 배경과 요인
Ⅲ. 중국의 대국화 신안보 전략의 몇가지 특징과 구성요소
Ⅳ. 맺음말

ABSTRACT

The New Security Strategy of Great China in the 21st Century

This article is to study on the background and motives of China's new security strategy. Furthermore, this study intends to find distinctive features which are involved in the new security strategy of Great China established in the 21st century's new international environment.

In short, the following five issues will be dealt with in this study. First, China is moving from the present economic development- centered diplomatic policy to the balanced development strategy in order to enhance its military powers as well as economic one, which means that the theory of security and development starts to gain its momentum. Second, the following three factors are gradually accelerating China's modernization of national defense: US Missile Defense System, Taiwan's increasing sentiment of independence, and Japan's rearmament. However, the military power of China has not reached the level of 'China Threat' as the US has been worried so far. Third, China's new concept of national security will function as a basic policy of security for the 21st century. Fourth, China will pursue the multi-polarization strategy and independent cooperation line including multilateralism and diplomatic policy of partnership & linkage against the selective congagement policy of America, in the 21st century. Finally, the study is to demonstrate that the stability and peace of the Northeast Asia will be guaranteed only when the US-China relation is based on the strategic partnership, rather than potentially strategic antagonism.

Key words: New Security Strategy, Missile Defense, Security and Development, Constructive strategic partnership, Multilateralism, Multi-polarization, Congagement

러시아의 동북아정책과 안보협력의 제도화

이 웅 현(고려대 평화연구소 연구조교수)

Ⅰ. 러시아와 아시아
Ⅱ. 러시아에서의 '아시아' 의 부활과 아시아에서의 '러시아' 의 등장
Ⅲ. 러시아의 동북아시아 정책의 변천: 고르바초프에서 옐친까지
Ⅳ. 러시아 군사안보전략의 변화와 동북아시아: 푸틴시대
Ⅴ. 동북아 테이블의 러시아의 좌석: 안보협력의 제도화

ABSTRACT

Russia's Security Policy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in Northeast Asia

The foreign policy of Russia traditionally unfolded in two distinct theaters, the European and the Asian. But the primary attention and effort were directed to Europe, the significance of the Asian theater being remained on the whole subordinate, the results of which was the failure at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and the beginning of the twentieth and the relative strengthening of the America's shadow during the Cold War.

It was ironically after the demise of the Soviet Empire that Asia, which was seen as having its proper value and appreciated not from the comparative point of view with Europe, revived in Russian foreign policy. Though without success, Gorbachev promoted a series of policies for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toward Northeast Asia. And Yeltsin and Putin respectively took concrete forms of this sort of policies in the course of building their own military strategy and diplomatic doctrines.

Recently Russia is making efforts to identify herself with a broker or a guarantor for the Northeast Asian multilateral security system, which is seen improbable to be established for the time being because of the poverty of historical experience, the uniqueness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 international system and nonexistence of common or collective security issues. Hope is not policy, and Russian foreign policy makers knows this very well. For the predictable future, therefore, they will search for the bilateral security partnership with each Northeast Asian countries, at least until the completion of their military reformation policy.

Key words: Russia's foreign policy,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Northeast Asia, Post-Cold War, Russia's Asia policy

동티모르 재식민지화와 독립:
서방권 국가들의 구성주의적 행위를 중심으로

김 열 수(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

Ⅰ. 서론
Ⅱ. 동티모르 재식민지화와 독립에 대한 분석틀
Ⅲ. 동티므로 재식민지화: 이데올로기에 의한 지배
Ⅳ. 동티모르의 독립: 인도주의 정체성과 규범에 의한 통치
Ⅴ. 결론

ABSTRACT

Recolonization and Independence of East Timor:
Focused on Western World's Activity in Constructivis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ain why the Western World connived or backed up Indonesia when it recolonized East Timor, and why these countries gave pressure to Indonesia which denied to accept International Force in East Timor (INTERFET).

Perspective of Constructivist gives in-depth analysis on dramatical change of East Timor in two decades. The Western World either ignored or tolerated rightish Indonesia's recolonization on leftish East Timor since it was the time when the ideological environmental constructed each state's identity and national interest. The Western oriented states, which redefined its identity and national interest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spirit after the end of Cold War, exercised leverage on Indonesia to accept INTERFET.

Key words: East Timor, recolonization, independence, constructivism, environmental structure, identity and national interest

동아시아모델 논쟁의 극복:
새로운 발전론을 위하여

김 진 영(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서언
Ⅱ. 동아시아모델론
Ⅲ. 동아시아모델 위기와 개혁론
Ⅳ. 새로운 발전론을 위한 어젠다
Ⅴ. 맺음말

ABSTRACT

Beyond Debates over the East Asian Model:
Searching for New Agendas for East Asian Developme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overcome debates over the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and to suggest new agendas for development of East Asia and Korea. The paper begins with a critical reexamination of a common percep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It argues that the old East Asian model is no longer applicable to a future development strategy of East Asian countries. The old East Asian model was built during the days when the "four dragons" and Japan were able to pursue neomercantilist trade and industrial policies. The conditions of the world system have changed. The neo-liberal trade rules urge further opening of national markets and the herd-behavior of financial capitals is capable of triggering a financial crisis.

After going over theories of the Asian crisis ranging from neo-classical perspective, state-institutionalist perspective, to the world-system perspective, pointing out their merits and shortcomings, the paper argues the Asian crisis demonstrated that East Asian countries had failed in adjusting themselves to the changes in the world system. Therefore, it argues, East Asia needs to establish a new development model.

Concludingly, the paper suggests two agendas, regional cooperation and the new East Asian model, as essential themes to explore for a new stage of development of East Asia and Korea.

Key words: East Asian Model, currency crisis, neo-classical, crony capitalism, regional cooperation

남북한 군사통합 · 통일한국군 건설 및 쟁점들

제 정 관(국방대 교수)

Ⅰ. 머리말
Ⅱ. 남북한통일과정에서 예상되는 군사통합 유형 및 원칙
Ⅲ. 남북한 군사통합 · 통일한국군 건설과정에서의 쟁점 및 토의
Ⅳ. 맺음말

ABSTRACT

Constructing a Unified Armed Forces in Korea

The experiences of national unification in other countries show that the military integr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and difficult issues in the unification process. As the primary role of the military is to manage violence, the issue of military integration is directly related to the stability and development of the newly unified country.

If the military integration is unsuccessful, integration in other areas and even the national unification itself can eventually be threatened. The military integ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r in essence is focused on the two Koreas' military organizations, then moves to construct a new military organization of the unified Korea. In addition to the organizational integration, however, other national and social factors must also be addressed for the unified Korea to stably maintain the newly organized milit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some issues in the process of the military integration of unified Korea, and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primary objectives of defense policy and military strategy should deal with the following issues - the improvement in the predictability of enemy maneuver through firm deterrent capabilities and an early warning system, the enhancement of the combined operation capabilities, the improvement in defense readiness through standing troops, and vigorous efforts for Military Technology Revolution.

Second, the structure of the armed forces and the command system should be arranged with the aim of defending the peninsular from the potential threat of other countries and of preventing and eliminating domestic instability.

Third, the defense budget for the new military should be alloted at least 3% of GDP, and the military ought to have active troops of between 500,000 and 600,000 men. The Army should have 60-70% of the troops while the Navy and the Air Force each should have 15-20%.

Forth, in considera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situation, the procurement of strategic weapons for the three branches and especially the NBC weapons should be addressed.

Fifth, the deployment of forces should be planned in accordance with the mobilization capability, deployment of enemy forces, weapons system, terrain and battle field etc.

Sixth, as for the United States Forces in Korea, their status of stationary troops should be improved. Also, the possibility of a more comprehensive multilateral security arrangement for the region ought to be explored.

Key words: Defense Policy, Military Technology Revolution, Military Integration, Strategic Weapons, Unified Armed Forces of Korea, Multilateral Regional Security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제3후보에 대한지지 분석: 정주영과 이인제의 비교 연구

강 원 택(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들어가면서
Ⅱ. 지역주의와 제3후보지지: 집합 자료의 분석
Ⅲ. 제3후보에 대한 지지의 분석
Ⅳ. 결론

ABSTRACT

Third Candidates in Sou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s:
A Comparative Analysis of Chung Ju-Young and Rhee In-je

One intriguing feature in Sou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s since democratization is a rise of 'strong' third candidate. This phenomena were particularly noticeable in the 1992 and 1997 presidential elections. Chung Ju-young in 1992 and Rhee In-je in 1997 succeeded in winning considerable proportions of votes coming from almost nowhere, even though their shares were not large enough to win presidency on their own. The purpose is this paper is whether strong support for the 'third' candidates is related to a structural environment like a regional rivalry. This paper argues that as the regional rivalry creates the immobility of party choice between two main parties, there exist many disappointed supporter with their 'traditional' party, but could not directly shift to the rival party. The third candidates were political entrepreneurs who attempted to attract such unhappy voters, and they succeeded in wooing some of them.

Key words: Sou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s, Chung Ju-young, Rhee In-je, immobility of party choice, Duverger's law

국민국가의 위기와 재편:
제3차 국가형성에 관한 연구

성 경 륭(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Ⅰ. 서론
Ⅱ. 제1차, 2차 국가형성의 주요 특징
Ⅲ. 최근 국가변동의 주 요인과 위기 징후
Ⅳ. 제3차 국가형성의 내용
Ⅴ. 결론: 비교와 전망

ABSTRACT

Crises and Reconstruction of the National State:
A Study of State Formation of the Third Generation

The state had existed for 5000 years, comprising only 2% of the whole human history. The modern national states, developed since the Westphalian system of 1648, have a much shorter history than those of the previous period. In this context, the national states now come to face many serious crises such as the loss of effective control over transborder flows.

In response to the crises, the national states try to transform themselves toward four new types of the state in order to improve their adaptability: an entrepreneurial state, a decentralized state, a virtual state, and finally a network state.

These transformative efforts constitute main contents of the third generation state formation. The contents include increased flexibility, autonomy, expansiveness, and multilateral networking. These characteristics are quite distinguished from those of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s which emphasized bureaucracy, hierarchy, territorial obsession, and unilateral orientation.

Key words: state formation, globalization, informatization, democratization, entrepreneurial state, decentralized state, virtual state, network state

미완의 계획:
1960년대 전반기 미 행정부의 주한미군철수논의

마 상 윤(가톨릭대 초빙교수)

Ⅰ. 서론
Ⅱ. 케네디 행정부의 등장과 한국군 및 주한미군 병력수준 조정 논의의 대두, 1961.1-1962.1
Ⅲ. 한국군 감축 및 주한미군 부분 철수 검토, 1962.2-9
Ⅳ. 한반도 핵 전략 재검토, 1962.9-1963.11
Ⅴ. 존슨 행정부와 주한미군 철수 계획의 무기 연기, 1963.12-1965.5
Ⅵ. 결론

ABSTRACT

An Unfinished Plan:
US Policy Discussions on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South Korea during the Early 1960s

Based on recently declassified archival materials, this paper reveals that, during the early 1960s, the Kennedy and Johnson administrations carried out an extensive internal review of the level of US troops in South Korea with a view to reduce it substantially. Two main motives drove the review: first, there was an interest to improve US strategic flexibility in the West Pacific and secondly, under the deteriorating balance-of-payment situation, the US administrations desired to reduce overseas defence costs. The review was suspended indefinitely when the Johnson administration began to seek South Korean combat troops for the Vietnam War in 1965. Even until then, however, a final decision had been delayed because of disagreements inside the U.S. administration on both military and political issues involved. These included differing assessments of China's military threats to Korean security and changing estimations of the US military's airlift capabilities to send reinforcements to Korea swiftly responding to a major attack. Also, from a dominantly political viewpoint, the State Department had opposed the early implementation of large cuts being concerns about the following possibilities: the growth of China's political influence in East Asia, troubles in US relationships with Japan and West European allies, and the deterioration of South Korean domestic instability.

Key words: security policy, Kennedy, Johnson, U.S. troops in South Korea, 1960s

인도네시아의 테러리즘과 대테러정책 결정요인: 국제 환경과 국내 환경의 역학관계

이 동 윤(서강대 동아연구소 상임연구원)

Ⅰ. 문제 제기
Ⅱ. 이론적 논의 및 연구방법: 테러리즘과 대테러정책
Ⅲ. 인도네시아의 테러리즘 현황과 대테러정책
Ⅳ. 인도네시아의 대테러정책 결정요인 분석
Ⅴ. 맺음말

ABSTRACT

Terrorism and Counter-Terrorism Policy in Indonesia:
The Dynamic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 and Domestic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present situation of terrorism, and to analyze the counter-terrorism policy in Indonesia.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a country's foreign policy and its tuning with domestic policy primarily is a diplomatic matter with its counterparts or international environment, but this is also influenced by the country's domestic environment and intra-political factors. Generally speaking, a weak country's foreign policy follows the general trend of international environment or strong country's advocacy. However a weak country's foreign policy can be changed that is related with domestic resistance and defiance, which can lead to the regime crisis.

In case of Indonesia, the Megawati government has pushed ahead with a lukewarm counter-terrorism policy coping with a new situation of international environment, though Indonesia undergone the Bali bomb terror in October, 2002. The Megawati government could collaborate oneself with America's clai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reinforcement of counter-terrorism policy. Indonesia is one of the biggest Islam countries, and over 90% of the Indonesian people is Muslim, opposed to the reinforcement of counter-terrorism policy. Most of Islam parties still have a strong influence in the DPR (Dewan Perwakilan Rakyat) and MPR (Majelis Permusyawaratan Rakyat), so the Megawati government was not free from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counterterrorism policy.

Key words: Terrorism, Counter-Terrorism, International Environment, Domestic Environment, Indonesia

근대 한국민족주의의 행태적 특성

김 동 성(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연구목적과 접근방법
Ⅱ. 한말 왕조해체기의 민족의식
Ⅲ. 근대 민족국가의식 형성과 개화운동
Ⅳ. 농민(민중)의 민족의식 형성과 동학혁명
Ⅴ. 민족주의적 민중계몽과 애국계몽운동
Ⅵ. 의병운동의 근대 민족주의 성격
Ⅶ. 결론

ABSTRACT

Behavioral Character of Korean Nationalism in the Modern Era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cipher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nationalism in Korean modern history, 1876-1910. Behavioral character of nationalism of the time, then, is the major area for analysis.

This paper employs the analytic framework which is composed of four variables such as 'ethnic sentiment,' 'patriotismnationalism,' 'group consciousness' and 'ideological orientation.' Then, the analysis gets into examining the co-relations of different thoughts, articulations, organizational movements that share in common with the anti-imperialist nature of nationalism of the time.

Some of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Korean nationalism has been developed in the mode of aggregating process by various actors interacting under the complex relationship among the nationalist thoughts and nationalist movements.

Second, (1) the character of the 'nationalistic' was formed through self-recognition of the cultural identity (ethnic sentiment), (2) the consciousness of nation-state expanded national organizations and movements in terms of modern concept (patriotism), (3) diffused group movements became consolidated into the national ideology of nation-building after 1905.

Third, antagonistic or diffused trend of nationalist thoughts became united as an anti-imperial nationalism, having influenced by ethnic sentiment and patriotism after Japanese ruining of Korean sovereignty in the period of 1905-1910.

Key words: nationalism, patriotismnationalism, nationalism, group consciousness, ideological orientation

후보경선유형이 의원의 이념성향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제106대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김 민 전(경희대 국제지역학부 강의전임 조교수)

Ⅰ. 들어가는 말
Ⅱ. 미국의 의회후보 경선제도
Ⅲ. 후보경선제도와 호텔링-다운즈 (Hotelling-Downs)모델
Ⅳ. 지역구의 여론, 예비선거제도, 그리고 의원의 이념성향: 경험적 분석
Ⅴ. 맺음말

ABSTRACT

Primary Types and Legislator's Policy Positions

Assuming that political opinion lies along a single liberal-consecutive(left-right) dimension for his candidate, and that two candidates compete for election, Hotelling-Downs model predicts that a candidate favored by the median voter will win the election, and thereby the median voter will be represented. In the real world, however, elections consist of two steps: competition for nomination within parties, competition among parties. The rational choice theorists, so, developed two-stage model which depicts that to win the party's nomination, the candidate is pulled toward the party median; the need to win the election pulls him back toward the population median.

Accepting the Two-Stage Model, this paper further argues that types of primary election have an impact on party median. While party median moves close toward population median under the open primary system that allows non partisans to vote, party median moves away from the population median under the closed primary system that disallows nonpartisans to vote. Given this relationship between types of primaries and party median, this paper argues that types of primaries have an impact on policy positions of legislators who want better positioned in the competition within parties. Legislators come from open primary districts show policy positions closer to population median than those from closed primary districts. To test the two arguments,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relationships between policy positions of the Members of the 107th Congress, types of primaries, and opinions of the district.

Key words: Hotelling-Downs model, representation, primary election, two-stage model, median voter theorem

동북아 비대칭 안보위협과 한국의 대응방안

백 광 일(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남 창 희(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 수 형(한국외대 강사)

Ⅰ. 서론
Ⅱ. 비대칭 안보위협의 정의와 주요 특징
Ⅲ. 동북아의 비대칭 안보환경 요인
Ⅳ. 동북아 비대칭 안보환경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향
Ⅴ. 결론

ABSTRACT

Asymmetric Threats in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Security

Asymmetric warfare is not a new phenomenon in international relations. During the Cold War era, asymmetric conflict however was poorly conceptualized and studied in the field. Due to the rapid globalization and information revolution taking place in the post-Cold War era, asymmetrical use of force now attracts special attention in security studies.

The Northeast Asian security environment is in the state of uncertain mixture of cooperation and competition among the major powers in the region. Northeast Asia consists of those big powers which aggressively adopts asymmetric doctrine and procure related weaponry. The U.S. and Japan pursue so-called positive asymmetry focusing on RMA in a military strategic level. On the other hand, China and North Korea are interested in adopting a short-term low-cost/high risk type of asymmetric doctrine.

Rational course of action for South Korea is therefore to maximize its given positive asymmetry and minimize its negative asymmetry. For the ways to maximize Korea's positive asymmetry, it needs to develop a independent doctrine and military strategy of

its own. In order to minimize its negative asymmetry, Korea needs to pay more attention to its vulnerability to hostile cyber-terrorism and build up reliable network defense system at the national security level.

Key words: Asymmetric threats, Positive asymmetry, Negative asymmetry, RMA, Netwar, Virtual defense

북핵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과 역할

홍 완 석(한국외대 노어과 교수)

Ⅰ. 북핵 위기의 현황과 러시아
Ⅱ. 북핵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과 미국의 반응
Ⅲ. 러시아의 대응전략
Ⅳ. 러시아 팩터와 역할
Ⅴ. 결론: 러시아의 존재론적 가치 재조명

ABSTRACT

Russia's Stance and Roles Regarding the North's Nuclear Issue

With the clear understanding of the inseparable linkage between the Korean Peninsular and Russia, this study aims to highlight Moscow's stance toward the North's nuclear threat and its responding strategies. The study also attempts to look for positive roles that Russia can play as a 'constructive intermediary.'

As indicated in the old saying that one who has tied a knot must untie it, Russia could play a pivotal role in addressing the nuke threat as the source of causing the current North Korea's nuclear brinkmanship.

Key words: Korean Peninsular, Nuclear Threat, Russian Factor, Geopolitical linkage, Constructive intermediary

서구중심주의의 사상사적 연원과 전개과정

강 정 인(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들어가는 말
Ⅱ. 서구중심주의의 사상사적 연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을 중심으로
Ⅲ. 서구중심주의의 사상사적 전개
Ⅳ. 맺는말

ABSTRACT

An Analysis of the Philosophical Origin and Development of Eurocentrism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analyze the philosophical origin and development of Eurocentrism. To do this, first of all, the author analyzes Aristotle's Politics, which constitutes the origin of Eurocentrism, under the premise that most Western thinkers share the Orientalist assumptions in describing and evaluating social and political institutions of non-Western civilizations. Then he examines briefly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Eurocentrism, by analyzing the writings of Locke, Montesquieu, Hegel, Tocqueville, Marx, J. S. Mill, and Max Weber. In conclusion, he identifies the trinity, the inseparable combination of Christianity, capitalism and liberalism which underlines Eurocentrism, and then argues that it has been collapsed by successful capitalist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of East Asian countries, so that history has shown that it is a fictitious trinity after all.

Key words: eurocentrism, european exceptionalism, orientalism, aristotle, liberalism

신제도론의 이론적 쟁점: 제도개념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김 기 석(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머릿말
Ⅱ. 제도의 개념적 정의와 그 속성
Ⅲ. 경험적 연구에서 사용된 제도개념: 분석수준에 따른 분류
Ⅳ. 제도개념의 다양성이 야기하는 분석적 문제들
Ⅴ. 나오는 말: 신제도론의 과제는 무엇인가?

ABSTRACT

A Theoretical Debate on Neo-institutionalism: On the Problems of Too Many Definitions of Institution

The article examines the issue of "too many definitions of institution" in neo-institutional literature, which is important but has been neglected by other scholars. It reviews the existing neo-institutionalist literature to sort out various kinds of definitions of institution, and then addresses the analytical problems it causes in undertaking empirical research on the basis of neo-institutional perspective. The purpose of this paper, by doing this, is to remind the readers of the potential of neo-institutional approach for empirical research.

Key words: neo-institutionalism, definition of institution, historical neo-institutionalism, rational choice neo-institutionalism, new organization theory, neo-institutional economics

단극시대 미국패권전략의 이론적 기초: 다자주의 vs. 일방주의

박 인 휘(성균관대 국가경영전략연구소)

Ⅰ. 머리말
Ⅱ. 외교목표와 외교전략: 개념적 분석
Ⅲ. 미국외교정책의 실현: 다자주의 vs. 일방주의
Ⅳ. 맺음말

ABSTRACT

Theoretical Framework of American Hegemonic Strategy in the Unipolar Era: Multilateralism vs. Unilateralism

To understand not only the post-Cold War world order, but the 21st century's international relations is based on the conceptual identity and strategic selection of the U.S. foreign policy. As the only hegemonic state in the unipolar world the United States tries to justify her foreign policy between its national interests and international society's common interests.

In practice, the United States has oscillated between going it alone and joining with others.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debates about the appropriate balance between unilateralism and multilateralism in American global engagement have been highly contentious.

So far the discussion has been more polemical than analytical. Since the practical and ethical terrain has not been clearly demarcated, it is easy to confuse prudential assessments about costs and benefits of unilateralism and multilateralism. Each side has claimed the moral ground and pragmatic efficiency. Greater clarity may be possible by classifying U.S. foreign policy into analytical categories based on whether the strategies adopted are unilateral or multilateral and whether the aims pursued are nationalist, internationalist, or cosmopolitan. Each set of aims has different ethical justifications, which generate and help to explain divergent attitudes and judgements about the appropriate role of unilateral U.S. foreign policy and multilateral U.S. foreign policy.

Key words: foreign policy aims, foreign policy strategy, unipolarity, hegemonic state, multilateralism, unilateralism, exceptionalism

존슨 정권 후반기의 한미관계: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한 한미간의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조 진 구(고려대 BK21 동아시아교육연구단 박사후연구원)

Ⅰ. 들어가는 말
Ⅱ. 집요한 미국의 전투부대 추가파병 요청과 한국의 딜레마
Ⅲ. 한국정부의 대미 불신과 밴스 특사의 방한
Ⅳ. 한미의 동상이몽: 한국의 대미자주 추구와 미완으로 끝난 미국의 대한정책 재검토
Ⅴ. 맺는 말

ABSTRACT

The U.S.-Korean Relations in the second half of the Johnson Administration:
Dissensions between the two allies toward the North Korean provocations against South Korea

During his visit to Korea in November 1966, President Johnson appreciated South Korea's cooperation to his Vietnam policy. He reaffirmed to assist to defeat North Korean attack against South Korea. This was the peak and the symbol of a friendly U.S.-Korean relationship, but North Korea began to heighten tensions along the DMZ before and after President Johnson's visit to Korea.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agreed to send one light division to South Vietnam on the grounds that this might increase South Korean security against North Korea. But, less than two days after the raid on the Blue House, North Korean forces seized the U.S. intelligence-gathering vessel USS Pueblo on January 23 1968. The U.S. failure to act forcefully regarding the Pueblo incident, and refusal to strike North Korea in retaliation for assassination attempt on President Park, raised questions about the U.S. security commitment. President Park decided not to send any more combat troops to Vietnam, because he came to realize that the U.S. security commitment to Seoul would depend not on Korean hopes and expectations or threat level on the peninsula, but on the perception of high officials in Washington. The two allies, in the end, came to review their own policy each other.

Key words: the U.S.-Korean relations, South Korea's Vietnam involvement, Blue House attack, the Pueblo crisis, review of United States policy toward Korea

정당연합과 지역주의

이 정 진(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Ⅰ. 서 론
Ⅱ. 민주화 초기의 지역주의 심화 과정
Ⅲ. 지역주의의 강화: 김영삼 정부 시기
Ⅳ. 지역주의의 변화: 16대 총선 직후의 변화
Ⅴ. 지역주의의 변화: 16대 대선 직전의 변화
Ⅵ. 요약 및 결론

ABSTRACT

Party Coalition and Regionalism

The three-party-merger in 1990 and the cooperation of the ULD and the NDRP before the 15th presidential election were accomplished on the basis of regionalism, the most severe social cleavage in Korea. Although, in this process, the political elites formed electoral coalitions to win elections, acknowledging the legitimacy of existing democratic institutions and abiding by democratic rules of the game, it is much different from the "elite convergence" in the sense that they have strengthened the social cleavage, regionalism, for their own interests and did not try to reduce their partisanship.

In the coalition process of the MDP and the KM21 before the 16th presidential election, however, the influence of regionalism as the supporting base for candidates has been decreased. If political elites are realigned according to their policy and ideological orientation in the near future, we can expect the "elite convergence" which leads to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Key words: democracy, regionalism, party coalition, elite convergence

2002년 6.13 지방선거 선거자금 수입 및 지출 형태에 대한 연구: 기초단체장선거 후보자 회계보고서 분석을 중심으로

김 범 석(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교수)
전 용 주(동의대 정치외교학과 전임강사)

Ⅰ. 서 론
Ⅱ. 연구방법
Ⅲ. 회계보고서 분석
Ⅳ. 맺는 말: 제도개선에 대한 함의

ABSTRACT

A Study on Campaign Finance:
The Case of 2002 Local Election

This paper analyzes the campaign finance of 2002 local election based on official data. Although it is limited, the official data reveals the significant patterns of revenue and expenditure of campaign finance. First, there is a significant imbalance of campaign finance between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y. In order to reduce the imbalance of campaign finance and ensure the fair competition,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state subsidy on the campaign finance. Second, because the local election law does not allow to hold large amount of campaign finance consists of candidate's personal fund. This large share of personal fund on the campaign finance results in political corruption and reduce fair competi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llow the official patronage system in local elections. Third, in terms of expenditure of campaign finance, the portion of organizational mobilization expenditure is very high. We found that especially during the last period of election campaign, the organizational mobilization expenditure was rapidly increased and this excessive spending did not influence the election resul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election campaign method from the organizational and mobilizational method to the mass media-oriented method.

Key words: campaign finance, local election, incumbent advantage, Jacobson effect, state subsidy on election, patronage system, election strategy

비대칭 권력구조 하에서의 양면게임:
한국 · 미국 · EC간 농산물협상 비교

이 호 철(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문제제기
Ⅱ. 양면게임의 이론적 해체와 재구성
Ⅲ. 사례연구(1):
'상호적 양면게임'으로서 미국 · EC간
농산물협상
Ⅳ. 사례연구(2):
'일방적 양면게임'으로서 한국의
농산물 협상
Ⅴ. 요약과 결론

ABSTRACT

Two-Level Game under Power Asymmetry:
Agricultural Negotiations between Korea, The US, and EC

Two-level game model provides a useful framework in analyzing and explaining the linkage between international politics of negotiation and domestic politics of its ratification. However, two-level game model as elaborated by Robert Putnam and else has an inherent shortcoming that regards power relations between negotiating states as equal and given. By doing so, it misses the real processes and outcomes of international negotiations under power asymmetry. This study considers power symmetry/asymmetry as an important variable in two-level game. It further figures out distinctive linkages between 'negotiation' and 'ratification' depending on power relations of negotiating states: choice-game dominant vs. structural coercion game dominant. Finally it also attends to distinctive influences of political rationality and economic rationality on negotiating states' sizes of win-set depending on power relations. After refining simple two-level game into an 'interactive two-level game' and a 'unidirectional two-level game' according to power symmetry/asymmetry, this study verifies theoretical issues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agricultural negotiations between the US, EC, and South Korea.

Key words: power asymmetry, interactive two-level game, unidirectional two-level game, agricultural negotiation, US, EC, South Korea

민주화운동, 민주화, 민주주의: 개념과 한국적 특성을 중심으로

손 호 철(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여는 글
Ⅱ. 민주화운동, 민주화, 민주주의
Ⅲ. 한국 민주화운동의 '과학적' 외연
Ⅳ. 한국 민주화운동과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특징
Ⅴ. 맺는 글

ABSTRACT

Democratic Movement, Democratization, and Democracy:
Conceptual Issues and Korean Peculiariti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both theoretical and empirical. On the theoretical level, this paper tries to clarify the theoretical issues on and the relationship among democratic movement, democratization, and democracy. In particular, related to the recent legistration of the Democratic Movement Compensation Act by the Kim Dae Jung government, the paper focuses on the scientific boundary of democratic movement in general and democratic movement in Korea in particular. On the empirical level, the article attempts to analyze the peculiarities of democratic movements, democratization process, and democracy in Korea.

Key words: democratic movements, democratization, democracy, Korean Politics, movement society

카르텔 정당체제의 형성과 발전: 민주화 이후 한국의 경우

장 훈(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서 론
Ⅱ. 대안적 분석틀의 모색: 카르텔 정당체제의 구조적, 제도적 기원과 역사제도주의
Ⅲ. 카르텔 정당체제의 형성과 전개과정
Ⅳ. 구조, 제도, 역사, 행위자와 카르텔 정당체제의 형성: 보수적 민주주의 이행과 배제적 정치제도의 선택과 유지
Ⅴ. 결 론

ABSTRACT

The Rise of Cartel Party System in Democratic Korea

There have been tremendous continuities from the authoritarian era in Korean party system. Legacy parties from the authoritarian regime have dominated the party system even after the democratization in 1987 in terms of party organization, electoral campaigning and party leadership. This paper aspires to revisit two existing explanations for the rise of cartel party system and to provide an alternative approach. The structural perspective has emphasized the impact of the mode of democratic transition, in particular, the conservative transition resulting from compromise between the authoritarian regime bloc and democratizing force. In contrast institutionalism perspective has focused on the role of majoritarian electoral system, disproportionate state subsidies to large parties and the like. Combining the two perspectives, we argue that historical institutionalism provides a compelling explanation taking into account the motivation and strategies of relevant actors in setting up institutional arrangement.

Key words: Cartel Party System, Mode of Democratic Transition,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stitutionalists

유권자 선거관심도:
사회환경변수 및 대중선거유세/TV토론의 선거관심도에 미친 효과를 중심으로

강 경 태(신라대 국제관계학과 조교수)

Ⅰ. 서 론
Ⅱ. 선거관심 기존 연구
Ⅲ. 데이터 및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 론

ABSTRACT

Electoral Interest:
Impacts of Sociological Variables and Stump Campaigning/ Candidates' TV Debates on the Electoral Interest

By using the ordinal logit regression of 14th and 15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this study aims to show that how much sociological variables such as age, education and gender together with their interaction variables affect electoral interest of the Korean electorates. Only age constrained voters' interest at both elections. Among the interaction variables, the interaction term of age and education provided a strong impact at the 15th election while the interaction term of gender and age was moderately significant at the 15th election. This indicates that the electoral interest gap between older and younger voters was reduced as educational levels of these voters increased at the 14th election and as Korean voters aged, their electoral interest also moderately increased among men compared to women at the 15th election. This study also finds the effect of stumping campaigning at the 14th election and candidates' TV debate on the electoral interest. Korean voters were divided first into three groups of very interested group, moderately interested group and not-much interested group and then divided into two groups for each of the elections: those who participated in stump speeches and those who did not at the 14th election, and those who watched presidential debates on television and those who did not at the 15th election. Both street speeches and presidential debates produced two extremities: voters who were not much interested or moderately interested were negatively affected by experiencing the street speeches and presidential debates, and only those who were very interested were positively affected.

Key words: Ordinal Logit Regression,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interaction variables, stumping campaigning, TV debate

한국 국방정책의 도전과 선택

함 택 영(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

Ⅰ. 문제의 제기
Ⅱ. 탈냉전기 한국의 안보위협
Ⅲ. 남북한관계와 한미동맹
Ⅳ. 한국 안보·군사정책의 방향
Ⅴ. 결론: 평화통일과 국방정책

ABSTRACT

Defense Policy of South Korea:
Challenges, Constraints, and Options

South Korea is faced with a multi-faceted security environment: North Korea and its nuclear program, challenges of the future war (including terrorism), and uncertainties of East Asian security, coupled with U.S. unilateralism. The public opinion calls for a more equal partnership in the ROK-U.S. alliance, while retaining the perception of ROK-U.S. alliance as the backbone of national security. The national security dependence is the product of U.S. military hegemony. The military exploit President Roh's declaration of self-reliant national defense as an opportunity for arms build-ups, maintaining its manpower-heavy force structure and a close tie with the United States. However, the self-reliant national defense should include independent policy planning,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f the ROK armed forces, balanced force structure, and, more importantly, consciousness of military sovereignty, Defense policy measures should be based on the principles of reasonable sufficiency and joint security between the two Koreas.

Key words: self-reliant defense policy of South Korea, security threats, ROK-US alliance, military capability, RMA, defense expenditures, force structure

햇볕정책의 일관성과 여론 분열에 관한 실증적 연구

남 궁 곤(경희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Ⅰ. 문제제기: 대북정책의 일관성과 여론 지지의 부조화
Ⅱ. 외교정책 신념체계와 한국인의 대북정책 신념체계
Ⅲ. 햇볕정책에 대한 여론 분열의 구조
Ⅳ. 경험적 분석: 햇볕정책 신념체계와 여론의 분열 구조
Ⅴ. 맺는말: 이론과 정책적 함의

ABSTRACT

An Empirical Study of Public Opinion and Sunshine Policy

This paper intends to explore the structure of Korean people's public opinion concerning the Kim Daejung Governmen's Sunshine Policy. Major findings of this paper a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as follows: theoretical and substantive.

On the perspective of foreign policy theory, Korean people's foreign policy belief system are composed of their ideological core values, general postures, and specific polity attitudes. Their approval or disapproval of government's unification policy is closely related to their general foreign policy posture and core values.

Substantively Korean people's public opinion of the Kim Daejung Government's Sunshine Policy are disintegrated into based upon their position about ideology and generation gaps. However, it is argued, that Korean people's cleavage across their native region with regard to their support of the Sunshine Policy should be explored the context of power struggle among the political groups. The disharmony between government's efforts to keep policy coherent and the structure of public opinion is to be approached from the misreading of real public opinion.

Key words: Sunshine Policy, Public Opinion, Foreign Policy Beliefs, Ideology, Political Generation

연합과 연방: 통일방안의 폐쇄성과 통일과정의 개방성: 6 · 15 공동선언 2항을 중심으로

김 근 식(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Ⅰ. 문제의 제기
Ⅱ. 연합과 연방: 통일방안에서의 폐쇄성
Ⅲ. 연합과 연방: 통일과정에서의 개방성
Ⅳ. 결론에 대신하여: 연합과 연방의 차이를 넘어

ABSTRACT

Federation and Confederation: Exclusiveness in Unification Formular and Openness in Unification Process: Focusing on the Article 2 of June 15 Inter-Koran Joint Declaration

One of the confrontations within the South upon policy towards the North is how to interpret the Article 2 in South-North Joint Declaration. Debates upon this problem up to now have been among extremist views analyzing 'confederation' and 'federation' only by the perspective of unification formula. On the one hand, Article 2 has been interpreted as that the North revised its unification formula, on the other hand, as that the South yielded to the North's unification formula.

To interpret the Article 2 on view of unification formula can not make South-North agreement because of substantial difference of confederation and federation, and ideological lock-out of unification formula itself resulted from peculiar South-North relationship.

This article argues that if we make constructive products, the Article 2 should be interpreted not by the view of 'unification formula' but by the dynamic view of 'unification process.' Thus, it can be interpreted as that South-North abandoned rapid and inordinate, institutional unification and they agreed on 'unification as process' realizing peaceful co-existence and mutual approval of their regimes. That is, the Article 2 made South-North agree not on unification formula but on the principle of unification process.

If dynamics and openness of unification process is considered as above, the difference of confederation and federation may not be important and this problem would be solved without difficulty as actual unification process makes its way.

Key words: federation, confederation, unification formula, unification process, openness

북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과 정책: 공식적 차원과 새로운 시각

이 지 수(명지대 북한학과 조교수)

Ⅰ. 서 론
Ⅱ. 적극외교와 소극외교
Ⅲ. 러시아의 공식적인 입장과 정책
Ⅳ. 새로운 시각
Ⅴ. 새로운 인식의 정책으로의 구체적인 반영
Ⅵ. 결 론

ABSTRACT

Solution to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Russian Perspectives

As far as North Korean nuclear issues is concerned, Russian Government is implementing passive policy. It is a fact well acknowledged by Russians themselves and others that the country has clear political, economical, and military and national security interests on that issues. Nonetheless, for the question of why they are standing the passive attitude, it is asserted that they are taking the standpoint of a free rider. This is based on the fact that the interests of US, Japan, China,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 countries that wrap around North Korean nuclear issues, do not conflict with one another largely. Like China, Russia, due to their internal problems, has been limited of its float to resolve international issues using their interest and resources as long as the issues do not call for their concerns at large. Therefore, they are either hoping that international issues would not arise as much as possible or maintain status quo until the economy, social order and politics in their own country enter the stable orbit.

However, as it's economy is rising, the policy of Putin becomes more active in the case of North Korean nuclear crisis after the joining six-parties talk. At this moment, there are new voices of elites that is very critical against such a standpoint and policy of Russian Government. That is to say, these elites are criticizing the passive diplomacy of Russia and suggesting that they should turn to active diplomacy. This new view point describes Kim Jeong Il as "aggressive and unpredictable North Korean dictator" and it says that they have to use all diplomatic means they have to deprive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including nuclear from "this dangerous adventurer and black mailer." It also adds that "if North Korea ignores Russia's mediation efforts for North Korea to give up on nuclear, Russia will have to cooperate with the international sanctions." It will be an interesting observation that how this new point of view will contribute to the changes in the standpoint and policy for North Korean nuclear issues.

Key words: Solution to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foreign policy of Russia, Russia-North Korean relationship

대북정책의 국내정치적 결정요인: 분석틀과 사례분석

고 대 원(연세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Ⅰ. 서 론
Ⅱ. 외교정책의 국내정치적 결정요인: 인과구조와 분석틀
Ⅲ. 남한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국내정치적 요인
Ⅳ. 결 어

ABSTRACT

Political Determinants of South Korea's Policy towards North Korea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framework for analyzing the impacts of domestic political determinants on the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and analyze, employing the framework, South Korea's policy of rapprochement towards North Korea under the Park Chung-hee and Roh Tae-woo Governments. According to the analytical framework, foreign policy decision-makers always internalize political pressure emanating from domestic political processes, which has significant influence upon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Depending on the internalized political pressure, they may pursue political risk aversion or political opportunity exploitation in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The validity of the suggested hypotheses included in the framework are supported by the case-analyses.

Key words: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domestic political determinants, political risk aversion, North Korean policy

북한의 대남협상행태: 지속과 변화를 중심으로

양 무 진(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

Ⅰ. 머리말
Ⅱ. 대남협상의 전개와 협상행태
Ⅲ. 남북장관급회담과 북한의 협상행태
Ⅳ. 대남협상전술과 행태의 특징
Ⅴ. 맺음말: 대남협상행태의 지속과 변화

ABSTRACT

North Korea's Negotiating Behavior toward South Korea: Continuity and Change

This paper looks at North Korea's negotiating behavior towards South Korea. During the last half century of divis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 have been a number of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During the negotiation process, North Korea has exhibited various kinds of negotiating behavior. At times this behavior has been consistent but at other times it has shown change. Such consistency and change can be more clearly seen in the ministerial-level meetings that followed the June 2000 summit meeting between the leaders of both Koreas. The kinds of negotiations that took place in the past at high-level meetings showed a strong tendency toward communication and understanding toward each other. In other words, North Korean representatives at official meetings insisted on explaining their intentions and only showed a lukewarm attitude toward demands made by South Korean representatives. However, in unofficial or undisclosed meetings, North Korea usually showed a more serious attitude. After the June 2000 summit, both Korea showed an attitude of substantial and productive give an take in their exchanges over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s made in the Joint Declaration and compared with past agreements, there was a higher percentage of implementation. This can be seen as a change. However, North Korea showed a clearly unchanging attitude in negotiations with regard to the three principles of unification, distinguishing between unification events involving South Korean authorities and unification-oriented civil society groups. North Korea attempted to seize control of non-government by domination and forestalling.

Clearly, after Korea showed a change from its past behavior in negotiations. This not only has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but will, without a doubt,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 peace process of the Korean peninsula. If lessons from past negotiations are heeded and the momentum of current negotiations is preserved positive results will continue to be mutually beneficial for both countries and progress toward unification can be made.

Key words: negotiations, negotiating behavior, South-North high-level meetings, South-North ministerial meetings, inter-Korean summit

교통의 국제정치:
시베리아횡단철도(TSR) 국제화와 동북아 협력을 위한 한국의 대응전략

신 범 식(수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문제 제기
Ⅱ. 범(汎)아시아철도망 구상과 TAR 북노선
Ⅲ.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전략적 의의
Ⅳ. 철의 실크로드 구축을 둘러싼 동북아 각국 입장
Ⅴ. 동북아 철도망 구축과 한국의 과제

ABSTRACT

International Relations of Transportation: Plan for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SR and Northeast Asian States' Strategy

In recent years, the TSR-TKR connection project became the key issue with regard to the development of the TAR Network, which was proposed by suc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ESCAP, ASEM. The changes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Russian effort for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SR put this project on a basic foundation. And this call us for interdisciplinary investigation of geostrategic standpoint of Northeast Asian Stats, so that we may acquire a balanced view of consideration between "rosy optimism" and "unverified pessimism." This paper reviews the attitudes of Northeast Asian States toward the TSR internationalization plan, and asserts that it is necessary for Korean side to approach to this project, firstly, from the viewpoi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of transportation, secondly, of national complex geostrategy between continental and ocean power, and finally, of forming a foundation of multilateral framework for North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s.

Key words: TSR, TCR, TAR, TKR, Northeast Asia, geostrategy, Eurasian Economic Cooperation

한 · 미 동맹의 이론적 재고

김 우 상(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서 론
Ⅱ. 동맹이론
Ⅲ. 한미동맹
Ⅳ. 한미동맹의 재정립

ABSTRACT

A Theoretical Review of the ROK-US Alliance

The ROK(the Republic of Korea)-US alliance, signed in 1953, is a typical asymmetric and autonomy-security trade-off alliance type. Although the national capability of South Korea and its role as the alliance partner since 1953 have been increased drastically, the ROK-US alliance has maintained its original format. Alliance theorists point out that alliances that are formed a long time ago are less reliable. When alliance partners perceive their common threat differently, or when there have been changes in the components of major players in the societies, or when there has been regime changes or governance changes in one of the alliance partners, or when the existing alliance becomes a domestic political issue, the existing alliance relationship is likely to be in danger. As long as there is an uncertainty in the future security environment around the Korean peninsula, the ROK-US alliance is necessary for both alliance partners. Both governments must overcome these potential negative factors that might harm the alliance relationship and prepare the future plan for a constructive and comprehensive alliance relationship.

Key words: ROK-US alliance, asymmetric, autonomy-security trade-off, pivotal power, threat perception

2002년형 반미(反美): 그 정치심리학적 근원과 정치외교적 의의

김 태 현(중앙대 국제대학원 부교수)

Ⅰ. 들어가기
Ⅱ. 예비적 고찰: 주요 개념과 현상
Ⅲ. 국민정체성의 정치학
Ⅳ. 국민정체성 동학과 한국
Ⅴ. 토론 및 결론: 이론적, 정책적 함의

ABSTRACT

The New Wave of Anti-Americanism in South Korea:
Its Political Psychological Roots and Implications for Foreign Policy

The latest wave of anti-Americanism in South Korea is remarkable not because it became any more radical than the previous ones, but because it mobilized a crowd that is unprecedented both in terms of size and demographics. Tens of thousands South Koreans including teenagers, white collar workers in their 30s and 40s, and even older gentlemen in their 60s and 70s stormed onto the street with candle lights in their hands demanding the revision of the Status of Forced Agreement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is article argues that this wave, if not precious ones, can better be explained in terms of the national identity dynamic, meaning the potential for mass action when there is a threat to, or an opportunity to promote the national identity. Based on the identification theory in social psychology, this article argues that historical developments in South Korea, particularly democratization since 1987, created a strong sense of national identity in the minds of South Koreans, which was prompted into mass actions by events that either threatened or provided opportunities for the identity. The death of two schoolgirls and the verdict of not guilty for the American soldiers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was one of such events, particularly when the national identity dynamic was in process due to the World Cup and the Presidential election.

Key words: anti-Americanism, national identity, national identity dynamic, identification theory, democratization, foreign policy

북미관계의 전개와 전망,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의 전략: 핵문제를 중심으로

박 건 영(가톨릭대 국제대학원 교수)

Ⅰ. 서 론
Ⅱ. 북미관계의 전개와 북한 핵 문제
Ⅲ.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 외교적 해결을 위한 대안
Ⅳ. 결 론

ABSTRACT

The Evolution and Prospect of North Korea-US Relations, and Korea's Strategy for Peace and Stability on the Peninsula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framework of policy alternatives that would help resolve peacefully and diplomatically the current nuclear row involving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thrust of the argument is that a package deal based on the principle of simultaneous actions would favor the US because America will incur little loss if cheating occurs by Pyongyang while, in the case that the US cheats on the agreement, North Korea will have much to lose if it is has undertaken the irreversible and complete dismantling of its nuclear weapons program, a process that will be difficult to reverse. Under this general principle a set of specific policy alternatives are suggested.

Key words: The Principle of Simultaneous Actions, Package Deal, de facto Non-aggression Pact, de facto Agreed Framework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후진타오(胡錦濤)체제의 대내외 과제와 전망

문 흥 호(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교수)

Ⅰ. 서 론
Ⅱ. 대내적 과제
Ⅲ. 대외적 과제
Ⅳ. 결 론

ABSTRACT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under Hu Jin Tao:
Challenges and Prospects

This article seeks to identify major challenges facing the new fledgling Chinese leadership on domestic and foreign fronts and provides short-term prospects for stability of Chinese politics. On the domestic front, despite some concerns to the contrary, President Hu has portrayed himself as a solid, caring, practical, and reform-minded leader, campaigning for the rule of law and fighting corruption. Key to three main goals of domestic policy (political stability, economic growth, and social integration), however, boils down to the theoretical campaign of changing the status of the Chines Communist Party—*Shan Ge Dai Biao Lun*.

China's external environment is also replete with thorny issues: hegemonic competition with both the US and Japan, the unpredictable course of the North Korean crisis, and the reunification of China issue. Relationship with the US, however, makes or breaks the Hu leadership and shapes Chinese politics in the months ahead.

This article concludes that failure to address the issues above on two fronts in a balanced way may complicate future efforts to reform.

Key words: Chinese Leadership, Hu Jin Tao, Shan Ge Dai Biao Lun, Sino-American Relation, Taiwan Issue

일본 장기침체의 정치경제

김 용 복(경남대 정치언론학부 교수)

Ⅰ. 머리말
Ⅱ. 일본경제위기의 성격
Ⅲ. 장기침체의 원인
Ⅳ. 일본정부의 대응
Ⅴ. 맺음말

ABSTRACT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lost decade' in Japan

Japanese long stagnation in 1990s has been resulted from the non-performing loans problem, its policy failures, the East Asian Financial Crisis, and the deepening of deflation. Delays in the disposal of non-performing loans prolonged deflation and deflation has still been persistent. To build a more robust financial system to support economic activity, measures must be taken to accelerate disposal of non-performing loans. The first step toward economic revitalization is the definite and final disposal of non-performing loans. And more rigorous measures must be taken to deal with deflation. The Koizumi government has tried to accelerate structural reform ("no growth without reform") to revitalize the economy. Therefore the Japanese economy will recover from the long runnel of slow down if these tasks can be solved simultaneously and that it will be able to play positive and significant role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Key words: financial crisis, policy failure, non-performing(bad) loans problem, structural reforms, stagnation, regional cooperation

동북아경제중심 비전 실현을 위한 조건

김 진 영(부산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Ⅰ. 서론: 동북아 경제중심의 의미
Ⅱ. 한반도 안정과 동북아 경제협력
Ⅲ. 국내 정치사회적 조건
Ⅳ. 맺음말

ABSTRACT

Conditions for Realizing the Vision of Northeast Asian Economic Hub State

To realize the vision of Northeast Asian Economic hub state, the proclaimed goal of the present Korean government, requires the wider range of conditions than mostly suggested economic policies and hardware-building. As for external conditions, new multilateral international relations among the states in Northeast Asian region including US should be established, in which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s to be solved. As to domestic conditions, the Korean society must be a liberal system open to ideas, cultures and standard of the global system as well as Northeast Asian region. Also it is necessary to set up the political and social arrangement to harmoniously share the costs and dividends drawn from the liberalization of markets among various social classes and groups.

Key words: Northeast Asia Economic Hub, International Relations in Northeast Asia,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변방에서 중심으로?: 한국의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을 위한 대외전략

정 진 영(경희대 국제지역학부 부교수)

Ⅰ. 서 론
Ⅱ. 동북아 지역과 한국의 동북아 경제 중심: 개념 및 정책의 배경
Ⅲ. 동북아 평화공동체 건설과 한국의 역할
Ⅳ. 동북아 번영의 공동체 건설과 한국의 역할
Ⅴ. 결 론

ABSTRACT

From Periphery to Center:
South Korea's External Strategy
for Northeast Asian Economic Hub

South Korea is pursuing a new development vision of making the country an economic hub in Northeast Asia. The choice of this national development vision reflects the exhaustion of previous state-led, manufacturing-centered Korean development model which was manifested by the 1997-98 financial crisis. Various ideas and policy alternatives have been proposed for the realization of this vision. However, President Roh emphasized that the country's vision can only be fully realized when there is a community of peace and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Therefore, following the President's logic, South Korea's external strategy for the realization of its development vision hinges on two issues: the establishment of a multilateral security regime in Northeast Asia Through the resolution of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and the creation of a regional economic community through the conclusion of Korea-Japan Free Trade Agreement. While 6-party talk can provide a good opportunity for the initial development of Northeast Asia's multilateral security regime, Korea-Japan·FTA can be a catalyst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North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For the smooth development of a regional community, Northeast Asia is in need of a regional collective identity, to which South Korea can also contribute a lot.

Key words: Korea-Japan·FTA, North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South Korea's External Strategy

동북아 에너지 협력과 극동 러시아

장 덕 준(국민대 국제학부 조교수)

Ⅰ. 서 론
Ⅱ. 극동 러시아 개황
Ⅲ. 변화하는 모스크바-극동 러시아의 관계
Ⅳ. 주요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Ⅴ. 동북아 에너지 협력과 한반도
Ⅵ. 결 론

ABSTRACT

Northeast Asian Energy Cooperation and the Russian Far East

The Russian Far East (RFE) has various natural resources in abundance. This region, however, served as merely a supplier of natural resources for the entire nation in accordance with the central government's political convenience, whereas for the past several years residents in the region have been suffering from economic difficulties as a result of excessive asymmetric industrial structure—overwhelming concentration on heavy industry and resource extracting industry. Since the early 1990s in the context of democratization and economic reform this region has been under going tremendous transformations. On the one hand, the RFE readjusted its relations with Moscow—from hierarchical to reciprocal relations. On the other hand, the RFE has been allowed to conduct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neighboring foreign countries particularly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on its own. In this way, the RFE is now entering into the era of "double integration."

Against this backdrop recently a variety of policy ideas and discussions about how to develop multilateral cooperative relations among the RFE and its neighboring Northeast Asian countries have actively transpired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Among other things, energy cooperation constitutes one of the most promising fields in multilateral cooperation. The project on developing natural gas in the East Siberian and Sakhalin gas fields has been drawing keen interest and attention among North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This energy cooperation project is expected not only to provide those countries with mutual economic benefits, but also to promote peace in the region by reducing energy crisis in North Korea and thus contributing to the settlement of nuclear crisis in the latter in the near future. furthermore, the energy project is conducive to helping Pyongyang to join the framework for multilateral Northeast Asian cooperation in a longer term.

Key words: Russian Far East, Northeast Asian Energy Cooperation, Energy Security, Sakhalin Gas Project, Irkutsk Gas Project, Regional Integration

동북아경제중심의 가능성과 추진과정

양 길 현(제주대 윤리교육과 부교수)

Ⅰ. 서 론
Ⅱ. 동북아경제중심에서 동북아와 중심
Ⅲ. 동북아중심의 의의와 가능성
Ⅳ. 동북아경제중심 구상과 추진과정
Ⅴ. 결 론

ABSTRACT

Korea's Move to Realize Hub Ambition

A hub for Northeast Asia has been a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pursued by Roh Moo-Hyun administration. On the one hand,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Hub policy aims for furthering economic growth by bringing Asia and the Pacific into the balanced relations as well as alleviating heavy reliance on the USA and Japan. On the other hand, it seeks to take advantage of new opportunities available in the 21st century of post-cold war and globalization.

Having employed the 'multi-center' approach, this study provided political justification and feasibility of the hub policy as it discussed Roh administration's strategies to realize the hub-state accommodating various perspectives and their critical reviews. It will take time to evaluate whether Roh's policy would work out, which attempts to develop international logistics-financial hub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R&D) cluster. However, what matters the most will be how Roh administration is able to realistically resolve the conflicts between the necessity of selected concentration and the logic for balanced development.

Key words: Northeast Asian Economic Hub State, 'Multi-Center' Approach, International Logistics-Financial Hub, R&D Cluster, Selected Concentration, Balanced Development

한반도문제와 중국역할: 의미와 한계

이 희 옥(한신대 중국지역학과 부교수)

Ⅰ. 중국역할의 의미
Ⅱ. 한반도 주변질서의 변화와 중국역할
Ⅲ. 중국역할의 사례: 통일과 북핵문제
Ⅳ. 남북대화와 중국역할의 방향전환

ABSTRACT

China's Role in Korean Question:
Meaning and Limits

China enjoyed a good reputation as a great responsible state of the global community. But government leaders and diplomat must not be conceited China does not intended to take the lead or seek undue attention in international affairs despite its rising economic power and is successful manned space launch.

China's role in Korean peninsula have a positive aspect as well as negative aspects. Because its role is mediated by the change of Sino-America relations and China's national interest. In this point, although 'North Korea variables' is important but decisive. China's changing attitude and policy toward North Korea is enlarging and deepening these tendency. So traditional North Korea and China relationship gradually is weakening.

Standing at crossroads in our China policy, we must be wary of an overestimation of China's role in Korean peninsula. In fact, China prefer to 'the peaceful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To lead China's positive role, mutual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very important and urgent. However this strategy alone is not sufficient condition for the unification. In this sense, engagement reinforce and build on multilateral cooperation enabled by realist causes.

Key words: China's role, constructive role, North Korea-Sino relation,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multilateral cooperation

북한 핵개발 전략과 그 지정학적 함의

최 용 환(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Ⅰ. 서 론
Ⅱ. 북한의 핵개발 전략
Ⅲ. 북한 핵 문제의 특징
Ⅳ. 북핵문제의 전개와 주변국의 역학관계
Ⅴ. 결론에 대신하여

ABSTRACT

North Korean Nuclear Strategy and It's Geo-Political Situation

This article tries to probe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North Korean nuclear strategy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illuminate the geo-political situations which make it possible for North Korea to pursue its current nuclear strategy.

The debacle and collapse of the eastern socialist states in the early 1990s posed a great threat to the survival of North Korea. Faced with the diplomatic isolation and the serious internal economic problems, North Korea has found itself fallen into the very grave dilemma. Namely, North Korea should avoid the road to "Reform and Opening" as long as possible if it wants to preserve its inherited political system. But North Korea desperately needs outside-help if it wants to overcome diplomatic isolation and economic hardship. As a way to escape from this dilemma, North Korea has tried to develop its nuclear programs. North Korea believed that the nuclear programs might help to not only deter the threat to the preservation of its political system but also enforce the economic aids from the concerned and relevant states.

The missile programs have also strengthened the strategic value of North Korean nuclear development efforts. North Korean missiles can reach to the greater parts of North East Asia. The combination of nuclear war heads and long-range missiles is surely a great military menace to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North Korea has tried to keep South Korea and Japan, the key allies to the United States in North East Asia, within the shooting ranges of its missiles so that it can greatly increase the costs of the possible military action of the U.S. and its allies against its territory. North Korea has also made most use of its geo-political advantage that the friendly and socialist China is bordering on its soil.

From the standpoints of the United States, the North Korean missiles can not be overlooked. North Korea has not only exported its missiles to other countries but also engaged in nuclear war head developments for decades. Therefore, the United States has strongly objected to the North Korean missiles and nuclear programs. The United States is also faced with a dilemma. Military action against North Korea is surely one option that the U.S. can take. But the provision of some economic aids and security guarantee to North Korean regime in return for the abandonment of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can be another option to the United States.

Considering its long-term effects, the North Korean nuclear development efforts can not be a good strategy because it can never solve the fundamental and structural problems that North Korea has been facing with. However, it can be evaluated as a good situational and tactical strategy which has made best use of the North Korean geo-political advantages.

Key words: North Korea's Strategy towards the United States, Asymmetric Strategy, North Korean Nuclear & Missile Program, Geo-political Situation, Security, Foreign Policy, North Korea

서구 자유주의권리이론에 나타나는 '일방향 권리-의무/책무관계구조'의 오류비판

이 봉 철(한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서 론
Ⅱ. 권리-의무/책무관계구조의 두 형태
Ⅲ. 권리-의무/책무 일방향구조의 오류에 대한 비판: 논증과 수정
Ⅳ. 결 론

ABSTRACT

A Critique of the 'One-way Structure in Right-Duty (Obligation) Relations' as It Conceived in the Western Liberal Rights Theories

This essay is to examine and redress the problems of one-way structure in right-duty (obligation) relations conceived erroneously in the Western liberal rights theories. This one-way structure, as it has so far done, comes to confront the equal rights principle which is the major premise of the rights-centric discourses, which, in turn, means no other than forfeiture of the moral basis of the latter. In redressing such problems, I not only employ Rainbolt's "duty rights" but also draw on J. Rawls' fairness account of obligation and take advantage of his conceptions of "fiduciary ties" and "operative words." After having been redressed, one-way structure is transformed itself into two-way structure. And this transformation necessitates some other changes such as a that in the form of non-duty entailing rights, that in the right-duty/obligation relationship, and tha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ght-holder and the duty/obligation-bearer. Such changes bring out the justice-related issues, for they cannot but cause the corresponding changes in the structure of distribution of freedom (benefits) from rights and restrictions (burdens) from duties (obligations) between the concerned parties.

Key words: rights, duties (obligations), right-duty/obligation relation, duty-entailing rights, two-way structure, one-way structure

영국 노동당, 탈각된 사민주의: 1987-1992년 '정책검토'(*Policy Review*)와 정책전환

박 경 미(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수료)

Ⅰ. 서 론
Ⅱ. 유럽 사민주의 정당의 정책전환 인과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Ⅲ. 노동당의 쇄신과 '탈'사민주의의 기반
Ⅳ. 정당의 현대화(Modernization)와 '탈' 사민주의: 정책검토(*Policy Review*)
Ⅴ. 정책검토의 결과: 사민주의? 국가 혹은 시장
Ⅵ. 결 론

ABSTRACT

The British Labour, Cast-off Social Democracy: *Policy Review* and Policy Switch, 1987-1992

This article examines the causes and outcomes of the British Labour's party renewal and policy switch in the context of the decline of European Social Democracy. According to the conventional wisdom, a party's policy switch is driven by societal change that leads to electoral change. As a whole, it is conceived of as a consecutive process about which a simplistic causality is assumed. Although this article does not deny the general idea that societal change brings about electoral change, whether it be realignment or dealignment, and eventually leads to specific election results, it tends to ignore intra-party dynamics as a possible source of policy switch. This article focuses on what happened inside the party in question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missing link between electoral change and policy switch. This article looks into the 1987-1992 *Policy Review* series of the British Labour which had been suffering from eighteen years of electoral defeats since 1979.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New Labour's return to power in 1997 is largely due to party renewal and modernization that was motivated by successive electoral defeats. The British case can be situated in a larger picture of European social democracy in which different national parties of the left have engaged in different forms of organizational renewal for policy switch as a way of facing the crisis of social democracy.

Key words: British Labour Party, Social Democracy, party renewal, Policy Review, intraparty dynamics

미국 주정부 업무수행 능력의 상이성 분석: 사회자본과 제도적 요인을 중심으로

가 상 준(경희대 정치외교학과 박사후연구원)

Ⅰ. 서 론
Ⅱ. 연구설계
Ⅲ. 연구결과
Ⅳ. 결론

ABSTRACT

An Analysis of U.S. State Government Performance:
Based on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and Institutional Factor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nd out important factors having an effect on government performance. Examining if social capital cast positive impact on government performance, the study compares and analyzes social capital and government performance in the 48 states of U.S.. Theories indicate that cultural, economical, institutional, and external factors play an important role in government performance; therefore, the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social diversity, economic characteristics, the capacity of elected officials and bureaucracy, and party competition on performance. And it shows that the last factors give greater influence on government performance than anything else. Social capital can influence greatly on government performance. The accumulation of social promotes community to participate in politics and their active participation reactivates the responsiveness and accountability of the government in the course of legislation and implementation. In result, it positively influences the performance of government. Social capital takes on its importance because it could solve such unique problems prevailing in indirect democracy as people's indifference to politics and political irresponsiveness to people's preference. In this way, the social capital is to play a positive role to realize the democratic principle that people's preference should be the pivotal factor in policy making.

Key words: social capital, government performance, association

한국 기업의 다국적화:
경제사회학적 해석

김 명 수(한양대 언론정보대 정보사회학 전공 교수)

Ⅰ. 서 론
Ⅱ. 해외직접투자와 다국적 기업
Ⅲ. 한국 기업의 다국적화
Ⅳ. 분석 및 토론
Ⅴ. 결 론

ABSTRACT

Multinationalization of the Korean Corporations:
Toward an Economic Sociological Explanation

This study explains why is the multinationalization of the Korean large corporations, the *chaebols*, in the early 1990s characterized as 'rush and hush.'

The result shows that the hurriedness, ill-preparedness, and band-wagoning in the multinationalization of the Korean corporations are embedded in the historically constructed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the chaebols, rampant rivalry among chaebols, and the characteristic of the governance structure of the state and the large corporations. The particular form of the multinationalization is the result of amalgam of interests of the President who responded imprompt way against the challenge of globalization in the world capitalist system level and the interests of the CEOs of the chaebols who rushed in utilizing the opportunity that are supposed to open by the state. It was a regression of the state-chaebol relationship in the liberalized global era to the past authoritarian state-led industrialization era.

This study shows that the theoretical explanations of neoclassical economics, management science, and political economics are inadequate in explaining the multinationalization of the Korean corporations. The economic sociological perspective which incorporates the historically constructed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the large corporations, the rivalry among big corporations, the governance structure of the state and the corporations, and the corporate culture is proved to be fruitful as an alternative.

Key words: MNC(Multinational Corporations),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Economic Sociology

동북아 국제질서의 구조적 특성과 한반도 문제 해결방향

길 병 옥(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 전임강사)
김 학 성(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 조교수)

Ⅰ. 서 론
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국제질서 현황
Ⅳ.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문제 해결과정
Ⅴ. 결론

ABSTRACT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Northeast Asian Politics and Future Directions of Resolving Problems on the Korean Peninsula

Possibilities of making self-fulfilling roles for South Korea to resolve problems on the Korean peninsula are open since structural obstacles overcoming national separation become obsolete after the demise of the Cold War. Despite the fact that any optimism for the future is not allowed in the midst of political turmoils and changes in Northeast Asia, there are concrete ways of changing the future through the internal expansion of abilities and external utilization of security environment or the national integration of two Koreas. Two perspectives of 'peninsularization of Korean problem' and 'internationalization of the Korean problem' are in conflict. But realistically, South Korea needs to consider bo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aspects to resolve the problem. In other words, to have positive role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actors in the process of national unification, South Korea must seek incremental changes of the Northeast Asian security structure from bilateralism to multilateralism like the Northeast Asian multilateral security system.

Key words: Northeast Asian Politics, Problems on the Korean Peninsula, Peace Settlement and Unification, Northeast Asian Multilateral Security System

'자원 전쟁' 시대 한국의 에너지안보 전략: 동시베리아 · 극동 지역을 향하여

강 봉 구(한양대 아태연구센터 연구교수)
한 구 현(국민대 경제연구소 연구원)

Ⅰ. 서 론
Ⅱ. 세계정치에 있어서 에너지안보의 의미
Ⅲ. 동시베리아 · 극동지역과 러시아의 에너지안보 전략
Ⅳ. 한국의 대러전략: 지전략적 · 지경학적 우위의 활용
Ⅴ. 결 론

ABSTRACT

Korea's Energy Security Strategy in the Age of "Resource Wars":
Toward East Siberia and Far Eastern Region

The demand for energy consumption continues to increase while the amount of energy resources and its supplies are limited. The trend warns us of the crisis of scarce energy resources that we must confront someday. Korea almost entirely depends on overseas for the fossil energy. Increasing the ability to secure energy resources is not just a national task, furthermore, it can be defined as a core issue of national strategy that Korea must solve. What international strategy do we need and how do we have to cope with the energy crisis as a nation which is weak in energy security in this era of "Resource Wars" when the competition for securing energy resources is so intense.

Korea should promote the "Double Track Strategy" by collaborating with Russia and strengthening the multi-party collaboration between North East Asian Countries at the same time. First of all, Seoul should sufficiently take own geostrategic and geoeconomic advantages in Korea-Russia relations. Korea and Russia are committed to carry out the energy collaboration project without stressing the "relative gains" of each party, and both parties are sharing the common strategic foundation to form a non-competitive and reciprocal cooperation relationship. Second of all, Seoul should pursue the "Cooperative and Joint Energy Security Strategy" for cooperation and common prosperity of North East Asian countries from the dimension of multi-party strategy. The fundamental strategy of Korea should not cause the energy crisis in North East Asia to develop into the "Resource Wars," instead it should induce international and domestic efforts to form an energy cooperation regime or energy governance such as the "North East Asian Energy Cooperaton Organization."

Korea is in a position to be prepared in mid-to-long term so that the virtual energy crisis in North East Asia can turn out to be a new opportunity for cooperation and mutual benefit instead of the "Resource Wars." These efforts that look ahead into the future will not only increase the energy security in Korea, but also contribute in making Korea prosper harmoniously as the hub country of North East Asia.

Key words: Korea's energy Security Strategy, Russia's Energy Security Strategy, Resource Wars, Energy Crisis, Double Track Strategy, East Siberia and Far Eastern Region

세계화 시대 북한과 중국의 민족주의

전 재 호(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상임연구원)

Ⅰ. 들어가면서
Ⅱ. 이론적 논의: 민족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의 시각
Ⅲ. 북한의 민족주의
Ⅳ. 중국의 민족주의
Ⅴ. 나오면서

ABSTRACT

Nationalism in North Korea and China in the Global Era

This study addresses nationalism in North Korea and China in the global era. It focuses on the revival of nationalism and the different causes of two countries in the 1990s.

In both countries, nationalism was revived from 1990. In North Korea, the failure of the socialist economic system which was the structural cause, the collapse of the socialist regime in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and its effect(the economic crisis of North Korea) made to revive the state-led nationalism.

In China, the collapse of the socialist regime, the Taiwanese independent movement and the US foreign policy to China were the important background of the revival of nationalism which was led by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s leading intellectuals. Especially, the critical cause of the revival of nationalism in China was nation's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risis resulted by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since the 1987's economic reform.

In both countries, globalization was not the critical factor, but the background of the revival of nationalism which could mobilize the people to national integr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Key words: Nationalism, Globalization, Patriotism, State-led Nationalism

북한요인과 국내정치:
1968년 북한요인의 영향을 중심으로

신 종 대(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

Ⅰ. 서 론
Ⅱ. 북한의 대남전략과 위기적 북한 요인의 발발
Ⅲ. 1968년 북한요인의 국내정치적 영향: 정책 · 제도 재편
Ⅳ. 1968년 북한요인과 권위주의 이행
Ⅴ. 결 론

ABSTRACT

The North Korean factor and South Korean Politics:
Influence of the North Korean factor, 1968

This paper examines how the North Korean factor, 1968 influenced South Korean politics during the time period of 1968-72.

This involvement of the North Korean factor in domestic politics, mobilized or actual expended the power of the regime and ruling party. On the other hand the power of the opposition bloc, opposition party and underground organizations weakened.

Especially crisis oriented actual North Korean factor influenced the state, political society and the recognition and preferences of civil society as well as power relations by fostering an atmosphere that emphasized security issues.

Therefore, it limited the political cleavage that surrounds the democracy issue and influenced, authoritarian policy, and institutional reform. Furthermore, it can be seen that through this policy and institutional change, authoritarianism was further carried out and in the end caused the change in the regime form known as Revitalizing Reform *(Yooshin)*.

Key words: North Korean Factor, South Korean Politics, Vector-Sum, Political Cleavage, Policy and Institutional Change, Regime Form

신민주주의 혁명시기 중국공산당의 민족정책 및 민족구역자치제 채택 배경

허 종 국(영산대 국제학부 조교수)

Ⅰ. 머리말
Ⅱ. 신민주주의 혁명시기 중국공산당의 민족정책 및 주요내용
Ⅲ. 민족구역자치제를 채택하게 된 이유
Ⅳ. 맺음말

ABSTRACT

A study on the CCP's National Policy During the 1921-1949 and the reason why China adopted the System of Regional National Autonomy

This dissertation is to see how China adopted "the System of Regional National Autonomy" that was a national policy of China under some sorts of historic environment, and analyze factors that made 'a federal system' and 'national self-determination' abolished in the end.

Federal system, national self-determination and national autonomy were main factors of nationalism suggested by the Chinese Communist Party. The national policy of Chinese Communist Party was more stressed than the Federal system and national self-determination before the anti-Japanese war era. Although the System of Regional National Autonomy had been suggested since the early stage of the party formation, it was just a doctrine stuck for practical meanings. Since the late 1930s the policy has shown more specific and practical meanings, and since then nationalism-related organizations and statues have been established. Even though the policy was officially adopted in 1949, it was actually selected simultaneously with founding of autonomous districts of inner Mongolia in 1947.

The federal system was mainly influenced by the recognition and realization of Lenin's National Integration. However, the realistic and historical differences with the Soviet Union that China had faced were the main reasons that made China gave up the federal system. And the main reason why national self-determination was advocated for a long time was that it was suggested as the means to constitute the united front in order to escape from imperialism's oppression.

Key words: The System of Regional National Autonomy, Federal System, National Self-Determination, National Autonomous

인터넷 정치 집단의 형성과 참여: 노사모를 중심으로

강 원 택(숭실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Ⅰ. 서 론
Ⅱ. 노사모의 조직과 활동의 특성
Ⅲ. 인터넷상의 정치 집단의 형성
Ⅳ. 결 론

ABSTRACT

Formation of On-line Political Groups:
A Study of 'Nosamo'

A research question of this paper is about how on-line political groups are successfully formed and maintained. Given the low cost of participation the organization of an on-line group looks fairly easy. However, as the low cost helps people to 'exit' easily it does not look easy to successfully manage an on-line group. In this regard, 'Nosamo' (People who love Roh Mu Hyun) attracts special attention. It was formed by 7 people in 2000 but now the number of its members amounts to more than 100 thousand in 2004.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reason for this successful internet group activity are two-fold. One is that its members share a common political identity for political reforms. That is, it provides a common purposive incentive. The other is that Nosamo has succeeded providing members with solidary incentives that provokes fun and interests, and it helps strengthen networks, solidarity and friendship and ultimately widen mutual understanding. This signifies much to political parties in South Korea, which lack voluntary activists and supporters.

Key words: On-line Group, Political Participation, Internet, Purposive Incentive, Solidary Incentive

일본통신시장 자유화의 정치과정: NTT 분할 논의를 중심으로

김 유 향(국회 입법정보연구관)

Ⅰ. 서 론
Ⅱ. 통신시장의 자유화와 국가-시장관계: 이론적 논의
Ⅲ. NTT 분할 논의의 진행과정
Ⅳ. NTT 분할의 정치과정
Ⅴ. 맺음말: NTT 분할의 정치

ABSTRACT

The Politics of Japanese Telecommunication Industry's Liberalization: The Case of Divestiture of NT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tics concerning the liberalization and restructuring of the telecommunication industry by analyzing divestiture of Nippon Telegraph and Telephone Co.(NTT). The divestiture of NTT first began in 1985 as a means to liberalize and privatize the Japanese telecommunication industry. However it was agreed upon by the state on December 6, 1996 to be partitioned: by setting up a stockholding company, partitioning into East/West regional companies, and the division of a long-distance telephone company. This study also aims to analyze characteristics of the contemporary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market in Japan and its political and economic structure. This research reveals the fact that the decision behind the restructuring of the Japanese telecommunication industry, actually lay in the changes of the state-market relationship and its political process since the collapse of the '1955 regime.' Although the restructuring of the Japanes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was 'strategic reinforcement' by government-led policies and the cooperation of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 during the process of implementing liberalization, in the latter part of discussions of the divestiture, such government-led coordinations were practically impossible due to strong opposition of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 However, this does not necessarily mean the recession of the Japanes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Rather, it opened a new era for the establishment of a new political coalition with the ability to thoroughly cope with new requirement of global competition in which there would be no place for past forms of ruling coalition.

Key words: NTT, Liberalization of Telecommunication, Japanese Politics, Policy Network

미군재편과 자주국방론 분석: 한국 안보정책에 대한 함의

정 세 진(중앙대 민족발전연구원 연구교수)

Ⅰ. 서 론
Ⅱ. 미군 재편과 주한미군 재배치
Ⅲ. 미군 재편과 맞물린 자주국방
Ⅳ. 한국사회의 안보논의 다변화
Ⅴ. 미군 역할변화와 새로운 방향 모색
Ⅵ. 맺음말

ABSTRACT

An Analysis of the USFK Relocation and the Self-Reliant Defense Policy in South Korea

The US is proceeding with a relocation plan of the US Second Division Military Force at the south of the Han river. It shows that the primary USFK's role is changing from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 to regional stabilizer in Northeast Asian region. But this changing role may damage the South Korea's political and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China, which is emerging as her major cooperation partner in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s participation in the US Missile Defense System would produce th same result. Also South Korea's changing status as a regional allied forces for the United States could cause a major problem for the South Korea's independent military operations and even the Korea-US joint command system could be destabilized.

In response of the US relocation plan, South Korea pursuing the large-scale military expenditure for its national defense program in the name of the Cooperative Self-Reliant Defense. This paper suggests a new paradigm for the Korean security, a concept something similar to the Japanese traditional defense policy, "Aimed to Purely Defense." It aims at the fundamental structural reform of the nation's strategy, including the cutdown of numerical number of soldiers and balance development of army, navy, and air force.

Key words: relocation of USFK, the regional allied forces, Self-Reliant Defense Policy, democratization, civil society

김정일 정권의 국가발전전략: '강성대국'을 중심으로

정 우 곤(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Ⅰ. 서 론
Ⅱ. 성장정치(growth politics)의 위기와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의 모색
Ⅲ. 강성대국 건설과 선군정치: 경제 회생인가, 안보전략인가
Ⅳ. 강성대국 건설과 경제개혁: '실리사회주의'
Ⅴ. 결 론

ABSTRACT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Under the Kim Jong Il Regime:
Building a *Kangsong Taeguk*

This article looks at North Korea's national-development strategy from the perspective of an economic focus in Pyongyang's attempt to build a kangsong taeguk (strong and prosperous nation). After proposing the building of a strong and prosperous nation, North Korea began to emphasize shilli socialism(pragmatic) with economic efforts being an important factor. In order to begin this process, the Kim Jong Il regime has carried out the July 1st 2002 economic improvement measures and has attempted to establish special economic zone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status and nature of Kim Jong Il's national development project aimed at the establishment of a strong and prosperous nation. North Korea's new national-development strategy is defined by building a strong and prosperous socialist nation with a strong economy. The foundation of this strategy is the concept of "military-first politics" and its economic aspect functions at a very practical level.

From the perspective of militarism in the building of a strong and prosperous nation, this article draws attention to the emphasis on the economic aspect as part of the nation prosperity and defenses policy. Firstly, this article carries out a brief examination of the process of the new national-development strategy and the crisis facing the North Korea system. Secondly, it explains the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between the establishment of a strong and prosperous nation and military-first politics from the economic perspective. Thirdly, this article analyzes the expansion of economic reform and special economic zones within the framework of building a strong and prosperous nation. In other words, the connection between North Korea's domestic reform strategy and opening policy towar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explained.

Key words: national-development strategy, kangsong taeguk, military-first politics, *shilli* socialism, North Korean economic reform, special economic zone

한 · 미관계에 대한 미디어보도 분석: 조선일보, MBC, New York Times 보도에 대한 프레임 분석을 중심으로

김 용 호(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김 용 순(연세대 정치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한 정 택(연세대 정치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Ⅰ. 들어가는 말
Ⅱ. 분석틀과 분석방법
Ⅲ. 대미 외교안보사안 관련보도 분석
Ⅳ. 한미동맹 관련보도 분석
Ⅴ. 맺는 말

ABSTRACT

Analyzing Media Coverage of the US-South Korean Relations

This research analyzes South Korean and American media coverage of the U.S-South Korean relations. To be specific, this research focuses on five cases (middle school female student case, relocation of U.S. forces in South Korea, moving of U.S. Embassy building in Seoul, dispatch of South Korean troops to Iraq, and finally, U.S.-South Korean alliance) reported by Chosun Ilbo and MBC, the leading press and TV media in South Korea, and the New York Times. By coding usages of frames appeared in each stories, this research indicates difference between TV and newspaper in their report on U.S.-South Korean relations. While MBC appears to emphasize national prestige vis-a-vis the United States, Chosun Ilbo appears to stress national interests, especially security ties with the United States. The discrepancy between press and TV media represents society-wide ideological, generational and political gap in South Korea. TV and newspaper tries to accomodate their stories to their readers and viewers, and at the same time, frame their opinions and evaluations of the subject within a certain sphere of this course they prefer. New York Times, for its part, demonstrates unexpectedly low interest in reporting about U.S.-South Korean alliance, which reflect that American media regard the alliance not as important as its alliance with the United Kingdom, Japan and Australia.

Key words: U.S.-South Korea relations, media, frames, Chosun Ilbo, MBC, New York Times, national prestige, national interests

지구화 · 정보화시대 동북아 국제사회의 균열과 협력: 동북아의 국제사회화와 문명에 관한 성찰

장 인 성(서울대 외교학과 부교수)

Ⅰ. 머리말
Ⅱ. 지구화 · 정보화와 동북아 지역
Ⅲ. 동북아의 지역과 국제사회
Ⅳ. 동북아 국제사회의 문명과 협력
Ⅴ. 맺음말

ABSTRACT

Toward Solidarity and Cooperation in Globalizing Northeast Asia: A Reflection on the International Socialization and Civilization in the Region

Northeast Asia a region in which the reality of conflict and the ideal of cooperation have been intertwined. Nation-centered and development-oriented egoism has caused the conflicting relationship among its member states. At the same time, it not only incessantly arouses Northeast Asians' imagination in solidarity and cooperation, but also provokes their endeavor to realize some specific regional institution. And yet most forms of design for regional cooperation have been devised from the economic perspective of coping with globalism and regionalism. The authenticity of regional solidarity and cooperation would, however, be acquired through exploring how Northeast Asian civilization and nation cultures should take shape in the region's temporal/spatial context. The text of globalization and informationalization will afford Northeast Asian some deliberation on the promotion of regional activities and civilization.

This research intends to inquire into how the trend of globalization and informationalization relates to the Northeast Asian region and what meaning it might hold regarding the promotion of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or regional community is not enough. Overcoming regional conflict and increasing mutual communication and understanding necessitate the perspective of seeing the region as an "international society" and also the effort to build up "Northeast Asia as a Civilization" on footing of modern capitalist civilization and sovereignty. The formation will be made possible b the international socialization and the regionalization of modern civilization, the process of which globalization and informationalization will encourage.

Key words: globalization, civilization, Northeast Asia, international society, regional cooperation

시베리아 공간의 지정학적 의미와 러시아: 지정학적 요소/분석단위를 중심으로

이 영 형(경희대, 국민대 강사)

Ⅰ. 들어가는 말
Ⅱ. 분석 대상 및 방법
Ⅲ. 시베리아 공간의 정치적 분석단위와 러시아
Ⅳ. 시베리아 공간의 경제적 분석단위와 러시아
Ⅴ. 끝맺는 말

ABSTRACT

Russia and Geopolitical Meaning of Siberian Space:
Mainly Geopolitical Element/Analytic unit

We could find out the geopolitical meaning of the Siberian space from a national strategy by the major game participant countries which elaborate an extension strategy of power at the lower part in the same space, that is, and extension policy of power to Middle East and Central Asia of U.S.A., the southward expansion policy of Russia, and the South-west ward expansion policy of China etc., are a clear example.

We could find out the geopolitical meaning of the Siberian space from a practical use of all sorts of resources which is distributed in the same space. Putin, Russian president is fully aware of the importance of energy industry as a greatest strategic industry and he carries out an energy policy based on a national benefit.

Korea, Japan and China etc., as the representative importing countries in Northeastern Asia do not take their own way from a geopolitic element of "Oil & Gas" in Siberia and Far Eastern Region.

The meaning of which the Siberian space presents to Russia is derived from the following. First, it is sensitivity of a result that cause and effect on an international relations which developed in the lower part of Siberia spreaded to the Siberian space. Second, it could find from a corresponding logic toward an international relations of "Participation and Intervention" which takes an economic element of the Siberian space through parameter directly.

Finally, the geopolitical meaning of the Siberian space greatly comes to the fore by linking together an economic element which is a practical use of resources as well as political element which called the national security. Russia will make an experiment n his geopolitical national strategies centering around he same space.

Key words: siberian federal region, geopolitics & geo-economics, geopolitical factor & analysing unit, extension policy of power of U.S.A., southward expansion policy of Russia, south-west ward expansion policy of China, energy policy & <energy strategy 2020>, national security of energy in northeastern Asia

예방외교와 국제평화:
동티모르 사태의 분쟁해결 과정을 중심으로

최 운 도(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연구교수)

Ⅰ. 서 론
Ⅱ. 예방외교의 이론과 가설
Ⅲ. 사례연구: 동티모르에서의 예방외교의 실패와 성공
Ⅳ. 결 론

ABSTRACT

Preventive Diplomacy and International Peace:
The Case of Conflict Resolution Process in East Timor

The process of independence in East Timor presents a case where the theoretical hypotheses of preventive diplomacy are not easily applicable. This research aims to point out the theoretical limitations of implementing preventive diplomacy in practice, and evaluates the hypotheses presented in the existing theoretical arguments.

The most important lesson is on the identification of preventive diplomacy, that is, identifying what measures are taken as preventive diplomacy and what moment presents the right timing for intervention. When disputes exacerbate to higher levels of violence in an incremental manner, it is impossible to measure the seriousness of the conflict in process. A more critical problem is that we cannot tell whether the conflict is at an early stage or at a later stage of the conflict cycle. Considering this question, diplomatic intervention should be applied to the stage of unstable peace both at the ascending and at the descending stages in the life cycle of a conflict. Given this, the UN PKO may present an institutionalized and effective criteria of observation as a measure of preventive diplomacy.

Key words: preventive diplomacy, East Timor, early warning, PKO, life cycle of conflict, a cascade of crisis

중국 온라인 공간의 주도권 쟁탈전: 국가–사회의 경쟁

이 민 자(서울디지털대학교 중국학부 조교수)

Ⅰ. 서 론
Ⅱ. 닫힌 오프라인, 열린 온라인
Ⅲ. 온라인 사회공간 확대
Ⅳ. 온라인 국가공간 탈환
Ⅴ. 결 론

ABSTRACT

A Hegemonic Struggle over On-line Space in China: The State-Society Rivalry

This article attempts to examine the political and social effects of the proliferation of the Internet in China. First of all, this study introduces the off-line media control which affects the nature of on-line space as well as the extant literature on the effects of the Internet. Second, it is explicated the ways of through which social forces transform on-line space into social space in which public arenas and on-line protests become available, thus facilitating the eventual formation of a civil society in China. Third, it also shows the process through which the Chinese government tries to make on-line space into state space with its on-line opinion-making, on-line policy publicity, and control over on-line information flow. In brief, the state-society relationship in the information age is no longer a static one in which the state controls society; it is a two-way dynamic that forces interactions between the two. The on-line space in China thus can be defined as a "moving space" over which neither the state nor society has effective control.

Key words: on-line space, state-society relations, state space, social space, civil society, on-line protests, public arenas

인터넷을 통한 NGO의 정치참여: 유형과 현황

김 의 영(경희대 정치외교학과, NGO대학원 조교수)

Ⅰ. 문제제기
Ⅱ. 인터넷을 통한 NGO의 정치참여 유형
Ⅲ. '인터넷을 통한 NGO의 정치참여'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
Ⅳ. 결 언

ABSTRACT

NGOs' Political Participation on the Internet: An Overview

This paper classifies NGOs' web-based political participation and, based on a survey of Korean NGO activists, examines the modes and democratic implications of NGOs' web-based political participation. NGOs' utilizing the strategy of web-based political participation can be classified into five types: offline NGOs using the Internet as an instrument, NGOs focusing on the issues of the Internet, citizens' movements on the net, voluntary communities on the net, and NGOs working on the building of networks among web-based NGOs. The survey research on NGO activists revealed some notable aspects of NGOs' web-based political participation. First, the NGOs emphasize not only the technical application of the Internet as a political leverage but also the two-way communication via the Internet and the formation of online public spheres. With regard to the collective action dilemma, the NGOs regard the Internet as an useful social incentive to draw the members' participation and support. As for the political efficacy and democratic implication of NGOs' web-based political participation, even the NGO activists share the double-edged evaluation of the Internet. That is, while agreeing with the positive aspects and democratic potentials of the Internet for their activities, they acknowledge and take seriously the negative aspects of the Internet such as irresponsible, abusive, and populist use of the Internet. In the similar context, they consider it more important and urgent to build the participatory and deliberative culture and address ethical issues on the part of citizens than improve the technical and institutional aspects of the Internet in realizing the democratic potentials of NGOs' web-based political participation.

Key words: NGO, the Internet, political participation, collective action, democracy

중국의 국가전략: '전면적 소강사회론'을 중심으로

이 희 옥(한신대 중국지역학과 교수)

Ⅰ. 서 론
Ⅱ. 외부환경과 대외전략
Ⅲ. 배경과 조건
Ⅳ. 목표와 지표
Ⅴ. 추진전략: 신형공업화와 도시화
Ⅵ. 평가와 함의

ABSTRACT

Strategy for Empowering China and a Full Well-off Society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goals and policy instruments of China's grand strategy, the theory of full 'well-off (Xiaokang)' society that Chinese government officially launched out in 2002.

In other to accomplish this, this paper explores the difference between well-off society and full well-off society, and the full well-off society originated from different social backgrounds that are appeared by the shadow of growth initiative strategy. Secondly, this paper considers the substance of full well-off society as a socio-economic strategy. Hence Chinse foreign policy also was characterized by reactive realism that based on U.S.-China cooperation. Thirdly, this paper insists the core policy instruments of full well-off society are a new type industralization *(xinxing gongyehua)* and urbanization *(chengshihua)*. These strategies are the comprehensive policy alternatives in order to solve various social contradiction, including the surplus labor in rural region, high unemployment, undeveloped industrial structure. Finally, this paper prospects Chinese government by and large can realize this goals, since China has the economic potential, governmental capability and comparative political stability. However, this paper evaluates China in 2020 have the limits of national power as compared with the developed countries yet.

Key words: well-off society, China's grand strategy, scenario on urbanization, new industralization, rural-urban migration

중국의 정치전략: 정치개혁을 중심으로

김 영 진(국민대 국제학부 부교수)

Ⅰ. 정치개혁의 필요성
Ⅱ. 정치개혁의 역사적 회고
Ⅲ. 후진타오 체제의 정치개혁
Ⅳ. 정치개혁의 과제와 문제점
Ⅴ. 결 론

ABSTRACT

Political Strategy in China: Focusing on Political Reform

In the reform age, political reform has been one of the main issues of domestic politics in China, although its breadth and depth under each political leadership have differed. The so-called fourth generation leadership under Hu Jintao is no exception. The leadership under Jiang Zemin was politically much more conservative and reluctant to political reform than his predecessors of the 80's years. Owing to their personal background and to growing pluralistic environment of society, the new leadership of Hu Jintao is relatively positive toward political reform.

In regard to political reform, the new leadership shows a kind of populist approach, in the sense that it is politically more open and generous to social demands. It is trying to resurrect the reform measures initiated by the reformers before 1989. The main directions of political reform include widening of people's participation in politics, normalization of the political power, and strengthening of efficiency of government. The issue of political reform is partly related to answering to a growing demand of political rights accompanied by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more importantly, related to the necessity of improving of the functional capability of the state required for a sustained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The concrete reform measures remind, however, of a step towards establishing a sort of soft-authoritarian system. In other words, the political reform pursued under Hu's leadership is not oriented toward a western-style democratization. It is rather to be understood as a means of guaranteeing a long-termed rule of the CCP.

Key words: China, political reform, democratization, institutionalization, rule by law, ruling party, separation of party and state

중국의 대외전략:
동북아 및 한반도정책을 중심으로

문 흥 호(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Ⅰ. 서 론
Ⅱ. 후진타오체제의 대외전략 기조
Ⅲ. 동북아정책과 주요국가, 사안별 정책
Ⅳ. 한반도정책과 한 · 중, 북 · 중관계
Ⅴ. 결 론

ABSTRACT

China's Grand Strategy:
Implications for Northeast Asia and Korea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dentify China's grand strategy under Hu Jintao of the "Fourth Generation Core" group. A grand strategy is taken to mean a set of fundamental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a sovereign state's foreign relations. To this end, the article takes two analytical steps.

First, it defines general guiding principles of Chinese foreign policy under Hu Jintao by investigating major bilateral relationships and significant issues facing China. Second, it places the general principles in the context of Northeast Asian and Korean international politics.

Major findings of this article are as follows: (1) China's grand strategy aims at, among other things, boosting "comprehensive national power" (Zhongheguoli) to enhance Chinese status in a future world. To this end, China should create a peaceful international environment so that she can concentrate on economic development; then bring about national unification with Taiwan. China's grand strategy also emphasizes the fact that "China will never seek hegemony and will never go in for expansion" and is dedicated to the proposition that all nations are created equal. China also embraces multipolarity and 'qiutongcunyi' peaceful coexistence, Chinese style; (2) To understand China's grand strategy and place it in the context of the two Koreas and US-China rivalry is of significant importance. The US-Chinese relationship is driven by competitive power politics. According to conventional alliance theories, Korea could opt to join the Chinese side to bandwagon with the rising power. But some Korean strategist and policy makers have rejected this opinion as unrealistic and unpalatable.

Key words: Hu Jin Tao leadership, foreign policy, Northeast Asia, Korean peninsula

중국의 경제전략:
성장과 균형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 만 수(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Ⅰ. 서 론
Ⅱ. 새로운 경제적 환경과 과제
Ⅲ. 신지도부의 경제적 비전과 이념
Ⅳ.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
Ⅴ. 결론: 중국형 발전모델의 전망

ABSTRACT

China's Economic Strategy:
Job Creation and the Balanced Growth

This research analyzes the economic strategy of China's new government. New government should solve urgent problems such as serious economic disparity and jobless growth. The concept of balanced growth is a Chinese way of dealing with these problems. However, the new government's economic strategy mainly focuses on escaping jobless growth rather than diminishing economic disparity. Their major economic policies like the macro economic adjustment in 2004, so-called new-type industrialization, reviving plan on Northeast area, rural development initiative confirm this direction. To harmonize high growth rate and job creation, China need to develop a new model of economic development.

Key words: China, economic strategy, development model, jobless growth, balanced development, new government

중국의 경제성장과 도시 실업 문제

장 영 석(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 조교수)

Ⅰ. 서 론
Ⅱ. 도시 실업 현황과 특징
Ⅲ. 고용 구조의 변화와 노동력 공급 과잉 문제
Ⅳ. 중국 당국의 실업 대책과 그 한계
Ⅴ. 결 론

ABSTRACT

China's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Problems of Urban Unemployment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China's unemployment after mid-1990 and the limits of the China government's unemployment policy. This paper begins by critical analysing "the rate of registered urban unemployment" which Ministry of Labor and Security of PRC has been publishing annually, the raw data of the figures of the urban employed and unemployed which are obtained by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s 1‰ sample research begun from 1996, and some articles which analyzes the figures of the urban unemployed and the employed of 2000 population census of China. I think statistical judgment about China's current unemployment and employment which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is not fundamentally flawed, because the figures of the unemployed and the employed are closed to ILO's standard. After analyzing the level of the rate of China' urban unemployment, the structure of China's unemployment and employment,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China's labor age population, and the changes of the index of employment elasticity, this paper points that China government's current development strategy and unemployment policy is not enough to resolve the problems of China's unemployment.

Key words: China, SOE, unemployment, employment, xiagang

중국의 물류전략과 동북아 물류중심지론의 재검토

원 동 욱(교통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Ⅰ. 서 론
Ⅱ. 중국의 물류전략: 국가적 물류경쟁력 향상
Ⅲ. 동북아 물류환경의 변화와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전략의 재검토
Ⅳ. 한중 물류협력의 방안
Ⅴ. 결 론

ABSTRACT

The Logistics Strategy of China and Review on Logistics Hub in Northeast Asia

The rapid development of Chinese economy makes the Northeast Asian economy and its relative importance in the world economy grow. In addition, the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s among the region are accelerating. The Chinese government focuses on the logistics industry and makes an extensive investment in Social Overhead Capital (SOC) such as road, railroad, harbor, and airport. This Chinese strategy may conflict with Korean national policies direction that aims at making it as the logistics hub in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Also, the national policies in other countries, like Hong Kong, Singapore, Chinese Taipei, and Japan, will conflict with the Korean national policies too.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growth of the Chinese logistics industry and the expansion of the Chinese SOC infrastructure derived from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Chinese economy and the open economy to foreign countries. We investigate the principles of the Korean national agenda—the logistics hub in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and examine its specific strategies. We pursue the cooperative strategy with China instead of the competitive infrastructure policies for the logistics hub. We emphasize value-added logistics linked with clusters through enhancing the manufacturing industries in Korea which have relative competitiveness in the world. Finally, we focus on the strategies for making Korea a hub of supply chain in the Northeast Asian economy.

Key words: China's logistics, logistics infrastructure, logistics environment of Northeast Asia, logistics hub strategy of Northeast Asia, Korea-Sino cooperation

중국의 동북진흥전략: 한중협력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강 승 호(인천발전연구원 한중교류센터장)

Ⅰ. 문제제기
Ⅱ. 동북진흥전략의 특징 및 성격
Ⅲ. 동북진흥의 전망
Ⅳ. 동북진흥전략과 북한경제
Ⅴ. 결론: 동북진흥전략과 한중협력

ABSTRACT

The Rebuilding Plan for Northeastern China: Focusing on the Interrel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The rebuilding plan for the Northeastern China will make the region be a new growth engine of Chinese economy, following Yangtze River delta, Pearl River delta and Bo-Hai bay district. Western inland grand development project, which have focused on the urbanization and the social infrastructure modernization, is relatively depressed but the main goal of the rebuilding plan is a restructuring of old industrial based enterprises in North East region. That is a reason why the rebuilding plan can give lots of business opportunities for Korean investors. Also, considering the fact that North Korea has been on a chronic lack of energy, capital and a poor capability for industrial production. In order to promote the rebuilding for Northeastern China, the industrial structure must be revised and improved, structural adjustments in companies promoted, and declining industries weeded out, with the North Korea taking over technology and equipment in this process. North Korean government will try to get a chance to cooperate with China in order to escape from such economic hardships.

The rebuilding plan of China and various cooperative movements such as a new pipe line establishment or the infrastructure expansion among neighboring countries in North East Asia can add up a long-term development of North East Asian regional economy. However, if North Korea is excluded from such regional cooperative movements for a long time, not only a security issue but also the value depreciation of North Korea's contribution will be a critical problem to South Korea.

Therefor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try to facilitate North Korea to take the economy reformation and open-door policy continuously by utilizing the Northeastern China's rebuilding plan strategically. Depending on South Korean government's efforts, the rebuilding plan can be beneficial to drive a Korean industry restructuring and decrease the economic gap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n the long run.

In addition,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be careful about the possibility that North East region of China can absorb the development potential of North Korea gradually, due to the concentration phenomenon of FDI or international supports on North East region. So, making a consensus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s an urgent assignment for the peace and prosperity of Korean peninsula.

Key words: rebuilding plan for the Northeastern China, North Korea, Korea-China cooperation

동북아공동체의 이상과 현실: 문화적 대안의 모색

김 명 섭(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이 동 윤(서강대 동아연구소 상임연구원)

Ⅰ. 문제제기
Ⅱ. 공동체로서의 문화와 문화공동체
Ⅲ. 동북아 국가들의 역사·문화적 인식과 현황
Ⅳ. 동북아공동체의 장애요인과 문화적 대안
Ⅴ. 맺음말

ABSTRACT

The Ideal and Reality of Northeast Asian Community:
Searching for Cultural Alterna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resent situations and problems in building Northeast Asian community and to discuss the theoretical base and the necessity of cultural alternative on the formation of the community. Currently the biggest obstacle to create the community lies in the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among Northeast Asian countries stemming from historical legacies that these countries have produced together since long time ago. For example, the perceptual differences between China and Japan, caused by historical and cultural factors, are making it difficult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let alone to build a community. In order to overcome the obstacle, we argue that it is necessary to depend upon cultural alternative more intensively. Cultural alternatives that we offer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development of various interchanging programs focusing on joint ownership of the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s among Northeast Asian countries, the improvement of already existing educational and research programs to promote mutual understanding among those who live in the region and the making of common standard in Northeast Asia.

Key words: Northeast Asia, community, regional cooperation, cultural alternatives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동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에 관한 연구

구 갑 우(북한대학원대 부교수)
박 건 영(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최 영 종(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Ⅰ. 서 론
Ⅱ.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 관계설정
Ⅲ. 동아시아 또는 동북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 지역의 형성
Ⅳ. 동북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의 수요와 공급
Ⅴ. 동북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의 미래
Ⅵ. 요약과 정책제안: 결론에 대신하여

ABSTRACT

Promo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East Asia

This article as a thought experiment explores the possibility of achievement of peace by peaceful means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institutionalization of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East Asia and vice versa. The points at issue to be considered are as follows: the sequential relation of th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to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East Asia, the politics of the formation of a region in the post-cold war era, the demand and supply factors for and future of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nd Korean foreign policy towards East Asian countries.

Key words: East Asia, Northeast Asia,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동아시아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공간적 확산효과 측정: 분석모형의 구축과 사례분석

안 승 국(한림과학원 연구교수)

Ⅰ. 서론: 민주주의확산의 공간적 맥락
Ⅱ. 민주주의확산의 연구경향
Ⅲ. 분석모형의 구축과 확산효과의 측정
Ⅳ. 민주주의 확산효과의 경험적 분석
Ⅴ. 결론: 민주주의확산 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함의

ABSTRACT

Measuring Spatial Diffusion Effects of Democracy in East Asia:
Building an Analytic Model and A Regional Case Study

This paper presents research that reveals the relationship between temporal and spatial aspects of democratic diffusion in East Asia since the mid 1980s. Much of the existing research neglected diffusion factors implicitly assuming that the major independent variables determining democratization as a dependent variable are internal ones. But most recently the bulk of empirical research has included diffusion factors. Thus empirical research began to accept the possibility that some factors may diffuse across national border. All the empirical research that has addressed diffusion effects has confirmed the significance of external influences of one or another. In this context, this paper provides consistent evidences of temporal cascading of democratic trends as well as spatial association of democracy. The analysis uses an exploratory approach to understand regional trends in democratization. This paper first considers some explanations for why democratization process should be influenced by regional contexts and events in neighboring countries. This analysis then shows empirically that distribution of democracy cluster spatially. This analysis also demonstrates that spatial clustering in democracy can not be accounted for by differences in domestic factors. This suggests that the regional contexts and neighboring effects play an important part in democratization. This paper addresses the existence of diffusion effects in regard to changes in degree of freedom based on yearly Freedom House data. Thus this paper bears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mplications to democratic studies in that it provides some empirical analysis explicitly aimed at uncovering diffusion effects.

Key words: spatial diffusion, diffusion effects, neighboring effects, democratization, East Asia

미국 부시행정부의 통상정책: 이념(Ideas)과 이해(Interests)의 역할

임 혜 란(서울대 정치학과 조교수)

Ⅰ. 서 론
Ⅱ. 이론적 분석틀
Ⅲ. 부시행정부 통상정책과 이해(interests)의 역할
Ⅳ. 부시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이념(ideas)의 역할: 클린턴 행정부와의 비교
Ⅴ. 결 론

ABSTRACT

The U.S. Trade Policy in the Bush Administration: The Role of Ideas and Interests

The study is designed to analyze the role of ideas and interests in the U.S. trade policy and to prospect the future direction of the Bush administration's second-term trade policy. In the less competitive industrial sectors such as steel industry, the lobby and pressure of domestic interests groups continues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viding same protectionist measures, regardless of different administrations. However, in the competitive industrial sectors such as automobiles and aircraft industry, ideas are an important factor in producing different trade policies. The Clinton administration pursued an aggressive reciprocalism and fair trade policy based on the strategic trade ideas and economic nationalism. The Bush administration's trade policy, however, reflects less aggressive tenets of competitive liberalization, due to its aim to strengthen the U.S. leadership in world economy through the multilateral, bilateral and regional negotiations.

Key words: U.S. trade policy, ideas, interests, neo-conservatism, strategic trade policy, competitive liberalization, fair trade, aggressive reciprocalism, economic nationalism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 관한 국제정치이론적 고찰

조 한 승(고려대 동아시아교육연구단 연구전임강사)

Ⅰ. 서 론
Ⅱ. 세력전이 모델
Ⅲ. 상호경쟁모델
Ⅳ. 청일전쟁 전후 동북아 지역체계의 변화
Ⅴ. 결 론

ABSTRACT

The first Sino-Japanese War and the Russo-Japanese War:
A War Theoretical Review

The first Sino-Japanese War and the Russo-Japanese War have greatly influenced the history of Northeast Asia. Although there are numerous studies on these events, most of them are based upon the historical description approach, and therefore, they lack the theoretical analysis. This article analyzes these two wars with war theories including power transition theory and rivalry theory. Power transition theory argues that the chance of war between dominant power and the challenger increases when relative power between them rapidly changes in the hierarchical international system. Rivalry theory posits that enduring rivalry is war prone especially when a state militarily competes against its rival for critical interests such as territorial issues. In the late 19th century, China tried to keep its hegemonic power in Northeast Asia and Japan rapidly built up the national strength since the Meiji Restoration. The hostile relationship between them escalated to major war when the relative power swiftly changed in the early 1890s. The first Sino-Japanese War would be explained with power transition theory in the regional sub-system. On the other hand, rivalry theory is plausible in the analysis of the Russo-Japanese relationship in the late 19th and the early 20th centuries, during which they struggled for the interests over Manchuria and Korea.

Key words: Sino-Japanese War (1894-95), Russo-Japanese War (1904-05), power transition theory, rivalry theory, Northeast Asia, international system, regional system

경계와 시민:
국민국가의 국경통제는 정당한가?

김 남 국(서울대 강사)

Ⅰ. 서론: 시민권과 경계의 의미
Ⅱ. 자유주의: 탈퇴의 자연권과 가입의 시민권
Ⅲ. 자유방임주의: 비공격성의 원칙
Ⅳ. 공화주의: 윤리적 실체로써 정치공동체
Ⅴ. 결론: 경계와 시민권의 두 얼굴

ABSTRACT

Citizen and Borders:
On What Grounds Can Border Control of the Nation State be Justified?

A tight border control of the nation state and the reinforcement of qualification for citizenship have often collided with the universal human rights of refugees and immigrant workers. Their situation would be worsened when we turn down arrival of those people at our gateway. Behind this control policy, most nation states assume that this is our land and that you don't belong to us. Is this assumption true? On what grounds can border control of the nation state be justified? I trace the meaning of borders and rationales of border control from the viewpoint of three normative theories, namely liberal, libertarian, and republican traditions. I explain the dilemma between democracy (that is possible only after being fixed boundary matters) and human rights (that is threatened by the borders of the nation state). This dilemma is more complicated when we realize that human rights began to be guaranteed with the emergence of nation state which has clear borders under the claim of sovereignty. In this regard, Korea is not an exception to the difficult journey in which it should strike a balance between respecting universal human rights and keeping reasonable control of borders. This mission can be achieved through fulfillment of domestic democracy, thus eventually discharge any claims against the value of borders as a physical ground of democratic political community.

Key words: borders, citizenship, nation state, border control,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non-aggression axiom

재분배의 정치와 인정(認定)의 정치

설 한(경남대 정치언론학부 강의전담교수)

Ⅰ. 서론: 다원주의와 규범정치이론
Ⅱ. 재분배의 정치
Ⅲ. 인정의 정치
Ⅳ. '재분배의 정치'에서 '인정의 정치'로?
Ⅴ. 결 론

ABSTRACT

Politics of Redistribution and Politics of Recognition

Confronted with pluralism of contemporary society, the politics of equality draws attention again as an important pending question. However, what is at issue is that two typical streams of thought on equality now tend to run largely in isolation from one another. Recent debates centering around this are represented by the politics of redistribution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or recognition. This paper aims to outline the shifting analyses of equality and examine the implications of the debate for the future of normative political theory.

Analyses of economic inequality proceed untouched by any thoughts on diversity and difference while analyses of the conditions for equal citizenship barely engage with economic concerns. Thus, normative work on economic equality runs the risk of detachment from the pressing concerns of contemporary egalitarian politics, while challenging new work on what it means for different groups to participate as equals in civil society risks forgetting that there are economic conditions for this. This paper argues that normative political theory should restore the balance between the politics of redistribution and the politics of recognition and that what is needed is to unite them by a principle of solidarity based on recognition as much as on redistribution.

Key words: pluralism, equality, redistribution, recognition, difference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주의: 한 · 중 · 일 3국을 중심으로

김 영 철(계명대 경제학과 부교수)
박 창 건(영국 셰필드대 동아시아학과 박사과정)

Ⅰ. 서 론
Ⅱ. 동아시아 지역협력 이론: 제도화된 협동
Ⅲ. 동아시아 외환위기 발생과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변용
Ⅳ.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전개 과정
Ⅴ. 한 · 중 · 일 지역주의의 특징과 평가
Ⅵ. 결 론

ABSTRACT

East Asian Regionalism after the Crisis of 1997-8: Focusing on South Korea, China and Japan

This paper reports on theoretically grounded empirical research aimed at shedding light on Northeast Asian countries' (South Korea, China and Japan) approach to East Asian regionalism. It questions the viability of institutionalised regional collaboration in East Asia. The East Asian crisis of 1997-8 was a turning point for the burgeoning campaign of institutionalized regional arrangements. This may be seen as a calculated response to the complex process of regional institutionalisation from the East Asian Economic Caucus (EAEC) to the Association South East Asian Nations (ASEAN)+3 occurred in parallel with not only the formation of monetary regionalism through Japan's policy initiatives such as the Asian Monetary Fund (AMF) proposal and the New Miyazawa Initiative (NMI), but also the emergence of trade regionalism through East Asian countries' involvements in a number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Free Trade Areas (FTAs) negotiations. These forms of regional arrangements are seen as instruments to further intensify the formation of 'institution-led' regional institutionalisation in the context of the ASEAN + 3 process.

Key words: ASEAN+3, East Asian economic crises, East Asian regionalism, institutionalised collaboration, regional integration

9/11테러 이후 미국 국제주의 여론의 지속성과 변동에 관한 실증연구

남 궁 곤(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Ⅰ. 문제제기: 9/11 테러와 미국 외교여론의 지속성과 변동
Ⅱ. 미국 외교 여론의 변동요인과 9/11 테러
Ⅲ. 9/11 테러 이후 국제주의 여론의 지속성 유지와 변화 양상
Ⅳ. 맺는말: 국제주의 외교여론과 미국 외교정책

ABSTRACT

American Public Opinion and Foreign Policy in the Post-9/11 Era

By analyzing public opinion data provided by CCFR, this study intends to explore the continuity and change of American public opinion toward foreign affairs since the 9/11 terror. It is argued that American public opinion has showed a strong trend of internationalism since the beginning of the Cold War and its aftermath. The trend of internationalism has survived the end of the Cold War as well as 9/11 terror. The 9/11 terror had a great impact on American public opinion. More American people than those before 9/11 are inclined to support the Government's measures of attack terrorists and their training camp. American peoples' perception of terror, however, rose before the 9/11 terror. Since the demise of the Cold War, American people has regarded non-traditional threats such as terror, environment, and biological weapons as the main foreign policy aims. As well as the 9/11 terror, American people have concerned about other foreign policy issues. They have supported the limited US roles in the international stage. Obviously American people have supported US interventions into international events. However, they strongly opposed to US hegemony and its police role in the international affairs.

Key words: American foreign policy, public opinion, internationalism, 9/11 terror, spectacular events

전쟁의 그늘:
베트남전쟁과 미국의 동아시아정책

마 상 윤(가톨릭대 국제학부 전임강사)

Ⅰ. 머리말
Ⅱ. 동아시아 냉전과 베트남 전쟁의 기원
Ⅲ. 미국의 베트남 개입 심화: 냉전의 주변에서 중심으로
Ⅳ. 동아시아정책의 왜곡
Ⅴ. 맺음말

ABSTRACT

The Shadow of War:
The Vietnam Conflict and America's East Asia Policy

This article examines US policy towards East Asia during the Vietnam War era as a way of putting the current war in Iraq into a historical perspective. This paper pays particular attention to the distorting effects of the Vietnam War on US policy towards East Asia at large. The basic motivation behind the US intervention into Vietnam was to contain the expansion of Communist China's influence in the East Asian region and to prevent Japan from tilting towards the Communist camp. America's ever deepening involvement in the Vietnam War during the mid-1960s, however, confused the order of things. Washington's obsession made these goals almost lost. It seemed that the war itself became the aim of the US war efforts. Meanwhile, Washington could not materialize the possibility of improving the relationship with Beijing. Also, the Vietnam war became one of the important sources which heightened tension in the US-Japan alliance relationship.

Key words: China, Cold War, East Asia, Japan, US foreign policy, Vietnam War

민주화와 복지정치의 변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김 영 순(서울산업대 교양학부 전임강사)

Ⅰ. 머리말
Ⅱ. 법제정까지의 복지정치: 시민운동의 역할
Ⅲ. 후속발전단계의 관료정치와 그 결과
Ⅳ. 토의와 결론

ABSTRACT

Democratization and Changes in Welfare Politics:
The Case of Enacting Proces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Law

This paper examines how welfare politics has changed after the democratization in Korea focusing the case of enacting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Law. Korea established a modern public assistance system with the legislation of the Law in 2000. However, it is increasingly open to doubt whether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cheme is playing its expected role. This paper argues that the under-functioning of the scheme is related to founding process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and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Law after the passage of the Law in the National Parliament. In other words, while the universalism and progressiveness of the scheme represents the influence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up to the legislation of the Law, the liberal and residual character of the practical enforcement system embodies the results of bureaucratic politics among the ministries in the administration. The political process of establishing National Livelihood Security Scheme shows, 1) that since the democratization in Korea th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became influential significantly mainly due to the underdevelopment of political parties' function of interest representation; 2) Despite the democratization, the power of the president was still decisive in decision-making in the Kim Dae-Jung government, and; 3) the developmentalist ideology is being merged with the neo-liberal idea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 the government.

Key words: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Law, civil society organizations, bureaucratic politics, democratization, welfare politics

정보화, 정당 정치와 대의민주주의: 변화 혹은 적응?

강 원 택(숭실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한국의 경험에 대한 분석
Ⅳ. 결론

ABSTRACT

Internet Politics and Its Impacts on Party System

This article explores unintended consequences of internet politics. This article mainly focuses on two questions. One is whether the Internet can 'easily' produce and nurture new political parties. The other is whether the Internet ultimately will reduce the role of political parties because it enables civil society to connect the state without relying on 'traditional channels.' Findings from South Korean experiences imply that these are not likely to occur. It is because existing parties are ready to adapt some new issues that attract much attention on the internet. However, a rise of internet politics helps political parties to be more flexible and responsive to people's demand.

Key words: internet politics, political parties, party system, Nosamo

지역본위투표와 합리적 선택이론: 공간모형 분석

문 우 진(아주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Ⅰ. 서론
Ⅱ. 기존연구
Ⅲ. 합리적 선택 해석과 분석
Ⅳ. 지역본위투표와 유권자효용
Ⅴ. 지역본위투표의 공간모형 분석
Ⅵ. 이론적 함의와 정책적 함의

ABSTRACT

Regional Voting and Rational Choice Theory: A Spatial Model Analysis

I offer a spatial model that specifies the electoral mechanism of regional voting in South Korea. In the model, if political parties' ideological positions are less distinguishable, it becomes easier for the parties to sway ideological voting decisions by regional benefits. I apply this model to explain the intensification of regional voting in terms of a less polarized party system after the democratic reform in 1987. A decrease in the ideological difference between the governing party and opposition parties after the reform led to an increase in the significance of regional resource allocation as a basis of voting decision. I also argue that the disappearance of regional voting does not necessarily lead to the emergence of ideological competition since other non-ideological factors would play a central role in voters' voting decision unless the difference in parties' ideological positions is salient. Thus, the logical solution for discouraging regional voting is to design institutions that make the difference between the parties' ideological positions more salient.

Key words: regionalism, ideology, regional voting, rational choice theory, spatial model

국회의원의 표결 요인분석: 정당, 이념 그리고 지역구

이 현 우(경희사이버대 영미학과 교수)

Ⅰ. 서론: 국회표결
Ⅱ. 전자투표의 도입과 쟁점 법안
Ⅲ. 한국적 특성과 분석틀
Ⅳ. 경험적 분석: 당파성 이념 그리고 지역구 이해
Ⅴ. 결론: 표결분석의 함의

ABSTRACT

Analysis of Member's Voting Behavior the 16th Korean Assembly

Based on the selected voting records, this paper scrutinize what factors have influence on member's voting. Party identification, constituency, and ideology are regarded as the most important three factors in the U.S. Congress. Although relative power of influence of each factor depends on the issues, those factors are consistently significant. This study also find that the status of the parties, major or opposition party, is seriously considered in voting decision. Since party leaders do not have political resource to enforce the members, they increase the autonomy to decide voting. Furthermore, it is found that members moving party are more likely to follow the new party's decision because they need to show the loyalty to the party.

Key words: members' voting behavior, electronic voting, congressional voting, Assembly

한국의 대북한 정치적 영향력 평가: 사례 비교와 원인 분석

김 근 식(경남대 정치언론학부 조교수)

Ⅰ. 서 론
Ⅱ. '영향력'에 대한 정치학적 정의
Ⅲ. 한국의 대북 정치적 영향력 행사: 사례 비교
Ⅳ. 정치적 영향력 증대의 원인
Ⅴ. 결론에 대신하여

ABSTRACT

South Korea's Political Influence over North Korea:
Comparative Case Studies and Cause Analysis

South Korea's political influence over North Korea is defined as one of North Korea's adopting South Korea's intention to some degree not by violence or compulsion but by negotiation or persuasion even if both have different preferences over political matters.

According to this definition, South Korea's political influence over North Korea has increased in proportion to expansion of both side's interaction after 6·15 inter-Korean summit. The most exemplary case is the consecutive successes of reopening interrupted ministerial talks three times after the summit. Before the summit, fertilizer-talks in Beijing were broken off each time. North Korea's expressing its regret of the Yellow Sea battle in 2002 can be also an exemplary case comparing its vigorous reaction over the Yellow Sea battle in 1999.

Deepening North's economic dependence on South, above all, resulted in increasement of South's political influence over North. Because North's disadvantage and threat of sanction were incremented if it would deny South's demand. Another factor of this increasement is both side's common policy reorientation of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rapprochement, and cooperation

after the summit. In addition to these factors, South's consistent attitudes over North based on principle and confidence also worked out North's compromise.

Key words: inter-Korean relations, political influence, economic dependence, threat of sanction

중국 국가–사회관계의 변화 연구: 사회단체의 지방의회 입법 참여를 중심으로

조 영 남(서울대 국제대학원 조교수)

Ⅰ. 서 론
Ⅱ. 국가-사회관계에 대한 기존논의 검토
Ⅲ. 사회단체의 지방의회 입법정치 참여
Ⅳ. 결 론

ABSTRACT

Changing State-Society Relations in China:
Evidences from the Participation of Social Organizations in the Lawmaking of Local Legislatures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changing state-society relations in China, focusing on the lawmaking participation of social organizations in local legislatures. First, it investigates the arguments and problems of the previous main perspectives on the state-society relations (i.e. civil society and state corporatism), and raises new approaches instead of them: legalization, and extension and disaggregation of state and society. Second, it attempts to delve into social organizations' participation into the lawmaking processes of local legislatures, based on the new approaches. These analyses show that the state-society relations have changed into more complicated and multilateral ones than suggested by the two previous perspectives.

Key words: state-society relations, local people's congresses, social organizations, lawmaking participation, legalization

화순항 해군기지 논쟁에 대한 비판적 재평가: 협력안보의 시각

양 길 현(제주대 평화연구소장)

Ⅰ. 머리말
Ⅱ. 화순항 해군기지의 이론적 쟁점
Ⅲ. 왜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 하는가
Ⅳ.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Ⅴ. 결 론

ABSTRACT

A Critical Review on the Debate of the Heavily Armed Hwasoon Seaport Project: A Perspective of Cooperative Security

This article puts forward four propositions with respect to the heavily armed Hwasoon Seaport project: First, cooperative security means the prevention of threats through promoting cooperation among the involved parties. The idea and spirit of cooperative security call for critical review of the conventional logic of security that intends to enforce the national security through the heavily armed Hwasoon Seaport. Second, in the era of post-cold war, we are confronted with terror, marine insecurity, unlawful trades of arms and drugs, sea robbers, and smuggling. These various types of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s require the comprehensive approach including military defence, diplomatic activities, economical cooperations and cultural interchanges. Third, Roh government has declared that Jeju is the island of world peace. This policy can only succeed through progressive attitudes with the consciousness being shifted from conventional view to innovative one. Creativity, openness, risk-taking and sometimes even pains would be accompanied. Fourth, in order to provide the constructive debate of the armed Hwasoon Seaport project, a comprehensive design of development is needed. The blue print of the future Hwasoon should be proposed ahead and then the necessity of armed Hwasoon Seaport must be discussed within such development plans.

Key words: cooperative security, national security, Hwasoon seaport, Jeju island of world peace

2004 미국 대선 평가와 전망: 공화당 상승세 정체와 양극화, 약화되는 일방주의의 기반

김 장 수(고려대 BK21동아시아연구단 연구전임강사)

Ⅰ. 서론: 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의와 정책 방향
Ⅱ. 부시 재선의 동력: 보수화인가 집합적 정당일체감의 장기적 변화인가?
Ⅲ. 보수화 없는 공화당일체자의 증대
Ⅳ. 일방주의적 외교정책의 걸림돌: 공화당의 불안정한 정치적 기반
Ⅴ. 결론: 정치지형과 대외정책에 대한 전망

ABSTRACT

Electoral Mandate of 2004 Presidential Election and its Prospect

The major claim of this paper is that the main force underlying Bush's reelection is the long-term shift in macropartisanship in favor of the Republican party rather than the increasing conservatives in terms of self-identified political ideology. The 2004 presidential election is also characterized by extreme bi-polarization lined up under party identification. Contrary to the conventional wisdom, the so-called "rally round the flag impact" is not observed in this election.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claimed that the long-term shift in favor of the Republican party is on its peak with downturn ahead. Taking the American-style electoral college system into account, despite Bush's reelection, his second term does not seem so

bright. It is forecasted that the second Bush administration would hesitate to follow its own footprint of unilateral approach to international issues.

Key words: U.S. presidential election, party identification, ideology, polarization

독일 민주주의의 실험과 정착:
바이마르(Weimar) 공화국과 본(Bonn) 공화국의 의회민주주의

오 향 미(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Ⅰ. 들어가는 말
Ⅱ. 두 개의 공화국
Ⅲ. 독일 민주주의의 두 유형
Ⅳ. 맺는 말:
역동적 민주주의 대(對) 온건한 민주주의

ABSTRACT

Experiment and Consolidation of German Democracy:
Parliamentary Democracy of Weimar Republic and Bonn Republic

While the parliamentary democracy introduced by the Weimar Republic has generally been perceived as the precursor of the totalitarian regime which replaced it, the one introduced by West Germany (Bonn Republic) has usually been evaluated as a consolidated democracy. However, unlike what occurred under the Weimar Republic, the West German parliamentary democracy, which focused more on these curing of political stability than on the principles of democracy, exhibited a tendency to limit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parliamentary democracy. With this in mind, the claim that the West German parliamentary democracy was more successful than that of the Weimar Republic should be reassessed. All political systems naturally pursue the attainment of political stability. However, if a dictatorship can be regarded as a more stable political system than democracy, then any analysis based solely on the concept of political stability and continuity which evaluates the Weimar Republic as a failure and the West German regime as a success is one that overlook the detailed characteristics of the parliamentary democracies introduced by the two republics. The Weimar Republic allowed a variety of political factions to join the parliament, introduced elements related to direct democracy elements such as referendums and national initiatives to take root. Meanwhile, the West German experiment with democracy was one that was oriented towards the pursuit of stability during the post-war occupation. The 5% paragraph greatly complicated minority parties' ability to enter the legislature of the Bonn Republic. Moreover, West German democracy was also characterized by such features as limits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grounds that this was needed to protect democracy; bans on the establishment if non-democratic political parties; and the exclusion of elements related to a direct democracy. However, in the end, the dynamic democracy of the Weimar Republic began to overlook the fact that respect for diversity was only possible under a democratic system and eventually came to regard democracy as a process that had lost its purpose. Meanwhile, West Germany was able to successfully consolidate its democratic system by accepting the fact that the values pursued by the political community should be placed ahead of democracy and that the achievement of these values was possible through the democratic process.

Key words: Weimar Republic, West Germany(Bonn Republic), parliamentary democracy, occupation policy, eine wehrhafte Demokratie

일본의 과거 역사인식과 야스쿠니신사 문제

조 진 구(고려대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Ⅰ. 들어가는 말
Ⅱ. 일본의 과거 역사인식의 상징으로서의 야스쿠니신사 문제
Ⅲ.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문제점
Ⅳ. 글을 나오면서

ABSTRACT

Japan's Views on the Past and the Yasukuni Problem

Yasukuni problem is core issue in relation to Japan's views on pas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vide background information and analysis the importance of the Yasukini problem. On 28 April 2001 Junichiro Koizumi pledged to make official obeisance visits to Yasukuni Shrine on 15 August, if he will be elected as President of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Japanese Prime Minister Koizumi has visited Yasukuni Shrine once a year since taking office.

Yasukuni Shrine and its supporters sees World War II as a war of self-defense to liberate Asia, and Yasukuni shrined Hideki Tojo and other Class-A criminals in 1978. Prime Minister's official obeisance is not only unconstitutional religious activity forbidden under Article 20 of the constitution, but also South Korea and China say that they cannot overlook visits by Prime Minister to a Shrine that honors the souls of the Class-A criminals. Nevertheless, Prime Minister Koizumi has visited Yasukuni Shrine to pray for future peace every year since taking office. It undermined their friendly relations and confidence toward Japan.

Key words: a view of history, Yasukuni Shrine, the Tokyo tribunal, Class-A criminals, South Korea-Japan relations

1980년대 학생운동의 이념과 민주화운동의 급진적 확산: 반미주의의 분화와 대중화전략을 중심으로

조 대 엽(고려대 사회학과 부교수)

Ⅰ. 서 론
Ⅱ. 사회운동의 이념과 전략: '대중화전략'에 관하여
Ⅲ. 민주화운동의 급진적 확산과 학생운동
Ⅳ. 반미주의 학생운동의 확산과 대중화전략
Ⅴ. 결 론

ABSTRACT

Rapid Expansion of Radical Ideology of the Student Movement and Democratization Movements in the 1980s:
Focused on the Differentiation of Anti-Americanism and Popularization Strategy

This paper aims at explaining why radical ideology of the student movement in the 1980s was able to expand quickly. This study focuses on the ideology and strategy of the movement. The student movement in Korea became more radical in the mid-1980s than any other period by the National Liberation Line's accepting Juche ideology of North Korea. In this study, the movement ideology that accepted Kim Il Sung-ism is defined as the 'dogmatic anti-Americanism.' The radicalization of the movement is explained by inherence of the ideology and the popularization strategy. It is emphasized that the dogmatic anti-Americanism was not an abstract theory, but it met students' nationalistic need by explaining current situation prioritizing our national condition. Furthermore, the movement identity was expanded by applying a concrete and active strategy that appealed to people.

Key words: student movement, anti-Americanism, dogmatic anti-Americanism, movement ideology, movement strategy

한반도 정전체제: 등장, 구조, 특성, 변환

박 명 림(연세대 김대중도서관 교수)

Ⅰ. 문제의 제기
Ⅱ. 한반도 정전 체제: 1953년 체제의 등장과 형성
Ⅲ. 한반도 정전체제의 특징과 성격
Ⅳ. 한반도 정전체제의 변환과 파열
Ⅴ. 결 론

ABSTRACT

Cold War System (=System of 1953) on the Korean Peninsula: Rise, Structure, Peculiarities, and Transformation

With the end of the Korean War, the system of 1953 has conclusively begun on the Korean peninsula. It was an actual beginning of the post-Korean War system there as a Korean completion of the global cold war. As a core of the de facto East Asian Yalta System, the system was a product of political compromise between the USA and the USSR in the process of ending the Korean War. Therefore, the system of 1953 was an outpost of the global confrontation, and also a sort of the East Asian balance of power system, not just confined within the Korean peninsula.

The system of 1953 showed the world some unique peculiarities or historical exceptionality. Firstly, it showed us relatively long stability and symmetric parity during the cold war period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Japan and China, and America and the Soviet Union. Secondly, one of the most distinctive features was so called a symbiotic antagonism or antagonistic interdependence between the two Koreas. The two divided countries surprisingly fed up each other based not on cooperation but on antagonism. It was an offspring of the mutual mirror image effect of the two. Third feature was a long continuation of the "system of cease-fire agreement" as an international modus vivendi. The long durability and stability of this modus vivendi system was so exceptional in the history of cold war.

Fourth one was a regional and international nature of the 1953 system. It was a three-folded structure in nature —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confrontation. This multi-storied architecture resulted in the relative stability and constancy. Fifth, the huge scale of the armed forces of the two divided countries. The De-Militarized Zone (DMZ) was changed into the Most-Militarized Zone (MMZ) in the world. Due to the scale of the forces in a narrow territory, no one could start the war to break the 'international' demarcation. Finally the continuation of the inflexible bilateral relations among the related countries was also a very unique feature in Northeast Asia. There has been no one collective security or multilateral organization there during the cold war era. All of the other regions have had the regional collective defense organizations or communities. I named this uniqueness as a "Northeast Asian exceptionalism."

With the demise of the socialist bloc, the cold war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was greatly changed, but not fundamentally. First of all, the global cold war as a cause of the Korean division came to an end. Especially South Korea normalized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two patron countries of the North, China and Russia. Therefore the foreign relations of the two were significantly transformed from symmetric to asymmetric ones. The beginning of the multilateral talks on the Korean problem, for example 6 party talks for North Korea's nuclear weapon issue, was also a great change in the post-cold war era.

On the dimension of inter-Korean relations, striking growth of the inter-Korean visiting and economic cooperation after the June Summit in 2000 demonstrated the gradual demise of the cold war system there. On the functional-institutional level of managing and supervising the cease-fire agreement, after the collapse of the cold war it was almost completely collapsed. Except only the article of military demarcation line, almost all of the agreement have not been and not being observed by the two Koreas. On this level, it did not work any longer. On the internal dimension, as viewing from the moderate North Korea policy and the making of Law of inter-Korean Relations Development of South Korea, the cold war mentality and system of dichotomy s being gradually fallen down. Democrat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of South Korea initiated the structural change of the cold war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Key words: system of 1953 (cold war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modus vivendi, three-folded structure, symbiotic antagonism, East Asian balance of power system, Northeast Asian exceptionalism, gradual demise of the Korean cold war system

한반도 평화체제:
남북한의 구상과 정책 비교검토

전 재 성(서울대 외교학과 조교수)

Ⅰ. 서 론
Ⅱ. 북한의 국가전략과 평화체제 구상의 변화
Ⅲ. 한국의 대북 정책과 평화체제 구상의 변화
Ⅳ. 남과 북의 평화체제 구상의 함의
Ⅴ. 결론: 현재에 주는 함의

ABSTRAC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Comparative Analysis of Two Koreas' Policies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draws increasing attention since the 9.19 joint statement in conclusion of the fourth Six-Party Talks was issued. The main reason for the failure of establishing the durable peace regime on the Peninsula lies not in the defects of ideas and proposals, but in the lack of genuine intention of two Koreas in peace negotiations. This article tries to refresh the approach to peace regime under new situation defined by post-Cold War, South Korea's engagement policy toward the North, and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Analysis of the past peace negotiation illustrates several implications. First, two Korea's peace proposals and policies have been instrumental in achieving purposes of respective national security strategies. Second, each peace proposals have been very sensitive to changing balance of power surrounding the Peninsula. Third, two Koreas have been also very reflective of changing balance of power between them. Fourth, two Koreas changed their positions of aggressiveness and passivity due to changing power distribution. In the Cold War period, North Korea had been very aggressive in advancing peace initiative, whereas the South became more positive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To achieve positive peace on the Peninsula aiming at the eradication of structural and indirect violence, a more holistic approach will be necessary based in the reflection of past failures and future possibilities.

Key words: peace regime, non-aggression pact, North Korean nuclear crisis, 9.19 joint statement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문화, 시민사회

김 귀 옥(한성대 교양과 교수)

Ⅰ. 머리말
Ⅱ. 평화문화와 냉전문화
Ⅲ. 평화 주체로서의 시민사회와 평화운동
Ⅳ. 맺음말: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

ABSTRACT

Peace Culture and the Movement in Civil Society to Establish the Korean Peace Regime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plain the endeavor on the level of civil society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peace regime. It also aims to focus how to dissolve cold war culture originated from Korean Division and the Korean War and how to construct peace culture.

First of all, I examined the concept and content of peace culture, and investigated the contemporary history and the results of cold war culture. And then I tried to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l society and peace culture and to examine philosophical foundation, orientation, and the progress of the movement. Lastly I tried to propose the conditions and way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peace regime from the viewpoint of civil society.

Key words: Korean Peace Regime, peace culture, peace movement, civil society, cold war culture, Korean Division, Korean War

한반도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

박 종 철(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Ⅰ. 머리말
Ⅱ. 한반도평화체제에 대한 남북한, 미국의 입장
Ⅲ. 한반도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추진 구도
Ⅳ. 한반도평화체제의 단계적 추진
Ⅴ. 맺음말

ABSTRACT

Denucleariz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joint statement of the four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held Sept. 19, 2005, was a comprehensive agreement that included denuclearization as well as related issues such as security assurance and the provision of energy and economic assistance to North Korea,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and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 a separate forum will discuss a permanen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ccording to the fourth clause of the joint statement, the peace regime is related to the process of denuclearization.

Denuclearization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require the mutual coordination of the two issues. This is an alternative to the contrasting views of the U.S., which wants denuclearization first, and North Korea, which wants the peace regime. It will be a gradual progression of denuclearization, the peace regime and diplomatic normalization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at each stage.

Against this backdrop, the peace regime will develop based on three channels. First, inter-Korean meetings will discuss a general approach to arms control. Second, the peace forum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discuss the contents of the peace treaty and its management. Third, the six-party talks will guarantee the peace regime on the peninsula.

The peace regime should be pursued based on the following principles: the two Koreas are members of the directly related parties, the conclusion of the peace treaty and arms control is implemented in a parallel manner, a flexible approach is used in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and its management and the peace regime is a multiple-step process that combines inter-Korean dialogue, the peace regime, the six-party talks and U.S.-ROK consultation.

The peace regime must go through three stages. The first stage is the preliminary stage in which a general approach as well as North Korea's return to the NPT and the IAEA and U.S.-DPRK contacts will be discussed during the inter-Korean military meeting. The peace forum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also hold four-party talks consisting the two Koreas, the U.S. and China. In the second stage, in accordance with the inspection and dismantlement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and facilities,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and arms control will proceed through the four-party talks and the inter-Korean military meeting.

In the third stage, during the completion of the dismantlement of the North's nuclear program and diplomatic normalization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the international guarantee and management mechanism of the peace regime will be resolved in addition to the implementation of arms reduction.

Key words: denuclearization,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six-party talks, U.S.-DPRK diplomatic normalization, dismantlement of nuclear program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체제: 이상과 현실

류 상 영(연세대 국제대학원 조교수)

Ⅰ. 문제제기
Ⅱ. 남북경협: 협력 및 개발을 통한 평화
Ⅲ. 남북경협의 진전과 경제의 상호의존
Ⅳ. 남북경협과 북한의 경제특구: 개성공단 사례에서 본 군사와 경제 관계
Ⅴ. 남북경협 촉진과 평화체제 구축: 기회와 제약
Ⅵ. 결론: 평화체제의 경제적 기초로서의 남북경협

ABSTRACT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Ideals and Realities?

"Greater interaction and cooperation will create peace."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in North Korea is a symbol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can play a critical role in enhanc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Since economic cooperation is not simply an economic issue, but also has direct connections to military and political security issues, political uncertainties and the potential damages that North Korea could inflict on the Gaeseong Complex cannot be underestimated. Under any scenario, South-North Korea economic cooperation is expected to be the factor that build and consolidate th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South-North Korea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re national projects designed to enhance peace and to build economic regionalism through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East Asia.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has been relatively smooth and allowed for positive outcomes, such as the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and irreversible increases in exchange and cooperation in other areas. Military tension has also eased as a result of recent economic cooperation. Economic regionalism with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t the core has exerted positive influence, albeit gradually, to establish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Key words: South North economic cooperation, peace regime, development, Gaeseong special economic zone, East Asia regionalism

군비통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선순환 관계를 위한 제언

한 용 섭(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소장)

Ⅰ. 서 론
Ⅱ. 유럽의 군비통제의 분석과 교훈
Ⅲ. 한반도에 알맞은 군비통제 조치
Ⅳ. 군비통제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선순환관계를 위한 전략
Ⅴ. 결 론

ABSTRACT

Arms Control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For a Positive Relationship

The cold war structure and armistice regime are continuing for more than five decades on the Korean Peninsula. To disconnect the vicious circle between arms race and the cold war structure, the arms control process should begin now. In Europe, the cold war structure and arms race had been as tense as o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European countries led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former Soviet Union succeeded in the confidence building process through participating in 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actively, whereas NATO and WTO engaged the mutually balanced force reduction talks to be overtaken by the CFE process later for a bigger success.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trilateral arms control negotiation channel in which South Korea,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an

discuss military issues on a regular basis. South Korea should organize her arms control agency directly under the President, Arms Control bureau in the Foreign Ministry, and Arms Control Verification Bureau in the Defense Ministry. Through mutual cooperation among three agenci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design arms control strategy to promote and succeed in the arms control process with North Korea. Since the Korean arms control process entails North Korea and the ROK-US alliance to adapt to new situations,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need to launch joint study team and devise joint arms control strategy. On negotiating with Pyongyang, Seoul should take a flexible strategy and expand list of arms control measures by offering economic aids to Pyongyang on condition that North Korea relocate its forward deployed military bases to the rear area. South Korea also needs to support the epistemic community of arms control within South Korea as a way to promote peninsula-specific and regional arms control in Northeast Asia.

Key words: arms control, CSCE, MBFR, CFE, epistemic community, grand bargain, arms control strategy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 전략

박 건 영(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Ⅰ. 연구목적
Ⅱ.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다자간 안보협력 간의 관계
Ⅲ. 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의 현황과 전망
Ⅳ. 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의 제도화를 위한 한국의 전략
Ⅴ. 결 론

ABSTRACT

Korea's Strategy for Institutionalizing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 a Means to Construct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Peaceful unification of two Koreas, one of the primary national objectives in South Korea, should be pursued on the basis of the permanen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process of building such a peace regime can proceed at various levels and in various manner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is one viable alternative. It not only effectively promotes Korea's security interests but also helps it capitalize on its comparative advantage over other nations in the region. Korea must reflect upon the meaning of cooperative security in Northeast Asia in the context of its security strategy for the 21st century. Then it has to set up a carefully organized course of action by period (ex. mid-term, long-term), level (ex. military, political, cultural), and sector (ex. public, private). Finally it should put this into practice in a systematic and coherent way. Options available to it include the joint management by Korea and the U.S. of the strategic flexibility of the U.S.F.K., pursuing a Northeast Asian 'Nation of the Golden Mean,' and peace-networking of civil societies in Northeast Asia, to name a few.

Key words: peace regime, peace treaty, arms control,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power politics, cooperative security, OSC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generational change in P.L.A., strategic flexibility of the U.S.F.K., nation of the golden mean, peace-networking of civil societies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미동맹

이 상 현(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Ⅰ. 서 론
Ⅱ.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국내외 시각과 미국의 입장
Ⅲ. 평화체제와 한미동맹의 쟁점
Ⅳ. 과제 및 전략

ABSTRAC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ROK-U.S. Alliance

Th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consists of three aspects. A legal aspect of the peace regime is to replace the armistice treaty with a peace treaty among related parties. A military-political aspect of the peace regime includes achieving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on the Korean peninsula. An international aspect of the peace regime includes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among the United States, Japan, and both Koreas.

Once the negotiation over the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gets into strides, a number of issues will be raised regarding Korea-U.S. alliance. First, if the peace regime means replacing the armistice treaty with a peace treaty, then the status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and Combined Forces Command should be changed. Both Korea and the U.S. should reach a consensus on the future shape of ROK-U.S. combined defense posture. Second, wartime operational control should be returned to Korea. It is natural that Korea should get it back, but it must be returned to Korea at the right time and under right conditions. Third, strategic flexibility of the USFK can cause troubles with neighboring nation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in the long term. The United States and Korea should work out detailed guidelines regarding the criteria and conditions of mobilizing USFK under strategic flexibility.

Key words: peace regime,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Korea-U.S. alliance, issues in ROK-U.S. alliance, combined defense posture, wartime operational control, strategic flexibility

한반도평화협정의 쟁점: 주체, 절차, 내용, 평화관리 방안

백 승 주(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

Ⅰ. 문제제기
Ⅱ. 평화체제와 평화조약의 상관관계
Ⅲ. 평화협정의 형식 및 논의 구조
Ⅳ. 평화협정 내용 관련 쟁점
Ⅴ. 결 론

ABSTRACT

Key Issues and Choices Concerning on the Peace Treaty on the Korean Peninsula

Concluding a peace treaty can not be considered the equivalent of constructing a peace regime, although the former does have important methodological value in the construction of the peace regime. Debates of th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have discussed place intermittently since the 1960s, but it was in the later half of 2005 that lively discussions concerning issues such as its relevance to the cease-fire agreement, the concerning parties and framework of the peace system, and the problems revolving around the US troops in Korea, other issues started to take place.

Although the contents of the cease-fire agreement have great relevance to constructing the peace regime, there is little need to state such facts as problems may rise due to the amendment procedures stated in the cease-fire agreement. In relation to the concerned parties, those who may be involved in potential engagements in the future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rather than being bound by those who engaged in combat during the Korean War. Considering all future prospects, South Korea, North Korea and the U.S. must be closely examined.

As to build a concrete framework, South-North Korea Peace Forum for the two Koreas, and the Korean Peace Forum with the U.S. and China joining should be simultaneously established. The issues of peace manag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dealt with in the South-North Korea Peace Forum, while issues concerning the maintaining and securing of the peace system should be discussed through the Korean Peace Forum. Considering that the peace system should be recogniz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hina and the U.S.'s participation is highly guaranteed. While the US troops in Korea should not be subjected to negotiation of any kind, including the statement that the status of the foreign troops may not be used to change specific conditions may be considered for the symbolic value that it projects. Issues such as war responsibility and post-war settlements should not be considered on the agenda.

The conclusion of the peace treaty is merely a means to an end. Securing a permanent peace regime may only be possible through military confidence-building between the concerned parties, not the peace agreement itself. Therefore, the peace treaty should not be considered as the conclusion, instead there should be efforts to stabilize the poli-military conditions through the peace regime.

Key words: peace treaty on the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peace forum, cease-fire agreement

정당경쟁과 한국 지방선거의 구조화

황 아 란(부산대 행정학과 조교수)

Ⅰ. 서 론
Ⅱ. 지방선거에서의 정당: 참여와 경쟁
Ⅲ. 정당경쟁과 지방선거의 구조화: 변화와 지속
Ⅳ. 결 론

ABSTRACT

Party Competition and its Impact on Local Elections in Korea

Political parties have strong impact on local elections in Korea. The electoral results are heavily influenced by the national politics rather than the local ones. Although the competition among political parties shapes various aspects of local elections, it receives little attention in academic literature. It seems to be the case that it is so obvious that it tends to be overlooked, yet the notion of party competition needs to be further specified conceptually and subject to empirically tests designed to help understanding the local elections as well as a linkage between the national and local politics. This study contends that the local elections are structured by the party competition. It is supported by the analyses of its impact on the issues, voter participation, and the vote choices in local elections. It also argues that party competitiveness was one of the major forces in bringing about the more frequent of party primaries in the candidate selection process for the 2002 local elections.

Key words: political parties, party competition, regionalism

사이버커뮤니티와 정보접근, 그리고 정치참여: 17대 총선과정에 나타난 인터넷의 정치적 효과

조 성 대(한신대 국제관계학부 부교수)
정 연 정(배재대 행정학과 조교수)

Ⅰ. 머리말
Ⅱ. 사이버공간과 정치참여에 대한 이론적 검토
Ⅲ. 가설, 데이터, 조작화, 그리고 경험분석 모델
Ⅳ. 경험분석결과 Ⅰ: 인터넷과 정보접근
Ⅴ. 경험분석결과 Ⅱ: 인터넷과 정치참여
Ⅵ. 맺음말

ABSTRACT

Cybercommunity, Information Acces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The Political Effects of Internet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This paper deals with the inconclusive controversies between mobilization theory and reinforcement theory in the field of cyber-politics. In contrast to the existing literature which operationalize the mere use of internet as the dummy independent variable in groping for the political effects of internet, this paper focuses on which conditions of internet would enhance citizens' political activities. For this purpose, we classify the internet environment into three conditions, i.e., the amount of internet use, cyber-community activities, and political characteristics of cyber-community. We also analyze the influences of these conditions on the citizens' access to political information and their political participation. Using the survey data of the 17th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ion and logistic regression method, this paper finds that the frequency of internet use increases the access to

political information, and that (political) community activities rather than mere use of internet enhance political participation.

Key words: internet, cyber-community, access to information, the 17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협력 발전방안

길 병 옥(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 전임강사)

Ⅰ. 서 론
Ⅱ.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Ⅲ. 평화체제 구축방향 및 전제조건
Ⅳ. 남북협력 발전방안
Ⅴ. 결 론

ABSTRACT

Establishment of the Korean Peace System and Development Plans for the South-North Cooperation

Salient issues in Northeast Asia are related to the maximization of national interests and diplomatic influence as well as interdependent cooperative relations in the process of making a peac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Generally, to facilitate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relatively convenient economic measures are to be preconditioned for the promotion of institutionalized multilateralism. However, academic controversies range from the conceptual matters to the specific ending point of the peace system. From the long-term perspective, the direction and principles are set, but detailed processes and methods are not yet shared. Examples include roles of participants and problems vis-à-vis dismantlement of the UN Command, ROK-US alliance, arms control, and contents of the roadmap establishing peace system.

This inquiry contends that finding reactive measures responding to the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are not the way in establishing the peace system. Expansion of cooperative measures into the various field between the two Koreas is the better alternative for the concrete results. South Korea needs to intensify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cooperations, bilateral alliance system, multilateral security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and multilateral dialogues in Northeast Asia.

Key words: peac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south-north exchange and cooperation, economic assistance toward North Korea, bilateral and multilateral aid,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multilateral cooperative network in northeast Asia

한국의 FTA 정책결정과정

최 태 욱(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부교수)

Ⅰ. 들어가는 글
Ⅱ. FTA 정책결정과정 접근법
Ⅲ. FTA 정책결정과정상의 주요 행위자와 제도
Ⅳ. 나가는 글

ABSTRACT

South Korea's FTA Policy-making Process

Since the late 1990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been very actively pursuing for an 'FTA-expansion strategy' to conclude FTAs with as many countries as possible. Regarding the South Korean FTA policies, this study addresses following questions: who are the main actors in the process of the FTA policy-making; what are the main problems in the process; and what would be the essential solution to the problems. The approach this study takes to the FTA policy-making process is the so-called 'domestic political approach,' which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such domestic factors as interest groups and political institutions. It is true that an FTA is a foreign economic policy, But it is also true that decision-making process and implications of an FTA policy is more likely domestic rather than foreign in its character. This is the main reason of choosing the domestic political approach. The most serious problem this approach finds out in the South Korean FTA policy-making process is the lack of institutional mechanisms which could check and restrain the government from playing alone and monopolizing the policy process. In particular, the problem of South Korean political parties' incompetency is very serious. They are not well performing their primary function, which is to link the society to the government. The essential solution suggested is to reform electoral rules and 'structuralize' the party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ideology and/or the policy basis.

Key words: FTA, FTA policy-making process, domestic political approach, electoral reform, party system

반응국가로부터 지역패권 국가로?: 패권체제의 변화, 경제위기 그리고 일본 대외경제정책

김 기 석(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들어가는 말
Ⅱ. 일본 대외금융정책의 기본틀
Ⅲ. 1990년대 일본 대외금융정책의 전개: 지구적 리더십 공유의 노력
Ⅳ. 아시아 경제위기와 지역 리더십 정책
Ⅴ. 나오는 말

ABSTRACT

From A Reactive State To A Regional Hegemonic State?:
Changes in Hegemonic System, Economic Crisis, and Japanese Foreign Economic Policy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analyze the nature and aspects of Japanese foreign economic policies during the 1990s utilizing the three intertwined hypotheses: proactive, Asianization, and multilateralism. Area of interest is Japanese international policies in the financial sector. Post-war Japan, which had maintained neo-mercantilist policy stances as well as intended isolation from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emerged as the largest creditor country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after the Plaza Accord in 1985, along with its growth as the second largest economic system in the world during the 1980s. The main argument of this article is that, as a result, Japan actively began to seek influences that conformed to its international status, and particularly, tried to initiate the restructuring of the Asian financial order in a variers of systematic ways including the enhancement of multilateralism.

Key words: reactive state, regional hegemonic state, Japanese foreign policy, Japanese international financial policy

동북아체제구조 측면에서 본 한국의 '동북아중재자' 역할

송 백 석(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Ⅰ. 머리말
Ⅱ. 체제형태와 평화의 상관관계
Ⅲ. 동북아 구조와 체제의 변천
Ⅳ. 동북아체제와 북한핵 갈등
Ⅴ. '동북아중재자'의 조건
Ⅵ. 맺는말

ABSTRACT

The Possible Role of South Korea as a Mediator in View of the System Structure of Northeast Asia

This paper reviews the possibility of the balancer role by South Korea in Northeast Asia and argues that the country can play the balancer role if the role is confined to a mediating role in Northeast Asia.

Since the South Korean president Roh Moo Hyun announced in early 2005 that the government would adopt the policy pursuit toward "balancer" role in Northeast Asia, there appeared a widespread concern that such a policy was inappropriate given the nation's position in Northeast Asia and would only be problematic for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Critics argued that Seoul can not play the role of an independent arbitrator, i.e., "balancer" in Northeast Asia, saying that a self-proclaimed balancer without corresponding power can be little more than a regional orphan.

However, the adoption of a joint statement in September 2005 by the six parties in the talks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offered a possibility that South Korea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shaping international politics in Northeast Asia. South Korea successfully played the role of a mediator in forging out the joint statement by the six countrie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possibility of the balancer role by South Korea and argues that the country can play the balancer role as long as the role is confined to a mediating role in Northeast Asia. The role of a genuine balancer — that is, the role of a regulator in Northeast Asia can be played only by the United States which serves not only as a deterrent to another conflict in the Korean peninsula but as a balancer to check the rise of China's hegemony, Japan's militarism and a possible revival of Russia's expansionism.

This paper justifies the mediating role of South Korea in view of the unique aspect of bi-multipolarity in the system structure of North East Asia.

Key words: bi-multipolarity, mediator, Northeast Asia, system structure, regulator

러시아와 동북아 지역협력: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장 덕 준(국민대 국제학부 부교수)

Ⅰ. 서 론
Ⅱ. 러시아의 대내외 에너지 정책과 전략
Ⅲ. 러시아와 동북아 국가간 에너지 협력의 현황
Ⅳ. 동북아 지역에 있어 다자적 에너지 협력을 향한 시도
Ⅴ. 결 론

ABSTRACT

Russia and North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With Focus on the Energy Sector

This paper aims at weighing the possibilities of regional cooperation and its prospects in Northeast Asia (NEA) by analyzing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in energy cooperation in the NEA region. In so doing this paper sheds light on energy policy of Russia, the only supplier of energy resources in the region, and its relationship with other NEA countries with regard to energy issues. Above all, Russia's lukewarm attitudes toward regional energy cooperation are, to a large extent, driven by the structure of energy market in the NEA region. That is, because of the market structure of "monopolistic supply and competitive oligopsony," Russia's motivations for actively pursuing cooperation with other NEA countries in the energy sector are not so strong. And since the Russian government is intent on increasing its own control over the energy sector, Moscow prefers bilateral cooperation to multilateral one with consumer countries. Further, Russians try to maximize their interests by rendering the conditions for cooperation comprehensive and ambiguous. Such attitudes and tactics were epitomized in the projects of East Siberian natural gas and petroleum pipeline projects. Given such a complicated situation, it is not likely that multilateral energy cooperation in NEA will be realized in the forseeable future.

But we have recently witnessed that cooperative efforts among NEA countries including the sharing and swapping of petroleum reserves began to appear. And discussions about the shaping of multilateral energy cooperation in the NEA region are in progress. While such process requires enormous efforts and will take quite a long time, multilateral cooperation in the energy sector is conducive to the development of a more comprehensive regional cooperation in the NEA region.

Key words: energy cooperation, regional cooperation, energy security, Putin, Russia, Northeast Asia

중국의 주변외교전략과 대아세안 정책

윤 덕 영(조선대 정치외교학부 시간강사)

Ⅰ. 들어가는 말
Ⅱ. 중국의 주변외교전략의 제기 배경
Ⅲ. 중국의 주변외교전략의 특징과 주요 내용
Ⅳ. 중국의 대아세안 정책
Ⅴ. 맺는 말

ABSTRACT

China's Neighboring Diplomacy Strategy and the Policy toward ASEAN

Along with China's rapid economic growth, the rise in China's position and influence in the international arena has attracted considerable attention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In particular, China's omni-directional diplomacy concerning regional international agendas is becoming to constitute an important variable in analysing international relations not only of Northeast Asia but Asia-Pacific region in general. In terms of directions of diplomatic efforts, China's foreign policy can be classified as consisting of those with Western developed countries, neighboring nations, developing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hile the focus of China's diplomacy during the early phase of the reform period resided in improving ties with Western developed countries so as to promote the acquisition of capital and technology, the drastic change in international and domestic environments since the "Tiananmen incident" and the end of the Cold War has induced the focus to shift gradually to neighboring diplomacy. In particular,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China, under a motto of "responsible large country," have extended its efforts to strengthen bilateral relati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and actively participate in regional multilateral diplomatic arena, through which it strives to construct new international order. This paper reviews the background for bringing about and the main contents of China's neighboring diplomacy and examines the diplomatic policy toward ASEAN, which are regarded as typical representation of the former.

Key words: China's foreign strategy, neighboring diplomacy, Asia, ASEAN, responsible large country

중국의 '한류' 수용과 저항:
중국 문화정체성의 국제문화관계학적 함의

윤 경 우(국민대 국제학부 조교수)

Ⅰ. 한류를 둘러싼 기존 담론의 검토와 문제제기
Ⅱ. 서구문화의 글로벌화와 중국 문화의 정체성
Ⅲ. '한류(韓流)'의 정체성과 중국의 '한류' 수용
Ⅳ. '한류'에 대한 저항과 '중화(中華)' 민족주의 정체성의 재구성
Ⅴ. 결 론

ABSTRACT

Korean-Wave, anti-Korean Wave and Politics of Identity in China

As technology is sweeping away cultural boundaries, the spread of Western values, norms, and beliefs tends to change the perceptions and dreams of ordinary citizens and to promote Western lifestyle in the non-Western world. Broadly speaking, two perspectives can be discerned in reaction to globalization: the one that local cultures are inevitably to fall victim to this global consumer and the other that globalization is to create a wold of multiple and shifting identities. China is caught into a dilemma how to strike a balance between maintaining her cultural identity on the one hand and absorbing changes associated with a globalizing world.

Acculturation takes place often depend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culture that is receiving the new traits and the culture of their origin. When alien culture traits diffuse into a society on a massive scale, the culture of the receiving society can be changed. However, acculturation does not necessarily result in new, alien culture completely replacing old indigenous ones. The new traits may be blended with or worked into the indigenous cultural patterns to make them more acceptable. The change tend to depend on the strategies of the receiving society where individuals make determination about maintaining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the amount of contact needed with dominant group members to obtain a suitable means of adaptation.

The spread of the 'Korean Wave' in China is allowed is related to the has the hybrid nature of South Korean culture. South Korea traditionally received culture, especially from China, but also and the United States. Since China is reluctant to receive American and Japanese cultures directly, the 'Korean Wave appeared more palatable to Chinese. In fact, South Korea is acting as a 'filter' for Western values. South Korean soap operas tend to show Confucian-rooted values in their emphasis on both a reminder of what was lost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and an example of an Asian country that has modernized and retained its traditions. Politics also seem to underlie the Chinese preferences for South Korean-filtered American culture. Until recently, Chinese government bureaucrats perceived that the 'Korean Wave with Confucian values could bring political advantages for them to maintain social order under the leadership of Chinese Communist Party. They also expected that the 'Korean Wave might be fade away sooner or later.

As the 'Korean Wave' of cultural exports is rolling across China, however, 'the anti-Korean Wave' is spreading throughout Chinese cyberspace, mainstream state-run press, and academics. As the trend takes greater, the anti-Korean wave must strictly be among government bureaucrats. Chinese government does not seem to see the Korean Wave just as a way of spreading its culture. So, it is time for South Korea to contemplate what is the proper strategy to react to the 'anti-Korean Wave' movement rooted in Chinese nationalism.

Key words: Korean wave, anti-Korean wave, Korean soap opera, globalization, regionalization, hybridization, acculturation, cultural identity, nationalism

북한 미사일 사태와 한반도 평화

조 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Ⅰ. 머리말
Ⅱ. 북한 미사일 발사: 돌파전략
Ⅲ. 미사일 발사의 후폭풍: 유엔과 국제적 대북제재
Ⅳ. 한반도 평화와 미국
Ⅴ. 맺음말

ABSTRACT

North Korean Missiles and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s July 5 multiple missile firing was seen as a serious threat to the peace and security i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Northeast Asian region. North Korea aimed, among other things, to find a way to get through the US financial sanctions. While China is widely regarded as the country able to exert an influence on North Korea, it worries about the possible collapse of North Korea that in turn leads to high tension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The US sees making any concession to North Korea as undesirable, because it may give ill message to Iran. Three types of scenarios can be in order regarding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Scenario Ⅰ assumes the situation where international pressure on North Korea is strengthening. In this case, no deal could be made while tension is increasing. Scenario II posits some kind of 'regime change' in North Korea. In this scenario, the US and China may strike a big deal on North Korea. Scenario III seeks to achieve 'regime evolution' in North Korea. It is likely that 'North Korean problem' is treated between Scenario I and Scenario II.

Key words: missile firing, US financial sanctions, nuclear weapons program, international pressure, regime change, regime evolution

북한 내각의 경제적 역할과 당정관계

김 갑 식(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이 무 철(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Ⅰ. 서 론
Ⅱ. 경제위기와 내각책임제의 강화
Ⅲ. 내각책임제의 강화와 당정관계
Ⅳ. 내각책임제의 한계
Ⅴ. 결 론

ABSTRACT

The Cabinet's Economic Role & Party-Government Relationship in the North Korea

This article analyzes official principle and position about the North Korea Cabinet's economic role and party-government relationship in economic administration sphere by focusing on the North Korea's official documents. This article also evaluates realization of N.K. leadership's purposes.

N.K. has loosened the principle of 'party guidance of economic administration sphere' for economic reconstruction, It, on the contrary, has strengthened 'cabinet responsibility.' These changes are the rational, inevitable choice of N.K. leadership who have been awake to grave reality. Their intention is to guide economy 'plan-rationally' instead of subjugating economy to politics.

N.K. has been trying to weather its comprehensive economic crisis in the 1990s. Party cadres surpassed economic bureaucrats in the past. Nowadays, however, party-secretariats give hands to economic managers for the latter's business activities. This can be called 'economization of politics.' In addition, a lot of reformative policies have been introduced to support 'cabinet responsibility' legally and institutionally. The vertex of leadership, Kim Jung-Il, also has trust in economic bureaucrats deeper than ever. However, the limitation of 'cabinet responsibility' is still prevailed because of 'anarchy of planned economy,' economy management system which institutionally guaranteed party intervention in economic activities.

Key words: The Cabinet Responsibility, party-government relationship, anarchy of planned economy, economization of politics, bureaucratic dominance

동아시아 거버넌스에 대한 문헌연구

김 의 영(경희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Ⅰ. 들어가면서
Ⅱ. 거버넌스의 개념 논의
Ⅲ. 한국 학계의 거버넌스 연구현황
Ⅳ. 동아시아의 국내정치적 거버넌스
Ⅴ. 동아시아의 국제정치적 거버넌스
Ⅵ. 이론적 합의

ABSTRACT

East Asian Governance:
A Literature Review

Governance has been extensively discussed as a new paradigm in the era of globalization. Based largely on a review of Korean literature on East Asian governance at the national and regional level, this study analyzes the existing literature and assesses the applicability of the theory of governance to the East Asian region. For the background information of this study, the paper first discusses the concept of governance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more efforts to refine the concept. It then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governance study in South Korea by conducting an internet-based analysis of the existing governance literature.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on East Asian governance in the main par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governance theory is applicable and useful to East Asian studies even if the region apparently seems to be a hard or least likely case for the theory.

Key words: governance, regional governance, East Asia, civil society, NGO

동북아 도시의 성장전략과 거버넌스 비교연구: 부산 · 오사카 · 상하이를 중심으로

박 재 욱(신라대 행정학과 부교수)
강 문 희(부산대 행정학과 조교수)
정 해 용(신라대 중국학과 부교수)

Ⅰ. 서 론
Ⅱ. 이론적 동향과 비교의 틀
Ⅲ. 도시 성장위기와 혁신전략의 도출
Ⅳ. 도시혁신의 정책수단과 혁신성과
Ⅴ. 결 론

ABSTRACT

Urban Growth and Governance of Northeast Asian Cities:
A Comparative Study of *Busan*, *Osaka*, and *Shangha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duce a primary reference for the classification of modes of urban governance by comparatively illustrating three major East Asian port cities (*Busan, Osaka, and Shanghai*). These three cities have shared similar experience of crisis in urban growth during the 1990s, and tried to revive their economy through carrying a series of urban innovation and restructuring the mode of urban governance. This study examines different features of urban governance among those three cities by comparing how each city struggled to overcome its economic crisis.

Our analysis reveals some notable features of each city. In case of *Busan*, it gradually institutionalizes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 and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 as well in response to the central government policy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Concentration on strategic industries and emphasis on partnership with civil sector in the process of policy formation are the new scenes in *Busan* during recent years. But it seems that the cooperative culture has not settled down yet in *Busan*. *Osaka* seems to have developed a more full-fledged structure of urban governance through bottom-up process of policy formation. More vivid interaction among different urban actors, bottom-up process, and regional cooperation in wide area are noted in Osaka. In case of Shanghai, local government is found as the powerful engine to pursue urban development. Features of managerial governance and "growth coalition" between government-business sector stand out. Namely, *Shanghai* may be marked as a closed system of urban governance which is led by top-down process.

Key words: *Busan, Osaka, Shanghai*, urban growth, urban innovation, urban governance

한국 국제정치이론의 발전과 반성: 이론과 역사의 만남

함 택 영(북한대학원대 교수)

Ⅰ. 머리말
Ⅱ. 미국과 한국의 국제정치학
Ⅲ. 한국 국제정치학의 발전과정
Ⅳ. 한국 국제정치이론의 반성
Ⅴ. 맺음말

ABSTRACT

Theory and History in 'Korea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As historical science, social sciences are ideology as well as science. Since men are not free from interests and power, their consciousness is determined by their social being. The post-war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s the hegemonic project of the United States for the management of world order. It is the American "problem solving" theory. Yet the mobilization of active consent to this intellectual hegemony is based upon the universalistic appeal of positivist social sciences. The "Korea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s the problem solving theory for the Korean people and, as such, should be based on "critical theory" against the problem solving theory of somebody else. Critical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requires a wholistic conception of the totality of the state and society, or the restoration the critique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by eliminating the artificial separation of politics and economics. The search for the Korea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s only possible through the convergence of both universalism and historicism-particularism. At the current stage of development, it requires historical sociology approach where international relations as positivist social science and diplomatic history as historiography meet.

Key words: theory, international relations (IR), IR research in Korea, (neo-)realist theory, revisionist theory, critical theory, historical sociology (in IR)

동아시아 국제질서 성격에 관한 일고: '대분단체제'로 본 동아시아

이 삼 성(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Ⅰ. 문제의 제기
Ⅱ.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개념: 케네스 왈츠와 그 비판적 보완
Ⅲ.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형성
Ⅳ.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구조
Ⅴ. 탈냉전시대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지속과 그 원인
Ⅵ. 동아시아질서와 한국의 위치: 지정학적/역사심리적 중간자
Ⅶ. 맺음말

ABSTRACT

A Study on the Nature of East Asian International Order:
East Asia as a System of Grand Division

This essay attempts to clarify the nature of the East Asian international order through the conceptual framework of 'East Asian Grand Division.' Many analysts made efforts to understand the absence of a genuinely comprehensive multilateral institutions in East Asia, in contrast to what have been progressing in Europe over the last decades. In this essay, I tried to go one step further and analyse the existence of a divisive mechanism which amounts to 'a grand division' among the nations of the region, which includes the United States, along the seashore line to the east of Chinese mainland.

This divisive structure originally stemmed from the historical process of wars and violent genocidal tragedies that took place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the middle of the 20th century, mainly on the Asian continent. The structure assumed its ultimate form, however, when the historical elements were combined with the U.S.-Soviet Cold War rivalry into a congealed system of division. In clarifying the constitutive elements of the divisive regional system, the autonomy of the East Asian international order, the way it intertwined with the Cold War system, the import of the historico-psychological component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interactive dynamics between the system of grand division and the lesser level divi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on the Taiwan Straits are discussed.

In particular, this essay pays substantial attention to the issue of why the grand division remained in place even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era. In the meanwhile, the geopolitical status of Korea in this grand system of division is conceptualized by 'a middle-roader.' For the purpose of attaining a conceptual road map to approach this very comprehensive issue, the essay starts from a critical discussion of Waltzian notion of international political structure.

Key words: East Asian grand division, international political structure, constructivism, middle-roader, Asiatic vision

차가워진 피:
21세기 한미 동맹정치 시론

강 봉 구(한양대 아태연구센터 연구교수)

Ⅰ. 서 론
Ⅱ. 동맹정치의 개념적 틀
Ⅲ. 한미 동맹정치에서 전략선택 결정요인들
Ⅳ. 결 론

ABSTRACT

Going Separate Ways?:
A Thesis on 21st-Century US-Korea Alliance Politics

The determinants of strategic choices in the US-South Korea alliance politics are relative dependency on alliance, degree of interests sharing, international strategic considerations, and reliability of alliance commitments. In recent years the US-South Korea alliance has resolved some key issues of the alliance politics, which diminished South Korea's risk of abandonment by the US. On the while this means the beginning of South Korea's long term entrapment into a newly reshaped US-South Korea alliance. This is the South Korea's new alliance security dilemma embedded in strengthening of the US-South Korea alliance.

Key words: alliance politics, alliance game, adversary game, alliance dilemma, entrapment, abandonment

중국의 부상과 대만의 대응

김 애 경(명지전문대 중국어과 조교수)

Ⅰ. 서 론
Ⅱ. 양안관계
Ⅲ.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만의 인식
Ⅳ.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만의 전략
Ⅴ.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만의 정책
Ⅵ. 결 론

ABSTRACT

The Rise of China and Taiwan's Reaction

This study analyzed Taiwan's reaction to the rise of China. The polit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the mixture of cooperation and confrontation. On the other hand, economic exchange is steadily growing and in particular Taiwan's dependency on the continent is increasing continuously. China tries to solve the problem of Taiwan based on the principle of 'One China' but Taiwan is considering various goals including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the maintenance of the status quo, and Taiwan-centered unification. As China rises as a world power, the security of Taiwan's regime may be faced with threats. Thus, Taiwan is expected to adopt a strategy to keep balance with rising China in order to minimize threats to the survival of its regime and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the balancing strategy, Taiwan also aims at preventing changes in the status quo. To maintain balance with China, Taiwan is using political means such as alliance, multiparty system, the transfer of responsibility, hedging, and distancing. However, for Taiwan's strategies and policies to be effective continuously, the country must consider both its domestic political situation and the factor of the U.S.

Key words: the rise of China, Taiwan's reaction, strategy, policy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전제조건 모색: 북한핵무장화 원인해결방안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노 병 렬(대진대 미국학과 교수)

Ⅰ. 서 론
Ⅱ. 비핵지대의 개념과 조건
Ⅲ. 북한 핵무장화와 한반도 비핵화의 필요성
Ⅳ.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전제조건 모색
Ⅴ. 결 론

ABSTRACT

Preconditions for Denuclearized Korean Peninsula:
With a Respect to Solutions for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Since the advent of nuclear weapons, two strategies have evolved to manage the threat of nuclear war nuclear deterrence and nonproliferation. Nuclear weapons are acquired for various purposes to reduce a sense of vulnerability within a world order where such weapons have reorganized the logic of military preparedness; to support nationalism; or to achieve and maintain power. Nuclear weapons are thought to deter aggression and thus empower the possessor. Even so, the horrors that nuclear weapons can wreak having been demonstrated, international laws and institutions have emerged to prevent nuclear proliferation. However, nonproliferation efforts by nation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ed by the U.S. are thwarted by the reality that some nations are stilled focused on acquisition for deterrence, if not aggression. Current nuclear test by North Korea despite fierce international opposition shows that nuclear weapons are still valued as a deterrent that offers unparalleled strategic and political benefits.

This paper scrutinizes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details, objectives, and potential influence o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offers new approaches to establish denuclearized Korean peninsula. It views denuclearized Korean peninsula as the best political purpose and strategy in all related countries even including North Korea. However,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re are to be needed preconditions such as legally binding security assurances to North Korea, normalization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nd U.S.A., etc.

Key words: nuclear-weapon-free zone, denuclearization,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nuclear proliferation, nonproliferation

민족문화자치제(National Cultural Autonomy)의 사상적 기원과 실제

심 헌 용(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Ⅰ. 들어가는 말
Ⅱ. 민족문화자치제 형성: 사상적 기원과 역사적 경험
Ⅲ. 민족문화자치제의 현대적 적용
Ⅳ. 결론에 대신하여

ABSTRACT

"National-Cultural Autonomy," the theoretical Origin and the Reality in RF

This study looks into the origins and the realities of the idea, "National-Cultural Autonomy (NCA)," considering that, it has been realized as a national policy nowadays in Russian Federation. I got such a conclusion on June 1996 year, on the ground of the declaration, <the concept about national policies in RF>, <On the NCA> by russian government in turn as federal law, evaluated as a legal and constitutional framework for resolving the national problems in a multi-ethnic russian society. In these laws are concentrated the concepts and contents, which were discussed in the late 19th century.

On the origin of the NCA idea in RF, firstly we can go back to the ruling era of Austro-Hungarian Empire and the Russian Empire in the late 19th century. These multinational states have got the tasks of linking together the different demands of the various national minorities into a combined state. Though a program, proposed in the Congress of the Party of Social democrats in Austro-Hungarian Empire, was not adopted a resolution in the Party, not even the law of the Austro-Hungarian state, it was got widely in Russian Empire. This historical experience became a realistic alternative of the modern RF, eagering to resolve the national problems.

Then, what is the special features of NCA as a system in the sphere of organizational constitution and its realizing process ? In the system of NCA in RF ethnic minorities can embody the consciousness to make their own national interests, that is economical, cultural interests by configuring spontaneously the NCA organization. The NCA organization could be constituted on the local, regional and federal level from the lower to the top.

In the course of the realization of the process of the NCA in RF we cannot say there's no problem. NCA has no function to establish laws, so in order to realize their programs ethnic groups ought to get a material resources by the decisions of administration and the ratification of the federal Congress. That is why, it is interpretated that the formation of the system NCA became a system of control on the population, which belongs to different ethnic groups.

Nevertheless, NCA in RF is a historical and theoretical meaning that NCA is derived as a national policy on the new stage of new national environment.

Key words: national-cultural autonomy, Austro-social democrats, O. Bauer, K. Kautsky, Minnats, national relations

사이버공간의 이념과 정치:
한국 사이버 공론장의 구조 변동

장 우 영(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상임연구원)

Ⅰ. 연구의 배경과 목표
Ⅱ. 정치적 공론장의 형성과 재편
Ⅲ. 진보 이니셔티브의 사이버 공론장
Ⅳ. 사이버 공론장의 재구조화: 보수 미디어의 약진
Ⅴ. 사이버공간의 보수주의 위상구조
Ⅵ. 보수약진의 함의 및 평가 - 결론에 대신하여

ABSTRACT

The Ideology and Politics on the Cyberspace: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Cyber Public Sphere in Korea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ICTs(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the political communication, organization and collective action have been promoted. These changes spread revitalization of the modern public sphere in the political communication process. The public sphere is a wide-ranging symbolic and physical space which consists of the communication structures in the society. And communication structures reflect social power relationships. Futhermore it brings about the role and relationship among the communicators. With this perspective, this paper explores the social factors and political implications to form cyber public sphere in Korea. Then, the restructuring of cyber public sphere caused by the great advances made by the conservatives is examined. Lastly, the great cyber leap forward of the conservatives is evaluated and its' implications are assessed.

Key words: conservative, contagion from the left, cyber public sphere, progressiv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public sphere

국가정체성의 강화와 정당 양극화: 미국정치의 패러독스?

임 성 호(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국가정체성과 정당성향
Ⅲ. 미국 정치사의 조망: 미국 예외주의와 양당 정치
Ⅳ. 테러시대 미국 여론의 분석: 국가정체성과 정당성향의 상관관계
Ⅴ. 결론

ABSTRACT

Strengthened National Identity and Party Polarization:
A Paradox in American Politics?

We tend to unsuspectingly assume that national identity and political polarization are mutually contradictory. When one is strong, the other is supposed to weaken. This article purports to refute this seemingly valid and widely accepted assumption. For this goal, section II theoretically discusses the mutually reinforcing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identity and party identification (partisanship). Section III overviews American political history and describes a long-cycle pattern in which periods of strong national identity coincided with those of solid party identification and intense partisan competition, as is the case with the recent years. Section IV analyzes American public poll data, empirically affirming a close correlation between strong national identity and strong partisanship. This article, by showing that a co-existence of strong national identity and strong party identification is not an incomprehensible paradox, suggests a broader and newer scope of attention in studies of American political polarization.

Key words: American politics, National identity, Party identification, Partisanship, Party polarization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의 정당편향적 의회전략: 유권자 성향과 개인적 리더쉽 스타일을 중심으로

손 병 권(중앙대 국제관계학과 부교수)

Ⅰ. 들어가는 말
Ⅱ. 부시 대통령 지지 유권자의 성향
Ⅲ. 부시 대통령의 개인적 리더쉽 스타일
Ⅳ. 부시 대통령의 의회에 대한 전략
Ⅴ. 맺는 말

ABSTRACT

Partisanship of George W. Bush's Congressional Strategy:
An Explanation on the Basis of Bush's Electoral Connection and His Leadership Style

This article attempts to explain President George W. Bush's partisan presidential behavior, including his partisan approach toward Congress, in terms of Bush's electoral connection and his leadership style. First of all, it is no doubt that the right wing Republican primary voters, especially social conservatives and Christian Right supporters, helped him to win the nomination in 2000 and win the presidential races both in 2000 and 2004, thus getting him to be loyal to their cause among other things and, in the course, getting him to be more partisan in his presidential job performance. In addition, his black-and-white political approach, which had had a great deal to do with his evangelical background, and his outcome- or action-oriented leadership style reinforced the President's partisan tendency vis-a-vis both parties and Congress. As a result, President Bush's congressional strategy was not the kind in which he consulted the Democrats frequently and sincerely enough to get them involv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Besides, the strong Republican party unity, the high level of Republican presidential support, and Bush's tactic to maximally utilize the polarized political landscape in Congress, in their turn, all enhanced Bush's incentive to divide and rule Congress in a highly partisan mode, eventually widening the polarization of Congress.

Key words: President George W. Bush, partisanship, polarization, congressional strategy, characteristics of Bush voters, presidential leadership style

정치양극화 시대에서 '개혁보수주의' (reform conservatism)의 특징과 한계: 존 맥케인(John McCain) 공화당 상원의원의 사례

안 병 진(경희사이버대 영미학과 조교수)

Ⅰ. 서론: 정치양극화 시대의 퍼즐, 존 맥케인 상원의원
Ⅱ. 공화당 내부 '개혁보수주의'의 역사적 변천 양상
Ⅲ. 루즈벨트 공화당의 부활로서 맥케인 중도주의의 특성과 시대적 한계
Ⅳ. 2000년 선거 이후 루즈벨트 공화당에서 강경보수로의 맥케인의 변신
Ⅴ. 개혁보수주의의 미래 전망

ABSTRACT

Understanding Reform Conservatism in the Era of Political Polarization:
John McCain's Challenge amidst the Divergence between the Republicans and Democrats

Political polarization in American politics is at a modern high. For at least the last thirty years, Republicans have become more conservative and Democrats have become more liberal. For all these divergence between the two parties in American politics, John McCain's distinctive position as a reform conservative and strenuous challenge to overcome polarization chorus has been appealing to both Republicans and Democrats. If polarization is a norm in politics, then, how we could make sense of McCain's strong popularity across divergent parties. In this paper, we look at when and under what conditions reform conservatism of John McCain has occurred and also examine the inevitable limitation amidst the era of political polarization. Using historical analysis, we make effort to locate his position in the vein of reform conservative movement of Theodore Roosevelt in early modern period. In this paper, we also discuss the implications of John McCain's challenge for the future of American politics.

Key words: Reform Conservatism, Political Polarization, John McCain, Theodore Roosevelt

양극화시대 소득수준에 따른 미국 유권자 정당일체감의 이념적 재편성

조 성 대(한신대 국제관계학부 부교수)

Ⅰ. 머리말
Ⅱ.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에 대한 기존 연구의 검토
Ⅲ. 소득불평등과 정당일체감의 이념적 재편성에 대한 가설
Ⅳ. 소득수준별 정당일체감의 이념적 재편성 경험분석 결과
Ⅴ. 맺음말

ABSTRACT

Income Level and Ideological Realignment of Mass Partisanship in the Polarized America

This paper aims to find a micro-relationship between the income level of the electorate and changes in mass partisanship. While past researches paid their attention to congressional processes or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analyzing causes of party polarization, this paper posits that ideological realignment of voters' partisanship is closely connected to their social economic status, particularly their income level.

For this theoretical speculation, this paper proposes three hypotheses: 1) whether there has been a consistent congruity between voters' income level and their judgement on income redistribution policies; 2) whether there has been a consistent "sorting" between voters' income level and their evaluation on two major parties' income redistribution policies; and 3) whether their has been a congruent change in voters' partisanship based on their income level.

Empirical findings suggest: First, at least from the late 1970s a congruity has been found between voters' income level and their ideology. Second, voters' perception on major parties' income redistribution policies had been mixed and not consistent based on their income level until the mid-1970s. But then consistent sorting patterns have been found since the early 1980s. Lastly, ideological realignment of voters' partisanship shows a pattern of rising independents among voters with lower income, and of rising Republicans among voters with middle and higher income level.

In short, empirical analysis of this paper suggests that behind party polarization in the US Congress since the early 1980s has lied economic polarization among the electorate. Particularly, ideological realignment of partisanship among high income earners has been a core of party polarization in the US politics.

Key words: United States, Party Polarization, Partisanship, Ideological Realignment

정치엘리트 양극화, 유권자 양극화 그리고 정치참여: 미국 연방선거조사 자료의 경험적 분석

엄 기 홍(경북대 정치외교학과 전임강사)

Ⅰ. 문제제기
Ⅱ. 기존 문헌 및 이론
Ⅲ. 데이타와 방법론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함의

ABSTRACT

Partisan Polarization, Electorate Polarization, and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participation of citizens is one of fundamental assumptions for representative democracy. The assumption, however, appears to be seriously violated.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a possibility that electorate polarization, which is the extension of partisan polarization, enhances political participation. Using 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ies during the period of 1980 to 2000, I found that electorate polarization increases the likelihood of political participation of voters. The more voters perceive a difference between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Republican Party, the more likely they participate. In particular, it is more evident among those who are weakly or strongly identified with a party than those who are pure independents or leaning partisans. The magnitude of the relationship, however, does not increase over the years. It indicates that partisan polarization has a limited influence on political participation of voters.

Key words: partisan polarization, electorate polarization, political participation, 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ies

미국 민중운동의 양극화와 정치적 영향

주 미 영(한국외대 시간강사)

Ⅰ. 머리말
Ⅱ. 미국 내 좌파 민중주의
Ⅲ. 미국 내 우파 민중주의
Ⅳ. 민중운동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
Ⅴ. 결론

ABSTRACT

Polarization of Populist Movements and Its Impact on American Politics

Populism, by its traditional definition, is a political rhetoric or philosophy that aims to defend the interests of the common people against entrenched, self-serving or corrupt elites. The latter part of the 19th century carrying into the first quarter of the 20th century saw the emergence of the populist movement and Progressive Era in the USA. During the 1950s right-wing populist movements appeared as a counter power against left wing movements and then populist movements have been extremely polarized based on political ideological spectrum as well as political issues. Recently populist movements, whether left-wing or right-wing, become more radical with the sentiment of anti-government. By reviewing historical development of populist movements and activities, this study tries to grasp the relationship between polarization of populist movements and American politics. Today the traditional division between left and right has lost some of its significance. They all express a sense of estrangement from their political institutions. So populist movement is often motivated by a sense of disengagement and a mood of anti-politics. It frequently expresses a revolt against the values upheld by the political class and its institutions. It also results from the political masters' selective strategy for their political success.

Key words: populist movement, populism, polarization, left-wing populist movement, new left, far left, right-wing populist movement, new right, far right, hate group, terrorist group

외교여론 양극화 가설의 허와 실: 이라크 전쟁과 미국여론

남궁 곤(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Ⅰ. 이라크 전쟁과 미국 외교여론의 양극화
Ⅱ. 미국 외교여론의 양극화 가설과 정치사회적 기반
Ⅲ. 이라크 전쟁 여론의 분열구조와 지속성
Ⅳ. 이라크 전쟁 여론과 포괄적 외교목표 인식
Ⅴ. 이라크 전쟁 여론의 사회적 분열
Ⅵ. 결론

ABSTRACT

American Public Opinion of Iraqi War:
Polarized?

Some American scholars of public opinion argue that American people are polarized in their attitudes toward the U.S. foreign policy and its conduction of the Iraqi War. This study explores the propriety and validity of the argument by analyzing the 2006 CCFR foreign policy survey.

Conc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raqi War and American public opinion, I formulate and test some hypotheses.

I found that American public opinion is divided into two groups in attitudes toward the evaluation of the Iraqi War. The distribution of American public opinion is obviously bi-modal. It is also found that American opinion of the Iraqi War is closely correlated into their other general foreign policy attitudes. Their evaluation of Iraqi War is comparable to their cognition of foreign policy goals such as Islam fundamentalism and anti-terror measures. The bi-modal distribution of American public opinion is significantly explained by their ideological stance and party identification. It is acceptable to argue that American public opinion is polarized in terms of their division of Iraqi War opinion.

It is argued that the division of American public opinion is to be understood from their property of internationalism. A majority of American people has been approving U.S. international roles, but disapproving the Iraqi War before the war broke out. There is a gap between the Bush Administration's policy and American public opinion of the war.

Key words: American foreign policy, public opinion, polarization, Chicago Council of Foreign Relations, Iraqi War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변화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문제

김 학 성(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 조교수)

Ⅰ. 문제제기
Ⅱ. 대외관계와 국민의식: 이론적 검토
Ⅲ. 남북관계 및 한미관계에 대한 국민 의식 변화
Ⅳ. 맺음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요 과제

ABSTRACT

Changing Public Attitudes to the Inter-Korean and ROK-USA Relations and a Question of Creating National Consensus

While a new regional and world order has been explored since the opening of the post-Cold War era, a lot of South Korean people began to perceive an increasing tendency of unprecedented antagonism between inter-Korean and ROK-USA relations. There are obviously several reasons for the perception, but it remains disputable whether the antagonism could be a correct perception. With this question I try to examine the changing public attitudes to the inter-Korean and ROK-USA relations. First of all, a theoretical review concerning the interconnectedness between the foreign policy and public attitudes is attempted, and on the basis of a theoretical framework diverse surveys of public opinion about several relevant issues are analysed to examine the changing public attitudes.

A trend results from the examination: The perception of unprecedented antagonism could be only partially valid. Moreover the driving force of transforming public attitudes to both relations operates not merely in the narrow sphere of military security, but in diverse spheres. Therefore it is necessary in a practical sense to make the changing public attitudes to contribute to harmonize both relations. As a conclusion some vital tasks are suggested to establish the appropriate basis of values and institutions especially for a national consensus on the matter.

Key words: inter-Korean relations, ROK-USA relations, alliance, survey of public opinion, public attitudes, anti-American sentiment

한국사회 남남갈등: 기원, 전개과정 그리고 특성

김 갑 식(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Ⅰ. 서론
Ⅱ. 개념과 분석틀
Ⅲ. 남남갈등의 기원과 촉발
Ⅳ. 남남갈등의 외연확대와 심화
Ⅴ. 결론

ABSTRACT

The South-South Conflict in Korea:
Origin,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This paper examines the origin,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of the so-called 'south-South conflict,' a major conflict in Korean society. In general, it is a systemic conflict of the cold war anti-communism that has ruled South Korean society for more than half a century and reflects the difference in views of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s views of Pyongyang and Washington are interrelated and integrated in a multi-layered manner. However, between the two, the view of Pyongyang plays a more decisive role, as a result of the experience of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Korean War. Piled on top of societal discord, the South-South conflict has become polarized as a political confrontation, the major manifestation being that the axis of confrontation has shifted from the view of North Korea to that of the United States. First, during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the confrontation was mainly over the policy toward Pyongyang and the position on various North Korean issues. These include the effectiveness of humanitarian aid and the Mt. Kumkang tourism project, change in North Korea and its credibility, using North Korea policy for domestic political purposes, damage to the South Korean identity as a liberal democratic regime, discourse on unification, and transparency of and national consensus on North Korea policy. However, during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the conflict centered on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U.S. alliance, including issues such as the U.S. military court acquittal of two American soldiers involved in the deaths of two South Korean young girls, dispatch of ROK troops to Iraq, the relocation project and strategic flexibility of the U.S. Army stationed in Korea,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nd policy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concerning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Second, while the conflict during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overlapped with embedded regional sentiment, the conflict in the current administration has witnessed the compounding of weakened regional conflict and the newly arising generational conflict. The South-South conflict in Korea is not a temporary or transitional phenomenon, but rather it is expected to continue with its magnitude subject to change issue by issue.

Key words: the South-South conflict, view of North Korea, view of the United States, cold war anti-communism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부신뢰:
노무현 대통령 사례를 중심으로

조 기 숙(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부교수)
남 지 현(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Ⅰ. 서론
Ⅱ. 정부신뢰와 민주주의
Ⅲ.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부신뢰
Ⅳ. 사례연구: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부신뢰
Ⅴ. 결론 및 제언

ABSTRACT

Presidential Leadership and Government Trust:
The Case of President Roh Moo-hyun

The decline in government trust is now a worldwide phenomenon. Government trust is essential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democratic political systems, since democratic governments cannot successfully implement their policies without popular support. Government trust in the United States, which had steadily decreased since the 1960s, surged during the Reagan and Clinton administrations. It turns out that presidential image, and a president's persona in particular, has contributed to the increase in government trust in America.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South Korean survey data in order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idential leadership and government trust and thereby generalize a theory in this field.

In the result, it was found that there exists a relationship between presidential leadership and government trust among South Korean electorates as well. The differenc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re also observed. In the case of President Roh of South Korea, presidential persona was not so important as in the cases of the American presidents. Rather, rational components, in the form of evaluations of presidential competency and policy on the bases of unification, diplomacy, and economy, were discovered to be much more important in raising government trust. It was also found that the results, seemingly, could be correlated with the stage of a presidency. The present survey was conducted during the early stage of President Roh's term, and the same pattern of results also appeared for the early stage of President Clinton's term. As President Clinton's term passed, presidential persona, as compared with job evaluation, became much more influential on government trust. In fact, it is widely known that the decline of government trust is responsible for the short-term failure of the real estate policy of the current Roh administration, which implies that a president's personal image might be related to government trust in South Korea as much as it is in the United States.

Key words: presidential leadership, government trust, President Reagan, President Clinton, President Roh, image, persona, charisma

정치문화와 투표행위: 5.31지방선거에 나타난 인지적, 정서적, 평가적 정향과 투표참여

이 재 철(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정치문화와 투표참여
Ⅲ. 연구설계: 연구가설, 분석모형, 조작화
Ⅳ. 분석결과
Ⅴ. 결론

ABSTRACT

Political Culture and Voting Behavior:
Cognitive, Affective, and Evaluative Orientation and Participation in 5.31 Local Election

This study examines mass public's cognitive, affective, and evaluative orientations and analyzes how they are related with election behavior in Korea's 4th local election. It reveals that voter's cognitive orientation is relatively low. The country differs with respect to the proportion of cognitive orientation. The highest cognitive orientation has been seen in Kyongsang region while the lowest has been observed in Cholla region. In four categories of affective orientation, the rate of mixed type is the highest. In contrast, the lowest is the aversion type in affective orientation. In evaluative orientation, voters have demonstrated the difference in two types of government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Voters have positively evaluated the local government while they have placed the central government negatively. Finally, this study reveals that cognitive orientation has affected to voting behavior the most in three types of orientations.

Key words: political culture, local election, voting behavior, participation

통일 이후 독일청소년 일탈문화에 대한 연구: 스킨헤드의 극우적 폭력실태를 중심으로

이 영 란(중앙대 한독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Ⅰ. 들어가며
Ⅱ. 기존 연구현황과 연구내용 및 방법
Ⅲ. 스킨헤드와 극우주의 개념정의 및 발생
Ⅳ. 독일사회의 극우주의와 스킨헤드
Ⅴ. 나오며

ABSTRACT

Study on the Youth Violence after the German Reunification:
Focus on the Extreme Right Skinhead Groups

This work deals with the extreme-right wing youth violence which remains as one of the biggest concerns in the reunified Germany.

The fast rise of extreme-right acts of violence committed by young people in Germany after its reunification—*particularly in the East part of the country*—is linked to the facing effects of social circumstances inherited from the GDR time to the new social problems encountered in the reunified Germany.

During the GDR time, right from the beginning of the skinhead movement was mostly extreme-right oriented and in favour of an authoritarian socialization.

Most of violent acts were rather as 'mitlaufigen Gewalt' qualified which means that they were not premeditated. We can link this to three observations:

Firstly the youth subculture is a marginal phenomenon of the society, secondly xenophobia(Auslanderfeindlichkeit) is partly a consequence of the feeling of social unsecurity, finally there is no sign of relationships between most of these acts of violence and any right-extreme political party.

Key words: German reunification, German youth, youth culture, skinhead, right-extremism

세계화와 한국 정당:
정당개혁에서의 세계모델 확산과 탈동조화

유 진 숙(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Ⅰ. 서론
Ⅱ. 제도연구와 세계사회론
Ⅲ. 한국의 정당개혁담론과 실천
Ⅳ. 세계모델 유입과 탈동조화
Ⅴ. 결론

ABSTRACT

Globalization and Party in Korea:
World Society Theory and Analysis of Discourse about Party Reform and Practice

This paper presents the influence of globalization on politics and culture as a relevant factor, which drives diffusion of democratic political institutions. To explain this, I use the theory of world society, which regards world society as an independent society with common logic and norms above the national state. As a case study, I analyse the influence of globalization on the discourse about party reform and practice in Korea. The discussion about party reform occurs between two party models from classical party typology: the electoral-professional party and the mass party. The analysis of reform practice focuses on the following two relevant topics: 1) bottom-up style of nominating candidates, and 2) types of party membership. I analyse theses topics with respect to three major parties of Korea, Democratic Labour Party, Youlin-Uri Party and Grand National Party.

Discourse analysis and analysis about practice verify the hypothesis of world society theory. Korean parties converge towards the world model by introducing various models. But this process of isomorphism and structural expansion is also attained through the phenomenon of decoupling.

Key words: political party, globalization, world society, diffusion, decoupling

문화대혁명과 그 연구 동향 및 쟁점

안 치 영(인천대 중어중국학과 초빙교수)

Ⅰ. 서론
Ⅱ. 문혁 연구 개관
Ⅲ. 문혁 연구의 주요 쟁점
Ⅳ. 결론

ABSTRACT

The Chinese Cultural Revolution and Its Research Trends and Main Issues

This is a review article about the English and Chinese literatures for the Chinese Cultural Revolution Studies(CR Studies). The CR Studies are conditioned by the accesses to the research materials, the approaches of the disciplines, and the political conditions including the researcher's political preferences.

The CR Studies had been developed at outside Mainland China. According to the progress of the Chinese opening and reform, there were some changes in CR Studies. First, there were increased the importances of the chinese literatures and scholarship. Second, there were the deepening and diversification of the research topics including the rebels, the regional issues not limited to the Beijing and Guangdong, and the victims, etc. Although, as to so many mysteries not to be solved yet, it is necessary to deepening and enlargement of the CR Studies.

Key words: the Chinese Cultural Revolution, the Cultural Revolution Study, Chinese literature and scholarship, the deepening and diversification of the research

사회주의체제 전환과 이데올로기 변화: 지배이데올로기의 수정 및 퇴조 과정을 중심으로

양 무 진(북한대학원대 조교수)
이 무 철(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Ⅰ. 서론
Ⅱ.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당 · 국가체제
Ⅲ. 지배이데올로기의 수정: 정당성과 현실의 간극
Ⅳ. 탈사회주의 과정과 이데올로기 구조
Ⅴ. 결론

ABSTRACT

Socialist Transition and Ideology Change:
The Process of Amendment
and Decline of Governing Ideology

This article analyzed the process of amendment and decline of Marx-Leninism in socialist reform and transition times. The change of pluralistic system from one-party dictatorship means the abandonment of governing ideology. Consequently, this article analyzed the change of governing ideology. The focus of analysis is on what kind of political and economic, international condition are before and after transition. And this article analyzed accommodating process of the liberalism that supports a political pluralism and ideology structure in the post-socialist transition. On the basis of this research, it examined the interrelation of legitimacy and ideology. This research could be applied to the North Korean case that is not visible change of governing ideology.

Key words: Socialist Transition, Ideology, Marx-Leninism, Liberalism, Pluralism

동아시아 지역안보거버넌스의 모색: 다자안보협력, 지역기구, 지구시민사회의 다층적 거버넌스

유 현 석(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서언
Ⅱ. 동아시아 안보문제와 지역안보 거버넌스
Ⅲ. 동아시아 지역안보거버넌스의 모색
Ⅳ. 결언: 지역안보거버넌스의 전망: 다층적 지역안보거버넌스

ABSTRACT

In Search of Regional Security Governance in East Asia:
Multi-level Governance of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Regional Organization, and Global Civil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regional security governance in East Asia. Changes of security environment and the emergence of new security issues call for new security institutions that complement, if not replace, traditional security institutions such as alliance system and balance of power. By discussing the role of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regional institution and global civil society in regional security governance, this study examines the possibility of regional security governance in East Asia. This study argues that regional security governance in East Asia will be a multi-level governance in which state-centered alliance system, global security regime such as non-proliferation regime, and regional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stitution play respective roles. Although the role of global civil society is limited at this current stage, various non-state actors including regional NGOs and epistemic communities will play complementary role.

Key words: Regional Security Governance, Governance, Security,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Regional Organization, Global Civil Society, East Asia

탈냉전기 중국의 다자안보협력 정책: 참여방식과 지지정도

강 택 구(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연구교수)

Ⅰ. 문제 배경과 제기
Ⅱ. 중국의 다자안보협력의 기존 연구들
Ⅲ. 이론 모델: 위협 정도와 이익목표
Ⅳ. 중국의 지역 다자안보협력: 진전과 변화
Ⅴ. 결론과 중국 지역 다자안보 정책의 전망

ABSTRACT

China's Regional Security Multilateralism after Cold War:
Participation Attitude and Support Level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volution and process of Chinese regional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factors that cause China to have different approaches to different institutions and to uncover how these factors influence the nature of China's participation. This article argues that threat levels help determine China's approach toward participating in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active or passive participation), and security interests help determine whether China offers strong or weak support for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This paper discusses the four types shown below: (A) active participation and strong support: China's establishment of the SCO in 2001; (B) active participation and weak support: China's approach of East Asia Summit in 2005; (C) passive participation and strong support: China's participation in the Six-party talks of 2003 and China's policy toward ARF after 1997; (D) passive participation and weak support: China's participation in ARF, 1994-1996.

Key words: Regional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ASEAN Regional Forum,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ix-party Talk

유엔에서의 중국 외교행태에 대한 실증 연구: 안보리 표결행태를 중심으로

이 동 률(동덕여대 중국어과 부교수)

Ⅰ. 서론
Ⅱ. 중국의 유엔 안보리 개혁에 대한 입장
Ⅲ. 중국의 유엔 안보리에서의 표결행태
Ⅳ. 중국 유엔 외교의 의도와 한계
Ⅴ. 결론

ABSTRACT

China's Diplomatic Behavior in the United Nations:
Voting Behavior in the UNSC

This study examines China's strategic intension in its United Nations diplomacy as a rising power by analyzing China's voting behavior in the UN Security Council(UNSC) and its view of UNSC reform. China's diplomatic behavior in the UN has already shifted from the challenger to the cooperator and then to the leading country's transition. China has begun to stress the UN's important role and authority in safeguarding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especially since the late 1990's. Chinese political elite assume that UN is not only useful for making an image of China's responsible power in international society, also provides the leverage which China can restrain U.S. in indirect and justifiable ways. By analyzing China's voting records in the UNSC, China sometimes pursues its own interest-Taiwan issues and energy security by casting veto, and Chinese stance on sovereignty issues in UN except its own one (Taiwan issues) has taken place a subtle yet significant change. In practice China has become more pragmatic and often subjected its principles to its interests. China still confronts limitations to be a real leading country in UN because of lacking in maintaining the balance of a responsibility and a right as a UNSC permanent member.

Key words: China's UN Diplomacy, Security Council, Veto, Responsible Power, Voting Behavior

대북정책에 있어 보수 · 진보논쟁에 대한 고찰: 대외위협 인식의 역사적 고찰을 통한 현재의 조명

김 용 호(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최 연 식(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Ⅰ. 들어가는 말
Ⅱ. 대외위협의 인식과 명분 · 실용 갈등의 역사
Ⅲ.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한위협의 인식
Ⅳ. 대외위협 인식의 역사적 고찰을 통한 현재의 조명과 미래지향적 수렴점의 모색
Ⅴ. 맺는 말

ABSTRACT

Ideological Debates over North Korea Policy: Historical Cases & Current Debates

This research analyzes ideological debates over South Korea's policy toward North Korea. In particular, this study spotlights debates between conservatism and progressivism from historical viewpoints through analyzing relevant cases in the Chosun dynasty. We demonstrate ideological debates in South Korea's policy toward North Korea by and large are on details rather than on a larger spectrum of unification and regional order. We also add brief review on foreign leaders' policy for providing how they elicit nation-wide agreement on foreign policy issues. We suggest the need to converge two seemingly conflicting ideological views for preparing unification.

Key words: Conservatism, Liberalism, North Korea, Chosun, Foreign Policy

‘이주의 세계화’에 따른 한국의 ‘외국인 정책’ 변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전 재 호(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Ⅰ. 들어가는 말
Ⅱ. 외국인 정책에 대한 기초적 논의
Ⅲ. 한국과 일본의 외국인 정책
Ⅳ. 외국인 정책 변화의 원인
Ⅴ. 나가는 말

ABSTRACT

The Policy Change toward Foreigners according to ‘The Globalization of Immigration’ in Korea: Utilizing Japan’s Case

Utilizing Japan’s case, this paper examines the change in policy toward foreigners according to the globalization of immigration in Korea. Launching the globalization of immigration, in both countries, we witnessed that people’s attitudes toward foreign labors and non-citizen residents have changed in a different way.

First, differences are found between two countries although their people transformed negative attitudes toward non-citizen residents. For example, Korea provided the electoral rights for them at local level while Japan did not. Second, both countries introduced the Technical-Intern Training Program just after the mass immigration of foreign labors started. Korea changed their foreign labors policy to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Act, which was considered as the progressive while Japan still remains the same program. Since the globalization of immigration began, therefore, the policy toward foreigners changed from ‘The exclusive closeness’ to ‘the inclusive openness’ in Korea. However, the policy has remained the same, the exclusive closeness in Japan.

Since the globalization of immigration initiated, this paper found that the following factors were in common in both countries: (1) governments’ voluntarily intention to adopt the international standard of human rights, (2) foreign labors’ fighting to obtain their rights and NGO’s support, and (3) the need for stable and continuous supply of foreign labor in business groups.

However, the following factors created Korea to be different from Japan: (1) Kim Dae-jung Administration’s strong respect for human rights, (2) Korean government’s support Koreans for the universal suffrage in Japan, and (3)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need to mobilize the foreign investment after economic crisis. These factors impact on Korea’s policy toward foreigners more open and inclusive than Japan’s.

It means that the awareness of homogeneous nation in Korea became changed by the globalization of immigration.

Key words: Globalization of Immigration, The Policy toward Foreigners, Non-citizen Residents, Foreign Labors

한국의 민주화와 외교정책: 위임형 외교정책결정의 등장과 구조

장 훈(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서론
Ⅱ. 민주화가 불러온 세 가지 변동과 외교정책결정과정
Ⅲ. 분석틀을 찾아서
Ⅳ. 위임형 외교정책결정의 패턴
Ⅴ.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서
Ⅵ. 결론

ABSTRACT

Democratization and Foreign Policy Making in South Korea:
The Emergence and Structure
of Delegative Foreign Policy Making

This article attempts to address the hidden linkage between democratic transition and foreign policy making process. The so-called transitology has been largely preoccupied with the issues of democratic consolidation focusing on the conditions and prospects toward stable and mature democracy. Students of international relations have not endeavored to unveil the black box of foreign policy process in new democracies while advocating the benign relation between democratic transition and peaceful coexistence among democracies, the so-called democratic peace.

Democratic opening in South Korea has brought about broad and deep changes in foreign policy making process that had been predominated by the imperial president. Three changes are salient in transforming the structure of foreign policy process; (1) the decline of imperial president, (2) the rising influence of NGOs and the public, and (3) the emergence of foreign policy cleavage among the public. Given these sources of changes, this paper argues that South Korean foreign policy making process can be characterized as delegative foreign policy making. Whereas vertical accountability to the public has been enhanced remarkably, horizontal accountability to legislative branch and political parties remained stagnant. Such evolution resulted from divergent development in National Assembly and civil society after democratic transition in 1987.

Finally, this paper analyzes the pattern of delegative foreign policy making process by examining a few cases of crucial issues during Roh Moo-hyun presidency.

Key words: Foreign Policy Making, Democratization, Delegative Decision Making, President

정치적 세련됨과 당파적 단서: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김 도 경(동의대 선거정치연구소 객원연구원)

Ⅰ. 서론
Ⅱ. 정치적 세련됨과 당파적 단서의 이론적 고찰
Ⅲ. '정치적 세련됨'의 개념적 조작화(operationalization)
Ⅳ. 분석 및 결과
Ⅴ. 결론 및 이론적 함의

ABSTRACT

Political Sophistication and Partisan Cues:
Insight from South Korea's 2002 Presidential Elec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effects of political sophistication on the use of partisan cues in the 2002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Many scholars in recent years have argued that it does not matter so much that many voters are poorly informed about politics because they can use information shortcuts or heuristic cues to overcome the lack of information and still make a reasoned choice. Based on these studies, much of the political sophistication literature in political science assumes that the use of party cues in the voting booth is the hallmark of an unsophisticated voter. Although this idea is nice in theory, it is not supported by empirical evidence. My results show that there i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political sophistication and use of partisan cues. That is, sophisticated Korean voters are more likely to rely on partisan cues. In the 2002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party identification as a heuristic did work for sophisticated voters, but not for unsophisticated ones.

Key words: Political Sophistication, Heuristic, Information Shortcut, Partisan Cue, Cognitive Mobilization

한국인의 이념성향 인식과 후보자 및 정당 지지 행태와의 상관관계: 16대 대통령선거와 17대 국회의원선거 비교 분석

진 영 재(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김 민 욱(연세대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과정)

Ⅰ. 연구의 목적과 의의
Ⅱ. 기존 연구에 대한 고찰
Ⅲ. 데이터와 모델링
Ⅳ. 주관적 이념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 이념성향 요인 분석
Ⅴ. 지지후보(지지정당)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 이념성향 요인 분석
Ⅵ. 결론 및 함의

ABSTRACT

Associati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Korean Ideological Identification and the Supporting Behavior for Candidates (Political Parties):
Comparative Analysis of 16th Presidential Election and 17th Congressional Election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associational relationship between ideological identification of Korean electorates and supporting candidates/political parties based onsalient sociological issues duringthe period of the 16th Presidential Election and 17th Congressional Election. The implication of statistical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Korean electorates use National Security Law as the most influential criterion in deciding their own ideological preferences and their supporting candidates and parties. Second, compared to clarifying their own ideological preferences, electorates have a tendency of considering fewer and condensed issues in deciding supporting candidates and parties. Also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they seem to consider fewer issues that are more structural ones than in the Congressional Election. Third, those who claim to support progressive parties tend toconsider more issues when asked to choose their own preferences and supporting candidates and political parties. Although political issues like National Security Law is considered now as the most significant and salient issue for electorates'own ideological preferences and supporting candidates and parties, ideological identifications of Korean electorates are not fixed, and it can be changed according to the social atmosphere at that time.

Key words: Korean Ideological Identification, Conservative-Liberal, Ideological Cleavage, Subject Measure, Object Measure, Supporting Candidates, Supporting Parties, Presidential Election, National Assembly Election

연방제도 정립과정 비교:
안정된 연방국가 7개국의 다층구조 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이 옥 연(서울대 외교학과 부교수)

Ⅰ. 머리말
Ⅱ. 연방주의 원칙의 전제조건
Ⅲ. 연방주의 원칙의 국가정체성
Ⅳ. 연방주의 원칙의 비대칭성
Ⅴ. 맺음말

ABSTRACT

Comparing the Establishment of Federalism as Multi-Level Governance in 7 Advanced Federal States

As ideology to promote associations among interdependent groups, federalism explores to institutionalize shared rule and self-rule in balance. In principle, federal institutions are designed to provide constituents with routes to resolve conflict, protect minorities and their rights from encroachment, furnish a forum to represent regional or territorial interests, and/or offer opportunities to experiment policy innovation on a subnational level. Yet democratic governance is not exclusively limited to federative arrangements; other systems of governance may actually excel. Furthermore, the fundamental tension lies in a natural tendency of federalism either to get excessively centralized or too decentralized, thus contradicting ideals pursued in democracy. Why federalism is often preferred to other types of governance, then, is not because of its inherent superiority but because of its potentials to prevent or undo such dysfunctions through meticulously devised mechanisms.

Needless to say, each country and regime with its own specific historical, institutional and circumstantial factors encounters its ever-changing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landscapes over time, which requires a specific adjustment in its fiscal management, institutional rearrangement and even constitutional revision. Federalism provides not only solutions to these specific problems but also perspectives to problems of governance. Consequently, discreet outcomes of federalism are readily available across different countries and times, and even among different administrations/cabinets in the same country. Despite such individual idiosyncrasy, federalism can be defined as "a covenant to carry out what was compromised for the sake of creating a new locus among political constituents." Accordingly all federative arrangements are commonly in pursuit of multi-level governance in which interstate, intrastate, and inter-community relations are arguably coordinated in the most effective and democratic manner.

In this paper, I explore how 7 advanced federal states—Austria, Australia, Canada, Germany, United States, Belgium, and Switzerland—institutionalize these various forms of federative arrangements and put them into practice by emphasizing several key factors. This paper is also an attempt to establish typology regarding federalism as multi-level governance, thus contributing to the study of comparative federalism.

Key words: Federalism, Multi-level Governance, Shared Federative Sovereignty, 7 Advanced Federal States

개혁 개방에 관한 비교사회주의 연구: 중국과 러시아의 체제전환

장 윤 미(서강대 동아연구소 상임연구원)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논의
Ⅲ. 체제전환 요인에 대한 검토
Ⅳ. 체제전환의 동학과 과정
Ⅴ. 결론: 비교사회주의 관점에서 본 중국의 체제전환 평가

ABSTRACT

The Comparative-Socialism Study on Reform and Open:
The System Transition of China and Russia

This article explains the historical process about that why China has succeed in initial stage of economic reform, and why it made its that choice, with comparative perspective of Russian case, and indicates the limits of existing approaches, that is shock-incremental approach or state-market approach, and political-economic dichotomic view.

The debaters of system-transition generally count on initial condition or institution, state policy for successful transition factor, but this factor analysis will not be able to explain why China has selected incremental method, and how there is a possibility of gathering a growth. Thus, It's important to grasp the difference of political structure and a political process that the leaders how accomplish the wide agreement on this condition. Also according to its outside condition and the relationship with existing world economy, transition state has very different to road. In short, the economic growth of China is a result of the political process of an inside power structure and an external condition, not only the top-down reform. It's a correspondence of state-social relationship, which each territory of the society has a effect of reform process itself, and reconfigurates existing institutions.

Key words: China, System Transition, Comparative Socialism

'중국적 사유화'의 역사적 경로와 함의

이 홍 규(서강대 동아연구소 상임연구원)

Ⅰ. 들어가는 말
Ⅱ. 중국적 사유화의 역사적 과정
Ⅲ. 중국적 사유화, 그 특징과 함의
Ⅳ. 맺음말을 대신하여: 사유화의 중국 모델은 지속 가능한가?

ABSTRACT

Historical Path and Implication of 'Chinese Privatization'

Taken privatization in China as a whole, in the mid-1990s, as there is a clear difference between the earlier and later. While the privatization in the mid-1990s before is the 'informal privatization' that allows the nourishment of private sector without undermining the basic framework of socialist ownership, from the mid-1990s as turning point it have occurred 'formal privatization' of denationalization that property rights transfer from the state to private entities.

However, the most important feature of the 'Chinese Privatization' is the characteristic referred to as 'privatization with order,' that means partial denationalization but maintenance of public ownership sector under the governed market system. In addition, the feature is expected to be sustainable, because China still tries to keep the socialist identity.

Key words: Chinese Privatization, the Nourishment of Private Sector, Denationalization, Privatization with Orders

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의 진전과 전망

김 진 영(부산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Ⅰ. 서론: 문제의 제기와 이론적 배경
Ⅱ.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진전과 한계
Ⅲ. 아시아 본드마켓 이니셔티브의 전개
Ⅳ. 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의 전망

ABSTRACT

The Progress and Prospect of East Asian Monetary and Financial Cooperat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 financial cooperation of the ASEAN+3 is a motive power of East Asian regionalism and examines the progress and current state of Chiang Mai Initiative and Asian Bond Market Initiative. The CMI has reached a major advancement with the agreement of transforming the existing bilateral swap arrangements to a multilateral system with reserve-pooling arrangement. The ABMI is initiated to develop a regional bond market by encouraging the issue and purchase of local currency denominated bonds.

The paper argues that member states of the ASEAN+3 are rational interest seekers thus the future progress of the financial cooperation may also be promoted by that motive. Critical political variables of China-Japan rivalry and the skepticism of the U.S. may hamper the speed of progress. However, the paper forecasts, the impediment is not likely to be detrimental and the financial cooperation may proceed gradually within the ASEAN+3 framework.

Key words: Chiang Mai Initiative, Asian Bond Market Initiative, ASEAN+3, East Asian Financial Cooperation, East Asian Regionalism

대북포용정책의 개념, 평가, 과제: 포용의 진화 관점에서

김 근 식(경남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Ⅰ. 서론
Ⅱ. 개입정책과 포용정책: 개념적 고찰
Ⅲ. 포용정책의 '진화'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Ⅳ. 대북포용의 발전 방향: 구조적 포용

국문요약

한국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의 개념적 연원은 미국의 탈냉전 이후 개입정책(engagement)에서 비롯된다. 미국의 개입정책과 관련하여 한국의 대북포용정책을 개념적으로 정리해보면, 첫째 다방면의 교류협력 확대와 이를 통한 상대방의 긍정적 태도 변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개입정책의 핵심과 맥을 같이 하고, 둘째 한국의 포용정책은 분단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통일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북한의 민감하고 소극적 대응을 유발하게 되고, 셋째 장기적으로 구조적 관여를 지향하기 때문에 탄력적 상호주의를 활용하며 넷째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영토적 확장에 대한 억지를 전제로 한 장기적 북한 변화 전략이라는 점에서 개념적으로 유화정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특징을 갖는다.

대북포용정책의 체계화는 김대중 정부 시기에 정립되었지만 사실 포용정책의 내용과 방향은 노태우 정부부터 시작되었다. 오히려 대북포용정책은 노태우 정부의 7.7 선언에서 그 역사적 첫걸음을 내딛은 뒤 노무현 정부까지 우여곡절과 기복을 겪으면서 포용의 전략과 방식이 조금씩 진전되어 왔다. 그동안 상황과 조건에 적응하면서 꾸준히 대북포용이 '진화'되어 온 것이다. 그리고 향후 성공적인 대북포용은 다방면의 접촉과 교류를 더욱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북한의 유의미한 변화를 심도 있게 유도해내는 것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향후 대북포용정책은 '구조적 포용(structural engagement)'으로 진화해야 한다. 구조적 포용은 지금까지 축적된 남북관계의 발전을 안정화시키고 제도화시키는 의미로서 '비가역적인 남북관계의 구조화'와 북한의 유의미한 변화를 전략적으로 고민하는 '구조적 관여'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주제어: 개입정책, 포용정책, 포용의 진화, 구조적 포용

북핵문제와 6자회담: 전개과정, 평가 및 과제

홍 현 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Ⅰ. 서론
Ⅱ. 제2차 북핵위기 발단과 전개과정
Ⅲ. 다자적 해결과정과 참여정부의 북핵정책 평가
Ⅳ. 현황과 전망
Ⅴ. 향후 과제

국문요약

본고는 제2차 북핵위기가 발발한 배경과 진행과정을 북한과 미국의 입장 및 참여정부의 대응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6자회담과 참여정부의 북핵정책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 뒤, 향후 북핵문제의 전개 양상을 전망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당면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6자회담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외에도 참가국들의 동북아정책과 동북아 질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는데 북한 같은 '불량' 약소국에 대해서도 압박보다는 상호이해와 동시행동에 입각한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해결이 현명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미국은 6자회담을 통해 5대 1 구도로 북한을 압박하고자 했으나 자신도 행동의 제약을 받게 되었다. 회담의 진전으로 동북아다자안보협력 움직임도 태동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북한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노정했지만, 그 주요 사유는 미국의 대북강경일변도정책이 동시에 시행된 데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실험은 참여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대북압박일변도정책을 지속하자, 북한이 사생결단의 각오로 무모한 정책을 펼친 데 원인이 있다고 봐야 한다.

한편 언제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 핵신고와 불능화를 완료할 것인 지는 미 행정부가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를 위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과 연계될 것이다. 즉 향후 북핵문제 진전 여부는 북미 행동의 동시성 확보에 달려있다.

중장기적인 북핵문제 전개 시나리오는 이라크형, 파키스탄형, 그럭저럭 버티기, 핵포기 네 가지로 나뉘는데,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적극 유도해야 하며 우크라이나형이 달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적극적 · 창의적 · 실용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북핵에 대한 검증과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상호위협감소(MTR)' 원칙과 '협력위협감소(CTR)' 프로그램이 북한에 적용되도록 다차원적인 외교 노력을 펼쳐야 한다.

주제어: 북핵문제, 6자회담, 대북강경정책, 대북포용정책, 동시행동, 우크라이나형, 상호위협감소, 협력위협감소

전환기의 한미동맹: 이론과 현상

김 기 정(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서론
Ⅱ. 동맹이론과 한국 학계의 연구경향
Ⅲ. 전환기 비대칭동맹의 분석틀
Ⅳ. 탈냉전기 안보환경의 변화와 한미관계
Ⅴ. 노무현 정부와 한미동맹의 쟁점현안
Ⅵ. 결론

국문요약

한미동맹은 노무현 정부 시기를 거치면서 재조정의 전환기를 겪었다. 그것은 한미동맹을 둘러싼 탈냉전기 환경변화를 반영해야 하는 시대적 요청 때문이었다. 이 글에서는 한미 양국 간 정책적 쟁점들에 내재된 양국의 전환기적 인식과 태도(순응, 실리, 호혜, 저항 vs. 주도, 양보, 강압, 회유) 및 동맹정체성 변화를 통해 설명하였다. 정책적 쟁점 현안은 북핵문제를 비롯한 7가지 사안이었다. 동맹전환에 관한 이러한 논의는 이론적으로 비대칭동맹을 안보-자주 교환동맹으로 설명하는 기존 논의에 대한 비판적 입장 위에 서 있다. 노무현 정부 5년의 대미정책은 한미동맹에 존재해 왔던 비대칭 메커니즘의 재조정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기존 후견-피후견의 동맹정체성은 호혜적 동맹정체성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전략적 동반자라는 미래지향적 동맹정체성의 기반이 된다.

주제어: 한미동맹, 비대칭동맹, 동맹정체성

참여정부 국방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백 승 주(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Ⅰ. 문제제기
Ⅱ. 주요 국방정책 및 평가
Ⅲ. 차기정부의 과제
Ⅳ. 결론

국문요약

참여정부는 한미동맹을 손상시키고, 군사태세보다 남북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전체적으로 안보태세를 약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을 끌어 올렸고, '질 위주의 군사력 증강'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등 군사력 확충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에 비해 국민 일반의 평가가 부정적인 이유는 참여정부 자체에 이념적 논란, 한미동맹 조정과정, 안보정책 추진 주체에 대한 불신 등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국방비전으로 제시된 '협력적 자주국방'은 이념적 논란을 야기했다. 국방비전이 이념적 논쟁대상이 됨으로써 그 이후 진행된 국방개혁 내용들은 방향성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논쟁의 연장선'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반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방개혁의 중장기 방향성을 확보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기간 중 GDP 대비 국방비의 비중을 상향 배분 및 국방비 중 방위력 개선비 비중을 높인 것은 의미 있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미관계 현안을 양자협의 틀 속에서 해결하는 원칙을 확립하였고, 사회변화 추이를 고려하여 중장기 병역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한 점도 높이 평가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한 것도 의미 있다.

차기정부는 다음 몇 가지 원칙을 지킴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안보분야에서 '논쟁적인 이슈'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둘째, 국방정책 결정과정에서 군사지도자들의 판단이 존중받는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 정치지도자 간 초당파적 입장에서 안보 및 국방문제에 대한 정책조율이 필요하다. 국방정책은 정책의 형성 및 집행에 소요되는 기간이 여타 분야의 정책보다 길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정책 성과들은 5년, 10년 이후에 나타날 것이다. 5년 이내에 성과를 보일 정책보다 10년, 20년의 국가전략을 군사력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국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주제어: 참여정부, 국방정책, 국방개혁, 한미관계

동북아시대구상의 현실과 과제

배 기 찬(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 초빙교수)

Ⅰ. 머리말
Ⅱ.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상의 의미
Ⅲ. 동북아시대구상의 전략적 성격과 전개과정
Ⅳ. 동북아시대구상 전개의 애로요인
Ⅴ. 동북아시대구상의 성과와 과제

국문요약

이 논문은 노무현 정부의 3대 국정목표 중 하나였던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분석한 것이다. 그동안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는 주로 '동북아공동체'적 관점에서 분석되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이 '국정목표'가 어떻게 정립되고, 그 내용이 무엇이며, 전개된 결과 어떤 성과와 과제를 남겼는지를 분석했다.

동북아시대구상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협력과 갈등이라는 조건 속에서 정립되고 추진되었다. 그리고 전개과정에서 국가전략적, 경제전략적, 안보전략적, 지역주의전략적 성격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내셔널리즘과의 갈등과 FTA 추진상의 갈등, 그리고 지역주의의 범위를 둘러싼 갈등 등이 있었다.

동북아시대구상은 결과적으로 동북아의 세력관계 변화에 정확히 대응해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의 지평을 넓히고, 6자회담과 남북관계를 진전시킨 성과가 있다. 그러나 내셔널리즘에 대한 대처, 동아시아지역주의에 대한 새로운 접근, 중국에 대한 국가전략 수립의 필요성 등을 과제로 남겼다.

주제어: 동북아시대구상, 내셔널리즘, 동북아공동체, 동아시아지역주의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현황과 과제

박 종 철(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Ⅰ. 머리말
Ⅱ.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과 비핵화, 한반도평화체제
Ⅲ. 한반도평화체제의 접근구도
Ⅳ. 한반도평화체제와 군비통제
Ⅴ. 맺음말

국문요약

2차 북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에 한반도평화체제문제가 포함되었다. 9.19 공동성명은 북핵포기를 위해 대북경제·에너지 지원, 관련국 간 관계정상화,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동북아다자안보대화체제 구축 등을 도모하는 입체적 접근방식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한반도평화체제는 비핵화과정과 관련되게 되었다.

이점을 염두에 두고 참여정부 하에서 진행된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상황을 검토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첫째, 참여정부가 구상한 평화번영정책과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의 목표를 검토하고자 한다. 참여정부가 포괄적 국가전략인 평화번영정책의 틀 위에서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한반도평화체제문제가 비핵화와 연관된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참여정부 출범 전인 2002년 10월 2차 북핵위기가 발생함으로써 참여정부의 한반도평화정착 구상은 핵문제에 압도되었다. 그러나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9.19 공동성명에 한반도평화체제문제가 포함되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한반도평화체제문제를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비핵화와 한반도평화체제문제가 밀접하게 관련됨으로써 비핵화에 대한 한반도평화체제문제의 종속화현상이 초래되었다. 따라서 한반도평화체제문제가 비핵화와 관련되게 된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앞으로 한반도평화체제를 논의하는 협상틀이 될 한반도평화포럼(가칭)의 구성에 대해 전망하고자 한다. 6자회담과 한반도평화포럼과의 관계, 구성국, 구성 시기 및 추진방식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사항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전쟁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과의 관계, 3자 또는 4자정상의 종전선언 등의 의미를 정리하고자 한다.

넷째, 한반도평화체제의 실효성과 관련된 한반도군비통제 현황을 검토하고자 한다. 한반도군비통제는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보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평화체제의 진전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기도 하다.

주제어: 한반도평화체제, 비핵화, 한반도평화포럼, 종전선언, 군비통제

중추적 중견국가론과 참여정부의 균형적 실용외교

이 수 형(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Ⅰ. 서론
Ⅱ. 중추적 중견국가와 참여정부의 외교전략
Ⅲ. 참여정부의 글로벌 정상외교 및 국가외교역량 강화 추진 현황
Ⅳ. 참여정부의 균형적 실용외교에 대한 평가
Ⅴ. 결론

국문요약

지난 냉전시대의 국제정치는 강대국 권력정치로 압축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체제의 성격으로 강대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의 외교정책은 국제정치 현실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세기의 전환기에 발생한 국제체제의 근본적 변화는 중견국가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그들이 국제정치에서 행할 수 있는 역할 공간을 확장시켜주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지난 냉전시대 한국의 외교정책은 전형적인 '냉전적 패러다임'에 입각해 있었으나 국제정치 환경의 근본적 변화, 우리의 국가역량의 증대와 새로운 자각의식 등 지난날 한국의 외교정책을 규정해 왔던 제반 환경과 여건이 변화하였다. 이러한 상황 변화는 21세기 중견국가로 성장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특히, 경제력과 군사력 중심의 경성권력에 있어서 세계 10위권에 해당하는 우리의 국가역량은 기존의 한반도 위주의 외교 영역의 탈피를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력 신장에 부합하는 국제사회에서의 새로운 역할 모색을 추동하고 있다.

이 글은 중추적 중견국가론의 관점에서 참여정부의 외교정책을 분석한다. Ⅱ장에서는 중추적 중견국가에 대한 개념 정의, 외교적 행태의 주요 특징 및 전략적 옵션, 그리고 참여정부의 외교전략인 '균형적 실용외교'의 주요 내용을 고찰한다. Ⅲ장에서는 참여정부의 외교정책 추진 내용을 정상외교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Ⅳ장에서는 중추적 중견국가론의 관점에서 참여정부의 외교전략 및 외교정책 추진 내용을 평가하고자 한다.

주제어: 중추적 중견국가, 균형적 실용외교, 글로벌 정상외교, 국가외교역량 강화, 실용주의 외교

한 · 중 · 일 3국의 정치적 태도 비교 연구: 민주주의와 사회경제체제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김 두 식(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Ⅰ. 서론
Ⅱ. 한 · 중 · 일 3국의 정치적 가치관의 성격과 변화에 대한 논의
Ⅲ. 연구방법: 자료의 성격과 변수
Ⅳ. 분석결과
Ⅴ. 결론

국문요약

이 연구는 한 · 중 · 일 3국의 정치적 태도와 사회경제체제를 '세계가치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국가 간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중국의 아시아적 가치 지향성이 가장 높고 일본이 가장 낮으며 한국은 그 중간이다. 서구적 민주주의 지향성은 일본이 가장 높고 한국이 그 다음이며 중국이 가장 낮다. 중국인이 한국인과 일본인보다 상대적으로 자본주의 지향성이 높고 보수적인데 반해, 일본인은 개혁 지향적이고 한국인은 상대적으로 혁명 지향적이다. 한 · 중 · 일 3국의 정치적 태도에서의 이러한 차이는 그동안의 사회구조적 변동 경험을 반영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민주적 정치문화가 확산되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의 정치지도자들이 민주주의의 이상을 추구하기보다는 실용적이고 기능적으로 민주주의에 접근하고 있는 한 중국의 정치적 민주화는 급격하게 단시일에 실현되기보다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아시아적 가치, 서구적 민주주의, 민주적 정치체제, 자본주의, 사회주의

북핵문제와 남북러 삼각 에너지협력

박 정 민(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

Ⅰ. 서론
Ⅱ. 북핵문제와 러시아의 역할론
Ⅲ. 북러 경제협력 현황과 에너지협력에 대한 러시아와 북한의 입장
Ⅳ. 삼각 에너지협력에서 한국의 역할과 전략: 정책적 함의
Ⅴ. 결론

국문요약

이 글은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해 그간 소홀하게 다뤄져 온 러시아의 역할을 제고시켜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북핵문제가 곧 북한 에너지부족 문제와 직접적 연관을 맺고 있으며, 러시아는 6자회담 관련국 가운데 북한과 접경하고 있으면서 가장 풍부한 에너지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즉 북한의 핵개발 의도가 체제 안전보장과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에 있다는 현실적인 가정을 한다면 러시아는 후자의 문제 해결에 주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러 간 경제교류협력 관계를 분석하면서 특히 다양한 에너지협력 방안을 러시아의 역할과 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북핵문제 해결과 연관된 에너지협력사업은 남북러 삼각협력 중심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고, 또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새 정부가 취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핵문제 진전 시 새 정부는 러시아와 한반도를 파이프라인, 송전선, 철도 등으로 연결하기 위한 관련국들의 노력을 주도적으로 견인하면서 이를 북핵문제의 해결뿐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자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전환점으로 활용해야 한다. 국제협력을 통한 재원조달 차원에서 관련 이해당사국과의 컨소시엄을 조성하거나, 러시아로부터 에너지자원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우리의 기술로 관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패키지 딜(Package Deal) 협력방식도 고려해야 한다.

주제어: 북핵문제, 남북러 에너지협력, 러시아, 북한, 한국

남 · 북한 통일방안과 통일지향적 과도체제로서의 복합국가체제: 그 수렴 가능성 탐색

강 광 식(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Ⅰ. 문제의 제기
Ⅱ.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제'의 기본 성격 비교
Ⅲ. 남 · 북한 현존 통일방안의 수렴 가능성 진단
Ⅳ. 결론: 통일지향적 과도체제로서의 요건과 과제

국문요약

이 논문은 '6 · 15 공동선언' 제2항이 지니는 실천적 의미를 점검하기 위하여 남 · 북한의 현존 통일방안에서 설정하고 있는 과도체제의 성격을 복합국가체제의 관점에서 비교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에 내재하는 기본 성격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고 그 바탕 위에서 양 방안의 수렴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통일지향적 과도체제가 갖춰야 할 요건에 비추어 특히 복합국가체제의 이념적 지향에 주목해서 향후의 과제를 모색하고 있다.

주제어: 통일방안, 통일지향적 과도체제, 복합국가체제, 국가연합, 연방제

세계화 시기 한국 재외동포정책의 쟁점과 대안: 재외동포법과 이중국적을 중심으로

전 재 호(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

Ⅰ. 들어가는 말
Ⅱ. 재외동포에 대한 기본적 이해
Ⅲ. 재외동포정책의 변화
Ⅳ. 재외동포정책의 주요 쟁점들
Ⅴ. 나가는 말: 재외동포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국문요약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재외동포정책이 등장한 것은 1990년대였다. 이는 탈냉전과 국내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구공산권 동포의 대량 유입과 세계화에 따른 재외동포 활용 가능성 증대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 글은 이러한 재외동포정책을 둘러싼 쟁점과 대안을 고찰한다.

재외동포법을 둘러싼 주요 쟁점은 첫째, 1998년 재외동포법 제정 시 법무부가 모든 재외동포를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킨데 비해, 외교통상부는 국제규범을 근거로, 또한 중국은 조선족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를 반대했다. 둘째, 2001년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재외동포기본법의 제정을 주장하는 개정론과 이 법률의 폐지를 주장하는 폐지론이 대립했다. 셋째, 2005년 경 정부와 여론은 재외동포의 이중국적을 부정한 반면, 일부 학자들은 이의 허용을 주장했다.

이렇게 재외동포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는 이유는 첫째, 국제규범과 재외동포법의 충돌 때문이다. 둘째, 재외동포법은 국민(재외국민)과 외국인(외국국적동포)을 포괄하기 때문에 법 논리적으로 부적절하다. 셋째, 상이한 '역사성'을 지닌 재외동포들을 동일한 법 적용의 대상으로 포괄했다. 넷째, 재외동포법이 기초한 재외동포의 개념이 모호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외동포법이 아닌 개별법을 통해 재외동포에게 혜택을 주거나 또는 외국인의 처우 개선을 통해 재외동포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중국 동포에게는 국적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며 궁극적으로 재외동포의 이중국적을 허용한다.

주제어: 재외동포, 재외동포법, 이중국적, 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 국적

적극적 평화 구현을 위한 멀티트랙 외교와 다층적 거버넌스의 함의: 제주 '세계평화의 섬' 사업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고 경 민(제주대 정치외교학과 BK21계약교수)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와 평가의 준거
Ⅲ. '세계평화의 섬' 추진체계와 평화 실천사업
Ⅳ. '세계평화의 섬' 사업 평가와 적극적 평화의 구현 방향
Ⅴ. 결론

국문요약

이 글은 '세계평화의 섬'의 평화실천 추진체계와 실천전략, 그리고 평화실천사업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적극적 평화실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평화의 개념, 평화실천의 주체, 평화실현의 방식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위한 평가의 준거가 되는 분석 틀은 적극적 평화구현의 방법론이자 실천전략으로써 멀티트랙 외교와 다층적 거버넌스가 가지는 이론적 함의를 바탕으로 구성한다.

'세계평화의 섬'의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첫째, '세계평화의 섬'에서 추구하는 평화 개념의 재성찰이 필요하다. 둘째, 평화실천사업 주체의 다양화 모색이다. 셋째, 적극적 평화구현을 위한 다양한 평화실천사업의 발굴과 평화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넷째, 국제자유도시와 '세계평화의 섬'의 '동시병행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과 다양한 민간부문의 중층적 협력, 국제자유도시와의 동시병행 연계, 그리고 제주도–한반도–동북아 수준으로의 병행 확산 등을 기반으로 하는 다층적 거버넌스 전략 하에 추진될 때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적극적 평화, 멀티트랙 외교, 다층적 거버넌스, 세계평화의 섬 제주

국내 정보활동과 기본권:
미국의 사례를 통해 본 교훈

신 유 섭(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Ⅰ. 서론
Ⅱ. 국내 정보활동 관련 논점
Ⅲ. 미국의 국내 정보활동 관련 논의
Ⅳ. 미국의 국내 정보활동 규제의 성격
Ⅴ. 결론: 한국에서의 국내 정보활동 개선 방안

국문요약

감청과 같은 국내 정보활동은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공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는 한다.

본 논문은 국내 정보활동 및 기본권과 관련된 주된 논쟁들을 분석하고, 미국의 사례를 인용해 가며 한국에서 국내 정보활동과 관련되어 제기되었던 문제들의 성격을 진단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국내 정보활동의 정통성과 그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를 향상시키고, 국내 정보활동이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본래의 순수한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할 점들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제어: 국내 정보활동, 정보기구, 기본권, 감청, 미국 정보계

북한의 의사(疑似) 시장 기제와 생존 전략 연구: 이중경제(Dual Economy)와 버츄얼경제(Virtual Economy) 전략을 중심으로

이 정 철(숭실대 정치외교학과 전임강사)

Ⅰ. 서론: 체제이행에 대한 진화론적 접근의 필요성
Ⅱ. 쿠바의 이중경제와 러시아의 버츄얼경제
Ⅲ. 북한의 가격시스템 변화와 이중경제 전략
Ⅳ. 버츄얼경제의 북한적 적실성 검토
Ⅴ. 결론

국문요약

본 연구는 최근 북한의 경제 변화를 분석하는 개념 틀을 마련하고자 최근 쿠바의 이중경제와 90년대 후반 러시아의 버츄얼경제 개념을 고찰하였다. 양 경제의 공통점은 가치창출 부문과 가치소비 부문이 분리되어 있고 가치창출 부문에서 창조된 가치가 과거와 같은 행정 명령식 방법이 아니라, 국가의 간접적인 '조정' 즉, 의사(疑似) 시장방식에 의해 다른 부문으로 이전된다는 점에 있다.

'사실상의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채택된 이중경제 전략 즉, 달러화와 이중환율 정책은 가치이전 효과를 지니고는 있지만, 인플레이션으로 귀결되기 쉽다. 따라서 전통산업이나 경쟁력 없는 기업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다. 이때 버츄얼경제는 보조금 방식으로 회귀하지 않고, 비교역 부문과 전통산업 부문을 보호하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북한을 버츄얼경제로 볼 수 있는 적실성을 제시하지는 못하였고, 북한에서 현물거래와 임금지체 현상이 갖는 버츄얼경제적 의미를 분석하는 데에 머무르고 있다. 다만 체제이행 전략이 아니라 시장 등장에 따른 생존 전략으로서, 달러화와 이중환율에 의한 이중경제화 및 버츄얼경제 전략은 북한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주제어: 이중경제, 버츄얼경제, 가격, 달러화, 쿠바, 러시아

박정희 시대의 민중운동과 민주주의: 재야의 기원, 제도관계, 이념을 중심으로

박 명 림(연세대 지역학협동과정 조교수)

Ⅰ. 문제의 제기
Ⅱ. 재야의 등장과 기원: 우파 민족주의, 북한 출신, 그리고 기독교
Ⅲ. 제도정치와 운동정치의 상관관계: 국민투표민주주의와 재야의 저항
Ⅳ. 재야의 지향가치와 이념
Ⅴ. 결론: 재야와 한국 민주주의

국문요약

재야는 1960-70년대 박정희 체제 통치 시기 권위주의 국가에 대해 강력하게 도전한 사회운동세력이었다. 한국 재야의 1세대들은 주로 우파 민족주의자, 북한 출신, 크리스찬들이었는데, 이 3요소의 절묘한 만남은 '전통좌파의 소멸'과 '군부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저항의 필요성'의 공간을 정치적 이념적으로 충족시켜주는 동시에, 권위주의에 강력하게 저항하면서도 이념적으로 오해를 사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이상적 조합이었다.

재야의 이념적 지향은 통설과는 달리 급진주의가 아니라 온건주의, 대북화해가 아니라 반공주의, 통일지향이 아니라 안보우선주의, 반미주의가 아니라 친미주의였다. 특별히 민주주의에 관한한 재야는 자유민주주의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고, 친북과 반미 주장은 없었다. 그러나 박정희 체제가 경제발전을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 반공과 안보를 통한 민주발전의 토대구축을 말한데 비해 재야는 자유와 민주주의 없는 경제발전은 불가능하며, 또 민주주의를 통한 반공과 승공을 주장하였다. 둘 사이에는 순서와 선후관계에 대한 전도된 인식이 발견된다.

제도정치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선거와 저항, 정당과 재야, 제도정치와 운동정치는 정의 관계 및 부의 관계를 동시에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즉 정당과 대표체계의 저발전으로 인해 재야의 존재 영역과 필요성이 주어진 동시에 제도정치와 운동정치가 단일 반대조직을 결성, 서로 보완적 역할을 수행했을 때 반대세력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했다. 또한 선거(제도정치)에서 나타난 집합의지와 재야가 주도하는 직접적 저항(운동정치) 사이에도 두 가지 관계가 동시에 존재했다.

주제어: 재야, 북한 출신, 제도정치, 자유민주주의, 친미주의, 반공주의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의 지지 변화: 누가 왜 바꿨나

강 원 택(숭실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Ⅰ. 들어가는 말
Ⅱ. 분석의 틀
Ⅲ. 분석: 누가 왜 바꿨나
Ⅳ. 결론

국문요약

이 글의 목적은 2007년의 대통령 선거와 2008년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가 변화된 원인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주목하는 점은 대통령 선거 때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던 후보자들이다. 이 글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그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다. 첫째,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그 의미나 중요성이 다르며, 특히 대선 직후 실시되는 총선은 신임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이 높은 시기에 실시되는 것이므로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운영이나 정국 안정에 보다 큰 중요성을 높일 수 있다. 즉 대통령이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단기적인 이슈의 영향이다. 비록 4개월이라고 해도 그 사이에 적지 않은 정치적 사건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겨날 수 있고 그것이 집권당에 대한 평가에 반영되는 경우이다. 세 번째는 지역구에서 해당 후보자나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이런 세 가지 요인에 대해 모두 아홉 가지 변수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다항 로지스틱 분석 결과 가장 강도가 강하고 일관성 있게 나타난 것은 '안정 대 견제' 이슈였지만, 단기적인 이슈의 영향도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났다. 범진보 정당군으로 옮겨간 이명박 지지자들에게는 대운하 건설 논란과 각료 인선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타 보수 정당군으로 옮겨간 이들에게는 역시 한나라당 공천 문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 전후에 제기된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들이 실제로 표의 이탈로 이어졌음이 확인되었다.

주제어: 2008년 총선, 2007년 대선, 이명박, 단기적 이슈, 한나라당

정당 이합집산의 조건:
열린우리당의 변화(2003-2007)

박 경 미(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전임강사)

Ⅰ. 문제제기
Ⅱ. 정당 이합집산의 조건: 조직적 특성과 선거예측
Ⅲ. 창당으로부터 배태된 이합집산: 중앙조직으로서의 정당
Ⅳ. 조직쇄신과 발전: '유권자 속의 정당'과 '정부 속의 정당'의 분리
Ⅴ. 이합집산의 선택: 부정적 선거예측과 정당자원
Ⅵ. 결론

국문요약

이 글은 열린우리당의 창당기 이후 진화과정에서 나타난 조직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당 이합집산의 조건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전 집권당과 달리, 열린우리당의 창당과 변화는 선거 전후 '단기간'에 '자발적'이며 '순차적'으로 전개되었다. 집권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당 이합집산이 가능했던 조건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정당변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정당 이합집산의 조직적 조건을 분석결과로 제시한다. 정당 이합집산은 정당의 조직적 성격과 선거시점의 정당자원에 대한 평가의 결합의 산물이다. 열린우리당은 당선가능성이 높은 외부인사를 반수 이상 공천한 가운데, 현역의원의 높은 자율성으로 인해 강한 지배연합 형성의 계기를 만들지 못하였다. 빈번한 대표체제 교체 속에서 '유권자 속의 정당'과 '정부 속의 정당'의 분리, 중앙당 기능의 축소는 열린우리당을 '계층성구조'를 갖는 카르텔정당으로 발전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직적 조건에서 부정적 선거예측은 소속의원들이 정당자원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정당자원의 대체가능성 모색으로 이어져, 그 결과는 탈당, 신당창당, 그리고 다시 합당이라는 이합집산이었다.

이 연구의 분석적 함의는 정당의 기능과 대표성에 대한 강조에 있다. 카르텔정당적 발전은 선거성패에 따라 정당조직이 또 다시 전환할 가능성을 높여 선거승리만을 목적으로 한 정당의 조직전환을 빈번히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당 이합집산은 한국 정당의 장기적 발전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

주제어: 이합집산, 집권당, 선거예측, 정당조직, 카르텔정당

주체사상과 선군사상: 지배이데올로기의 변화 가능성

양 무 진(북한대학원대 조교수)

Ⅰ. 서론
Ⅱ.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과 이데올로기
Ⅲ. 주체사상의 사회적 통제력 약화
Ⅳ. 위기상황과 지배이데올로기의 변용
Ⅴ. 새로운 시대정신 선군사상
Ⅵ. 결론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탈냉전기 북한체제의 총체적 위기상황에서 지배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체사상에서 선군사상으로의 변화과정을 추적하면서, 이러한 변화들이 체제정당화와 어떤 연관을 가지는지, 선군사상이 또 다른 지배이데올로기로의 대체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과 지배이데올로기와의 상관관계를 북한에 적용한 연구로서, 포괄적 의미의 비교사례분석 연구이다. 연구시기는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이며 연구방법은 북한의 공식 문헌과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에 대한 기존 문헌을 비판적으로 독해하고 분석하는 문헌분석방법에 의존하였다.

선군사상은 비록 이론화단계에 있으나 실천이데올로기의 기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에 의한 체제위기감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체제위기가 감소된다면 그 실효성과 생명력이 줄어들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최근 북한은 정치 군사강국에 이은 경제강국 건설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면서 주민생활 향상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지배이데올로기가 사상성·투쟁성에서 벗어나 점차 경제발전을 위한 이데올로기로 변화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체제전환과 지배이데올로기의 상관관계를 분석전망함에 있어, 북미관계 개선 때까지는 소극적인 개혁을 이끄는 쿠바형을 유지하면서, 북미관계 및 남북관계의 진전, 6자 관련국들의 협력이 확대된다면 점진적 단계적인 중국형으로 나아가다가 지배이데올로기도 점차 '실리 사회주의'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주제어: 주체사상, 선군사상, 지배이데올로기, 체제전환, 강성대국

한반도적 맥락의 비판적 평화 · 안보담론: '평화국가담론' 재론

구 갑 우(북한대학원대 부교수)

Ⅰ. 문제설정
Ⅱ. 담론의 시대
Ⅲ. 한반도 평화 · 안보담론의 생태계
Ⅳ. 평화국가담론의 사례: 논쟁
Ⅴ. 결론에 대신하여: 남한 시민사회와 남북관계

국문요약

이 글은 국가정보원 전단의 분석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현실을 구성하는 역할을 하는 담론 가운데 평화담론과 안보담론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 들이 각기 하나의 담론이 아니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하나의 담론이 지배하는 사회를 가정할 수도 있지만, 서로의 차이가 존재하고 미래가 불확실할 경우, 담론들의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탈냉전 시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안보담론들 내부의 경쟁, 안보담론과 평화담론의 경쟁을 목도하고 있다. 마치 자연의 생태계처럼 평화 · 안보담론의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 한반도 평화 · 안보담론의 생태계를 분석한 후 탈냉전 시대 한국 '시민사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비판적 평화 · 안보담론 가운데 하나인 '평화국가담론'을 둘러싼 논쟁을 살펴본다. 국가안보담론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평화국가담론을 둘러싸고, 한국 시민사회 내부에서 비판과 반비판이 전개되었다. 세력균형에 의한 평화를 넘어서는 한반도 평화를 구상하고자 하는 한국 시민사회의 평화국가담론의 내용과 한계를 고찰하는 것이 이 글의 또 다른 목적이다.

주제어: 평화, 안보, 담론, 한국 시민사회, 평화국가, 한반도

동북아 공동체 형성의 인식론적 장애 요인: 한국에서의 반일 반중 의식

지 병 근(조선대 정치외교학과 전임강사)

Ⅰ. 서론
Ⅱ. 대외 인식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
Ⅲ. 연구 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국문요약

이 논문은 동북아 지역 국가 사이의 협력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인식 차원의 장애 요인들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한국인의 감정에서 나타나는 중국과 일본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정도와 그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동아시아연구원의 Global View 2006 서베이 데이터에 의존하여 한국인들의 반일 또는 반중 감정이 감정적 질시, 이념 또는 위협에 대한 합리적 대응이라는 기존의 설명들이 부분적으로 타당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수행되는 일중 양국의 역할에 대한 규범적 차원의 연성권력자원이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점을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 조셉 나이의 연성권력이론을 지지하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저자는 한중일 삼국 간의 국가적 반감의 기원은 획일적이지 않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처방 또한 국가 간 대립의 역사적 맥락에 따라 달리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제어: 일본, 중국, 연성권력, 이념, 반미

동아시아 통화 · 금융협력과 일본: 동인, 구상 그리고 한계

조 재 욱(한국방송통신대 강사)

Ⅰ. 머리말
Ⅱ. 동아시아 경제위기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대응
Ⅲ. 일본의 통화 · 금융협력 구상과 의도
Ⅳ. 일본 역할의 평가와 전망: 결론을 대신하여

국문요약

본 연구는 동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일본이 동아시아 통화 · 금융협력정책을 시행하게 된 동인, 구상, 한계를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동아시아 통화 · 금융협력정책의 성격을 규명하였다.

동아시아 경제위기라는 외형적 반응을 통해 이루어진 일본의 통화 · 금융협력정책은 동아시아에서 AMF 제안, 신미야자와 구상, 국가 간 통화스왑제도 구축 제안, 아시아 채권시장 육성 제안 등 주도적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통화 · 금융협력 구상들의 협력의 당위성, 이행과정의 설명, 경제적 기능의 분석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또한 이러한 통화 · 금융협력은 일본 스스로의 선택이라는 사실은 높게 평가할 만하나, 독립적 외교정책을 추구하기 위한 의지는 다소 부족하였다. 통화 · 금융협력의 구상들이 미국의 영향력에 의해 좌절되거나, 미국의 금융질서를 존중하는 선에서 그 정책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일본의 통화 · 금융협력정책의 성격은 수동적-협력형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일본, 동아시아, 동아시아 경제위기, 동아시아 통화 · 금융협력

지역경제통합과 조세경쟁: 유럽단일시장과 신자유주의적 조세정책

배 병 인(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Ⅰ. 서론
Ⅱ. 조세경쟁이론과 지역경제통합
Ⅲ. 유럽연합 회원국의 신자유주의적 조세개혁과 결정요인
Ⅳ. 결론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세경쟁이론의 관점에서 유럽연합 내에서의 신자유주의적 조세정책의 확산을 경험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자본 및 법인 소득세율의 인하를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조세정책은 1980년대 이후 서구 국가들 대부분으로 확산되어 왔다. 유럽연합 국가들의 경우 유럽단일시장이 출범한 1990년대 이후 본격적인 신자유주의적 조세정책으로의 전환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유럽단일시장으로 인한 역내 조세경쟁 효과에 기인한다. 조세경쟁이론은 신자유주의적 조세정책의 확산을 자본 이동성의 증대에 따른 조세경쟁 압력의 효과로 설명하여 왔다. 그러나 자본 이동성의 증대가 창출하는 조세경쟁의 일반적 경향성은 국가 간 상호작용의 특수성을 매개로 관철된다. 이러한 '조세경쟁의 불균등성'으로부터 자본 이동성의 증대라는 일반적 경향이 지역경제통합의 심화라는 지역적 효과를 통해 관철된다는 가설이 수립된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법인 소득세율 자료를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이 가설을 확증한다. 유럽단일시장의 조세경쟁 효과에 대한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유럽통합의 전망을 둘러싼 논의를 이해하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주제어: 조세경쟁, 유럽통합, 유럽단일시장, 신자유주의적 조세정책

한미동맹복원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 수 훈(경남대 심리사회학부 교수)

Ⅰ. 머리말
Ⅱ. 참여정부 한미동맹 조정에 관한 논의 검토
Ⅲ. 한미동맹복원론의 오류
Ⅳ. 한미동맹강화론의 위험
Ⅴ. 맺음말

국문요약

이 논문은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한미동맹복원론 혹은 강화론에 대해 비판적 검토를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 5년간의 한미동맹 조정 혹은 변화에 관한 학계의 논의를 분석하였다. 그 분석에 기초하여 동맹복원론이 범하고 있는 오류를 지적한 후, 동맹복원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한미동맹강화론이 가질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논의하였다.

분석결과, 참여정부 5년 전체를 볼 때 한미동맹은 복원을 논할 정도로 해체되지 않았다. 조정되어야 할 쟁점사안들이 정상적으로 조정된 정상조정론이 객관적 타당성을 갖는다고 결론지었다. 이 결론을 바탕으로 삼아 한미동맹복원론이 오류들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시급히 수정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 한미동맹강화론이 야기할 수 있는 미국의존성 증대로부터 비롯되는 위험, 균형감각 상실 위험, 대안적 상상력 제약 위험, 재정적 부담 증대 위험, 세계적 위협에의 불필요한 연루 위험 등 다섯 위험을 꼽으면서 '21세기 전략적 동맹'에 대해 사려 깊은 접근을 주문하였다.

주제어: 한미동맹, 동맹조정, 참여정부, 전시작전통제권, 주한미군

박정희 시대의 야당 연구

김 수 진(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Ⅰ. 서론
Ⅱ. 분석적 개관
Ⅲ. 제3공화국 시기의 조직적 이합집산과 당권의 흐름
Ⅳ. 유신시대의 야당과 반대노선
Ⅴ. 결론

국문요약

이 글은 박정희 시대 한국 야당이 자신의 조직과 역할을 어떻게 형성하고 또 변화시켰는지 분석한다. 야당 조직의 변모는 제3공화국에 두드러지고 반대노선과 전략의 변천은 유신시대에 두드러진다.

제1, 2공화국 정당정치의 유산, 보수독점의 정치지형, 권력자원 배분과 대여투쟁 방식을 둘러싼 야당 지도자 간의 대립과 갈등 등이 60년대 야당 조직 분열에 영향을 끼쳤다. 반면 대통령제와 선거제도 등 제도적 요인으로 갈수록 강해지는 정부와 여당에 힘을 합쳐 싸워야 할 절박성이 결합해서 신민당이라는 단일 야당을 출현시켰다.

유신체제하에서 신민당 내부는 의원직 분배를 둘러싸고 후원-고객의 관계를 형성한 당내 파벌정치의 심화와 더불어 체제와의 관계설정을 둘러싼 노선투쟁이 복합적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여 주었다. 그에 따른 신민당의 노선은 체제수용형 반대, 체제타협형 반대, 체제부정형 반대라는 세 가지 노선 사이에서 불안정한 진동을 거듭해가면서 유신체제의 전개와 그 파국적 결말에 비록 제한적이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행사했다.

주제어: 박정희, 유신시대, 제3공화국, 야당, 신민당

원내 의석분포, 대통령의 권력, 그리고 국회법개정의 방향: 민주화 이후 국회를 중심으로

김 민 전(경희대 학부대학 조교수)

Ⅰ. 들어가는 말
Ⅱ. 내생적(endogenous) 제도변화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Ⅲ. 가설 및 방법
Ⅳ. 분석
Ⅴ. 맺음말

국문요약

정치제도는 정치행위자들을 규율하는 외생변수라는 측면에서 접근되기도 하지만, 정치적 역학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내생변수로 접근되기도 한다. 여기서는 정치제도를 내생변수로 보는 입장에 서서 원내 의석분포와 대통령의 권력이 국회법개정의 방향에 미친 영향을 민주화 이후 국회법의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여당의 힘이 강했던 14대와 17대 국회에서는 국회의 운영을 효율화해 국회운영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 중심의 제도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야당의 힘이 강했던 13대, 15대, 16대 국회에서는 의회운영을 특정세력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분권성과 국회의 대행정부 견제력 및 정보수집력을 강화하는 요소들이 대거 포함된 국회법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제어: 국회법개정, 정치제도, 의석분포, 대통령 영향력

한국 정당경쟁의 이념적 차원: 권위주의시기와 민주주의시기의 비교

이 지 호(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강사)

Ⅰ. 서론
Ⅱ. 방법론적 논의
Ⅲ. 자료 및 분석절차
Ⅳ. 분석
Ⅴ. 결론

국문요약

이 논문은 선거강령자료를 기초로 공간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정부수립부터 최근까지 한국 정당경쟁의 이념적 차원을 규명하고, 이를 둘러싼 정당의 변화를 민주화 이후 시기에 초점을 맞추어 추적한다.

논문은 첫째, 한국의 주요 정당이 서구적 좌–우 이념의 틀에서 보면 우익의 협애한 공간에 있지만, 권위주의의 경험으로부터 오는 독특한 정치균열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정치노선과 정책지향성으로 경쟁해 왔다는 것이다.

둘째, 선거강령에 기초한 논문의 분석은 정부수립부터 최근까지 한국의 정당경쟁이 4가지 이슈 차원에서 진행되었음을 발견하고, 그중 '발전주의 대 민주주의'가 가장 현저했으나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쇠퇴하고, 최근에는 '효율적 정부 대 사회적 서비스'와 같은 좌–우 성격의 차원에서 정당이 정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유럽정치협회(ECPR)의 강령연구그룹(MRG)이 도출한 좌–우 척도를 한국 정당의 선거강령에 적용함으로써, 한국의 정당경쟁이 지난 10년간의 민주주의 공고화시기에 좌–우 이념적 차원에서 구조화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정당경쟁, 정당이념, 정책선호, 공간분석

87년체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제도변화의 논리를 중심으로

현 재 호(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Ⅰ. 문제제기
Ⅱ. 제도변화의 논리
Ⅲ. 87년체제의 발생론적 특징
Ⅳ. 87년체제의 평가: 정치협약을 통해 본 제도변화의 논리
Ⅴ. 대안으로서의 포스트 87년체제: 효율성에서 대표성·형평성으로
Ⅵ. 결론

국문요약

이 논문의 목적은 요즈음 널리 회자되고 있는 소위 87년체제를 정치제도적 차원에 한정하여 제도변화의 논리를 통해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분석의 초점은 세 가지다. 첫째, 87년체제의 발생론적 특성에 대한 해명이다. 이는 87년체제가 기반하고 있는 제도디자인의 원리를 분명히 하는 것과 관련된다. 둘째, 87년체제의 제도변화 내용과 결과에 대한 평가다. 셋째, 포스트 87년체제의 제도변화 방향을 살펴본다.

전체적으로 87년체제는 대표성은 말할 것도 없고, 효율성에 기반한 제도디자인의 원리에 부합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한마디로 87년체제는 정치적 거버너빌러티나 정당체제의 제도화 차원에서 모두 실패했다. 이는 민주화 이후 지난 20년 동안 왜 사회통합의 위기가 지속되어 왔는가 하는 이유다. 이 점에서 포스트 87년체제를 향한 제도변화는 효율성의 원리가 아닌 대표성의 원리에 기반한 제도디자인을 목표로 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제도변화는 단순히 개별제도 차원의 좋고 나쁨을 떠나 제도간 연계 차원에서 각 제도를 하나의 세트로 간주하여 단행할 필요가 있다. 현대민주주의가 정당민주주의라면, 이를 강화시키는 제도적 조합은 의원내각제–비례대표제다.

주제어: 87년체제, 제도변화, 제도디자인, 거버너빌러티, 정당체제

중국 정치 엘리트의 특성: 유형화와 그 변화

주 장 환(한신대 중국지역학과 조교수)

Ⅰ. 서론
Ⅱ. 분석틀: 통합, 분화, 순환과 정치 엘리트 유형
Ⅲ. 중국 정치 엘리트의 성격과 그 변화
Ⅳ. 결론: 이념형/대체형에서 분절형/재생산형 엘리트로의 전환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국 정치 엘리트의 특성을 보편적 틀로써 규명해보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최신 세계 정치 엘리트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기초 위에서 중국 정치 엘리트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하고, 동시에 그 변화를 고찰하고 있다. 기본 자료는 1921년부터 2003년까지의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 1,604명의 기록을 정리한 '중국 정치 엘리트 데이터베이스(1921~2003)'이다.

연구 결과 중국 정치 엘리트는 강한 통합 정도와 낮은 분화 정도 그리고 급진적 방식과 넓은 범위의 순환을 그 특징으로 하는 이념형/ 대체형에서 약한 통합 정도와 높은 분화 정도 그리고 점진적 방식과 좁은 범위의 순환을 그 특징으로 하는 분절형/재생산형으로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어: 중국 정치 엘리트, 엘리트 변화, 이념형/대체형, 분절형/재생산형

데칼로그 협상과 독일문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주는 함의

홍 기 준(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조교수)

Ⅰ. 서론
Ⅱ. 독일문제와 헬싱키 최종의정서
Ⅲ. 데칼로그 협상과 독일문제
Ⅳ. 결론: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주는 함의

국문요약

이 연구는 1972년부터 1975년까지 진행되었던 헬싱키 최종의정서(Helsinki Final Act)의 협상과정 중에서 국제관계를 규정하는 10개의 원칙(Decalogue)을 독일문제와 관련하여 분석하였다. 소위 헬싱키 프로세스(Helsinki Process)라 불리어지는 이 과정은 유럽에서 냉전을 종식시키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유럽분단의 원인이 되었던 독일문제(German Question)는 헬싱키 최종의정서 협상의 전 과정을 통해서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다. 독일은 CSCE 협상에서 동방정책(Ostpolitik)을 뛰어넘는 독일정책(Deutschlandpolitik)을 취함으로써 독일민족의 실리를 챙겼다는 교훈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독일의 경험이 한반도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즉 독일문제는 바로 한반도문제와 등치될 수 있고, 북핵문제를 핵심이슈로 하는 한반도문제가 6자회담을 통하여 해결된다면 유럽에서 독일문제의 해결이 헬싱키 프로세스의 초기조건을 결정하였듯이 동북아에서도 유사한 평화프로세스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헬싱키 최종의정서에서 채택된 데칼로그의 협상과정은 한반도문제에도 적지 않은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주제어: 헬싱키 최종의정서, 헬싱키 프로세스, 독일문제, 경로의존성, 유럽안보협력회의

유럽통합과 스웨덴 중립노선: 역사, 성격, 진화

김 인 춘(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연구교수)
김 욱(배재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스웨덴 중립정책의 역사
Ⅳ. 탈냉전 및 유럽통합시대 스웨덴 중립정책의 변화
Ⅴ. 스웨덴 중립정책의 특징
Ⅵ. 결론 및 한국에의 시사점

국문요약

스웨덴의 중립노선은 역사적으로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자국의 안전을 항시적인 목표로 하였다. 특히 19세기 말부터 사회경제적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루면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의 번영을 지키기 위한 균형전략으로 중립을 적극적이면서 실용적으로 추구해 왔다. 중립의 성공스토리로 간주되는 스웨덴 중립노선의 특징은 매우 현실적이고 유연하며 적극적이라는 점, 자주적 방위능력에 기반한 강력한 무장중립이라는 점, 그리고 국제적 신뢰에 바탕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웨덴의 중립노선은 EU 가입으로 크게 진화하고 있다. 탈냉전과 경제통합의 심화로 중립의 전환 또는 변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군사적 중립과 전략적 유연성 및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중립정책의 유효성을 지속시키고 있다. 'EU의 작은 리더'로서 스웨덴은 유럽연합에서 경제뿐 아니라 외교 면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자국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유럽연합 내 위상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유럽연합의 의제들을 설정하고 있다. EU 회원국이면서 군사적 중립을 유지하는 스웨덴의 대외전략은 국가이익의 최적화를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안보이익과 경제이익을 분리, 통합시키는 전략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주제어: 스웨덴, 무장중립, 전략적 유연성, 균형전략, EU, 국가이익 최적화

민주화 20년의 정당정치:
회색지대 속의 현실과 이론의 전개

장 훈(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서론: 성숙과 정체 사이의 정당현실과 이론
Ⅱ. 통합적 분석틀을 찾아서: 미시접근과 거시접근의 통합
Ⅲ. 정당정치 현실의 진화: 계승형 카르텔체제에서 유목형 정당정치로
Ⅳ. 민주화 이후 과거의 지속: 계승형 카르텔정당체제(1987~2002)와 이행, 역사, 제도의 중층구조
Ⅴ. 정당정치의 새로운 진화: 유목형 정당정치의 등장(2002 이후)과 제도, 담론, 사회변동
Ⅵ. 결론

국문요약

20년의 역사를 쌓아올린 정당정치의 현실과 이론은 여전히 회색지대에 갇혀 있다. 현실 속의 정당은 선거정치의 조직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의 기제로서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지는 못하였다는 점에서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다. 정당이론 역시 방대한 연구성과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수입 이론의 정밀함과 한국적 현실의 분석 사이에 큰 간격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자축(自祝)과 자성(自省)이 동시에 필요하다. 정당현실은 민주화 초기의 계승형 카르텔체제에서 유목형 정당정치로 이행하면서, 정당정치의 개방성, 유연성은 높아지고 내부적으로 분권화가 증진되었다. 하지만 정당연구의 거시접근은 유럽중심주의의 역사관에 갇혀서 이러한 변화를 면밀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미시접근은 경험연구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개념과 분석틀의 한계로 인하여 이러한 변동의 의미를 깊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당이론의 변방화를 넘어서는 현실분석과 가치형성을 통해서, 정당정치의 주변화도 극복될 수 있다.

주제어: 정당정치, 회색지대, 유럽중심주의, 미시접근, 자아준거 이론

정당정치와 책임정당정치

가 상 준(단국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윤 종 빈(명지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Ⅰ. 서론
Ⅱ. 책임정당정치에 관한 이론적 배경: 책임성 개념을 중심으로
Ⅲ. 정당에 대한 평가
Ⅳ. 책임정당정치의 저해 요인
Ⅴ. 책임정당정치 정착을 위한 과제
Ⅵ. 결론: 책임정당정치의 구현

국문요약

이 연구는 책임정당정치를 저해하는 한국적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책임정당정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지 고찰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한국 정당정치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대의민주주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당이 유권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이에 따라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책임정당정치 실현을 통한 정당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연구를 통해 책임정당정치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정당의 정통성 부재, 정당 간 낮은 수준의 정책차별성, 비합리적 지역주의에 의존하는 관행, 당내 후보선출 과정의 비민주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기능적으로 미약한 정당이 책임정당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대표성과 책임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기능 강화, 지역성 탈피, 그리고 선거인단 대표성 확대 등을 통해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정권 재창출을 위해 간과해온 정통성과 반응성을 확보함으로써 책임정당정치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제어: 정당정치, 책임정당정치, 책임성, 대의민주주의, 지역주의

참여민주주의와 정당체제

임 성 학(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부교수)

Ⅰ. 서론
Ⅱ. 한국 민주주의 평가
Ⅲ. 정치참여의 평가
Ⅳ. 정당과 정당체제의 평가
Ⅴ. 결론

국문요약

한국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지역주의 정당체제의 잔존, 성숙하지 못한 협의문화, 당파적 정당행태, 자발적 참여 부족 등 후진적 정치모습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나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한국 정치참여와 정당 및 정당체제에 문제점도 있지만 많은 발전과 개선이 있었다. 선진국에는 오랜 기간 동안의 정치적 투쟁의 결과로 실시된 개혁들이 짧은 시간 동안 도입되어 실행되었다. 정치제도의 측면에서 아마 한국의 정치제도는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국가에 속할 것이다.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개선되지 않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제도를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것은 문제를 증폭시키거나 원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제도 개혁에 주의해야 할 몇 가지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참여 확대가 정당의 정통성과 책임성을 가져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참여의 성격에 따라 정당의 조직이나 정체성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국민참여경선제도를 들 수 있다. 두 번째, 정치제도들 간의 조화다. 한국 정치제도들은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서로 모순되는 제도를 도입한 경우도 있다. 세 번째, 정치적 가치에 대한 고민이다. 돈 먹는 하마라는 별명이 붙었던 정당의 지구당은 2004년 정치관계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정당과 정당체제의 모델에 대한 고민이다.

주제어: 정치참여, 정당, 정당체제, 한국, 민주주의 지수

정당정치와 진보정당의 과제: 이념구도 변화에 따른 한국 진보정당의 전망

정 병 기(영남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Ⅰ. 머리말
Ⅱ. 사회민주주의적 진보정당의 탄생과 소멸: 정부 수립 이후 민주화 이전
Ⅲ. 사회경제주의의 강화와 사회민주주의 진보정당의 성장과 분열: 민주화 이후 제18대 총선까지
Ⅳ. 맺음말

국문요약

한국 사회의 정당정치 이념구도는 민주화를 계기로 독재모순이 사라지고 권위주의모순이 등장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곧, 민주화 이전에는 독재모순과 계급모순으로 형성되었고 민주화 이후에는 권위주의모순과 계급모순으로 구성된 것이다. 여기에 분단모순이 다시 중첩되어, 한국의 의회 진보정당은 처음부터 이데올로기성 혹은 계급성이 약화되고 사회경제적 요구를 중시하는 사회민주주의적 성격을 노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민주주의 진보정당은 민주화를 계기로 정치적 민주주의 주장을 일상성의 민주주의 주장으로 전환해갔다. 그러나 한국 진보정당의 일상성의 민주주의 요구는 아직 부문별로 파편화된 인식에 머물러 있어 권위주의에 대한 총체적 인식에 기초한 신좌파적 사회민주주의로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다. 자본주의 한국 사회에서 잔존하는 계급모순과 새로운 권위주의모순이 점차 기본 이념구도로 정착해간다는 점을 볼 때, 한국 진보정당의 과제는 계급성과 일상성의 민주주의를 정당정치적으로 올바르게 반영해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진보정당, 일상성의 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이념구도, 권위주의모순

정당발전과 내부 개혁

김 영 태(목포대 정치행정학부 부교수)

Ⅰ. 글을 시작하며
Ⅱ. 이론적 논의
Ⅲ. 정당의 당원조직과 의사결정 현황
Ⅳ. 요약 및 시사점

국문요약

이 글에서는 당원조직율, 수입구조, 의사결정구조 등을 중심으로 우리 정당의 조직과 운영을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이 글의 논의결과에 따르면 먼저 현 우리 정당은 유권자 중심의 개방형 당원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당비보다 국고보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당의 운영과정에서 당원보다는 유권자를 중시하며, 의사결정은 고위 당직자나 국회의원에 의해 하향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당원의 인지적 태도 역시 정당을 선거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이 글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 정당이—비록 완전한 형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상당한 수준에서—'포괄정당(catch-all party)'과 '선거전문가정당(electoral-professional party)' 등과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미국식의 '지지자정당(unterstuetzer partei)' 혹은 '원내정당모델'과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 정당의 이러한 특성이 정당발전의 저해요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따라서 정당발전을 위해서는 유럽식의 '당원정당모델'이 보이는 특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주제어: 정당, 정당조직, 당원, 정당모델, 정당개혁

지방정치에서 정당정치의 위상과 과제

유 재 일(대전대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
정 상 호(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

Ⅰ. 문제의 제기
Ⅱ. 지방정치에 대한 논의와 모델들
Ⅲ. 한국 지방정치에서 정당정치의 위상 논의
Ⅳ. 정당정치모델의 민주적 제도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
Ⅴ. 결론

국문요약

본 연구는 지방정치의 유형화, 즉 모델에 대한 이론화 작업을 시도하고자 한다. 고전적 지방정치모델인 정당정치모델은 정당의 중심성을 인정하며, 대의민주주의의 원리하에서 시민과 유권자의 집단적 동원과 엘리트의 경쟁을 중시한다. 현재 한국에서 여론 지지도가 높은 비당파적 개인주의모델에서는 시장의 효율성을 중시하며 소비자이자 고객으로서 개인을 강조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선호하고 있는 동원모델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권능강화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다. 현재 한국은 정당정치모델을 채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발과 저항이 거세다. 지역수준에서 정당정치모델을 안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정당제도의 허용, 중대 선거구제도와 비례대표제의 확장을 통해 경쟁과 견제의 원리를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

주제어: 정당정치, 지방정치, 정당공천제, 지역 민주주의, 동원, 권능강화

신갈등사회와 정당정치의 위기

조 대 엽(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Ⅰ. 시민사회와 정당정치의 사회학
Ⅱ. '신갈등사회론'의 시각: 새로운 갈등과 통합의 구조
Ⅲ. 신갈등사회와 시민사회의 정치
Ⅳ. 신갈등사회와 탈정치적 정당정치
Ⅴ. 정당정치의 성찰과 재정치화의 과제

국문요약

이 논문은 현대 사회의 특징을 '신갈등사회'로 규정한다. 시민사회의 정치적 표출과 시민운동의 제도화경향 나아가 갈등의 일상화경향 이야말로 '신갈등사회'의 전형적 현상이다. 신갈등사회적 특성을 드러내는 한국 사회에서 한편으로는 제도화된 시민운동과 전자적 대중의 유연자발집단 등 시민사회의 다양한 정치참여방식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정당의 경직성과 폐쇄성, 비효율성 등이 결합됨으로써 정당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 정당, 시민사회 간의 정치적 소통이 소멸된 정당정치의 특징을 '탈정치화'로 규정하고자 하며, 이를 정당정치의 '혼합정치'와 '틈새정치'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선거를 위해 모여 정당 내부의 이질성이 심한 혼합정치의 특성과 함께 기존 정당과 정치적 수요층의 틈새를 겨냥해 선거 국면에서 정당이나 정치세력화가 급조되는 틈새정치는 정당정치를 시민으로부터 유리시킴으로써 탈정치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당정치의 이러한 특징은 신갈등사회의 역동성이 가져오는 위기구조와 중첩되면서 한국의 정당정치가 이중적 위기를 맞도록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정당정치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시민사회에 정당을 다시 뿌리내림으로써 정당정치를 '재정치화' 할 것을 강조한다.

주제어: 신갈등사회, 시민사회, 정당정치, 혼합정치, 틈새정치

세계화 시대의 욕망의 정치와 가치의 정치

김 호 기(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Ⅰ. 문제제기
Ⅱ. 욕망의 정치와 가치의 정치
Ⅲ. 두 개의 선거와 욕망의 정치
Ⅳ. 가치의 정치와 한국 정치의 과제
Ⅴ. 잠정적 결론

국문요약

이 논문의 목적은 세계화 시대에서의 욕망의 정치와 가치의 정치를 분석하는 데 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정치는 복합 구도로 나아가고 있다. 그것은 '제도정치 대(對) 생활정치', '대의정치 대 참여정치', '계급정치 대 위험정치', '권위정치 대 인정정치', '아날로그정치 대 디지털정치', 그리고 '욕망의 정치 대 가치의 정치'의 복합 구도를 지칭한다. 이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욕망의 정치와 가치의 정치를 살펴보고, 이어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이 갖는 의미를 검토한 다음, 마지막으로 중도진보적 시각에서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숙고해 보고자 한다.

주제어: 욕망의 정치, 가치의 정치, 민주화, 세계화

정당체제와 정치적 대표성

윤 상 철(한신대 사회학과 부교수)

Ⅰ. 왜 정당체제인가?
Ⅱ. 정당체제의 불안정한 이행
Ⅲ. 정당체제의 경쟁자들
Ⅳ. 정당체제가 대안인가?

국문요약

한국의 정당체제는 기존의 보수양당체제와 지역정당체제가 내부적으로 붕괴하면서 새롭게 재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다원적인 사회균열구조로 인하여 정당들이 정치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시민사회의 정치적 지지를 동원할 수 있는 정치균열을 만들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국민의 정치적 대표성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다양한 권력들, 즉 대통령권력, 언론, 시민사회조직과 이익집단 등이 정당체제의 공고화를 지속적으로 침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당체제는 개별 이익의 조정 및 사회적 공공성의 실현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대통령권력을 견제하고, 정당체제의 고유영역을 인정하고, 시민사회와 분립시킴으로써 공고화되어야 한다.

주제어: 정당체제, 정치적 대표성, 정치사회, 시민사회, 언론, 대통령권력

한반도의 냉전 엔드게임(Endgame)과 북미대립

장 달 중(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Ⅰ. 북핵위기: 우연인가 필연인가?
Ⅱ. 냉전의 역설적 행운: '암묵적으로 합의된 게임의 룰'과 '확실성의 영역'
Ⅲ. 냉전의 붕괴와 사라진 기회
Ⅳ. 불확실성의 확장과 탈냉전의 역설적 시련
Ⅴ. 충돌하는 냉전 엔드게임: 봉쇄(containment) vs. 벼랑 끝 전술(brinkmanship)
Ⅵ. 북미 냉전 엔드게임의 과제: 필연론적 시각의 극복(?)
Ⅶ. 변화와 기회,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

국문요약

우리 사회에서는 이념적 좌우에 상관없이 북핵위기를 북미대립의 필연적 결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탈냉전 후 지난 20여 년간의 북미관계를 되돌아보면 이러한 경향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탈냉전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북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객관적 조건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했다. 탈냉전 후 미국과 북한 사이에 오고 간 수많은 말과 행동, 그리고 합의들을 보면 미국과 북한은 분명 양립적인 입장에서 서로의 이익을 실용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조건과 기회를 향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탈냉전은 동시에 서로의 정통성에 대한 암묵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했던 냉전기의 북미관계를 선과 악의 대결구도로 바꾸어 놓았다. 따라서 서로의 정책합리성에 대한 불신은 북미교섭을 봉쇄정책과 벼랑 끝 전술의 대결장으로 변모시켰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과의 합의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어 나타나게 되고, 이 때문에 북한과 미국은 탈냉전이 부여한 조건과 기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이익을 양립적 관점에서 인식하고 추구할 수 있는 모멘텀을 상실하고 말았던 것이다.

주제어: 북핵위기, 북미대립, 냉전, 탈냉전

‘한국체제’ 논쟁을 다시 생각한다: 87년 체제, 97년 체제, 08년 체제론을 중심으로

손 호 철(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여는 글
Ⅱ. 이론적 전제: ‘사회체제’와 ‘부분체제들’
Ⅲ. 한국 사회체제: 87년 체제 그리고 97년 체제
Ⅳ. 한국의 부분체제들: 몇 가지 예시
Ⅴ. 맺는 글

국문요약

87년 체제론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체제논쟁은 그동안의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정치)경제체제와 정치체제의 결합체인 ‘사회체제(social system)’와 헌정체제, 노동체제, 분단체제, 정당체제, 사회운동체제와 같은 다양한 ‘부분체제들(partial regimes)’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바라볼 때 87년 체제는 헌정체제 등 일부 부분체제로서의 의미를 아직도 갖고 있지만 사회체제로서는 그 의미가 소멸됐다. 한국의 사회체제는 48년 체제(극우반공체제)로부터 개발독재체제인 61년 체제, 61년 체제의 억압적 정치체제를 해체한 87년 체제를 거쳐 이의 경제체제(발전국가)를 해체해 신자유주의로 대체한 97년 체제에 이르렀다. 나아가 일부에서는 08년 체제가 97년 체제를 대체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역시 잘못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정치적 재권위주의화와 경제체제의 우경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97년 체제의 특징인 제한적 정치적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벗어난 것은 아니다. 따라서 97년 체제의 하위체제로서 08년 체제를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이다.

이 같은 사회체제 분석과는 별개로 다양한 수준에서의 부분체제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바 이 글에서는 헌정체제, 노동체제, 민주주의체제, 분단체제, 정치균열체제, 정당체제, 사회운동체제 등을 예시적으로 살펴보았다.

주제어: 사회체제, 부분체제, 87년 체제, 97년 체제, 08년 체제

헬싱키 틀(Helsinki Framework)의 성립과정 연구: 미국, 소련, 서유럽의 전략적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서 보 혁(이화여대 이화학술원 전임연구원)

Ⅰ. 들어가는 말
Ⅱ. 이론적 고찰: 전략적 삼각관계론
Ⅲ. CSCE 태동기(1966~1972년)
Ⅳ. CSCE 협의기(1973~1974년)
Ⅴ. CSCE 합의기(1975년)
Ⅵ. 헬싱키 틀의 성립과 삼각관계의 변화
Ⅶ. 맺음말: 현실적 · 이론적 시사점

국문요약

본 연구는 범유럽안보협력 구도로 불리는 소위 헬싱키 틀(Helsinki Framework)이 성립되는 과정을 주요 변수와 단계 설정을 통해 동태적으로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범유럽안보 논의는 전쟁 재발 방지와 공동 번영을 공통 목표로 한 서유럽 국가군과 소련의 이해관계를 기본 동력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 논의의 진척과 국면 전환 그리고 헬싱키 틀의 형성 등 구체적인 상황 진전은 미국의 역할 변수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Ⅱ장에서 전략적 삼각관계론을 분석 도구로 소개할 것이다. Ⅲ~Ⅴ장에 걸쳐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가 틀 지어지는 과정을 그 복잡한 논의 내용과 국면 변화를 고려하여 세 단계로 나눠 살펴보고자 한다. 세 시기 논의는 유럽에서의 데탕트를 전략적 삼각구도하에서 분석한 후, 그 연장선상에서 CSCE 관련 논의 경과를 분석하는 순서로 이루어질 것이다. 헬싱키 틀의 성립과정은 태동기(1966~1972년) → 협의기(1973~1974년) → 합의기(1975년)로 시기 구분하여 논의할 수 있다. Ⅵ장에서는 이상과 같은 전략적 삼각관계의 변화를 평가하고, 결론에서는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주제어: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헬싱키 최종의정서, 데탕트, 동방정책, 전략적 삼각관계, 안보동맹 딜레마

유럽연합 지역정책의 거버넌스 방식

김 학 노(영남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Ⅰ. 여는 말
Ⅱ. EU의 새로운 거버넌스
Ⅲ. EU 지역정책의 거버넌스문제
Ⅳ. 닫는 말

국문요약

이 글은 유럽연합(EU)의 지역정책에 공동체 방식의 요소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새로운 거버넌스 요소가 많이 발달했다고 주장한다. 최근 세이블(Sabel)과 자이틀린(Zeitlin)은 EU의 기본 골격을 이루는 규칙 제정과 개정 과정이 '실험주의 거버넌스' 방식에 입각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EU 거버넌스 논의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하지만 이들은 지역정책을 실험주의 거버넌스 방식이 적용되는 영역에서 제외함으로써 지역정책을 전통적인 '공동체 방식'에 입각해 있다고 보는 기존의 시각을 따른다.

이러한 시각과 달리, 이 글은 EU 지역정책에 새로운 거버넌스 요소가 상당히 발달하였음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여준다. 첫째, 세이블이 '지역실험주의'라고 명명한 조정방식이 지역정책에서 나타나며, 이는 지역정책에서 수립된 '파트너십' 원칙에 의해서 강화되어 왔다. 둘째, 지역정책이 혁신정책과 수렴하면서 지역실험주의 요소가 많이 발달하였다. 혁신정책과 수렴하면서 지역정책은 지역 내 그리고 지역 간 '사회적 학습'을 도모하고, 지역 차원의 '실험'을 장려하고 그 결과로부터 서로 학습하도록 도와준다. 셋째, EU 지역정책에 새로운 거버넌스 방식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려는 노력이 있다. 혁신정책의 '열린 조정방식'(OMC) 확대, 지역정책 자체에 대한 OMC 도입 논의, 2007~2013년 기간의 지역정책에 도입된 새로운 '전략적 접근'이 여기에 해당한다.

주제어: EU 지역정책, EU 혁신정책, 실험주의 거버넌스, 지역실험주의, 열린 조정방식

유엔글로벌컴팩의 성격과 발전방향: '사회책임(CSR)'과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ship) 되기'에 대한 쟁점 검토를 통해서

여 현 덕(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박 정 민(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

Ⅰ. 연구배경과 문제제기
Ⅱ. 유엔글로벌컴팩의 현황과 기업시민
Ⅲ. 유엔글로벌컴팩 기업 파트너십을 둘러싼 논쟁
Ⅳ. 유엔글로벌컴팩과 '기업시민'에 대한 제 학파 간 견해
Ⅴ. 유엔글로벌컴팩 발전방향: 바람직한 CSR 모델 검토
Ⅵ. 결론과 제언

국문요약

오늘날 우리는 금융자본주의가 낳은 세계적 위기와 고통을 겪고 있다. 위기를 낳은 주범인 기업은 한편 세계의 발전을 추동하고 있는 기본적인 동력들 중 하나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기업의 변화는 매우 절실한 당면문제가 되고 있다.

유엔글로벌컴팩(UN Global Compact)의 정신(10대 원칙)은 기업이 가져야 할 기준, 즉 기업시민의 길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유엔글로벌컴팩의 발전방향과 기업윤리(특히 기업의 사회책임 경영)는 불가분의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ISO 26000의 등장은 기업의 사회책임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증가시키고 있다. 가까운 장래에 기업이 국제적 표준을 따르거나 대응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워지거나 경쟁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논문은 기업이 변해가야 할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유엔글로벌컴팩의 미래 발전방향을 살펴본다. 또한 유엔글로벌컴팩의 파트너인 기업이 이윤추구를 넘어서 '좋은 기업시민(GCC)'과 '기업의 사회책임(CSR)' 수행에 대한 올바른 실천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위기가 기회로 전환될 수 있듯이, 앞으로 기업이 존경심을 높이고 신뢰를 확대하면 유엔글로벌컴팩의 신뢰 역시 높아지고 이는 유엔의 위상강화로 귀결될 것이다. 유엔의 입장에서도 감시나 통제의 방법을 채택하기보다는 '좋은 기업시민'으로의 덕목을 체화하도록 유도하고 보다 순수한 CSR 실천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이 논문은 기업이 순수한 CSR을 실천하여 사회의 신뢰를 얻고 사회자본을 획득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주제어: 유엔, 글로벌컴팩, 파트너십, 좋은 기업시민, 기업의 사회책임, 사회, 사회자본

중국의 조선족 인식:
용의 옆구리의 가시

김 예 경(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연구교수)

Ⅰ. 문제제기
Ⅱ. 중국의 과계민족문제에 대한 기본 인식과 대응
Ⅲ. 중국의 조선족에 대한 인식 및 정책 변화
Ⅳ. 한 · 중 관계에 갖는 시사점
Ⅴ. 결론

국문요약

최근 중국이 중국 조선족에 대한 인식과 정책을 달리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조선족이 중국 공산당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항일투쟁의 승리를 이끈 공헌자로서, 그리고 중국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의 동반자로서 인식해왔다. 그렇지만 한중 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조선족의 유동성이 증대되면서, 중국의 조선족에 대한 인식은 점차 변하기 시작했고, 중국 조선족을 국가안보와 체제적 불안 요인으로 간주하기 시작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 조선족에게 애국주의 교육을 강화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중국 조선족에 대해 통제와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본 논문은 최근 조선족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정책 변화, 그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보고, 조선족에 대한 중국의 인식변화가 한중관계에 갖는 함의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주제어: 중국, 중국 조선족, 과계민족, 한중관계, 애국주의 교육

러시아의 민주주의 발전과정과 주권민주주의 자극요인

이 영 형(배재대 한국-시베리아센터 연구교수)

Ⅰ. 들어가는 말
Ⅱ. 민주주의 진행과정에 대한 인식
Ⅲ. 러시아의 민주주의 발전과 주권민주주의
Ⅳ. 주권민주주의 자극요인
Ⅴ. 러시아 민주주의 평가 및 전망

국문요약

서구식 절차적 민주주의를 수용한 러시아는 자신의 환경에 적합한 민주주의모델을 찾아 왔다. 러시아 국민들은 시민사회를 경험하지 못했고, 행정부 우위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질서와 안보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수들이 자극요인이 되어 옐친 시기의 위임민주주의를 거쳐 푸틴 시기의 주권민주주의로 이행되었다.

미국과 서유럽 일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민주주의 잣대로 러시아의 민주주의를 평가할 수 없으며, 러시아가 처해있는 국내외적 환경변수에 기초해서 평가되어야 한다. 러시아에 정당제도가 뿌리를 내리고 시민사회가 성숙될 때까지, 그리고 질서와 안보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푸틴식 주권민주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러시아 민주주의, 식민민주주의, 위임민주주의, 주권민주주의, 포퓰리즘

기업지배구조 수렴론 비판: 국제기준/모범규준의 역사적 및 규범적 함의

이 왕 휘(아주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Ⅰ. 머리말
Ⅱ. 기업법의 '역사의 종언' 논쟁
Ⅲ. 수렴론 비판: 다양성 유지
Ⅳ. 수렴론 비판: 국제기준/모범규준의 시공간적 특수성
Ⅴ. 맺음말

국문요약

이 글은 기업지배구조 수렴론 논쟁에서 나온 이론적 문제들을 검토한다. 수렴론자들은 소액주주의 권한을 잘 보장하는 영미식 주주모델이 가장 좋은 모델이며, 따라서 국제기준으로 채택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다양성 유지론자들은 '좋은' 모델은 하나가 아니며, 역사적 경로의존과 제도적 상보성 때문에 다른 정치경제 제도를 가진 국가들이 단일한 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반박한다.

국제기준/모범규준으로 수렴이 되지 않는 측면을 설명하는 다양성 유지론과 달리, 이 글은 영미식 주주모델의 역사적 및 규범적 함의에 주목한다. 수렴론과 다양성 유지론은 영미식 주주모델을 시공간을 초월한 이념형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주주모델은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결과이다. 또한 이 글은 다양성 유지론이 간과하는 수렴의 규범적 측면을 논구하였다. 소액주주의 권리를 가장 잘 보장한다고 평가되는 영미권 국가들조차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란 명분하에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는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시켰다. 수렴이 하향평균화로 귀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수렴이 항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렴론 비판의 실천적 함의는 국제경제기구가 국제기준/모범규준으로 제시하는 영미식 기업지배구조 원칙들이 모든 국가들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타당한 규범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주제어: 기업지배구조, 수렴론, 다양성 유지론, 국제기준, 모범규준, 영미식 주주모델

탈냉전 · 세계화 · 지역화에 따른 동북아 질서 형성과 남북관계

이 수 훈(경남대 심리사회학부 교수)

Ⅰ. 서론
Ⅱ. 탈냉전기 세계화 시대 동북아 질서의 형성
Ⅲ. 남북관계의 성격
Ⅳ. 동북아 질서 형성과 남북관계
Ⅴ. 결론

국문요약

이 논문은 세계적 조류들에 따른 동북아 차원의 질서 변동을 염두에 두고 우리 학계에서 제기된 기왕의 남북관계론에서 미진한 부분을 일정 정도 채우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즉 1990년대 초반 이후 탈냉전, 세계화, 지역화라는 흐름이 동북아 질서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동북아 질서 형성의 역동적 과정은 남북관계에 어떤 파급을 남겼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동북아 질서 형성과정을 검토하고자 하며, 냉전체제의 부분적 · 비대칭적 해소, 다자성의 강화, 지역통합성의 제고라는 세 가지 특징을 지적할 것이다. 같은 시기 남북관계의 성격 변화를 분석하고, 이중성 및 비대칭성, 남북관계의 국제화, 경제논리 주도성이라는 세 가지 성격을 제시할 것이다.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냉전체제의 비대칭적 해소는 이중성 및 비대칭성으로, 다자성의 강화는 남북관계의 국제화로, 지역통합성의 제고는 경제논리 주도성으로 각각 연결지울 것이다. 동북아 수준의 특징이 남북관계 성격에 일방적이고 기계적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두 수준 사이의 연관성 연구를 촉구하기 위해 거친 형태나마 연결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정책적 함의도 제시하고자 한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의 국제화' 노선을 진전시킬 것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거친 '특수관계론'적 견지에서 남북관계를 다루어야 한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임기 내에 북미관계 정상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위시한 한반도문제를 '포괄적'으로 해소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하며, 북한과의 점진적 신뢰구축을 통해 그 의지를 관철해야 한다.

주제어: 탈냉전, 동북아 질서, 남북관계, 북핵문제

20세기 '전후보상' 개념의 형성과 변용: 한국과 일본 간의 보상문제를 중심으로

김 명 섭(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김 숭 배(연세대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

Ⅰ. 서론
Ⅱ. 20세기 초 전후보상 개념의 형성
Ⅲ. 한일 간 보상문제의 복합성: 식민보상과 전후보상
Ⅳ.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전후보상문제
Ⅴ. 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협상과 보상 개념의 허용
Ⅵ. 결론

국문요약

이 연구는 20세기 초에 형성된 전후보상 개념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에 전파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한일관계에서 변용된 역사적 궤적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첫째, 20세기 초 헤이그 협약(1907)과 베르사유 평화조약(1919, 232조, 302조)은 민간인에 대한 보상조항과 개인의 청구권에 대한 조항을 통해 전후보상의 개념을 국제적으로 확립했다. 특히 베르사유 평화조약 체결과정에서 일본은 5대 승전국의 일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전후보상 개념의 동아시아로의 전파를 촉진시켰다. 둘째,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전쟁 이후 일본에 대해 요구했던 보상은 전쟁의 피해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1910년 이후 식민피해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는 복합성을 지녔다. 셋째, 1951년 9월 8일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베르사유 평화조약과는 달리 민간인의 피해에 관한 전후보상 개념을 규정하지 않았다. 베르사유 평화협상 때와 달리 패전국의 보상책임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취했던 것은 베르사유 평화조약의 징벌적 성격이 2차대전의 원인이 되었다는 인식과 더불어 한반도의 6.25 전쟁으로 인해 격화된 냉전의 결과였다. 1965년 한국과 일본 간의 국교정상화로 이어지는 협상과정에서 논의되었던 한일 간의 보상문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에 등장하는 청구권 개념에 의해 구속되었다.

주제어: 전후보상, 식민보상, 베르사유 평화조약,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일본 FTA 정책의 형성과 변화:
행위자와 제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이 승 주(중앙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
Ⅲ. 일본 FTA 정책의 형성과정
Ⅳ. 일본 FTA 정책의 변화
Ⅴ. 결론

국문요약

일본 정부가 1990년대 후반 싱가포르와의 FTA 추진을 천명한 이래, FTA 정책은 빠른 속도로 일본 통상정책의 핵심 축으로 대두되었다. 반면 일본의 FTA 정책은 주로 중소규모 국가와의 제한적 FTA의 체결이라는 한계를 함께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일본 FTA 정책은 국내정치적으로 동태적 변화의 과정을 겪었다. 본 연구는 일본이 FTA를 수용한 이후, FTA 정책이 형성·변화되어 온 과정을 동태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FTA 정책의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수요측면을 형성하는 수출기업, 전경련(게이단렌), 농민단체 등이 일본 FTA 정책의 초기 형성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을 고찰한다. 둘째, 공급측면의 관점에서, 일본 정부가 FTA 체결 요구에 직면하여 FTA 정책결정체제를 형성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셋째, 수상 관저의 FTA 정책에 대한 개입으로 인해 발생한 FTA 정책결정체제의 변화과정을 분석한다. 넷째, 전통적 행위자들이 수상 관저의 정치적 개입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을 고찰한다.

주제어: 일본, FTA, 통상정책, 게이단렌, 경제산업성

‘다케시마(竹島)의 날’ 조례 제정에 대한 한국의 반응: 상응적 대응의 유효성과 딜레마

박 창 건(국민대 일본학연구소 전임연구위원)

Ⅰ. 들어가는 말
Ⅱ. 상응적 대응의 개념과 특성
Ⅲ. 한국의 상응적 대응
Ⅳ. 상응적 대응의 유효성과 딜레마
Ⅴ. 맺는 말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시마네현(島根縣)에서 제정한 ‘다케시마(竹島)의 날’ 조례에 대한 한국의 반응이 어떠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가를 조명하는 것이다. 논쟁의 초점은 ‘상응적 대응(reciprocation)’이란 개념의 이해를 기반으로 영유권문제로 촉발된 한일갈등의 확산과정에서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에 대한 한국의 반응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차원에서의 상응적 대응을 살펴보고, 그 유효성과 딜레마를 논의한다.

2005년 3월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이루어진 점은 한일관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다. 노무현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대일 신독트린’을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정부산하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이 출범하였고, 국회 내 독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독도 수호를 위한 연구 활동이 진행되었다. 당시 시마네현과 긴밀한 우호관계를 맺고 있던 경상북도에서는 자매결연의 취소와 독도 전담기구를 개설하는 등 종합적인 독도 관리정책을 펼쳤다. 시민단체들의 규탄시위와 독도 수호를 위한 상응적 대응 역시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상응적 대응은 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라는 홍보를 위한 문화운동의 전개, 제도권 교육기관을 통한 영토 교육의 강화, 영토전략의 관리라고 하는 유효성을 발휘하고 있지만, 반면 반일감정을 기반으로 한 민족주의의 강화, 한일갈등의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의 확산, 국제사회에서 분쟁지역화의 가능성 증대라고 하는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주제어: 다케시마(竹島)의 날, 독도, 상응적 대응, 한일관계, 유효성, 딜레마

미얀마 군사정부의 장기집권 토대와 책략: 1988~2008년

양 길 현(제주대 윤리교육과 교수)

Ⅰ. 머리말
Ⅱ. 군부통치의 설명 틀: 군부의 정치 개입으로부터 군사정부의 지속까지
Ⅲ. 미얀마 군사정부의 토대와 자원
Ⅳ. 군사정부의 시간벌기 책략
Ⅴ. 결론을 대신하여: 2010년 선거에 대한 기대

국문요약

이 논문은 1988년 '88 민주항쟁' 이후 2007년 '샤프론 혁명'에 이르기까지 지난 20년간 미얀마 군사정부가 아래로부터의 불신과 거부에도 불구하고 장기집권을 할 수 있었던 것은, 1)군사정부의 토대이자 '자원'으로서의 막강한 물리력, 2)땅쉐-마웅에-킨늉 간의 3두체제를 통한 '정부로서의 군부'의 결속 확보, 3)후견수혜망을 통한 '제도로서의 군부'의 조합적 이익 보장, 4)군사정부의 대야당 및 대국민 책략의 성공으로부터 가능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특히 미얀마 군사정부는 야당에 대한 집요한 탄압과 통제를 유감없이 발휘하는 가운데서도 한편으로는 아웅산 수지 등 야당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헌법제정 국민회의를 통해 위로부터의 정치개방 가능성을 기대하도록 하는 책략을 통해 군사정부의 지속을 꾀해 나갔다. 이 논문은 2010년 총선을 통해 제도권 정치사회의 출현을 유인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진지전의 방식으로 미얀마의 정치 자유화 · 민주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보다 더 유용한 현실적 방책인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주제어: 88 민주항쟁, 샤프론 혁명, 3두체제, 후원수혜망, 아웅산 수지, 신헌법제정 국민회의, 2010 총선

2009 유럽의회 선거, 또 다시 이 순위 국내정치 경쟁장인가?

한 정 훈(서울대 정치학과 BK21사업단 연구원)

Ⅰ. 서론
Ⅱ. 유럽의회 선거
Ⅲ. 2009년 유럽의회 선거분석
Ⅳ. 결론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09년 6월 실시된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선거가 기존에 제기되었던 '이 순위 국내경쟁(second-order national contests)'적 성격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지를 경험적 연구를 통해 검증한다. 이 순위 국내경쟁이란 유권자들이 유럽의회 선거를 범유럽적 차원의 정치현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정치의 연장선상에서 국내총선거보다 그 중요성이 덜한 선거로 받아들이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 모델에 따르면 유럽의회 선거는 유권자들이 현 집권당을 심판(punishment)하거나 국내정치 권력구조의 개편에 대한 전략적 고려에서 벗어난 진정투표(sincere voting)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예측을 각 정당들이 2009년 유럽의회 선거와 유럽의회 선거 직전의 국내총선거에서 획득한 투표에 관한 경험적 자료를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2009년 유럽의회 선거는 각 회원국 집권당의 패배라기보다는 중도우파의 승리라는 평가가 적절함을 보여준다. 각 정당의 크기를 통제한 경우 집권당의 지위 여부보다는 크기가 큰 정당들의 패배였으며, 진정투표 행태를 통한 군소정당의 승리였음이 나타났다. 결국 2009년 유럽의회 선거는 이 순위 국내경쟁적 성격을 완전히 탈피하지는 않았으나, 집권당에 대한 심판적 성격은 약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 유럽의회 선거, 이 순위 국내경쟁, 진정투표, 정당의 크기, 집권당

한국 정치세대의 이념적 특성과 정치행태

황 아 란(부산대 행정학과 부교수)

Ⅰ. 서론
Ⅱ. 정치세대 연구의 이론적 논의 및 분석 틀
Ⅲ. 정치세대 분석 결과
Ⅳ. 결론

국문요약

본 논문은 민주화 세대를 중심으로 세대 간, 그리고 민주화 세대 내부의 정치적 가치관과 정책적 태도 등에서 나타나는 이념적 특성을 살펴보는 한편, 정치관여와 정당지지 성향 등 정치행태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민주화 세대의 정치세대 효과를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분석 결과, 한국 사회는 전체적으로 자유보다 질서를 중시하는 가치관과 대북지원, 국가보안법 폐지 등에서는 보수적인 특성이 강한 반면, 자유보다 평등을 중시하는 가치관과 전통적인 여성 역할, 환경보존, 복지 등에서는 진보적인 특성이 강하였다. 또한 정치적 가치관에 따른 이념성향의 분포를 살펴볼 때 자유보다 질서나 평등을 중시하는 인민주의자가 모든 정치세대에서 다수 분포를 이루는 유형이었는데, 상대적으로 민주화 성취세대는 질서나 평등보다 자유를 가장 중시하는 자유론자가 많았으며, 민주화 투쟁세대는 질서를 가장 중시하되 평등보다 자유를 우선시하는 보수주의자가 많은 특징을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한국 사회는 정치적 가치관이나 정책적 쟁점 등에서 이념적으로 세대 간 차이는 있으나, 갈등의 폭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질적이기보다 동질적인 특성을 지닌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민주화 성취세대가 정치행태에서 다른 어떤 정치세대보다 적극적인 정치관여와 야당에 대한 지지성향을 나타내었다는 점은, 질서와 평등의 가치가 지배적인 한국 사회에서 자유론자의 비율이 높았던 민주화 성취세대가 새로운 정치적 대안을 모색하는 대항적 세력으로 소수파의 정치적 불만을 드러내는 것이라 해석된다.

주제어: 세대균열, 민주화 세대, 이념성향, 정치행태

한국에서의 중국 부상의 성격: 시각과 실제

이 희 옥(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서론
Ⅱ. 중국 부상에 대한 시각
Ⅲ. 한국에서의 중국 부상: 시각
Ⅳ. 한국에서의 중국 부상: 실제
Ⅴ. 평가와 결론

국문요약

중국은 경제력, 군사력, 소프트파워에서 중국의 부상을 실현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중국의 부상은 한반도에도 강력하게 투사되고 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인접해 있고 강력한 한미 군사동맹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중 양국 간 경제와 투자가 급증하고 있고, 영토와 역사에 대한 기억까지 적층된 곳이다. 따라서 중국의 부상은 한반도에 매우 복합적으로 전개될 것이며,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도 국제적 또는 지역적 수준에서 접근하는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이 논문은 자유주의적 낙관주의의 입장에서 한반도에서의 중국 부상의 성격을 분석했다. 첫째, 정치안보적으로 양국의 이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한미동맹의 확대를 상쇄시키기 위해 매우 신중하고 절제된 행동을 해왔고 앞으로도 한중 간 공동이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둘째, 경제적으로도 중국의 부상에 따라 한중경제는 공진화(co-evolution)가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부상은 종속에 따른 위협이 아니라, 경쟁이 본격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사회문화적으로 폭발적인 교류는 양국의 상호이해를 넓혔다. 비록 역사분쟁 등 몇 가지 잠복된 갈등이 있으나, 양국 모두 민족주의를 과도하게 활용하는 것을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 오히려 중국은 한국이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하여 한미동맹에 의존하지 않도록 소프트파워 전략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중국 부상의 이미지와 실체를 구분하고, 과도한 위협담론이 실제의 정책으로 전화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주제어: 중국 부상, 중국위협론, 중국기회론, 자유주의, 낙관주의, 한중관계

패권국 지위 변화와 동북아 질서 재편: 동북아 다자협력질서의 특징을 중심으로

최 종 건(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Ⅰ. 서론
Ⅱ. 다자협력주의
Ⅲ. 동북아 다자협력의 특징과 유형
Ⅳ. 결론: 패권국 지위 변화와 동북아 지역질서

국문요약

이 글은 패권과 부상, 그리고 다자협력이 동북아 질서를 설명하는 데 있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경험적 증거와 이론적 함의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본 논문은 다음의 두 가지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미국의 패권적 지위 변화와 중국의 급속한 부상이 파생하는 세력전이의 정치과정 속에 동북아의 다자협력질서는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동북아 다자협력질서는 유럽에 비해 제도화의 수준과 공식성에 있어 매우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다자협력질서의 현황과 유형 그리고 특성은 경험적으로 실증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본 논문의 차별성은 다자주의의 공식성, 즉 제도의 확립에 대한 비판을 다자주의 개념의 재고찰을 통해 확립하고자 한다는 점에 있다. 다자주의협력은 제도의 공식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협력형태가 아님을 구성주의적 제도주의의 틀을 이용하여 주장할 것이다. 둘째, 동북아 다자협력질서는 향후 미중 간 세력전이의 정치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구조현실주의적 관점에서 패권국의 하락과 신흥국의 부상이라는 국제정치의 구조적 변이과정은 지역의 안정적 질서 형성을 저해하고 분열과 분쟁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세력전이 현상과정 중 지역의 자생적 질서는 패권국가의 지위 변화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이해된다. 역사적으로 강대국 국제정치 속성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곳이 바로 동북아, 특히 한반도였음을 상기하면, 미중 간 '세력전이'의 국제정치는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동북아 다자협력질서가 세력전이 현상과정 속 동북아 지역안정도에 어떠한 함의가 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주제어: 세력전이, 패권국, 부상국, 다자협력, 동북아, 구성주의적 제도주의

중추적 중견국가로서의 폴란드와 국제안보제도: 안보딜레마 극복전략과 나토(NATO) 가입 결정 배경

이 수 형(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Ⅰ. 서론
Ⅱ. 중추적 중견국가의 정의와 안보전략
Ⅲ. 전환기 유럽안보환경의 특징과 폴란드의 안보딜레마
Ⅳ. 폴란드의 안보딜레마 극복전략과 나토 가입 결정
Ⅴ. 결론: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함의

국문요약

지난날 폴란드는 지정학적 위치와 국력의 상대적 열세로 인해 주변 열강들의 주기적인 침탈의 대상이 되어, 주권을 상실하고 영토가 분할되는 역사적 비극을 경험하였다. 또한 냉전체제에서도 진영논리로 인해 주권을 제약받고, 자율적인 외교정책과 국가전략을 추진할 수 없었다. 따라서 만약 냉전종식 이후 새롭게 재편되는 유럽의 안보환경에서 또 다시 과거와 같은 지역적 안보딜레마 구조가 재현된다면 폴란드는 쓰라린 과거 역사의 재현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폴란드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역사적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방법과 전략을 설계하여 주변의 안보적 불안정과 이로 인해 현실화될 수도 있는 중동유럽 지역의 안보딜레마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냉전체제의 붕괴와 새로운 안보환경의 대두라는 시대적 전환기에 폴란드가 이전에 경험했던 어두운 역사의 재현을 방지하고 국가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안보제도를 어떻게 활용하였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중추적 중견국가와 국제안보제도라는 관점에서 냉전종식 이후 나토의 확대정책이 공식화되기 이전 시기인 1990년부터 1992년에 걸쳐 폴란드가 보여준 나토 가입전략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왜냐하면 나토의 확대정책과 관련하여 이 기간에 나타난 폴란드 및 중동유럽 국가들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였고, 이를 통해 국제안보제도를 활용하고자 한 폴란드의 안보전략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주제어: 중추적 중견국가, 가교전략, 안보딜레마, 냉전종식, 협력안보

북핵 문제의 성격과 해결을 위한 전략 구상

류 길 재(북한대학원대 부교수)

Ⅰ. 서론
Ⅱ. 비교적 맥락에서 본 이명박 정부의 북핵 구상: '비핵 · 개방 · 3000'에서 일괄타결안(grand bargain)으로
Ⅲ. 북핵 해법을 위한 전제
Ⅳ. 중기적 차원의 전략 구상: 다층적 복합 다자주의
Ⅴ. 결론

국문요약

이 글은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을 북한 문제라고 하는 보다 포괄적인 맥락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과거 북핵 협상은 '주고받는' 방식의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만큼 관련 당사국들의 이해관계의 접점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이해관계의 재구조화를 필요로 하며, 그에 맞춰 전략의 방향을 변환시켜야 한다.

관련 5개국 간의 합의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동의 이익을 확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 토대 위에서 북한 문제의 핵심인 북한의 개혁 · 개방을 촉진시키기 위한 포용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그것의 핵심은 결국 동북아에서의 다자협력 틀의 구성이다. 이를 통해 국제적 포용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 정책은 북한이 국제적 규범과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면서도 북한에게 유리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한다. 이를 원칙적 포용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같은 한국의 외교전략을 '다층적 복합 다자주의'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북핵 문제, 북한 문제, 다자협력 틀, 포용정책, 일괄타결안

미국 연방의회의 의사진행방해(filibuster) 제도의 실증적 접근: 의사진행방해란 무엇이며, 왜 발생하는가?

김 준 석(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Ⅰ. 들어가며
Ⅱ. 의사진행방해(filibuster): 미국 상원에서의 연혁과 절차
Ⅲ. 미국 상원의회의 의사진행방해 제기빈도를 설명하는 실증모형
Ⅳ. 회귀분석의 결과와 해석
Ⅴ. 맺으며

국문요약

본 논문은 미국 연방 상원의회의 의사진행방해제도를 중심으로, 의사진행방해란 무엇이며,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발생 요인은 무엇인지를 역사적 · 실증적 접근을 통해 연구한다. 그 결과 미국 의회에서 의사진행방해는 의사규칙의 틈새를 활용해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소수의 전략적 행위에서 나타났으며, 이후 원안 그대로 유지하려는 소수파의 전략과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의사규칙 · 절차의 개정을 추진하는 다수당의 의회 주도권 강화 전략이 지속적으로 충돌 · 타협하면서 점진적으로 변화하였음을 발견하였다.

본 논문은 실증적 분석의 차원에서 개별 의회의 의사진행방해 빈도 변화와 의회정당의 내외적 역학, 의회제도의 유인구조 관계를 검증한다. 음이항 분포 회귀분석 결과 개별 의회의 의사진행방해 제기빈도는 의회정당 내 구성원의 이념적 동질화의 정도와 다수당과 소수당의 이념적 간극의 차이, 그리고 의사진행방해 대상법안에 대한 의사일정조정제도의 도입에 따른 유인구조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원 내 소수집단의 의사진행방해 제기는 다수당의 힘이 강하거나, 다수당과 소수당의 이념적 간극이 크지 않을 때, 소수가 의사진행방해를 함으로써 동료나 조직에 지우게 되는 물리적 · 심리적 부담이 클 때, 그 빈도가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다수당과 소수당의 이념적 차이가 매우 커져서 소수당이 다수당의 의안을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다수당 의원들이 이념적으로 크게 이질화되어 소수당의 의사진행방해를 제어할 힘을 보여줄 수 없을 경우, 혹은 자신의 발의로 인해 동료와 조직에 주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상황에서 소수에 의한 의사진행방해가 훨씬 더 자주 제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의사진행방해, 토론종결, 조건적 정당정부이론, 다수지배의 원칙

한국 야당의 영향력과 역할에 대한 제도적 평가

강 원 택(숭실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한국의 야당: 영향력과 역할에 대한 평가
Ⅳ. 결론

국문요약

정당 정치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뤄져 왔지만 야당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그리 높지 않았다. 이 글은 정치체계 내에서 야당의 역할에 주목함으로써 한국 정당 정치와 의회 정치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이 글에서는 보다 객관적으로 한국 야당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 비교정치적 시각에서 그 특성을 분석하고자 했다. 이 연구에서는 통치체계의 형태, 정당체계의 특성, 정치적 반대의 명분, 정당의 조직적 특성, 그리고 의회 정치의 특성과 정치적 관행이라고 하는 다섯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을 통해 한국 야당의 정치적 영향력과 역할을 평가했다. 분석 결과, 한국의 야당은 비교정치적으로 볼 때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영향력은 제도적으로, 상황적으로, 관행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것으로 야당이라고 해도 간접적인 방식으로 사실상 통치 행위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이다.

주제어: 야당, 정당 정치, 통치체계, 정당체계, 정치적 반대

민주노동당의 '개방형 경선제' 논의과정과 정당 거버넌스

채 진 원(경희대 시간강사)

Ⅰ. 서론: 문제제기
Ⅱ.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적용
Ⅲ. 개방형 경선제 논의 및 재추진 경과와 내용
Ⅳ. 두 경선제가 제기된 배경과 이론적 함의
Ⅴ. 결론

국문요약

본 논문의 목적은 민주노동당이 17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선후보 선출방식으로 논의되었던 '개방형 경선제' 도입 논의와 '민중참여 경선제' 추진사례를 '거버넌스의 틀'로 설명하고 그 정치적 함의를 찾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거버넌스와 관련한 이론적 논의와 함께 거버넌스 개념의 정당 후보 선출방식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둘째, '개방형 경선제'와 '민중참여 경선제'가 제기된 배경을 살펴본다.

주제어: 정당, 거버넌스, 후보 선출방식, 개방형 경선제, 민중참여 경선제, 본선경쟁력

인터넷 감성이 온라인 항의 참여와 오프라인 시위 참여에 미친 영향: 2008년 촛불집회 분석

정 일 준(고려대 사회학과 조교수)
김 상 돈(고려대 사회학과 연구교수)

Ⅰ. 서론
Ⅱ. 2008년 촛불집회의 담론과 구조
Ⅲ. 연구설계
Ⅳ. 2008년 촛불집회의 분석결과
Ⅴ. 결론 및 논의

국문요약

이 연구는 2008년 촛불집회에서 제기된 개념들(인터넷 감성, 온라인 항의 참여, 오프라인 시위 참여)을 담론적으로 논의한 후 실증적으로 규명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2008년 촛불집회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항의 참여와 오프라인 시위 참여와 관련되는 일련의 연구가설을 제시하고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 촛불집회 관련 게시판이나 댓글의 글을 읽고 공감만 자주하는 사람은 온라인 항의 참여에 소극적인 반면에, 촛불집회 관련 생중계 및 동영상을 자주 본 사람은 온라인 항의 참여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온라인 항의 참여에 적극적인 사람들은 오프라인 시위 참여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2008년 촛불집회 관련 생중계 및 동영상을 자주 본 사람들은 온라인 항의 참여에 매개되어 오프라인 시위 참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촛불집회, 인터넷 감성, 온라인 항의, 오프라인 시위

한국과 국제정치

KOREA & WORLD POLITICS

2010 ~
2022

코리아, 러시아, 유라시아: 거대변동과 장기지속의 지정학

김 명 섭(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Ⅰ. 서론
Ⅱ. 몽골제국 해체 이후 러시아와 코리아의 다시 만남
Ⅲ. 러시아제국의 붕괴와 코리아
Ⅳ. 소련제국의 해체와 유라시아
Ⅴ. 결론

국문요약

동북아시아의 문명충돌점으로서 코리아는 유라시아와 지정학적인 장기지속성을 지닌 상관성을 지녀왔다. 이 글은 유라시아의 장기지속성, 그리고 코리아와의 연관성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거대변동을 통해 어떻게 발현되고, 지속되어 왔는가를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첫째, 최초의 유라시아제국이었던 몽골제국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러시아제국의 팽창, 둘째, 1917년 러시아제국의 붕괴와 소비에트의 창궐, 셋째, 1989년 냉전종식 이후 소련제국의 해체이다. 한소(러)수교 20주년을 맞이하여 코리아는 대서양 문명표준과의 연결고리들을 심화·발전시키려는 노력과 더불어 유라시아와의 관계를 경제외교, 자원외교, 또는 북핵외교에만 한정하지 않고, 거대변동을 겪으면서 지속되어 온 유라시아적 공동정체성을 발견하고, 재발명하는 단계로 성숙시킬 필요가 있다.

주제어: 코리아, 러시아, 유라시아, 문명표준, 지정학

유라시아의 민주주의:
통합적 설명모형의 모색과 색채혁명

엄 구 호(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Ⅰ. 서론
Ⅱ. 유라시아의 정치체제 특성과 민주화 진단
Ⅲ. 유라시아 민주화 설명의 이론 평가: 통합모형 도출
Ⅳ. 색채혁명의 설명
Ⅴ. 결론

국문요약

본 연구는 두 가지 문제제기에서 출발한다. 첫째, 유라시아 국가들의 민주주의 특성인 불완전 민주주의가 현실정치에서 비민주체제로 안정화되었을 때, 불완전 또는 전환적 형태의 민주주의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 둘째, 기존 연구는 이행론이 기초한 행위자적 접근과 근대화 가설이 기초한 구조적 접근으로 대별해 볼 수 있는데, 각 접근은 상호 장단점이 있으므로 통합적 사고의 모형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유라시아에서 나타나는 민주화 방식은 동구의 엘리트 간 합의 방식보다는 혁명 방식이기 때문에, 혁명이라는 집단행동의 과정 설명과 민주화 설명의 이론적 틀이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첫째, 민주화의 단계와 체제 성격을 연계하여 유라시아의 민주화를 진단 및 유형화하고, 둘째, 기존의 방대한 유라시아 민주화 연구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색채혁명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모색하며, 셋째, 이러한 이론적 모형에 기초해서 유라시아의 민주화와 색채혁명을 평가해 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구조적 접근과 행위자적 접근의 통합 접근과 색채혁명의 추세–도구–촉발모형의 결합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 모형은 매우 유연성이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구조적 변수와 행위자적 변수가 매우 다양하며 유라시아의 상황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실증적 연구를 통해 보다 적실성 있는 설명변수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유라시아, 러시아, 민주주의, 민주화, 색채혁명

푸틴시대 러시아 국가자본주의의 형성과 발전: 국가경제발전모델의 관점에서

이 종 문(부산외대 러시아-인도통상학부 조교수)

Ⅰ. 서론
Ⅱ. 푸틴시대 러시아 국가자본주의의 형성 배경
Ⅲ. 푸틴시대 러시아 국가자본주의의 형성과 발전
Ⅳ. 러시아 국가자본주의의 특징
Ⅴ. 결론: 러시아 국가자본주의에 대한 향후 전망

국문요약

본 논문은 푸틴시대(2000~2008년) 러시아 경제발전모델로서 국가자본주의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었는지의 추이를 고찰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푸틴시대 러시아 경제발전전략의 측면에서 본 국가자본주의는 옐친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개혁을 계승하였으나, 그 방식은 전임자가 추진한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시장자본주의와는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개인의 재산권과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경제개방과 자유화를 표명하는 등 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 틀을 유지하는 한편, 경제운영에서는 특정 산업부문에서의 지배력 확보를 위해 부분 국유화를 추진하고 경제흐름을 시장메커니즘에 전적으로 맡겨놓기보다는 국가가 적절히 통제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취했다. 또한 정부주도하에 경제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과제를 제시한 후 권위주의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개발독재 방식을 취함으로써 국민경제 전반에서의 국가 기능과 역할을 확대했다. 푸틴의 국가자본주의는 자유시장 자본주의모델에 소비에트 사회주의모델이 가미된 형식을 띠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 러시아 경제, 국가자본주의, 경제발전전략, 국유화, 개발독재

러시아 에너지정책의 원천: '철저한 경제'인가 혹은 '전략적 정치'인가?

이 유 신(영남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Ⅰ. 서론
Ⅱ.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가즈프롬의 위상
Ⅲ. 러시아의 가스정책
Ⅳ. 결론

국문요약

러시아 에너지정책의 원천이 '철저한 경제(pure economy)'인가 혹은 '전략적 정치(strategic politics)'인가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 두 가지 상반된 주장 중 어느 주장이 진실에 가까운가를 찾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러시아 에너지정책의 사례를 가스 관련 위주로 짚어보고 있다. 특히 러시아가 가스를 거래하는 2개의 주요 지역인 중앙아시아 및 유럽에 대한 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이 분석에서 필자는 러시아 에너지정책의 원천이 철저한 경제인가 혹은 전략적 정치인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다시 말해, 러시아의 에너지정책은 때로는 철저한 경제 때로는 전략적 정치 그리고 때로는 이 두 가지 요인 모두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제어: 러시아, 에너지, 가스, 철저한 경제, 전략적 정치

나토 확대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고 상 두(연세대 일반대학원 지역학협동과정 교수)

Ⅰ. 서론
Ⅱ. 나토 확대에 관한 기존 연구의 검토
Ⅲ. 나토 확대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Ⅳ. 나토 확대의 전망과 나토-러시아 관계
Ⅴ. 결론

국문요약

이 글의 목적은 나토 확대의 논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나토 확대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태도는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의 나토정책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정치엘리트와 일반 국민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러시아의 관점에서 나토 확대는 서유럽 안보영역의 확장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 결과 나토 확대는 러시아를 자극하여 왔으며, 그루지야 전쟁을 촉발하기도 하였다.

나토 확대에 대한 러시아인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정치엘리트 중에는 나토에 대한 적대적 그룹, 호의적 그룹, 실용적 그룹이 있는데, 1990년대에 주류 엘리트였던 호의적 그룹이 점차 퇴조하고 2000년대에 접어들어 실용적 그룹에 의해 대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용적 그룹이란 나토에 대하여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나토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엘리트 집단이다. 일반 국민의 의견도 엘리트의 실용적 강경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와 나토의 관계를 전망한다면, 당분간 나토 확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그루지야 전쟁과 같은 러시아의 적극적인 저항 때문이다. 아울러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주제어: 러시아, 나토 확대, 푸틴, 유럽, 미국

‘동’과 ‘서’ 사이에서: 우크라이나의 대외전략

홍 완 석(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Ⅰ. 서론
Ⅱ. 우크라이나 대외정책 규정의 구조적 요인
Ⅲ. 우크라이나 대외정책의 전개: 과정, 추동력, 결과
Ⅳ. 결론: 우크라이나 대외정책의 특징과 외교전략

국문요약

이 글은 ‘동’(East)과 ‘서’(West) 사이에서 외교적 좌표 선택의 딜레마를 안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영토적 안전보장과 국익증대를 위해 어떤 대외전략을 강구하고 선택할 것인가를 분석한다.

러시아와 서구 사이의 전략적 요충지라는 지정학적 중요성, 유럽 최대의 영토규모, 4,700만의 인구, 방대한 자원, 강한 군사력 등 잠재적·현재적 국력을 고려해볼 때, 우크라이나의 대외적 선택은 유라시아의 세력판도에 커다란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강대국들, 특히 미국과 러시아가 경쟁적으로 자신의 세력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집중하는 핵심 공략대상이다.

러시아, 미국, EU가 엮어내는 세력상관관계 속에서 우크라이나가 국가적 생존과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냉철한 현실주의에 기초한 신중한 대외전략을 강구해야만 한다. 외교정책에서 이의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멀티벡터리즘(다면주의, multivectorism)’이다. 이는 서구(미국 및 EU) 벡터와 러시안 벡터 양자 간의 정책적 충돌은 존재하지 않으며, 우크라이나 외교정책의 우선순위와 지향의 문제는 양자택일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를 아우르는 멀티벡터적이라는 것이다. 특정 국가 및 세력에게 편중적으로 의존하는 일방주의 외교가 어려운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현실을 감안할 때, ‘실용주의 외교’로 해석가능한 멀티벡터리즘이 우크라이나 대외전략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주제어: 동과 서, 우크라이나, 외교정책 상수(常數), 대외전략, 멀티벡터리즘

러시아의 중앙아시아정책과 다자주의

고 재 남(외교안보연구원 유럽 · 아프리카연구부 교수)

Ⅰ. 서론
Ⅱ. 러시아의 중앙아시아정책 목표
Ⅲ. 러시아의 중앙아시아정책 변화와 배경
Ⅳ. 대중앙아시아 다자주의정책의 실제
Ⅴ. 결론

국문요약

1990년대 초중반 러시아의 철수와 무관심은 중앙아시아를 '힘의 공백' 상태로 빠트렸고, 중앙아시아는 역내외 주요 국가들 간 '거대게임(great game)'의 장으로 재등장하였다. 거대게임의 참여국 중 중앙아시아의 전반적 전략환경 및 역내국가들의 국내외 정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국가는 러시아이다. 러시아는 19세기 중반부터 소련 붕괴 시까지 중앙아시아를 지배·통합해왔으며, 이후에도 양자·다자 차원의 협력·통합 기제를 구축해 역내국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중앙아시아정책 목표와 전략은 양측의 국내외 정세에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되어 왔다.

러시아는 당면한 외교안보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다자주의'를 적극 옹호해왔다. 러시아의 재부상과 더불어 다자주의가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는 지역은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이다. 푸틴 정부 들어 강대국으로의 재부상은 러시아의 CIS정책을 강화시키는 배경으로 작용하였으며, 러시아가 리더십을 바탕으로 친러국가 중심의 정치·경제·안보 협력을 위한 다자지역협력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와 CIS 국가들 간 다자협력이 가장 활발한 곳은 중앙아시아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및 유지를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중앙아시아에서 다자주의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소연방 붕괴 후 러시아의 중앙아시아정책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에서 영향력 복원 및 유지를 위해 다자주의를 어떻게 활용하였는지를 분석한다.

주제어: 러시아의 중앙아시아정책, 다자주의,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상하이협력기구(SCO)

한-러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공유이익과 실현전략의 관점에서

신 범 식(서울대 외교학과 부교수)

Ⅰ. 들어가는 말
Ⅱ. 한러관계 20년의 재검토
Ⅲ. 러시아와 한국의 대외전략과 한러 관계
Ⅳ. 한러 양국의 공유이익과 전략적 교집합
Ⅴ. 맺음말

국문요약

수교한지 20년이 된 한국과 러시아는 상대방에 대한 과도한 기대에 기초한 '과열기'를 짧게 지낸 뒤, 상대에 대한 실망으로 급속한 '냉각기', 소강상태의 '관리기'를 지나, 안정적인 '발전 모색기'를 경험했다. 그리고 2008년 이명박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수립을 통해 한러관계를 '격상'하는 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합의가 존재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이를 통하여 한 차원 높은 단계로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고,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라는 '형식'을 채워갈 양국관계의 미래적 발전의 '내용'을 찾아가는 과제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 따라서 한러관계의 발전과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전략적 동반관계의 출발점을 명확히 하고, 동시에 양국 대외전략을 비교하여 공유될 수 있는 전략적 지향점을 찾는 일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본고는, 먼저 지난 20년간 한러관계의 전개과정을 재검토하여 한러 간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전략적 동반자관계라는 형식을 수립한 양국의 대외전략을 비교하여, 이들 사이에 교집합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떤 지전략적 범위와 목표를 공유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끝으로 전략적 공유이익의 실현을 위한 과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검토하여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내용을 채워가는 데 필요한 실천적 함의를 도출해 보았다.

주제어: 전략적 동반자관계, 한러관계, 국가이익, 전략공간, 다자주의

4월 혁명의 순환구조와 6.3 항쟁: 역사주기론의 시각

조 대 엽(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Ⅰ. 서론: 사회운동의 사회학과 역사성의 문제
Ⅱ. 현대 한국의 사회운동과 역사주기론의 시각
Ⅲ. 민족민주운동의 역사주기와 4월 혁명
Ⅳ. 민족민주운동의 역사주기와 6.3 항쟁
Ⅴ. 결론: 4월 민주주의의 진화론적 전망

국문요약

역사주기론의 시각은 특정의 역사적 시기를 하나의 거시적 분석단위로, 해당 시기 내에서 사회운동의 순환과정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 글은 해방 이후 정부수립에서 1990년대 초까지의 시기를 '분단체제'와 '국가주의'의 조건이 결합된 '분단·국가주의'의 역사적 국면으로 설정했다. 이 역사국면에서 사회운동은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과제에 겨냥되었고, 그것은 곧 '민족민주운동의 역사적 주기'를 형성했다.

민족민주운동은 그 역사주기 내에서 순환적 소주기를 만드는데, 1960년의 4월 혁명은 제1의 순환주기로 제1공화국의 분단·국가주의가 봉합한 민족적 과제와 민주적 과제를 표출하는 역사적 효과를 가졌다. 4월 혁명의 주기에 나타난 민족민주운동의 프레임에는 반이승만 '민주화 프레임'과 '통일민족주의 프레임'이 순차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1961년 5월의 군부쿠데타는 4월 혁명이 제기했던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과제를 재봉인했고, 6.3 항쟁은 박정희 정권이 재봉인하고자 했던 민족민주의 과제를 다시 분출시켰다. 이 과정에서 민족민주운동의 프레임은 대일 및 대미 자주외교적 지향의 '자주적 민족주의 프레임'과 반박정희 '민주화 프레임'이 결합됨으로써, 민족민주운동의 제2의 순환주기를 형성했다.

4월 혁명의 주기와 6.3 항쟁의 주기는 민족민주운동의 역사적 주기 내에서 가장 근접한 시기에 발생한 운동이므로, 4월 혁명의 프레임은 6.3 항쟁의 프레임을 만드는 정치적 기회구조로 작용했다. 4월 혁명은 이념 및 가치, 조직, 행위의 수준에서 6.3 항쟁의 기회구조로 작용했던 것이다.

주제어: 4월 혁명, 6.3 항쟁, 민족민주운동, 역사주기, 순환주기, 분단 국가주의

설문조사의 투표율 과장 현상에 대한 연구: 거짓응답자 추출을 중심으로

이 현 우(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전 시 홍(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Ⅰ. 서론: 과대투표율의 본질적 문제
Ⅱ. 기존 연구 검토
Ⅲ. 경험적 연구
Ⅳ. 요약 및 함의

국문요약

이 글은 설문조사에서 항상 나타나는 설문투표율과 실제투표율과의 괴리 현상에 주목하여, 설문조사의 투표율 과장 현상이 설문자료의 신뢰성을 저해하는가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과대투표율을 측정하는 데 있어 단순히 실제투표율과 설문투표율의 차이만을 다룸으로써 변수측정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율방식으로 계산해보면 오히려 투표율이 높아짐에 따라 과대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방식을 통해 볼 때 왜 거짓응답을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가능해지고 결과의 일관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개인수준의 자료를 이용한 분석은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판별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응답자별 투표가능성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실질투표자, 실질기권자 그리고 거짓투표자들을 구분하였다. 흥미로운 발견은 거짓투표자로 분류된 응답자들의 정당지지 분포가 실질투표자로 추정된 집단의 정당지지 분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를 해석하면 비록 투표율 비교에서는 설문자료가 일관되게 과장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투표결정에 대한 자료에 있어서는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제어: 과대투표 현상, 거짓응답, 선거설문조사, 판별분석, 설문응답률

체계, 선거, 그리고 대통령: 무엇이 미국의 대북정책을 결정하는가?

이 상 신(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Ⅰ. 서론
Ⅱ.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 결정 요인(1992～2000년)
Ⅲ.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결정 요인 (2000～2008년)
Ⅳ.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결정 요인 및 전망(2008년～현재)
Ⅴ. 결론

국문요약

이 논문은 1992년 이후 미국의 정권교체 과정과 대북정책 변화의 관계를 추적한다.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과정은 동아시아 및 국제정치질서의 체계수준 변화, 미국 내 정당 및 사회세력, 여론의 변화 등 국내적 요인, 그리고 정치 지도자 개인의 신념과 철학, 태도 등의 다차원적 분석을 통해 설명되어야 한다.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냉전 이후 미국 중심의 단일 패권국가 체제로 세계질서가 재편되는 체계수준의 변수에 큰 영향을 받았다. 이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게 상하 양원을 빼앗긴 결과, 1994년의 제네바 합의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9.11 사건으로 인해 테러리즘이라는 세계안보의 새로운 위협이 대두된 체계수준의 변인에서 부시 행정부 대북강경책의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패권국가로서의 미국의 위상 약화 및 세계 금융위기 등의 체계수준 요인과 함께 의료보험 개혁 등이 지지부진해져 지지율이 악화되고 있는 국내정치 요인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대북정책에 있어서 오바마 행정부의 선택의 여지를 좁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들 세 대통령 개인의 상이한 정치철학과 신념체계 역시 미국의 대북정책에 뚜렷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주제어: 미국 대북정책, 미국 대통령 선거,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북핵 위기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에서의 대만의 대응과 딜레마

윤 상 우(고려대 사회학과 연구교수)

Ⅰ. 문제제기
Ⅱ.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의 추세
Ⅲ. 대만의 국제화 전략과 대외경제정책
Ⅳ.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과 대만의 딜레마
Ⅴ. 맺음말

국문요약

최근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역경제통합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ASEAN+3, 치앙마이 협의, FTA와 같은 다양한 지역주의 시도들이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동아시아 국제분업구조의 중요한 일원이고 역내무역과 투자를 선도하는 핵심주체인 대만은 제도적·공식적 차원에서의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 논의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있다. 이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에 대한 대만의 접근방법과 정책대응을 살펴보고, 대만이 직면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제약 요인과 딜레마를 검토하고자 한다.

대만은 소규모 개방경제와 높은 무역의존도의 특성상 적극적으로 지역경제통합에 참여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중국과의 관계에서 기인하는 국제정치적·외교적 고립, 양안 간의 정치적 긴장 요인 때문에 지역경제통합에의 가능성이 제한되고 봉쇄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만의 경험은 현 시기 세계화와 지역주의의 형성·발전이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국제적 요인에 의해 다층적이고 복합적으로 규정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대만, 지역경제통합, 국제정치적 고립,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

중국 자원민족주의의 부상과 실태: 희토류(REEs)를 중심으로

김 동 환(남호주대 국제학과 강사)
오 병 석(협성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Ⅰ. 서론
Ⅱ. REEs의 종류와 응용분야 및 세계 매장량 분포
Ⅲ. 중국의 자원민족주의와 중·장기적 목표
Ⅳ. 중국의 자원민족주의에 따른 미국과 일본의 대응
Ⅴ. 결론

국문요약

1990년대 시작되어 2000년대 이후 뚜렷하게 나타난 중국의 자원외교는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위한, 차선책 없는 선택이었다. 중국은 특히 아프리카에서 전통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미국 및 유럽연합(EU)과 직접적이거나 전략적인 충돌 없이 성공적인 자원외교를 펼쳐왔다. 반면 1990년대까지는 자국에서 생산된 '희토류(REEs)'를 비롯한 천연자원에 대해 수출환급세까지 지급하며 수출장려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수출억제정책으로 돌아섰고, 이후 점진적으로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등 천연자원 수입과는 정반대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막대한 무역흑자로 인해 발생한 선진국들과의 무역마찰과 위안화 절상 압박을 우려한 수출억제정책과는 다른 이중성, 즉 '자원민족주의(resource nationalism)'의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00년대 들어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 자원민족주의의 대표 사례인 '희토류정책'의 궤적을 추적하고 관련 수입국가의 대응방안을 살펴봄으로써, 국가안보 차원에서 해외자원 확보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는 한국의 현 시점에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제어: 중국, 희토류, 자원민족주의, 자원외교, 도시광산

소규모 개방경제와 해외직접투자: 덴마크의 사례를 중심으로

배 병 인(국민대 정치외교학과 전임강사)

Ⅰ. 서론
Ⅱ. 소규모 개방경제의 정치경제적 특성과 세계화
Ⅲ. 덴마크의 유연안정체제와 해외직접투자
Ⅳ. 결론

국문요약

세계화의 확산이라는 국제정치경제의 변동과 북유럽 소규모 개방경제국가들의 정치경제체제는 상호 양립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소규모 개방경제국가들은 정치경제체제의 심각한 변화나 퇴행을 경험하지 않고 안정적인 경제운용을 지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활발한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적극적인 세계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 논문은 북유럽 소규모 개방경제국가들의 적극적인 세계화 전략이 이들 정치경제체제에 장착되어 있는 유연성에 바탕을 둔 것임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복지국가와 코포라티즘을 핵심으로 하는 북유럽 소규모 개방경제국가들의 정치경제체제가 세계화와 양립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은 이들의 정치경제체제가 근본적인 경직성으로 특징지어진다는 잘못된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개방경제국가를 특징짓는 복지국가와 코포라티즘 체제는 소규모 개방경제체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국민경제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산물로서 탄생한 것이다. 이들 정치경제체제에 장착된 유연성은 이들 국가들이 세계화의 압력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인 세계화 전략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덴마크가 1990년대 이후 유연안정체제(flexicurity)를 바탕으로 활발한 해외직접투자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주제어: 세계화, 소규모 개방경제, 해외직접투자, 덴마크, 유연안정체제

세계화 시대 집단권리와 문화정체성 이슈에 관한 한 고찰

설 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Ⅰ. 들어가는 말
Ⅱ. 개인과 집단의 사회적 존재론
Ⅲ. 개인의 권리와 집단권리
Ⅳ. 집단권리에 대한 제한조건
Ⅴ. 다문화주의와 문화상호주의
Ⅵ. 나가면서: 세계화, 민족국가, 그리고 문화

국문요약

이 글의 기본적인 목적은 세계화의 맥락에서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집단권리와 문화정체성 관련 제 이슈를 사회적 존재론의 관점에서 개관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무엇이 집단을 구성하는지 그리고 집단권리를 위한 규범적 주장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을 수 있는지를 살펴본 후, 집단권리의 인정이라는 문제와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있어서 문화정체성이 갖는 의미를 고찰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서 이 글의 주 초점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문화적 소수자들의 권리문제에 둔다. 이와 더불어 민주적인 다수가 그들의 지배문화와 언어를 의무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반면, 소수종족집단에게는 문화적 자기표현과 자기발전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동화정책이나 통합정책을 채택할 때 생겨나는 문제점 역시 논의의 주 대상이다. 이어 앞의 논의와 직간접적으로 밀접하게 연계된 문제로서, 하나의 정치체제 내에서 차별, 배제, 혹은 착취를 통해 억압받는 집단들의 권리문제, 그리고 소위 일컫는 다문화주의 현상 역시 간략하게 살펴본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공적 영역이 그 내부의 문화들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관계들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주의에 관한 논의는 특히 세계화라는 최근의 상황에 주입될 때, 민족국가의 관념 속에 서로 결합되어 있는 민족과 국가의 개념을 다룰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해줄 수 있으므로 이 문제 역시 결론부에서 간단하게 언급한다.

주제어: 집단권리, 문화정체성, 인권, 사회적 존재론, 자기발전, 다문화주의

한국 외교정책과 여론: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시위의 이론적 함의를 중심으로

김 학 성(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 부교수)

Ⅰ. 문제제기
Ⅱ. 외교정책과 여론에 관한 기존 연구 검토
Ⅲ. 미국 모델의 이론적 보완과 한국형 모델의 구상
Ⅳ. 맺음말

국문요약

2008년 촛불시위는 민주화의 관점에서 한국 외교정책과 여론의 상관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미국 쇠고기 수입문제는 세계화의 조류와 맞물린 외교정책적 이슈로서 유례를 찾기 힘든 시민의 적극적 반대여론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우리 학계는 외교정책과 여론의 상관관계를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그럴듯한 개념모델을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러한 개념모델의 개발에 앞섰던 미국의 연구결과를 활용하는 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먼저 이론적 논의의 기반으로서 미국의 현실을 반영한 연구성과를 검토한다. 특히 여론 활성화 과정에 초점을 맞춘 이론적 논의로서 '층계식 활성화 모델'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그렇지만 미국의 현실을 반영한 모델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이는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시위라는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이슈의 성격, 국내구조의 성격, 시위의 역할, 그리고 뉴미디어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한국과 미국의 차이에 관해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개념모델을 시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외교정책, 여론, 촛불시위, 미디어, 활성화 모델

방패와 창의 안보딜레마:
일본의 TMD 구축과 중국의 대응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최 종 건(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박 창 원(연세대 대학원 정치학 석사)

Ⅰ. 서론
Ⅱ. 안보딜레마 이론적 논의
Ⅲ. 일본의 TMD 도입 모색과 중국의 대응(1993～1998년)
Ⅳ. TMD 도입 확정과 중·일 역학관계(1999～2010년)
Ⅴ. 결론

국문요약

본 논문은 미국이 일본에 배치하고자 하는 전역미사일방어시스템(TMD)이 중국과 일본 양국 간에 상존하던 긴장을 고조시키는 촉발요인으로 작용함을 경험적 행위로써 증명하고자 한다. 중·일 간의 안보딜레마 역시 특정한 사건에 의해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증폭되었음을 보이려 하고, 그 특정한 사건이 일본의 TMD 배치라는 것이다. 미국으로부터의 TMD 도입은 낮은 수준 내지 최소한 상당한 수준의 위협으로 간주되지 않던 양국 간의 관계를 급속도로 변화시킨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즉 안보딜레마의 '발생의 가능성'만이 존재하던 차원에서 실제 안보딜레마 '발생'으로의 전환에 TMD 도입이라는 국가의 특정한 행위가 작용하였다.

이러한 작용과 반작용의 과정이 중·일 간 안보딜레마를 심화시킨 요인이 되었다. 정리하자면 일본의 TMD 도입으로 인해 중국은 이를 위협 내지 불안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러한 인식의 결과로써 탄도미사일을 강화했다. 그러자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뿐 아니라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또 다른 위협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에 대한 방어로써 미국과의 TMD 시스템을 더욱더 강화해 나갔던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중·일 간 안보딜레마는 끝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졌던 것이다.

주제어: 안보딜레마, 중·일관계, 동북아 안보, 미사일방어체계, 전략미사일

G20 체제의 국제정치경제적 함의와 한국의 국가전략

정 상 화(세종연구소 국제정치경제실 연구위원)

Ⅰ. 서론
Ⅱ. 국제질서 및 국제거버넌스 논의와 이론의 동향
Ⅲ. G20 체제와 신국제질서
Ⅳ. G20 체제와 한국의 전략
Ⅴ. 요약 및 결론

국문요약

2007년 미국 부동산금융시장의 혼란으로 촉발된 세계금융위기는 국제거시경제 관리를 위해 G20라는 새로운 국제정치경제 거버넌스를 태동시켰다. 이 새로운 체제는 G7(8)의 기존 강대국과 한국,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주요 신흥개발국을 모두 포함하는 조직 특성을 가지고 있다. G20는 방어적 성격에서 출범했지만, 더 나은 제도적 대안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경제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협의하는 국제사회의 최상위포럼으로 기능할 것이 확실하다.

G20 체제의 핵심에는 미국 달러가 있다. G20의 출범 자체가 국제경제구조의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달러 위상의 변화와 이를 관리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달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 확보는 중국에 달려있다.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인 중국은 달러 위상의 급격한 변화를 막으면서 자국 위안화를 국제기축통화화하려 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은 정치경제적으로 미중관계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G2의 양강구도에서 한국이 이익을 얻을지 아니면 손해를 입을지는 불확실하다. 한국은 국가 실력을 갖추는 한편, G20 회원국이라는 이점을 활용해 선제적 경제외교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주제어: G20, G2, 세계금융위기, 경제외교, 국제기축통화

공적개발원조(ODA)와 국익: 한국 ODA 정책의 발전을 위한 함의

고 경 민(제주대 정치외교학과 BK21 연구교수)
김 순 임(제주대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홍 진 혁(제주대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Ⅰ. 서론
Ⅱ. ODA의 목표와 국익: 이론적 논의
Ⅲ. 일본의 'ODA 대강' 개정과 열린 국익
Ⅳ. 한국 ODA의 문제점과 이명박 정부의 ODA, 그리고 국익
Ⅴ. 한국 ODA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익의 함의
Ⅵ. 결론에 대신하여: ODA 혁신을 위한 고려사항

국문요약

ODA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은 공여국과 수원국의 호혜적 국익 추구에 의해 유지된다. OECD DAC 회원국으로서 한국의 ODA는 양적 확대와 더불어 ODA 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질적 전환기에 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국익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이다. 국익 개념에 의해 ODA의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한국 ODA의 현황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일본의 'ODA 대강'의 개정과정을 검토한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ODA에 관한 새로운 외교전략을 분석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 ODA 정책의 혁신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ODA를 통해 추구하는 국익을 보다 분명하게 재정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ODA와 국익의 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개도국 지원과 국익 추구의 조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넷째, ODA에 대한 국내의 교차적 압력을 극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DAC 가입 이후 새로운 한국 ODA의 경로를 창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제어: 공적개발원조, 국익, 소프트파워, ODA 대강, 열린 국익, 호혜적 국익

미국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사용자의 특성과 정치참여

송 경 재(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학술연구교수)

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정치 참여
Ⅱ. 기존 이론 검토와 연구문제
Ⅲ. 분석결과
Ⅳ. 토론 및 한국적 함의

국문요약

2008년 미국 대선과 2010년 영국 총선에서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웹 캠페인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전략으로 부각되었다. 웹 2.0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연계망 서비스의 등장은 정치과정에 많은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 정당과 후보자가 직접 시민들과 접속하여 친밀감을 강화하고, 정치인과 대중이 일대일의 관계로 네트워킹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SNS의 이용자 급증과 정치적 활용사례가 국내외에서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문적으로 체계화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정치 SNS의 성장에 따른 활용 가능성을 정치참여 접근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론은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의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계량적 분석을 시도했다. 미국 SNS의 특성과 정치참여 현상에 대한 결론을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과 함의를 도출했다.

주제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정보통신기술, 2008 미국 대선, 정치참여

한국 근 · 현대사 교과서를 둘러싼 역사인식 갈등 연구: 한국 민족주의의 '균열'을 중심으로

전 재 호(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

Ⅰ. 들어가는 말
Ⅱ.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한국 민족주의의 전개과정
Ⅳ.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역사 인식
Ⅴ. 나가는 말

국문요약

근대 시기 공통의 혈통, 언어, 역사 등을 토대로 시작된 '종족적' 민족 개념은 식민지 시기를 거치면서 한반도 주민들 사이에서 '종족적 정체성'으로 귀착되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 한반도에 두 개의 적대적 국민국가가 수립되자, 기존의 종족적 정체성과 별개로 남북에는 '반공·반소'와 '반제·반미'라는 적대적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정치적' 민족 개념이 새롭게 등장했다. 특히 상대방을 절멸시키려는 전쟁과 적대적 국가 건설과정을 거치면서, 정치적 민족 개념은 '정치적 정체성'으로 발전했다. 물론 남북 모두 자신이 한/조선 민족을 대표한다고 주장했지만, 남한에서 종족적 정체성과 정치적 정체성은 일치하기보다는 충돌했다.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를 둘러싼 남한 내 갈등은 양자의 충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금성교과서는 종족적 정체성에 근거하여 한국 근·현대사를 평가한 데 비해, 대안교과서는 정치적 정체성에 근거했다. 그 결과 식민지 시기, 분단정부 수립, 통일, 북한 등 개별 쟁점에 대한 양자의 견해가 상치되었다. 결국, 한국 근·현대사를 둘러싼 역사인식의 갈등은 종족적 정체성과 정치적 정체성이라는 한국 민족주의의 균열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해방 이후 일민족 일국가라는 민족주의 원칙이 달성되지 못한 분단의 역사가 낳은 불행한 유산이다.

주제어: 한국 민족주의, 종족적 정체성, 정치적 정체성, 금성교과서, 대안교과서

한국 정치학 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과 국제정치』를 중심으로

이 호 철(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연구의 배경
Ⅱ. 연구분야
Ⅲ. 연구지역
Ⅳ. 연구주제
Ⅴ. 질적 정향
Ⅵ. 분석을 마치며
Ⅶ. 분석지표

국문요약

이 연구는 『한국과 국제정치』 창간 이후 게재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정치학 연구의 연구동향을 분석해보고 과제를 제안해보고자 하였다. 연구분야의 관점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국제정치 분야의 연구가 높았으나 1990년대에는 오히려 한국정치, 비교정치 분야의 연구가 가장 높았다. 연구지역의 관점에서는 한국과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고, 이어 미국,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순으로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비교정치 분야의 경우 연구주제별로 균형 있는 연구결과들을 보였으나, 한국정치 분야의 경우는 정치과정에 관한 연구가 압도적으로 높아 심각한 편향성을 보였다. 또한 한국정치와 비교정치 분야 모두 정치제도, 정치문화, 정치이론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제정치 분야의 경우 외교정책과 외교관계에 관한 연구가 60%를 넘는 데 반해, 현대 국제관계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비전통적, 비대칭적 안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낮았다. 질적 정향과 관련하여 경험성이나 적실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나, 창의성이나 이론성은 상대적으로 낮거나 보통 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창의성이나 이론성이 낮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접근법이나 분석 틀을 개발하여 기존의 이론 및 가설을 검증하거나, 새로운 이론 및 가설을 창출해가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 학계의 연구동향이 여전히 수동적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주제어: 한국 정치학, 연구분야, 연구지역, 연구주제, 질적 정향

2010 지방선거에서의 분할투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강 원 택(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부교수)

Ⅰ. 들어가는 말
Ⅱ. 2010년 서울 지역 단체장 선거: 집합자료 분석
Ⅲ. 분할투표에 대한 이론적 검토
Ⅳ. 2010년 지방선거와 분할투표: 서베이 데이터 분석
Ⅴ. 결론

국문요약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지역의 투표 결과는 매우 흥미롭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한명숙 후보에게 0.6%라는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두었지만,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와 중랑구 등 네 곳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되었다. 이 글은 어떤 이유로 이와 같은 상이한 결과가 나왔는지에 주목한다. 분석 결과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를 선택했지만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다른 정당 후보에게로 이탈한 유권자 중 다수는 정치성향이 한나라당에 가까운 이들이었다. 더욱이 이들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다른 정당을 선택한 경우라도, 상대적으로 한나라당에 대한 호감도는 여전히 높았다. 즉 표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한나라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유권자들이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이라는 단기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 이탈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투표는 '저항투표(protest voting)'적 속성을 지닌다. 따라서 분할투표가 발생한 것은 민주당 및 다른 정당에 대한 호감으로 인한 '흡인 효과(pull factor)'라기보다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실망감에서 비롯된 '배출 효과(push factor)'에 기인한 것이다. 다만 그러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부담감 곧 외부 비용이 큰 서울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기초단체장 수준에서 그러한 불만이 표출되었다.

주제어: 지방선거, 서울시장, 오세훈, 한명숙, 저항투표, 분할투표

18대 총선의 현직의원 득표율 분석

윤 종 빈(명지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Ⅰ. 서론
Ⅱ. 국내·외 이론적 배경
Ⅲ. 현직의원 득표율 분석 연구설계
Ⅳ. 득표율 증감 통계 분석
Ⅴ. 결론

국문요약

이 연구는 2008년 18대 총선은 대통령과 정당에 대한 인기도가 좌우한 가운데, 현직의원의 개인적인 업적과 노력이 영향을 미친 선거라고 평가한다. 현직의원의 득표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 핵심 독립변수인 선수, 지역·정당 교차변수, 의정활동 수준과 종속변수인 득표율 증감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선수에 따라 득표율 증감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초·재선의원이 3·4선 의원에 비해 2004년 17대 총선 대비 평균 득표율 증가치가 높았다. 초·재선의원의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증가율은 이 연구에서 동시에 발견된 초·재선의원의 상대적으로 높은 의정활동 수준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둘째, 지역·정당의 교차변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영호남 현직의원의 득표율 증가는 정당지지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교차변수 검증으로 영남에서 한나라당, 호남에서 통합민주당, 수도권에서 한나라당 현직의원의 득표율이 더욱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당선된 현직의원이 낙선한 경우보다 평균 법안발의 건수가 더 높았다. 비록 예측한 만큼 뚜렷한 패턴은 아니지만, 의정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득표율 증가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후보자 개인 중심의 선거운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양한 의정활동 변수의 개발과 이에 대한 학술적 검증을 통해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예측성과 생산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18대 총선, 현직의원, 득표율 증감, 선수, 지역주의, 입법발의 건수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인식과 신뢰: 대중매체의 재판 관련 보도와 법원 판결에 대한 평가

유 성 진(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전임강사)

Ⅰ. 들어가는 말
Ⅱ.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작동과 신뢰
Ⅲ.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인식현황
Ⅳ.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인식경로와 방식
Ⅴ. 결론: 사법부 개혁을 위한 제언

국문요약

이 글은 정치적 신뢰의 의미와 영향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기존의 연구에서 결여되었던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수준을 검토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인식과 그 인식의 경로, 그리고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경험적 분석 결과, 응답자의 대다수는 법원 및 판사에 대한 정보를 대중매체에 의존하고 있었고, 대중매체의 재판 관련 보도에 대한 신뢰도는 법원 판결에 대한 평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중매체 보도의 신뢰는 법원 판결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이어졌던 반면, 부정적 평가는 대중매체 보도의 신뢰 여부에 영향받지 않았다. 또한 지역간의 차이 역시 두드러진 변수로 확인되었다. 응답자 개개인의 특성을 표현하는 사회경제적 변수들은 대개의 경우 큰 의미를 찾을 수 없었지만, 소득과 정치성향의 경우 일부 항목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개인이 정치행위 혹은 법원 판결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나타내는 효능감은 대중매체 보도의 신뢰성만큼이나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제어: 신뢰, 정치체제, 사법부, 대중매체, 효능감

중국의 법치 논쟁과 정치개혁

조 영 남(서울대 국제대학원 부교수)

Ⅰ. 서론
Ⅱ. 중국 법치 논쟁의 전개과정
Ⅲ. 중국 법치 논쟁의 쟁점과 내용
Ⅳ. 중국 법치 논쟁의 평가
Ⅴ. 중국의 법치와 정치개혁
Ⅵ. 결론

국문요약

이 논문은 개혁기 중국에서 전개된 법치(法治) 논쟁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치 논쟁의 시기별 전개과정과 쟁점을 분석하고, 중국 법치 논쟁의 한계와 문제점을 검토한다. 또한 중국의 법치와 민주화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먼저 1997년 제15차 당대회에서 결정된 '의법치국(依法治國: 법에 의한 통치)' 방침은 지난 20년의 논쟁을 거쳐, 법치론(法治論)이 인치론(人治論)과 법제론(法制論)을 극복함으로써 등장할 수 있었다. 한편 법치 논쟁은 성과와 함께 도구주의 법률관의 지속, 인치론의 지속적인 영향, 공산당 지상주의 유지라는 한계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법치는 중국의 민주화 이전에 추진될 수 있지만, 민주화를 대신할 수는 없다.

주제어: 중국 정치개혁, 의법치국, 법치, 인치, 민주화

김정일-후진타오 시대의 북중관계: 불안정한 북한과 부강한 중국의 비대칭협력 강화

이 상 숙(동국대 강사)

Ⅰ. 서론
Ⅱ. 비대칭 전략관계의 협력 강화
Ⅲ. 후진타오 시대의 대북정책 배경
Ⅳ. 북한의 제2차 핵실험과 중국의 대응 변화
Ⅴ. 2009년 이후 북중협력 강화 원인
Ⅵ. 결론

국문요약

이 연구는 강대국과 약소국 간 '비대칭관계'의 특성을 통해, 제1, 2차 북한 핵실험 이후 북중관계를 비교하여 그 변화 원인을 분석한다. 북중관계의 비대칭 전략관계적 특성은 첫째, 약소국보다 강력함에도 불구, 강대국은 약소국에게 용이하게 원하는 것을 강제할 수 없다. 중국은 북한에게 강력한 압력을 가할 수 없었고 핵을 포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둘째, 강대국에게 약소국에 대한 안보지원은 상당한 부담이지만, 약소국이 없어지거나 불안정한 상황인 경우 더 큰 부담이 발생하고, 기존 약소국의 현존이 더 유리하므로 안보지원 또는 협력을 한다. 중국은 북한 체제유지가 외교적으로 부담되지만, 북한 체제가 없어지거나 불안정한 상황을 가장 우려한다.

2003년 김정일-후진타오 시대 개막 이후 북중관계의 전략적 협력 강화 원인은 첫째, 북한의 핵실험을 통한 핵위기 조성과 지역 안보위기 확대의 상황적 변화이다. 둘째, 후진타오 주석 중심의 '화평발전'을 앞세운 제4세대 지도자의 등장으로 인한 지도자의 변화이다. 셋째, 중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자원외교와 동북지역 발전의 필요성이다.

중국은 제1차 핵실험 시 북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대북제재에 동참하였지만, 2009년 핵실험 감행에도 불구하고 대북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대북정책의 변화는 북한의 대내 불안정성과도 관련 깊다. 첫째, 북한 핵실험 재개와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 둘째, 북한 최고지도자의 건강이상과 후계체제 구축의 본격화, 셋째, 북한의 화폐개혁과 이에 따른 혼란이다. 대내 불안정성 심화로 인한 북한의 위기조성에 대해 중국의 대응방식이 변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주제어: 북중관계, 비대칭관계, 북핵위기, 화평발전, 중국 동북진흥

후진타오 정부의 대북정책: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이 계 란(중국 연변대학(延邊大學) 국제정치학과 전임강사)

Ⅰ. 서론
Ⅱ. 후진타오 정부의 대북정책
Ⅲ. 북핵문제와 중국의 정책 선택
Ⅳ. 결론

국문요약

2003년에 등장한 후진타오(胡錦濤) 정부는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국가전략을 제시함과 동시에 장쩌민(江澤民) 체제 후기에 제시되었던 '책임대국'으로서의 국가 이미지 수립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자 한다. 이런 맥락에서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 중국은 북핵문제로 인해 영향받게 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최우선시하면서 대북정책을 수정해왔다. 중국의 대북정책은 자국 국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북중 양자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북중 간 특수관계를 '새로운 형식의 우의(新型友誼)'라고 규정하고, 양국 간 협력을 '새로운 방식, 새로운 사고, 새로운 경로'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라는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북핵문제를 북한문제로부터 분리시켜 고려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변화를 도출하기 위해 경제적 관여정책을 주요 수단으로 하면서 무역과 투자 등 경제영역에서의 북중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주제어: 중국 외교정책, 중국 대북정책, 북핵문제, 후진타오 정부

북일 수교교섭에서의 미사일문제: 국제사회의 경계를 넘어서

박 창 건(국민대 일본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손 기 영(일본 동북대학(東北大學) 객원부교수)
최 청 호(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머리말
Ⅱ. 국제사회의 경계
Ⅲ. 북일 수교교섭과 미사일문제
Ⅳ. 북일 수교교섭과 미사일문제에서 본 국제사회의 경계
Ⅴ. 맺는 말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학파(English School)가 제기한 '국제사회의 경계(the boundaries of international society)' 이론을 이용해, 북한 미사일문제가 북일 국교 정상화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재조명하는 것이다. 논쟁의 초점은 국제사회의 경계에 관한 분석 틀을 제시함과 동시에, 북일 수교교섭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경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공동의 체제, 이익, 정체성을 담보한 공동체로서, 새로운 회원이 되고자 하는 국가에게 전반적인 체제의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외부에 위치하는 국가인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부인 일본과 지난 20년간 간헐적으로 수교회담을 열어 왔다. 이러한 양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오히려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체성을 부각시킴으로써, 관련국 상호 간 협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변화하게 만들었다. 즉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은 미일동맹의 공고화, 일본의 독자적 방위능력의 제고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본 연구는 북한 미사일 발사실험이 단기적으로 북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북일관계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한다. 실제로 국제사회의 경계는 고착화된 경계선으로서의 개념이기보다는 공동의 이익을 찾아 대화하고 상호 간의 정체성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변동의 가능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주제어: 북일 수교교섭, 미사일 실험, 국제사회의 경계, 공동의 이익, 공동체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 이후 북한 권력구조 확립의 쟁점 및 과제

이 기 동(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Ⅰ. 시작하는 말
Ⅱ.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 및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분석
Ⅲ. 향후 권력구조 확립의 쟁점 및 과제
Ⅳ. 맺는 말

국문요약

본 논문은 2010년 9월 28일 개최된 북한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와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개최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북한의 권력구조와 관련한 쟁점들을 탐구(search)하여, 앞으로의 북한 권력구조 연구(research)를 위한 과제들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제3차 당 대표자회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3대 강화—비서국 중심의 김정일 체제 강화, 당 중앙군사위원회 중심의 후계체제 기반 강화, 정치국 중심의 후견체제 강화—로 귀결되었고, 이는 당·국가체계의 복원 및 당·군의 상호 견제와 균형시스템 마련으로 발현되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북한 권력구조와 관련한 쟁점과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앙당 체계 정비와 달리 지방당과 하급당 체계의 정비과정은 순탄치 않을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둘째, 1980년 당 규약과 2009년 개정헌법을 고려할 때, 국방위원회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간 권능과 임무가 상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셋째, 국방위원회는 당 중앙위원회의 지도하에 있기보다는 국방위원장의 직할통치기구일 가능성에 착목하였다. 넷째,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중앙위원회 산하로 재편입되었다는 주장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후계자와 권력엘리트 간의 관계는 김정일의 생존기간에 따라 두 가지 경로로 진행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북한 권력구조, 당 대표자회, 당 중앙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권력엘리트

핵무기와 국제정치:
역사, 이론, 정책, 그리고 미래

박 건 영(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Ⅰ. 서론
Ⅱ. 핵무기와 국제정치: 역사, 이론, 정책
Ⅲ. 핵무기와 국제정치의 현재 그리고 미래
Ⅳ. 미국 오바마 정부 핵무기 전략의 변화와 전망
Ⅴ. 미국 핵무기 전략 변화의 전도, 그리고 국제정치적 함의
Ⅵ. 결론

국문요약

본 논문의 목적은 핵무기의 출현과 변화가 국제정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데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핵무기의 국제정치적 현실을 현장감 있게 분석하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만들고자 하는 국제정치의 미래에 대한 객관적 전망을 제시하기 위해 핵무기의 국제정치학과 관련한 역사, 이론, 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결과적으로, 필자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오바마 비전은 내외적으로 강력하고 집요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만일 그러한 꿈이 실현된다고 해도 오바마가 원하고 기대하던 세상이 아닐 수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미국과 국제사회가 군사적 노력뿐 아니라 비군사적 노력을 기민하고 분별력 있게 지속할 때만, 비로소 인류가 그러한 꿈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제시한다.

주제어: 상호확증파괴, 핵확산금지조약, 전략방위계획,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미사일방어체계, 핵무기 없는 세상

핵확산의 추세 vs. 비확산의 방책

조 동 준(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부교수)

Ⅰ. 들어가며
Ⅱ. 핵확산: 추세와 원인
Ⅲ. 비확산의 방책
Ⅳ. 나가며

국문요약

이 글은 1945년 이후 핵확산의 추세와 비확산의 방책을 검토한다. 대규모 핵확산을 예상하던 비관론과 다르게, 핵확산은 완만하게 진행되어 현재 9개국만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냉전기 핵무기 수가 증가하고, 핵무기의 운반체계가 정교화되고, 핵무기의 파괴력이 늘어났지만, 냉전 이후 미국과 러시아는 핵통제는 물론 핵감축을 통하여 수직적 핵확산도 제어하고 있다. 국제체제 차원에서 핵확산의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비확산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물질, 부품, 기술을 통제하는 방책, 핵보유 야망의 정치적 동인을 약화시키거나 제어하는 방책, 규범 또는 일방적 선언으로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을 낮추는 핵봉쇄로 나뉠 수 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은 핵물질의 이전과 핵기술의 군사적 전용을 어렵게 하여 핵확산의 기회를 줄이지만, 핵보유의 정치적 야망을 제어하지는 못한다. 국제사회는 특히 비정부단체에 의한 핵확산과 핵테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핵물질과 핵무기의 이전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며 핵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강화하고 있다.

주제어: 핵확산, 비확산, 핵확산금지조약, 핵테러, 확산방지구상

핵폐기 사례연구: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례의 함의와 한계

한 인 택(제주평화연구원 부연구위원)

Ⅰ. 서론
Ⅱ. 핵폐기 연구의 딜레마
Ⅲ. 핵확산 이론을 통해보는 핵폐기
Ⅳ.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핵폐기: 하나의 사례, 다양한 설명
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핵폐기: 함의와 한계

국문요약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스스로 폐기한 유일한 국가이다. 따라서 북한이 '왜,' '어떻게' 핵을 폐기할 것인지를 예측하고, 폐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유일한 사례이므로 비교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인과변수와 부정확한 모델을 추려내는 것이 힘들다. 그 결과 다양한 심지어 상호모순적인 설명이 존재하는데, 기존 설명은 크게 핵폐기 결정이 안보위협이 감소한 결과라는 설명과 안보위협의 감소와는 상관없다는 설명으로 양분된다. 안보위협 감소와 관계없다는 설명을 다시 세분하면 핵폐기를 드 클레르크 대통령이 추진했다는 설명, 군이 요구했다는 설명, 미국 정부가 압력을 넣었다는 설명, 아프리카민족회의가 요구했다는 설명 등이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례가 주는 함의는 첫째, 안보위협의 감소가 반드시 북한의 핵폐기를 유도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소극적 안전보장의 제공만으로 핵폐기를 유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체제의 변화 없이 리더십 변화만으로도 핵폐기가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에 어떤 지도자가 등장하느냐는 외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셋째, 개혁과 개방을 지향하는 지도자가 등장하여 국제규범을 준수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해 꼭 신뢰할 수 있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 넷째, 북한이 자신의 이미지를 '정상국가'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새로 정립할 때 핵폐기가 따를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폐기를 위해서는 경제적 보상과 안보적 보장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의 경험에서도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주제어: 남아프리카공화국, 유일사례, 핵확산, 핵폐기, 안보위협

북핵문제와 동북아 6자회담의 지정학: 역사적 성찰과 전망

김 명 섭(연세대 통일연구소 소장)

Ⅰ. 서론
Ⅱ. 북핵문제의 동북아적 기원
Ⅲ. 동북아 6자회담의 지속성
Ⅳ. 결론

국문요약

이 논문은 시간적 연속성 그리고 공간적 근접성을 중시하는 지정학적 관점에서 북핵문제가 지닌 동북아적 기원을 아시아·태평양전쟁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반추해보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동북아 6자회담의 국제정치사적 의미에 관해 다룬다.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전후 처리문제가 지닌 국제정치사적 성격을 고려할 때, 6자회담을 통한 국제제도적 접근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또 지속될 필요가 있다. 북한 주민, 북한의 시대착오적 세습정권, 그리고 6자회담의 일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이라는 국제적 실체는 분리하여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아시아·태평양전쟁을 불완전하게 봉인했던 샌프란시스코평화체제를 보완할 동북아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도 6자회담은 지속성을 지닌다.

주제어: 6자회담, 북핵문제, 동북아, 아시아·태평양전쟁, 샌프란시스코평화체제

북한의 핵협상: 주장, 행동, 패턴

김 근 식(경남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Ⅰ. 문제의 제기
Ⅱ. 북핵문제와 북한 책임론
Ⅲ. 안보쟁점화 패러다임과 거울영상 효과
Ⅳ. 위기조성의 진실?
Ⅴ.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 있는가?
Ⅵ. 북핵협상의 진전을 위해: 정책적 시사점

국문요약

북핵협상에서 북한의 근본적 책임을 묻는 북한 원죄론에는 이른바 '안보쟁점화' 패러다임에 의해 북한을 항상 나쁘고 미친 행위자로 간주하는 편견이 작동하고 있고, '거울영상 효과'에 의해 북미 간 상호불신이 북한의 대미 적개심과 그에 따른 미국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서로 정당화시켜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북핵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위기조성 행위는 미국의 합의사항 불이행에 대한 맞대응으로서의 약속 위반, 미국의 대북 적대발언과 대북제재에 대한 강경 대응 그리고 미국의 협상 의지 결여에 대한 벼랑 끝 압박의 성격으로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즉 북한은 미국의 약속 위반과 불이행, 주권침해 행위, 협상 거부와 무관심이 한계에 달할 때, 위기조성을 통해 미국의 양보와 합의를 이끌어내곤 했던 것이다.

결국 북핵협상은 북한과 미국의 상호불신과 이에 기초한 상승적 상호작용으로 인해 위기조성과 협상 재개라는 악순환을 반복했고, 이는 곧 북핵과정이 일방의 완전 잘못과 전면 책임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황 악화 이후에야 진지한 협상이 시작되는 소모적 패턴을 막기 위해 미국은 약속 위반과 대북 제재 및 압박을 신중하게 자제하고, 북한 역시 지나친 적대의식과 과도한 벼랑 끝 전술을 자제함으로써, 적어도 협상의 동력이 유지되고 상호신뢰가 축적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북핵문제, 안보쟁점화 패러다임, 거울영상 효과, 위기조성전략, 맞대응, 벼랑 끝 전술

북핵협상 20년의 평가와 교훈

전 봉 근(외교안보연구원 교수)

Ⅰ. 문제제기
Ⅱ. 북핵협상의 악순환 주기
Ⅲ. 6자회담의 성과와 위기
Ⅳ. 결론 및 정책 제안

국문요약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핵협상이 시작된 지 이미 20년이 지났다. 지난 20년간 남북대화, 북미대화, 6자회담 등을 통해 많은 핵합의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북한의 플루토늄 재고량이 증가하고 2차례의 핵실험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북한 비핵화 외교는 실패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현재 북핵협상의 재개보다 더 필요한 것은 비핵화 외교의 전면적인 재점검과 새로운 비핵화 전략의 수립이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지난 20년간 북핵협상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교훈을 찾고자 시도했다. 특히 지난 20년간 북핵협상 과정에서 핵위기가 재발하고, 핵합의와 합의의 붕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핵협상 과정은 북한의 도발, 핵위기 발생, 핵합의 타결, 합의 붕괴 등 4단계가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양상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북핵협상의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향후 북한 비핵화 전략은 북핵문제를 넘어서서 북한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북한문제의 해결 없는 북핵문제의 해결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한반도식' 비핵화 해법을 찾아야 한다.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던 종래의 아르헨티나-브라질, 우크라이나, 리비아식 비핵화 해법은 실패했다. 북한과 동북아의 현실을 감안하는 보다 현실적인 비핵화 해법이 필요하다. 이런 해법을 찾는 데 그랜드 바겐과 5자협의가 유용한 방법론이 될 것이다.

주제어: 북한, 북핵문제, 6자회담, 그랜드 바겐, 북미관계

21세기 변화 중의 미중관계와 북핵문제

김 흥 규(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도입말
Ⅱ. 미중관계 변화 분석
Ⅲ. 21세기 미중관계와 북핵문제
Ⅳ. 미중관계 전망과 함의

국문요약

2002년 시작된 제2차 북핵위기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북핵문제는 이미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국제정치 게임의 대상이 되었고, 동북아 역내 미중 간 이해관계에 있어서 첨예한 접점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북핵문제의 전개와 해소에 있어 미중관계는 가장 중요한 국제정치 변수로 작용할 것이며, 이를 배제한 북핵문제의 이해 및 대응정책이란 공허하다. 이 글은 미중관계의 전개와 북핵문제의 상호관계를 추정하고, 그 함의를 찾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미중관계의 성격은 그 '미묘함'과 '복잡성'에 있다. 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북핵문제에 대한 미중 간 해법을 독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2009년 미국 오바마 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미중관계는 중대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변화하는 미중관계에 대한 이해는 규모나 사안의 복합성으로 인해 이해하기 쉽지 않으며, 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정책적 함의는 대단히 크다.

북핵문제는 21세기 들어 미중 간 협력의 정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Topos)이 되었다. 동시에 북핵문제에 대한 미중 간 협력의 정도가 깊어질수록, 북한이 핵을 활용하여 미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수준도 증대되고 있다. 미중은 비핵화, 핵확산 방지, 안정우선의 원칙에는 일치하면서도, 이를 달성하는 방식에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핵문제 해결전망에 암운을 드리운다. 미중 간 정치적 게임의 장으로 전화하고 있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의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제어: 미중관계, 북핵문제, 이해상관자, 동반자외교, 미중 공동제휴

한국의 핵비확산 외교와 원자력정책

이 상 현(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Ⅰ. 서론
Ⅱ. 핵비확산 문제와 한국의 비확산 정책
Ⅲ. 한국의 비확산 외교를 위한 과제
Ⅳ. 맺는 말

국문요약

한국은 북핵문제와의 연관성 속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해 나가면서도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드는 모범적인 국가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미래 원전기술 및 안전기술 개발을 통해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비확산 외교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미국의 NPR이나 핵안보정상회의는 강화되는 국제사회의 핵비확산 추세를 잘 보여준다. 한국은 에너지 부족국가로서 원자력의 이용·개발을 확대해야 한다. 하지만 북핵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2014년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을 개정해야 하는 중요한 외교적 과제를 앞두고 있다.

한국의 과제는 첫째, 비확산 문제의 성실한 관리자로서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등 국제적으로 비확산 준수의 평판을 제고시킬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둘째, 국제 핵비확산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국가적으로 핵비확산 의지를 지속적으로 천명하는 한편, 정부가 비확산 문화의 확산을 계도 및 선도해야 한다. 셋째, 한국 원자력 외교의 강화가 시급하다. 넷째, 핵비확산 및 원자력 이용·개발의 국제적 추세를 정확히 진단하고 우리의 대응전략을 수립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원자력정책이 미국의 원자력정책과 가급적 합치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우리의 원전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주제어: 핵비확산, 원자력정책, 북핵위기,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사용후핵연료, 파이로프로세싱

한국 민주주의의 그늘과 사회통합의 제고: 정치사회학적 시각

김 호 기(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Ⅰ. 문제 제기
Ⅱ. 한국 민주주의의 그늘: 사회 양극화와 사회갈등
Ⅲ.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과제
Ⅳ. 잠정적 결론

국문요약

이 논문의 목적은 정치사회학적 시각에서 한국 민주주의와 사회통합을 분석하는 데 있다.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으로 시작된 한국 민주화 과정은 정치적 민주화의 점진적인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사회 양극화의 증대와 사회갈등의 분출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사회변동은 사회통합을 약화시킴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이 논문은 한국의 사회통합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으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국가의 구축, 사회갈등 완화를 위한 거버넌스의 활성화, 그리고 문화적 측면에서의 민주적 공동체 문화의 형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민주주의, 사회통합, 사회 양극화, 복지국가, 거버넌스, 공동체 문화

한국 정당연구의 적실성 문제와 역사적 접근으로의 전환

장 훈(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Ⅰ. 문제의 제기: 한국 정당연구의 적실성 문제와 스트라우스의 탄식
Ⅱ. 정당연구의 두 흐름과 적실성의 위축: '부재의 사회과학'과 '과학적 사회과학'의 문제
Ⅲ. 적실성 논쟁의 실마리를 찾아서: 미국 정치학에서 실증주의 이후 역사연구로의 전환
Ⅳ. 결론: 역사연구 전환의 실마리를 찾아서

국문요약

최근 들어 한국 정당정치 연구에 있어서 적실성의 문제가 새로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연구문제의 적실성과 적절한 연구방법론에 대한 고민은 한국 사회과학에서 꾸준히 제기된 문제이지만, 최근 정당연구의 적실성 논쟁은 정당연구의 양적·질적 성장과 대조를 이루는 현실 정당정치의 지체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이 글은 첫째, 실증주의와 거시 사회학적 접근이 양분하고 있는 정당연구의 흐름을 중심으로, 연구 적실성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실증주의 연구는 연구문제의 설정에서 시야의 확장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고, 거시 접근은 단선적 역사관의 극복이 중대한 과제라는 점이 지적된다. 둘째, 1960년대 이후 정치학 연구의 적실성 논쟁을 통해서, 미국 정치학에서 역사적 접근이 활성화되는 과정의 특성과 배경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미국 정치학에서 역사로의 전환은 정치학이 전제하는 방법론과 존재론에 있어서의 중대한 전환을 전제로 하고 있었음을 규명한다. 셋째, 이 같은 논의를 토대로 한국의 정당연구가 적실성을 제고하는 하나의 전략으로 역사적 접근을 강조한다. 그리고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으로서 1960년대 발전국가의 성장과정에서 정당정치 저발전의 역사적 궤적을 검토하는 것이 핵심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식 자료뿐 아니라 비공식 자료의 복원과 구성이 핵심적 과제임을 강조한다.

주제어: 정당연구, 적실성, 역사접근, 실증주의

소셜 네트워크 세대의 정치참여

송 경 재(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학술연구교수)

Ⅰ. 문제 제기
Ⅱ. SN세대와 정치참여 선행연구
Ⅲ.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표본 개요
Ⅳ. SN세대의 정치참여 행태
Ⅴ. 결론 및 함의

국문요약

본 연구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등장에 따라, 이를 활용한 정치적 실험에 천착해 SNS 사용자들의 정치참여 행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에서는 SNS를 사용하는 이들을 기존 생애주기와 코호트이론과는 다르게, 소셜 네트워크에 적응하는 세대로서 ICTs(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을 바탕으로 '소셜 네트워크 세대(SN세대)'로 규정한다. 그리고 SNS 사용에 따라 온라인, 오프라인 그리고 관습적, 비관습적 정치참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영향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연구는 첫째, SN세대의 정치참여 행태를 기존 인터넷 초기 세대와 비교하여 집단 간 정치참여 차이를 분석해 함의를 추출할 것이다. 둘째, SN세대와 웹 1.0세대 간의 정치참여 상관성을 분석한다. 셋째, SN세대의 정치참여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 ICTs 활용능력 변수의 영향력을 측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론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변수를 설정하고, SN세대를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네티즌 중 연령과 성을 기준으로 할당 표집하고 표본을 추출하여 계량적으로 분석했다.

주제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정치참여, 소셜 네트워크 세대(SN세대), 관습참여, 비관습참여

핵억지 형성기 최초의 전쟁으로서 6 · 25전쟁과 미국의 핵전략

유 진 석(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Ⅰ. 서론
Ⅱ. 6·25전쟁 이전 미국의 핵전략
Ⅲ. 6·25전쟁과 핵무기 사용의 문제
Ⅳ. 6·25전쟁 이후 미국 핵전략의 변화와 한반도의 핵문제
Ⅴ. 결론

국문요약

이 글은 트루먼과 아이젠하워 행정부 시기 미국의 핵전략 변화와 지속성을 6·25전쟁과 미국 핵전략 간의 연관성 속에서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글에서 다루게 될 세 가지 핵심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6·25전쟁 이전 트루먼 행정부의 핵전략은 무엇이었는가? 둘째, 6·25전쟁 당시 핵무기 사용에 관한 트루먼 행정부와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입장은 무엇이었으며, 결국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6·25전쟁이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대량보복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이후 대량보복전략은 한반도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왔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핵억지 개념 형성기의 중요한 사건이었던 6·25전쟁이 그 이전의 미국 핵전략으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았으며, 그리고 다시 6·25전쟁 이후 미국의 핵전략 수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어: 6·25전쟁, 핵전략, 핵억지, 트루먼, 아이젠하워, 대량보복전략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와 중한관계: 천안함 사건 이후를 중심으로

박 동 훈(중국 연변대학 인문사회과학학원 정치학과 전임강사)

Ⅰ. 서론
Ⅱ.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외교전략 변화
Ⅲ. 중국의 한반도 인식과 정책
Ⅳ. 중한관계: 무엇이 문제인가
Ⅴ. 결론

국문요약

이 논문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동북아 역내국가 간 갈등상황을 배경으로, 중국의 대외정책 논리 변화와 이에 따른 한반도정책의 향방에 대해 분석하고자 했다. 특히 대북정책에 있어서 중국과 한국의 차이점을 밝혀냄으로써, 향후 중한관계 개선을 위해 대안적 논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첫째, 중국은 국력신장과 더불어 향후 국제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한다. 특히 대외정책의 우선적 과제인 주변안정 확보를 위해, 강대국과 이해관계를 조율해 나가는 차원에서 갈등요소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할 것이다. 둘째, 주변환경 문제와 강대국 이해관계가 교착된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문제 해결방식에 있어서 평화와 안정을 우선적 과제로 삼고, 다각적 차원의 수단을 활용하여 대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치중할 것이다. 셋째, 중한관계의 경우, 양국은 대북문제에 있어서 대북 인식, 북핵문제 해결의 목표와 수단, 협력구조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갈등이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중한 양국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대화 메커니즘의 구축이 시급하다.

주제어: 중국, 한국, 천안함 사건, 대북정책, 중한관계

일본 분점국회의 교착상태에서 본 양원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최 희 식(국민대 국제학부 전임강사)

Ⅰ. 들어가며
Ⅱ. 양원제와 민주주의: 대표성과 신중 그리고 효율성 사이의 협곡
Ⅲ. 일본 의회제도: 신중 원칙의 전면화
Ⅳ. 분점국회에 따른 교착상태와 그 원인
Ⅴ. 분점국회에 따른 교착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일본 국내의 대응: 효율성 제고를 위한 움직임
Ⅵ. 결론

국문요약

양원제는 국민 민의를 다양하게 대변하며 제1원의 경솔·전제·부패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채택된다. 따라서 양원이 다른 정치세력에 의해 대변되고 양원 간 긴장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일 것이며, 제도적 취지에도 맞을 것이다. 이로써 심의 민주주의가 발전될 것이며, '고무도장 국회'에서 탈출하여 실질적 논쟁이 벌어지는 의회로 발전할 수 있다. 일본에서도 분점국회 상황으로 인해 국회의 역할이 더욱 각광받게 되었고, 주요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실질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분점국회로 인한 교착상태의 장기화로 정책 공백현상이 나타나면서 국민의 불신을 샀다. 교착상태가 발생하는 원인은 '이성의 대표'로 기대되었던 참의원의 정당화 및 양원대립을 상정한 제도설계의 결함, 그리고 관례·합의를 중시하는 정치문화에 존재한다.

따라서 양원제의 본래적 취지인 신중(redundancy)과 대표성(representation) 원칙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양원의 교착상태를 회피할 수 있는 제도설계가 요구되고 있다. 일본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첫째, 정당정치에 의한 분점국회를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여, 분점국회가 발생하더라도 교착상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중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각 의원의 독자적 권한을 확보하여 양원 사이의 중복 권한을 최소화하는 방법, 둘째, 양원이 중복되면서 대등한 권한을 보유케 하여 양원제의 신중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당의구속 제도의 완화를 통한 의원 개개인의 자율성 확대 및 양원대립을 상정한 제도의 효율화를 통해 양원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주제어: 분점국회, 양원제, 일본 의회정치, 교착상태

러시아 북극권의 잠재력: 가능성과 문제점

한 종 만(배재대 러시아학과 교수)

Ⅰ. 머리말
Ⅱ. 러시아 북극권의 잠재력: 가능성
Ⅲ. 러시아 북극권의 잠재력: 문제점
Ⅳ. 맺음말

국문요약

러시아 북극권은 영구동토지대로서 그 가치가 높지 않았지만, 과학기술의 발달과 지구 온난화 현상 등으로 인해 인간의 생활공간이 북쪽으로 올라가야만 하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으며, 그 속도는 더욱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로 인해 북극해의 빙하가 녹으면서 국제 해상루트로서 북극해운항로—북동항로와 북서항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시베리아의 북극해도 아태지역과 유럽의 연결 해운로인 북동항로로서의 가능성이 언론에 빈번히 언급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에 북극 해운로의 가동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북극해의 해운운송뿐만 아니라,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계획된 러시아 추코트카 반도와 알래스카를 연결하는 베링 해협 육로운송 프로젝트 역시 다시금 활기를 띠고 있다.

북극권은 빙하 층이 녹으면서 수산자원의 이용과 지하자원의 채굴이 용이한 상태로 변모하고 있다. 한편 빙하 용해와 기후 변화 이외에도 지금까지 외부와 거의 접촉되지 않았던 북극 생태계와 해양 동식물 먹이사슬체계가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북극권 영토문제, 특히 대륙붕 외연 확대문제로 인해, 북극해 인접국들은 북극에서 군사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극권의 소생이 한국 그리고 북극권 인접국 더 나아가 인류사회에 분쟁과 갈등을 안겨줄 지 또는 행복과 축복의 통로가 될 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장미공주의 운명은 북극의 이용과 개발과정에서 환경 생태문제, 북극 원주민을 포함한 생물종 다양성의 보호문제, 세계평화에 달려 있다고 생각된다.

주제어: 러시아 북극권, 북동항로, 베링 해협 터널, 자원 개발, 생태문제

헬싱키 최종의정서 이행과정 연구: 인권과 바스켓3을 중심으로

김 수 암(통일연구원 연구위원)

Ⅰ. 서론
Ⅱ. 인권과 바스켓3 이행 후속회의
Ⅲ. 바스켓3 이행을 위한 전문가 모임
Ⅳ. 바스켓3 이행 협상전략과 비동맹·중립국의 역할
Ⅴ. 결론

국문요약

국내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외부 개입을 통한 해결방식의 하나로 헬싱키 프로세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헬싱키 프로세스에 대한 국내적 논의는 과정으로서 접근하기보다 결과 중심으로 접근하여, 헬싱키 프로세스의 형식적 틀의 적용을 위한 시사점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헬싱키 프로세스는 최종의정서 채택 이후 그 실행을 위한 역동적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전체 과정의 역동성과 논쟁, 각 행위자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종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은 후속회의와 전문가 모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후속회의와 전문가 모임을 중심으로, 최종의정서에서 합의된 인권과 바스켓3 관련 조항의 이행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주제어: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헬싱키 프로세스, 최종의정서, 인권, 바스켓3

관계적 계약이론과 한미 전략동맹에서의 잔여통제권 문제

이 수 형(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Ⅰ. 서론
Ⅱ. 관계적 계약이론과 잔여통제권
Ⅲ. 한미동맹의 전략동맹으로의 변화
Ⅳ. 한미 전략동맹과 잔여통제의 문제
Ⅴ. 결론

국문요약

이 글의 목적은 거래비용경제학에서 계약 조건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영역에 대한 계약 당사자들 간의 통제나 권리를 의미하는 잔여통제권의 문제를 한미 전략동맹에 적용하여 한국의 동맹전략에 미치는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잔여통제권을 갖는 것은 재계약이나 향후 합의에 있어서 협상력을 강화하므로 동맹관계에서도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 글은 거래비용경제학의 관계적 계약이론을 국제안보에 적용한 레이크의 잔여통제권 논지를 검토 및 수정·보완하여 한미 전략동맹에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한미 전략동맹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국가이익의 편차와 안보영역의 확대에 따른 잔여통제권 문제가 중요하다. 한미 전략동맹은 기본적으로 동맹 목적(비전)의 변화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동맹 목적과 새롭게 추가되는 동맹 목적을 위한 거래비용 견적서에서의 잔여통제는 정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종류의 문제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조적으로 가변적이고 불특정 잔여영역의 확장을 야기하는 동맹의 안보영역의 확대와 포괄적 동맹으로의 지향은 한국의 자율적 잔여통제권에 많은 제약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향후 한미 전략동맹으로의 발전과 관련하여 우리는 잔여통제의 영역 확대와 그에 따른 동맹의 안보 딜레마를 최소화하고 대미 협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동맹관리를 전략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주제어: 관계적 계약이론, 잔여통제권, 동맹의 특수자산, 전략동맹, 거래비용

‘서로주체적 통합’의 개념

김 학 노(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여는 말
Ⅱ. 아와 비아의 관계
Ⅲ. 통합, ‘우리’의 형성
Ⅳ. 서로주체적 통합의 자세
Ⅴ. 서로주체적 통합 개념의 필요성
Ⅵ. 더 여는 말

국문요약

이 글은 ‘아(我)와 비아(非我)의 헤게모니 투쟁’이라는 필자의 정치관을 바탕으로 남북한 관계를 염두에 두고 ‘서로주체적 통합’의 개념을 정립한다. 먼저 만남의 깊이(분리 vs. 통합)와 만남의 방식(홀로주체적 vs. 서로주체적)을 기준으로, 홀로주체적 분리, 서로주체적 분리, 홀로주체적 통합, 서로주체적 통합의 네 가지 이념형으로 아와 비아의 관계를 구분한다. 또한 통합을 ‘소아에서 대아로의 확대’로 정의한다. 이 정의는 다양한 통합 방식과 부문에 적용할 수 있으며, 기존 논의에 담겨 있는 사회통합의 규범적 전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 홀로주체적 통합과 대비하여 서로주체적 통합의 개념과 자세를 고찰한다. 홀로주체적 통합에서는 자신과 상대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힘의 우위에 따라 우열관계가 정해지는 반면, 서로주체적 통합에서는 실질적인 힘의 관계와 상관없이 서로 동등한 주체로 만난다. 홀로주체적 통합이 일방향 통합인 반면, 서로주체적 통합은 쌍방향 통합이다. 서로주체적 통합의 자세는 한마디로 ‘배움’과 ‘응답’의 자세다. 상대방을 가르치기보다 서로 상대로부터 배우고 ‘그들’을 바꾸려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스스로를 바꾸려는 자세다.

끝으로 서로주체적 통합의 개념이 실제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회통합과 남북통합의 문제에 있어서 기존의 논의들은 홀로주체적 통합에 대한 반대로 서로주체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서로주체적 통합의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해서 서로주체적 분리를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하곤 한다. 서로주체적 통합의 개념이 필요한 이유다.

주제어: 서로주체성, 홀로주체성, 분리, 통합, 통일

월츠의 환영(幻影)

양 준 희(경희대 국제대학 부교수)
박 건 영(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Ⅰ. 서론
Ⅱ. 월츠의 신현실주의의 끈질긴 생명력과 '외부적' 성공 요인
Ⅲ. 계륵이 된 월츠의 신현실주의와 현실주의의 기회주의
Ⅳ. 월츠가 제공하는 "소독된(sanitized)" 국제정치
Ⅴ. 국제정치학의 미래를 위한 숙고
Ⅵ. 결론

국문요약

월츠의 과학적·구조주의적 국제정치이론은 냉전기 상당기간 동안 국제정치학계뿐 아니라, 외교·군사·전략적·지적 공동체에서 도전받지 않는 권위와 지배력을 보유하고 행사하였다. 학문적 우수성이 아니라 학문 외적 맥락으로 주가를 올렸다. 여기에는 도발적인 거창한 주장, 무하마드 알리 효과, 미국의 자유주의 문화 등과 같은 '외부적' 요소가 주효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은 월츠의 신현실주의 이론이 거대한 실패였다는 결론을 내린다. 냉전의 평화적 종식은 그러한 결론을 정당화하는 역사적 사실이다. 신현실주의는 존재론적 방향도 잘못 설정하였다. 인간을 위한 이론을 목표로 출발했을지 모르나, 결과적으로 '현실과는 다르게' 인간을 배제하고 있다. 월츠를 구제하려는, 또는 경우에 따라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는 기회주의적 현실주의자들은 국제정치학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국제정치 이론가들에게는 윤리와 지향점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관점과 방법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류 전체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고 국제관계에서 평화와 정의를 회복하는 데 지향점을 두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주제어: 신현실주의, 신고전적 현실주의, 도발적인 거창한 주장, 무하마드 알리 효과, 미국의 자유주의 문화

한국에서 정치 균열 구조의 역사적 기원: 립셋–록칸 모델의 적용

강 원 택(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부교수)

Ⅰ. 서론
Ⅱ. 한국 정치 균열 구조의 특성
Ⅲ. 립셋-록칸 모델과 균열 구조
Ⅳ. 한국 정치 균열의 역사적 기원
Ⅴ. 결론

국문요약

서유럽 정당체계의 형성을 균열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본 립셋과 록칸의 모델은 우리나라 정당 정치와 균열의 형성과 특성을 설명하는 데도 나름의 유용성을 지니고, 특히 서유럽에서 균열 형성의 역사적 기원이 되었다고 본 국민혁명과 산업혁명은 우리나라의 주요한 균열 형성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에서 해방 이후 새로운 국민국가 건설 논의과정 중 민족 정체성 또는 체제 정체성을 중시하는 입장 간 갈등이 정치적 균열을 형성했고, 이는 오늘날 반공 이데올로기를 둘러싼 보수와 진보 정당 간 경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또한 박정희 통치하의 급속한 근대화는 서구의 산업혁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토지개혁과 식민지시대 영향으로 강고한 토지 기반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탓에 서구와 달리 도시 상공업 대 농촌 1차 산업 간 갈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의 불균등 성장정책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수혜지역과 소외지역 간의 지역 간 갈등을 낳았고, 경제적인 의미에서 중심부와 주변부 간 갈등을 낳았다. 이때 배태된 균열은 '광주 항쟁'을 거치며 정치적인 속성이 가중되었고, 민주화 이후에 지역 갈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한편 서구 정치에서 보편적인 자본과 노동 간의 갈등은 한국에서도 나타나지만, 냉전하의 반공 이데올로기, 억압적 권위주의 체제, 높은 사회적 이동성 등으로 인해 균열의 계급정치적 속성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형태로 존재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립셋과 록칸의 모델을 한국 정치에 적용해보면, 국민혁명 단계에서 민족 대 체제 간의 균열이 형성되었고, 산업혁명 단계에서 지역 균열과 노동–자본 간 균열이 형성되었다.

주제어: 립셋과 록칸, 균열, 국민혁명, 산업혁명, 이념 갈등, 지역주의, 박정희

지역민 호감도가 정당지지에 미치는 영향

이 갑 윤(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 정 석(한국리서치 여론조사부 연구원)

Ⅰ. 서
Ⅱ. 기존 연구의 검토
Ⅲ. 연구가설 및 연구방법
Ⅳ. 가설검증
Ⅴ. 토론
Ⅵ. 결

국문요약

이 연구는 2010년 시행된 전국표본면접조사 자료의 통계적 분석을 통해 지역민 호감도가 정당지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호남 지역민과 영남 지역민에 대해 개인이 갖는 호감도가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크기는 출신지역 변수와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변수의 효과를 통제한 이후에도 매우 크게 나타났다. 지역민 호감도가 정당지지에 미치는 영향력은 호남인과 영남인뿐만 아니라, 서울·경기인과 충청인들에서도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민 간에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대립과 갈등의 감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갖는 호감과 같은 지역감정이 정당지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지역민 호감도의 영향력은 정당 간 정책 차이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한국의 지역적 투표 행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심리문화적 요인에 관한 연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제어: 지역감정, 지역민 호감도, 투표 행태, 정당지지, 지역균열, 지역투표

문화적 세계관, 민주주의적 지지, 그리고 민주주의 공고화

박 영 환(영남대 정치외교학과 시간강사)
이 상 우(영남대 정치외교학과 시간강사)
김 정 도(영남대 정치외교학과 시간강사)

Ⅰ. 서론
Ⅱ. 민주주의적 지지와 민주주의 공고화
Ⅲ. 문화적 세계관: 민주주의적 지지를 설명하는 하나의 분석 틀
Ⅳ. 가설, 데이터, 변수측정
Ⅴ. 경험적 분석의 결과
Ⅵ. 토론 및 함의
Ⅶ. 결론

국문요약

이 논문의 목적은 문화에 기반을 둔 세계관이 민주주의적 지지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분석 틀이라는 것을 밝히는 데 있다. 민주주의적 지지는 민주주의 공고화의 핵심적인 원천 중 하나다. 민주주의적 지지를 구성하는 다양한 차원을 측정하기 위해 이 논문은 일상적인 사회적 관계에서 교류하며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선호와 지지에 주목한다. 각 개인들의 특정 삶의 방식에 대한 옹호와 반대는 어떤 (정치적) 대상에 대한 선호와 지지에 의해 표출되고, 그러한 선호와 지지의 형성은 한 집단 내의 소속감과 그 집단 내의 사회적 차이의 용인 여부에 따라 구체화된다. 따라서 민주주의 공고화의 원천으로서 민주주의적 지지에 대한 설명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구체화된 선호와 지지에 기반을 둘 때 더 명확해질 것이다.

이 논문은 2005년 한국에서 시행된 세계가치조사 데이터를 이용해 이러한 이론을 경험적으로 증명한다. 통계분석 결과는 이 이론을 지지한다. 한국의 많은 시민들은 자신들의 삶이 집단에 구속되어지는 정도와 삶의 방식에서 사회적 차이를 허용하는 정도에 따라 민주주의적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문화적 세계관, 집단, 망, 민주주의적 지지, 민주주의 공고화

‘제2판’ 급변사태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 수 훈(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Ⅰ. ‘제2판’ 급변사태론의 등장
Ⅱ. 급변사태론자들의 북한 인식
Ⅲ.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과 상황별 대응: 금강산관광객 피격사건과 제2차 북핵실험
Ⅳ. 급변사태 통일론의 오류
Ⅴ. 다시 평화통일과 포용정책으로

국문요약

이 논문은 이명박 정부 들어와 성행한 ‘제2판’ 급변사태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급변사태론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북한 인식, 그것에 기초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몇몇 상황별 대응, 즉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제2차 북핵실험, 천안함 사태 등에 대한 대응을 분석한다. 그리고 급변사태에 대비한 통일론을 다루고자 한다.

먼저 급변사태론이 품고 있는 북한 인식의 오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상황별 대응의 문제점, 급변사태에 대비한 통일론의 위험을 분석한 뒤에 분단체제 극복 결과로서의 통일, 장기간에 걸친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을 토대로 하는 통일론을 재삼 강조하고자 하며, 그 실행으로서의 정책 대안으로 업그레이드된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을 제시하고자 한다.

새 포용정책의 핵심 내용은 2005년 6자회담에서 도출된 9.19 공동성명의 이행과 2007년 남북정상 간 합의인 10.4 정상선언의 실천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한반도 경제권’ 형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시민사회뿐 아니라 기업을 비롯한 민간영역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은 두 말할 나위 없다. 특히 분권화 시대를 맞아 다양한 수준의 지방정부 및 자치단체들이 자신들의 특장과 의지에 따라 교류협력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지방참여형’ 포용정책이 되어야 한다.

주제어: 급변사태, 통일, 이명박 정부, 북핵, 대북정책, 포용정책

탈냉전 이후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 대외정책의 '주도적 위상'과 그 가능성

배 종 윤(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명 세 진(연세대 대학원 통일학협동과정 박사과정)

Ⅰ. 서론
Ⅱ. 한국의 대북정책과 국제적 환경 중심의 평가
Ⅲ. 김영삼 정부와 4자회담 주도
Ⅳ. 김대중 정부와 대북 포용정책의 확산
Ⅴ. 노무현 정부와 북핵 6자회담 재개
Ⅵ. 결론

국문요약

한국의 외교 또는 대외정책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 위상 및 역량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한국 외교가 과연 국제사회에 대해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를 사례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기존의 부정적인 인식 및 평가들과 달리, 한국 외교가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례들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었고, 비록 그 영향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의미 있는 상황을 유도해내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탈냉전 이후의 한국 외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첫째, 한국 외교는 과거와 달리 독자적인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과, 한반도 주변 정세를 학술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어 독립변수로서 한국 외교를 설정하는 것이 결코 무리한 작업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이러한 측면은 한국의 특정 정부나 특정 인물의 시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탈냉전 이후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외교를 독립변수로 설정하는 학술적 분석이나 접근법들도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셋째, 한국 외교와 한국의 정책적 선택이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나 대상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 외교와 대외정책을 분석하는 작업에서도 국제정치적 접근법만큼 외교정책분석론적 접근법의 시도들도 설득력을 가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하겠다.

주제어: 한국 대외정책, 대북정책, 한반도 통일, 4자회담, 포용정책, 6자회담

미중관계의 장래와 한국 외교

백 창 재(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Ⅰ. 미중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Ⅱ. 낙관론과 비관론
Ⅲ. 미중관계의 결정요인
Ⅳ. 미중관계와 한국
Ⅴ. 한·미·중 삼자공존의 전략적 삼각관계를 위하여

국문요약

이 논문은 미중관계의 전개과정을 분석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지 논의하고, 미래의 미중관계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우선 미중관계의 장래를 단순히 낙관론과 비관론에 의해 결정론적으로 예단하거나 과거의 외삽으로 파악해서는 안 되며,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대응과 대비 요인들이 단계적으로 누적되는 과정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한국과 미중관계는 전략적 삼각관계의 논리로 분석할 때, 삼자공존의 관계가 설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최근 논의되는 동아시아 다자주의에 한국이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한국 외교, 미중관계, 전략적 삼각관계, 동아시아 다자협력, 현실주의, 비대칭적 힘관계

통화통합의 정치적 동인: 유럽의 경험과 동아시아에의 함의

배 병 인(국민대 정치외교학과 전임강사)

Ⅰ. 서론
Ⅱ. 통화협력의 경제이론
Ⅲ. 유럽통화협력의 국제정치적 기초
Ⅳ. 유럽통화연합 출범의 정치적 요인
Ⅴ. 결론: 동아시아에의 함의

국문요약

이 논문의 목적은 유럽통화통합의 역사를 추동했던 정치적 요인을 규명하고, 그로부터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전망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통화통합은 그 경제적 효과나 동인과는 별개로 통화주권에 대한 선택의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정치적인 현상이다. 고정환율제로부터 단일통화에 이르는 유럽통화통합의 과정은 국제적, 지역적, 개별 국가적 차원에서 작동하는 정치적 요인들에 의해 규정되어 왔다. 유럽통화통합을 추동한 일차적 요인은 달러화 중심의 패권적 국제통화질서를 수정하고자 하는 정치적 동기에 있다. 이러한 요인이 근저적인 동인을 이루는 가운데 유럽통화체제(EMS)의 비대칭성이라는 유럽적 수준에서의 문제와, 인플레이션 통제에 주안점을 두는 통화정책기조를 지역협력을 통해 공고화하려는 국내정치적 동인이 결합되면서 단일통화체제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유럽의 경험은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전망과 가능성을 결정하는 일차적인 요인이 국제통화질서의 수정에 대해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음을 보여 준다. 이 조건이 충족될 경우 현재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장애로 제시되는 역내 국가들 간 정치적 불신과 제도적 결핍 등의 문제는 오히려 통화통합의 제도적 진화를 결정할 정치적 소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주제어: 통화통합, 유럽통화체제(EMS), 유럽통화연합(EMU), 통화주권, 동아시아 통화통합

유럽의회의 정책책임성: 한–EU FTA 체결과정을 중심으로

한 정 훈(숭실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Ⅰ. 서론
Ⅱ. 정책책임성과 유럽의회
Ⅲ. 한-EU FTA 협상과정 및 표결 결과에 나타난 정책책임성
Ⅳ. 결론

국문요약

본 논문은 유럽의회 내에서 국가정당과 유럽정당이 서로 다른 피대표자를 대표하면서 나타나는 정책책임성(policy accountability)의 경합(competition) 현상을 분석한다. 특히 한–EU FTA 사례 분석을 통해 재분배 정책적 특성을 포괄하는 정책에 대하여 책임성이 경합하는 현상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럽의회 내에서 개별적(individual) 책임성보다 집합적(collective) 책임성이 발전하는 요인 및 집합적 책임성을 두고 경합이 이루어지는 요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한다. 또한 경험적으로 한–EU FTA를 다룬 중요 본회의 회의록과 FTA 안에 대한 기명투표기록을 분석함으로써, 재분배적 성격을 지닌 정책에 대한 책임성의 특성을 검증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재분배정책 영역의 정책과 관련한 국가정당과 유럽정당 간 정책책임성 경합은 국가정당이 우위를 점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정책책임성, 개별적 책임성, 집합적 책임성, 유럽의회, 한–EU FTA

미국 대통령 선거와 군사개입, 그 숨겨진 상관성

박 종 희(미 시카고대 정치학과 조교수)

Ⅰ. 서론
Ⅱ. 미국 대통령의 무력사용에 대한 논쟁
Ⅲ. 대통령과 의회, 그리고 무력사용
Ⅳ. 경험자료를 통한 가설 검증
Ⅴ. 결론

국문요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대통령의 무력사용을 국내적 요인을 통해 설명하려는 시도는 우회적 무력사용 가설과 제도주의 무력사용 가설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본 논문은 이 두 가지 기존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대안적 설명으로 개입주의 대통령의 선거적 기원이라는 새로운 새로운 가설을 제시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 당선된 전후의 미국 대통령들은 그렇지 않은 대통령에 비해 무력사용 결정과정에서 의회의 반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음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전후 미국 대통령이 외교와 안보 정책에서 누리는 구조적 이점을 살펴보고, 1945년부터 2000년까지의 분기별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 대통령의 무력사용 빈도와 대통령 선거에서의 득표율이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경험적 증거를 제시한다.

주제어: 대통령, 의회, 무력사용, 선거, 외교정책

정당재편성 이론으로 분석한 2007 대선

조 기 숙(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Ⅰ. 머리말
Ⅱ. 정당재편성 이론과 분석모형
Ⅲ. 정당재편성 이론으로 분석한 2007 대선
Ⅳ. 한국의 정당재편성 가설 검증
Ⅴ. 결론과 2012년 선거에 주는 시사점

국문요약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언론과 논평가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실패가 2007년 대선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보수는 경제파탄, 진보는 양극화에 책임을 돌렸다. 양자의 진단이 정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실패'라는 프레임에 동의함으로써 기정사실화되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도는 촛불집회에서 회복되었고 사후 역대 가장 훌륭한 대통령 중 한 명으로 평가받아 이러한 해석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 글은 정당재편성 이론에 기초해 2007년 이명박 후보의 승리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일견 모순되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한국의 정치현실도 정확한 진단과 예측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의 당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는 한나라당의 높은 정당지지도였으며,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가 이명박 후보 승리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주장은 경험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개혁 성과와 복지주의 정책 도입으로 2002년의 선거연합이 해체되었고, 노 대통령의 지지기반은 지역에서 계층으로 변화를 가져왔다. 그 결과 한나라당은 발전주의 이념으로 재연합되었고, 대통합민주신당은 뚜렷한 정체성과 비전을 보여주지 못해 정당해체를 경험한 것이 2007년 대선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주제어: 정당재편성, 2007 대통령선거, 정당해체, 복지주의, 발전주의

대변환기의 국제정치경제질서: 패권과 신자유주의 질서의 변환

임 혜 란(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Ⅰ. 서론
Ⅱ. 세계경제지형의 변화
Ⅲ. 패권과 자유주의
Ⅳ. 국제통화질서의 변환: 미국 달러 본위제의 위기
Ⅴ. 국제무역질서의 변환: 은밀한 보호주의, 미중 간 경쟁적 FTA 네트워크 구축
Ⅵ. 결론

국문요약

이 글의 목적은 미국 패권이 쇠퇴하고 새로운 패권국가가 등장할 것인지, 동시에 미국 패권을 지탱해온 자유주의 질서는 붕괴할 것인지 논의하는 데 있다. 특정 패권과 특정 이념은 필연적으로 동일한 것이 아닐 수 있으므로, 미국 패권과 자유주의 질서 붕괴 여부는 별개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미국 패권은 비록 상대적인 경제력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힘의 제도적 역량, 소프트파워와 같은 요소가 중요하게 됨에 따라 패권 도전국가와 경쟁을 지속하는 상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 질서의 기초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무역수지 적자와 같은 글로벌 불균형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환율전쟁은 사실상 패권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임을 잘 알 수 있다. 국제무역질서의 WTO 체제는 2000년대 들어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 차이로 답보상태에 빠졌으며, 2008년 위기 이후로는 오히려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있다. 지역초월적 양자주의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경쟁 중인 미중 간 힘의 갈등을 잘 반영한다.

포스트 신자유주의의 기본적 골격은 자유주의의 시장원리를 유지하며,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생산영역에서는 산업정책과 같은 합리적 계획의 유용성을 자유주의의 원칙에 포함시킴으로써, 경쟁과 형평성을 균형적으로 이루고자 할 것이다. 위기 이후 자유주의 질서는 그 자체 쇠퇴하기보다는 보다 다양한 중층적 방식으로 자유주의 질서를 확대시켜 나갈 것이다. 포스트 신자유주의 질서는 패권갈등이 지속되면서 혼란과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크며, 확대된 자유주의 질서를 어떻게 다양한 축의 국가들이 함께 조정·관리해나가느냐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주제어: 국제정치경제, 패권, 신자유주의, 국제통화질서, 국제무역질서, 글로벌 불균형

글로벌 금융위기, 유로존 재정위기, 유럽통합의 심화

최 진 우(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서론
Ⅱ.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재정위기
Ⅲ. 유로존 재정위기의 원인
Ⅳ. EU의 대응
Ⅴ. 유로와 유럽통합: 역사와 전망
Ⅵ. 결론

국문요약

글로벌 금융위기, 일부 회원국의 심각한 재정 및 경상수지 불균형, EU의 제도적 비대칭성에서 비롯된 유로존 재정위기는 2010년 그리스에서 시작되어 확산일로를 치닫게 되었다. 이에 EU는 구제금융 제공, 유럽중앙은행(ECB)의 유동성 공급, 재정방화벽 구축 등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유럽안정기구(ESM)를 설치하고 신재정협약에 합의함으로써 재정위기의 재발 방지와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금융 안전망의 제도화를 추구하고 있다.

유럽 단일통화의 출범은 미국의 통화 패권에 대한 유럽의 견제와 거대 독일의 일방적 영향력 제어를 목표로 하는 정치적 동기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단일통화권의 해체나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 오히려 유로존 재정위기를 통해 EU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 제도적 불균형과 초국가적 수준의 재정적 자원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개혁이 진행되고 있어, 결국 EU의 초국가성이 더욱 강화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제어: 유로존 재정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안정기구, 신재정협약, 미국의 통화 패권, 독일문제

글로벌 위기와 동아시아 지역주의

최 영 종(가톨릭대 국제학부 부교수)

Ⅰ. 서론
Ⅱ.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유용성
Ⅲ. 글로벌 위기와 동아시아 지역주의
Ⅳ. 주요 이슈 및 장래 전망
Ⅴ. 결론

국문요약

본 연구는 글로벌 위기를 계기로, 동아시아가 기존의 위기에 대한 대응이란 반응적이고 소극적인 지역주의를 넘어서, 역내통합을 추진하고, 글로벌 질서 형성에 기여하며, 강화된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책무를 이행하는 적극적인 지역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의 지역주의는 제도화, 리더십, 공동 인식, 그리고 전략 차원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의 저변에는 중국과 일본의 경쟁과 ASEAN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한중일 협력을 강조하면서, 동아시아의 지역통합은 점차 공세적으로 국익을 추구하는 중국을 제도적으로 구속하려는 여타 국가들의 강력한 유인이 조성되고, 중국도 이러한 제도적 구속을 수용하는 것이 오히려 국익에 부합한다는 인식을 갖게 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으로 주장한다.

주제어: 글로벌 금융위기, 동아시아 지역주의,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 제도적 구속

2008년 경제위기와 미중관계의 변화, 한국의 전략

전 재 성(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Ⅰ. 서론
Ⅱ. 미중 경제관계와 2008년 경제위기
Ⅲ. 경제위기에 대한 미중의 시각
Ⅳ. 미중의 대전략과 향후 미중관계의 변화
Ⅴ. 결론 및 한국의 미래 전략

국문요약

이 글은 2008년 경제위기가 지구적 세력균형, 특히 미중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미중 양국의 위기 대처전략이 상대방에 대한 외교전략을 어떻게 반영해왔는지를 분석한다. 더불어 변화되는 미중관계 속에서 한국의 전략방향을 설정한다.

이 글이 제시하는 바는, 첫째, 미국의 금융위기 대처전략은 단기적으로는 위기 극복을 위한 중국과의 양자 간 혹은 다자 틀 속에서의 협력으로 특징지워진다는 것, 둘째, 이러한 상황은 미중이 상당 기간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전략적 협력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 셋째, 그러나 미중 상호 간의 균형전략이 장기적으로는 가속화될 것이라는 인식하에 잠재적이고 간접적인 균형전략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 넷째, 이러한 균형전략은 국제금융레짐의 제도적 변화, 금융위기의 원인과 처방에 대한 담론 형성, 미중 간의 구체적 이슈를 둘러싼 정책 등에서 나타난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전략 목표는 세력전이에서 협력적 지역질서의 변환으로 가는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향후 10년간 동아시아 세력전이를 평화적으로 흡수 발전시킬 수 있는 체제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지역제도적 기반으로 평화적인 세력전이 과정을 확보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미관계를 활용도를 다차원적으로 극대화하여, 한반도, 지역, 지구 차원에서 한국의 위상을 확보하는 한편, 중국과의 다차원적 전략네트워크를 발전시키기 위해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구체적 내용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경제위기, 미중관계, 대전략, 한미관계, 한중관계

세계경제위기와 한국형 자본주의 모델: 발전국가, 자본주의 모델 그리고 경로의존성을 중심으로

류 석 진(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국가와 시장
Ⅱ. 20세기 자본주의 질서의 궤적
Ⅲ. 자본주의 모델과 경로의존성
Ⅳ. 한국형 발전국가 논의의 전개
Ⅴ. 결론을 대신하여: 한국형 자본주의 모델의 모색을 위한 제언

국문요약

이 논문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위기 국면에서 한국형 자본주의 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시론이다. 신자유주의의 위기로 자본주의 4.0, 국가자본주의 등 다양한 담론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자본주의 모델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한국의 발전국가 모델에 일정한 수정이 이루어졌으나, 세계경제위기는 또 다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모델의 모색을 위해서는 세계적 차원의 질서라는 구조적 변수를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 하지만 구조적 제약이 반드시 자본주의 모델의 수렴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다양성과 유형화 논쟁에서 알 수 있듯이, 제도적 비교우위와 경로의존성 그리고 제도 간 상호보완성이 개별국가의 선택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구조적 변수는 수렴을 가속화시키는 방향으로, 경로의존성과 상호보완성 변수는 모델의 다양성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이다. 한국이 국가자본주의 형태를 지향할 것인지, 자본주의 4.0의 방향을 지향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형태를 모색하여야 하는지의 문제를 고민함에 있어서, 경로의존적인 측면과 경로탈피적인 측면 그리고 각 제도들 간의 관계에서 상호보완성을 담지하면서 한국만의 제도적 비교우위를 어떻게 지켜날 것인지가 핵심적인 사안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주제어: 세계경제위기, 자본주의 다양성, 경로의존성, 제도적 비교우위, 발전국가

포스트 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국 정치: 거버넌스의 정치에 대한 소고

김 의 영(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부교수)

Ⅰ. 문제 제기
Ⅱ. 거버넌스의 개념과 영역 논의
Ⅲ. 행정영역의 거버넌스 모델
Ⅳ. 정치영역의 거버넌스 논의

국문요약

본 논문은 거버넌스 개념을 중심으로 포스트 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국 정치를 구상해보고 있다. 포스트 신자유주의 논의 중 자본주의 4.0이건 공생발전이건, 기본 아이디어는 시장모델을 넘어 국가와 시민사회의 협치 모델인 거버넌스를 수용하고 있다. 현 한국 정치에 있어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논의 또한 정당정치와 시민정치의 이분법 혹은 대립적 시각을 넘어, 양자 간 상승적 관계에 기초한 거버넌스의 정치를 요청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기본 주장은 포스트 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국 정치에 있어, 시민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국가와 시민사회의 상승적 관계에 기초한 거버넌스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영역에서 거버넌스의 구축이 요구되듯이, 정치영역에 있어서도 거버넌스의 정치가 요청된다는 것이다. 논문은 이론적 논의와 한국 정치현실에 대한 예시로 구성되어 있다.

주제어: 거버넌스, 시민정치, 정당정치, 한국 정치, 포스트 신자유주의

남북한 '적대적 의존관계론'에 관한 비판적 연구: 1972년 남한 유신헌법과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정을 중심으로

손 호 철(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방 인 혁(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Ⅰ. 들어가며
Ⅱ. 1972년 남한 유신헌법과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정 과정의 비교
Ⅲ. 맺으며

국문요약

이 논문은 1972년 남한 유신헌법과 북한 사회주의헌법의 제정 과정을 통해, 남북한 적대적 의존관계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남북한 적대적 의존관계론은 1972년 남북한의 헌법의 변화를 시기적 및 내용적 유사성을 근거로 남북한 적대적 의존의 대표적 사례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적대적 의존의 사실 여부는 남북한관계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증명되어야만 한다. 이 논문에서는 1972년 남북한의 헌법이 데탕트라는 동일한 국제적 환경에 대응하면서도 전혀 상반된 남북한 각각의 국내적 맥락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남북한의 적대적 의존이 아닌 적대적 경쟁의 산물로 파악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 논문은 대안적 남북한관계론의 정립을 위해서는 남북한관계와 남북한 각각의 이념과 체제에 입각한 발전현황을 균형 있게 연구하는 대안적 방법론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주제어: 남북한 적대적 의존관계론, 분단체제론, 거울영상효과, 대쌍관계 동학, 대안적 남북한관계론

제2차 북핵위기와 미국 패권의 능력 그리고 한계

문 병 철(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원)

Ⅰ. 서론
Ⅱ. 부시독트린(Bush Doctrine): 규칙의 제정
Ⅲ. 확산방지구상(PSI): 안보네트워크의 형성
Ⅳ. BDA 문제: 국제정치경제질서의 관리자
Ⅴ. 결론

국문요약

이 논문은 제2차 북핵위기의 전개과정과 이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대응을 미국 패권의 능력과 한계라는 관점에서 조망해보고자 한다. 제2차 북핵위기를 다루는 과정에서 미국의 힘이 어떤 형태로 투사되었는지 또는 제한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탈냉전기 동북아시아의 안보질서를 형성하는 기본 동인으로서의 미국 패권의 현재적 모습과 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분석방법으로는 제2차 북핵위기의 진행과정에서 대두하였던 몇 가지 쟁점들을 패권안정론(hegemonic stability theory)의 핵심 명제들에 입각해서 검토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주제어: 패권안정론, 미국 패권, 북핵위기, 부시독트린, 확산방지구상(PSI), 방코델타아시아(BDA)

김정은 유일지도체계의 이행 가능성에 관한 시론적 연구: 권력엘리트 간 수평적 균열을 중심으로

이 기 동(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Ⅰ. 시작하는 말
Ⅱ. 연구를 위한 분석 틀: 유일지도체계의 유지와 균열의 메커니즘
Ⅲ. 유일지도체계의 이행 가능성 진단
Ⅳ. 결론을 대신하여: 향후 대내정책 전망

국문요약

이 논문은 김정은 시대 유일지도체계의 새로운 지도체계로의 이행 가능성을 시론적으로 진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유일지도체계에서 최고지도자의 구심력이 약화되면 원심력이 작용하여 권력엘리트 간의 균열, 즉 수평적 균열을 초래한다는 가정을 세웠다. 그리고 유일지도체계의 유지와 균열 메커니즘이라는 분석 틀을 만들었다.

우선 최고지도자의 구심력이 약화되고 있는 징후로, 첫째, 신속한 권력 승계, 둘째, 죽은 김정일과 김정은의 공동통치시스템 구축, 셋째, 독자적 통치 이데올로기 형성의 한계, 넷째, 군부엘리트에 대한 세대 및 인적 교체의 부진 등을 지적하였다.

이어서 권력엘리트 간의 수평적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으로는, 첫째, 친정체제 강화로 인한 관문주의 현상 초래, 둘째, 정책 실패에 따른 권력엘리트 간 책임 전가, 셋째, 권력엘리트 간의 과도한 실적경쟁과 충성경쟁, 넷째, 정치·경제적 지위를 보장받으려는 권력엘리트 간의 경쟁과 갈등을 지목하였다.

따라서 김정은 유일지도체계는 장기적으로 단일지도체계나 집단지도체계와 같은 과두지도체계로의 이행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주제어: 유일지도체계, 단일지도체계, 집단지도체계, 수평적 균열, 이행

김일성 · 김정일의 상징정치: 구호와 상징조형물을 중심으로

이 승 현(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시간강사)

Ⅰ. 머리말
Ⅱ. 국가 상징의 창조를 통한 '신(新)조선의 건설'
Ⅲ. 구호를 통한 상징정치
Ⅳ. 조형물을 통한 상징정치
Ⅴ. 맺음말

국문요약

김일성이 어떻게 상징을 조작하여 대중들이 기대를 갖도록 했는가? 김일성이 상징 조작에 활용했던 구체적인 사례들은 무엇이 있는가? 이 과정에서 김정일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가? 본 연구는 이런 질문들을 바탕으로 상징(체계)과 정치 사이의 상호연관성을 탐색하려는 목적을 갖고 진행하였다.

에델만이 통찰한 것처럼 김일성과 김정일은 국가 상징, 정치적 구호, 상징조형물들을 통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상징화하고 일상화하였으며, 대중들은 일부 이로부터 감동받고 김일성과 심리적 동질화를 이룸으로써, 다양한 위기의 시기가 있었지만 북한의 정치는 큰 변란 없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김일성·김정일의 상징장치가 권력기제로서 작동해 오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의 상징 조작(manipulation)은 유일체제 수립을 전후하여 선전선동부문을 책임지게 된 김정일에 의해 더욱 치밀하게 계획되고 추진되어 북한 주민들은 조작을 조작으로 느끼지 않게 되는 단계, 즉 상징장치들이 작동(operation)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주제어: 김일성의 상징정치, 김정일의 상징정치, 정치구호, 상징조형물, 김일성 동상

정치학 입문서에 나타난 서구중심주의의 완화 · 극복 방안

강 정 인(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 승 현(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Ⅰ. 글머리에
Ⅱ. 미국 정치학의 지배적 위상과 한국 정치학의 대외의존적(종속적) 정체성
Ⅲ. 한국의 정치학 입문서 검토
Ⅳ. 대외의존성을 완화·극복하기 위해 한국의 정치학 입문서가 나아갈 길
Ⅴ. 글을 맺으며

국문요약

이 글은 미국 정치학에 대한 한국 정치학의 대외의존성(종속성)에 관심을 갖고,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정치학 입문서를 분석하면서 입문서가 서구중심주의를 완화·극복하기 위해 취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장은 미국 정치학의 지배적 위상과 한국 정치학의 대외의존적(종속적) 정체성을 간략히 검토할 것이다. Ⅲ장은 이를 예시하기 위해 한국 대학에서 널리 사용되는 입문서를 선택하여 개괄적으로 분석하면서, 의존성의 정도와 최근의 변화 추이를 살펴볼 것이다. 이 글의 핵심 주제를 구성하는 Ⅳ장은 지금까지의 논의와 검토를 토대로 하여, 한국의 입문서가 대외의존성을 극복하기 위해 따라야 할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정치학, 정치학 입문서, 미국 정치학, 서구중심주의, 지식 격차

한국 민주주의에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의 정치적 효과: 민주주의의 효능성에 대한 효과를 중심으로

강 우 진(미 안젤로주립대 조교수)

Ⅰ. 들어가며
Ⅱ.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 이론적 고찰
Ⅲ. 민주화와 경제적 불평등의 증가
Ⅳ. 연구설계
Ⅴ. 분석 결과
Ⅵ. 결론과 함의

국문요약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함께 한국 민주주의는 일련의 학자들에 의해서 민주화의 경이로운 성공적 사례로서 칭송받았다. 하지만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악화된 경제적 불평등은 민주정부를 거치면서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취약성은 한국 민주주의의 또 다른 특징이 되었다. 그렇다면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어떤 정치적 효과를 가지는가? 한국적 맥락에서 많은 연구가 민주화 이후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를 분석하였으나, 이러한 현상의 정치적 효과를 다룬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본 논문은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의 정치적 효과의 미시적 기초를 분석하고자 한다.

가장 최근의 데이터(2010 Korean Barometer)를 원용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른 경쟁 가설을 통제한 이후에도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그들의 민주주의의 효능감(efficacy)에 대한 인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밝혀내었다. 이러한 분석은 민주주의 비교 정치경제학의 후속연구와 정책적 대안의 모색에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민주주의의 효능, 경제적 불평등, 민주화, 한국 민주주의

석패율제도와 지역주의 완화

경 제 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정 준 표(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문제 제기
Ⅱ. 석패율제도
Ⅲ. 석패율제도의 효과
Ⅳ. 결론

국문요약

이 글은 석패율제도의 의미를 면밀히 고찰하고 석패율제도의 도입이 지역주의 완화에 미치는 효과를 논의하는 데 있다. 특히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석패율제도 도입의 모델이 되고 있는 일본의 석패율제도와 한국형 석패율제도라 할 수 있는 지역구결합비례대표의원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 후, 해당 제도가 도입될 경우 지역주의 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이 글에서는 석패율제도의 도입이 지역주의 완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를 석패율제도로 인한 혼성효과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형 석패율제도라 할 수 있는 지역구결합비례대표의원제는 공정성과 현실성의 문제로 인해 도입 시 혼성효과가 발휘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지역주의 완화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석패율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공정성과 현실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 수정이 요구된다.

주제어: 석패율제도, 지역주의, 혼합형 선거제도, 중복입후보제, 지역구결합비례대표의원제

동아시아 안보질서에서 강대국과 중견국의 헤징전략

이 수 형(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Ⅰ. 서론
Ⅱ. 헤징전략의 개념과 구성요소
Ⅲ. 강대국 헤징전략과 안보 딜레마
Ⅳ. 중견국 헤징전략의 전제조건과 헤징 행태
Ⅴ. 결론: 정책적 함의

국문요약

21세기 동아시아 국제정치에서 지역질서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중관계의 성격과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정치의 전략적 영역으로 등장한 21세기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질서는 미중관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유동적이고 과도기적 안보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에 따라 미중은 상호 헤징전략을 채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중 강대국 정치의 직접적인 영향권하에 있는 동아시아 대다수 국가들 역시 헤징전략을 통해 미중관계의 변화 양상에 대비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도를 보이고 있다. 그에 따라 헤징전략은 오늘날 동아시아 차원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대안적 안보전략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의 목적은 동아시아 국제정치에서 나타나고 있는 강대국과 상대적 약소국인 중견국의 헤징전략을 상호 비교·분석하고,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첫째, 국제정치에서의 안보전략에 대한 개관을 통해 안보전략으로서의 헤징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돕고자 한다. 둘째, 강대국과 중견국 헤징전략의 구성요소와 목적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셋째, 지역 안보질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강대국 정치의 상호작용이 작동하는 상황에서 중견국이 헤징전략을 채택할 수 있는 상황적 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넷째, 중견국 헤징 행태의 유형과 차별적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힘이 비슷한 중견국일지라도 그 국가가 처한 지정학의 전략적 환경과 동맹관계 여부, 그리고 주변국들과의 역사적 관계성에 따라 헤징의 행태 및 목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헤징전략, 전략적 불신, 균형과 편승, 중견국, 헤징 유형

콕스가 휴전선에 간 까닭: 한반도 비평화 구조와 그 작동양식

서 보 혁(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Ⅰ. 문제 제기
Ⅱ. 이론적 검토: 왜 한반도, 비평화, 구조인가?
Ⅲ. 한반도 비평화 구조
Ⅳ. 한반도 비평화 구조의 작동양식
Ⅴ. 맺음말

국문요약

이 글은 한반도에서 분단 이후 군사적·이념적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를 구조적·비판적으로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콕스의 '역사 구조' 개념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 세 가지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한반도 비평화 구조는 물질적 능력, 이념, 제도로 형성·발전해온 역사적 구성물이자 관련 이해당사자 간 상호작용의 장이다. 둘째, 한반도 비평화 구조는 사회세력, 국가, 세계질서 등 3차원에서 나타난다. 이들 3자운동은 국면에 따라 그 양상을 달리하는데, 탈냉전기에는 3자 간 상호작용이 무정형으로 나타나며 비평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셋째, 한반도 평화 구조의 변화는 대안적 제도의 등장과 3차원 중 약한 고리의 발견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그것이 나타나려면 국내외적으로 진보적 사회세력의 조직화가 요구된다.

주제어: 비평화, 역사 구조, 분단체제, 남북관계, 비판적 국제관계이론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숙의, 그리고 정치참여

박 영 환(한림대 국제문제연구소 박사후연구원)
이 상 우(영남대 정치외교학과 시간강사)

Ⅰ. 서론
Ⅱ. 숙의와 정치적 의견 형성의 조건: 상반되는 견해에 노출과 느슨한 유대관계
Ⅲ. 숙의와 정치참여에 대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영향력
Ⅳ. 가설, 데이터, 모델, 변수 측정
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정보환경과 숙의의 관계
Ⅵ.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수준과 정치참여
Ⅶ. 결론

국문요약

이 논문의 목적은 온라인상의 새로운 정보환경과 숙의의 상호작용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데 있다.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상에서 수준 높은 숙의의 형성조건은 시민들이 얼마나 다양한 견해에 노출되어 있고 동시에 느슨한 사회적 관계망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다양한 견해에 대한 노출과 느슨한 유대관계는 시민들 자신의 견해뿐만 아니라 이견에 대한 합당한 근거까지도 알게 해주어 합의된 정책의견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정책선호 형성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형성된 정책의견은 개인들이 올바른 정치적 선택을 하는 데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폭넓은 정치적 활동에 대한 참여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 논문은 영남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진행하여 이러한 이론을 테스트한다. 경험적 분석 결과는 선택적 노출이 낮고 느슨한 사회적 관계망을 많이 가질수록 온라인상에서 숙의의 수준이 높아지며, 이러한 숙의와 다양한 견해에 노출, 느슨한 유대관계의 상호작용이 개인들의 정치참여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숙의, 정치참여, 상반되는 견해에 노출, 느슨한 유대관계

정당일체감 형성요인 분석: 정강, 정당지도자 및 정당활동가

한 정 훈(숭실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Ⅰ. 서론
Ⅱ. 지역주의 투표행태와 정당일체감: 구체적 변화 양상
Ⅲ. 정당내적요인과 정당일체감: 이론적 논의 및 가설
Ⅳ. 정당내적요인과 정당일체감: 경험적 분석
Ⅴ. 결론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특히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각 정당이 제시하는 정치적 대안을 통해 유권자들이 정당일체감을 형성해가는지를 모색한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별 정당일체감의 통시적 변화를 살펴보고, 정당일체감이 지역적 차별성에 종속되지 않고 출신지역 이외의 요인에 의해 형성될 가능성을 보인다. 다음으로, 한국 정당정치의 특성을 고려한 후 정당의 정책과 정강, 정당지도자 및 지역 정당활동가의 능력과 자질 등의 정당내적요인이 정당일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경험적 가설을 제시한다.

제19대 총선 직후 실시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당지도자의 능력과 자질은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 형성에 독립적인 영향력을 지닌다. 둘째, 정당의 정책과 정강은 일정 정도 정당일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선거 시기 유권자 동원을 위해 일시적으로 제시되는 선거이슈에 의해 그 독립적 영향력을 구별하기는 힘들다. 셋째, 지역 정당활동가는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주제어: 정당일체감, 정강, 정당지도자, 정당활동가, 선거이슈, 정당내적요인

동아시아 금융안전망의 실효성 제고방안 탐색: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고찰을 중심으로

조 재 욱(경남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Ⅰ. 머리말
Ⅱ. 금융위기에 관한 이론적 논의: 개념, 유형, 원인
Ⅲ. 글로벌 거버넌스의 한계와 동아시아 거버넌스의 태동
Ⅳ. 금융안전망으로서 CMIM 체제의 가능성 탐색
Ⅴ. CMIM 체제의 평가와 제도적 발전을 위한 미래 과제: 맺음말을 대신하여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CMIM 체제가 과연 글로벌 거버넌스가 가지는 한계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전문성과 현저성을 갖춘 지역 거버넌스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시탐하는 데 있다. CMIM 체제는 아직까지 완전한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지 못했지만 잠재성은 충분하다. 우선 기존 CMI 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금융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기가 도래했을 경우의 실질적 방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계속 보완하고 있다. 또한 다른 글로벌 거버넌스와 달리 탈패권적이면서도 제도적 균형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아직은 출발단계지만 독자적 감시기능 수행을 위해 강제성과 구속력을 갖춘 공식 사무국도 출범시켰다. 무엇보다도 회원국들이 APT 회의를 통해 계속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려는 점이 고무적이다. 향후 CMIM 체제가 아시아통화기금(AMF)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중일 3국의 협조적 공조체제가 유지되어야 하며, 한중일 3국은 ASEAN에 대해 시혜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금융위기, 금융협력, 동아시아, 국제통화기금(IMF), G20,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아태지역의 군사비 결정요인에 대한 시계열 횡단면 분석

김 치 욱(울산대 국제관계학과 조교수)

Ⅰ. 서론
Ⅱ. 주요 가설
Ⅲ. 시계열 횡단면 분석
Ⅳ. 결론

국문요약

2008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경제적 위기는 글로벌 차원뿐 아니라 아태지역에서의 세력분포 변화 여부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 연구는 전환기를 맞고 있는 아태지역 세력균형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70년부터 2007년까지 38개 역내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군사비 결정요인을 시계열 횡단면 통계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했다. 그 결과 아태국가의 군사비는 인접국의 군비지출에 의해 유의미하고 일관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군사비는 경제성장률과 소득 수준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경제적 개방성이 높을수록 군사비 규모가 작아지는 추세를 나타냈다. 이는 아태지역의 군사비 결정요인으로서 군비경쟁모델과 시장평화론의 설명력을 직간접적으로 입증해주는 것이다.

주제어: 세력균형, 군사비, 군비경쟁모델, 시장평화론

탈식민적 분단국가의 재생산:
남북한과 아일랜드-북아일랜드의 사회적 장벽 비교

구 갑 우(북한대학원대 교수)

Ⅰ. 한반도와 아일랜드섬: 비교의 문제 설정
Ⅱ. 탈식민적 사회적 장벽과 갈등전환: 이론적 논의
Ⅲ. 탈식민적 분단의 기원
Ⅳ. 탈분단 평화과정의 제도화: 아일랜드섬의 평화체제
Ⅴ. 탈분단 평화과정의 한계: 아일랜드섬의 사례와 한반도 평화체제

국문요약

이 글의 목적은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적 시각에서 한반도와 아일랜드섬의 탈식민적 분단의 기원 및 탈분단(post-division)의 과정을 아일랜드섬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탈식민주의, 탈식민적 사회적 장벽(social partition) 및 갈등전환(conflict transformation)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재구성한다. 둘째, 식민지시대 아일랜드섬과 한반도의 자치운동과 분단의 기원을 탈식민주의적 시각에서 해석한다. 셋째, 아일랜드섬과 한반도의 탈분단 과정, 즉 탈식민적 평화과정을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아일랜드섬의 탈식민적 평화체제가 한반도에 주는 함의를 정리한다.

주제어: 탈식민주의, 한반도, 아일랜드섬, 사회적 장벽, 분단, 탈분단, 갈등전환, 자치, 평화체제

중국의 부상과 한중관계의 새로운 위상

이 희 옥(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문제 제기
Ⅱ. 미중 간 상호헤징과 중국의 핵심이익 확대
Ⅲ. 중국의 한반도 지정학 재해석
Ⅳ. '전략관계'의 한계와 북한변수
Ⅴ. 평가와 함의

국문요약

이 논문은 중국의 부상에 따라 국제질서의 독자성이 한중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한 중국의 한반도 인식이 복합적으로 변화하면서 한중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분석했다. 즉 한미동맹을 강화하면 중국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를 주목할 것이라는 전제,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동시에 발전시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논리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새로운 환경 변화는 한미동맹 조정과 남북관계 개선만으로 한중관계를 발전시킬 수 없다고 보았다. 그 이유로 한반도 문제는 미중관계라는 구조와 동아시아의 하위 국제체계 그리고 남북관계라는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작동하고, 한중관계도 여기에 영향을 받는 매우 복합적인 구조가 미중 간 상호헤징과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인식구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북중관계에 비해 한중관계는 안보 자율성이 취약하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향후 한중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해서 거리두기(distance), 관계격하(downgrading), 중립(neutrality) 등은 현실적이지 못하며, 한국형 위험분산전략(hedging strategy)도 힘을 배분하여 투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한국의 대중국 외교의 중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존중받는 국가의 건설, 역진 불가능한 남북관계를 통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 제고, 다양한 지역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시도를 동시에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주제어: 한중관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중국의 부상, 미중관계, 위험분산전략

중국의 공세적 외교정책

김 재 철(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Ⅰ. 서론
Ⅱ. 공세적 외교정책의 전개
Ⅲ. 공세적 외교정책을 추동시킨 요인
Ⅳ. 외교적 도전과 공세적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
Ⅴ. 결론

국문요약

세계금융위기 이후, 특히 2010년 중국의 외교정책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했다. 중국은 대외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증강된 힘을 활용하며,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나 관련 국가와 갈등이 초래되는 것을 불사하는 공세적 행태를 노정시켰다. 이러한 공세적 외교정책은 중국이 이전까지 추진해온 평화와 협력에 방점을 둔 온건한 외교정책으로부터의 분명한 변화였다.

이 글은 2010년 최고조에 달했던 중국의 공세적 외교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 외교정책에 나타난 변화, 추동요인, 그리고 한계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 글은 공세적 행태가 중국 외교정책에 하나의 중요한 경향으로 등장했음을 제시한다. 물론 공세적 정책이 중국의 공식적인 외교정책으로 자리 잡지는 않았지만, 온건한 정책이 다시 천명된 후에도 공세적 정책을 옹호하는 강경한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았고 또 중국 외교정책에서도 계속해서 공세적 경향이 나타난다.

주제어: 중국 외교정책, 공세적 외교, 세계금융위기, 핵심이익

행위자-네트워크이론의 적용: 주요 선거에서의 북한변수를 중심으로

허 재 영(연세대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
김 용 호(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들어가는 말
Ⅱ. 행위자-네트워크이론의 주요 개념
Ⅲ. 북한변수와 행위자-네트워크이론의 번역과정
Ⅳ. 북한변수와 선거결과
Ⅴ. 결론

국문요약

이 논문은 행위자-네트워크이론의 핵심 개념인 '번역'과정을 통해 남한의 주요 선거를 앞둔 시점에 발생한 북한변수들이 선거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민주화와 정보화 등의 영향으로 선거과정에서 행위자들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번역과정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적했다.

주요 선거에서 북한변수의 영향력은 시기에 따라 1997년을 기점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고, 성격에 따라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변화의 배경을 번역과정의 단계를 통해 살펴본 결과, 정부에 대한 불신, 미디어 신뢰도 하락, 국민들의 학습효과, 인터넷 기술의 발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주제어: 행위자-네트워크이론(ANT), 번역, 북한, 선거, 미디어,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북한의 국제경제 세계관 분석: 이미지 이론을 중심으로

김 도 형(연세대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
최 종 건(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Ⅰ. 서론
Ⅱ. 이미지 이론과 세계관 연구
Ⅲ. 연구방법
Ⅳ. 북한의 국제경제 이미지 실증분석
Ⅴ. 결론

국문요약

본 연구는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 북한의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경험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이미지 이론에 기초해서 북한의 국제경제 세계관 분석을 위한 논리적인 틀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1991년부터 2011년까지 북한의 경제학술지 『경제연구』에 수록된 국제경제 관련 논문 총 148편에서 나타난 국제경제체제, 국제경제행위자, 국제경제위기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분석하고, 그 속에 지속적으로 투영되고 있는 정형화된 이미지를 추출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은 국제경제체제 측면에서, 국제경제구조에 대해서는 위계적 이미지를, 국가자율성에 대해서는 식민적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국제경제행위자 측면에서, 강대국과 국제독점기업체, 강대국 주도의 국제경제기구에 대해서는 제국적 이미지, 개발도상국과 개발도상국 주도의 국제경제기구에 대해서는 상호호혜적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경제위기 측면에서, 북한은 비가역적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북한의 국제경제 세계관을 구성하며, 각각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본 연구가 제시한 북한의 국제경제 이미지 분류는 향후 북한의 대내외 경제정책 변화를 추적하고 예측하는 데 중요한 조작적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북한의 세계관, 국제경제체제 이미지, 국제경제행위자 이미지, 국제경제위기 이미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투표행태: 긍정적 · 부정적 정당태도와 회고적 · 전망적 평가를 중심으로

황 아 란(부산대 공공정책학부 부교수)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가설 및 분석모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국문요약

제19대 국회의원선거는 정부·여당에 대한 부정적 평가 속에서도 여당인 새누리당이 과반의 의석을 얻은 예상 밖의 승리로 주목받았다. 본 연구는 유권자의 긍정적·부정적 정당태도와 회고적·전망적 평가가 제19대 총선의 투표선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념적으로 정당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정향을 포괄하는 정당태도는 경험적으로도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긍정적 태도뿐 아니라 반대하는 정당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모두 투표선택에 독립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업무수행에 대한 회고적 평가뿐 아니라 문제해결 정당에 대한 전망적 평가가 투표선택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새누리당 선택은 전망적 평가가 가미된 친(親)정당적인 투표행태가, 민주통합당 선택은 회고적 평가가 가미된 반(反)정당적인 투표행태가 강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해석된다.

주제어: 정당성향, 부정성 효과, 회고적 투표, 전망적 투표

전후 영국의 보편적 복지국가의 발전 조건과 전환

김 인 춘(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연구교수)

Ⅰ. 서론
Ⅱ. 노동의 권력자원과 보편적 복지국가의 등장
Ⅲ. 복지국가와 경제전략
Ⅳ. '1970년대의 위기'와 전후합의체제의 파국
Ⅴ. 결론

국문요약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포괄적이고 보편적 성격을 갖는 복지제도를 발전시켰으며, 이를 지탱할 수 있는 질적 성장과 산업 경쟁력의 경제적 기반을 필요로 했다. 그러나 전후 영국의 경제 전략과 정책은 공급중시 전략보다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수요촉진 및 경기대응 전략에 치중하여, 경제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 질 높은 교육, 노사관계 개혁, 규제개혁 등을 달성하지 못했다. 복지국가 발전에 핵심적인 정치사회적 조건이 충족된 환경에서 시작된 영국의 보편적 복지국가는 1950~60년대의 누적된 경제의 비효율과 저생산성으로 인해 1970년대의 경제위기를 겪게 되었고, 이에 따른 정치사회적 위기로 인해 체제 수준의 복지국가 제도화에 실패했다. NHS와 같은 보편적 의료서비스제도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이후 국가 복지제도는 약화되었고, 낮은 수준의 선별적 소득보장과 시장화된 사회서비스라는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주요 이론적 가설인 권력자원론과 복지동맹론이 영국 복지국가의 형성기를 설명하는 데는 유용하나 제도화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적 축적이라는 경제적 조건은 복지국가의 제도화와 지속에 중요한 필요조건임을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영국, 보편적 복지국가, 경제정책, 복지국가 전환

마스트리히트 이후 '사회적 유럽'의 전개

김 학 노(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여는 말
Ⅱ. 배경
Ⅲ. 마스트리히트 이후 사회정책 입법
Ⅳ. 마스트리히트 이후 사회적 대화
Ⅴ. 맺는 말

국문요약

이 글은 마스트리히트 이후 특히 2000년대를 중심으로 사회적 유럽의 전개과정과 주요 성과를 검토한다. 그동안 사회적 유럽의 건설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전망과 평가가 주를 이루어왔다. 그러나 비관론자들의 전망과 달리, 이 글은 사회정책 입법과 사회적 대화의 양 측면에서 사회적 유럽이 상당히 진척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우선 유럽연합의 사회정책권한이 마스트리히트에서 크게 확장됐다. 그 후 정책권한 자체는 크게 진전되지 않았지만, 사회정책 입법활동은 2000년대 들어서도 꾸준히 지속되었고 특히 노동조건과 종업원 참여 부분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었다.

사회적 대화에서는 2000년대 들어서 자율적 대화가 증가하였고, 사회적 동반자들 사이의 합의사항을 법으로 집행하기보다 자율적으로 실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법적 구속력을 수반하는 합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었지만, 그만큼 사회적 대화의 범위와 종류가 다양해지고 노사 간 자율적 대화공간이 확대되었다. 비관론자들의 예상과 달리 유럽 차원의 사회적 공간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구체적 성과들을 검토함으로써 2000년대 들어 사회적 유럽의 건설이 보다 자율적인 방향으로 경도되고 있지만, 그것이 사회적 유럽의 건설에 대해 어두운 평가와 전망을 내릴만한 이유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열린 조정방식(OMC)'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일반적인 경향에 따라 사회적 유럽의 건설에서도 자율적 방식이 증가하고 있지만, 입법과 대화의 양 측면에서 유럽의 사회적 공간은 상당히 진척되고 있다.

주제어: 사회적 유럽, 사회적 대화, 열린 조정방식(OMC), 마스트리히트 조약, 리스본 조약

헤게모니 퇴조와 동북아 지역정치

이 수 훈(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Ⅰ. 머리말
Ⅱ. 헤게모니 싸이클과 미국 헤게모니 퇴조
Ⅲ. 이행기의 정치
Ⅳ. 동북아 지역정치의 양상
Ⅴ. 맺음말

국문요약

이 논문은 세계체제론의 '헤게모니 싸이클'이라는 개념 틀을 통해 동북아 지역정치를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먼저 우리가 헤게모니 이행기, 즉 미국 헤게모니 싸이클을 마감하고 새로운 헤게모니 싸이클의 등장을 개시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고 보았다. 미국 헤게모니가 퇴조하고, 새로운 도전 권력인 중국의 급부상을 주목하였다.

다음으로 이행기의 정치를 두 세력 간의 격렬한 권력경쟁이라는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특히 퇴조하는 헤게모니 국가인 미국의 적응과 수용을 중시하고, 그것이 '저항적'인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로 나누어 검토했으며, 오바마 행정부는 '축소의 정치'를 구사한다고 해석했다. 중국은 평화발전과 조화세계라는 관념을 통해 '공세적'이라기보다는 현 상황에 적응해나가는 노선을 견지할 것으로 보았다.

동북아 지역은 미중 간 거대한 권력경쟁을 배경으로 여러 이슈를 놓고 강력한 충동들이 표출되고 있으며, 그 정치적 이슈로는 미중 간 담론 싸움, 북핵문제, 영토분쟁, 동맹문제 등이 등장해있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현재 동북아의 상황은 낙관적이기보다 비관적이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실을 냉정하게 읽어내는 분석적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헤게모니 싸이클, 이행기, 미중관계, 동북아 지역정치, 북핵문제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정책: 평가와 전망

김 용 호(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서론: 논문의 목적
Ⅱ.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정책 분석 틀: 목표와 성과, 그리고 매개요인
Ⅲ. 오바마 1기 행정부의 한반도정책 평가
Ⅳ. 오바마 2기 행정부의 한반도정책 전망
Ⅴ. 오바마 2기 행정부의 한반도정책 관련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응방향
Ⅵ. 결론: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적극적 대응 예상

국문요약

이 논문의 목적은 오바마 1기 행정부의 한반도정책을 평가하고 2기 행정부의 한반도정책을 전망하는 데 있다. 평가의 기준은 설정한 정책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한반도 현안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요인과 촉진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2기 행정부의 한반도정책을 전망하고자 한다.

오바마 1기 행정부는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비확산, 미국의 지역패권 유지 강화 및 경제적 이익 확대를 추구했다. 지난 4년간 한미관계는 최상이었으나 북미관계는 매우 악화되었다. 그 배경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협력외교,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동맹 중시 노선과 대북 강경책, 북한의 거듭되는 군사 도발, 미중관계 등이 작용했다. 오바마 2기 행정부의 한반도정책 목표와 기조도 이와 변함없을 것이나, 미국의 '전략적 재균형' 정책,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중동사태 등의 돌발 변수, 북핵위협의 증대 등으로 정책 집행 스타일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 대응으로, 수동적 입장에서 보다 주도적 입장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북핵문제 해결방식, 한반도의 달라진 안보환경에 대처하는 방안,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간 새로운 연합지휘체계 설치문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한국의 참여문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역외지역에서의 안보협력, 북한 급변사태 처리방안, 방위비 분담, 원자력협정 개정협상, 한국의 TPP 참여문제 등을 둘러싸고 오바마 2기 행정부와 한국의 신정부 간에 협력에 못지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주제어: 오바마 행정부, 북핵문제, 비핵화, 전략적 재균형, 아시아 회귀정책, 한미동맹

중국의 대(對)한반도정책: 책임대국과 시진핑의 대북정책 딜레마

차 창 훈(부산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Ⅰ. 서론: 제5세대 지도부의 출범과 중국
Ⅱ. 중국의 부상과 시진핑의 전략적 선택지
Ⅲ. 시진핑 시대 중국의 외교정책 전망
Ⅳ. 시진핑 시대 중국의 대한반도정책 전망
Ⅴ. 결론: 한국에의 의미

국문요약

2012년 11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향후 10년을 이끌어갈 중국의 신지도부가 구성되었다. 제5세대 지도부는 향후 집권 10년 동안 중국의 강대국으로의 부상을 완전히 실현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으며, 자신만의 정책노선은 임기 2기를 맞이하는 2017년 제19차 전당대회 전후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전까지는 기존 노선의 충실한 집행 속에서 권력기반을 다지는 데 치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큰 틀에서 보면, 시진핑도 다른 앞선 지도자들처럼 미국 국력의 우위하에 미국에 대한 직접적 도전과 본격적인 군사력 경쟁을 자제하면서, 장기적인 경제발전에 집중하는 대전략을 유지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최상의 정책목표로 지속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은, 미중관계의 협력적 기조유지, 남북한 등거리 정책 지속 즉 한중관계 발전과 북중 경제협력 강화 및 북한체제 지원, 북핵문제와 6자회담, 해양 영토분쟁과 민족주의 분출의 수위 조절 등의 기조를 나타낼 것이다.

한국은 중국과 공조하여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포괄적 협상 방안과 구상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쥐고 미국, 중국과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주제어: 중국 외교정책, 한중관계, 북중관계, 북핵문제, 핵심이익, 신형대국관계

‘수정주의적 보통국가론’의 대두와 일본 외교: 자민당 아베 정권의 재출범과 한반도정책 전망

박 영 준(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

Ⅰ. 문제 제기
Ⅱ. 일본의 국가전략론 유형과 주요 정당의 입장
Ⅲ. 자민당의 대외정책 공약과 제약요인
Ⅳ. 아베 정부의 외교안보정책과 한반도정책 전망
Ⅴ. 맺는 말: 차기 정부의 대일정책 방향 제언

국문요약

일본 내외의 학자들은 일본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가전략론들을 평화국가론, 보통국가론, 미들파워 국제주의, 수정주의적 국가주의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2012년 12월 출범한 자민당 아베 정부는 외교안보정책 성향 면에서는 일본의 안보체제 및 미일동맹 태세를 강화하여 국제적 안보역할을 확대하자는 보통국가론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역사문제에 관해서는 종군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부정하려 하거나, 교과서 검정기준이 되어온 근린제국 조항을 폐기하려는 수정주의적 경향을 보인다. 요컨대 자민당 아베 정부는 ‘수정주의적 보통국가론’ 성향의 대외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보이며,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에 대해서는 관계 개선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핵문제 해결 및 동아시아에서의 영토 및 해양 분쟁 완화를 추구해야 할 박근혜 정부로서는 일본과 성숙한 파트너십 선언에 기반을 두어 전략적 협력관계를 견지해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응기조하에서 아베 정부의 헌법 개정을 통한 국방군 구상 추진에 대해서는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으며, 중일 간의 영유권 분쟁 격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재자적 입장에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역사문제에 대한 아베 정부의 수정주의적 입장에 대해서는 구미 각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일본의 자성을 압박하는 정책을 구사할 필요성이 있다.

주제어: 아베 신조, 일본 자민당, 국가전략, 수정주의적 보통국가론, 한일관계

푸틴 3기 러시아의 한반도정책: 변화하는 동북아에서의 적극적 역할 모색

신 범 식(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부교수)

Ⅰ. 문제 제기
Ⅱ. 푸틴 3기 러시아의 외교정책
Ⅲ. 요약과 정책적 함의

국문요약

이 논문은 푸틴 3기 적극적 실용주의적 대외정책 노선에 입각한 러시아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방향과 목표들을 러시아 외교의 지속성의 논리, 신동방정책과 적극적 실용주의, 러시아의 극동 개발과 양자 및 소지역 협력, 한반도문제와 동북아 다자협력 등을 중심으로 설명해보려는 시도이다.

2013년 2월,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을 마지막으로 동북아 주요 여섯 국가들의 연쇄적 리더십 교체는 마무리되었지만, 미중경쟁과 중일갈등 그리고 북한문제 등으로 이 지역의 불안정은 심화되고 있다. 지역질서의 안정화가 절대적인 필요와 요구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과거 동북아 및 한반도에서 잃어버린 영향력의 회복을 넘어 역내 전략적 행위자로서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실용주의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는 푸틴의 신동방정책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그 중심에는 극동·동시베리아 개발과 역내국가들과의 양자 및 소지역 협력을 통해 동북아의 안정과 공영의 구도를 창출하려는 전략이 있다. 이는 기존에 역내 영향력을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기회주의적으로 확대하려는 정책에서 벗어나, 궁극적으로 러시아의 '유로-패시픽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실현하는 방편으로 한반도 내 영향력의 거점을 남북러 삼각협력을 통해 구축하려는 시도와 연관된다.

한국은 이러한 러시아와 다면적 협력의 가능성을 타진하여,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한러 간 공유이익을 전략적 협력을 통해 현실화시켜야 할 것이다.

주제어: 러시아 동북아정책, 한반도 정세, 3기 푸틴 정부, 신동방정책, 적극적 실용주의

유럽연합의 동북아전략과 한반도정책

이 수 형(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Ⅰ. 서론
Ⅱ. 외교안보정책 구조와 추진수단
Ⅲ. 동북아 안보지형 변화에 대한 접근방법
Ⅳ. 한반도정책과 구조적 한계
Ⅴ. 결론

국문요약

이 글의 목적은 외교안보정책 차원에서 유럽연합의 동북아전략과 한반도정책의 주요 문제를 살펴보는 동시에 이 지역에 대한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의 한계와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1994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아시아 전략보고서를 발표한 이래로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유럽연합의 이해관계는 지속적으로 높아져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대한 유럽연합의 이해관계는 주로 경제적 접근방법에 기초해있기 때문에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전략적 관점을 결여하고 있다. 특히, 북핵문제로 상징되는 한반도정책에 대한 유럽연합의 외교안보정책은 동북아 지역의 역내 안보환경에 따라 그 정책 방향과 성격이 결정되는 경향마저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무엇보다도 유럽연합 자체의 제도적 한계,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전략적 시각의 결여, 유럽연합의 내부지향적 사고, 이란 핵문제에 대한 일차적 관심과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전망 및 일말의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유럽연합의 역할과 기여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상황의 변화에 따라 우리는 이 지역에 대한 유럽연합의 정책과 역할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리스본 조약,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유럽연합의 균형전략, 대북 비판적 관여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와 대남정책: ‘선택적 병행’ 전략을 중심으로

김 근 식(경남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Ⅰ. 문제 제기
Ⅱ. 외교정책, 대외정책, 대외전략 그리고 국가이익
Ⅲ. 탈냉전 이후 북한의 대외전략: 전개과정과 딜레마
Ⅳ. 김정은 시대 대외전략의 정책환경: 변화의 필요조건
Ⅴ. 김정은 시대 대외전략: ‘선택적 병행’
Ⅵ. 김정은 시대 대남정책: 지속과 변화
Ⅶ. 결론에 대신하여: 정책적 함의

국문요약

핵심적 국가이익으로 ‘안보’와 ‘번영’을 대외정책의 목표로 삼는 것은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탈냉전 이후 북한은 미국에 안전보장을, 한국에 경제적 지원을 의존하는 대외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했으나, 주기적으로 정부가 교체되는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했다.

2009년 이후 북미갈등 국면과 남북관계 중단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의 상당 부분이 대체 가능함을 실감했다. 이를 계기로 북한은 새로운 대외전략을 모색하게 되는바, 안전보장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경제협력은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병행하다가 상황과 조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선택적 병행’ 전략으로 변화하고 있다.

대외전략 변화와 함께 대남정책 역시 지속과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대남정책은 체제유지를 위한 대미대결의 우군이자 경제지원자로서 남북관계를 유지하되, 최근에는 대남도발과 군사적 불균형도 서슴지 않음으로써 ‘화해협력과 남북대결의 선택적 병행’ 전략으로 변화하고 있다.

북한의 대외전략과 대남정책의 변화는 우리에게 대북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이 고개 숙이고 나올 것이라는 자의적 갑을 관계론의 현실적 교정을 필요로 하는 동시에, 남북관계와 한반도에 갇힌 단순한 셈법이 아니라 동북아 질서와 복잡한 양자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고차 방정식의 대북정책을 필요로 한다.

주제어: 안보와 번영, 대외전략, 대남정책, 선택적 병행전략

김대중 ·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국내정치: 문제는 '밖'이 아니라 '안'이다

신 종 대(북한대학원대 부교수)

Ⅰ. 머리말
Ⅱ. 대북정책과 국내정치: 연관과 함의
Ⅲ. 김대중·노무현 정부 대북정책의 국내정치와 그 전개
Ⅳ. 김대중·노무현 정부 대북정책의 반성과 교훈: 대북정책과 국내정치의 조화와 균형
Ⅴ. 맺음말

국문요약

대북정책과 남북관계는 상호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이 글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내정치 요인이 어떻게 작용하고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는 시도이다. 이 글이 김대중 · 노무현 정부를 분석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두 정부 시기 동안 이전 정부와는 달리 가장 적극적인 대북관여정책이 추진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북정책을 둘러싼 국내적 논란도 그만큼 고조된 시기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북관여와 국내정치의 관계, 즉 대북정책 추진과 국내 지지기반 간의 연관과 의미를 잘 포착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동안 대북정책 전개과정상의 균열과 갈등을 국내정치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평가해보았다. 그 결과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서 반성하고 비판해야 할 초점은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합의기반을 구축하는 데 소홀했다는 점이다. 즉 대북관여에 치중한 나머지, 정작 대북정책 추진동력의 원천인 국내관여를 등한시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국내정치 기반, 곧 "문제는 '안'이야"라고 말할 수 있다.

주제어: 대북정책, 국내정치, 남북관계, 국제환경, 관여정책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이슈가 투표행태에 미친 영향: 긍정적 · 부정적 이슈를 중심으로

이 지 호(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전임연구원)

Ⅰ. 서론
Ⅱ. 이슈의 등장과 변화
Ⅲ. 긍정적 · 부정적 이슈와 투표참여
Ⅳ. 긍정적 · 부정적 이슈와 투표선택
Ⅴ. 결론

국문요약

본 논문은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선거이슈가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논문은 '긍정적 이슈(positive issues)'와 '부정적 이슈(negative issues)'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투표참여와 투표선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논문이 긍정적·부정적 이슈 개념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이들 이슈가 정당과 후보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태도를 조장하여, 유권자의 투표참여와 투표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인구통계학적 개인배경 변수와 정치정향 및 이슈태도 변수를 포함한 로짓회귀분석의 결과, 논문은 부정적 이슈에 관심이 많을수록 투표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가설을 수용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논문은 긍정적·부정적 이슈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독립적인 영향을 가지되, 후보에 따라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이슈의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유권자들은 박근혜 후보가 주도한 긍정적 이슈에 관심이 많을수록 박근혜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았던 반면, 문재인 후보의 긍정적 이슈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문재인 후보 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가 주도한 부정적 이슈에 관심이 많을수록 박근혜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이러한 발견은 회고적 혹은 전망적 투표의 선거환경을 고려하는 후보의 이슈전략의 중요성을 제기한다.

주제어: 선거이슈, 긍정적·부정적 이슈, 긍정적·부정적 투표

박정희 신드롬과 한국의 민주주의: 네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강 우 진(미 안젤로주립대 조교수)

Ⅰ. 들어가며
Ⅱ. 박정희 신드롬은 무엇인가?
Ⅲ. 박정희 신드롬과 네 가지 쟁점
Ⅳ. 결론과 함의

국문요약

IMF 경제위기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확산된 박정희 신드롬은 한국 민주주의 심화에 어떠한 함의를 지니고 있는가?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박정희 체제에 대한 분석 평가를 시도해왔지만, 박정희 신드롬과 한국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분석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본 논문은 '한국 민주주의 바로미터(KDB)' 2010과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박정희 신드롬과 한국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논의를 중심으로 네 가지 쟁점을 도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박정희 신드롬과 한국 민주주의의의 관계의 미시적 기반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먼저, 박정희 신드롬은 역사적으로 퇴영적이며 반민주적인 것으로 볼 수만은 없다. 둘째, 박정희 신드롬은 광범위한 지지기반을 가진 것으로서, 정치적으로 동원된 것으로만 볼 수 없다. 셋째, 박정희 신드롬은 민주정부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연관되어 있다. 넷째, 박정희 신드롬의 지속 여부는 한국 민주주의가 박정희 모델에 대한 대안적인 민주적 거버넌스 모델을 개발하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이다. 결국 한국 민주주의의 심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의 수행력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박정희 신드롬, 한국 민주주의 심화, 정치적 동원론, 민주주의 수행력, 민주적 거버넌스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와 가치체계의 부조응

이 양 호(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권 혁 용(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지 은 주(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Ⅰ. 서론
Ⅱ. 민주주의 이론: 조응성 문제
Ⅲ.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와 정치문화
Ⅳ. 한국 민주주의의 조응성 문제: 유교와 경제성장
Ⅴ. 결론

국문요약

민주주의는 제도적으로 민주화되고 문화적으로도 민주화되었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즉 성숙한 민주주의라면 제도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민주적이어야 하며, 민주적 제도와 문화는 서로 조응(congruence)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 민주주의는 대부분 부조응(incongruence)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어느 국가에서는 제도가 과잉 공급되며, 어느 국가에서는 문화가 과잉 공급되기도 한다.

이 논문은 한국 민주주의의 제도적 현황과 정치문화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조응성을 측정한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민주제도는 잘 구비된 반면, 정치문화는 성숙한 민주시민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한국사회에 내재된 유교적 가치와 권위주의 통치하의 경제성장 경험이 정치문화를 후퇴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이 논문은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이러한 주장들을 검토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제도와 문화의 조응을 창출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한다.

주제어: 조응성, 한국 민주주의, 제도, 가치체계, 유교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정치문화의 영향력: 정치체제, 사회자본, 인류발전 접근 분석

우 정 무(동국대)
이 재 철(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자료, 변수 측정, 연구가설 및 분석 모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국문요약

본 논문은 세계가치조사 자료, 프리덤하우스 지표, 세계거버넌스 지표를 사용하여, 정치문화의 정치체제 접근, 사회자본 접근, 인류발전 접근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분석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치체제 접근은 민주주의 수준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나타냈다. 정치문화의 다른 변수들을 포함하여 분석한 경우 국가제도에 대한 신뢰와 민주주의 지지는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둘째, 사회자본 접근도 민주주의를 설명하는 데 충분하지 않았다. 단체가 "민주주의의 학교"가 아닐 가능성이 있고, 규범을 준수하는 것도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대인신뢰의 경우 민주주의와 역방향의 관계가 발견되기도 했다. 셋째, 인류발전 접근은 민주주의를 가장 포괄적으로 설명했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는 경우에도 인류발전 접근의 영향력은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제어: 민주주의, 정치문화, 정치체제 접근, 사회자본 접근, 인류발전 접근

중국에서의 한국정치 연구 동향과 과제: 『韓國研究論叢』과 『當代韓國』을 중심으로

박 동 훈(중국 연변대학(延邊大學) 국제정치학과 전임강사)

Ⅰ. 서론
Ⅱ. 연구 내용, 규모 및 방법
Ⅲ. 중국의 한국정치 연구동향
Ⅳ. 결론 및 제언

국문요약

이 연구는 한중수교 이후 약 20년 간 중국학계의 한국학 연구, 그중에서도 정치학 분야의 연구가 어떠한 양적·질적 변화를 가져왔는지 검토하고 향후 과제를 제안해보고자 했다. 중국 내 한국연구가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연구는 중국사회과학원의 『당대한국』과 상해 푸단대학 한국연구센터가 발간하는 『한국연구논총』의 두 학술지에 1996~2010년 15년 간 게재된 중국학자들의 한국정치 관련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결론을 논하자면, 첫째, 학자 층이 두텁지 못하고, 학술지는 일정 정도 지역편향성을 띠고 있다. 연구영역별로는 국제정치 분야의 논문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비교정치 분야에서는 정치발전 등의 연구들이 있으나, 한국 현실정치에 대한 연구는 취약하다. 국제정치의 경우 한반도문제 및 한중관계 문제에 보다 집중하고 있지만, 국제체계론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한국을 위주로 한 '담론' 환경에는 아직 미숙하다. 둘째, 연구 규범성에 대한 요구가 낮고, 한글문헌 접촉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 방법론적으로도 질적 도약을 하기엔 아직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문영역 균형화, 연구인력 전문화, 연구주제 다양화, 학술대화 활성화 등의 대안들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한국정치 연구, 『한국연구논총(韓國研究論叢)』, 『당대한국(當代韓國)』

시진핑 시대의 중국 외교 전망: 중국공산당 제18차 당대회의 정치보고를 중심으로

조 영 남(서울대 국제대학원 부교수)

Ⅰ. 서론
Ⅱ. 국제정세 인식과 외교방침
Ⅲ. 영역별 외교정책
Ⅳ. 몇 가지 주목할 점
Ⅴ. 결론

국문요약

이 논문은 중국공산당 제18차 당대회의 정치보고에 제시된 중국의 외교정책을 분석한다.

먼저 공산당의 국제정세 인식과 외교방침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영역별 외교정책을 검토한다. 이때에는 대만정책과 국방정책도 함께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핵심이익(核心利益),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 해양강국(海洋强國), 군사력 강화의 정당화 등 이번에 새롭게 제기된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시진핑 시대의 외교는 후진타오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주제어: 중국 외교정책, 중국공산당 제18차 당대회, 핵심이익, 신형대국관계

오바마의 주판(珠板)과 긴 파장(波長)?: 재균형과 한반도에 대한 함의

박 건 영(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Ⅰ. 서론
Ⅱ. 재균형의 배경
Ⅲ. 재균형의 의미와 방법
Ⅳ. 재균형에 대한 제약
Ⅴ. 중국의 입장과 반응
Ⅵ. 일본 요인
Ⅶ. 한반도에 대한 함의
Ⅷ. 결론

국문요약

2012년 초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중동에서의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핵심적인 경제·안보 이익이 걸려있는 아태지역으로의 '재균형'을 천명했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여 미국의 지역적 영향력 감퇴를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둔 이 정책은 중국의 신형대국관계론 및 반개입능력 증강 등 복합적인 반응을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 간 경쟁은 높은 경제적 상호의존성, 그리고 국내적 필요와 제약으로 인해 일정한 정도의 안정성을 담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중일관계가 통제되지 않는 방향으로 일탈할 개연성이다. 이들의 변동하는 득실구조, 독특한 전략문화와 가치관, 그리고 역사와 결합한 비타협적 민족주의 등이 전략계산에 개입하여 오판, 과잉반응, 동맹연루 등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가능성들이 한반도에 대해 갖는 함의를 분석하고, 그에 터하여 한국의 외교안보적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재균형, 전략문화, 신형대국관계론, 동맹연루, 전략적 위치 재설정, 안보문화

햇볕정책 이후 통일담론의 지형

김 학 노(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 두 현(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사무처장)

Ⅰ. 여는 말
Ⅱ. 분석 틀
Ⅲ. 홀로주체적 통일담론
Ⅳ. 서로주체적 통일담론
Ⅴ. 맺음말

국문요약

이 글은 민주화 이후 남한 사회 통일담론의 지형을 홀로주체적 담론 대 서로주체적 담론의 대립으로 새롭게 해석한다. 기존 연구와 달리, 대북자세 즉 홀로주체적 자세와 서로주체적 자세의 차이가 통일담론의 근본 대립축이라고 본다.

먼저 홀로주체적 담론은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만 보고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 한반도 문제의 책임은 북한에 있으며, 통일문제는 곧 북한문제다. 따라서 비정상적인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른 통일이라고 본다. 반면 서로주체적 담론은 북한을 통일과정의 동등한 주체이자 파트너로 인정한다. 문제는 북한이 아니라 남북 '관계'에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 정상화가 필요하며 남북 간 합의통일을 추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남과 북 쌍방이 함께 변화해야 한다고 본다.

이 글은 남남갈등의 원인을 대북관과 좌우대립, 통일-반통일, 햇볕정책에 대한 찬반에서 찾던 기존 해석과 다르다. 첫째, 대북관이 아니라 대북자세가 근본 갈등전선이다. 둘째, 홀로주체적 담론과 서로주체적 담론의 대립은 좌우 또는 진보-보수의 대립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셋째, 홀로주체적 담론과 서로주체적 담론의 대립은 통일 대 반통일의 대립구도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찬반도 통일담론의 지형을 나누는 중심축이 아니며, 대북자세의 차이가 근본적인 대립축이다.

주제어: 통일담론, 분리, 통합, 홀로주체, 서로주체, 남남갈등, 대북자세

‘복합적 유권자층’의 등장?
안철수 지지집단의 이념성향 분석

최 종 숙(충북대 사회학과 강사)

Ⅰ. 안철수 지지집단은 진보인가, 보수인가?
Ⅱ. 안철수현상을 다룬 기존 논의 검토
Ⅲ. 연구 설계
Ⅳ. 안철수 지지집단의 주관적 이념성향
Ⅴ.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본 안철수 지지집단의 성향
Ⅵ. 결론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안철수 지지집단의 이념성향에 대한 경험분석을 통해, 이들이 진보 혹은 보수 가운데 한 집단에 속하기보다 두 성향의 일부를 ‘공유’하는 ‘복합적 유권자’임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다.

주관적 이념성향으로만 파악했을 때 안철수 지지집단은 진보에 가깝다. 그러나 주요 쟁점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보면, 안철수 지지집단은 복지확대와 재벌규제에서는 진보집단에 가깝지만, 우리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대북정책에서는 진보/보수 모두와 거리를 두는 중도적 성향을 보인다. 또한 현실의 진보/보수 균열과는 관련 없지만 물질적 성공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물질주의자에 가깝기도 하다. 안철수 지지집단이 탈물질주의자라고 규정했던 기존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다. 특히 안철수를 지지하다가 박근혜에게 투표한 ‘안철수우파’와 안철수를 지지하다가 문재인에게 투표한 ‘안철수좌파’는 주관적 이념성향에서는 보수와 진보로 갈리지만, 주요 쟁점항목의 관점을 공유하는 동질적 집단임이 확인된다. 본 연구의 의미는 진보/보수라는 이념균열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것과 구분되는 ‘복합적’ 성향을 갖는 유권자층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 있다.

주제어: 복합적 유권자, 이념성향, 안철수 지지집단, 안철수우파, 안철수좌파

정부신뢰의 선거적 기원: 이명박 집권 중반 시기를 중심으로

조 영 호(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강사)

Ⅰ. 서론
Ⅱ. 정부신뢰의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Ⅲ. 선거와 정부신뢰: 과정과 결과
Ⅳ. 연구 설계
Ⅴ. 경험적 분석
Ⅵ. 결론

국문요약

정부신뢰의 요인을 탐색한 선행연구들은 민주주의의 핵심 정치과정인 선거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는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정통성과 신뢰를 얻는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경험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2011년 수집된 아시아바로미터 한국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7대 대선과정이 공정하고 자유로웠다고 평가한 유권자들 사이에서 정부신뢰는 높았고, 승자와 패자 사이의 정부신뢰의 차이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정치적 평가에 의해 상쇄되었다. 즉 일부 유권자들 사이에서 공정하지 못한 선거과정을 통해 정부가 선출되었다고 하는 인식은 집권 초기부터 중반을 넘어서까지 정부신뢰에 지속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승자와 패자의 정치적 지위에 따른 차이는 선거 이후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다른 정치적 평가에 의해 대체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발견에 기초하여, 저자는 정부신뢰의 연구에 있어서 선거를 포함한 정치과정이 주요한 변수로 고려되어야 하고, 우리나라의 선거가 보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제어: 정부신뢰, 선거, 정치과정, 승자/패자, 공정과 자유, 민주주의

산업표준 보유 및 표준화 활동 추이로 본 한국 산업표준 정책의 특징과 변화

정 병 기(영남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김 찬 우(영남대 통일문제연구소 연구원)

Ⅰ. 서론
Ⅱ. 산업표준 보유 추이 및 주요 표준 정책과 시기 구분
Ⅲ. 개발주의 정책에 따른 도입과 확대: 1961～1980년
Ⅳ. 개방과 위기 대응에 의한 정체와 재성장: 1981～2000년
Ⅴ. 국가표준제도의 확립과 전환에 따른 재확대와 조정: 2001～2012년
Ⅵ. 결론

국문요약

우리나라 산업표준 정책은 박정희 정부의 개발주의 정책에 따른 공업화 전략의 수단으로 도입되어, 정부가 표준을 제정해 민간에게 준강제적으로 수용하게 하는 국가 주도성을 강하게 띠었다. 그에 따라 국가 주도로 국가표준제도가 확립되고 공업 규격의 급격한 팽창으로부터 성공적인 국제표준화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점차 민간단체의 표준화 활동이 강화되고 적극적인 민간 이양 정책을 통해 국가 주도성은 약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표준의 도입, 확대, 정체, 재성장, 재확대라는 시기를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최근 조정기에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낮은 위상이지만 국가기관으로 기능하는 표준화 기구의 성격으로 인해 국가 주도성은 온전히 극복되지 못했으며, 조정 역할의 제약이라는 한계도 충분히 극복되지 못했다.

주제어: 한국 산업표준 정책, 국가표준제도, 국가 주도성, 민간 이양, 국제표준화

아일랜드섬 평화과정 네트워크의 형태변환: 합의 이후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이념과 세력의 변화를 중심으로

구 갑 우(북한대학원대 교수)

Ⅰ. 문제설정
Ⅱ. 평화과정 네트워크: 이론
Ⅲ. 평화협상 네트워크: 문제 제기와 관심 끌기
Ⅳ. 실행과정 네트워크: 등록하기와 동원하기
Ⅴ. 평가 및 결론

국문요약

이 글은 아일랜드섬의 평화과정에서 평화의 제도화에 이르는 협상과정과 합의 이후의 실행과정을 갈등전환의 이론에 기초하여 구성한 '평화과정 네트워크'란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아일랜드섬 평화과정 네트워크의 형태변환에 주목한다. 아일랜드섬 평화과정 네트워크는 '실행과정'에 진입하면서 온건한 합병주의와 온건한 민족주의가 허브역할을 하는 네트워크에서 강성의 합병주의와 강성의 공화주의가 허브역할을 하는 네트워크로 이행했다. 즉 북아일랜드의 정치네트워크는 이념의 '중앙'에서 이념의 '극단'으로 이동했다. 그 이유로 엘리트수준의 합의에 기초한 평화협정의 한계가 지적된다. 최소한이지만 네트워크 이론을 도입하는 이유는, 아일랜드섬에서 분단의 재생산을 가능하게 했던 행위자들의 관계망 즉 네트워크가 존재했다고 이 글이 가정하기 때문이다. 구조라는 비가시적 실재는 행위자들의 행위 없이 작동할 수 없다. 즉 분단의 재생산은 구조의 산물이라 할 수 있지만, 그 이행을 가능하게 한 힘은 행위자들의 네트워크였다. 아일랜드섬의 평화과정은 독특하고 고유한 역사를 담고 있지만 한편 수출상품이 될 정도로 보편성을 담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과정에서도 유의미한 준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아일랜드섬, 북아일랜드, 성금요일협정, 평화과정, 실행과정, 네트워크

한국 현대정치의 이념적 지형: '민족주의의 신성화'

강 정 인(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 승 현(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Ⅰ. 글머리에
Ⅱ. 민족주의에 의한 여타 이념의 중층 결정
Ⅲ. 맺는말

국문요약

이 글은 보수주의, 자유주의, 민족주의, 급진주의라는 4대 사상을 중심으로 전개된 한국 현대정치의 이념적 지형의 현저한 특징 가운데 하나로 '민족주의의 신성화(sanctification of nationalism)'를 제시한다. 이어서 민족주의의 신성화가 한국 현대정치의 이념적 지형에 미친 영향력을 주로 민주화 이전 시기에 초점을 맞추어, '민족주의에 의한 여타 이념의 중층결정(overdetermination of other ideologies by nationalism)'이라는 개념을 설정해 논하겠다.

이를 통해 한국 현대정치를 규정해온 보수주의, 자유주의, 민족주의, 급진주의 네 가지 이념 가운데 민족주의가 정당성의 원천으로서 다른 세 이념을 중층결정해온 현상을 검토할 것이다.

주제어: 민족주의의 신성화, 비동시성의 동시성, 중층결정, 보수주의, 자유주의, 민족주의, 급진주의

헤브라이즘 국가론 연구

강 문 구(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서론
Ⅱ. 플라톤의 철인왕 국가론
Ⅲ.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
Ⅳ. 헤브라이즘 제사장국가론
Ⅴ. 결론을 대신하여: 헤브라이즘 국가론의 공헌과 의미

국문요약

본 논문은 헬레니즘 전통과 거의 동일시되어 온 플라톤의 철인왕 국가론, 그리고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가교적 역할을 해온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을 종합적으로 조명하기 위해서 헤브라이즘 국가론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철인왕의 존재는 다분히 다신론의 전통이 팽배했던 그 지역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고, 또 이 철인왕 중심의 국가론이 전제주의적 경향을 내포함에도 불구하고 주요 이론으로 존속해왔다. 또한 아우구스티누스 국가론의 이원론도 헤브라이즘 국가론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그 본래의 의미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하기 힘들다. 따라서 플라톤의 철인왕 국가론,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을 논한 후, 헤브라이즘 '제사장 국가론'을 논하고자 한다.

하느님나라, 악의 세상나라, 그 중간에 위치한 중재적인 제사장나라로 이루어진 헤브라이즘 국가론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플라톤의 철인왕 존재의 애매하고 이중적인 성격과 천상도성과 지상도성으로 전개되는 아우구스티누스 신국론의 이원론적 성격을 좀 더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국가론들의 연관성을 통해서 개별 국가론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철인왕 국가, 천상도성, 지상도성, 제사장국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치적 정향: 20 · 30대의 남한 거주기간 의미 분석

김 종 원(서강대 정치학 박사수료)
이 현 우(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Ⅰ. 서론
Ⅱ. 기존 연구 검토
Ⅲ. 자료 및 가설
Ⅳ. 경험적 분석
Ⅴ. 요약 및 함의

국문요약

2만 5천명이 넘는 북한이탈주민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북한과 다른 남한민주주의 체제에 정착하면서 새로운 정치적 태도와 인식이 형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이 남한 정치제도에 대해 갖는 신뢰도를 경험적 자료를 사용해 실증분석을 시도했다.

북한이탈주민 20·30대의 남한 거주기간은 정치제도 신뢰도뿐만 아니라 남한민주주의 평가와 정치만족도 등에도 영향을 주는데, 남한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부정적인 정치적 태도가 형성된다. 그러나 세부적인 분석결과, 남한 20·30대보다는 여전히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북한이탈주민 20·30대는 남한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차 부정적인 정치적 태도와 인식을 갖지만, 이것은 그들이 성공적으로 남한화되어 정치적으로 적응하는 현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제어: 북한이탈주민, 정치적 정향, 정치제도 신뢰도, 정치적 태도, 남한 거주기간

1960년대 중반 한국의 종합제철 건설사업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전략

박 영 구(부산외국어대 경제학과 교수)

Ⅰ. 머리말
Ⅱ. 일본의 전략과 한국의 대응
Ⅲ. 일본의 태도 전환과 일본보고서
Ⅳ. 한국의 전략
Ⅴ. 맺음말

국문요약

본 고는 1965~1966년 한국철강공업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다음의 몇 가지 주요하고 새로운 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1960년대 중반 미국과 일본은 한국의 철강시장 주도권을 두고 대안 경쟁관계에 있었으며, 한국은 이를 유도하는 전략을 시행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둘째, 1960년대 일본의 주요 전략은 한국시장에의 참여보다 주도권 확보였으며 이는 일관되게 작용하였다. 셋째, 기존 알려진 인식과 달리, 종합제철 건설과 관련된 대일청구권 자금 논의는 1960년대 말이 아니라 1965년부터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다. 넷째, 현대 한국철강공업의 구조를 가져온 1969년 이후 철강공업의 제반계획 내용은 1965~1966년 한일 양국의 대응과 한국정부의 전략에 의해 형성되었다. 다섯째, 1965~1966년 철강공업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시각과 전략 검토는 현대 한국철강공업의 발전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 특정인과 일본의 역할 등이 상당 부분 왜곡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1960년대, 종합제철, 전략, 일본, 한일 관계

상하이협력기구(SCO) 발전과정에 대한 고찰: 러중 전략적 안보관계를 중심으로

박 정 민(북한대학원대 부교수)

Ⅰ. 서론
Ⅱ. 다자안보의 개념적 논의
Ⅲ. SCO 확대발전에 따른 러중관계 강화
Ⅳ. 러중 전략적 안보관계 고찰
Ⅴ. 결론

국문요약

지난 2001년 6월 15일 상하이협력기구(SCO)가 지역 내 각종 안보·경제 문제를 논의하는 지역협력기구로 공식화된 이후 중앙아시아에서 다자 간 협력관계는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이다. 현재 SCO에서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SCO를 적극 활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 내 주요국에 대한 관리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특히 러중관계가 SCO를 중심으로 더욱 가까워지고 있는바, 향후 SCO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 러중 간 전략적 협력기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현재 SCO는 지역 공동안보이익 추구를 기초로 특정 영역에서의 협력이 다른 영역으로의 협력을 촉진하고 확산하는 다자지역안보기구로 발전 중에 있다. 이미 구소련 붕괴 이후 독립한 국가들의 국경선 획정과 군사안보분야의 신뢰 구축이 진전되면서, 역내 안정과 평화, 경제발전 등 공통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중앙아시아 내 최대 다자안보체제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 주요국 간의 정치, 경제, 군사 관계 및 비전통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다자안보협력기구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SCO는 러시아와 중국의 주도하에 중국과 그 접경국 간 국경획정, 분리주의와 테러, 종교적 극단주의라는 안보위협에 대해 공동대응을 벌이고 있으며 지속적인 조직정비를 통해 조직, 인력, 예산을 갖춘 영향력 있는 기구로 발전하는 중이다. 최근 SCO는 안보영역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영역으로 활동범위를 확대해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중추적 핵심기구로 발돋움하고 있다.

주제어: 상하이협력기구(SCO), 다자안보, 러중관계, 전략적 안보관계, 중앙아시아

화폐케인스주의와 유럽연합의 금융위기

구 춘 권(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들어가는 말
Ⅱ. 케인스와 화폐케인스주의
Ⅲ. 달러-월스트리트-체제와 금융화
Ⅳ. 화폐케인스주의 관점에서 본 유럽 연합 금융위기의 원인과 배경
Ⅴ. 나오는 말

국문요약

이 논문은 채무경제의 새로운 시대에 케인스의 자본주의에 대한 경고와 그의 핵심적 문제의식을 재음미하고자 한다. 특히 케인스의 제자들이 발전시킨 화폐케인스주의의 논의에 주목하고, 이 관점으로부터 오늘날 유럽연합 금융위기의 원인과 배경을 조망하려 시도할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의 세 가지 과제를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케인스가 무엇보다 화폐이론가였으며 화폐에 내재된 불안정과 자기 파괴적 속성에 대해 면밀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밝히는 것이다. 케인스의 이러한 문제의식은 나중에 화폐케인스주의 또는 금융케인스주의에 의해 계승되었고, 금융위기를 설명하는 유용한 분석 틀로 발전되었다. 둘째, 그러나 오늘날 금융위기는 비단 이론적 문제만이 아니며, 달러–월스트리트–체제로 알려진 미국 주도의 지구적 금융자본주의의 역사적 위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달러–월스트리트–체제의 형성과 발전에 주목하면서, 이 체제의 핵심적 특징인 금융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셋째, 화폐케인스주의 관점에서 유럽연합 금융위기의 원인과 배경을 조망하는 것이다. 화폐케인스주의는 금융시장이 재화시장이나 노동시장과 같은 실물영역을 화폐적으로 제약하면서 시장관계를 구성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입장에서 볼 때 유럽통합의 구성적인 결함은 재화와 노동의 영역에서 역내시장이 창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달러–월스트리트–체제에 깊숙이 포섭된 채 발전되었다는 사실에 있다. 이 결함 때문에 유럽연합은 금융위기를 차단·완화시킬 수 있는 하등의 안전망을 발전시키지 못했고,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는 유럽연합에서 채무위기라는 형태로 전이되었던 것이다.

주제어: 케인스, 화폐케인스주의, 금융화, 금융위기, 유럽연합, 달러–월스트리트–체제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치와 경제의 동학: 장성택 숙청의 구조적 배경

박 형 중(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Ⅰ. 서론
Ⅱ. 구조적 배경
Ⅲ. 결론

국문요약

장성택 처형과 관련하여 제기된 죄목과 같은 일들은 북한에서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북한체제의 특징은 어떻게 서술할 수 있는가? 여기서는 네 가지 사항에 주목한다. 첫째, 권력기관 간 권력과 이권을 확장하기 위한 투쟁이 항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둘째, 권력 및 이권 투쟁의 중심축의 하나로 가계, 투사계, 새세대집단이라는 3대 세력집단이 존재하며, 이들은 숫자상 피라미드를 이루고 있다. 셋째, 권력 및 이권 투쟁의 중심축의 다른 하나로 특권기관 간 세도 교대가 있다. 사법부문에서는 조직지도부, 행정부, 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 보위사령부 등이 주기적으로 득세하거나 몰락하였다. 행정부문에서는 중앙당, 국방위원회, 그리고 내각이 주기적으로 득세하거나 몰락해 왔다. 넷째, 수령의 중앙권력을 한편으로, 기관과 지방을 한편으로 하여 끊임없이 주도권 및 경제잉여 배분을 놓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북한 국가는 집권적 약탈국가와 파편화된 자율적 소왕국 집합국가라는 두 극단적 상태의 어느 중간 지점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다.

주제어: 숙청, 권력투쟁, 수령독재, 소왕국, 이권, 와크

김정은 정권의 수령제와 당 · 정 · 군 관계

김 갑 식(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Ⅰ. 서론
Ⅱ. 북한의 수령제와 당·정·군 관계
Ⅲ.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권력구조
Ⅳ. 김정은 정권의 '재구성된 수령제'
Ⅴ. 결론

국문요약

본 논문의 목적은 수령제와 당·정·군 관계를 중심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의 권력구조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다. 본 논문의 문제의식은 북한에서 1967년 유일적 지배체제가 형성된 이후 수령제의 기본 요소인 수령의 유일적 최고결정권, 당적 지배, 정(政)과 군(軍)의 역할분담 등이 지속되고 있으나, 시대별로 그 기본 요소 간 관계가 재조정된다는 것이다.

김정은 시대 권력구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김정은은 김일성·김정일에 비해 수령으로서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령 개인의 카리스마에 의존하던 정치'에서 '정치시스템에 의한 정치'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김정일 시대에 약화된 당을 북한정치의 중심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그리고 경제발전과 체제 보위를 위해 내각과 군대의 독자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향후 김정은 정권의 권력구조는 김정일 시대의 수령제와 중국의 집단지도체제의 중간형태일 것이다.

주제어: 김정은, 수령제, 당정관계, 당군관계, 내각책임제, 정치국

김정은 시대의 '김일성-김정일주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추상화

김 근 식(경남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Ⅰ. 문제 제기
Ⅱ.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정당화와 동원의 기제
Ⅲ. 김일성 시대와 주체사상: 실천이데올로기에서 순수이데올로기로
Ⅳ. 김정일 시대와 선군사상: 선군정치에서 선군사상으로
Ⅴ. 김정은 시대의 공식 이데올로기: 김일성—김정일주의
Ⅵ. 김정은 시대의 실천이데올로기: 선경과 선민?

국문요약

북한의 이데올로기는 시대상황에 따라 진화해왔다. 김일성 시대에 전후복구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주체확립과 자주노선으로 주체사상이 등장했고, 김정일 후계체제의 확립과 수령의 유일지도체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주체사상은 보다 체계화되고 추상화된 순수이데올로기로 격상되었다. 권력승계 이후 김정일 시대는 사상 최대의 위기상황에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지켜내기 위해 위기돌파의 정치담론으로 선군정치를 제시했고, 결국 선군사상이라는 위기시대 실천이데올로기를 형성했다.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가 완료된 지금 북한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노동당의 새로운 지도사상으로 규정하고, 사회주의 건설시기의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위기시기의 선군사상을 동렬의 공식 이데올로기로 격상시켰다. 경제발전을 우선시하는 선경노선 혹은 인민생활 향상을 최우선에 두는 선민노선으로의 전환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사상을 순수이데올로기로 추상화시켜 선반 위에 올려놓고, 김정은의 새로운 발전전략을 정당화하기 위한 실천이데올로기를 개발하고 제시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주체사상, 선군사상, 김일성-김정일주의, 김정일 애국주의, 순수이데올로기, 실천이데올로기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의 변화 가능성: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양 문 수(북한대학원대 교수)

Ⅰ. 머리말
Ⅱ.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의 경제정책
Ⅲ.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의 전개과정
Ⅳ.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에 대한 평가
Ⅴ. 맺음말

국문요약

이 글은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기존에 한국 내에서 6.28 방침이라 불리던 것으로, 일각에서는 현재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이 사실상 무효화되고 파산과정을 밟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판단은 아직 이른 것 같다.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은 여전히 '실험'과 '연구'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구상 및 실험은 개별 경제주체의 자율성 및 인센티브 확대와 같은 미시적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정, 배급제, 국정가격, 임금, 금융개혁 문제 등 거시적 차원의 핵심이슈들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때문에 경제 전반에 걸친 개편이 불가피하고,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다. 또한 실험과정에서 일부 기득권층과의 충돌, 행정력 부족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시행착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실험과 연구가 장기화하면서 본격적인 시행 여부에 대해 쉽게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김정은은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두어 충분히 검토하라고 지시했을 가능성도 있다. 향후 북한 경제정책 변화의 범위와 심도를 결정하는 변수로는 북한지도부의 의지, 북한 내부의 정치적·경제적 여건이라는 내적 변수도 중요하지만, 한국, 미국, 중국 등 주변국의 대북정책이라는 외적 변수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주제어: 새로운 경제관리방법, 7.1 경제관리개선조치, 개혁·개방, 실험과 연구

북한에서의 국가와 시장 그리고 사회의 발견

정 영 철(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조교수)

Ⅰ. 들어가며
Ⅱ. 사회주의에서의 국가—사회관계: 제2사회
Ⅲ. 북한에서 시장의 탄생과 사회의 발견
Ⅳ. 북한에서 시민사회의 가능성: 제2사회의 성장과 시민사회로의 발전
Ⅴ. 나가며

국문요약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는 시장의 탄생을 결과하였고, 오늘날 '시장 없는 북한'을 상상하기 어렵게 했다. 북한에서 시장의 탄생과 발전은 그동안 국가에 의해 포섭되었던 '사회'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물론, 북한에서의 사회의 활성화와 서구에서의 '시민사회'를 등치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의 '제2사회' 개념을 통해서 바라보면, 시민사회적 맹아를 발견할 수도 있다.

전통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의 국가–사회관계는 강한 국가와 미발전의 사회로 규정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와 비교하면, 빈사상태의 사회 혹은 근절된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의 역사적 경험은 국가의 능력이 강한 상황에서 사회가 국가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러나 국가의 능력이 약화된 바로 그 지점에서 사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김정은 체제 들어 북한은 몇 가지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강한 국가'를 더욱 강하게 할지, 아니면 강한 국가에 대항하여 '사회'가 병립할 수 있는 체제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두 개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강한 국가, 약한 사회, 시장, 제2사회, 시민사회

김정은 시대 북한의 주변부 국가성과 국가과제

윤 철 기(서울교대 윤리교육학과 교수)

Ⅰ. 문제 제기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 틀
Ⅲ. 북한체제의 주변부 국가성
Ⅳ. 결론을 대신해서: 김정은 시대, 사회로부터 국가과제 수립의 필요성과 정치의 복원

국문요약

김정은 시대 북한체제는 '주변부 국가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 특성은 첫째, 국가능력과 책임성이 약화되었다. 이는 현존 사회주의의 사회경제적 지배질서가 유명무실해졌음을 의미한다. 둘째, 국가의 대외의존성이 증가했다. 국내 생산체계가 무너지면서, 생산의 부족과 재정위기를 해외원조, 수출, 경제협력 등을 통해서 확보한 '외연적 렌트'에 의존하게 되었다. 셋째, 사회의 국가(관료)의존성이 증가했다. 경제위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주민의 다수가 주변계층화되었으며, 그 결과 사회는 오히려 과거보다 더 국가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시장화 과정에서 ① 정치권력의 시장 개입과 통제, ② 공급 부족, ③ 유통경로의 불투명성, ④ 모순적 수요구조, ⑤ 이데올로기적 정당성 부재 등으로 인해 렌트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결국 시장화 과정이 권력과 특권의 재생산에 기여하게 된다.

주제어: 북한, 주변부 국가성, 국가능력, 대외의존성, 사회의 국가의존성, 시장화, 외연적 렌트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전략: 지속과 변화의 '병진노선'

황 지 환(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부교수)

Ⅰ. 머리말
Ⅱ. 신년사를 통해 본 지속과 변화의 병진노선
Ⅲ. 김정은 시대의 대외관계 재검토: 위기고조와 긴장완화의 병진
Ⅳ. 김정은 시대의 대외전략과 병진노선의 구조적 모순
Ⅴ. 김정은 시대 한국의 대북정책

국문요약

김정은 정권은 집권한지 2년여에 불과하지만 기존 북한의 대외전략을 지속하는 듯하면서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 2012년 12월 광명성 3호 발사실험과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은 북한 대외전략의 핵심인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보여준다. 반면 2013년 상반기에 보여준 공세적인 위기조성과 하반기의 갑작스런 긴장완화는 새로운 대외정책 패턴 변화의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한다.

이 글은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전략을 지속과 변화의 '병진노선'으로 개념화하고 분석한다. 병진노선은 과거 김일성·김정일 시대에 제시된 북한의 국가전략이지만, 김정은 역시 핵·경제 병진노선을 제시하며 새로운 국가전략을 표방한 바 있다. 하지만 병진노선은 북한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모순적인 개념이다. 대외전략을 지속과 변화의 병진노선으로 개념화하는 것은 향후 대외전략을 펼쳐나가는 과정에서 기존 전략을 지속하면서도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의 다른 병진노선이 그러했듯이 현실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상당히 모순적인 전략임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글은 김정은 체제가 지난 2년 동안 보여온 대외전략을 재해석하고 전략목표 및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려 한다. 이는 김일성·김정일 시대에 보여준 대외적 인식 및 정책과도 비교될 것이다. 김정은 시대의 대외전략을 지난 2년 동안의 북한 문헌과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그 변화추이를 설명할 것이다.

주제어: 김정은, 대외전략, 지속, 변화, 병진노선

극동에서 소련의 전략적 이익보장: 한국전쟁의 기원과 스탈린의 정책결정 동기

션 즈 화(沈志華)(중국 화둥사범대학 국제냉전사연구센터 종신교수)

Ⅰ. 애치슨 선언이 스탈린의 신경을 자극했나?
Ⅱ. 소련대표는 왜 안보리로 돌아가지 않았나?
Ⅲ. 스탈린은 진정 아시아혁명을 추진하려 했는가?
Ⅳ. 스탈린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었나?

국문요약

스탈린은 1949년 말까지도 북한이 무력을 사용하여 한반도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극력 저지했으나, 1950년 1월 말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김일성의 주장을 적극 지지했다. 미국의 한반도전쟁에의 간섭 여부는 전쟁을 결정하는 조건이었을 뿐, 미국의 개입 유도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다. 미국의 관심을 동아시아로 끌어들인 것은 전쟁의 결과였지, 결코 한국전쟁을 결정한 동기가 아니었다. 또한 아시아혁명을 고무하고 촉진하는 것 역시 일종의 표면적 현상이었을 뿐 소련 외교전략의 전환은 아니었다.

1950년 중소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의 체결로 인해 소련은 태평양으로 향하는 유일한 항구와 부동항을 상실했고, 이것은 의심할 것 없이 중대한 전략적 이익의 손실이었다. 그 결과 소련은 아시아에서 전략상 거점을 상실하게 되었다. 결국 스탈린이 김일성의 전쟁 개시에 동의했던 것은 그 승패 여부와 관계없이, 그가 극동에서 설정했던 소련의 전략목표를 보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주제어: 한국전쟁, 스탈린, 아시아혁명, 중소동맹

한국전쟁 초기 중국군 조기파병을 둘러싼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의 동상이몽

김 동 길(중국 베이징대 역사학과 교수)

Ⅰ. 서론
Ⅱ. 전쟁 초기 김일성의 중국군 파병요청과 스탈린의 침묵 및 반대
Ⅲ. 마오쩌둥의 조기파병 요청 배경과 스탈린의 반대
Ⅳ. 인천상륙작전 이후 김일성과 스탈린의 중국군 참전요청과 마오쩌둥의 태도 변화

국문요약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에 관한 기존 연구는, 미국이 38선을 돌파하지 않았다면 중국의 참전도 없었을 것이란 주장이 주류를 이룬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중국과 러시아의 당안 자료들은 유엔군과 한국군이 수세에 몰려있던 7~8월에 이미 마오쩌둥과 김일성이 중국군 파병을 적극 희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미군의 38선 돌파 후 중국군 참전"이라는 스탈린과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혁명성과 보존, 대만문제 해결,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보 등을 위해 조기파병을 희망했고, 그 뜻을 북한과 소련에 전달했다. 마오쩌둥은 중국군 조기파병을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낼 수 있는 수단으로 보았다. 그러나 유엔군의 인천상륙 이후 동요하기 시작했고, 38선 돌파 이후에는 참전 불가를 스탈린과 김일성에게 통보하기도 했다.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지도부는 미 공군의 폭격이 시작된 직후부터 자력으로 승리가 어렵다고 보고, 소련공군과 중국군의 참전을 스탈린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스탈린은 중국군 조기파병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김일성과 마오쩌둥의 조기파병 요청에 동의하지 않았다. 주목할 것은 스탈린이 한국전쟁이 야기한 새로운 국제정세에 크게 만족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한국전쟁에 대한 목표를 속전속결에서 전쟁 장기화로 수정했다는 점이다. 이렇듯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은 한국전쟁 초기부터 각자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

주제어: 한국전쟁, 38선,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중국 대북정책의 역사적 형성과 지속

신 욱 희(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Ⅰ. 서론
Ⅱ. 중국의 참전결정 요인
Ⅲ. 중국의 현 대북정책에의 의미

국문요약

이 논문은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이라는 사례에 대한 고찰을 통해 중국 대북정책의 역사적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현재 중국 대북정책의 연속성과 변화의 측면을 검토한다. 이전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한국전쟁의 주체로서 김일성과 스탈린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았던 것에 비해, 이 연구는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중국 지도부의 참전결정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이 논문은 연대기적 서술방식을 따르기보다 결정과정에서 고려된 주된 요인들, 즉 관념적 연대, 외부적 안보위협, 내부적 안보위협, 전략적 고려의 네 변수의 역할을 살펴보고, 그 상대적 비중을 논의한다. 관념적 연대와 외부적 안보위협의 요인은 파병을 검토하고 수행하는 전반적인 배경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소련과의 긴장관계에서 참전결정의 최종 변수가 되었던 것은 '동북지방의 불안정성'이라는 내부적 안보위협의 요인인 것으로 보이며, 전략적 고려는 실제적인 참전과정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수행되었다.

한국전쟁 참전을 통해서 형성된 북중관계의 역사적 토대는 현재에도 재구성된 모습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유산은 중국의 대북정책 전망에 있어서 전술적 변화와 전략적 현상유지의 가능성을 크게 만들고 있다.

주제어: 한국전쟁, 북중관계, 관념적 연대, 외부적 안보위협, 내부적 안보위협, 전략적 고려

대북인식의 변화와 연속성: 스테레오타입적 경향을 중심으로

정 세 영(연세대 정치학 석사과정)
김 용 호(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서론
Ⅱ. 기존 연구경향의 분석
Ⅲ. 대북인식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
Ⅳ. 대북인식의 변화와 연속성
Ⅴ. 스테레오타입적 경향의 현실적 의미
Ⅵ. 결론 및 함의

국문요약

대북인식은 남남갈등이라고 일컬어지는 논의에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 간주된다. 그런데 대북인식을 북한의 행동이나 남한의 정권교체 및 대북정책에 대한 사후적인 반응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 연구는 대북인식의 형성과 이후의 변화양상을 심리학적 접근으로 설명하고, 이것이 남북관계에서 갖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인식주체가 사회집단을 범주화하면서 스테레오타입이 형성될 수 있는데, 전쟁경험이 있는 민족 내부의 분단이라는 요인으로 인해 단일하지 않은 대북인식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대북인식은 인지구조의 작동원리 중 하나인 스테레오타입과 유사함을 보이는데, 경험자료 분석을 통해 대북인식 변화에 스테레오타입적 경향이 나타남을 보였다. 그리고 스테레오타입적 경향이 나타나는 대북인식을 고려하면, 남남갈등에서 나타나는 인식의 차이를 해소의 대상으로만 볼 수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 대북인식 차이와 스테레오타입적 경향을 장애요소로 간주하기보다는 파생되는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주제어: 대북인식, 스테레오타입, 범주화, 남남갈등

남북관계의 국내정치적 제약요인에 관한 연구: 2007 남북정상회담을 중심으로

이 규 정(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책임연구원)

Ⅰ. 起
Ⅱ. 기존 논의의 검토와 분석 틀
Ⅲ. 2007 남북정상회담의 추진 경과
Ⅳ. 2007 남북정상회담의 협상전략
Ⅴ. 結

국문요약

이 연구는 남북관계에서 국내정치적 제약요인이 갖는 영향력의 정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북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는 국제정치 현실이라는 구조적 제약조건에 주목하여 국내정치 행위자들의 역할과 영향력을 간과했다. 그러나 남북한의 정치 발전과 변화를 고려하면 남북관계의 동학에서 국내정치적 제약요인은 매우 강화되었다.

이 연구는 양면게임이론을 이론적 자원으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협상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쟁점은 경제협력 강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추구한 남한의 입장과 서해 해상경계선을 재설정하려는 북한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남한의 경우 안보문제를 중시하는 보수세력의 격렬한 반대로 협상의 자율성이 상당히 위축되었으며, 북한의 경우는 유일지배방식에 의한 반대 의견의 부재 또는 통제 가능성으로 인해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즉 국내정치적 제약요인이 강하게 작용한 남한의 윈셋은 축소되었고, 국내정치적 제약요인에서 자유로운 북한의 윈셋은 확대되었다. NLL 문제나 경제협력 강화와 같은 이슈에서 남한은 자승자박 전략과 사안의 연계전략을 적절히 사용했으며, 북한은 고삐늦추기 전략으로 대응했다. 결론적으로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의 주요 원인인 NLL 문제는 특별한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남북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에 남북이 합의하였다.

주제어: 남북관계, 남북정상회담, 양면게임이론, 윈셋, 북방한계선(NLL)

세대와 생애주기, 그리고 투표선택: 1992~2012 대통령선거 분석

허 석 재(한국외대 정치행정언론대학원 강사)

Ⅰ. 서론
Ⅱ. 생애주기의 변화인가, 세대 간 차이인가
Ⅲ. 경험적 분석
Ⅳ. 결론과 토론

국문요약

선거에서 연령대별 투표선택의 현격한 차이는 연령효과인가, 세대효과인가? 이 질문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지하게 다루어왔지만, 만족할 만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 이유는 시간을 경과하며 변화를 관찰해야 하는 생애주기와 시간의 경과에도 유지되어야 하는 세대의 속성을 함께 살피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는 단일시점 자료에 의존함으로써 그것이 연령효과인지, 세대효과인지 가려낼 수 없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자료상의 한계에서 필연적으로 야기된 바, 본 연구는 1992년 이후 20년간 대통령선거 사후조사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함으로써 연령–기간–세대효과를 나누어 보여준다. 세 효과를 통합하는 모형화를 통해 각각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386세대를 비롯한 이전 세대에 비해 이후 세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민주당 계열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나이가 들수록 보수화되는 연령효과를 투표선택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주제어: 연령–기간–세대 효과, 투표선택, 코호트분석, 결합자료분석

중국 경제개혁 심화에 내재된 제도적 제약: 영도소조, 혼합소유제, 정치화된 기업지배구조

여 유 경(경희대 국제대학 조교수)

Ⅰ. 문제 제기
Ⅱ. 3중전회의 중요성과 핵심과제
Ⅲ. 강력한 영도소조의 등장
Ⅳ. 공유제와 혼합소유제 사이
Ⅴ. 정치화된 기업지배구조
Ⅵ. 맺음말

국문요약

중국에서 시장의 '결정적' 역할과 '공유제 중심'의 경제는 실현 가능할 것인가? 본 논문은 2013년 11월 중국공산당 18기 3중전회를 통해 제시된 중국의 전면심화개혁(全面深化改革) 정책 결정보고에 따른 경제체제개혁을 국유기업 개혁을 중심으로 하여 분석한다.

시장의 '결정적(決策性)' 역할이 어떻게 '심화개혁 영도소조(深化改革領導小組),' 공유제 중심의 '혼합소유제(混合所有制),' 그리고 정치화된 '기업지배구조(公司治理)' 등의 내재된 제도적 요인으로 인하여 제한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이를 통해 시장 중심의 경제개혁이 당의 정치경제적 지도력 공고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면, 시진핑 시대의 전면적 경제체제개혁 역시 구호에 머물 뿐 제한적 개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중국공산당 18기 3중전회, 중국 경제개혁정책, 심화개혁 영도소조, 혼합소유제, 정치화된 기업지배구조

제18대 대선의 투표선택에 대한 방법론적 재검토: 한국 유권자는 정말로 전망적 투표를 했는가?

장 승 진(국민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길 정 아(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박사수료)

Ⅰ. 서론
Ⅱ. 제18대 대선의 투표선택: 회고적 투표와 전망적 투표
Ⅲ. 인과관계의 방향성 문제와 방법론적 대안
Ⅳ. 데이터와 변수조작화
Ⅴ. 분석 결과
Ⅵ. 결론

국문요약

본 논문은 제18대 대선을 사례로 독립변수의 내인성 및 인과관계의 방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구변수를 사용한 2단계 프로빗 모형을 사용하여 유권자의 투표선택 결정요인을 재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기존 연구에서 한국 유권자의 전망적 투표의 증거로 제시된 전망적 경제평가 및 후보자 특성에 대한 인식은 투표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 정당에 대한 선호가 투표선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내인성 문제를 통제한 후 이명박 정부 및 야당에 대한 심판론의 영향력이 명확히 나타났다.

요컨대 본 논문의 분석은 제18대 대선에서 한국 유권자들이 매우 당파적인 선택을 했으며, 이명박 정부 및 야당에 대한 회고적 평가 역시 당파적인 선택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제18대 대선, 회고적 투표, 전망적 투표, 정당 선호, 심판론, 도구변수

통합과 갈등의 지방정치: 통합창원시 사례를 중심으로

조 재 욱(경남대 정치외교학과 조교)

Ⅰ. 머리말
Ⅱ. 이론적 논의 검토
Ⅲ. 통합 추진과정과 준비의 문제점
Ⅳ. 통합 이후 정치적 갈등과 리더십 한계
Ⅴ. 통합과 이해득실의 검토
Ⅵ. 평가와 시사점: 맺음말을 대신하여

국문요약

본 연구는 통합창원시 사례를 통해 지역 간 통합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통합 이후 지역 간 갈등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관리할 것인지 그 함의를 찾는 데 목적이 있다. 통합창원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주민의 선택이 아닌 중앙정치권의 강압에 의한 지방의회의 동의로 통합이 결정되었다. 둘째, 통합 이후 지방정치 행위자들은 소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타협이 결여된 정치를 보였다. 셋째, 통합의 실질적 모멘텀이라 할 수 있는 지역 간 균형성장은 기대에 불과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간 통합에 있어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면, 첫째, 통합의 진정성과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둘째, 통합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수반하기 때문에 지방정치 행위자들은 소지역주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치적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셋째, 지역 간 불균형과 소외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개발을 마련해야 한다.

주제어: 지방정치, 지방의회, 통합, 통합창원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사용자는 참여적인가?: 미국의 정치참여 유형과 SNS

송 경 재(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조교수)

Ⅰ. 들어가며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정치참여 유형과 연구가설 제시
Ⅳ. 가설 검증과 분석
Ⅴ. 토론 및 연구의 함의

국문요약

본 연구는 미국 SNS 사용자의 정치참여 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첫째, 인터넷 사용자와 비사용자 간의 정치참여 유형별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 미국 SNS 사용자집단(SUG)과 비사용자집단(SNUG) 간의 정치참여 유형별 차이는 무엇인지 분석한다. 셋째, SUG의 6가지 유형별 관습적·비관습적 정치참여의 결정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미국 SUG의 정치참여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는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의 시민참여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계량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했다.

연구 결과, 첫째, 인터넷 사용자는 비사용자보다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보이고 있다. 둘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인터넷 사용자 중 여성일수록, 저연령일수록, 고학력일수록, 고소득일수록, 유색인종일수록 SUG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 셋째, SUG가 비관습적 항의형 참여에 더 적극적이며, 불만을 가진 시민들의 참여도구로 SNS가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반대로 관습적 투표자형 참여에는 SNUG가 더욱 적극적임을 도출했다. 넷째, 미국에서 SUG의 6가지 정치참여 유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은 학력이었다.

주제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정치참여, 관습적·비관습적 참여, 항의형 참여, 투표자형 참여

폴란드 유권자의 투표 정당 선택: 2005년 총선 이슈를 중심으로

박 경 미(전북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분석자료와 연구방법
Ⅳ. 폴란드의 선거 이슈 변화
Ⅴ. 결론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2005년 폴란드 하원(Sejm) 선거에서 투표 정당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탐색하는 데 있다. 특히 민영화, 공산체제 책임청산, 세금정책, EU정책 등 네 이슈들이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분석 결과, 높은 연령대의 유권자는 여전히 공산체제하 집권세력들이 참여한 민주좌파연합에 정당일체감을 갖고 지지를 보냈지만, 주요 이슈들이 정당지지에 영향을 미쳤다. 2005년 총선에서 승리한 법과 정의당에는 공산체제 책임청산에 대한 강한 기준과 일률과세 반대, 그리고 EU보다는 폴란드 주권을 강조하는 입장의 유권자들의 지지가 높았다. 반면, 제2당인 시민연단에는 민영화와 일률과세에 찬성하고, EU에 대한 협조적 태도에 수용적이면서 공산체제 책임청산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이 투표하였다. 이는 민주화 이후 주요 사회균열이었던 공산주의–반공산주의와 세속주의–교권주의로부터의 이탈과 변화를 의미한다. 그 결과 폴란드의 정당경쟁은 민주좌파연합과 솔리대리티 계열 정당들 간의 경쟁에서 솔리대리티 계열 두 정당 간의 경쟁으로 재편되었다.

주제어: 폴란드, 사회균열, 이슈, 정당일체감, 투표

지역 국제기구의 제도화와 강대국의 내전 개입 가능성

김 상 기(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조교수)

Ⅰ. 서론
Ⅱ. 국제기구 영향력의 조건: 제도화 수준
Ⅲ. 지역 국제기구의 역할과 강대국의 내전 개입
Ⅳ. 연구 설계 및 자료
Ⅴ. 연구 결과
Ⅵ. 결론 및 함의

국문요약

내전에 대한 강대국의 군사적 개입을 촉진 혹은 억지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자유제도주의와 구성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지역 국제기구의 제도화 수준이 높을수록 그 지역 국제기구에 속한 국가의 내전은 강대국으로부터의 군사적 개입을 경험할 위험이 낮아진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1944년부터 1999년까지 발생한 모든 내전과 강대국의 군사적 개입에 관한 경험적 자료를 이용한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 결과는 이러한 가설을 지지한다. 지역 국제기구는 분쟁의 중재자 혹은 관리자로서 기능할 수 있으며, 또한 평화적 분쟁 해결에 관한 규범을 소속국가 간에 사회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구조와 행정체계를 갖춘 지역 국제기구는 강대국의 군사적 개입을 억지하는 효능을 가진다. 이러한 발견이 잠재적 개입 대상국에 제공하는 함의는 강대국의 군사적 개입을 바라지 않는다면, 분쟁의 중재·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국제기구의 건설 및 제도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제어: 내전, 국제기구, 강대국, 군사적 개입, 생존분석

남북관계사의 분석 수준과 주요 의제

신 종 대(북한대학원대 부교수)

Ⅰ. 머리말
Ⅱ. 두 분단국의 상호대면
Ⅲ. 동북아관계와 남북관계
Ⅳ. 국내정치와 남북관계
Ⅴ. 맺음말

국문요약

이 글은 지난 시기의 남북관계로부터 어떠한 시사점과 교훈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두 분단국의 상호대면, 동북아관계 속의 남북관계, 그리고 국내정치와 남북관계의 연관 수준에서 몇 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시론적으로나마 논의해보려는 시도이다. 세 수준에서 남북관계사를 살펴보는 것은 남북관계가 두 분단국의 상호대면뿐만 아니라, 국제환경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관계와 남북한 국내정치가 제공하는 공간과 압력 속에서 작동·전개되기 때문이다.

한편 70여 년을 맞고 있는 남북관계사 전체를 본격적으로 조망하여 교훈을 도출하는 시도와 작업 역시 필요하다. 그동안의 남북관계는 냉전기 적대와 대립 일변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으나, 완전한 화해·협력으로 이행하지 못한 채 '짧은 화해 뒤의 긴 대립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남북관계사를 회고하여 세 수준에서의 일정한 패턴, 남북한의 행동유형 및 사고방식, 놓쳐버린 역사적 기회, 그리고 역사의 교훈에 둔감하여 비롯된 반복되는 오류 등을 성찰하고 그 현재적 의미를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남북관계에 대한 이해와 교훈 도출을 위해서는 남북관계에 대한 의견보다 사실에 집중하여, 이념과 가치가 사실에 개입하거나 앞서는 일을 피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는 단지 두 분단국의 상호대면 수준이나 동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동북아 지역관계나 남북한 국내정치의 상호 연관과 작용 속에서 전개된다. 따라서 세 수준 간의 공조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또는 지속적인 발전이 어렵다. 또한 지난 시기의 남북관계사는 한국의 주도적 역할 및 남북관계의 우선성을 절대시할 것이 아니라, 유연한 사고와 적실성 있는 접근과 전략으로 남북관계의 진전 및 한반도의 안보·평화구조의 개선을 기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남북관계, 동북아관계, 국내정치, 대북정책, 역사, 교훈

시민의 선거참여와 민주주의의 질

이 정 진(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전임연구원)

Ⅰ. 서론
Ⅱ. 한국의 절차적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안정성
Ⅲ. 참여민주주의, 협치 및 민주주의의 반응성
Ⅳ. 좋은 정부와 효율성
Ⅴ. 결론

국문요약

한국은 이미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되어 정기적으로 공정하게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유권자의 투표 참여율은 민주화 초기 이후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더불어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제도가 한국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는 데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적극적인 시민의 정치참여로 대의제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는 참여민주주의와, 심의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뜻을 반영하자는 심의민주주의로의 이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변형된 민주주의 형태에서도 여전히 사회에서 소외된 약자들은 참여의 기회를 갖기 힘들다는 한계를 보인다. 이런 반응성의 한계는 시민과 정부의 관계를 더 중시하며 수평적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협치모델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정책적 혜택을 제공하는 정부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정부는 모든 국민을 공평하게 대하여 자신의 이익을 조직화할 능력이 없는 시민들에게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광범위한 지지를 얻어 강한 추진력을 발휘해야 한다. 선거 투표율을 높이고, 심의민주주의적 참여를 통해 정치 공급자의 국민에 대한 반응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동시에, '좋은 정부' 모델을 통해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민주주의의 질, 좋은 정부, 참여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 협치, 선거참여

안철수 현상의 등장과 쇠퇴: 정치사회학적 관점

김 호 기(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Ⅰ. 문제 제기
Ⅱ. 한국 정치의 탈정치화와 재정치화
Ⅲ. 안철수 현상의 전개과정
Ⅳ. 결론

국문요약

이 논문의 목적은 정치사회학적 관점에서 '안철수 현상'의 등장과 쇠퇴를 분석하는 데 있다.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를 특징짓는 현상 중 하나는 정치사회의 '탈정치화'와 시민사회의 '재정치화'의 모순적 공존이다. 안철수 현상은 미성숙한 정치사회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격(insurrection)'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즉 국가와 시장의 재구조화 및 개혁이라는 시민사회의 열망이 안철수 현상을 낳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안철수 현상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쇠퇴하였는데, 그 원인은 안철수 개인의 역량과 기성 정당정치의 구속이라는 주체적 요인 및 구조적 조건에서 찾을 수 있다. 정치사회의 새로운 조직화 및 제도화에 대한 안철수 개인의 정치적 역량은 취약했고, 기성 정치사회가 갖는 구심력은 새로운 정치적 세력화를 허용하지 않았다. 한국 정치를 특징짓는 '대표성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비조응성은 환멸의 탈정치화와 열망의 재정치화를 반복적으로 재생산할 것이고, 이 점에서 '제2의 안철수 현상,' '제3의 안철수 현상'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상존한다.

주제어: 안철수 현상, 정치사회, 시민사회, 탈정치화, 재정치화, 3중 위기, 시민사회의 반격

현직후보의 선거경쟁력 분석: 2010년 기초단체장선거를 중심으로

황 아 란(부산대 공공정책학부 교수)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국문요약

개념적으로 현직의 이점은 공직에 부여된 혜택으로 얻는 직접적인 효과와 그로 인해 강력한 후보를 배제시키는 간접적인 배제효과를 포괄한다. 본 논문은 현직효과의 복합적인 개념에 대한 경험적 검증에 중점을 두고, 기초단체장선거에서 현직후보가 지닌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현직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분석하여 현직의 이점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결과, 현직후보의 당선율, 득표율, 당선경합은 비현직선거구 후보보다 높을 뿐 아니라 현직 도전후보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현직의 직접효과와 간접적인 배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현직후보의 경쟁력은 2선 기초단체장보다 초선 단체장이 높으며, 현직후보의 당적변경은 특히 당선자 분석에서 득표율이나 당선경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주제어: 기초단체장선거, 현직효과, 초선효과

제13대 국회의 원내 균열 · 연합 구도: 3당합당 이전 26개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박 찬 표(목포대 정치언론홍보학과 부교수)

Ⅰ. 서론
Ⅱ. 원내 균열 · 연합 이론 및 기존 연구성과 검토
Ⅲ. 연구방법론과 연구전략
Ⅳ. 13대 국회 전반기의 원내 균열 · 연합 양상과 특징
Ⅴ. 결론
Ⅵ. 보론: 26개 의제별 심의과정 및 정당 균열 · 연합 양상

국문요약

이 연구는 3당합당 이전 13대 국회의 원내 균열·연합 구도를 26개 주요 의제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규명했다. 분석한 결과, 3당합당 이전 13대 국회에서는 원내 4당이 여여균열과 이념균열이라는 2개의 균열축에 따라 경쟁하는 2차원적 경쟁공간이 발견되었다. 특히 2개의 균열축이 상호교차함으로써 이슈영역에 따라 상이한 원내 다수연합이 형성되는 특징이 발견되었다.

원내 균열·연합을 가져온 요인과 관련해서는 13대 국회 전반기의 경우 정책적 입장과 정치전략 두 가지 요인이 거의 같은 비중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3당합당은 정책적 입장 차이에 따른 것으로 해석될 수 없음이 발견된다.

주제어: 원내균열, 표결연합, 정당경쟁구도, 3당합당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 분석

한 동 호(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

Ⅰ. 서론
Ⅱ. 인권정책의 이론적 패러다임
Ⅲ.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 사안별 분석
Ⅳ.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Ⅴ. 결론

국문요약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평화통일 기반 구축과 연계되어 있다. 본 연구는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패러다임과 대외정책분석의 이론적 틀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을 분석·평가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 재외 탈북민 보호, 북한인권법 논의를 중심으로 사안별로 분석했다.

분석한 결과,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남북관계의 동학에 종속되었고, 재외 탈북민 보호는 국가 간 관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국내적 논의인 북한인권법 통과도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어 대북 인권정책의 법적□제도적 일관성 및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이, 다양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국가이익 중심의 현실주의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통일한국의 가치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대북 인권정책의 원칙을 확립하고, 자유주의 내지 구성주의적 요소를 가미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향후의 정책적 과제가 될 것이다.

주제어: 박근혜 정부, 대북 인권정책, 인도적 지원, 탈북민 보호, 북한인권법

시진핑 정부의 대중앙아시아 안보 · 경제 병진전략 탐구: 상하이협력기구(SCO)와 '신 실크로드' 구상을 중심으로

박 병 인(경남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Ⅰ. 머리말
Ⅱ. 중앙아시아 전략환경과 중국의 주변부전략
Ⅲ. 안보 · 경제 병진전략의 내용: SCO와 신 실크로드 구상
Ⅳ. 병진전략에 대한 역내 유관국 역학
Ⅴ. 결론

국문요약

본 논문은 중국의 대(對)중앙아시아 정책이 안보와 경제라는 두 축으로 전개되어 나가는 모습을 그렸다. 이 두 축의 엔진은 바로 SCO와 '신 실크로드' 구상이다. 아울러 이 전략은 병진전략인 동시에 통합전략이며 확산전략이다. 더욱이 안보·전략적 차원에서 변경 안전과 미국의 포위를 돌파하는 위기 타개전략이기도 하다. 향후 중국은 병진전략을 통해 중앙아시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SCO는 주로 중국의 안보적 과제를 실현하는 매개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국 주도의 SCO 안보기능 강화는 CSTO를 통해 역내 영향력 유지 및 제고를 노리는 러시아의 이해와 충돌할 개연성이 크다. 또한 아시아와 유럽을 아우르는 경제 통합전략으로서의 신 실크로드 구상도 EEU와의 경합 속에 러시아의 견제가 예상된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접근정책에 대한 기대와 경계감이 엄존하고 있다. 따라서 SCO와 신 실크로드 구상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의 병진전략은 관련국들의 장기적이고 근본적 이해를 직시하면서 추진되어야 그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중국과 중앙아시아, 상하이협력기구(SCO), 신 실크로드, 병진전략, 이다이이루(一帶一路)

제2차 북미 핵갈등의 담론적 기원: 2002년 10월 3일~11월 26일, 말의 공방과 담론의 생태계

구 갑 우(북한대학원대 교수)

Ⅰ. 문제설정
Ⅱ. 담론과 담론의 생태계
Ⅲ. 핵위기담론의 생산: 북미 간 말의 공방
Ⅳ. 핵위기담론의 유통과 소비
Ⅴ. 담론의 생태계와 북미관계 연구: 이론의 정체성
Ⅵ. 결론

국문요약

이 글의 목적은 탈냉전 시대에도 단절과 지속을 반복하고 있는 북미관계에서 말의 공방이 갈등과 위기로 비화된 제2차 북미 핵갈등의 담론적 기원을 '두텁게' 기술하는 것이다. 북미관계는 주기적으로 위기, 갈등, 결렬, 교착, 타협, 협력 등의 관계특성을 형성해왔고, 북한 핵보유 선언의 원인이 되는 제2차 북미 핵갈등은 갈등이 위기로 전화된 전형적 사례다.

제2차 북미 핵갈등의 담론적 기원 규명을 위해, 미국 켈리 특사가 북한을 방문하여 고농축우라늄에 의한 북한 핵개발 의혹을 제기한 '2002년 10월 3일'부터, 그 의혹을 이유로 미국과 KEDO 회원국들이 제네바합의에 의한 대북 중유공급 중단을 결정하고 북한이 제2의 한반도 핵위기를 선언한 '2002년 11월 26일'까지 발표된, 북한과 미국의 외교담론과 그 담론들이 담론의 생태계에서 생산·유통·소비되면서 현실로 전화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북미 간 말의 공방과 더불어, 담론의 생태계의 행위자들인 국제사회와 한국을 포함한 관련국들이 새롭게 구성된 북미관계담론을 유통·소비하는 형태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북미 핵갈등 연구의 국제정치이론적 함의를 제시한다.

주제어: 북한, 미국, 북핵위기, 고농축우라늄, 담론, 담론의 생태계

한일 외교협력의 전개와 50년의 평가

기미야 다다시 (木宮正史) (일본 도쿄대학(東京大學)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교수)

Ⅰ. 머리말
Ⅱ. 1970년대 한일관계를 둘러싼 국제 환경
Ⅲ. 1970년대 한일 외교협력의 사례 분석
Ⅳ. 한일 외교협력의 현재적 함의
Ⅴ. 맺음말

국문요약

냉전기의 한일협력은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외교 면에서의 협력도 중요했다. 냉전기 한국외교의 목표는 대미 동맹관계를 기축으로 반공 자유주의 진영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승리해 유리한 통일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대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유엔에서 제3세계 국가들의 지지를 확대하고, 북한을 지지해온 공산권에 대해서도 존재감을 과시하는 외교를 전개하였다. 구체적으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상호보완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둘러싼 대미 외교에 관한 한일협력, 외교공간을 넓히려는 한국의 대공산권 외교에 대한 일본의 협력, 제3세계 국가들을 둘러싸고 북한과 격렬한 외교경쟁을 벌이던 한국외교에 대한 일본의 측면지원, 남북 외교경쟁의 주전장이 된 유엔에서 한국지지 확대를 위한 일본의 외교활동 등 한국외교의 제반 영역에서 한일 외교협력의 사례를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과거 한일관계가 비대칭적이고 상호보완적이었다는 면에서 한일 외교협력은 한국의 외교적 성과에 적지 않게 공헌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한일관계는 외교목표를 공유했던 냉전기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탈냉전기에 대칭적이고 상호경쟁적인 관계가 되었다고 해도 역시 가능하다고 본다. 한일 양국이 미국을 설득하여 적극적인 대북 포용정책에 동참하도록 한 2000년을 전후한 시기는 이를 잘 보여준다. 따라서 한일수교 50년을 맞은 지금이야말로, 이와 같은 성공사례를 거울삼아 앞으로의 한일 외교협력을 이끌어나가기 위한 조건을 찾아야 할 것이다.

주제어: 한일관계, 한일수교, 한일 외교협력, 한국의 대공산권 외교, 한국의 제3세계 외교

데탕트기 북중관계의 변화와 북일관계의 전개: '두 개의 조선' 정책과 한일기본조약에 대한 시사

박 정 진(일본 쓰다주쿠대학(津田塾大學) 국제관계학과 부교수)

Ⅰ. 들어가며
Ⅱ. 중일수교와 북일접근, 그리고 한일기본조약
Ⅲ. 북한의 전략 수정: '두 개의 조선' 반대
Ⅳ. 나오며

국문요약

197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중국의 대미화해와 유엔가입은 북한에게 안전보장과 정통성의 위협을 초래했다. 이때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북한에게 안보위협을 상쇄시키는 효과는 물론 한국의 고립을 초래하고, 이를 통해 정통성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유력한 전략으로 부상했다. 따라서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밀접히 하는 한편 대일접근을 구체화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한일기본조약의 실체를 인정하고, 유엔기구에의 가입 역시 적극적으로 시도했다. 이는 '두 개의 조선' 입장에 입각한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북한의 '조국통일 5대방침'이 내건 두 개의 조선 반대의 슬로건과 한국과의 유엔동시가입 거부는 이러한 북한의 전략이 좌절했음을 의미한다.

데탕트기 북중관계의 변용과 북일관계의 재편은 북한의 대외전략 수정과정에서 전개되고 있었다. 한편 이와 대척점에 있는 한국의 '6.23 선언'은 일본의 대한반도정책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었다. 동 선언의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주장은 북한정권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었고, 이는 곧 일본의 대북접근을 허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한일기본조약 제3조에 대한 남북한의 인식이 일본 측의 해석으로 수렴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유산은 탈냉전기 한반도와 일본의 관계로 이전된다.

주제어: 데탕트, 북중관계, 북일관계, 두 개의 조선, 한일기본조약

전후 한일 정책커뮤니티의 생성과 변화

최 희 식(국민대 국제학부 조교수)

Ⅰ. 들어가며
Ⅱ. 정책커뮤니티의 생성과 역할
Ⅲ. 민주주의 시기 정책커뮤니티의 변화
Ⅳ. 나가며

국문요약

전후 한일관계를 보면, 여러 갈등으로 한일 정부 간 공식 외교라인이 고착관계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고착상태는 비정부 영역에서 활동하는 정책커뮤니티에 활동공간을 부여했고, 한일 정부 또한 고착상태의 해소를 위해 이들의 힘을 빌리려 했던 것이 사실이다. 다른 양자관계에 비해 한일관계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정책커뮤니티의 발달이다.

한일 정책커뮤니티는 수많은 갈등요인을 가지고 있는 한일관계에서 갈등의 관리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민주화 시대에 접어들어, 갈등을 관리하고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신 한일 양국 최고지도자의 정치적 리더십과 국민 여론이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정책커뮤니티가 국민에게 한일관계의 전략적 가치와 가능성을 환기시키고, 정책결정자에게는 갈등관리와 정책제언 역할을 수행하며, 양자의 가교역할을 해오면서 한일관계의 중요한 행위자로 기능해왔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는 2015년 현재, 한일 정책커뮤니티를 어떻게 재구축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주제어: 한일관계, 한일 비정부 교류, 한일 정책커뮤니티, 한일 파트너십 선언

한일 외교 · 통상정책 50년: 대립과 협력의 프로세스 및 메커니즘

김 영 근(고려대 일본연구센터 부교수)

Ⅰ. 서론: 한일 외교통상정책의 대립과 협력 프로세스
Ⅱ. 한국의 대일 외교통상정책
Ⅲ. 일본의 대한 외교통상정책
Ⅳ. 한일 외교통상정책의 정치경제학: 변용과 정책 선택
Ⅴ. 한일 정치경제협력 50년의 평가와 한일 FTA 재교섭의 조건

국문요약

본고의 목적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 간 경제통상분야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 변화, 교류와 협력의 성과, 양국 정부의 통상정책 전개과정을 중장기적 시각에서 재조명하는 데 있다. 특히 국제경제환경을 둘러싼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한국의 대일 외교통상정책 vs. 일본의 대한 외교통상정책'의 변용을 비교분석하여, 한일 경제협력 50년사 속에서 외교통상정책을 둘러싼 대립과 협력의 프로세스 및 메커니즘을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본고의 문제의식이자 검증가설은, 첫째, 한일 간 경제협력 이슈는 정치적 마찰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둘째, 한일 양국의 산업별 국내외 경쟁구도와 한일 통상교섭에 관한 정책 선택에 있어서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인가, 셋째, 한일 통상정책의 다양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이다.

국교정상화를 계기로 한일 외교통상정책은 '호혜적 상호주의' 성격을 띠었으며, 미국과의 협력하에 한일협력의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일 간 다양한 정치적 요인이 작동하면서 '조건부 특정적 상호주의'가 우세하게 되었다. 이렇듯 한일 양국이 서로 강경정책을 실시할 경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물론 경제적 대립으로 연계되어 충분한 협력과정이 전개되지 못했다.

최근 기로에 선 한일 외교현상을 극복하고 한일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자주의'의 활용이 필요하며, 정경분리 및 정책 성과를 고려하는 유연한 대일정책(호혜적 상호주의) 선택으로 효과적인 협력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한일 FTA 재협상 등의 '제도적' 협력기반 마련이 긴요하다.

주제어: 한일 외교통상정책, 한일 FTA(자유무역협정), 호혜적/특정적 상호주의, 다자주의, 대립과 협력 메커니즘

한일 문화교류와 '반일' 논리의 변화: '왜색문화' 비판 언설의 궤적

이 지 원(한림대 일본학과 교수)

Ⅰ. 들어가는 말
Ⅱ. 전사(前史): 상호 문명적 차별의 전통
Ⅲ. 해방 이후 현대 왜색문화 비판 언설의 전개
Ⅳ. 1990년대 이후의 지형 변화와 왜색문화 비판 언설의 퇴조
Ⅴ. 나오는 말

국문요약

1965년 국교정상화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간 문화교류에는 수십 년간 제약이 존재했으며, 한국에서 일본문화는 '왜색문화'라는 이름으로 금지되었다. 이 글에서는 그 역사적 배경과 함께, 해방 이후 현재까지의 왜색문화 비판 언설의 시대별 전개양상 및 특징과 변화를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조선시대 이래 한국에서는 유교문명에 기반을 둔 자문화중심주의적 관점에서 일본문화를 야만시하여, '왜'로 호칭하며 폄하하였다. 역으로 19세기 말 이후에는 근대화에서 앞선 일본이 서구문명을 기준으로 조선과 중국을 야만시하는 '문명 대 야만' 구도가 전개되었다. 해방 이후 한국에서는 왜색문화 비판의 형태로 일제잔재 청산과 함께 일본문화 유입이 금지되었다. 국교정상화를 전후로 일본과의 정치·경제 교류는 활성화되었으나, 문화 면에서의 '반일=왜색문화' 비판은 더욱 정형화되고 강화되었다. 왜색문화 비판 언설의 특징은 '일본적인 특성,' '일본에서 유래한 것' 전반을 '왜색'으로 규정하고, 이를 정부, 언론, 대중적 차원에서 직접화법으로 '공식적'으로 사용하며 배제의 대상임을 당연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 이후의 대내외적 변화와 함께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이 확산되면서 양적·질적으로 변화한다. 왜색 용어의 사용빈도는 현저히 줄어들었고, 당연시되던 비난을 억제하거나 오히려 단정적 비난을 해체하는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에는 여전히 반일/혐한 현상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새로운 각도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문화교류, 자문화중심주의, 문화상대주의, 왜색문화

한일 지방자치단체 협력의 전개: 자매도시 결연전략

오니시 유타카 (大西裕) (일본 고베대학(神戸大學) 법학연구과 교수)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분석
Ⅲ. 일본의 자매도시 결연전략에 있어서 한국의 위치
Ⅳ. 한국의 자매도시 결연전략에 있어서 일본의 위치
Ⅴ. 한일 결연사업의 실제
Ⅵ. 결론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일 간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가 한일관계에 무엇을 가져다주었는지, 목표는 무엇이고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한일관계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로 일본의 '한일자매도시 결연연구회'가 2014년 한일 간에 자매도시 결연관계에 있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한일 간 자매도시 결연은 주로 우호친선과 국제이해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한 사업이 한일 쌍방에서 이루어진 결과 상호 간의 우호관계 촉진에 기여하고 있다. 다만 한일 간에는 그 목적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한국은 일본에 비해 경제 활성화와 행정적 협력에도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이후 한일관계의 급속한 악화는 한일 간 자치단체 교류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양측 모두 향후에도 교류를 지속·확대할 계획이다. 현재의 한일 간 외교관계 악화에만 눈길이 가기 십상이지만, 교류 본연의 자세가 다층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한일관계를 다방면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재차 나타내 보이고 있다.

주제어: 지방자치, 자매도시, 한일관계, 도시론

미국의 재균형 전략과 한미동맹: 신현실주의 패권축소론의 관점에서

이 수 형(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Ⅰ. 서론: 문제 제기
Ⅱ. 신현실주의 패권축소론의 주요 논거와 함의
Ⅲ. 미국의 재균형 전략과 아태 안보질서
Ⅳ. 미국의 재균형 전략과 한미동맹
Ⅴ. 결론

국문요약

미국 아태지역 정책의 핵심으로 등장한 '재균형'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 미국 외교안보정책의 전략적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즉, 미국의 전략적 초점이 기존의 유럽에서 21세기 국제정치의 전략적 영역으로 부상한 동아시아로 방향 전환을 도모하게 되었다. 둘째, 지속적인 국방예산 삭감이라는 현실하에 전 세계에 배치된 미 군사력의 재배치와 축소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국방예산과 군사력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미국의 동맹 및 동반자관계 국가들과 방위비 분담 및 군사활동에서의 적절한 책임·역할 재조정을 모색하게 하였다. 이러한 재균형의 전략적 함의는 신현실주의 축소론자들의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

이 글은 신현실주의 패권축소론의 관점에서 미국의 재균형 전략의 목표와 접근방법을 살펴보고, 한미동맹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에 주는 전략적 함의의 하나는 재균형 전략에 따른 미중관계에서 파생되는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재균형 전략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차원에서 미국의 동맹 및 동반자관계 국가들에 미치는 파장이다. 전자는 외교안보전략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한국은 제한적 헤징전략을 채택·추진할 필요가 있다. 후자는 한미관계 및 한일관계에서 한국이 부담해야 할 내용이다. 재균형 전략의 효율성은 아태지역 내 미국의 동맹국과 우방국들의 참여와 지지가 관건인데, 이는 한국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될 개연성이 크다. 향후 한미동맹에서 방위비 분담 증액 및 북핵위협에 대처하는 군사적 대응책 마련 등에 물적 지원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제어: 재균형, 패권축소, 한미동맹, 아태지역에서의 단계별 적응적 접근방법(APPAA), 제한적 헤징전략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북일관계의 변화: '상황적 경직화'에서 '전략적 유연화'로 전이된 교섭 외교

박 창 건(국민대 일본학연구소 연구교수)

Ⅰ. 들어가는 말
Ⅱ. 교섭 외교의 형태를 설명하는 분석 틀
Ⅲ. 정치·사회 동태론적 관점에서 본 북일관계의 역사적 조명
Ⅳ. 북일수교 교섭회담에서 한일국교정상화의 정치적 함의
Ⅴ. 결론을 대신하여

국문요약

본 연구는 동북아 지역의 정치·사회 동태론적 관점에서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북일관계가 어떠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조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북한과 일본의 교섭 외교를 설명하는 이론화 작업을 통해, 한일국교정상화가 북일관계의 지형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북한과 일본은 1990년 3당 공동선언을 계기로 제1차 수교를 위한 교섭회담을 실시한 이래, 현재까지 총 14차례의 정부 간 수교 교섭회담과 2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교정상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북일관계는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상황적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북일 양국이 한일국교정상화 이후부터 1990년 3당 공동선언 이전까지 '상황적 경직화'로, 3당 공동선언부터 현재까지 '전략적 유연화'로 전이된 교섭 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북일수교 교섭회담에서 한일국교정상화의 정치적 함의를 재조명하고, 그 상관관계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분석하였다.

주제어: 한일국교정상화, 북일관계, 교섭 외교, 상황적 경직화, 전략적 유연화

초국적 이주, 중국조선족과 경계 설정

이 상 우(중국해양대학교 한국학과 전임강사)

Ⅰ. 문제 제기
Ⅱ. 이론적 논의
Ⅲ. 일제패망 이후 재중 조선인/조선족의 경계
Ⅳ. 중소분쟁기 북한의 국가이익과 조선족의 경계
Ⅴ. 한중수교 이후 남한의 국가이익과 조선족의 경계
Ⅵ. 결론

국문요약

이 논문은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동 속에서 이루어진 조선인/조선족의 세 차례 '초국적 이주,' 특히 초국적 이주 속에서 조선족에 대한 이민 수용국의 '포섭'과 '배제'의 논리를 집중적으로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초국적 이주가 조선족연구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전략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지 않으며, 조선족의 초국적 이주에 대한 연구가 1992년 한중수교 이후에만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선행연구의 문제점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국가이익'이라는 정치학적 개념을 활용해 변수를 설정하고 분석 틀을 제시하며, 제시된 분석 틀을 기초로 조선족의 시기별 세 차례 초국적 이주를 고찰한다. 이를 통해 조선족에 대한 포섭과 배제는 이민 수용국의 정치·사회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고려를 기초로 한 전략적 선택의 산물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주제어: 초국적 이주, 조선족, 국가이익, 포섭과 배제, 전략적 선택

핵확산금지레짐과 관련한 유엔안보리의 역할과 한계: 북핵사례를 중심으로

문 병 철(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원)

Ⅰ. 서론
Ⅱ. 집단안보, 핵확산금지레짐, 그리고 유엔안보리의 역할과 책임
Ⅲ.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와 핵확산금지레짐
Ⅳ. 결론

국문요약

북핵위기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측면 중 하나는 유엔, 특히 유엔안보리가 대북제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요 행위자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북한 핵개발과 관련된 안보리결의안은 제1차 북핵위기의 단초가 된 북한의 NPT 탈퇴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안 825호를 필두로, 모두 7차례 채택되었다. 그러나 NPT 체제 또는 6자회담에 주목한 연구성과들이 다양하게 축적되어 있는 반면, 북핵위기 관련 행위자로서 유엔안보리에 주목한 연구성과는 많지 않은 형편이다.

이는 북핵위기에 관한 기존 연구성과와 더불어, 북핵위기를 다루는 과정에서 드러난 유엔안보리의 역할과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북핵위기를 다루는 과정에서 채택된 안보리결의안 분석을 통해, 탈냉전기 핵확산금지레짐과의 연관성 속에서 유엔안보리의 역할과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어: 북핵위기, 유엔안보리, 안보리결의안, 핵확산금지레짐, 집단안보

한국 평화연구의 현황과 과제

서 보 혁(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Ⅰ. 여는 말
Ⅱ. 한국 평화연구의 등장
Ⅲ. 한국 평화연구의 영역
Ⅳ. 한국 평화연구의 쟁점과 과제
Ⅴ. 맺음말

국문요약

이 글은 한반도 문제를 평화연구의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성과 그 연구 범위 및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단 및 정전으로 한반도 문제는 통일연구, 안보연구가 주도해왔으나 점차 평화연구의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 한반도 문제의 특성과 1980년대 말 민주화·세계화 등 연구환경의 변화로, 한국 평화연구는 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평화주의적 탐색과 세계 평화학 소개의 형태로 출발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평화학 정향을 가진 연구자들이 부상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관한 평화학적 연구가 활기를 띠고 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한국 평화연구는 크게 통일, 생태, 연대 등의 영역을 갖고 발전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한국 평화연구를 확립하는 데는 한국 평화연구의 정체성 확립, 폭력연구와 평화연구의 결합, 인본주의와 생태주의의 만남, 통일평화론의 정립, 평화국가론의 확립 등의 과제가 남겨져 있다. 한국 평화연구는 이러한 연구과제를 해결해나가면서 한반도 문제의 평화주의적 해결과 세계 평화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평화연구, 폭력연구, 안보연구, 통일평화, 평화국가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과 복지선호: 기술특정성과 국가정체성의 역할

이 보 윤(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국제정치전공 석사수료)
김 동 훈(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 그리고 복지선호
Ⅳ. 한국의 복지선호: 경제적 불평등과 국가정체성
Ⅴ. 결론

국문요약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은 그 원인 및 정책적 대응에 관한 많은 논의와 논란을 가져왔다. 한국의 경우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이 동시에 증가함에 따라 복지정책에 대해 많은 정치적 논란이 불거졌지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는 그리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 변화를 추적하고, 불평등 현실과 대중의 복지선호와의 관계에 있어서 개인의 기술특정성과 국가정체성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다수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경우,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은 어느 한쪽의 상대적 평등을 이루려는 정책을 통해 다른 한쪽의 부정적 영향이 상쇄되는 패턴을 보인다. 그러나 한국은 소득과 자산 두 가지 불평등이 모두 증가하는 추세이며, 정책적 결핍으로 인해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이 서로 상쇄되지 못하기에 전체적인 경제적 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불평등 심화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복지선호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증가하는 소득 및 자산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복지선호가 강화되지 않는 이유를 국가정체성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한국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분석에 의하면, 복지선호 증가를 억제하는 국가정체성의 부정적 역할은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위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완화되었다.

주제어: 소득불평등, 자산불평등, 복지선호, 기술특정성, 국가정체성

복지부문 정부역할 확대 여부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황 아 란(부산대 공공정책학부 교수)
이 지 호(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전임연구원)

Ⅰ. 서론
Ⅱ. 기존 연구의 이론적 검토
Ⅲ. 연구 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함의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설문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복지부문 정부역할에 대한 국민 인식의 결정요인을 경험적으로 밝히는 데 있다. 연구의 문제의식은 한국인의 복지부문 정부역할 인식에는 사회경제적 배경보다 복지정책 실행으로 형성된 이해관계의 영향이 더 클 것이며, 특히 정치신뢰, 이념성향, 정당선호와 같은 정치성향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분석의 주요 발견은 복지정책 중요도, 복지수혜 경험, 복지 만족도, 수급자에 대한 인식 등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관계 변수가 복지부문 정부역할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의 효과는 일반적인 기대와 달랐다. 복지수요가 강할 것으로 기대된 노인층에서 작은 정부 담론이 더욱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자신을 하층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부역할 확대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였다. 정치성향 변수로는 정당선호가 정부역할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정치효능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견으로부터 본 연구는 큰 정부–작은 정부에 대한 국민 여론은 정당선호에 의해 영향받는 바가 크기 때문에, 정부역할에 대한 정책방향을 이데올로기적인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실행된 복지정책 평가를 통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정부역할, 복지태도, 복지수요, 복지수혜 경험, 정치신뢰, 정당선호

지식인의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강 문 구(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문제 제기
Ⅱ. 정치권력과 지식인: 지식인의 정치참여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한국 권위주의 정권하 대학교수의 정치참여
Ⅳ. 한국 민주화와 대학교수의 정치참여
Ⅴ. 대학교수의 정치참여 행태 변화와 폴리페서 논의의 의미
Ⅵ. 결론: 한국의 민주적 공고화와 폴리페서 논의

국문요약

한국에서 대학교수의 정치참여는 오랜 역사를 갖는다. 박정희·전두환 정권 등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대학교수 등 지식인의 정치참여는 결여된 정통성을 법리적으로 뒷받침하거나 경제정책을 자문하는 등 비교적 수동적 역할에 머물며 어용교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민주화 과정은 이러한 지식인의 정치참여 형태를 변화시켜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대학교수들의 정치참여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경제위기 등을 겪으며 실용적·기능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김대중 정부의 신지식인론은 지식인의 정치참여를 변질시킨 중요한 사건이었다.

노무현 정부 시기부터 대학교수 등 지식인의 대선캠프 참여를 통한 정치참여가 본격화되면서 '폴리페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러한 일군의 폴리페서들이 한국의 민주적 공고화 과정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이념갈등과 정치적 양극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보다 그러한 문제들과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하는 데 있다. 권위주의 정권에 대해서는 민주화와 인권회복을 요구하고, 민주적 공고화 과정의 시행착오들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인본주의적 담론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발전·적용시키는 지식인 본령의 역할을 회복함으로써, 폴리페서 논란으로 야기된 대학교수의 정치참여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대학교수의 정치참여, 어용교수, 신지식인, 폴리페서, 정치적 양극화

사람들은 왜 성장주의를 지지하는가?: 성장주의 결정요인에 대한 경험분석

강 우 진(경북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Ⅰ. 문제 제기
Ⅱ. 성장주의의 기원
Ⅲ. 민주화와 성장주의의 변화
Ⅳ. 성장주의 지속성의 원인
Ⅴ. 분석 모델
Ⅵ. 분석 결과
Ⅶ. 결론과 함의

국문요약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에서 나타난 중요한 현상 중 하나는 양적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한 성장주의에 대한 선호가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를 압도해왔다는 사실이다. 한국에서 나타난 성장주의에 대한 압도적 우위는 한국형 경제발전 모델을 만든 박정희 정부의 지배이념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또한 한국의 성장주의는 민주화 이후 진행된 민주주의의 경제적 수행력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적 평가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이 글은 경제위기 극복 후 실시된 한국바로미터(KDB) 2001년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성장주의 결정요인에 대한 탐색적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민주주의 체제의 수행력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시민들의 성장주의 선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역시 성장주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 글의 분석 결과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함의는 양적 경제성장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형 경제발전 모델의 성공을 통해 내면화된 성장주의는 대안적인 한국형 민주주의 모델의 정착을 통해서 극복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주제어: 성장주의, 민주주의 수행력, 박정희 정부, 경제위기

주체사상의 순수 이데올로기화와 새로운 실천 이데올로기의 등장

정 영 철(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조교수)

Ⅰ. 들어가며
Ⅱ. 순수 이데올로기와 실천 이데올로기: '과학적 세계관'과 '실천의 지침'
Ⅲ. 주체사상의 순수 이데올로기화: '참다운 과학'으로서 주체사상
Ⅳ. 나가며

국문요약

2004년 김일성종합대학 주체사상 교과서는 기존의 『주체사상 총서』와는 다른 체계와 개념으로 서술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두 가지를 암시하는데, 하나는 주체사상의 논리적 변화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김정일의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이후 주체사상을 '과학적 진리'의 최정상에 놓고자 한 정치적 기획이라는 것이다. 북한에서 주체사상의 개념과 체계 변화는 맑스주의와의 결별인 동시에 내부 논쟁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소련 및 동유럽 해체 이후, 주체사상만이 '참다운 과학'임을 주장하고 이를 가장 보편적인 과학의 진리에 놓고자 한 것이었다. 즉, 주체사상의 순수 이데올로기화였다. 그리고 이러한 주체사상의 순수 이데올로기화에 덧붙여 현실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실천의 지침'을 새롭게 정립하였는데, 김정일 시대의 선군사상이 바로 그것이다.

순수 이데올로기와 실천 이데올로기의 구분을 통해서 북한 주체사상의 변용을 살펴보는 것은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던져준다. 비록 주체사상의 정당화 기능을 전제로 하겠지만, 북한의 사상적 지형이 불변이 아니라 개혁·개방에 요구되는 새로운 실천의 지침을 제시하고 사상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란 점이다.

주제어: 순수 이데올로기, 실천 이데올로기, 주체사상, 선군사상

유라시아의 지정학, 민족 균열, 그리고 재민주화: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사례 비교

이 선 우(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연수연구원)

Ⅰ. 서론
Ⅱ. 기존 논의 및 대안적 분석 틀
Ⅲ. 우크라이나 사례
Ⅳ. 벨라루스 사례
Ⅴ. 결론: 유라시아의 재민주화 전망

국문요약

본 논문은 2004년 오렌지혁명이 발발한 우크라이나와, 상당 규모의 민주화 시위들이 빈발해왔음에도 루카셴코의 선거권위주의 정권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벨라루스 두 국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상기한 정치적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낸 주된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유라시아지역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국제적 요인과 두 국가의 국내적 요인에 공히 착목함으로써, 이 지역 재민주화의 정치적 동학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다.

국제적 요인으로서 유라시아지역을 둘러싸고 부상해온 미국과 러시아 간 지정학적 경쟁은, 냉전 해체 이후 역내 강대국 간 세력관계가 재편되면서 구조화되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친미 세력과 친러 세력 간 민족 균열에 더해 지역 균열까지 중첩된 갈등양상으로 인해 지역별로 두 강대국에 대한 일방적 지지세가 구축되었다. 따라서 서부에 기반을 둔 반체제 세력은 민주화 시위와 친서방 노선으로의 전환을 동일한 목표로 설정하고, 준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저항을 민족·지역 갈등으로 치환시킴으로써 대규모의 응집력 있는 시위를 조성해낼 수 있었다. 즉 미러 간의 지정학적 경쟁요인이 국내의 민족·지역 균열과 강하게 반응하면서 재민주화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반면 벨라루스의 경우, 우크라이나와 달리 친서방 성향의 대중이 상대적으로 소수일 뿐 아니라 지역적으로 묶여있지도 않은 탓에, 반체제 저항이 형성되더라도 그 동원 및 응집화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즉 친러 세력과 친미 세력 간 균열이 대등하지 않았고 전자에 기울어진 탓에, 미러 간의 지정학적 경쟁요인이 재민주화를 추동하는 후자와 강하게 반응하지 못했던 것이다.

주제어: 미러 경쟁, 민족 균열, 재민주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한국의 對중국 공공외교 전략과 실행 분석

백 우 열(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조교수 · 성균중국연구소 부소장)

Ⅰ. 동아시아의 공공외교: 한국과 중국
Ⅱ. 한국의 대중국 공공외교의 배경과 발전
Ⅲ. 한국의 대중국 공공외교의 구체적 정책: 사례 분석
Ⅳ. 결론

국문요약

21세기에 들어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공외교를 통한 경쟁과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처럼 동아시아 국제정치에서 증대되는 공공외교의 필요성에 부응하여,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의 급증하는 공공외교적 상호작용 연구의 일환으로 우선 한국의 대중국 공공외교 전략과 실행을 기초적·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한중 간 공공외교 교류 합의와 발전의 핵심적 정책모토인 '인문교류'의 분석을 기반으로, 실증연구로서 4가지 사례를 분석한다. 즉 '일반적' 형태의 공공외교로, ① 한국의 대중국 공공외교의 핵심인 재중국 재외공관의 공공외교, ② 한중 간 양방향적 공공외교의 틀인 지방정부 간 교류, ③ 중국 내 한국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공공외교적 함의를,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적' 대상을 설정한 ④ 대중국 통일공공외교를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대중국 공공외교는 아직 시작 단계이다. 특히 중앙정부가 주도 또는 조율하는 형태의 공공외교 전략은 그 유효성—한국의 국익에 대한 중국 엘리트와 일반 시민들의 긍정적 관점 증진—을 확보할 수 있는 유형을 파악하고 시도하는 단계라고 평가한다.

주제어: 공공외교, 소프트파워, 한중관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한반도 통일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의 딜레마: 전환과 지속의 갈림길에서

이 정 남(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 중국연구센터 센터장)

Ⅰ. 서론
Ⅱ. 시진핑 정부의 국가정체성 인식 전환과 대외정책 변화
Ⅲ. 시진핑 정부의 한반도정책 조정과 대북한 및 통일인식 변화
Ⅳ. 시진핑 정부의 대북한 및 통일인식 전환의 제한요인
Ⅴ. 평가와 전망

국문요약

본 논문은 중국의 자국에 대한 정체성 인식 변화와 이로 인해 그 의미가 더 중요해진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미 간 전략적 경쟁이라는 구조적 요인을 통해 중국의 한반도정책의 딜레마를 분석한다. 중국은 시진핑 등장 이후 (부상하고 있는) 강대국 정책성을 분명히 하고 대외정책 방향을 조정해왔다. 이로 인해 대북정책과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에서도 중미 간 전략적 경쟁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되었다. 그 결과 중국정부는 한편으로는 핵과 미사일 발사로 이 지역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대북 강경책을 취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지역 불안을 야기하는 북한의 존속보다 남한 주도의 통일이 중국의 전략적 이해에 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일련의 인식 전환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이라는 구조적 조건하에서 한반도정책을 사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조건은 중국 한반도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중국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강고한 상황에서 여전히 북한을 전략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요충지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는 곧 중국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제한하고 있다.

주제어: 강대국외교, 북한포기론, 중국의 한반도정책, 북중관계, 중미 간 전략적 경쟁

김정은 정권의 현지지도 수행빈도를 통해 본 엘리트 변동 연구: 주요 인사의 로동신문 등장빈도 분석을 중심으로

진 희 관(인제대 통일학부 부교수)

Ⅰ. 서언
Ⅱ. 김정일·김정은 시기 상위 등장빈도 발생자 비교
Ⅲ. 김정은 시기 엘리트들의 연도별 등장빈도
Ⅳ. 주요 인물의 수행 변동 분석
Ⅴ. 결론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김정은 집권 시기 3년 8개월과 김정일 생전 마지막 1년을 대상으로 북한의 권력엘리트 변동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로동신문에 등장하는 고위 엘리트의 등장빈도 및 추이를 살펴보는 것으로서 변동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1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의 로동신문 기사 중 엘리트의 이름이 거명된 768건의 기사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4년 8개월간의 추이를 분석하고 주석단 호명순위의 변동 그리고 주요 인물들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김정은 집권 초기에는 기존 엘리트들이 가까이 수행하는 특징을 보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당의 새롭고 젊은 인재들을 활용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의 수행원들은 점차 변화하고 있고, 2011년과 비교하면 최근에는 50.6%의 인물들이 바뀐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국가의 중대 행사에서 주석단으로 호명되는 20~30여 명의 최고위층들은 대부분 과거와 차이가 없다는 특징을 보인다. 요컨대 김정은 시기의 엘리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볼 때 북한의 엘리트들은 실무 수준에서 빈번한 변동이 있었지만, 최고위층에서는 제한적인 변화만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북한체제의 내구성 또는 혼란과 연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공간에서 중간층의 과거 인물들이 얼마나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확인해봐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주제어: 김정은, 권력엘리트, 현지지도, 수행, 로동신문, 변동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전략과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 거부권 행사자 이론의 관점에서

오 성 익(미 존스홉킨스대 국제정치학 박사)

Ⅰ. 서론
Ⅱ. 국제기구의 의사결정방식
Ⅲ. OSJD의 역사와 구조
Ⅳ. 한국의 OSJD 가입 노력과 한계
Ⅴ. 결론: 한국의 OSJD 가입을 위한 전략적 제언

국문요약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등 유라시아에 재연된 신거대게임의 흐름 속에서 구 동구권,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철도협력 규범을 제정하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OSJD 전반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 연구한 사례는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연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동구권 분야별 협력체제의 발생과정에서 OSJD의 성립과 1990년대 동구권의 개방과정에서 자체 개혁을 통한 OSJD 구조의 적응적 변화과정을 설명한다. 그리고 OSJD의 구조와 만장일치의 의사결정방식이 갖는 이론적 함의를 정리하고, 거부권 행사자 이론의 관점에서 한국의 OSJD 정회원 가입을 위한 대안을 비교하며 그 방안을 제시한다.

주제어: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거부권 행사자, 의사결정, 남북관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평화협상과 지역 국제기구의 역할

김 이 연(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강사)

Ⅰ. 서론
Ⅱ. 3자 개입에 관한 선행연구
Ⅲ. 평화협상에 관한 선행연구
Ⅳ. 수단 분쟁 및 평화협상
Ⅴ. 케냐 분쟁 및 평화협상
Ⅵ. 결론 및 시사점

국문요약

본 연구는 평화협상에서 지역 국제기구의 역할을 수단과 케냐의 분쟁을 중재한 IGAD와 AU의 사례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정치 이론가들은 국제기구가 평화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분쟁 중재자로서 지역 국제기구는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 IGAD의 협상을 담당한 써메이오와 AU의 중재를 주도한 아난은 서로 다른 전략을 사용했다. 써메이오는 언론과의 접촉을 멀리하고 시민단체의 참여를 배제한 반면, 아난은 언론을 통한 적극적인 정보 공유와 시민사회와의 연계로 협상의 투명성을 높여 더 이상의 잠재된 무력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했다. AU는 분쟁해결을 위해 분쟁이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고 국민단결과 통합을 촉진하여 분쟁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했으나, IGAD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응이 부족했다.

본 연구는 남북한이 지역 국제기구를 통해 평화협상을 진행할 경우, 중재자는 정부 지도자보다 국민들을 대변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장기적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언론과 시민단체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협상의 결과가 국민들에 의해 도출되었다는 정당성을 얻어 이행으로까지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함의를 제시한다.

주제어: 평화협상, 분쟁해결, 수단 분쟁과 포괄적 평화협정(CPA), 케냐 분쟁과 평화협상, 동아프리카 정부간개발기구(IGAD), 아프리카연합(AU)

그리스 채무드라마와 유로위기: 유로위기의 구조적 배경과 유럽연합의 위기 대응 변화

구 춘 권(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들어가는 말: 그리스 채무드라마
Ⅱ. 유로위기의 구조적 배경
Ⅲ. 유로위기에 대한 유럽연합의 대응 변화
Ⅳ. 나오는 말

국문요약

본 논문은 그리스 채무위기의 유럽적 차원, 즉 유로위기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킴으로써, 그리스의 위기가 그리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적 뿌리를 갖고 있음을 드러내려 한다. 즉 그리스 채무위기는 그리스 정부의 개혁 지연과 극도의 비효율성의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유로존의 구조적 불균형 및 구성적 모순과 무관하지 않다. 요컨대 그리스 채무드라마의 총체적 진실은 유로위기의 구조적 배경 및 위기에 대한 유럽연합의 대응 변화를 함께 고려할 때 제대로 밝혀질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다음의 두 가지 작업을 수행한다. 첫째, 유로위기의 구조적 배경에 대해 논의한다. 유로위기의 배경에는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세 가지의 구조적 측면, 즉 유럽연합의 금융시장 통합, 유로존의 구조적 불균형, 유럽연합이라는 초국적 국가성의 제도적 결함이 존재한다. 이 세 측면들은 오늘날 유럽통합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긴장과 딜레마이기도 하다. 둘째, 유로위기에 대한 유럽연합의 대응을 두 단계로 나누어 분석한다. 위기의 1단계에서는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은행에 대한 긴급구제와 경기부양 정책이 이루어졌고,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금융시장의 재규제가 논의되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위기의 2단계에 들어서면 금융위기가 재정위기로 전화하고, 유럽연합의 대응도 유로존의 안정화, 긴축정책의 공고화, 구조개혁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처럼 위기 대응이 변화하는 맥락을 이해한다면, 그리스와의 채무협상 과정에서 유럽연합이 보인 강경한 입장은 일관되며 논리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유로위기, 채무위기, 유럽통합, 유럽연합(EU), 유로존, 그리스

지역발전 격차론과 지역투표에 관한 탐색적 연구: 1988~2012년 총선의 선거구별 집합자료 분석

박 경 미(전북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Ⅰ. 서론
Ⅱ. 지역발전 격차론과 대칭적 지역투표
Ⅲ. 자료와 연구주제
Ⅳ. 선거구별 집합자료 분석
Ⅴ. 결론

국문요약

이 연구는 1988~2012년 총선의 선거구별 집합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발전 수준과 지역투표의 관계에 관한 분석을 통해 지역발전 격차론의 경험적 근거를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연구질문은 지역발전 수준이 높은 선거구와 낮은 선거구의 지역정당 지지에 차이가 있는가이다. 구체적인 연구주제는 첫째, 영·호남지역 선거구에서 지역정당 후보의 당선 결정에 지역발전 변수가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지역발전 변수가 영·호남 지역정당 소속 당선자의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영·호남 두 지역 소속 선거구에서 지역발전 격차에 따른 지역정당 지지에 차이가 있는가이다. 분석결과 영·호남지역의 지역투표에 미친 지역발전 변수의 영향은 유사하였지만, 영·호남지역 소속 선거구에서는 다른 영향을 미쳐 지역발전 격차론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지역발전, 지역투표, 영남, 호남, 선거구

동성결혼 합법화는 어떻게 가능하였는가?: 여론과 정당정치 그리고 연방주의

유 성 진(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조교수)

Ⅰ. 들어가는 말
Ⅱ. 미국사회에서 가치갈등과 정치적 분열 그리고 연방주의
Ⅲ. 동성결혼을 둘러싼 논란
Ⅳ. 동성결혼 합법화의 성공요인
Ⅴ. 맺는 말: 개인의 권리와 연방주의의 재정립

국문요약

이 글은 동성결혼 합법화를 둘러싼 미국사회의 논란과 합법화 과정, 그리고 그 원인을 고찰함으로써, 미국사회에서 가치갈등이 어떠한 담론을 중심으로 표출되고 종결되었는지 파악한다. 그 속에서 미국사회와 정당정치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다원주의가 어떠한 변모를 겪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미국사회의 대표적인 가치갈등 이슈 중 하나인 동성결혼 문제는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동성애 문제를 바라보는 미국사회 여론의 변화, 사회적 소수집단의 하나로 시민으로서의 권리보장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논쟁의 초점을 재편한 우호집단들의 노력,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이 이를 적극적으로 정치 쟁점화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낸 과정이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분열의 잠재성이 다분한 가치갈등 이슈를 통합의 이슈로 전환시키고 그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제도화하는 미국정치의 힘을 보여주는 것으로, 통합을 중요한 덕목으로 하는 미국 다원주의가 원활히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대의제민주주의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결국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미국사회를 지탱해온 개인주의와 다원성의 인정이라는 대원칙에 기반을 두어, 분열의 이슈를 어떻게 통합의 이슈로 치환할 수 있을지 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사회 구성원들에게 확산시킴으로써 해결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회 변화를 읽고 이를 적극적으로 정치 쟁점화함으로써 제도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정당과 정치행위자들의 역할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주제어: 동성결혼, 연방주의, 가치갈등, 대의제민주주의, 다원주의

내부 정체성 갈등과 외부 개입의 정치: 중동 민주주의 발전의 근원적 불안정성 고찰

김 강 석(한국외국어대 아랍어과 강사)

Ⅰ. 서론
Ⅱ. 예외주의 관점에서 본 중동 민주주의 발전의 한계
Ⅲ. 내부 정체성 갈등과 협의 민주주의 체제의 불안정성
Ⅳ. '신 중동 냉전'하에서의 외부 개입의 정치와 '아랍의 겨울'
Ⅴ. 결론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동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정치 불안정성의 근원으로 내부 정체성 갈등과 외부 개입의 정치현상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이 중동 정치변동 과정에서 불안정을 초래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 정체성 갈등은 중동 민주주의의 대안으로 간주되는 협의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정치 불안정을 야기한다. 이는 정치 지도자가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정체성 요소를 강조하면서 정부 구성 및 정책결정 과정에서 포괄성을 상실함으로써 나타난다. 상이한 정체성을 보유한 공동체 간의 권력분점 구조 창출 실패는 권력에서 배제된 집단들의 정권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면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된다.

둘째, 아랍의 봄 전개 과정에서 국가 혹은 비국가 행위자들의 타국 정치에 대한 개입은 신 중동 냉전의 관점에서 불안정을 심화시킨다. 오늘날 중동 정치지형은 종파주의 정체성 갈등 고조, 외부 정치 행위자들의 국내정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영향력 경쟁 심화, 그리고 정치적 위협의 중요성 증가라는 측면에서 냉전 시기와 유사한 속성을 갖는다. 이러한 신 냉전 구도 형성하에서의 외부 개입의 정치는 국가 내부 집단 간 제로섬적 무력 충돌 및 국가 통제력의 상실을 유발한다.

따라서 중동 정치 안정화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정치적 해결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협의 민주주의, 정체성 갈등, 외부 정치개입, 아랍의 봄, 정치 불안정

『야만의 경영』을 넘어: IS의 이슬람국가와 지하드

박 현 도(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인문한국(HK)연구교수)

Ⅰ. 들어가는 글
Ⅱ. 이슬람국가
Ⅲ. 지하드
Ⅳ. 마치는 글: 연구의 한계와 IS 테러의 파장

국문요약

신원미상인 아부 바크르 나지가 쓴 『야만의 경영(*Idārat al-Tawaḥḥush*)』은 2004년 PDF로 제작되어 온라인상에서 유통된 지하드 전사들의 필독서로, 이슬람국가 건설 지침서이다. IS(이슬람국가) 역시 이를 단체의 공식 학습과정에 포함하였다.

이 논문은 나지의 책 『야만의 경영』과 IS의 기관지 『다비끄(*Dabiq*)』를 비교한다. 이를 통해, IS가 나지의 이슬람국가 건설 3단계론을 보다 명료하게 5단계론으로 발전시켰고, 이슬람 전통의 전쟁수칙을 중시하라는 나지의 가르침과 달리 타크피르(*takfīr*) 개념과 종말론을 통해 시아에 대한 폭력을 자행함으로써 새로운 테러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을 밝힌다.

주제어: 『야만의 경영』, 『다비끄』, 아부 바크르 나지, 이슬람국가, 지하드, 타크피르, 시아

이란 핵협상 타결과 북한 핵문제: 오바마의 적대국 관여외교와 한반도 통일문제

황 지 환(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부교수)

Ⅰ. 머리말
Ⅱ. 오바마의 적대국 관여외교
Ⅲ. 이란 핵문제의 과정과 협상 타결
Ⅳ. 이란 핵문제와 북한 핵문제의 유사성
Ⅴ. 이란 핵합의와 북한 핵문제의 차이점
Ⅵ. 북한 핵문제 해결 모델과 한반도 통일

국문요약

2015년 7월 타결된 이란 핵협상은 북한 핵문제를 바라보는 한국 국민들에게 많은 아쉬움을 느끼게 했다. 이란이 국제사회와 핵문제 합의를 이루어낸 반면, 북한은 2016년 1월 4차 핵실험을 감행하며 국제사회와의 대결구도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왜 이란 핵문제는 타결시키면서 북한과는 핵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했는가? 적대국 관여외교를 펼친 오바마에게도 왜 북한은 예외적인 모습으로 남겨졌으며, 북미관계는 왜 개선되지 못했는가?

이 글은 오바마의 적대국 관여외교의 관점에서 이란 핵협상 타결을 살펴보고, 이것이 북한 핵문제에 주는 함의를 분석한다. 결국 북한 핵문제의 해결은 이란 모델을 통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북한 핵문제 해결 모델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법과 프레임 구성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북한 핵문제를 넘어서 북한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중요하다. 북한체제가 핵무기를 보유하며 생존하는 한 한반도 통일 역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는 통일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수일 수밖에 없다.

주제어: 이란 핵협상, 북한 핵, 오바마, 적대국 관여외교, 통일

시리아 난민사태:
인도적 위기의 안보적 접근과 분열된 정치적 대응

이 신 화(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서론
Ⅱ. 세계 난민위기의 현황 및 특징
Ⅲ. 시리아 내전과 난민사태의 현황 및 특징
Ⅳ. 대량 난민유입과 유럽요새화 정책
Ⅴ. 결론

국문요약

중동과 아프리카로부터의 대규모 난민유입으로 최악의 난민사태에 직면한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반이민정서, 이슬람 혐오증이 커지고 있다. 난민에 대한 외면은 단기적으로 자국의 사회안정을 도모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더욱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을 자초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난민문제가 안보위협이 될 가능성을 규명함으로써 인도주의적 관점뿐 아니라 현실정치(realpolitik)의 측면에서도 난민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 재고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시리아 난민위기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분열된 정치적·안보적 대응양상을 고찰한다. 이를 통해 국가들이 어떻게 인도주의적 중심의 접근법과 국가(사회) 안보적 접근법 간의 균형점을 찾아 난민문제의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지 논하고자 한다.

주제어: 시리아 난민사태, 인도적 위기의 안보화, 분열된 정치대응, 불공평한 책임부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두 국가 해결론(Two-State Solution)'에 대한 고찰

안 승 훈(건국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Ⅰ. 서론
Ⅱ. 오슬로 평화협정 이후 평화협상의 전개와 과정
Ⅲ. 두 국가 해결론의 주요 내용
Ⅳ. 두 국가 해결론의 주요 대안
Ⅴ. 결론: 동상이몽이 아닌 동상동몽의 평화를 위해

국문요약

본 논문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한 해결 대안들을 고찰하고 각 대안의 성격과 정치적 함의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해결방안으로는 두 국가 해결론, 두 민족 일 국가론, 지역 통합론, 일방주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중 '두 국가 해결론'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최선의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핵심 현안들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사장되어 가고 있다. 특히 1993년부터 시작된 오슬로 평화협상은 2000년 캠프 데이비드 협상의 실패와 2001년 제2차 인티파다의 발발로 인한 유혈분쟁 등으로 팔레스타인의 최종 지위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결국 붕괴하였다. 이후 평화 해법으로 소개된 다양한 대안들은 각 진영의 정치적 명분과 논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제시되었거나 주장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 국가론의 정치적 대안으로서의 실현 가능성뿐만 아니라 다른 대안들이 각각 어떠한 역사적 근거와 정치적 논리로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결론에서는 두 국가론이 실현 가능성에 있어 많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해결에 있어 최종 대안으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오슬로 평화협상, 두 국가 해결론, 이스라엘 안보, 팔레스타인 독립

이란–사우디아라비아 관계: 결정요인과 전개방향

유 흥 태(영국 SOAS, 런던대 방문학자)
한 인 택(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Ⅰ. 이란 핵협상 타결의 역설
Ⅱ. 이란-사우디아라비아 관계의 결정요인
Ⅲ. 이란-사우디아라비아 관계의 전개방향
Ⅳ. 결론

국문요약

핵협상의 타결로 이란의 핵위협이 감소하고 이란의 대외관계도 개선되고 있으나, 이란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위협인식은 오히려 심화되고 이란–사우디아라비아 관계도 악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통상적인 설명은 세력전이나 종파갈등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안적인 설명으로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가 대내적·대외적으로 안전을 보장해온 방식이 최근 들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대국가'로서 석유수입을 통해 국내체제를 유지하였으며, '안보외주국가'로서 외국 세력을 통해 자국의 영토와 주권을 보호하였다. 그러나 아랍의 봄과 유가 하락 이후 지대를 통한 국내체제 유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수호자 역할을 해온 미국이 중동에서 빠져나가고 있어서 유사시 안전을 보장받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변화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의 부상이나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내부적 위기를 외부적 갈등을 조장하여 해소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이며, 그 연장선상에서 이란과의 갈등을 고조시키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이란 강경노선은 완화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 새로 교체된 사우디아라비아 왕가의 왕권과 후계구도가 안정을 되찾고, 이란의 로하니 중도파 정부가 지속적으로 정국을 주도하게 되면, 이란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접근방식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주제어: 이란–사우디아라비아 관계, 세력전이, 종파갈등, 지대국가, 안보외주 국가

미국과 러시아의 대(對)중동정책 변화 고찰: 오바마와 푸틴 정부의 지정학적 중동전략을 중심으로

인 남 식(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Ⅰ. 들어가는 글: 지정학적 논점
Ⅱ. 오바마의 대중동정책: 인식론적 변화 및 역내 균형 추구
Ⅲ. 푸틴의 대중동정책: 시리아 사태 적극개입을 통한 세력 확장
Ⅳ. 마치는 글: 미 · 러 중동정책의 지정학적 함의

국문요약

중동을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지정학적 접근은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전 정부의 일방주의적 대중동정책을 대체하는 노선을 택했다. 이른바 '비폭력적 다원주의'로, 대량파괴무기와 테러리즘과의 연계만 없다면 어떤 정부든 함께 하겠다는 노선이다. 직접 민주주의를 이식하는 대신 중재적 개입을 통해 균형자 역할을 하려 한다. 여기에는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다자주의 우선의 지향점이 담겨있다. 한편 러시아는 중동을 새로운 영향력 확대의 공간으로 상정한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로 수세에 몰린 푸틴 정부는 유럽의 발트지역 및 중동에서의 존재감 고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이 중동에서 최소개입 기조를 유지하며 역외 균형자 역할을 하려는 반면, 러시아는 적극적 개입을 통한 세력 확장을 시도한다.

이 지점에서 양국의 지정학적 대중동 접근은 명확히 분기한다. 미국은 1979년 호메이니 혁명 이전의 역학관계, 즉 역내 주요 국가 간의 세력균형을 추구한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및 이스라엘 간 반공블록의 협력구도를 21세기에 재현하려는 것이다. 반면 러시아는 이란이 핵협상 타결 이후 1979년 이전의 대미관계로 회귀하는 것을 막고, 오히려 시아파 종파갈등의 진영론을 극대화하여 반미연대를 선명하게 구축하려 한다. 두 역외 세력의 중동전략은 중동지역의 미래 정치 질서가 신냉전구도의 진영론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역동적 균형상태로 안정화되어갈 것인지를 가늠하는 독립변수가 될 수 있다.

주제어: 지정학, 중동정책, 시리아, 오바마, 푸틴

한반도 문제의 해결방법에 관한 제도주의적 접근

김 학 성(충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문제 제기
Ⅱ. 제도주의적 접근의 특징과 방법론적 유용성
Ⅲ. 한반도 문제의 제도주의적 이해
Ⅳ. 제도주의적 문제해결 모델 모색
Ⅴ. 맺음말

국문요약

지금까지 한국 대북·통일정책의 소박한 성과에서 보듯이, 행위이론에 의존하는 기존의 접근방법으로는 구조적 복합성을 띠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를 감안하여, 본 논문은 행위와 구조의 상관성에 주목하는 제도주의를 기반으로 한반도 문제의 분석과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신제도주의 이론을 한반도 문제에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유용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이어서 한반도 문제의 구조 및 해결과제들을 신제도주의적 시각으로 설명 또는 재해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도주의적 분석모델을 제시한다. 이 모델은 향후 한반도 문제해결과 관련된 연구나 정책대안의 모색과정에서 종합적인 판단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한반도 문제의 구조, 행위이론, 신제도주의, 제도주의적 접근

카터 행정부기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3자회담

홍 석 률(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Ⅰ. 머리말
Ⅱ. 3자회담의 배경과 제안 과정
Ⅲ. 3자회담에 대한 당사국의 입장과 대응 양상
Ⅳ. 맺음말

국문요약

본 연구는 다양한 아카이브 자료의 비교분석을 통해, 3자회담 제안을 둘러싼 관련국들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였다. 3자회담은 기본적으로 미국 카터 대통령이 주도했고, 1977년과 1978년에도 한미 간에 회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카터는 주한미군 철수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을 위해 3자회담을 추진했다. 카터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남북한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만 미국이 남북대화를 매개 내지 촉진하는 차원에서 3자회담을 제안하였다. 한국정부는 애초 3자회담을 자신에게 매우 위험한 구도라 보고, 거듭 반대하였다. 그러나 1979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를 전격 수락하면서, 3자회담을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연계시켰다. 한국정부의 3자회담 수락은 기본적으로 카터 행정부가 회담 과정에서 한국정부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보여주었기에 가능하였다. 반면 북한은 자신의 동맹국 소련의 태도를 의심했고, 3자회담으로는 미국정부가 북한의 국가적 존재를 승인하는 효과도 적다고 판단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사례 분석을 통해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을 활용하여 한반도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고의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각국 정상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3자회담, 박정희, 카터, 한미관계, 북미관계

북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과 대응: 북한의 제1~4차 핵실험을 중심으로

박 정 민(북한대학원대 부교수)

Ⅰ. 머리말
Ⅱ. 북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과 대응에 미치는 요인
Ⅲ. 북한의 핵실험과 '적극적 중재자'로서 러시아의 대응
Ⅳ. 북핵문제에 대한 향후 러시아의 대응 전망
Ⅴ. 맺음말

국문요약

러시아는 북핵문제가 국제적 쟁점으로 부각된 1990년대 초반을 제외하고는 자국의 입장과 이익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러시아의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핵문제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보여왔다. 북핵문제 그 자체보다는 이 문제를 통해 동북아 역내질서 구축에서 러시아의 역할과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 둘째, 미국의 패권주의와 일방주의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북핵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적 차원에서는 중국과의 제휴를 통해 미국을 견제하려는 균형전략을 취해왔다. 셋째,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면서도, 제재를 통한 대북압박보다 다자 간 문제해결을 주장하는 등 이중적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러시아의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러시아가 북핵문제가 위기로 치닫는 것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게 여긴다는 점이다. 또한 다자 간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러시아의 분명한 입장이다. 이는 앞으로도 러시아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방관자 내지 주변국으로 남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더욱이 북한을 제외한 동북아 역내 이해 당사자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한, 러시아 역시 이에 동참하면서 자국의 영향력 제고와 이익을 도모할 것이다.

주제어: 러시아, 북핵문제, 북핵위기, 대북제재, 이중적 전략

민주화 이후 정권변동에 따른 복지정책의 변화

이 정 진(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전임연구원)

Ⅰ. 서론
Ⅱ.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
Ⅲ.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
Ⅳ.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
Ⅴ.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Ⅵ. 정권별 복지정책 비교 및 결론

국문요약

한국의 복지정책은 경제발전과 더불어 민주주의의 공고화 과정에서 국가의 주요 정책들 가운데 점차 그 비중이 높아졌으며, 이제는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의 하나가 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정권변동이 복지정책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시기는 진보적 세력이 집권한 김대중·노무현 정부, 그리고 다시 보수적 세력이 등장한 이명박·박근혜 정부까지다.

분석 결과 몇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첫째, 한국의 주요 정당들은 경제발전과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선거에서의 경쟁 때문에 복지공약에서 차이가 줄었다. 둘째, 실제 복지정책 집행에서 진보정부는 소득보장형 복지지출을, 보수정부는 생활보장형 복지지출을 선호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즉 공약은 수렴하더라도, 집권 후 진보와 보수 정권 간에는 복지정책 실행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부분적으로 경제위기 같은 국제적 환경변화가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쳤고, 이는 국내 복지정책의 노선을 강화하거나 수정할 수도 있음을 발견하였다.

주제어: 선거공약, 소득보장형 복지정책, 생활보장형 복지정책, 정권변동, 경제위기

국회의 이민정책 결정과 정당정치: 제18대 국회를 중심으로

설 동 훈(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전 진 영(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Ⅰ. 문제 제기
Ⅱ. 이론적 논의와 연구방법
Ⅲ. 정당별 이민정책 관심도 차이: 법안발의 분석
Ⅳ. 이민정책을 둘러싼 합의와 갈등: 본회의 표결분석
Ⅴ. 토의: 왜 한국의 정당들은 이민정책에서 분화된 목소리를 내지 않는가?

국문요약

한국에서 외국인근로자나 결혼이민자 등 이민인구가 증가하면서 국회는 다문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을 의결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제18대 국회에서 이민정책 관련 법안의 개정을 중심으로 이민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원내정당 간 정책선호에 차이가 있는지를 본회의 표결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하는 데 있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이민정책 관련 법안은 높은 찬성률로 의결되어 원내정당 간 정책선호에서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그 이유는 이민자에 대한 지원 및 복지 등 이민자통합에 초점을 맞춘 이민정책, 이민자 지원에 우호적인 여론, 중도에 치우친 원내정당의 정치적 스펙트럼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연구 대상 법안 중 원내정당 간 정책선호 차이가 발견된 것으로, 외국인 출입국 시 지문과 안면정보 제공을 의무화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있다. 통계분석 결과, 두 법안에 대한 표결에서 국회의원의 소속정당과 이념성향, 선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법안 모두 야당인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반대투표가 두드러졌고, 보수적인 의원일수록 찬성투표를 하였다. 요컨대, 대한민국 국회의 이민정책 결정과정에서 원내정당 간 정책선호는 상당히 수렴되어 있으며, 외국인 인권문제와 같이 이슈의 현시성이 두드러진 경우에만 정당 간 입장 차이가 드러난다.

주제어: 이민정책, 다문화사회, 입법과정, 본회의 표결, 정당정치

‘좋은 정부’ 인식의 구성요소: ‘정부의 질’ 속성을 중심으로

황 아 란(부산대 공공정책학부 교수)
이 지 호(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전임연구원)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방법
Ⅳ. 분석 결과
Ⅴ. 요약 및 논의

국문요약

이 연구는 한국 국민 사이에 형성된 정부 인식의 구성적 특징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 국민들이 인식하는 ‘좋은 정부’의 개념이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정부의 질’ 구성요소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규명하였다.

경험 분석의 결과, 한국 국민의 좋은 정부 인식에는 투입 차원의 민주성(반응성), 집행 차원의 공정성, 그리고 산출 차원의 효율성 등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온 정부의 질의 주요 속성들이 다차원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안전’에 대한 정부 수행의 평가가 한국 국민의 정부 인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효율성 또한 정부 평가의 우선적인 가치라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는 한국 국민 사이에 나타나는 정부 인식의 구성적 특징을 시사하며, 한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쏟아야 하고, 정책결정에서의 민주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주제어: 좋은 정부, 정부의 질, 안전, 복지, 법치, 반응성, 공정성, 효율성

미국의 미사일방어정책: 역사적 고찰과 전략적 함의

이 수 형(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Ⅰ. 서론
Ⅱ. 미사일방어정책의 기원과 전개
Ⅲ. 유럽과 아·태 지역에서의 미사일방어정책
Ⅳ. 미사일방어정책의 전략적 함의
Ⅴ. 결론

국문요약

이 글의 목적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정책의 흐름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가운데 9.11 테러 이후 유럽과 아·태 지역에 대한 정책 추진 현황과 그 전략적 함의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미국은 유럽과 아·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여 동맹국과 우방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궁극적으로 이를 미국 본토방위와 연계시키는 지구적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국의 미사일방어정책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지역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이 내포하는 전략적 함의는 크게 재균형 전략과의 연계 및 동맹 네트워크의 구조화 측면을 들 수 있다. 나토 차원에서 진행 중인 유럽 지역에 대한 미사일방어체계의 전략적 의도는 유럽 주둔 미국의 군사력을 축소하면서도, 미사일방어체계를 통해 나토의 전통적인 집단방위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나토의 위상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한편, 아·태 지역에 대한 미사일방어정책의 전략적 함의는 미사일방어체계를 정점으로 펼쳐지는 동맹 네트워크의 구조화를 기획하고 있다. 동맹 네트워크의 구조화는 아·태 지역의 쌍무적 동맹구조를 적어도 기능적 측면에서 하나의 통합된 동맹구조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미국의 정책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제어: 미사일방어정책, 유럽에서의 단계별 적응적 접근방법(EPAA), 아·태 지역에서의 단계별 적응적 접근방법(APPAA), 재균형 전략, 동맹 네트워크의 구조화

한국의 안보와 사드(THAAD)

박 건 영(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Ⅰ. 연구 목적
Ⅱ. 사드의 '전면전 가정'의 현실성
Ⅲ. 사드 배치와 한국의 국가이익
Ⅳ. 전략적-실용주의의 대안
Ⅴ. 맺음

국문요약

한국과 미국의 사드 배치 결정은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을 가정한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가정이 갖는 현실성은 낮으며, 우발적 요인에 의한 전면전이 발발한 경우에도 사드의 군사적 효율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한다. 오히려 한국은 북한의 위협이나 도발이 전면전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확충하고, 전면전 비화 시를 상정하여 보다 효율적 방어체계를 갖추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나아가, 필자는 국제정치적·경제적 '비용대 편익' 분석에 기초하여, 사드 배치가 오히려 한국의 안보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필자는, 한국의 외교장관이 언급했듯이, "고난도 외교 사안의 고차방정식에 대해 1·2차원적으로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다차원의 요인들을 시의적으로 결합한 '전략적–실용주의'의 '역동적 패키지'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주제어: 사드(THAAD), 재균형,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적–실용주의, 적극적 안전보장, 전략적 모호성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쟁과 평가기준: 전문가 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최 영 미(전남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곽 태 환(미 이스턴켄터키대 정치학과 명예교수)

Ⅰ. 서론
Ⅱ. 한반도 사드 배치의 평가기준
Ⅲ. 연구방법
Ⅳ.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반도 사드 배치의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사드 배치에 관한 정책적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사드 배치의 4개 평가기준, ① 북핵 위협, ② 사드의 실효성, ③ 대외관계 영향, ④ 남북관계 및 통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북한 및 동북아 안보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경험적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현 한국사회는 정치적 이념에 따라 사드 배치에 대한 극명한 이견을 나타내고 있음이 경험적으로 증명되었다. 특히 4개 평가기준 중 사드의 실효성에 대해 가장 극명한 이견을 보이며, 그중 비용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큰 갈등을 보인다. 둘째, 사드 배치가 한미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정치적 이념 간 소소한 차이를 보인 반면,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한국정부가 고려해야 할 일차적 사항은 사드의 실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사드 배치로 인한 국내외적 오인요소들의 차단임을 제안하는 바이다.

주제어: 한반도 사드 배치, 동아시아 미중경쟁, 한미동맹, 한중관계, 남북관계

대북 경제제재의 실효성 분석: 식량지원 중단을 중심으로

허 재 영(연세대 대학원 정치학과 BK21플러스 박사후연구원)
정 진 문(미 미주리대 정치학과 박사과정)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대북 경제제재의 현황
Ⅳ. 대북 경제제재의 성과와 한계
Ⅴ. 결론

국문요약

2006년 1차 북한 핵실험으로 북핵문제가 발생한지 10년이 지났다. 총 다섯 차례의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는 UN 안보리 결의안을 통한 경제제재와 개별 국가들이 경제적 지원과 무역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이 중단되면서 북한은 이전보다 더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연구는 식량지원 중단을 경제제재의 하나로 파악하고, 그 영향을 경제적 손실부과 단계와 정치적 행동변화 단계로 나누어 살펴본다. 또한, 식량수급면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원인을 북한체제와 관련된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 압력문제, 그리고 제재국과 북한의 관계와 관련된 북한 지도부의 비용-편익 계산을 분석함으로써 밝혀내고 있다.

주제어: 경제제재, 식량지원, 북핵, 대북정책, UN 안보리 결의안

OECD 국가의 내부자-외부자 정치와 세대: 사회정책 선호와 정부당파성 효과

박 연 수(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권 혁 용(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서론
Ⅱ. 청년실업률의 추이와 패턴
Ⅲ. 정책선호: 세대 간 노동시장정책/고용보호정책 선호
Ⅳ. 선호에서 정책으로: 정부당파성 효과
Ⅴ. 결론

국문요약

이 논문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노동시장정책 및 고용보호정책에 대한 대중의 선호와 정부당파성 효과를 분석한다. 특히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 노동시장 이중화가 심해지면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노동시장 내부자-외부자 정치 모델을 제시한 루에다의 논의에 세대 간 차이라는 새로운 차원을 접목시킨다.

이 논문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및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해 청년층 외부자가 중장년층 외부자에 비해 정책선호가 더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을 제시한다. 또한 전체 인구에서 청년층 비율이 높을수록 좌파정부 당파성 효과는 감소하거나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한다. 이러한 이론적 주장 및 가설은 설문자료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미시적 정책선호의 차이를 발견하고, 국가-연도 수준의 패널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거시적 정책결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경험적으로 뒷받침된다.

주제어: 정부당파성, 노동시장 이중화, 노동시장정책, 고용보호정책, 세대

정당의 정치사회화 기능에 관한 탐색적 연구: 동 · 서독 출신의 정당일체감과 정치적 태도

박 경 미(전북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Ⅰ. 서론
Ⅱ. 논의의 배경
Ⅲ. 분석 자료와 변수
Ⅳ. 정치사회화에 의한 정치적 태도
Ⅴ. 결론

국문요약

이 연구는 정당의 정치사회화 기능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찾고자 하는 목적으로 독일 동·서독 출신의 정치적 태도를 비교, 분석한다. 이 연구의 질문은 정당의 정치사회화 기능에 경험적 근거가 있는지, 정당에 의한 정치사회화가 정치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정당일체감을 갖는 유권자는 그렇지 않은 유권자와 다른 정치적 태도를 보이는지이다. 동·서독 출신에게 정치체제에 의한 정치사회화가 내재되어 있다고 가정하며, 정당에 의한 정치사회화는 정당일체감을 대리변수로 하여 분석한다.

분석 결과, 정당의 정치사회화 기능이 정치적 인식에 제한적이지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동·서독 출신의 체제 만족도나 정부에 대한 태도에까지 영향을 미쳐 그 차이를 줄이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다양한 입장을 갖는 유권자나 새로이 편입된 국외자에게 정당이 정치사회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르는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할만한 경험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주제어: 정당, 정치사회화, 정당일체감, 정치적 태도, 독일

탈냉전기 미국과 중국의 국제정치적 영향력 변화에 관한 실증분석

김 상 기(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Ⅰ. 서론
Ⅱ. 미국과 중국의 국제정치적 영향력 변화의 요인
Ⅲ. 연구 설계 및 자료
Ⅳ. 연구 결과
Ⅴ. 결론 및 함의

국문요약

탈냉전기 미국과 중국의 국제정치적 영향력 변화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구조적 요인과 행위자적 요인이 미국 또는 중국과 비강대국 간 외교정책 선호 유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탈냉전기 미국과 중국의 국제정치적 영향력 변화를 설명한다. 1991~2007년 유엔총회 투표 자료를 이용한 통계분석의 결과는 미국의 국제정치적 영향력 약화 추세의 주요 원인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국제구조 변화이며,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 증대는 미국의 힘의 상대적 약화로 인해 촉진된다는 것을 설명한다. 행위자적 요인으로서 미국의 원조는 수원국의 미국과의 외교정책 선호 유사도를 증가시키며, 중국과의 유사도는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는 미국의 원조가 자신의 국제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경험적 발견은 미국 패권의 상대적 쇠퇴 추세를 설명함과 동시에 비강대국의 외교정책 자율성의 확장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미중 간의 경쟁을 고려할 때, 원조의 효과가 수원국의 외교정책 자율성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제어: 미국 패권, 중국의 부상, 헤징, 원조, 영향력, 외교정책 선호 유사도

분점정부와 법안흥정: 일본의 사례, 1986~2009

김 정(북한대학원대 조교수)

Ⅰ. 서론
Ⅱ. 분점정부와 법안흥정: 이론 모형
Ⅲ. 분점정부와 법안흥정: 경험 모형
Ⅳ. 결론

국문요약

본 연구는 분점정부가 입법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일본의 사례를 통해 해명하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분점정부를 집권당과 주축 반대당이 정책양보와 입법연합을 교환하는 하나의 흥정게임으로 모형화하여 그 정책효과를 가늠한다. 집권당과 주축 반대당 사이의 정책 불일치의 수준과 두 정당이 법안흥정에 나서는 헌정체제의 상이한 맥락에 따라 분점정부의 입법효과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경험적 분석의 결과는 집권당과 주축 반대당 사이의 정책거리가 멀수록 법안가결 가능성은 낮아지고 법안폐기 가능성은 높아진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또한 의회제 헌정체제에서는, 대통령제 헌정체제에서와 비교하여, 집권당과 주축 반대당 사이의 정책거리가 멀수록 법안수정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주제어: 분점정부, 법안흥정, 흥정게임이론, 경합위험 사건사 분석, 일본

일본 포퓰리스트 극우정당의 약진과 한계: 일본 유신회를 중심으로

조 재 욱(경남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Ⅰ. 머리말
Ⅱ. 이론적 논의: 포퓰리스트 극우정당의 개념 및 발흥 요인 검토
Ⅲ. 일본 사회의 극우정당 등장
Ⅳ. 일본 유신회의 국회진출 요인
Ⅴ. 일본 유신회의 몰락과 재부상 가능성: 맺음말을 대신하여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유신회(日本維新の)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본 포퓰리스트 극우정당의 약진과 한계를 분석하는 데 있다. 특히 일본 유신회 분석을 위해 하시모토 도루(橋下徹)라는 개인 정치인을 면면히 살펴보고자 한다. 하시모토는 일본 유신회의 창당 및 약진 그리고 해산 과정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일본 유신회가 부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성 정치 및 정당에 대한 불신 속에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한 유권자들의 갈망과, 지방정치인으로서 가시적인 개혁성과를 보인 하시모토의 리더십에 대한 기대와 함께, 오사카라는 탄탄한 정치적 지역기반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성 정치에 대한 불만을 잠재운 것은 하시모토의 새로운 비전의 정치적 리더십이 아니라 포용적 포퓰리스트 리더십이었다. 포퓰리스트 리더 전략은 자신의 정치적 지지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장점과 지지기반을 급속히 상실할 수 있는 단점을 동시에 가진다. 결국 하시모토 개인의 지지급락은 일본 유신회의 지지철회로 이어졌다. 개인의 인기를 기반으로 한 정당의 1인 통치 지배구조는 정당정치의 한계를 유도할 수밖에 없다.

주제어: 일본 유신회(日本維新の),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포퓰리스트 리더십, 극우정당, 중의원 선거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분쟁 가능성에 대한 연구: 군사전략 분석을 중심으로

김 대 성(합동참모본부, 군사학 박사)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군사전략과 재래식 억제
Ⅲ. 중국의 '적극방어' 전략과 군사력 현대화: 소모전 전략의 추구
Ⅳ. 미국의 '합동작전접근개념'과 군사력 재배치: 전격전 전략의 추구
Ⅴ. 결론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재래식 억제 이론을 통해 미국과 중국의 군사전략을 분석하여, 향후 동아시아에서 미-중 간 군사적 분쟁 가능성을 예측하였다. 재래식 억제 측면에서, 중국은 미국의 전력투사를 억제하기 위해 종심 깊은 방어를 통해 많은 손실을 강요하는, 적극방어 전략과 A2/AD 전략으로 대표되는 소모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단기간에 적의 방어를 무력화하고 손실의 최소화를 통해 안정된 전력투사 여건을 조성하여 승리를 추구하는, 공해전투와 합동작전접근개념으로 대표되는 전격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양국의 군사전략 분석을 통해 향후 미-중 간 군사적 분쟁 가능성을 예측해보면, 재래식 억제 측면에서 '전격전 전략 vs 소모전 전략' 대결구도의 성립에 따라 억제가 달성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이 구도가 지속된다면, 당분간 동아시아에서 미-중 간 군사적 분쟁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미-중관계, 재래식 억제, 전격전 전략, 소모전 전략, 반접근/지역거부(A2/AD), 공해전투, 합동작전접근개념(JOAC)

북한 '수령권력'체제의 생성과 메커니즘

최 경 희(한양대 현대한국연구소 연구위원)

Ⅰ. 서론
Ⅱ. 수령권력체제의 형성
Ⅲ. 수령권력체제의 실제
Ⅳ. 수령권력과 세습체계
Ⅴ. 결론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수령권력'체제의 구조와 사상체계, 영도체계, 세습체계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는 것이다. 수령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만큼, 수령 김일성이 부정되는 경우 북한체제에 균열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의식으로 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절대적 존재로서 수령의 지위는 계승되지 않는다. 이는 김일성의 고유 영역이며, 과거,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정통성의 기반이 된다. 북한은 이를 유일사상체계라고 한다. 둘째, 수령 개념의 일부분인 영도적 역할만 후계자에 이양된다. 유일적 영도는 양자 지휘권의 통일을 의미하며 세습되는 권력체계로, 김정일김정은 모두 영도자로서 통치한다. 북한은 이를 영도체계라고 한다. 셋째, 충실성은 후계자만의 고유 영역이다. 이는 후계자 자질의 첫 번째 요건으로 수령 범주에의 종속을 의미하며, 유일적 영도체계로서 후계자, 당, 대중의 통일적 영역이 된다. 북한은 이를 세습체계(계승성)라고 한다.

북한은 현재 1인칭 사용 시 김일성을 '위대한 수령,' 김정일을 '위대한 장군,' 김정은을 '위대한 원수'라고 칭한다. 정책원칙은 수령님의 교시로, 정책집행과 방침의 토대인 김정일과 김정은의 어록은 각각 장군님과 원수님의 말씀으로서 교시와는 구별된다. 인간 김일성은 죽었으나 수령 김일성은 영생하며, 김정일김정은 시대에도 북한체제를 견인하는 중심으로서 국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수령권력체제, 사회정치적 생명체, 북한체제

유로자본주의의 형성과 독일모델의 재편

구 춘 권(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들어가는 말
Ⅱ. 유럽통합의 심화와 유로자본주의의 형성
Ⅲ. 유로자본주의와 독일모델의 재편
Ⅳ. 나오는 말

국문요약

본 논문은 21세기 독일모델의 변화를 유로자본주의의 형성이라는 자본주의 공간의 근본적인 재편과 연계해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본 논문은 독일의 변신이 가능했던 이유를 유럽통합의 심화와 유로자본주의의 출현이라는 거시적 구조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탐색할 것이다. 21세기 독일모델의 성공은 유로자본주의라는 생산시장화폐금융 영역에서 자본주의 공간의 근본적인 재편을 논의하지 않고는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이 본 논문의 출발점이다.

본 논문은 다음의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한다. 첫째, 유럽통합의 단계적 심화를 매개로 유로자본주의의 형성과정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국민국가적 축적체제, 유로자본주의, 지구적 정치경제의 관계에 대해 주의를 환기한 후, 유럽통합의 주요 프로젝트들, 즉 단일시장, 단일화폐, 금융시장 통합이 어떻게 유로자본주의라는 새로운 공동의 자본주의 공간을 형성하였는지 추적하며 재구성한다. 유로자본주의의 특징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둘째, 유럽통합의 심화와 유로자본주의의 형성과정에서 독일모델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한다. 생산입지논쟁과 민영화, '노동을 위한 동맹'과 하르츠 개혁, 유로존 아래서의 임금억제 등이 유럽통합과의 연계하에 조명될 것이다. 독일은 임금억제와 재정긴축 등의 내부적 평가절하를 통해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매우 공격적인 수출에 성공했고, 막대한 무역흑자를 내고 있다. 그러나 독일모델의 성공이 유로자본주의를 심각한 불균형으로 이끌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주제어: 독일, 독일모델, 유럽통합, 유럽연합, 유로존, 유로자본주의

중국의 부상, 세계질서의 위기, 그리고 동아시아: 한국의 전략

김 태 현(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

Ⅰ. 서론
Ⅱ. 세계질서의 위기 (1): "지정학의 귀환"
Ⅲ. 세계질서의 위기 (2): "자유주의 세계질서의 붕괴"
Ⅳ. 위기담론의 평가와 동아시아
Ⅴ. 결론: 한국의 전략

국문요약

중국의 부상과 함께 세계적 차원에서 강대국 간 권력투쟁, 권력투쟁의 군사화, 약소국의 객체화를 특징으로 하는 권력정치의 재현을 경고하는 담론이 무성하다. 그것이 민주주의, 권위주의 국가를 막론하고 나타나는 배타적 민족주의의 추세와 맞물려, 21세기 국제정치의 암울한 미래를 점치는 위기담론도 있다. 이러한 위기담론은 한편으로는 위정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경고로서의 성격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21세기 세계질서의 편중성, 즉 미국의 압도적 위세와 과학기술의 혁명적 진보 속에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과도한 진척에 대한 국제정치적 국내정치적 자기조정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지나치게 경동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중국의 부상이 일어나고 있는 지리적 위치가 동아시아고, 또한 북한의 군사적 도전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도전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이러한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는 전략적 지혜와 국가전략의 개발이 필요하다.

주제어: 미국, 중국, 동아시아, 권력정치, 세력균형, 자유주의 세계질서, 안보딜레마

중국의 부상과 지정학의 귀환

이 호 철(인천대 중국학술원 소장/교수)

Ⅰ. 중국의 부상과 지정학의 귀환?
Ⅱ. 일대일로의 지정학
Ⅲ. 남중국해의 재균형과 역균형
Ⅳ. 재균형의 지정학
Ⅴ. 지정학과 질서구축

국문요약

중국의 부상과 강대국으로의 등장은 아시아에서의 세력재편을 야기했다. 미국의 '재균형' 전략은 결국 아시아 세력재편의 재균형화를 목표로 한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재균형 전략에 대한 중국의 '반균형'과 '역균형' 전략이 지금 아시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지정학 변동의 핵심이다. 그리고 남중국해는 미국의 재균형과 중국의 역균형이 충돌하는 지점이다. 중국의 부상은 지정학적 전략을 수반했다. '일대일로'는 수요창출 성장전략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거대한 지정학적 전략이다. 미국의 재균형 전략 또한 지리적 관점에서 결정된 철저한 지정학적 전략으로 '중국포위'로 귀결되고 있다. 미중 간 지정학적 경쟁을 들여다보면, 지정학과 질서구축은 상호대체적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대외전략 수단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부상은 분명 지정학을 귀환시켰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지정학이 '귀환(return)'했거나 '환상(illusion)'인 것은 아니다. 지정학은 고전적인 현실주의 국제정치이고, 따라서 미래에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주제어: 중국의 부상, 지정학, 질서구축, 재균형, 반균형, 역균형, 일대일로, 남중국해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외교의 잭슨주의 전환

서 정 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차 태 서(중앙대 국익연구소 전임연구원)

Ⅰ. 서론
Ⅱ. 미국 외교정책 기반의 지속과 변화
Ⅲ. 트럼프 시대 미국 대외정책
Ⅳ. 트럼프, 동북아, 그리고 한반도
Ⅴ. 결론

국문요약

본 논문은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승리가 미국정치체제에 미치는 함의를 살펴보고, 새 미국 행정부의 세계전략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탈냉전기 미국 대전략과 의회/정당정치의 연속성과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의 자유주의적 합의에서 이탈하여 새로운 민족주의적 국내외정책을 구사할 것이란 점을 밝힌다. 아울러, 본 논문은 트럼프의 잭슨주의적 외교정책이 동북아 지역과 한반도에 끼칠 영향을 예측하고, 결론적으로 트럼프 당선이 자유세계질서의 미래에 미칠 시대적 의미에 대해 논의한다.

주제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전략, 미국 의회/정당정치, 잭슨주의, 자유세계질서

중국과 자유주의 무역질서:
중국, 보호주의, 그리고 WTO 분쟁을 중심으로

문 돈(경희대 국제학과 교수)

Ⅰ. 들어가며
Ⅱ.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중국, 자유주의 무역질서와 중국
Ⅲ. 자유주의 무역질서에 대한 도전: 분석의 틀과 범주화
Ⅳ. 중국과 자유주의 무역체제: 보호주의와 WTO 분쟁을 중심으로
Ⅴ. 나가며

국문요약

이 논문은 "중국이 자유주의 무역질서의 옹호자인가 도전자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중국의 WTO 분쟁해결제도 경험을 중심으로 답을 구하려 한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중국, 자유주의 무역질서와 중국의 관계에 대한 기존 논의들은 도전의 방식과 성격을 엄격하게 개념화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또한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 부족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여기서는 도전의 방식(내부적-외부적)과 성격(연성-경성)을 기초로 네 가지 범주를 나누고, 각 범주에 입각해서 중국의 다양한 입장과 행동을 구분하고자 했다. 현 시기 자유주의 무역질서의 가장 심각한 위협인 '보호주의' 문제에 있어, 중국이 자유무역규범의 상습적인 위반자이거나 급진적인 도전자라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 중국의 WTO 분쟁해결 행태인 대응적 법률주의는 '도전'의 낮은 단계인 '적응'으로 더 잘 설명된다. 참가한 분쟁의 빈도와 성격, 절차적 결과와 실질적 결과, 분쟁결과의 실행과 준수 정도 등의 여러 지표들을 살펴볼 때, 중국은 WTO 규범의 상습적 위반자, 급진적 도전자,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내부적 경성도전자' 또는 '외부적 경성도전자'이기보다 '내부적 연성도전자' 또는 '외부적 연성도전자'에 가깝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중국이 전면적 도전자로 급변할 것이라는 근거 역시 아직까지 발견할 수 없다.

주제어: 중국, 자유주의 질서, 세계무역기구(WTO), 보호주의, 분쟁해결, 도전국가

중국의 부상과 국제통화 · 금융질서의 미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붕괴될 것인가?

정 진 영(경희대 국제학과 교수)

Ⅰ. 서론
Ⅱ. 기존 연구와 이론적 논의
Ⅲ. 사례 연구
Ⅳ. 결론

국문요약

중국의 부상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미국의 패권이 쇠퇴하고 중국이 비자유주의 국가라는 사실에 기초한다. 그러나 이는 논리적이고 경험적인 검증을 필요로 한다.

이 글은 국제통화금융질서의 측면에서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중국의 부상이 국제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첫째, IMF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증대이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국제통화체제 개혁을 적극 요구하였고, 그 결과 IMF에서 세 번째로 비중이 큰 이해당사자가 되었다. 중국의 국력신장이 IMF의 거버넌스 개혁에 반영된 결과이다. 둘째,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SDR 바스켓에 위안화를 편입시키려 했다. 국내적으로 금융개혁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사용이 용이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의 결과, 위안화는 SDR 바스켓을 구성하는 5개 통화들 중 하나가 되었으며 국제통화로서 인증받았다. 셋째, AIIB를 설립하여 중국 중심의 국제금융기구를 갖게 되었다. 중국은 막대한 금융자산을 기초로 적극적인 금융외교를 펼치고 있다. AIIB는 쌍무적비공식적인 중국의 금융외교를 다자화제도화하려는 노력으로서, 세계은행이나 ADB를 대체하기보다 경쟁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중국의 부상은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붕괴시키기보다 그 질서 속으로 중국이 더욱 깊숙이 편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제경제질서는 부상하는 국가들을 비교적 쉽게 포용할 수 있다. 국제통화 금융의 측면에서 중국의 부상은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위태롭게 만들지 않고 있다.

주제어: 중국의 부상, 자유주의 국제질서, 국제통화체제, 중국 금융외교, 위안화 국제화

동아시아 지역경제질서의 다차원화: 지정학과 지경학의 상호작용

이 승 주(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Ⅰ. 서론
Ⅱ. 동아시아 지역질서 변화의 동학: 경제통합과 제도적 경쟁
Ⅲ. 지역경제질서의 다차원화: 일대일로와 AIIB의 사례
Ⅳ. 미국과 일본의 대응
Ⅴ. 결론

국문요약

중국의 부상은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지각 변동을 야기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통합을 둘러싼 갈등과 협력의 양상이 21세기 지역아키텍처를 재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 변화의 성격과 과정은 다른 지역 또는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운 특수성을 띤다. 하드파워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의 부상에 따른 세력전이가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변화를 촉발한 1차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미국과 중국이 지역아키텍처를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역내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전쟁을 통한 패권경쟁의 결과로 글로벌 또는 지역아키텍처가 재편되었던 과거의 세력전이와 달리, 21세기 미국과 중국은 갈등 속에서도 직접적인 대결은 가능한 회피하는 가운데 제도를 통해 경쟁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주요국들이 갈등과 협력의 이중 동학이라는 외견상 모순된 대외전략을 추구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동아시아 국가 간 갈등과 협력의 이중 동학은 '지정학(geopolitics)'과 '지경학(geoeconomics)'의 복합적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주제어: 지정학, 지경학, 동아시아, 지역질서, 중국의 부상

경제안보연계분석:
동아시아에 대한 적실성의 점검

김 기 석(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들어가는 말
Ⅱ. 경제안보연계분석의 이론
Ⅲ. 동아시아에의 적용
Ⅳ. 적실성 개선의 시도
Ⅴ. 향후 연구를 위한 함의

국문요약

이 논문의 목적은 경제안보연계분석을 그 내용 및 동아시아에 대한 적실성과 유용성,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초점을 맞춰 점검하는 것이다. 그동안 경제와 안보의 연계관계에 대한 오랜 이론적 관심에 비해 이를 동아시아 사례에 적용한 연구는 드물었다. 냉전기 동아시아에서 경제는 안보이슈의 하위영역으로 간주되었고, 탈냉전기에는 기능적 필요성 등을 이유로 분리되어 다루어졌다. 하지만 최근 역내 경제와 안보 이슈가 불균형상태 속에서도 점차 밀접히 연계되면서 경제번영과 안보의 상관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경제안보연계 접근법의 동아시아에 대한 적실성을 분석하여 그 잠재력을 점검하려 한다.

경제적 상호의존의 증가, 전쟁의 부재, 제한적 갈등이 공존하는 동아시아의 현상은 경제안보연계분석의 필요성을 증가시킨다. 그것은 미국 중심의 안보 아키텍처와 중국 중심의 경제 아키텍처의 공존 형태로 변형된 권력구조 속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경제번영과 역내평화의 동시 달성을 위한 대응전략 개발에도 필요하다. 특히 역내 중견국 중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급속히 커지는 국가들, 즉 일본, 한국, 호주 등에 이 문제는 중대한 선택 혹은 보다 현명한 외교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담보하려면 경제분야에서 이룩된 성과 특히 경제발전과 상호의존 그리고 협력의 규범과 제도적 틀, 습관, 이해, 인식 등을 정치안보분야로 확산시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경제안보연계분석은 양자가 결합되는 인과적 메커니즘의 규명을 통해 경제영역의 성과를 안보영역으로 확산시킬 전략을 찾아내는 데 공헌할 잠재력을 가진다.

주제어: 경제안보연계분석, 동아시아, 지역주의, 분리형 아키텍처, 갈등, 번영

한국 유권자 투표행태의 지속과 변화: 통합자료 분석

문 우 진(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이론적 논의와 분석모형
Ⅳ. 지역별 · 세대별 이념성향 및 정당 지지의 통시적 변화
Ⅴ. 통합자료 분석
Ⅵ. 결론과 전망

국문요약

본 논문은 한국 유권자의 투표결정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15대 대선 이후 여론조사 자료들의 통합자료 분석을 통해 이론적 모형의 예측들을 검증하였다.

본 논문의 경험분석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산출하였다. 첫째, 유권자의 투표결정에 유권자 이념, 대북정책과 복지정책에 대한 입장, 거주지, 연령이 각각 독립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이념성향 및 대북입장 차이가 지역별·세대별 정당지지 차이를 상당 부분 설명한다. 셋째, 대북정책과 복지정책에 대한 입장 중에서는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이 유권자의 투표결정에 더 중요하다. 넷째, 영남민의 영남정당 지지성향은 약간 약화되고 있는 반면, 노년층의 보수정당 지지성향은 약간 증가하고 있다.

주제어: 투표결정, 이념성향, 위치쟁점, 유인쟁점, 지역주의, 세대갈등

지역주의 정당구도의 지속과 변화: 경쟁적 가설의 경험적 검증을 통한 전망

김 용 철(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 영 호(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와 연구문제의 설정
Ⅲ. 연구 디자인: 자료 및 변수의 측정
Ⅳ. 경험적 분석
Ⅴ. 결론

국문요약

2000년대 들어, 지역주의에 기초한 정당구도의 지속과 변화에 대한 다양한 가설들이 제시되었다. 일부는 지역발전의 불균형과 지역정서에 기초한 정당구도가 지속될 것으로, 일부는 새로운 균열이 출현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세련도가 증가하여 지역균열에 기초한 정당구도가 서서히 변화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일부에서는 지역주의 정당구도가 과연 사회문화적 토대를 가지고 있는가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차원에서 지역주의 정당구도는 지속되고 있으며, 학문적 수준에서 이들 경쟁가설들에 대한 검증은 부족하였고, 한국 정당정치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모호한 상태로 남아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학문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경쟁적 가설들을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2014년 6대 지방선거 직후의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역주의 정당구도는 뚜렷한 역사적·사회문화적 토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유권자들은 역사적 관점에서 지역출신이 정권을 잡아 지역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집단합리적 기대심리를 정당지지에 반영하였고, 새누리당과 민주연합에 대한 태도는 경상도 및 전라도 사람들에 대한 전통적 호오감은 물론 상징적 지역편견과도 연계성을 가졌다. 아울러, 새로운 균열로서 세대 및 이념의 영향력은 강력하지만, 지역주의 관련 변수들에 비해 결코 크지 않았다. 요컨대, 본 연구결과는 유권자의 지역주의 태도가 정당 간 후견적 경쟁을 지속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함으로써 프로그램 기반의 정당정치로의 전환 및 발전을 제약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지역주의, 정당지지, 지역발전, 합리적 유권자, 정당경쟁

박정희 정권은 '군부' 지배체제였나: 군 출신 정치엘리트 충원을 중심으로

김 인 균(서울대 대학원 정치학전공 석사과정)
강 원 택(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Ⅰ. 서론
Ⅱ.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Ⅲ. 박정희 정권의 정치엘리트 충원과 군
Ⅳ. 결론

국문요약

본 논문은 박정희 정권 18년간의 정치엘리트 충원을 분석하여, 그 시기를 군부 지배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자 했다. 5.16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군부가 정치엘리트로 얼마나, 어떻게 충원되었는지, 또 충원 과정에서 어떠한 패턴을 보였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 중앙정보부 등 공안기관의 장, 중앙부처의 장관, 처장·청장, 광역단체장, 대통령비서실의 비서실장 및 수석비서관급 등을 중심으로 군 출신의 정치엘리트 충원 과정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1961~1963년 군정 시기에 발생한 군부 내 일련의 권력투쟁을 거치며 박정희는 정치엘리트 충원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군부의 정치영역 유입 역시 일정한 수준에서 관리하였다. 박정희 집권기의 정치엘리트 충원 과정에서 군부로부터의 조직적 충원은 없었으며, 통치가 안정화될수록 군 출신보다 전문성을 갖춘 관료와 학자를 선호하는 패턴을 보였다. 따라서 박정희가 통치 기간 중 군에 의존했다고 해도, 그 시기는 박정희 개인의 지배체제이지 '군부의 지배' 시기라고 볼 수 없다.

주제어: 박정희, 정치엘리트, 군부 지배, 군부 권위주의, 5.16쿠데타

제헌헌법 전문(前文)의 “대한민국”은 무엇을 지시하는가: 전문 삽입과정과 당대 정치현실을 중심으로

황 하 빈(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강 정 인(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들어가며
Ⅱ. 제헌헌법 전문의 임시정부 관련 구절이 명문화되는 과정
Ⅲ. 신국가 대한민국에 대응하는 당대 정치지도자들의 입장
Ⅳ. 나가며

국문요약

이 글의 목적은 제헌헌법 전문(前文)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지칭한다고 당연히 간주된 “대한민국”이 그 지시 대상과 의미가 고정되지 않은 채 모호하게 규정되었고, 그 결과 당대 정치현실에서 주요 정치지도자들에 의해 ‘대한민국’이 다의적으로 이해되고 다양하게 활용되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제헌헌법의 제정과정에서 이른바 ‘임시정부 법통성 관련 구절’이 명문화되는 과정을 추적했다. 그 결과 이승만의 영향으로 제헌헌법 전문에 그 구절이 삽입되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임시정부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대한민국’이라는 일반적 단어로 모호하게 지칭되었다는 점 역시 확인했다. 이후 ‘대한민국’에 대한 당대 주요 정치지도자들의 입장을 세 가지로 나누어 검토한 결과, 이들은 신국가 대한민국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이는 제헌헌법 전문의 “대한민국” 역시 당대에는 다양한 의미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을 보여준다.

주제어: 제헌헌법 전문, 임시정부 법통성, 이승만, 김구, 조소앙

제임스 로즈노(James Rosenau)의 변화 개념으로 본 분단국가의 대(對)정책: 대북정책 수립에 주는 역설

박 정 진(경남대 국제관계(정치외교)학과 부교수)

Ⅰ. 서론
Ⅱ. 로즈노의 분합과 거버넌스: 분단국가 대정책 설정에 미치는 함의
Ⅲ. 정책과정 관찰: 변화와 수평, 수직 단계 접점에 대한 인식 수용
Ⅳ. 결론: 로즈노 이론이 분단국가 대정책 수립에 주는 역설

국문요약

본 연구는 제임스 로즈노의 세계에 대한 '분합(fragmegration)'과 '원근접성(distant proximities)'개념에서 나타난 변화에 대한 인식을 분단국가의 상대국에 대한 대(對)정책에 응용, 분석하였다. 분단국가 대정책이 통합 성공에 필요한 부분을 성공 사례인 서독의 대동독정책과 한국의 대북정책에 적용하였다. 분석에는 로즈노의 변화에 필요한 개념으로 수평-수직 네트워크, 새로운 형태의 정부, 거버넌스, 정책을 위해 필요한 권위 틀(spheres of authority) 등을 중점적으로 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대북정책은 6.25 전쟁으로 인해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역대 정부의 정책을 살펴볼 때 수평-수직 네트워크보다 대통령 개인의 영향력이 주도적이었으며, 정책의 장기적 관리에 필요한 권위 틀, 거버넌스 구조 구성에 역점을 두기보다 참여 자체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상대국의 스포일러 정책적 저항에 대한 대립에 집중하여, 통합에 필요한 북한과의 네트워크 구성이 쉽지 않았다. 반면 독일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잘 짜인 통일 인식을 바탕으로 한 많은 구성원의 참여가 수평-수직 네트워크 구조로 나타났다. 또한 수직 네트워크인 정치권이 정책에 적응해나간 점, 정책의 장기적 관리에 의한 투 트랙 구조로 동독과의 네트워크 확장 등이 통일에 성공한 관리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제임스 로즈노, 분단국가, 대북정책, 분합, 통일

미-중관계와 한국 대미편승전략의 한계: 사드배치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 재 철(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Ⅰ. 서론
Ⅱ. 미중관계의 복합성과 한국
Ⅲ. 미국의 압박과 중국의 견제
Ⅳ. 혼선에서 대미편승으로
Ⅴ. 중국의 보복과 한미동맹의 한계
Ⅵ. 결론

국문요약

박근혜 정부는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배치를 선택한 반면 이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시도를 적절하게 전개하지 않음으로써 대미편승전략을 선택했다. 그러나 미국에 편승하여 중국의 대북정책을 변화시키려는 전략은 의도한 결과 대신 중국의 보복으로 귀결되었다. 이 글은 박근혜 정부의 대미편승전략이 의도한 결과를 도출할 수 없었던 이유를 미중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제시한다.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미중관계에서 미국의 주도권이 약화되고 갈등과 협력이 병존하는 복합성이 강화되었는데, 이러한 변화가 미국과의 관계강화를 통해 중국에 대응하려는 한국의 전략을 제약한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제어하려는 의지를 강화한 반면에 미국은, 중국을 제어하려 하면서도, 협력을 동원할 필요성 때문에 중국과 본격적 갈등이 촉발되는 것은 회피하려 든다. 사드배치의 사례는 미중관계에서 발생한 이러한 변화로 인해 양국이 첨예하게 갈등하는 이슈에서 한국이 편승전략을 추구할 경우 대가를 치르게 됨을 보여주었다.

주제어: 미중관계, 사드(THAAD), 미사일방어체제(MD), 한미동맹

한국 민주주의에서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민주적 지지

강 우 진(경북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Ⅰ. 문제 제기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설계
Ⅳ. 분석 결과
Ⅴ. 결론과 함의

국문요약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공정성이 주요 화두로 부상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민주적 지지 결정요인으로서 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역할을 분석하는 것이다.

2014년 사회종합조사를 이용한 경험분석 결과, 민주적 지지 결정요인에 대한 경쟁모델을 적절히 통제한 후에도 절차적 공정성과 사후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민주주의 만족, 중앙정부 신뢰, 국회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배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민주주의 만족과 국회 신뢰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의 분석 결과는 한국과 같은 젊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적 지지에 대한 논의는 정치경제적 수행력을 넘어서 공정성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제어: 분배 공정성, 절차적 공정성, 사후 공정성, 민주적지지

정당의 후보 경선과 유권자 인식: 제19대 대선의 주요 정당을 중심으로

한 정 훈(서울대 국제대학원 조교수)

Ⅰ. 서론
Ⅱ. 정당의 후보선출제도
Ⅲ. 정당의 후보선출과정에 대한 유권자의 인지
Ⅳ. 결론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정당의 후보경선제도 변화와 그 효과를 분석한다. 특히 유권자 참여를 강화하고자 한 각 정당의 후보경선제도 변화가 후보경선과정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을 향상시켰는지를 살펴본다.

우선 제도적 측면에서, 제19대 대선과정에서 각 정당의 경선제도는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제16대 대선 이후의 개혁 방향에 부합한다는 특징이 있다. 다음으로 유권자의 인식적 측면에서, 제19대 대선과정에서 과반의 한국 유권자들이 정당의 후보경선과정을 인지하였다. 특히 대선 직후 유권자 의식조사 자료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대한 정당일체감을 지닌 유권자와 이념적으로 극단적 우파 성향의 유권자가 정당의 후보경선과정을 상대적으로 더욱 잘 인지하였다. 또한 정치 및 선거에 대한 관심과 SNS을 통해 정치정보를 획득하려는 유권자의 노력은 정당의 후보경선제도를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 정당의 후보경선과정이 유권자와의 연계성을 증진할 수 있는 절차적 잠재력을 지닌다는 것을 함의한다.

주제어: 제19대 대선, 후보경선제도, 이념적 극단, 정치정보, 정당일체감

아프리카에서의 대한민국 국제평화활동 확대 방향

박 동 순(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제분쟁사 부장)

Ⅰ. 서론
Ⅱ. 한국의 대 아프리카 관계와 국방외교
Ⅲ. 아프리카에서의 평화활동 확대를 위한 정책
Ⅳ. 결론 및 제언

국문요약

아프리카는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 증대하고 주요 자원 및 경제협력의 새로운 대상으로 부상하여, 주요국들이 경쟁적으로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 이명박 정부의 '성숙한 세계국가,' 박근혜 정부의 '신뢰외교,' 문재인 정부의 '국익우선 협력외교'라는 외교안보 기조하에 포괄적 측면에서 아프리카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고 국방외연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아프리카에서 남수단 한빛부대 파병 등의 활동을 통해 평화와 지역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평화활동과 관련하여, 작전능력 강화, 복합적 평화유지전략, 재정기여, 병력공여의 준비, 아프리카에 대한 평화역량 강화 등의 새로운 요구를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국제평화활동 확대의 기본 방향은 첫째, 국가 차원의 통합된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둘째, 국제평화활동의 효율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며, 셋째, 인적자원을 종합적으로 준비하고 활용해야 한다.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 한국의 아프리카에서의 평화활동 확대를 위한 정책을 2단계로 제안한다. 단기적으로는 한빛부대를 전략거점화하고, 국내적으로 법적제도적 정비 및 국민공감대를 형성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아프리카를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거점국가를 선정하고, '전략 수립–교류–제도화–협력–확대' 순서에 따라 단계별로 협력을 추진한다.

주제어: 아프리카연합(AU), 국방외교전략, 국제평화활동, 전략거점, 국방협력

남북한 체제성격의 비교: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체제성격 변화를 중심으로

윤 철 기(서울교대 윤리교육과 조교수)

Ⅰ. 문제 제기
Ⅱ. 이론적 배경과 분석수준
Ⅲ. 경제체제의 성격 변화와 경제잉여의 유형과 특성
Ⅳ. 계급관계의 성격 변화
Ⅴ. 정치와 경제의 관계
Ⅵ. 결론

국문요약

이 연구는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남북한 체제성격을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체제비교는 렌트이론을 바탕으로, 경제잉여, 경제체제, 생산관계, 정치와 경제의 관계 등 네 가지 분석수준에서 이루어진다.

남한은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을 실시하고 세계시장 통합과정에 적극 참여하면서 심각한 변화를 경험했다. 재벌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독점적 시장구조가 강화되었고, 탈규제의 정치적 결과 국내경제가 해외시장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재벌과 대기업의 시장독점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노동시장 유연화로 실업률과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했고, 소득불평등은 악화되었다. 게다가 사회적 안전망의 부족, 주택가격과 교육비용의 증가로 인한 가계지출이 증대되면서 과소소비적 내수시장 침체가 지속되었다. 민주화 이후 자본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한 반면, 시민사회는 보수화되고 파편화되었다. 남한체제는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렌트자본주의 국가'로 전환되었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 이후 계획경제가 유명무실해지고 시장화가 확산되었다. 국내 생산시스템이 마비되면서 해외원조와 광물자원 수출 등을 통해서 획득한 외연적 렌트에 의존했다. 지배권력은 권력과 특권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시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력은 새롭게 부를 축적한 돈주와 비호관계를 형성하여 렌트를 수취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상당수는 주변계층으로 전락했다. 북한체제는 저발전 사회의 특성을 가진 '정치적 렌트수취국가'이다.

즉, 남북한 관계는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냉전적인 대립관계일 뿐만 아니라 구조적 이질성을 가진 남북국 관계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게 되었다.

주제어: 남북한 체제성격, 렌트이론, 구조적 이질성, 신자유주의적 렌트자본주의 국가, 정치적 렌트수취국가, 남북국 관계

북한의 시장화 실태와 시장권력 관계 고찰: 향후 북한 정치변동에의 함의

김 근 식(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 재 욱(경남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Ⅰ. 머리말
Ⅱ. 시장화와 체제위협에 관한 이론적 검토와 북한에의 적용
Ⅲ. 시장화 실태와 평가
Ⅳ. 시장권력의 확대와 정치변동
Ⅴ. 정치변동에 대한 함의: 맺음말을 대신하여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시장화 실태를 분석하여 정치변동의 가능성을 시탐하는 데 있다. 기존 논의에 의하면,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시장화 진전은 사회통제능력의 저하, 공동체적 가치관의 파괴, 사회 양극화의 양산, 시장세력의 정치저항세력으로의 성장 등 체제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며, 체제 안정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북한의 시장화 진전은 체제위협과 직결되지 않는다. 시장화는 주민들의 생활을 지탱하고 개선시키며, 권력층은 시장화 가운데 새로운 이득을 창출하고 있다. 돈주는 정치적 권력집단과의 결탁을 통해 단지 경제적 이익만을 좇는 한계를 내포하며, 정치적으로 각성된 계층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권력층을 비롯한 돈주는 체제불안 혹은 체제전환이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하지 않음을 잘 알기에 김정은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북한 당국이 시장화의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학습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화가 향후 어떤 경로를 택하든 북한사회의 혼란은 최소화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시장화 진전은 체제강화 면에서 오히려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북한, 김정은, 시장화, 정치변동, 돈주

촛불의 정치적 효과: 정치적 불만과 참여의 활성화

유 성 진(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부교수)

Ⅰ. 서론
Ⅱ. 정치참여의 내적 동인과 정치적 조건: 정치적 불만과 참여의 활성화
Ⅲ. 경험적 분석
Ⅳ. 결론

국문요약

정치불신과 정치적 냉소주의, 그리고 정치참여의 저조라는 일반적인 현상에도 불구하고, 왜 그토록 많은 이들이 촛불집회에 참여하였는가? 이 글은 탄핵을 둘러싼 정치참여의 활성화가 정책결정자들에 대한 불만이 강하게 형성된 상황에서 개인의 정치참여를 촉진시키는 다양한 조건들이 결부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주장한다.

경험적 분석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특정 정책결정자들에 대한 인식으로서 처벌욕구를 유발하고 정치참여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어, 더 많은 정치적 관심과 참여로 이끌었다. 이러한 효과는 개인의 심리적 정향 그리고 감정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받는 바, 높은 정치효능감이 보다 적극적인 참여의 동기가 되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정치적 불만의 효과를 배가시켰다. 더불어 탄핵으로 파생된 정치환경은 이전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보다 지지하지 않았던 유권자들에게 적극적인 참여의 충분한 동기가 되었으며, 문재인이라는 강력한 대안의 존재는 이들의 참여를 더욱 촉진하는 또 다른 조건이었다.

주제어: 촛불집회, 정치불신, 정치참여, 정치효능감

‘성균형의회’에 대한 제20대 국회의원의 인식 분석

신 기 영(일본 오차노미즈여자대학(お茶の水女子大学) 인간문화창성과학연구과 부교수)
황 아 란(부산대 공공정책학부 교수)

Ⅰ. 서론
Ⅱ. 성균형의회의 이론적 배경
Ⅲ. 연구가설 및 분석방법
Ⅳ. 분석결과
Ⅴ. 논의 및 결론

국문요약

이 글은 소수집단의 ‘참석의 정치’를 주장하는 대표성 논의를 바탕으로, 의회대표성의 궁극적인 목표를 남녀의원 비율이 40:60~60:40 이내로 구성되는 ‘성균형의회’로 설정하고, 본 연구팀이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 성균형의회에 대한 인식의 결정요인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여성의원의 대부분이 성균형의회에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나 남녀의원 간 차이가 뚜렷했다. 또한 선수가 낮을수록, 여성의원 증가효과를 긍정할수록, 여성의원 수가 적다고 인식할수록, 그리고 청년할당제에 찬성할수록 성균형의회를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석 대상을 남성의원만으로 한정하면, 여성의원 증가효과는 성균형의회 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성균형의회를 지지하는 남성의원들은 수적 균형이라는 규범적인 측면에서 이를 지지하지만, 이러한 태도가 여성의원을 증가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제도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지는 연구과제로 남는다.

주제어: 성균형의회, 참석의 정치, 여성의 정치 대표성, 국회의원의 인식

1960년대 한국의 중립국 및 공산권 정책 수정에 대한 논의

도 지 인(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Ⅰ. 서론
Ⅱ. 1960년대 반공외교의 재정의: 중립국 적극외교와 공산권 교류 확대
Ⅲ. 결론

국문요약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한국 외교정책은 반공에서 승공으로, 이데올로기외교에서 실리외교로, 대미일변도에서 다변화로 수정되었다. 이에 따른 가장 구체적인 변화는 중립국 외교 및 공산권과의 교류 확대의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본 연구는 1960년대 한국의 중립국 외교 및 공산권 교류 확대에 대한 정책 변화를 외무부 사료를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이에 대한 야당, 학계, 언론계의 반응을 분석함으로써 이 시기 반공외교가 재정의된 정책적 맥락을 역사적으로 다루고자 했다.

1960년대 중반에는 중국의 핵실험, 북한의 자주성 선언, 미국의 중국정책 변화, 중소분쟁과 미소공존정책 등과 같은 급격한 정세 변화가 나타났다. 이에 대응해 한국 외무부와 야당, 학계, 언론계 등 각계의 정책 결정 및 여론 주도층은 할슈타인원칙의 수정, 중립국에 대한 적극외교, 소련을 포함한 공산권과의 학술문화교류, 용공상사불인방침 폐기 등과 같은 정책 변화를 고려하게 되었다.

주제어: 중립국 외교, 공산권 접근, 중소분쟁, 할슈타인원칙

김정은 리더십과 북한의 대외정책

이 상 근(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

Ⅰ. 서론
Ⅱ. 탈냉전기 북한 대외정책과 리더십에 대한 기존연구 검토
Ⅲ. 김정은의 리더십 특성
Ⅳ. 김정은 정권의 대외정책 전환
Ⅴ. 병진노선의 지속과 김정은 리더십
Ⅵ. 결론

국문요약

북한은 탈냉전 이래의 대미 편승 정책을 버리고 핵개발을 통한 대미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더 이상 핵개발을 협상수단으로 삼아 미국으로부터 체제인정과 안전보장을 얻어내는 것을 우선적 과제로 여기지 않는 듯하다. 이러한 변화에는 여러 대내외적 환경 요인과 함께 김정은의 리더십 특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12년 12월 장거리로켓 발사와 2013년 2월 핵실험 이후 수개월 동안 미국과의 격렬한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정은 리더십의 "적극공세적" 특성과 "강성폭력적" 특성이 드러났다. 이 노선을 채택한 이후에도 대화와 협상을 통한 비핵화를 주장한 바가 있으나 미국이 대화를 거부하자 2014년 이후 줄곧 핵과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키며 미국과 맞서고 있다. 대외정책을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친 변수들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했는데도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능력 강화를 통한 대미 균형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김정은 리더십의 "적극공세적," "개방적," "실리계산적," "대중친화적," "강성폭력적," "일관추진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김정은 리더십, 북한 대외정책,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 대미 균형

북한 전략군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연구

장 철 운(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

Ⅰ. 서론
Ⅱ. 북한 핵·미사일 전담 운용 부대의 창설 및 변화 과정
Ⅲ. 북한 전략군의 위상
Ⅳ. 북한 전략군의 역할
Ⅴ. 결론

국문요약

북한에서 핵미사일 전담 운용 부대는 포병군단으로 창설된 이후 미사일지도국, 전략로켓군, 전략군으로 명칭이 변화했다. 북한 전략군은 지상군 및 해공군과 구별되는 독자적 군종으로서 제4군의 위상을 가지며, 총참모장의 지휘통제를 받는 다른 부대와 달리 최고사령관으로부터 직접적인 명령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은 체제가 추진하는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에서 전략군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핵전력 구축 초기라는 점에서 아직까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전략군은 북한이 기존에 유지해 온 재래식 전력 중심의 군사전략에 유연성과 다양성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의 운용에 전략군이 관여하지 못할 경우 북한 내에서 핵미사일 전력의 운용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제어: 북한 전략군, 전략군사령관, 지대지 탄도미사일(SSM),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지방 분권과 민주주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지방 분권의 이론과 요건

정 병 기(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서론
Ⅱ. 지방분권의 개념과 분권화를 보는 관점
Ⅲ.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이론
Ⅳ. 지방 분권의 유형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요건
Ⅴ. 결론

국문요약

지방 분권이 민주주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와 자유로운 개인의 존재라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하며, 지역 차원에서 이 자유는 중앙으로부터의 소극적 자유뿐만 아니라 중앙에 대한 적극적 자유까지 포괄한다. 더 나아가 현대의 지방 분권 흐름은 정치적 민주주의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와 일상의 민주주의까지 흡수할 때 설명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방향으로 작동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첫째, 분권화 권력의 주체인 주민이 지역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지역 경계 설정이 주민의 생활 패턴과 지역 공간에 조응하는 정치적 가치를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분권화 권력의 범위가 지역 정부 형태에 이르기까지 지역 사안에 대한 포괄적인 결정권과, 지역과 결부된 중앙 정부 정책 및 전국적 사안에 대한 참여를 포함해야 한다. 셋째, 자치 실현의 자원인 지역의 사회 경제적 기반이 민주주의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적절한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이 세 요건은 분산과 위임을 넘어 이양의 단계에서 충족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높은 단계의 분권은 지역 간 갈등을 완화하거나 해소해 국가의 민주적 통합을 촉진하는 '분권에 의한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

주제어: 지방 분권, 중앙 집권, 민주주의, 분산, 위임, 이양

한국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 성공을 위한 제도적 고려사항

강 원 택(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Ⅰ. 서론
Ⅱ. 한국에서 지방 분권을 위한 전제적 고려사항
Ⅲ. 바람직한 지방 통치 구조의 모색
Ⅳ. 결론

국문요약

최근 헌법 개정 논의에서 지방분권의 강화가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방분권이 지역 간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민주주의, 지역 공동체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 가지의 제도적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실시된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지방자치 구조는 여전히 중앙정부가 설정한 매우 획일적인 형태에 머물러 있다. 지방분권의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 구조를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다양화하고, 스스로 대안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의 확보가 중요하다. 각 지역 수준에서 현실적인 필요에 맞게 주민 투표를 통해 스스로 자치 구조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현재의 지방자치는 단체장 1인을 중심으로 한 승자독식의 시스템이다. 그러나 생활정치, 주민 참여, 풀뿌리 민주주의가 강조되는 지방정치에서는 보다 유연하고 협치가 가능한 방식의 제도가 더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방자치 구조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셋째, 지역주의 정당 정치로 인해 상당수의 지역은 정치적인 다양성을 갖추지 못하고 중앙정치로부터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더라도 현재와 같은 정치적 구조에서는 지역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는 데 한계가 있고, 지역 내부의 자치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어렵다. 이러한 폐쇄성은 다시 지역 내 학연 등에 의해 강화되면서 부패의 가능성을 높일 수밖에 없고, 진정한 의미의 주민의 참여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정치관계법의 개정과 주민 참여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정치에서 정치적 개방성, 경쟁성을 제고하여 합리적 대안을 둘러싼 경쟁, 그리고 견제와 균형, 권력에 대한 효율적 감시 감독 등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주제어: 지방자치, 보충성, 승자독식, 분권, 토호, 협치

주민참여와 지방 거버넌스

가 상 준(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서론
Ⅱ. 주민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실천
Ⅲ.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참여 현실
Ⅳ.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Ⅴ. 결론

국문요약

본 연구는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위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에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발의제,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소송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특히, 생활자치 차원에서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제도적으로 주민직접참여제가 작동하면서 과거 선거를 통해서만 통제할 수 있었던 방법에서 벗어나 선출된 공직자와 공무원에 대한 통제 방법이 다양화되었다. 그러나 주민직접참여제를 통한 주민참여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자치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주민직접참여제 실시에 필요한 요구조건들이 완화되어야 한다. 특히 엄격한 청구요건과 개표요건은 주민들의 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다. 또한,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적정 지방분권이 실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방자치에서 주민참여에 대한 논의를 대의제 보완을 위한 주민직접참여제와 함께 소규모 단위, 즉 지역공동체 차원에서의 주민참여로 확대, 연계시켜야 한다. 진정한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자치가 확립될 때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될 것이며 행정의 민주성은 구현될 것이다.

주제어: 주민참여, 지방자치, 지방분권, 거버넌스, 지역공동체

지방분권 실현의 제약 요인과 정치적 대표성: 정치적 매개체로서 정당의 필요성

박 경 미(전북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Ⅰ. 문제 제기
Ⅱ. 논의의 배경
Ⅲ. 지방분권 실현의 제약 요인
Ⅳ. 지방분권 실현의 연결고리로서 정당의 한계
Ⅴ. 결론

국문요약

이 연구는 지방정치에서 정치적 대표성을 복원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지방분권의 방향을 유권자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수평적 분권과 중앙정치로부터 지방정치에 이르는 권한 분배와 이양을 추진하는 수직적 분권으로 구분하고, 두 지방분권의 논의에서 나타나는 인식적 한계와 정치제도의 제약 문제를 살펴본다. 참여를 강조하는 수평적 분권 시각에서는 지방정치 과정을 비정치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그리고 수직적 분권 시각에서는 지방정치 안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논의하지 않는 한계를 가진다. 이처럼 수평적 분권과 수직적 분권을 별개로 논의하는 단절적 인식은 정치적 대표성의 보완으로 해소될 필요가 있다. 그 대안으로 지방정당 허용과 지구당 부활을 논의하면서 지방정치에서의 정치적 대표성 복원을 주장한다.

주제어: 지방분권, 수평적 분권, 수직적 분권, 지방정당, 지구당

한국의 정당분권과 지방분권: 메시지, 정치적 분권과 재정적 분권

임 성 학(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Ⅰ. 서론
Ⅱ. 문헌조사와 분석 틀
Ⅲ. 정당분권에 대한 분석
Ⅳ. 결론

국문요약

지방분권은 민주화와 세계화와 더불어 전 세계의 정치적 추세이다. 한국의 경우 지방분권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주로 지방분권의 내용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 등에 집중되었고, 정작 지방분권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서 지방분권의 범위, 제도,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당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였다. 이 글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분권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정당을 중심으로 지방분권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수렴과 형성에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정당의 지방조직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정당분권은 행정적 분권에만 머물러 있으며 재정적, 정치적 분권은 매우 저조한 상황으로, 아직 갈 길이 멀다. 기존에는 지방분권에서 정당분권이 따로 분리해 논의되었지만, 이 글을 통해 지방분권에 있어 핵심 행위자는 정당이라는 점과 지방분권은 정당분권과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이 인식되길 바란다.

주제어: 정당분권, 지방분권, 메시지, 정치적 분권, 재정적 분권

남북통일과 지방분권: 쟁점과 과제

김 용 복(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머리말
Ⅱ. 남북통일논의와 지방분권: 변화와 수렴?
Ⅲ. 평화공존, 통일과정 그리고 지방분권
Ⅳ. 통일국가의 권력구조: 양원제와 연방제?
Ⅴ. 맺음말

국문요약

분단된 현재의 한국사회에서도 분권과 자율은 중요한 쟁점이지만,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에도 지방분권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다. 통일은 이질적인 길을 걸어온 두 국가가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화학적으로도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역갈등,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시급한 과제이지만, 통일국가의 경우 더욱 이질적인 지역과 요소의 결합, 다양한 격차의 수용 등은 국가의 발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남북통일은 정치체제와 이념이 상반된 두 체제의 결합을 의미한다.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의 한국사회를 고려할 때, 분권화에 기초한 통일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통일과정의 역동성과 개방성을 고려할 때, 중앙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의 준비도 필요하다. 통일국가에서도 분권화의 제도화가 더 진전되어야 사회통합 등 통일 이후의 국가발전과 균형발전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은 동질적인 사회뿐만 아니라 이질적인 사회의 기초를 확고하게 하여 한 사회의 민주주의의 견고함을 가져온다. 한국의 지방분권화 진전은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에 있어 다양성과 융합을 낳아 통일과 통합의 토대를 만드는 과정이다. 지방분권에 토대를 둔 통일준비와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 문제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한 시점이다.

주제어: 지방분권, 통일, 통일방안, 연방제, 국가연합제

지방정부와 국제정치: 다층거버넌스 시대 지방정부의 대외관계

차 재 권(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들어가며
Ⅱ. MLG의 이론적 시각과 지방정부 대외관계의 변화
Ⅲ. MLG 활성도 모형을 적용한 사례 분석의 방법과 기준
Ⅳ. MLG에서 지방정부 대외관계 사례의 경험적 분석과 비교
Ⅴ. 결론을 대신하여: MLG와 지방정부 대외관계의 발전 방향

국문요약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촉발된 다층거버넌스(MLG)라는 새로운 거버넌스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는 지방정부 대외관계의 발전 모형을 MLG의 국가별 사례비교를 통해 살펴보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대외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MLG 활성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찾아내어, 국가별로 분류, 설명할 수 있는 분석모형을 구축한다. 둘째, 구축한 MLG 분석모형을 바탕으로 MLG가 활발한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MLG 운영 메커니즘의 특징을 이론적경험적 차원에서 분석한다. 셋째, MLG에 대한 이론적 분석 틀이 각 국가의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MLG 구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도출된 함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대외관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분권화와 대외 개방성 수준이 높은 개방형 분권제의 MLG 유형에 속한 국가일수록 지방정부 대외관계가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지방정부, 국제정치, 다층거버넌스(MLG), 지방정부 대외관계, 분권화, 대외 개방성

『한국과 국제정치』 발간 100호로 본 정치학 연구의 동향과 과제

이 호 철(인천대 중국연구소 소장)

Ⅰ. 연구의 배경
Ⅱ. 연구분야
Ⅲ. 연구지역
Ⅳ. 연구주제
Ⅴ. 정향평가
Ⅵ. 분석을 마치며

국문요약

『한국과 국제정치』 창간호에서 통권 99호에 이르기까지 게재된 논문 799편을 대상으로 정량분석과 정향평가를 수행하였고, 2010년의 70호 연구에서 제기된 문제들의 추이를 보기 위해 69호 이전과 70호 이후의 연구동향을 비교분석하였다. 주요한 발견은 다음과 같다.

70호 이후 기획 특집호와 기획 논문을 통해 편집방향을 구현함으로써 한국정치와 비교정치 연구가 줄어든 반면, 국제정치와 한반도정치 연구는 상당한 정도로 증가하였다. 연구지역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균형성을 보였으나, 북한 연구가 유럽, 일본 연구보다 많아졌고, 일본 연구는 북한, 유럽 연구보다 적어졌다. 한국정치와 비교정치 분야에서는 정치과정 연구가 지나치게 많아 연구주제의 편향성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정치 분야에서는 비전통비대칭 안보위협 연구가 촉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정치 분야에서는 통일 연구가 크게 위축되었고, 김정은체제의 등장으로 북한 연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질적 평가를 위한 5개의 평가지표는 모두 상승 추세로 전환되어 게재된 논문들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는 고무적인 사실도 발견되었다. 한국, 북한, 한반도 그리고 관련 국제정치에 집중하는 '한반도정치' 연구를 『한국과 국제정치』의 특화된 연구영역으로 발전시켜, 21세기 대표적 학술매체로 성장해나가는 편집노력이 필요하다.

주제어: 정치학, 연구분야, 연구지역, 연구주제, 정향평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 상징정치이론과 경제이익이론을 이용한 시계열 분석

김 기 동(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석사졸업)
김 효 빈(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정 재 도(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오 건 영(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엄 광 용(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이 재 묵(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의 분석 틀: 데이터와 변수 설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국문요약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특히, 선행연구들이 특정 시점에 국한된 분석을 실시하거나, 설사 시계열적 분석을 실시하더라도 단순히 그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만을 분석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10년의 시간적 범주에서 통시적인 조망을 시도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및 수용태도 양자를 분석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를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에서 동시에 검토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한국인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는 상징정치이론에 의해 설명되는 바가 컸다. 이 변수들은 10년의 조사기간 동안 비교적 일관된 영향력을 행사했다. 둘째, 상징정치이론보다 설명력이 떨어지지만 경제이익이론의 일부 변수들 역시 일정한 설명력을 보였다. 주목할 점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은 개인적 차원의 통일효용에 의해 크게 영향받은 반면, 그들의 수용에 대한 태도는 오히려 국가적 차원의 통일효용에 의해 더 크게 영향받은 점이다. 이는 향후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적 수용 문제와 그들의 적응 및 사회통합 문제가 별개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북한이탈주민, 상징정치이론, 경제이익이론, 친근감, 수용태도

케네스 월츠의 핵확산 낙관론과 북한 핵문제

유 진 석(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Ⅰ. 서론
Ⅱ. 월츠의 핵확산 낙관론
Ⅲ. 월츠의 북한 핵문제 분석
Ⅳ. 월츠의 핵확산 낙관론이 북한 핵문제에 주는 시사점과 한계점
Ⅴ. 결론

국문요약

북한 핵문제는 지금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6차례의 핵실험과 미국 본토까지 도달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한국은 물론 미국을 직접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한반도에서 억제의 안정성은 유지될 것인가? 북한은 핵무기를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침략 또는 국지도발을 일으킬 것인가? 북한이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해 온 기존의 확장억제 공약의 신뢰성은 유지될 것인가? 미국은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여 북한의 핵시설 또는 지도부를 타격할 것인가? 북한의 핵사고 또는 승인받지 않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은 있는가?

한편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화해무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남북 간의 판문점 선언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보장 약속을 담은 북미 간의 싱가포르 공동성명으로 이어졌다. 북한은 향후 핵무기를 포기하고 한국 그리고 미국과 평화적인 관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글의 목적은 위의 질문들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케네스 월츠의 핵확산 낙관론과 북한 핵무장에 관한 그의 주장을 고찰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논의에서 누락되었거나 암묵적으로만 내재되어 있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이론적 측면들을 부각시켜 북한 핵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돕고 그 해결방안에 미치는 함의를 도출한다. 먼저 월츠가 제시한 핵확산 낙관론의 주요 주장을 세이건과의 논쟁을 중심으로 확인하고, 북한 핵문제에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월츠의 북한 핵문제에 대한 주장들이 던지는 시사점과 한계점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주제어: 케네스 월츠, 핵확산, 핵확산 낙관론, 핵억제, 북한 핵문제

북한문제의 과잉정치화와 극단적 양극화 분석: 갈등전환(Conflict Transformation)의 제도화 모색

이 무 철(북한대학원대 심연북한연구소 연구위원)

Ⅰ. 서론
Ⅱ. 분석 틀: 갈등전환적 접근
Ⅲ. 북한의 남남갈등 개입 양상
Ⅳ. 북한의 개입과 한국사회의 갈등구조: 북한문제의 과잉정치화
Ⅴ. 결론: 갈등전환의 제도화 모색

국문요약

본 연구는 북한의 남남갈등 개입과 이를 둘러싼 한국사회의 갈등구조를 '갈등전환' 개념에 입각한 접근방법으로 분석함으로써, 북한문제의 과잉정치화로 인한 극단적 양극화의 극복 방안을 모색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우선 한국사회에서 진행된 2007년과 2012년 두 차례의 대선 국면과 2008년 광우병 문제로 전개된 촛불집회 국면, 그리고 2014년 세월호 사건으로 진행된 촛불집회 국면에서 북한이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의 공식 매체인 『로동신문』이 게재한 기사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남남갈등 개입 양상과 성격, 한국사회에서 북한문제의 과잉정치화와 극단적 양극화의 실체와 원인을 갈등의 맥락, 관계, 기억의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내 보수-진보세력 간 관계의 재설정이 필요하고, 이러한 새로운 관계설정을 바탕으로 한 상호 기억의 재구성 및 공유 작업이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갈등전환적 접근을 통해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함과 동시에 종합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북한문제, 남남갈등, 갈등전환, 과잉정치화, 극단적 양극화

대북 및 안보정책 평가의 세대 및 이념요인

배 진 석(고려대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Ⅰ. 문제 제기
Ⅱ. 선행연구
Ⅲ. 예비분석
Ⅳ. 회귀분석
Ⅴ. 요약 및 결론

국문요약

이 연구는 대북정책과 안보정책 영역에서 세대 및 이념요인의 작동 메커니즘을 분석하기 위해 세 가지 가설을 제시하였다. 첫째, 대북 및 안보정책에 대한 평가는 연령에 따라 단선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 둘째, 대북 및 안보정책에 미치는 이념의 영향력은 세대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셋째, 정책조합에 따라 세대 및 이념이 영향력을 미치는 조건이 달라진다.

2017년 대선 직전에 조사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이 연구는 다음의 사항을 발견했다. 첫째,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1970년대 출생 세대가 그 이전 혹은 이후 세대보다 대북 교류협력정책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고 사드배치에 찬성하는 비율이 낮았다. 둘째, 1970년대생과 그 이전 세대에서는 이념인식이 대북 및 안보정책에 영향을 미쳤으나, 그 이후 청년세대에서는 진보–보수의 이념인식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셋째, 전통적인 진보–보수의 정책조합에서 연령은 효과가 없고 이념이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전통적인 진보–보수의 정책조합이 엇갈릴 때에는 이념 대신 연령효과가 확인되었다. 진보–보수라는 이념균열 내에 부분집합으로 쌍을 이루던 교류협력–강경(대북관계), 자주–한미동맹(안보), 복지–성장(경제정책)의 조합이 청년세대–중장년세대라는 세대균열과 중첩, 강화되어 왔다면, 이 연구의 경험적 발견은 이념적으로 양극화된 한국의 정치균열구조가 세대균열 축을 중심으로 완만한 각도로 교차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주제어: 대북정책, 안보정책, 연령효과, 이념효과

평창 '임시평화체제'의 형성 원인과 전개: 한반도 안보딜레마와 한국의 '삼중모순(trilemma)'

구 갑 우(북한대학원대 교수)

Ⅰ. 문제설정
Ⅱ. 한반도 안보딜레마와 평화체제
Ⅲ. 한반도 안보딜레마와 전쟁위기: 2017년 4월과 8월
Ⅳ. 평창 임시평화체제의 형성 원인
Ⅴ. 평창 임시평화체제의 전개
Ⅵ. 한국의 삼중모순: 결론에 대신하여

국문요약

이 글의 목적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만들어진 평창 임시평화체제의 형성 원인과 전개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평창 임시평화체제는 2018년 2월 2일부터 3월 25일까지만 유효했다는 점에서 임시적이고, 군사적 분쟁의 중단만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소극적이며, 지속성을 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체제로 명명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의 극적 반전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유엔총회의 휴전결의안이 작동하는 기제를 평창 임시평화체제라고 정의한다.

평창 임시평화체제의 형성 원인으로는 한국 정부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선제적 연기를 제시한다. 평창 임시평화체제의 전개과정에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평창 임시평화체제에 대한 분석의 부산물은, 한국이 한반도 비핵화, 한미동맹의 지속,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란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삼위일체, 즉 삼중모순(trilemma)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제어: 평창 임시평화체제, 안보딜레마,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한미동맹, 한미합동군사훈련

세계금융의 바퀴에 모래 뿌리기: 토빈세/금융거래세의 정치경제

정 진 영(경희대 국제학과 교수)

Ⅰ. 서론
Ⅱ. 토빈세에서 금융거래세로의 진화
Ⅲ. 세계금융위기 이후 토빈세/금융거래세 도입 시도
Ⅳ. 토빈세/금융거래세 도입이 어려운 이유
Ⅴ. 결론

국문요약

금융세계화와 금융화는 대규모 금융위기를 빈번히 발발하게 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작동에 큰 위협이 된다. 토빈세/금융거래세는 비생산적이고 불필요한 금융거래의 양을 줄여 금융시장에 거품의 형성을 막음으로써 금융위기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금융이 실물경제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인으로서 봉사하게 할 강력한 수단이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토빈세는 포괄적인 금융거래세로 진화했고, 세계적지역적국가적 차원에서 그 도입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매우 제한적인 성공을 거두는 데 그쳤다. 금융의 '구조적 권력'을 이용한 금융권의 반대 캠페인과 강력한 지지세력 동원이 일반 금융거래세 도입을 위한 시도들을 좌절시켰기 때문이다.

금융세계화와 금융화에 따른 피해가 막대하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인 토빈세/금융거래세 도입의 전망은 금융부문의 세력이 증대하면서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한 좋은 기회를 가지려면, 또 다시 세계금융위기가 일어났을 때 토빈세/금융거래세 도입을 위한 준비가 잘 돼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위기도 허비할지 모른다.

주제어: 토빈세, 금융거래세, 금융규제, 금융의 구조적 권력, 규제포획, 규제자 딜레마

‘태극기 집회’, 박정희와 한국 보수주의

양 웅 석(육군3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강사)
황 선 영(서울대 대학원 정치학 석사)
강 성 식(서울대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석사과정)
강 원 택(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Ⅰ. 서론
Ⅱ. 기존 문헌 검토
Ⅲ. 경험적 분석: 박정희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Ⅳ. 질적 분석: ‘태극기 집회’ 참가자에 대한 인터뷰를 중심으로
Ⅴ. 결론

국문요약

이 연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발생한 보수 이념 집단의 분화 속에서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의 이념 성향에 대해 분석했다. 특히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에게서 관찰된 박정희에 대한 추앙에 주목하여, 이들의 이념과 정치적 정향, 태도가 박정희에 대한 평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했다.

분석을 위해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한 통계적 분석과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인터뷰 자료를 통한 질적 조사를 동시에 활용했다. 박정희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보수 성향 집단을 ‘박정희 보수’와 ‘비박 보수’로 나누고, 두 보수 집단의 정치적 태도와 가치관의 차이를 국가주의권위주의, 성장주의, 반공이데올로기라는 세 차원에서 분석했다. 그 결과 보수 집단 내에서도 정치적 태도의 차이와 ‘박정희 보수’가 지닌 독특한 정치적 정향이 나타났다. ‘박정희 보수’ 집단은 국가주의권위주의적 특성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성장주의에 대한 중시는 두 집단 간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박정희 보수’의 경우 경제 문제에서도 국가 중심적 태도를 보였다. ‘박정희 보수’의 특성이 가장 뚜렷이 나타난 것은 반공이데올로기와 적대적 대북정책에 대한 것으로, 보수 집단 내에서의 차별성뿐만 아니라 진보 정치세력에 대한 강한 정파적 거부감으로도 이어졌다.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존의’ 한국 보수주의가 냉전 시대의 정치적 권위주의와 깊이 연계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주제어: 박정희, 태극기 집회, 박근혜, 탄핵, 국가주의, 권위주의, 성장주의, 반공

2000년대 한국의 '탈민족주의' 논쟁 연구: 주요 쟁점과 기여

전 재 호(서강대 글로컬한국정치사상연구소 전임연구원)

Ⅰ. 들어가는 말
Ⅱ. 한국 탈민족주의 논쟁의 배경
Ⅲ. 한국 탈민족주의 논쟁의 주요 쟁점
Ⅳ. 나가는 말

국문요약

이 글은 2000년대 한국 학계를 뜨겁게 달군 탈민족주의 논쟁을 다루었다. 탈민족주의론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시각에서 민족주의의 부정과 해체를 지향하는 담론으로 기존의 민족주의 인식을 비판했고, 기성 학계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재비판, 수용, 변용 등 다양한 대응을 보였다. 탈민족주의 논쟁은 1990년대 지구화의 급속한 확산, 이주민의 대량 유입, 한중일 민족주의의 충돌이라는 현실을 배경으로, 서구의 근대론적 민족주의 인식과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이론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이 글은 논쟁의 주요 쟁점들 중 탈민족주의의 인식론적 전제인 한민족 형성의 근대론, 이론적 기초인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던 역사인식,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권력 담론으로서의 민족주의, 그리고 현실적 차원에서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인 탈민족탈국가 역사 인식/서술과 국사해체론을 다루었다. 이 쟁점들을 중심으로 탈민족주의론의 기존 입장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기성 학계의 대응을 정리했다.

2000년대 후반 탈민족주의 논쟁은 논쟁을 주도했던 역사포럼의 해체, 한국을 둘러싼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조건의 변화, 탈민족주의론의 한계 등을 배경으로 잠잠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쟁은 그동안 비판의 성역이던 한국 민족주의에 대한 성찰을 가져왔고, 그 결과 민족주의의 역할과 효용성을 재검토하도록 했으며, 민족주의의 변용과 대안 모색을 추구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갖고 있다.

주제어: 민족주의, 탈민족주의, 포스트모더니즘, 탈민족탈국가 역사인식, 국사해체론

남북관계의 변화와 남남갈등

정 영 철(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조교수)

Ⅰ. 들어가며
Ⅱ. 남남갈등의 탄생과 이분법적 대립 구도
Ⅲ. 남북관계의 변화와 남남갈등의 프레임을 넘어
Ⅳ. 보편적 가치의 증진과 갈등의 전환
Ⅴ. 나가며

국문요약

한국 사회에서 북한, 통일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로 심각한 사회갈등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남북관계'의 출현은 분단을 자양분으로 삼아 한국 사회를 지배했던 이데올로기 지형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즉 지금까지의 분단-냉전 체제가 변화하면서 과거의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이 허물어지고 있으며, 어느 일방의 극단적 선택이 더 이상 정당성을 얻지 못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냉전구조의 해체는 지금과 같은 '이분법적 갈등'이 더 이상 정당성을 갖지 못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분단-냉전 구조의 해체가 갈등 해결의 필요조건을 제공해줄 수 있지만,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냉전의 담론 지형을 탈냉전의 담론 지형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며, 제3의 길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민주주의와 평화와 정의 등 보편적 가치를 통한 담론의 재편성을 통해서만 건전한 갈등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적 가치 그리고 평화와 정의에 대한 보편적 가치의 확산과 강화가 든든하게 밑받침되어야 한다. 냉전의 분단-안보-전쟁 패러다임이 근원적으로 의심받고 있고, 해체되고 있는 현실의 조건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민주주의적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보편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건전한 정책 경쟁을 이끌어나가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남남갈등, 대북정책, 담론, 민주주의

‘북핵’ 위협인가, 북핵 ‘위협’인가: 북핵 안보담론 구성 요소 고찰

윤 성 원(영국 셰필드대(University of Sheffield) Department of Politics, Teaching Associate)

Ⅰ. 서론
Ⅱ. 안보화 이론
Ⅲ. 북핵 안보담론의 본질
Ⅳ. 북핵 안보담론의 특징
Ⅴ. 결론

국문요약

1990년대 이후 ‘북한 비핵화’는 이른바 보수 진보 진영을 막론하고 한국 안보담론의 성상(聖像)이 되었다. 그러나 비핵화에 매몰된 담론은 그것이 실제 추동해야 할 ‘비핵화’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반대로 ‘강화된 북핵 능력’이라는 현실은 비핵화 담론의 끊임없는 재생산으로 이어졌다. 본 연구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안보 문제의 담론적 구성을 중시하는 안보화 이론을 원용해 북핵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안보담론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먼저 안보화 이론의 핵심을 소개한 뒤, 북핵 안보담론의 본질적 측면을 파악하고 비판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안보화 이론의 개념적 틀이 한반도 안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논의한다. 이어 노무현, 이명박 정부 주요 안보 행위자들의 발화행위를 분석하고 비핵화 담론이 노정한 의미 변화 및 왜곡 과정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본 연구가 지니는 정책적이론적 함의를 제시한다.

주제어: 안보담론, 안보화 이론, 북핵 위협, 노무현, 이명박

북미화해와 한일균열:
센토사 합의 이행 협상의 구조적 속성과 귀결

김 정(북한대학원대 조교수)

Ⅰ. 서론
Ⅱ. 북미화해: 협상의 구조적 속성
Ⅲ. 한일균열: 협상의 구조적 귀결
Ⅳ. 결론

국문요약

센토사 합의 이행은 전쟁방지 및 핵비확산 목표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무장 해제를 도모하려는 미국의 선택이다. 그 궁극적 대가는 지역안정 목표를 담보하는 미군의 한반도 전방전개를 포기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에서 미국과의 공조를 유지하고, 미국이 적절한 수준에서 예방전쟁 위협의 신빙성을 담지할 수 있다면, 강압외교로서의 센토사 합의 이행 협상은 진전할 수 있고 그 결과는 북미화해로 이어질 것이다.

북미화해는 한일균열로 귀결될 개연성이 높다. 한국과 일본의 안보협력은 북한의 핵무장 위협이라는 수요 측면 약화와 미국의 소-다자주의적 외교조율이라는 공급 측면 약화에 직면하여 국내 반발을 잠재울 동력을 상실할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은 패권 편승 정책으로, 일본은 세력 균형 정책으로, 각각 정책 선택을 달리하면서 동아시아 안보질서의 재건축에 시동이 걸릴 것이다.

주제어: 북미관계, 한일관계, 미국 안보정책 트릴레마, 핵무장국, 동아시아 안보질서

한중 수교에서 '북한요인'의 변화 및 영향

이 동 률(동덕여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Ⅰ. 서론
Ⅱ. 한중수교의 배경: 국제체제, 한반도, 국내 세 차원의 상호작용과 '북한요인'의 변화
Ⅲ. 한중수교 협상과 '북한요인'
Ⅳ. 결론: 한중수교와 '북한요인'의 영향

국문요약

이 글은 중국이 1990년대 한국과의 수교에 대해 극적인 태도 변화를 야기한 동인을 '북한요인'을 중심으로 추적했다. 즉 중국이 '북한요인'을 더 이상 수교의 절대적 장애로 인식하지 않게 된 과정을 국제체제, 한반도, 한중 양국의 국내정치 세 차원에서 검토하고, 이어서 수교 협상과정에서 '북한요인'이 어떻게 논의되는지를 복기했다.

중국은 한국과의 수교를 통해 경제협력선의 다변화를 모색하는 동시에 전략적 차원에서는 한반도에 '투 코리아(two Koreas)' 정책을 관철시키고, 한반도의 남북한 양측과 동시에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강대국으로서의 영향력과 입지를 확보하고자 했다. 반면 한국은 중국과의 수교 및 관계발전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통일환경 조성에 있어서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과 역할을 기대했다.

이처럼 한중 양국은 '북한문제'에 있어서 수교 단계에서부터 전략적 동상이몽을 잉태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은 수교 이후 중국과의 비약적 관계발전에 고무되어 '북한문제'에서의 중국역할에 대한 기대를 확대하였다. 사드 갈등이 한중관계 전반을 압도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한 것도 결국 한중 양국이 '북한요인'에 대한 상이한 전략적 판단과 과잉기대에 기인했던 것이다.

주제어: 한중수교, 북한요인, 투 코리아, 유엔 동시가입

미국 패권은 예외적인가?: 아이켄베리의 자유주의 국제질서 이론 비판

이 혜 정(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전 혜 주(중앙대 정치국제학과 석사과정)

Ⅰ. 서론
Ⅱ. 자유주의 국제질서 논쟁 구도
Ⅲ. 탈냉전기 아이켄베리의 이론적 변화
Ⅳ. 결론

국문요약

본 연구는 미국 패권에 대한 표준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있는 아이켄베리(G. John Ikenberry)의 자유주의 국제질서 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냉전 종식 직후 아이켄베리는 냉전의 산물인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대신해서 새롭게 국제적 다자주의와 미국 패권의 국내적 제도를 재구축해야 한다는 '재건'론을 제기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미국의 경제 호황과 단극체제의 도래를 배경으로, 그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냉전적 기원을 부정하면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미국 패권의 예외적 특성—국가 간 경쟁의 원천인 상대적 이익을 뛰어넘는 절대적 이익을 창출하는 개방적 국제경제, 일방주의가 아닌 상호호혜적 패권, 민주주의와 관용적인 시민 정체성 등—을 본연적으로 내장한 질서라는 '찬양'론으로 선회했다. 이후 '찬양'론에 의하면 발생하지 않았어야 할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의 일방주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대침체, 전 지구적인 민주주의의 후퇴, 특히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적 도전에 직면하여 아이켄베리는 자유주의의 '회복력'을 강조하면서 반-트럼프 진영의 초국적 연합을 통한 자유주의 '수호'론을 제창하고 있다.

주제어: 자유주의 국제질서, 미국 패권, 존 아이켄베리, 미국 예외주의

1990년대 비대칭적 한미동맹 변화와 한국의 선택

황 지 환(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Ⅰ. 비대칭적 동맹 변화와 한국
Ⅱ. 비대칭적 한미동맹의 의미
Ⅲ. 1990년대 미국의 글로벌 안보전략 변화
Ⅳ. 1990년대 한국의 비대칭적 한미동맹 외교
Ⅴ. 비대칭적 동맹 변화에 대한 한국 동맹외교의 특징

국문요약

이 글은 1990년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변화에 따른 한미동맹 변화와 이에 대한 한국의 한미동맹 외교에 초점을 둔다. 1990년대 초반 냉전의 종식 이후 세계 안보환경 변화로 인해 미국의 글로벌 전략 역시 변화의 모습을 나타냈다. 미국의 글로벌 안보전략 변화는 글로벌 군사전략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한미동맹에 대한 변화 요구 역시 증폭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990년대 들어 한반도에서는 북핵 위기의 발발과는 별도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변화라는 차원에서 한미동맹 재조정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글은 글로벌-로컬 안보전략의 '비대칭성'이라는 관점에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변화가 한미동맹 운용에 어떤 변화요인과 도전을 제기했는지 살펴본다. 또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변화 및 한반도 정책 변화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어떤 대응을 보여주었는지 설명한다. 당시 한미동맹의 주요 이슈였던 주한미군 감축, 주한미군 주둔 비용, 작전통제권 등에 관한 미국의 시각과 한국의 대응을 살펴본다.

주제어: 한미동맹, 글로벌, 동아시아, 비대칭 동맹

한국 비구속성 원조의 실질적 구속화 현상에 대한 탐색적 연구

남 수 정(연세대 행정학과 박사과정)
정 헌 주(연세대 행정학과 부교수)

Ⅰ. 서론
Ⅱ. 국제개발협력에서의 비구속성 원조 및 실질적 구속성 원조 현황
Ⅲ. 한국의 비구속성 원조 현황
Ⅳ. 한국 무상원조의 실질적 구속화에 대한 분석
Ⅴ. 결론

국문요약

한국은 OECD/DAC 가입 전후, 그리고 동료평가에서 원조의 높은 구속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정부는 무상원조의 경우 100% 비구속성 원조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유상원조의 경우 75%를 비구속성 원조로 제공하고 특히 최빈개도국(LDCs)과 고채무빈곤국(HIPCs)에 대해서는 원조를 전면 비구속화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선진공여국들의 사례를 보면, 공식적으로는 비구속성 원조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로 인해 원조 조달처가 공여국의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이 되는 실질적으로 구속화(de facto tying of aid)되는 현상을 보인다.

본 연구는 한국의 비구속성 원조가 얼마나, 어느 정도로 실질적 구속성 원조로 지원되는지를 살펴보고, 그러한 실질적 구속성 원조를 통해서 어떠한 기관이나 기업이 원조 조달에 참여하고 낙찰받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규범적 수준에서 논의되었던 원조의 비구속화를 구체적인 프로젝트 수준에서 분석함으로써 비구속성 원조가 구속화되는 현상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후속 연구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구속성 원조, 비구속성 원조, 실질적 구속성 원조, 원조 조달, 국제개발협력

2018년 교육감 선거의 투표행태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강 우 진(경북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배 진 석(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연구교수)

Ⅰ. 들어가며
Ⅱ. 교육감 선거의 배경
Ⅲ. 2018년 교육감 선거 결과
Ⅳ. 가설 설정
Ⅴ. 경험분석
Ⅵ. 결론과 함의

국문요약

이 연구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를 교육감 선거 기권, 분할투표, 교육감 후보 선택의 세 가지 차원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외고자사고 폐지에 찬성할수록 교육감 선거에 불참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감 정당공천에 찬성할수록 진보 분할투표 경향이 나타났다. 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를 결정짓는 또 다른 중요한 변수는 정당동원 변수였다. 정당동원은 교육감 선거의 투표를 독려했으며, 분할투표보다는 일관투표를 이끌어 냈고, 교육감 후보 선택에 있어서 진보후보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추가적으로 단체장 선거에서 진보정당 계열의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은 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 글의 분석 결과는 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난 다양한 차원의 투표행태는 교육감 선거의 정책과 선거제도 관련 쟁점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치러지는 단체장 선거에 의해서도 중요하게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제어: 교육감 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외고자사고 폐지, 분할투표

김정은의 신외교와 독재자의 딜레마(Dictator's Dilemma), 그리고 빅데이터 역설(Big Data Paradox)

김 용 호(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들어가는 말
Ⅱ. 김정은의 신외교: 연속성과 단절성을 통해 본 진정성에 대한 검토
Ⅲ. 김정은의 신외교: 미중 대결구도와 새로운 등거리외교
Ⅳ. 독재자의 딜레마와 빅데이터 역설
Ⅴ. 결론

국문요약

이 글은 김정은의 정상회담외교가 던져준 세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 있다. 첫째는 변화의 진정성 여부에 대한 것으로, 미국의 대북압박 및 북한의 위협인식 수준이 임계치에 달한 상황에서 또 다른 시간끌기 등을 추진할 정책적 여유가 없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둘째는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대미관계 개선을 추구할 가능성에 대한 것으로, 과거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의 등거리외교 메커니즘을 가동할 경우 미중 신균형외교를 추구할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셋째는 경제발전 추구 과정에서 소셜미디어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민주주의 확산요구를 통제하여 독재자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경제발전과 권력유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주제어: 김정은, 북한외교, 정상회담, 독재자의 딜레마, 빅데이터, 북중관계

북중 접경도시의 스케일의 정치: 신압록강대교 건설 18년을 중심으로

이 경 수(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스케일의 정치
Ⅲ. 비대칭적 스케일 간 갈등: 대교 건설과 도시 개발
Ⅳ. 스케일의 정치: 단둥 주도의 국가 스케일 담론
Ⅴ. 결론: 북중 초국경협력의 다층성

국문요약

본 연구는 초국경협력을 비롯한 접경지역 변화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을 조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 중앙정부의 의도와 정책을 중심으로 북중 초국경협력 연구가 진행되어 지방 층위의 미시적 동학에 대한 분석은 찾기 힘들었다. 중앙중심적 접근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벌어지는 지방 층위의 역동성이 사장된다는 인식하에 본 연구는 '스케일의 정치' 논의를 통해 지방정부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진척시키는 과정을 조망하고자 한다.

이를 보여주는 사례는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다리로 새롭게 건설된 신압록강대교로, 처음 논의가 시작된 2000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지방정부의 의도와 이해관계가 초국경협력을 주조하는 동학을 검토한다. 애초 단둥의 도시 개발을 위해 북한에 제안된 대교 건설은 북중 간 합의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단둥항–신취–남신의주 중심의 중국 개발안과 대계도항–신의주 중심의 북한 개발안 간 비대칭적 갈등 속에서 표류하다가, 지방정부가 주도한 스케일의 정치를 통해 지방스케일의 개발 사업이 국가스케일의 외교 사안으로 격상되면서 실현되었다. 중국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북한과 중국 중앙정부 간 복합적 상호작용 속에서 북중 초국경협력이 구체화되는 지점을 보여 스케일적 인식론이 갖는 함의를 지적한다.

주제어: 스케일, 스케일의 정치, 초국경협력, 접경지역, 중국, 북한

시진핑 친정체제 구축 방식과 그 함의에 관한 연구: 지도이념, 권력구조 개편과 통치 정당성 강화를 중심으로

이 상 만(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 동 찬(중국 푸단대학(复旦大学) 박사생)

Ⅰ. 서론
Ⅱ. 新지도이념 제시: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
Ⅲ. 시진핑 집권 2기 권력구조 개편: 제도적 보장과 인적 쇄신
Ⅳ. 통치 정당성 강화: 신경제시대선언을 통한 물적 토대 강화
Ⅴ. 결론: 시진핑 친정체제 구축이 초래할 영향 전망

국문요약

시진핑 집권 이후 강력하게 추진된 반부패 투쟁과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영역에서의 '전면적 심화개혁'은 과거 덩샤오핑의 집권과 함께 진행되었던 중국의 '개혁개방 노선' 선택 이후 최대의 노선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시진핑은 집권 2기를 시작하면서 19차 당 대회를 통해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당의 지도이념으로 제시했고, 2018년 3월 개최된 양회를 통해 헌법 개정과 국가기구의 대대적인 개편, 그리고 국무원, 전인대, 정협 등에 대한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결과적으로 시진핑 집권 2기 친정체제의 강화로 귀결된다. '시진핑 사상'에서 나타나는 현재의 주요 모순에 대한 인식 변화, 제도적 보장과 인적 쇄신을 통한 권력기반 확대와 공고화, 신경제시대 선언을 통한 물적 토대 강화는 모두 공산당 통치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과정으로 평가된다. 종합하면, 시진핑 집권 2기에는 '시진핑 노선'이 더 뚜렷하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며, 시진핑으로의 권력 집중이 가속화될수록 중국 국내의 사회적 긴장관계가 표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된다.

주제어: 시진핑 친정체제, 시진핑 사상, 권력구조 개편, 인적 쇄신, 통치 정당성

북한의 대외 · 대남 전략 구상의 특징과 결정요인: 북핵문제와 강압전략을 중심으로

정 성 윤(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연구위원)

Ⅰ. 서론
Ⅱ. 대외전략 투사과정과 효과
Ⅲ. 대남전략 투사과정과 특징
Ⅳ. 전략 구상 결정요인
Ⅴ. 결론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미국 본토 핵공격 능력 확보와 공세적 강압전략의 파급영향이, 역설적으로 북한이 비핵화 대화 참여를 결단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북한이 2018년 전격적으로 비핵화 대화 참여 결단을 내린 배경에는 핵능력의 가치와 전략적 효용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되어 있다. 북한의 전략적 판단에는 비핵화 대화 참여 직전까지 지속했던 대외대남 강압전략에 대한 성공적 평가가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북한은 북미 협상과 관련해 판세 장악에 대한 자신감과 대안을 보유한 차원에서, 과거 미국이 상대했던 약소 불량국가들과는 다른 전략적 환경하에 미국과의 협상게임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지도부가 2016년 이후 대외대남 전략 구상에서 고려했던 변수와 상수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비핵화 게임에 임하는 북한의 전략적 속성을 구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과거와 달리 북한이 남한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남북관계 진전이 소중한 촉매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새롭게 창출되고 있다.

주제어: 북한의 핵능력, 북미 협상게임, 강압전략, 전략적 가치, 비핵화

비핵화 모델의 사례와 교훈: 문재인 정부의 '코리아 모델'은 성공 가능한가?

김 근 식(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문제의 제기
Ⅱ. 문재인 정부의 코리아 모델: 비핵평화 프로세스
Ⅲ. 비핵화 사례와 성공요인: 우크라이나 모델, 리비아 모델, 남아공 모델
Ⅳ. 비핵화 실패사례: 파키스탄 모델
Ⅴ. 북한 비핵화 협상: 성공요인의 어려움
Ⅵ. 코리아 모델은 성공할 것인가?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국문요약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교환하는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코리아 모델'의 성공 여부는 기존 비핵화 사례에서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추출하고 이것이 북한 비핵화 협상에 적용될 수 있을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핵화 성공사례로 꼽히는 우크라이나, 리비아, 남아공 모델에서는 핵기술의 취약성, 제재의 효과, 국내적 정권교체 등을 비핵화 성공요인으로 추출할 수 있다. 반면 비핵화 실패사례인 파키스탄 모델에서는 인도와의 오랜 적대관계의 온존이라는 실패요인을 도출할 수 있다. 이를 코리아 모델에 적용할 경우 북한은 이미 끈질긴 핵집착을 통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제재는 생존을 위협할 만한 물샐틈없는 제재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정권교체 등의 정치적 변화 역시 무망하다는 점에서 성공요인은 적고 동시에 한국 및 미국과의 오랜 적대관계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실패요인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코리아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요조건으로 북한이 원하는 안전보장과 평화체제를 마련해야 하지만, 이 자체도 한반도 안보환경의 특수성과 평화체제의 비현실성 그리고 비핵과 평화의 단계별 등가교환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코리아 모델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비핵화 성공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 수령독재의 정치적 변화가 충분조건으로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주제어: 비핵평화 프로세스, 평화체제, 코리아 모델, 우크라이나 모델, 리비아 모델, 남아공 모델, 파키스탄 모델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귀환: 미국우선평화 대 병진평화

황 지 환(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Ⅰ. 2018년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노력
Ⅱ.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귀환
Ⅲ. 비핵화와 평화체제 사이의 딜레마
Ⅳ. 한반도 평화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시각
Ⅴ. 한반도 평화체제의 방향성

국문요약

2018년은 한반도 평화에 있어 새로운 변화의 해가 되었다.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함으로써, 2008년 6자회담 중단과 함께 사라졌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다시 전면에 부각되었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북한은 체제보장과 평화협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완전한 비핵화가 이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달성된다고 생각한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진전이 더딜 경우 다른 한쪽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다른 한편, 한반도 평화에 대한 북미 간 개념 차이도 평화체제 달성을 어렵게 해왔다. 평화를 이해함에 있어 미국은 그동안 민주평화를 강조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우선주의'를 강조한다. 민주주의 가치보다는 미국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평화에 접근하고 있다. 미국에 이익이 된다면 다른 어떤 가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관점은 그동안 선군평화의 관점에서 이해되어 왔는데, 김정은은 이를 병진노선으로 발전시켜 왔다. 병진노선에 입각한 평화개념은 핵무기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교환게임을 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어떤 과정을 만들어나갈 것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어떤 평화개념을 만들고 합의하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가 결정될 것이다.

주제어: 한반도 평화체제, 미국, 북한, 미국우선주의, 병진노선

북핵과 북미 관계:
미국 주도 질서 속 북한의 주권적 지위 문제

전 재 성(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Ⅰ. 서론: 북핵 문제의 근원으로서 북한의 주권적 지위
Ⅱ. 동아시아 불완전 주권국가 체제와 미국 주도 질서 하 북한 문제의 본질
Ⅲ. 동아시아 불완전 주권국가 체제의 정립과 북한 문제의 시원
Ⅳ.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의 조건과 비핵화 협상
Ⅴ. 결론

국문요약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 이래 북미 핵협상이 진전되고 북핵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다. 북핵 문제의 근원은 북한의 주권적 지위와 체제의 안전이라는 국제정치의 문제이며, 냉전을 거쳐 미국 단극체제, 그리고 미중 경쟁체제라는 체제요인이 변화하면서 북핵 문제 역시 다른 성격을 띠게 되었다. 미국이 동아시아 전략 속에서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어나가며 북한 문제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미국 내부에서는 현재 미국 주도의 질서를 자유주의 질서로 보는 자유주의자들과 세력균형의 기반 위에서 힘의 우위를 중시하는 현실주의자들의 분석과 처방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양자 모두 미국 주도 질서가 구 제국주의 질서로부터 진화되어 온 것이며, 특히 비서구 지역에 대한 위계 설정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 북핵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북한 비핵화와 북미 수교를 이룰 수는 있지만 진정한 북미 전략적 협력관계, 더 나아가 북한의 정상화와 통일을 이루려면 한국은 격화되는 미중 경쟁 속에 바람직한 지역질서의 미래를 제시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북핵 문제, 북미 관계, 미중 관계, 불완전 주권, 샌프란시스코 체제

미국의 대북제재와 경제적 관계정상화 전망

임 수 호(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 책임연구위원)

Ⅰ. 서론
Ⅱ. 미국 대북 경제제재의 구조와 특징
Ⅲ. 유엔제재와 미국의 관련 독자제재
Ⅳ. 북한의 중장기 경제발전과 미국의 독자제재
Ⅴ. 결론

국문요약

이 글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법률을 분석하여 북한의 단기적중장기적 경제발전을 위한 제약 요인과 그 해제 요건을 검토하였다. 미국의 대북제재는 다수의 사유와 법률이 중첩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특정 사유나 법률상 제재가 해제되더라도 다른 사유나 법률상 제재가 유지되면 북한에 실제로 돌아가는 혜택이 없다. 나아가 기존에는 전통적 안보위협, 대량살상무기 확산, 테러지원, 공산주의비시장경제를 이유로 부과되었지만, 2010년부터는 유엔제재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자금 세탁, 인권 위반 등 매우 광범위한 사유가 추가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전되어 유엔제재가 해제되더라도 관련 미국의 독자제재는 더 오래 존속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대북제재 관련 법의 대부분은 대통령에게 제재 해제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그 요건을 상세히 명시함으로써 대통령의 자의적 해제를 막고 의회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두었다. 또한 대통령은 의회와의 정치적 역학관계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제재가 해제될 수 있다는 주장은 피상적 관찰이다.

통상 유엔제재가 해제되면 기존 남북경협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하지만 현재 유엔제재는 미국의 독자제재에 보다 강화된 형태로 포함되어 있고, 제3국에 대한 2차 제제를 허용하고 있어 유엔제재가 해제되더라도 남북경협 재개에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남북경협이 대북 개발협력 사업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대북 전략물자 반출, 국제금융기구의 대북 개발원조, 그리고 미국의 대북 시장개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에 더해 본격적 개혁개방이 선행되어야 한다.

주제어: 제재, 남북경협, 개발협력, 비핵화, 개혁개방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전략과 역할

이 동 률(동덕여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Ⅰ. 서론
Ⅱ. 북핵 위기와 '중국역할'의 역사
Ⅲ.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와 '중국역할'
Ⅳ. 중국의 전략과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Ⅴ. 중국의 전략과 역할 전망

국문요약

2018년 이후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리고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가 새로운 궤도에 진입하면서 중국소외론, 중국배후론 등 '중국역할'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라는 역사적 기회가 미중 간 세력 경쟁, 북중관계 회복 등과 맞물리면서 중국의 전략과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새로운 변화된 환경에서 중국이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 어떠한 전략과 역할을 모색하고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했다.

지난 26여년간 중국의 행보를 역사적으로 검토하는 동시에 새로운 변수들, 예컨대 중국의 국내정치 상황, 미중 갈등, 북중관계 회복을 고려하여 중국의 전략과 역할을 도출하고자 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적극적이고 건설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 과정에서 2002년 등 이전과 비교할 때 주목할 만한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고 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미중관계와 국내정치 상황, 그리고 그 하위 변수인 한반도 정세와 북중관계 등 다른 변수들을 우선 고려하며 북핵 문제에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즉 중국은 비핵화를 지지하지만 다른 한편 미국과의 세력 경쟁 국면에서 한반도의 급격한 현상 변경이 초래할 불확실성도 경계하고 있다.

주제어: 중국의 역할,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 북미정상회담, 미중 경쟁, 북핵

한반도 비핵 · 평화프로세스와 일본 아베 정부의 입장

박 영 준(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

Ⅰ. 머리말
Ⅱ. 일본 아베 정부의 외교전략과 한반도 정책 기조
Ⅲ. 남북미 관계 변화와 아베 정부의 대응
Ⅳ. 아베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북일관계 전망
Ⅴ. 맺는 말

국문요약

국제학계에서 종전의 일본 외교는 수동적, 반응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이전의 일본 정치세력과 달리 보통국가론 혹은 내셔널리스트의 입장을 강하게 보이면서,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여 일본의 대외정책 및 안보정책을 수정해나가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아베 총리는 2018년 이후 북미관계의 변화, 북한 대외정책의 변화에 직면하여, 나름의 전략적 자율성을 갖고 북일정상회담 추진 등을 정책 어젠다로 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아베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는 한반도 비핵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적지 않다. 한일 간에는 위안부 합의 문제나 강제징용 공 판결 문제 등으로 관계 악화의 악재들이 누적되고 있으나,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우호적인 대외조건의 하나로서 아베 정부의 대북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

주제어: 일본, 아베 총리, 북한, 북일관계, 한반도 비핵평화프로세스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이 호 철(인천대 중국연구소 소장)

Ⅰ. 위기의 증폭, 평화의 모색
Ⅱ.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내용
Ⅲ.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Ⅳ.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쟁점
Ⅴ. 한국의 비핵평화 외교

국문요약

남북 간, 북미 간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는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북미관계 정상화, 남북관계 개선발전 등의 하위 프로세스들을 담고 있다. 한반도를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터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비핵평화 프로세스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무산된 이후 워싱턴의 비핵화 접근은 포괄적 합의 혹은 빅딜 방식으로 수렴되고 있다. 그러나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북미수교, 남북관계 개선발전, 대북제재 조정 등이 한 번에 동시적으로 이행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방식을 제안한다. 이는 북미와 남북미가 '비핵평화 단계적 이행 로드맵' 전체를 협상하고 합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단계적 이행 로드맵이 합의되면 한국과 미국은 국회와 의회에 보고하고 지원을 요청함으로써 순조로운 이행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무산된 이후 한국 정부의 비핵평화 외교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한국 정부는 남북 간 대화와 한미협조를 통해 단계적 이행 로드맵의 초안을 작성하고 북미에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접근, 단계적 이행 로드맵, 완전한 비핵화, 중국 역할, 한국의 비핵평화 외교

정당의 명칭변경에 대한 한국 유권자의 인식과 정당일체감

한 정 훈(서울대 국제대학원 부교수)

Ⅰ. 서론
Ⅱ. 정당명칭 변경의 역사
Ⅲ. 정당명칭과 정당일체감
Ⅳ. 내생성의 문제
Ⅴ. 자료 및 변수, 통계모형
Ⅵ. 경험적 분석결과
Ⅶ. 결론

국문요약

본 연구는 정당일체감이 한국 사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정당의 명칭변경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다. 특히 정당일체감과 명칭변경 전후의 정당에 대한 유권자 인식 간의 내생성을 반복모형(recursive model)에 반영하고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2017년 대통령 선거 직전에 이루어진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 분석결과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일체감이 명칭변경 이전의 새정치민주연합과 더불어민주당을 동일한 또는 상이한 정당으로 인식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이 서구와 달리 특정 정당에 대해 일관되고 지속적인 평가를 위한 기제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또한 한국 정당들의 빈번한 명칭변경이 정당일체감의 안정적 유지를 방해하는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함의한다.

주제어: 정당명칭, 정당일체감, 내생성, 더불어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지역균열의 유지와 변화: 제19대 대선의 경험적 분석

윤 광 일(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Ⅰ. 서론
Ⅱ. 완전한 균열로서 지역균열
Ⅲ. 경험적 분석
Ⅳ. 결어

국문요약

이 연구는 사회구조와 정치 그리고 유권자 행태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균열이론에 기반하여, 지역균열의 현 실태와 진화 양상을 제19대 대선을 기점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또한, 균열의 유권자 행태에 대한 함의에 초점을 맞춰 선행연구의 거시 수준 연구 편향을 극복하려 한다.

연구 결과, 영호남 지역균열은 '사회구조–규범–조직'을 필요불가결한 본질적 세 요소로 갖춘 유일한 완전한 균열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남 출신의 경우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출신 간의 정치행태 분화가 드러나 영호남 지역균열이 호남과 대구/경북 간 지역균열로 재편되는 양상도 보인다.

경험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호남과 대구/경북 출신 유권자는 지역에 배타적인 지지기반이 있는 정치세력과 연계된 정치이념에 정렬되어 대조적 진보–보수 자기평가가 뚜렷했다. 둘째, 배타적 지역 지지 정치세력의 이념적 구분에 강하게 연계된 대북 및 통일 정책에 대해 호남과 대구/경북 출신의 선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셋째, 호남과 대구/경북 출신의 경우 과반수가 서로 다른 정당을 가깝게 느끼고 있었고, 내집단 정당과 정당 후보에 대한 편애 및 외집단 정당과 정당 후보에 대한 반감도 명확하게 드러냈다. 넷째, 호남 출신은 다른 지역 출신에 비해 가장 낮은 교차압력에 놓여있지만, 영남 출신은 더 높은 교차압력에 놓여있으며 그 분포도 넓게 나타났다. 다섯째, 맥파든 투표선택 모형 분석에 의하면, 여전히 호남과 대구/경북 출신 유권자들은 지역균열의 강한 제약하에 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관찰에서, 부산/울산/경남 출신은 호남 출신의 정치행태와 뚜렷하게 대조적이지 않거나 오히려 비슷한 선호를 드러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지역균열 구조에 대한 경험적 분석 결과의 함의를 생각하며 글을 맺는다.

주제어: 영호남 지역균열, 완전한 균열, 제19대 대선, 영남 정치 선호의 분화

2018년 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이념성향과 정책 공약에 관한 연구

서 현 진(성신여대 사회교육과 교수)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국문요약

이 글에서는 2018년 교육감 선거의 공약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정당공천 없는 교육감 선거에서도 후보자 정책의 이념적 차이가 정당 후보자 간 이념대립처럼 나타났는지를 살펴보았다. 교육감 후보자의 5대 선거 공약을 전수 조사한 결과, 대통령 선거와 같은 정치적 선거에서 나타난 교육방향의 이념적 차이가 교육감 선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모든 이슈에서 항상 이념적 대립 입장이 나타나지는 않았고 후보자의 성향과 공약의 이념적 방향이 항상 일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보와 보수 후보 간 입장 차이가 나타나는 핵심 공약이 많았다. 또한 후보자의 이념성향에 따른 핵심 공약요소의 이념적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했다.

평균분석 결과,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5개 영역 모두에서 보수적이거나 이념성을 알 수 없는 공약보다 진보적인 공약이 더 많이 제시되었다. 또한 5개 영역 모두에서 진보 진영의 후보자들은 진보적 입장에서 공약을 제시했고, 보수 진영의 후보자들은 보수적 입장에서 공약을 제시했다. 진보와 보수 후보는 학교정책에서 가장 이념적으로 대립했고, 평등과 미래 정책에서도 이념적 차이가 컸다. 전체적으로 보수보다는 진보 후보들이 자신들의 이념적 색채를 더 드러내는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가 교육감 선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논의에 경험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

주제어: 교육감 직선제, 선거 공약, 교육정책, 이념, 지방교육자치

한국의 반일(反日) 민족주의 연구: 담론의 변화와 특징

전 재 호(서강대 글로컬한국정치사상연구소 전임연구원)

Ⅰ. 들어가며
Ⅱ. 반일에 관한 기존 연구 검토
Ⅲ. 반일의 기원과 한국 민족주의의 심리적 특성
Ⅳ. 해방 후 반일 민족주의 담론의 전개과정
Ⅴ. 나가며

국문요약

이 글은 해방 이후 70여 년간 반일 담론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고찰했다. 한국의 반일감정에는 부러움, 질투와 분노, 증오가 복합적으로 응축되어 있고, 반일 담론은 그런 감정을 담아 표출하는 수로의 역할을 했다. 정치와 역사 부문에서 반일 담론은 냉전과 반공의 제약을 받았지만, 교육과 제도를 통해 그리고 과거사와 관련된 쟁점들이 계속 등장함으로써 21세기까지도 지속했다.

이에 비해 문화와 일상 영역에서의 반일 담론은 왜색일소 및 정부의 일본 문화와 상품 수입 금지에서 보이듯이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비공식적으로 유입되었고 1998년 대중문화가 개방되면서 이 영역에서의 반일 담론은 '사실상' 소멸했다.

결국, 해방 후 70여 년간 정치, 역사 부문과 문화, 일상 영역에서 반일 담론은 상반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일본을 절대 악으로 간주하는 담론의 내포가 지속했던 데 비해 일본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는 담론의 외연은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반일 담론, 민족주의, 왜색, 과거사 문제, 일본 대중문화 금지

김정은 시대 북한 핵 개발의 국내정치동학: '정당성의 정치'와 '핵 민족주의'

조 영 임(국방부 공군 소령)
안 경 모(국방대 안보정책학과 부교수)

Ⅰ. 들어가며
Ⅱ. 정당성의 정치와 핵 민족주의
Ⅲ. 핵 민족주의의 '생산'
Ⅳ. 핵 민족주의의 '소비'
Ⅴ. 나가며

국문요약

본 연구는 북한 핵 개발의 시작과 동기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들을 활용함과 동시에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핵 개발의 지속과 효과와 관련한 정치적 동학을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지난 30여 년 동안 지속되어온 북한의 핵 개발은 일시적 사건이라기보다 장기적 과정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그 시작만큼이나 지속에 대한, 동기만큼이나 효과에 대한 포괄적 분석이 필요하다.

관련하여 본 연구는 북한 민족주의와 핵 담론의 결합이 김정은 정권 이후 본격화된 점에 주목한다. 김정은 정권은 매우 체계적인 방식으로 핵 개발의 성취를 민족주의와 결합시킨 일종의 '핵 민족주의'를 생산함으로써 정치적 정당성 구축을 시도했으며, 그것이 김정은 시대 핵 개발의 지속과 효과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정치적 기획의 '생산' 측면을 '정당성의 정치'라는 개념을 통해 포착함과 동시에, 북한이탈주민 심층면접 조사를 통해 그러한 기획이 실제 인민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와 관련한 핵 민족주의의 '소비' 측면도 함께 분석하고자 시도했다.

주제어: 북한, 김정은, 정당성의 정치, 핵, 민족주의

미국의 중국정책 전환과 미중 무역분쟁

이 지 용(계명대 중국학전공 조교수)

Ⅰ. 서론
Ⅱ. 미국의 중국정책 전환과 미중 무역분쟁: 이론적 논의와 쟁점에 대한 문제 제기
Ⅲ. 미국의 중국정책: 관여에서 견제로의 전환
Ⅳ. 미중 무역분쟁과 양국의 대응력 평가
Ⅴ. 결론

국문요약

트럼프 행정부 들어 진행 중인 미중 무역분쟁의 성격은 단순히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려는 차원이 아니다. 그 배경에는 지난 40여년간 지속해온 중국정책의 전환이라는 보다 큰 변화의 흐름이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무역분쟁의 성격과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중국정책 전환이라는 보다 거시적 맥락에서 미중관계 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 이전까지 미중 무역마찰 발생 시 반복되는 경향을 보여온 타협방식은 중국의 대미 로비와 대규모 미국상품 구매약속을 통한 적정수준의 타협을 도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전개하고 있는 중국정책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의 타협으로 수렴된 전형적인 패턴은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향후 미중관계는 미국이 중국 견제정책을 본격화함에 따라 악순환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주제어: 미중 무역분쟁, 미중관계, 세력전이, 관여, 견제

중국 엘리트 정치의 제도화 과정 분석: 연령제와 민주추천제의 도입 사례

조 영 남(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Ⅰ. 최고 통치 엘리트의 연령제 도입
Ⅱ. 민주추천제 도입
Ⅲ. 결론: 파벌투쟁의 산물이 파벌투쟁을 제약하다

국문요약

이 논문은 개혁기 중국의 엘리트 정치가 어떻게 제도화 과정을 거쳤는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정치국원과 정치국 상무위원을 대상으로 도입된 연령제와 민주추천제를 사례로 분석한다. 최고 통치 엘리트를 대상으로 하는 연령제는 1997년 공산당 15차 당대회에서 '70세 규범'이, 2002년 공산당 16차 당대회에서 '68세 규범'이 도입되어 비공식 규범 형태로 실행되고 있다. 정치국원과 정치국 상무위원을 선발하는 데 사용되는 민주추천제 역시 2007년 공산당 17차 당대회에서 도입되어 지금까지 실행되고 있다. 다만 그 추천 방식이 투표 방식에서 면담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런 제도들은 최고 통치 엘리트들의 협의를 통해 순조롭게 도입된 것이 아니다. 반대로 이들이 심각한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다시 말해 심각한 파벌투쟁을 진행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중국 엘리트 정치의 제도화가 공식 정치와 비공식 정치(파벌투쟁)의 상호 작용 속에서 발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주제어: 중국 엘리트 정치, 공산당, 정치 제도화, 집단지도, 연령제, 민주추천제

‘한국조항’의 문제: 한미일 관계 속의 한일관계

신 욱 희(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Ⅰ. 서론
Ⅱ. 데탕트의 도래와 한국조항
Ⅲ. 다나카 수상 시기 한국조항의 부재
Ⅳ. 신한국조항
Ⅴ. 결론

국문요약

1969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과 일본의 사토 수상 사이의 미일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한국의 안보는 일본의 안보에 필수적이다”라는 내용의 ‘한국조항’은 한국 안보에 대한 양국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이후 다나카 내각 시기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서는 표명되지 않았고, 이후 미국의 포드 대통령과 일본의 미키 수상 사이의 정상회담에서 ‘신한국조항’으로 다시 등장하였다.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빅터 차는 이른바 ‘유사동맹’ 모델을 통해 미국의 아시아 공약의 상대적 철회가 한일 사이의 협력을 증대시킨 측면을 강조하였다. 그의 논의는 미국의 정책으로 대표되는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체제 요인의 전환이 한일관계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구조적 현실주의 주장의 일단을 보여준다. 하지만 한국조항의 등장, 부재, 그리고 수정의 측면이 적절하게 설명되려면 미국 변수 이외에도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다른 양자관계의 역할과 일본의 정책 변수가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이와 같이 체제와 행위자, 그리고 한미일 관계의 특성을 함께 고찰하는 ‘주체–구조 문제’와 ‘복합성’의 관점에서 한국조항에 대한 사례를 검토한다.

주제어: 데탕트, 한국조항, 닉슨 대통령, 포드 대통령, 사토 수상, 다나카 수상, 미키 수상

휴전협상에서 북 · 중 · 소 3국의 태도 변화 및 결과

김 동 길(중국 베이징대 역사학과(北京大学 历史学系) 교수)

Ⅰ. 서론
Ⅱ. 전황의 악화로 인한 마오쩌둥의 휴전 결정
Ⅲ. 협상 초기 휴전조건에 대한 북중 간 견해 차이와 소련의 태도
Ⅳ. 마오쩌둥과 김일성의 조속한 휴전 추진과 스탈린의 방해
Ⅴ. 마오쩌둥의 '제1차 5개년 계획'에 대한 소련의 경제지원과 전쟁 지속을 맞교환
Ⅵ. 결론

국문요약

1951년 5월 말 제5차 전역 직후 북중연합군이 전면적인 패배 위험에 처하게되자, 마오쩌둥은 협상을 통해 전쟁을 끝낼 것을 결정하였다. 마오쩌둥은 38선 군사분계선과 외국군 철군을 휴전협상 조건으로 김일성에게 제안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규모 공격을 개시할 것도 약속하였다. 김일성은 이에 동의하여 함께 스탈린 설득에 나섰으며, 스탈린은 대규모 공세를 개시할 수 있는 재정비 시간을 벌기 위해 휴전회담 개시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휴전회담은 군사분계선 획정과 외국군 철군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처음부터 교착 상태에 빠졌다. 중국은 조속한 타결을 위해 양보를 주장하였지만, 북한은 원래의 조건을 고수하려 하였다. 이후 유엔군의 공세로 막대한 타격을 입은 김일성이 38선 군사분계선 주장을 철회하고 조속한 휴전 실현으로 태도를 바꾸면서 회담은 급진전되었다. 이에 소련은 기존의 휴전조건을 고수할 것을 주장하였지만, 북한과 중국의 반발에 부딪쳐 실패하였다. 1952년 4월까지 쌍방은 포로교환 의제를 제외한 모든 의제에서 합의를 이루었다.

그러나 중국은 '제1차 5개년 계획'에 대한 소련의 지원을 얻기 위해 포로교환 의제의 타결을 고의로 지연시키며 전쟁을 계속할 것을 결정하였다. 1952년 8월 중국은 이러한 결정을 스탈린에게 통보하면서 대규모 경제원조 제공을 요청하였다. 스탈린과 마오쩌둥은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상호 맞교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조속한 휴전을 바라던 김일성의 주장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주제어: 휴전협상, 38선 군사분계선, 김일성, 마오쩌둥, 스탈린

미국의 대한정책을 통해 본 한반도 중립국화 방안

박 태 균(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Ⅰ. 들어가며
Ⅱ. 한국전쟁 시기 미국의 한반도 중립화 방안
Ⅲ. 미국의 딜레마
Ⅳ. 대안으로서 한국의 중립화
Ⅴ. 현 상황의 대안으로서 중립화 방안

국문요약

본고에서는 한국의 중립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 방안은 이미 1950년대 초 한국전쟁 기간을 통해 미국의 정책문서에서 제안된 것이었다. 당시 중립화 방안이 현실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왜 이 방안을 제시했을까? 1953년 이후 미국의 정책문서 속에 한국의 중립화에 대한 고려가 더 이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한국에 대한 군사비 지출을 줄이려고 했던 아이젠하워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정책 사이의 유사성을 고려한다면 당시에 제기되었던 중립화 방안이 현재의 정세에 일정한 교훈을 줄 가능성도 있다. 세계 정세와 한반도 정세,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대외정책 및 동맹정책의 변화는 한국에 대해 동맹관계의 변화 내지는 전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전쟁 시기 미국 정부에 의해 제안된 중립화 방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한반도 중립화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주제어: 한반도 중립화, 아이젠하워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주한미군, 정전협정, 미중무역전쟁, 북한 비핵화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성격은 변화하고 있는가?: 당 · 정 · 군 현지지도 네트워크 분석

표 윤 신(북한대학원대 북한학과 박사과정)
허 재 영(연세대 글로벌인재학부 교수)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데이터 및 방법론
Ⅳ. 현지지도에서 나타난 당 · 정 · 군 엘리트들의 위세 중앙성
Ⅴ. 결론

국문요약

본 연구는 김정은의 북한이 선대의 '선군정치'에서 벗어나 '정상국가화' 되려는 노력이 실제 권력구조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정은은 '당–국가'라는 사회주의 체제의 '정상국가'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는 제7차 당 대회 이후 본격화되었다.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당·정·군 엘리트들이 김정은의 현지지도를 수행하면서 형성하는 네트워크를 분석했다. 현지지도 네트워크를 실제 권력구조와 흡사하다고 알려진 위세중앙성(eigenvector centrality)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김정은의 북한이 제7차 당 대회 이전에는 군 엘리트들의 영향력이 강해졌다가 제7차 당 대회를 기점으로 당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권력이 재편되고 있음을 밝혀냈다. 군사분야의 현지지도에서도 당 엘리트들은 군 엘리트들보다 네트워크 영향력이 더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김정은의 정상국가화 노력이 실제 당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혀냈다는 데 큰 의의를 갖는다.

주제어: 김정은, 정상국가화, 당·정·군, 네트워크 분석, 북한

숙의민주주의 지향의 선거법규제의 전환: 선거운동방식규제에서 비용중심규제로

채 진 원(경희대 후마타스칼리지 교수)

Ⅰ. 서론: 숙의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선거법체계일까?
Ⅱ. 이론적 논의: 민주주의 성숙단계와 선거법의 조응관계
Ⅲ. 민주주의 성숙과 '58년 네거티브 선거법체제'의 부조화
Ⅳ. 전환기, 선거관리·선거운동 규제 방식의 방향성
Ⅴ. 결론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선거법체계가 숙의민주주의에 부합은커녕 '최소주의'로 정의한 '선거민주주의'의 요건에도 미달된다는 것을 문제제기하고, 개선의 대안으로 비용중심의 선거규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숙의민주주의의 선거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유권자)과 후보자 간 혹은 시민과 정당 간의 의사소통이다.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의 경험처럼, 우리도 민주화의 경험과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선거운동방식규제에서 비용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논의한다. 그리고 그 규범적 필요성을 실현하는 데 제기되는 여러 가지 쟁점사항, 즉 현행 선거법체제의 문제점, 정치활동과 공정성의 조화, 바람직한 규제의 방향, 전환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해법의 실마리를 찾는다.

비용규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 우선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선거운동의 방법규제를 비용규제로 전환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단계적인 로드맵과 비전하에 치밀하고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한 공익적 시민단체, 정치팬클럽, 자발적 봉사조직은 장단기적으로 미국의 정치활동위원회(PAC)처럼, 후원회조직을 조직하여 후보자와 정당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하거나 정책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후원회 조직의 수입과 지출사항은 엄격하게 보고하고 감사받도록 해야 한다. 본론에서는 비용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룬다.

주제어: 선거운동방식, 비용중심규제, 선거규제, 거버넌스, 숙의민주주의

저출산 · 고령화 시대 아베 정부의 성장전략

송 지 연(서울대 국제대학원 부교수)

Ⅰ. 서론
Ⅱ.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경제적 도전
Ⅲ.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정책대응: 저출산 · 고령화 대책과 소비세를 중심으로
Ⅳ. 아베 정부의 성장전략
Ⅴ. 결론

국문요약

아베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시장, 보육, 교육 중심의 성장전략을 선택하였다. 이는 일본이 직면한 저출산·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발생하는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인재 만들기 혁명과 생산성 혁명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수립하고자 한 것이었다. 아베 정부의 성장전략은 이전 자유민주당 정부의 선택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노동시장정책은 다양하고 유연한 고용조건과 근무형태를 도입하고 노동시장 불평등과 장시간 노동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여성, 고령자 등 다양한 인적자원 활용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보육정책과 교육정책은 미래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생산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인재양성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성장전략은 총리와 총리관저 주도의 중앙집중화된 정책결정과정을 통해 더욱 신속하고 포괄적으로 진행되었다.

주제어: 아베 정부, 성장전략, 인구구조 변화, 인적자본투자와 활용, 노동시장, 보육, 교육

영국 거주 북한이주민의 고국 정치

이 수 정(덕성여대 문화인류학과 조교수)

Ⅰ. 문제 제기
Ⅱ. 이론적 논의 및 연구 방법
Ⅲ. 북한이주민의 영국 재이주와 축적되는 자원
Ⅳ. 영국 거주 북한이주민의 고국 정치
Ⅴ. 분단장치의 활성화와 커뮤니티 주도권 경쟁
Ⅵ. 나가며

국문요약

이 글은 한국을 거쳐 영국으로 재이주한 북한이주민들에 대한 현장연구 및 문헌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이들이 수행하는 고국 정치의 특성과 작동 방식을 살펴보고 이러한 과정에 개입하는 다양한 힘과 기제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서로 다른 고국 정치를 전개하며 나름의 정체성을 구축해나가는 두 북한이주민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생애사적 경험과 현재의 위치성, 그리고 이들의 고국인 북한과 관련하여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행위자들과의 상호작용이 특정한 '고국'과 '고국 정치'를 구성하는 데 영향을 끼쳤음을 밝혀내었다.

즉, '고국'은 경험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의 내러티브와 네트워크의 결합 속에서 끊임없이 (재)구성된다. 이렇듯 고국 정치는 초국적 내러티브와 네트워크의 연결망 속에 위치지어진 행위자들이 끊임없이 고국을 구성해나가는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구성된 '고국'은 이주자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협상하며 미래를 기획해나가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주제어: 고국 정치, 북한이주민, 북한인권레짐, 분단, 정체성, 영국

한국군 유엔 평화유지활동 평가와 과제: 위임명령, 제도화, 주민만족도를 중심으로

박 순 향(국방대 PKO 센터 교수)

Ⅰ. 서론
Ⅱ. 유엔 평화유지활동 평가의 이론적 논의
Ⅲ.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추세와 평가
Ⅳ. 한국군 유엔 평화유지활동 평가
Ⅴ. 과제와 향후 연구방향

국문요약

유엔 평화유지활동 평가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한국군 유엔 파병부대의 평화유지활동을 평가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임무단 위임명령, 병력공여국의 파병제도화 측면(병력과 사망자, 예산, 파병소요기간), 그리고 파병지역의 주민만족도를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한국군 파병부대는 위임명령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최우선 과업으로 수행하면서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임무수행이 요구되었다. 병력공여국의 제도화 측면에서는 적정수준의 파병병력 유지와 이들의 안전한 여건하 임무수행이 보장되어야 하고, 경비보전율 제고를 통한 예산 절감과 유엔의 요구에 부합된 신속한 파병여건 조성이 요구되었다. 마지막으로 파병지역 주민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평화유지활동 평가, 위임명령, 병력공여국, 경비보전율, 주민만족도

앙골라 분쟁 해결이 평화통일을 위하여 한반도에 주는 의미

김 정 기(경남대 정치학 박사)

Ⅰ. 문제 제기:
한반도는 왜 앙골라와 달리 분단이 계속될까?
Ⅱ. 앙골라 분쟁의 전개 및 해결 과정
Ⅲ. 한반도 분단과 다른 앙골라 분쟁의 해결 요인
Ⅳ. 맺음말: 평화통일을 위하여 한반도에 주는 의미

국문요약

앙골라 분쟁과 한반도 분단은 식민 피지배 경험, 내전과 국제전, 정전협정, 독재와 민주화 등 여러 면에서 유사점이 많다. 그런데 왜 앙골라는 분쟁 해결로 단일 독립국가가 되었고, 한반도는 분단이 지속되고 있는가? 본고는 이러한 문제 제기에서 연구를 출발하여 앙골라 분쟁의 전개 및 해결 과정에서 한반도와 다른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하여 주는 의미를 정리하였다.

앙골라는 서남아프리카 국가로 1975년 포르투갈의 식민지에서 해방되면서 과도정부가 무너지고 내전이 발생하였다. 냉전의 맹주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으로 남아공의 침공과 쿠바군이 개입함으로써 내전은 국제전으로 확전되었다. 탈냉전과 함께 1988년 남아공과 쿠바군 철수가 합의되었고, 1994년 루사카 평화협정으로 유엔이 본격 지원하였다. 분쟁은 결국 2002년 반군 지도자의 사망으로 종식되었다.

앙골라 분쟁 해결을 분석한 결과 단일체제를 위한 다양한 시도와 변화, 평화협정에 대한 국제협력의 활용, 그리고 외국군 청산 및 군·정부의 통합 노력이 한반도와 특징적인 차이점이었다. 따라서 평화통일을 위하여 한반도도 앙골라와 같이 단일체제를 위한 여러 방안을 시도하고, 이를 위한 변화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이행 과정에서 외국군 청산과 남북의 군(軍)과 정부를 통합시켜 나가야 한다.

주제어: 앙골라, 분쟁, 유엔, 한반도, 평화통일

신흥무대의 중견국 보건외교: 브라질, 스웨덴, 스위스 사례와 한국

조 한 승(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머리말
Ⅱ. 보건외교의 개념과 성격
Ⅲ. 중견국 보건외교전략 사례: 브라질, 스웨덴, 스위스
Ⅳ. 한국의 중견국 보건외교전략 평가와 제언
Ⅴ. 맺음말

국문요약

보건외교는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를 포함하는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의 네트워크 속에서 잠재적 적대세력과 동맹세력의 구분 없이 공동체의 안전과 질서 유지, 그리고 인류 모두의 건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강대국 중심의 전통외교의 틀을 초월한다. 신흥무대로서의 보건외교에서 중견국은 중개, 연대, 규범 등 네트워크 외교전략의 다양한 접근법을 복합적으로 구사하는 '영리한' 외교전략을 구사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리더십을 구축하며 새로운 국익 창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보건개발협력 분야에서 브라질, 스웨덴, 스위스의 보건외교전략은 대표적인 성공 사례들이다. 한국은 보건안보 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외교적 역량을 보여주었으나, 보건개발협력 분야에서는 개선할 점이 많다.

주제어: 보건외교, 보건안보, 보건개발협력, 중견국 외교, 신흥안보

촛불시위의 정치학:
미시적 분석, 거시적 주장, 다층적 비교연구

정 재 관(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서론
Ⅱ. 미시적 분석
Ⅲ. 거시적 주장
Ⅳ. 다층적 비교연구를 위하여
Ⅴ. 결론

국문요약

본 논문은 2016 촛불시위에 관한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후속 연구 아젠다를 제안하고자 한다. 2016 촛불시위에 관한 기존 연구는 시위 참여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 미시적 연구와 촛불집회의 역사적 배경과 구조적 조건을 규명하고자 한 거시적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미시적 연구는 설문자료를 이용해 촛불시위에 누가, 왜 참여했는지 실증분석하는 성과를 쌓았다. 거시적 연구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2016 촛불시위가 가진 의미와 이를 가능케 한 정치·경제적 조건을 규명했다. 그러나 단일 분석수준에 입각한 연구는 촛불시위가 던진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득력 있는 해답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실증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는 주장을 하는 한계를 보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두 가지 방향의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하나는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을 모두 포괄하는 다층적 연구이다. 또 하나는 2016 촛불시위를 관련된 학문 분야의 이론에 접목해 다른 사례들과 비교연구하는 것이다. 즉, 본 논문은 2016 촛불시위가 던진 다층적 비교연구 주제들을 규명해 후속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언이다.

주제어: 촛불시위, 미시적 분석, 거시적 주장, 다층적 비교연구

2019년 홍콩 시위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인권 정치학의 제이론을 통해 본 중국의 행동

유 영 수(북한대학원대 북한학과 조교수)

Ⅰ. 서론: 2019년 홍콩 시위
Ⅱ. 인권 정치학의 제이론
Ⅲ. 시위대와 정부의 상호작용과 중국 정부의 대응
Ⅳ. 중국과 인권: 인권 문제에 관한 중국의 행동을 예측할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Ⅴ. 결론: 요약과 전망

국문요약

본 논문은 홍콩에서 2019년 3월부터 범죄인 인도법 저지를 위해 시작되어 2019년 12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시위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인권 정치학의 이론들을 통해 분석한다. 2019년 홍콩 시위에 대한 수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사태의 진행과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전망할지에 대해 먼저 이론적인 시각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인권의 국내 정치 이론으로 정부의 합리적·전략적 선택으로서의 인권 탄압 결정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 지도자, 관료, 국민 사이의 주인–대리인 관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인권 침해의 제도적·구조적 측면이 홍콩 문제 분석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제시하며, 셋째, 인권의 국제 정치 이론들, 즉 국제 인권 규범의 역할 그리고 인권 외교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통해 홍콩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살펴본다.

이러한 인권 정치학의 이론적 시각을 바탕으로 2019년 홍콩 시위를 살펴보면, 시위대와 중국 정부 간 갈등 고조의 과정은 시위 규모 축소와 질서 회복을 바라며 개입 수위를 조절해 온 정부의 행동과 이러한 상황에서 요구 조건의 확대와 시위의 조직화로 이어온 시위대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홍콩 시민과 홍콩 당국, 중국 정부와 홍콩 당국이라는 이중의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행정장관을 비롯한 홍콩 당국의 태도가 시위대의 판단에 혼란을 야기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 정부가 시위 개입 수위를 조절한 데는 선진국들의 압력이 영향을 끼쳤겠지만 중국 정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주제어: 홍콩, 인권, 2019년 홍콩 시위, 중국, 국제 인권 규범

탈냉전 "30년의 위기": 다시, 에드워드 할렛 카를 읽는 시간

차 태 서(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류 석 진(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전간기의 추억: 자유주의적 세계질서의 침식과 유토피아주의의 종언
Ⅱ. "카의 계기(Carr moment)"
Ⅲ. 투키디데스의 시간: 지정학적 위기의 도래
Ⅳ. 킨들버거와 폴라니의 시간: 정치경제적 위기의 도래
Ⅴ. "30년의 위기" 이후: 다시 이상주의로?

국문요약

에드워드 할렛 카는 『20년의 위기』에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팍스 브리태니커를 재건하려던 시도가 실패해 버린 체계적 혼란기의 세상을 분석하면서, 두 가지 요소를 강조한다. 하나는 물질적 영역에 관한 이야기로 패권이행과 자유방임 경제의 몰락, 그리고 뒤이은 파시즘의 부상이라는 구조적 변동에 대한 분석이다. 다른 하나는 이데올로기 차원의 이야기로 전간기(戰間期)를 지배했던 자유주의적 이상주의의 부침에 대한 서사이다. 이러한 카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실제 오늘날 지정학과 지경학의 영역에서 어떤 형태로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이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근본적 질문—오늘날의 세계사적 국면은 과연 전간기에 버금가는 체계적 카오스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긴장일 뿐 자유주의 질서는 과거의 고난 속에서도 그랬듯 다시금 부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일정한 실마리를 탐색해 볼 것이다.

주제어: 에드워드 할렛 카, 투키디데스, 칼 폴라니, 찰스 킨들버거, 전간기, 현실주의, 이상주의, 자유주의적 세계질서

단극의 환상과 현실: 탈냉전기 미국 대전략의 진화

이 혜 정(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Ⅰ. 서론
Ⅱ. 역사의 종언
Ⅲ. 역사의 귀환
Ⅳ. 결론

국문요약

이 글은 미국의 대전략을 미국과 세계의 관계에 대한 담론체계로 보고 카의 이익조화 개념을 기준으로, 탈냉전기 미국 대전략의 진화를 추적한다. 1990년대에는 미국 패권이 동맹체계와 신자유주의 지구화를 중심으로 전 지구적으로 확장되었고, 예외적인 힘과 이념, 제도를 지닌 미국의 패권은 미국의 국익은 물론 국제사회의 이익을 내장하고 있다는 미국 패권 예외주의가 대전략 담론을 지배했다. 이라크 전쟁과 대침체 이후에는 부시 정부의 제국적, 군사적 일방주의가 오바마 정부의 자유주의 패권으로 전환되었고, 자제–감축론이 전략적 대안으로 자리매김했다. 대침체의 정치적 후폭풍으로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에는 그의 '미국 우선주의'가 패권의 대내외적 이익조화를 모두 부정하면서, 미국 패권 예외주의는 약화되고 자제–감축론의 위상은 높아졌다.

주제어: 미국 패권, 대전략, 이익조화, 신자유주의 지구화, 자제–감축 전략

탈냉전 이후 세계화: 심층 통합, 보호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기

이 승 주(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Ⅰ. 서론
Ⅱ. 탈냉전과 세계화의 명과 암
Ⅲ.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의 세계화: 심층 통합과 반작용
Ⅳ. 보호주의의 강화와 민주주의의 위기
Ⅴ. 결론

국문요약

이 글은 탈냉전과 함께 본격화된 세계화의 본질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2000년대 이후 진행된 세계화의 성격 변화가 세계 경제 질서와 국내정치에 미친 영향을 고찰한다. 탈냉전 시대 세계화의 약속과 현실을 현재적 관점에서 검토할 때,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글은 세계 경제 질서의 불안정성 증가와 국내적 차원의 경제적 불평등 및 불확실성의 확대 사이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의 과정을 고찰한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규제되지 않은 금융 세계화의 위험성과 지구적 가치 사슬의 확대에 따른 심층 통합의 문제를 일깨우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후 금융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가운데, 무역 분야의 보호주의 강화는 국내정치 차원에서 세계화의 부정적 효과와 분배 조정의 요구를 대중주의로 전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주제어: 세계화, 글로벌 금융 위기, 심층 통합, 보호주의, 민주주의, 대중주의

탈냉전기 미 동맹질서의 변화 양상과 자유국제주의 질서의 지속성

김 영 호(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

Ⅰ. 서론
Ⅱ. 유럽의 NATO 변화 양상과 그 영향
Ⅲ. 중국의 부상과 아태지역 동맹질서 변화
Ⅳ. 결론

국문요약

본 논문은 도전받고 있는 탈냉전기 미국 주도 자유국제주의 질서의 지속성 여부를 전간기 파국으로 끝난 자유주의 국제질서와의 대별 속에서 미 동맹체제의 변화 양상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현 자유국제주의 질서는 2000년 대 후반 이후 여러 면에서 심각한 도전을 받아오기 시작했는데, 군사안보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NATO의 동진에 위협을 느끼고 반발하며 대립각을 세워왔고,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공세적 행보로 2차 대전 이후 형성된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도전에 직면한 미국은 냉전 종식 이후에도 해체하지 않고 꾸준히 확장, 유지해온 자국 주도 동맹체제를 강화 내지 변용함으로써 자국의 영향력과 자유국제주의 질서 수호에 버팀목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현 자유국제주의자들이 국제기구와 국제법에만 주로 의존했던 전간기 자유주의자들과 달리 권력정치적 요소인 동맹체제까지도 함께 활용하는 차별성을 보여준다. 또한 바로 그 점으로 인해 결국 탈냉전기 자유국제주의 질서는 당면한 도전들을 극복하고 오랜 기간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제어: 탈냉전기 국제군사안보질서, 자유국제주의 질서, 동맹 구조와 역할 변화, 나토 확장, 미중 군사적 경쟁, 미일 동맹 진화

수용과 충격:
중국의 부상과 자유주의 세계질서

김 재 철(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Ⅰ. 서론
Ⅱ. 편입과 수용
Ⅲ. 부상
Ⅳ. 공세와 충격
Ⅴ. 도전과 전복?
Ⅵ. 결론

국문요약

이 글은 탈냉전 30년의 국제정치를 특징짓는 가장 분명한 현상 가운데 하나인 중국의 부상이 국제질서에 갖는 함의를 검토한다. 과연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지만 자신의 부상에도 기여한 개방적이고 다자적 자유주의 세계질서에 도전하거나 도전하려는 의도를 보임으로써 탈냉전 시기를 '위기의 30년'으로 귀결 짓는가? 탈냉전기 본격화된 중국의 국제체제 참여와 국제질서 수용, 이에 힘입은 경제·군사적 부상, 그리고 이후 진행된 핵심 이익의 추구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시도 등을 중심으로 하는 공세적 대외정책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 글은 중국의 부상과 세계질서 사이의 상호작용에 수용과 충격이라는 양면성이 존재하며 따라서, 현실주의가 제시하는 것보다, 그 양상이 훨씬 복합적임을 제시한다. 중국이 부상하기 시작한 이후 이익을 확장하고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존질서에 충격을 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국제질서 자체에 본격적으로 도전하는 것은 아니다.

주제어: 중국의 부상, 탈냉전, 자유주의 세계질서, 위기

‘중국특색적 자유주의국제질서’ 하의 예외주의 정치문명의 충돌?

박 건 영(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Ⅰ. 서론
Ⅱ. 자유주의국제질서의 형성과 위기
Ⅲ. 위기와 미국: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의 경우
Ⅳ. 위기와 중국: “중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China Great Again)”의 경우
Ⅴ. 미중관계의 난류?: 세력전이론과 ‘투키디데스의 함정’의 함정
Ⅵ. 미중간 패권전쟁
Ⅶ. ‘자기충족적 예언’의 위험성
Ⅷ. 예외주의 정치문명의 충돌?
Ⅸ. 결론

국문요약

필자는 이 논문에서 새롭게 형성될 국제질서는 중국특색적 자유주의의 성격을 갖게 될 것이고, 전환 과정에서 미중간 난류가 예상되나 패권전쟁의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미중 전쟁과 관련하여 자기충족적 예언이 작동할 가능성과 양국의 예외주의 정치문명이 충돌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주제어: 예외주의, 산중의 도시, 명백한 운명, 중화사상, 백년의 수모

탈냉전 30년과 한반도: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전 봉 근(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
김 태 현(중앙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Ⅰ. 서론: 한반도의 냉전과 탈냉전
Ⅱ. 탈냉전기 남북한의 대전략과 남북관계
Ⅲ. 북핵문제와 남북한 관계
Ⅳ. 김정은-트럼프 시대의 북핵문제와 한반도의 미래
Ⅴ. 맺는말: 카, 모겐소, 그리고 권력정치

국문요약

냉전의 종식은 그것의 질곡에 많이 시달린 한국에 큰 낭보였다. 민주화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이 증진되고 동서진영의 와해로 외교적, 경제적 지평이 확대됐으며 무엇보다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과 남북통일의 기회가 커진 듯했다. 그러나 이후 남북관계는 꾸준한 노력과 몇 차례의 극적인 행사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개선되지 못했고 그에 따라 한반도의 냉전도 해소되지 못했다. 무엇보다 북한이 나름의 탈냉전 시대 대전략으로 핵무장을 추구하여 남북 사이의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키고 탈냉전 시대 국제질서와 충돌하면서 한반도의 냉전은 오히려 악화했다. 그 같은 교착은 첫째, 탈냉전 시대의 순류(順流)를 탄 남한과 그 역류(逆流)를 맞은 북한의 처지가 정반대였기 때문이었다. 둘째, 남과 북의 논리가 전혀 양립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남한은 탈냉전 시대 자유주의적 낙관론과 희망적 사고에 빠져 있었다. 북한은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철두철미한 권력 논리에 빠져있었다. 탈냉전 시대의 환상이 깨어지는 지금 시대에 남북관계 및 북핵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발상이 필요하다.

주제어: 냉전, 탈냉전, 한국, 북한, 핵 문제, E. H. 카, 한스 J. 모겐소, 권력정치

제2기 김정은 정권의 정책방향과 권력 조직의 구조: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를 중심으로

박 정 진(경남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Ⅰ. 서론
Ⅱ. 선행 연구
Ⅲ. 이론적 분석틀 - 민츠버그의 조직권력에서의 플레이어들
Ⅳ.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 인사 변동과 주요 내용
Ⅴ. 헌법 개정
Ⅵ. 결론

국문요약

본 연구는 북한 제14기 1차 최고인민회의를 중심으로 북한의 인사 변동, 헌법 개정을 통한 북한의 권력 조직 구조 강화와 그를 위한 정책, 변화를 민츠버그의 내부 연합 행위자틀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내외 정책과 연관된 인사를 기용함으로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는 최고 코디네이터의 역할 강화, 선출된 인사들의 보조스태프로서의 역량을 집결해 정책 집행을 위한 국무위원회 위상이 강화되었다. 또한 직전의 14기 대의원 선거, 헌법 개정등을 통해서 김정은 2기 권력 구조를 위한 인선과 변화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북한은 지속되는 미국의 제재 조치와 미국과의 외교 담판의 이중전략을 통해 조직, 즉 체제 안정성을 고려하였다. 북미대화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외교전 인사와 지속된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내각 총리 및 김정은 체제의 이데올로기에 적합한 인물 배치를 통해 이중 전략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주제어: 북한,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민츠버그, 권력, 인사

온라인 환경이 청중비용 메커니즘에 미치는 영향 고찰

김 재 학(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원)
김 이 연(경기대 국제관계학과 조교수)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가설 설정
Ⅲ. 분석모형 설정
Ⅳ. 공유지식과 조정문제 개념 기반 분석
Ⅴ. 온라인 공간에서의 청중비용 메커니즘 특징
Ⅵ. 결론
Ⅶ. 부록: 온라인상에서 찬반 의견 수렴 메커니즘

국문요약

본고는 현대 정보화 시대에 있어 온라인 환경의 특징이 청중비용 메커니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질문을 바탕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본고는 온라인 여론이 기존 청중비용 관련 행위자들과 차별화될 수 있다는 점과 온라인 여론이 한쪽 의견으로 급격하게 수렴되어 청중비용 효과를 강화하거나 반대로 오히려 반대효과인 역(逆)청중비용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본고는 공유지식과 조정문제 개념과 기대효용을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제시한 두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온라인에서 형성된 여론이 충분히 기존 행위자와는 다른 차별화된 청중비용 행위자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그 효과는 청중비용 효과를 극대화시키거나 반대로 상대방과의 갈등 상황에서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주제어: 청중비용, 온라인 여론, 사이버 안보, 공유지식, 조정문제, 공지성

중견국 이론 정교화:
구조적 접근과 한국의 중견국 정치

반 길 주(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Ⅰ. 서론
Ⅱ. 중견국 연구 및 분석의 틀
Ⅲ. 중견국의 보이지 않는 힘과 한국의 국제안보 관여
Ⅳ. 보이지 않는 힘과 다자협력: 한국의 중견국 정치
Ⅴ. 결론

국문요약

믹타와 같은 중견국의 외부지향적 정책은 국제체제라는 구조적 요인에 의해 추동된 것일까 아니면 국가행위자에 의한 전략적 선택일까? 외부지향적 행태의 결과는 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아니면 외교나 전략적 성과나 실패라는 비구조적 변수에만 국한되는가? 본 논고는 중견국 정치의 구조적 접근을 위해 "보이지 않는 힘" 모델을 제시한다. 힘이 성장한 중견국은 구조적 압력으로 인해 국제무대라는 외부에 눈을 돌리게 되고 점차 강대국 주도의 연합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거나 중견국 주도의 연합전선을 스스로 구축하여 결국에는 체제에 영향을 준다. 한국도 1990년대부터 국제안보 관여와 다자적 연합협력을 통해 이와 같은 중견국 정치를 구사하여 왔다. 2017년 발표된 신남방정책도 중견국 정치라는 체제적 구도 속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주제어: 국제체제, 중견국 정치, 한국, PKO, 믹타

아베 시기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전략

조 은 일(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

Ⅰ. 서론
Ⅱ. '인도-태평양'과 일본의 지역전략
Ⅲ.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전략 전개
Ⅳ. 결론

국문요약

아베 시기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전략은 더 이상 일본이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에 수동적이거나 반응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아베 정부는 미중 간 세력균형의 지속적인 변화라는 구조적 조건하에 인도-태평양이라는 해양 공간의 전략적 중요성을 파악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일본이 왜 그리고 어떻게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전략을 발전시키게 되었는지 외교청서의 서술변화를 면밀하게 추적하면서 분석한다. 아베 정부는 2010년대 초 아시아 민주주의 안보다이아몬드 구상에 따라 미국, 호주, 인도 등 동질국가 간 협력을 강조하는 지역전략을 추구했다. 일본은 대중국 견제가 가능하도록 인도양으로 전략적 공간을 확장하여 미국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ASEAN 국가들과의 국방협력을 확대했다. 그러나 호주, 인도, ASEAN 등 주변국이 중국과의 지정학적 대립을 꺼리자 아베 정부는 중국과의 대립의 정도는 완화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내 능력구축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지역전략을 재설정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일본이 대미·대중관계에서 딜레마에 직면할 개연성을 포함하고 있다.

주제어: 일본의 지역전략, 중국 요인, 해양안보, 국방협력, 경제적 관여

중국은 왜 코로나19의 초기 대응에 실패했는가?

조 영 남(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Ⅰ. 서론
Ⅱ. 중국의 코로나19기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논의
Ⅲ. 2002년 사스(SARS)의 교훈과 개선 노력
Ⅳ. 중국의 코로나19 발생과 초기 대응 분석
Ⅴ. 결론

국문요약

이 논문은 2019년 코로나19에 대해 중국이 왜 초기 대응에 실패했는가를 분석한다. 2002년 사스가 발생했을 때에도 중국의 초기 대응 실패는 사스의 전 세계적 확산을 불러왔다. 사스 이후 중국 정부는 방역 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번에도 다시 같은 잘못이 반복된 것이다. 먼저, 중국의 코로나19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살펴본다. 이어서 2002년 사스 이후 중국이 기울인 개선 노력과 실제 결과를 분석한다. 이를 배경으로 중국이 초기에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를 분석한다. 사스 대응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도 관료주의 문제, 방역 조사의 태만, 표현과 언론의 자유 부재 등의 문제가 나타났고, 이것이 중국의 초기 대응 실패로 이어졌다.

주제어: 사스, 코로나19, 가버넌스, 시진핑 정부, 초기 대응 실패

디지털 시대 민주주의의 지능성: 대의 정부에 대한 이론적 재고

김 정(북한대학원대 조교수)

Ⅰ. 서론
Ⅱ. 대의 정부: 귀족정과 민주정의 배합
Ⅲ. 집단 지성: 인지 다양성과 디지털 혁명
Ⅳ. 결론

국문요약

이 연구는 민주주의의 문제해결 능력이 대의 정부의 지능성에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대의 정부의 지능성을 공공선을 찾아 내는 집단적 능력으로 정의하고, 대의 정부에 내장된 귀족정과 민주정의 혼합 비율을 그 함수로 규정한다. 대의 정부의 집단 지능은 귀족정의 비율이 커지면 낮아지고, 민주정의 비율이 커지면 높아진다. 이상의 주장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첫째, 선거는 민주정을 축소하고 귀족정을 확대한 대의 정부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지적한다. 둘째, 민주정을 확대하고 귀족정을 줄이면 인지 다양성에 기초한 집단 지성이 출현한다는 점을 부각한다. 셋째, 다양한 사람들의 집단이 우수한 사람들의 집단보다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고 집단 예측의 정확성은 개인 예측의 정확성과 개인 예측의 다양성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밝힌다. 넷째, 틈새 상품이 다양화하는 소비의 긴 꼬리 효과에 착목하여 디지털 혁명이 사람들의 인지적 다양성을 증대시키는 자기증강 메커니즘을 갖는다는 점을 확인한다. 다섯째, 디지털 시대에는 다양성을 보다 잘 반영하는 추첨에 기반한 대의 정부가 민주주의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예측한다.

주제어: 민주주의의 지능성, 대의 정부, 인지 다양성, 디지털 혁명, 긴 꼬리 효과, 추첨 민주주의

한국의 샌프란시스코평화회담 참가문제와 배제과정

정 병 준(이화여대 사학과 교수)

Ⅰ. 머리말
Ⅱ. 미국의 대일평화조약 준비와 한국조항의 성립
Ⅲ. 미국의 초기 입장: 한국의 조약 서명국·참가 인정 (1949년 12월~1950년 5월)
Ⅳ. 미국의 입장 변화: 미일협의, 영미회담, 한국 답신서의 영향(1951년 4월~5월)
V. 미국의 정책 선회: 한국의 조약 서명국·참가 부정(1951년 6월)
VI. 맺음말

국문요약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미국은 1949년 12월 이래 한국을 대일평화조약의 참가국, 서명국으로 설정했다. 미국은 한국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영국·일본은 1951년 4~5월에 집중적으로 ① 한국은 연합국이나 대일교전국이 아니었다(영국·일본), ② 한국이 연합국 지위를 갖게되면 공산주의자인 재일한국인들이 경제적 이득을 얻어 일본 정부가 곤경에 처한다(일본), ③ 중국의 조약참가가 배제된 상태에서 한국이 참가하면 버마·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반발을 살 수 있다(영국)고 주장했다. 영국·일본의 반대에 직면한 미국은 열강의 조약 서명 후 한국의 서명이라는 입장으로 후퇴했다. 이 직후 한국정부의 미국 평화조약초안에 대한 답신서가 도착(1951.5.7)했다. 미국은 1951년 5월 16일 한국의 조약 서명국 자격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1951년 6월 1일 조약참가·서명 자격 불인정 및 특별조항 신설이라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주제어: 샌프란시스코평화회담, 한국 참가, 한국 서명국, 대일평화조약 초안, 한국정부 답신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한미일 관계의 위계성 구성

신 욱 희(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Ⅰ. 서론
Ⅱ. 위계성과 지위
Ⅲ. 경험적 사례로서의 샌프란시스코 체제
Ⅳ. 결론

국문요약

한국, 미국, 일본 사이의 삼자관계는 미일, 한미 양자관계에는 위계가 존재하나, 한일 간 양자관계는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으면서 양국의 국내정치에 의해 좌우되는 복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한미일 관계의 비대칭성은 단순히 무정부 상태에서 권력의 분포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닌 좀 더 다층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점에서 최근의 위계성이나 지위에 대한 국제정치학적 논의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국전쟁의 발발과 이어서 1951년 9월에 맺어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이와 같은 한미일 관계의 위계성을 구조화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 논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회의를 통해서 한미일 관계가 위계적인 형태로 분화되었으며, 일본은 대리인이라기보다는 동아시아 냉전 구성의 주체 역할을 수행하였고, 한국의 참가국 지위는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서 부정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한국전쟁, 위계성, 지위, 한미일 관계, 미일관계, 한미관계, 한일관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한일관계: 한일냉전의 기원으로서 '제4조' 문제

남 기 정(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Ⅰ. 서론
Ⅱ.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준비작업, 일본과 한국
Ⅲ. 한일국교정상화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Ⅳ. 결론: 대담한 해결의 함정

국문요약

이 글은 2012년 이후 한일관계를 냉전적 상황으로 인식하고, 그 기원을 찾는 작업이다. 그 기원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에 있다. 이 글에서는 제4조 (a)항과 (b)항을 둘러싼 한일간의 공방을 확인하고, 그로부터 1965년 체제 극복의 가능성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4조의 (a)항과 (b)항의 관계에 대해 한국은, 이를 한국의 대일 배상청구권의 법적 근거로 이해하고 있었던 반면, 일본은 청구권의 상호 포기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미국은 청구권의 상호 조정의 근거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충된 해석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도 협상의 입구에서부터 견지되어, 이후 일관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한일이 이와 관련해서 입장의 수렴이 일어난 적은 없었으며, 미국의 중재도 애매한 채로 어느 일방의 손을 들어준 적이 없었다. 1965년의 조약과 협정에서도 이 차이는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았다.

그로 인해 발생한 차이 때문에 청구권협정의 위상도 달라져서, 한국 측에서는 이를 사실상의 배상 관련 협정으로 해석하려 시도해 온 반면, 일본 측에서는 경제협력과 관련한 협정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하게 하는 여지를 만들게 되었다. 이 차이가 1965년 체제의 한계를 설정했으며, 그것이 2012년 이후의 한일관계 악화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주제어: 샌프란시스코 평화회의, 한일관계, 1965년 체제, 배상, 청구권

‘식민지 건축 유산’에 대한 인식 변화와 반일(反日) 민족주의: 일제 잔재에서 근대문화유산으로

전 재 호(서강대 글로컬한국정치사상연구소 전임연구원)

Ⅰ. 들어가며
Ⅱ. 기존 연구 검토와 반일 민족주의 개념
Ⅲ. 식민지 건축 유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일제 잔재에서 근대문화유산으로
Ⅳ. 식민지 건축 유산의 활용과 반일 민족주의: 군산의 사례
Ⅴ. 나가면서

국문요약

이 글은 해방 이후 식민지 건축 유산에 대한 인식 변화와 그 원인,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식민지 건축 유산을 활용한 군산의 근대문화유산 사업에서 재현된 기억과 반일 민족주의의 연관성을 고찰했다. 식민지 건축 유산에 대한 인식은 1995년 조선총독부 청사의 철거 이후 일제 잔재에서 근대문화유산으로 전환되었다. 그 배경에는 식민지 건축 유산 보존 요구의 확산, 지자체의 재정 확보 필요성, 등록문화재 제도의 변화, 한일관계의 해빙과 문화·일상 영역에서 반일 민족주의의 약화가 존재했다. 2000년대 이후 여러 지역에서 식민지 건축 유산을 활용한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군산이 가장 대표적이고 성공적인 사례이다. 군산은 항일 투쟁의 기억을 담은 공간과 왜색 짙은 1930년대 일본식 공간이라는 상반된 모습을 재현했다. 이는 반일 민족주의의 고취를 위한 교육 공간과 관광객의 기호에 맞는 상품화라는 요구를 모두 반영한 것으로, 양자는 모순적이지만 상호 보완적 역할도 하고 있다.

주제어: 식민지 건축 유산, 반일 민족주의, 근대문화유산, 일제 잔재, 등록문화재, 군산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정치적 갈등이 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송 지 연(서울대 국제대학원 부교수)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정치적 갈등에 대한 중국의 비공식적 경제제재: 비교적 맥락을 중심으로
Ⅳ. 전환기 한중관계와 사드 배치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 고조
Ⅴ. 2016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과 중국의 정치적 갈등과 경제관계 변화
Ⅵ. 결론

국문요약

본 논문은 2016년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 결정을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정치적 갈등이 양국 경제관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정치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감소했지만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또한 중국 기업의 생산활동에 밀접하게 연결된 한국의 수출 품목은 정치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해외 직접투자의 경우 투자금액 측면에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신규법인 숫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한중관계의 정치적 리스크를 상당히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관광 및 콘텐츠산업 부분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보다 심각하게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사드 배치 결정을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정치적 갈등이 양국 경제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 파급효과는 경제부문과 산업 및 품목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한다.

주제어: 사드(THAAD), 정치적 갈등, 경제관계, 무역, 투자, 관광, 콘텐츠산업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중 · 한중 관계 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 재 영(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 부연구위원)

Ⅰ. 서론
Ⅱ. 북·중 관계 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Ⅲ. 한중관계 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Ⅳ. 결론

국문요약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중관계는 여러 차례의 정상회담과 고위급 회담에도 불구하고, 미국 요인과 사드 문제라는 큰 걸림돌 때문에 여전히 전략적 협력이 심화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북·중 관계는 다섯 차례의 정상회담과 시진핑 주석의 방북으로 전통적 우의 관계는 회복되었음에도 북한 경제의 대중 의존도는 오히려 증가했다. 우리는 중국과의 외교·안보 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구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북·중 관계 복원을 활용함으로써 북한을 북미협상 테이블로 다시 불러들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우리는 한미동맹과 한중동반자 관계 사이 상호보완성을 강화함으로써 동맹과 동반자 관계의 '건설적 병립'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한중관계, 북·중 관계, 한미동맹,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한반도 평화체제

한국인들은 어떤 민주주의를 왜 선호하는가?: 엘리트민주주의 대 참여민주주의

구 본 훈(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생)
민 정 훈(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생)
조 영 호(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와 참여적 요구
Ⅲ. 참여주의 및 엘리트 민주주주의 지지에 대한 이론적 검토
Ⅳ. 연구 설계: 자료 및 변수
Ⅴ. 경험적 분석
Ⅵ. 결론

국문요약

그 동안 학계에서 한국인들이 어떤 민주주의를 선호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한국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민주주의 유형에 대한 선행연구들도 활용된 자료와 질문에 따라 결과가 차이를 보여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적 대표성을 가진 대면면접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인들의 민주적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인들이 참여 민주주의를 가장 선호한다는 점을 발견하였으나, 그 양상은 선행연구들과 다소 달랐다. 나아가 참여 민주주의 지지에 대한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들의 정치불만과 정파성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졌다. 마지막으로 서구와 달리 정치관심과 교육수준이 높은 관심시민들(attentive citizens)이 참여민주주의를 선호한다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정치불만이 높은 조건에서 이들의 선호가 참여적으로 변화한다는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한국인들의 정치참여에 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참여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 엘리트 민주주의, 인지동원, 정치불만, 정파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개발재원으로서 한국의 기타공적자금(OOF) 배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정 헌 주(연세대 행정학과 부교수)
변 지 영(연세대 행정학과 박사과정생)
남 수 정(연세대 행정학과 박사후보생)
김 은 미(연세대 행정학과 박사후보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한국의 기타공적자금 배분 현황과 특징
Ⅳ. 연구설계
Ⅴ. 실증분석
Ⅵ. 결론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의 기타공적자금(OOF)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사회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개발재원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OOF는 ODA와 함께 공적 재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기존의 개발재원에 관한 연구는 ODA에 크게 편중되어 있으며, 특히 한국은 OOF 비중이 높은 공여국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한국의 OOF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부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의 OOF 배분 결정요인을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을 통해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OOF 배분에는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적 요인과 FDI 결정요인에 활용되는 변수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의 공적 재원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OOF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수행하여 다양한 개발재원 및 그 확대에 대한 논의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 실천적 함의가 있다.

주제어: 기타공적자금(OOF), 개발재원, 공적개발원조(ODA), 공적개발재원, 총공적개발지원(TOSSD)

유엔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관련 논쟁의 구조와 쟁점

손 한 별(국방대 군사전략학과 부교수)

Ⅰ. 문제제기
Ⅱ. 유엔사 관련 논쟁의 구조
Ⅲ. 유엔사 관련 쟁점
Ⅳ. 한국의 전략방향
Ⅴ. 결론

국문요약

본 연구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평화체제 이행으로 대표되는 안보환경 변화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유엔사에 대한 이슈와 쟁점을 다룬다. 첫째, 불필요한 오해와 이념적인 논쟁을 피하기 위해 논쟁의 구조를 엄밀하게 구분한다. 둘째, 시간과 영역으로 10개의 쟁점을 구분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유엔사의 성립부터 전개과정에 대한 쟁점은 '과거'로, 전작권 전환과 유엔사에 대한 관련국의 '현재' 입장을 정리한다. 이를 토대로 한국이 고려할 수 있는 유엔사의 '미래'로서 존폐논쟁과 역할변화를 검토한다. 셋째, 국익에 기반하여 기본입장과 5개의 역할대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전략방향을 제시한다. 변화하는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유엔사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해야겠지만, 우선 한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립하고 역할변화의 시기와 단계를 포함한 추진전략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유엔사 이슈는 남북관계, 주변국의 이익 충돌, 국내정치 및 여론 등 다양한 행위자와 이익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다양한 위험요소가 존재하며, 이를 사전에 식별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주제어: 유엔사, 전작권 전환, 정전협정, 평화체제, 한미동맹, 주한미군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북한 관련 인식태도: 2018년과 2019년 비교를 중심으로

이 성 우(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분석
Ⅳ. 결론

국문요약

본 논문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 2018년과 2019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통일, 북한, 대북정책 인식에 미치는 여러 영향요인들의 효과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과 대북정책의 주요 이슈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살펴봤다. 분석 결과, 첫째, 통일문제와 북한문제에 대한 인식은 한반도 정세의 변화 속에서도 장기적으로 형성되어온 개인의 성향을 보여주는 세대와 교육수준별 인식의 차이가 크지만, 직접적인 당파적 대결이슈에 가깝고 정권별 시기별로 달라지는 대북정책 이슈는 상대적으로 당파성 변수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통일문제인식과 대북정책 인식에 있어서 유의미한 지역주의 인식 경향을 확인하였다. 셋째, 당파성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통일, 북한, 대북정책 인식 이슈가 다르다. 넷째, 정세변화 속에서도 개인들의 기본인식의 변화는 크지 않고, 2019년에는 당파적 동원 경향이 나타났다. 북한 관련 인식의 경향을 올바르게 수렴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당파성, 통일, 북한, 대북정책, 안보, 정세인식

1950년대 북한의 독일 국가연합 통일방안 수용과 한반도 평화공존의 상상

김 태 경(북한대학원대 심연북한연구소 연구교수)

Ⅰ. 문제제기: 비대칭적 정치체들의 평화공존의 제도적 설계
Ⅱ. 1950년대 북한의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 '평화유지'와 '평화통일'
Ⅲ. 1950년대 북한의 독일 연합/연방 담론의 수용: '독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원형과 한반도 평화공존의 상상
Ⅳ. 결론을 대신하여

국문요약

상이하고 비대칭적 정치체들 사이의 연합/연방 구성을 통해 어떻게 평화적 공존을 구축할 것인가? 본 연구는 현재에 이르는 정전 이후 한반도적 맥락에서 지속되어온 특유한 질문에 대한 역사적 탐색을 통해 질문에 대한 모색의 하나로서 북한의 전후 평화공존 대안의 다양성을 숙고한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1960년 8월 15일 북한의 '과도적 연방제' 통일방안에 이르는 과정에서 특히 1950년대 북한의 통일방안 담론에 영향을 미친 독일 국가연합안 수용을 추적한다. 본 연구는 1950년대 북한이 당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전 구축의 비교적 지평에서 고려한, 독일의 국가연합 통일방안의 담론 및 실천 수용에 주목함으로써, 전후 북한이 한반도 평화공존을 상상했던 대안들의 다양성, 복합성을 복원하고 과거와의 대화를 통해 현재 한반도 평화과정에 대한 성찰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제어: 평화공존, 평화체제, 남북연합, 평화정책, 북한, 연방주의

김정은 정권의 대남전략(2018~2020): '세 가지 기둥'과 '정면돌파전'

안 경 모(국방대 안보정책학과 부교수)
강 혜 석(숭실대 정치외교학과 연구중점교수)

Ⅰ. 들어가며
Ⅱ. 북한의 대남전략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Ⅲ. 북한의 국가전략과 김정은 시대의 대남전략
Ⅳ. 두 개의 시험과 정면돌파전, 그리고 코로나 사태
Ⅴ. 나오며

국문요약

본 연구는 북한의 대남전략을 보다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과 분석틀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김정은 정권의 대남전략과 현 남북관계를 분석해보려는 시도이다. 분단 이래 북한의 대남전략은 혁명전략, 통일전략, 평화전략의 성격을 중첩적으로 갖되 이 세 가지 요소의 우선순위와 방식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시기별로 서로 다른 모습을 띠어왔다. '힘의 균형'과 '상호정체성'은 특히 남북양자관계의 차원에서 위의 세 가지 요소들 간의 우선순위와 방식을 좌우한 핵심적 변수들이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2018년 이후 북한의 대남전략은 핵개발과 체제정비 등을 통해 일정 정도 회복된 힘의 균형을 바탕으로 이전의 힘의 열세 상황에서 가장 간절했던 '평화'라는 목표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목표가 아닌 현상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강한 교류협력'을 추구해나가며 장기적으로는 '공존형/합의제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왔다.

주제어: 북한, 김정은, 대남전략, 혁명, 통일, 평화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전략적 선택: 21세기 부국강병의 길

정 영 철(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조교수)

Ⅰ. 머리말
Ⅱ. 김정은 시대, 북한 변화의 핵심 —당과 국가의 재등장
Ⅲ. 전략적 선택: 21세기 부국강병
Ⅳ. 하노이 이후, 새로운 길
Ⅴ. 맺음말

국문요약

김정은의 시대적 과제는 인민생활 향상이다. 그러나 북한이 경제건설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따라서 초기 김정은은 선군정치를 계승하면서, 핵과 미사일 능력의 강화를 추구하였다.

김정은의 북한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가장 먼저 당과 국가체제의 정상화, 군의 정상화, 그리고 경제 및 사회문화적 변화를 추구하였다. 김정은 집권 초기에 보여주었던 군 인사의 숙청 등은 군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었고, 2016년의 제7차 당대회는 당–국가 체제로의 북한을 정상화에 기초하여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결정짓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강성국가 건설, 특히,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강국 건설에 있었다. 남북–북미관계의 개선에 따라 병진노선이 경제건설총력집중노선으로 변화하였고, 경제 건설을 위한 국가적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예정하였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 교착'은 이러한 북한의 전략적 선택에 중대한 장애물을 조성하였고, 그 결과 '정면돌파전'을 통한 경제건설을 추구하고 있다. 최근의 남북–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있지만, 현재까지 북한은 자신들의 채택한 '경제건설'의 전략적 노선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김정은, 인민생활향상, 부국강병, 정면돌파전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정부-시민 관계: 정치신뢰를 중심으로

오 현 진(고려대 정부학연구소 연구교수)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논의
Ⅲ. 자료 및 측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함의

국문요약

본 논문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이 일반 시민의 정부 및 정치체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다. 이 글은 정치신뢰를 인식의 주체인 시민과 신뢰의 대상인 정부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보며 이에 따라 정부의 방역대응에 대한 평가와 같은 정부 관련 특성, 본래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치적 가치 및 신념요인과 같은 시민 관련 특성, 이 두 요소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위기 속 정치신뢰의 형성요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정부 방역대응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시민의 정부신뢰 및 민주주의의 제도적 역량에 대한 인식을 강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민주적 원칙에 대한 신념 또한 자체로 정부신뢰 및 민주주의 역량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가치 및 신념의 강도에 따라 정부 방역대응평가와 정치신뢰의 관계가 영향을 받는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이라 할지라도 정부와 체제에 대한 시민의 태도는 단순히 정부의 정책대응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결정되기 보다는 이러한 주관적 평가의 잣대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 개인의 가치 및 신념과 결합하여 형성된다는 정치신뢰의 관계적 접근을 지지하고 있다.

주제어: 코로나19, 정부-시민관계, 정치신뢰, 정부성과, 민주적 가치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의 국가 자긍심: 방역 주체의 코로나 대응 평가와 유권자의 정당 선호를 중심으로

길 정 아(고려대 정부학연구소 연구교수)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데이터 및 분석 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국문요약

본 연구는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국가 자긍심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상황에서, 한국의 코로나 대응, 즉 "K-방역"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 방역 주체의 효과적인 코로나 대응은 정부 신뢰 등의 구체적 지지를 넘어 정치 공동체에 대한 지지로까지 이어질 것임을 논증한 후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의 결과, 주요 방역 주체의 코로나 대응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응답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부심과,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그런데 국가 자긍심에 미치는 주요 방역 주체의 코로나 대응 평가의 영향력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에게서 가장 현저했던 반면,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에게서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권자의 국가 자긍심이 국가의 정치적 성취에 근거하는 정도가 정당 선호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제어: 국가 자긍심, 정치적 지지, 정당 선호, 코로나 바이러스, K-방역

당파적 태도가 코로나19 관련 대응 평가에 미치는 영향

배 진 석(경상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논의
Ⅲ. 한국정치에서 당파성의 결정요인과 영향력: 예비분석
Ⅳ. 경험분석
Ⅴ. 결론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관련 대응 평가에 당파적 태도가 미치는 영향력을 탐구하는 것이다. "K방역"으로 표현되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은 국제비교 관점에서 모범적인 것으로 평가되어 왔기 때문에 당파성의 영향력이 발견되기 힘든 사례(hard case)로 간주되어 왔다. 전염병 확산과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당파성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기존 연구의 주장과는 달리, 코로나19 관련 대응 평가에서 당파성의 영향력은 확인되었다. 다만 그 범위는 확정적이기보다 선택적이었다. 이 연구는 정서적 당파성(affective partisanship)의 개념을 활용해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낮은 사람들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해도 이를 대통령의 성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야당의 이념적 타겟이 된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도 크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야당의 이념적 타겟이 된 정부정책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다만 정부의 세부정책 평가에서 확인되듯이 정치적 이슈와 비정치적 정책 이슈 영역에서 당파성은 맹목적이기보다 선별적으로 작동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코로나19, 당파적 태도, 정서적 당파성, 조정된 회고

코로나19 위기 속 돌봄의 공공성과 국가 역할에 대한 인식

박 선 경(인천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김 희 강(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방법: 자료와 변수 측정
Ⅳ. 통계분석
Ⅴ. 결론

국문요약

코로나19 위기는 돌봄의 중요성과 돌봄부정의를 가시화했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형성된 돌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돌봄의 공공성과 국가 역할 확대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까? 본 연구는 코로나19 위기가 돌봄의 공공성에 대한 시민적 지지를 이끌어 낼 역설적 계기로 작동함을 주장하며,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 미시적 분석을 통해 이 주장의 경험적 근거를 제공한다. 통계분석 결과 첫째,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돌봄의 중요성에 공감하게 된 사람일수록 돌봄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돌봄 노동자를 위한 처우 개선 정책에도 동의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장년 여성일수록 돌봄의 중요성은 동의하면서도 돌봄의 국가 책임에는 반대할 확률이 높음을 발견했는데, 이러한 결과는 젠더 내 세대 격차와 성차별적 인식에 의한 것임을 추가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

주제어: 돌봄부정의, 돌봄 중요성에 대한 인식, 돌봄의 공공성,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젠더 내 세대 격차

코로나19와 국가역할 확대에 대한 국민 인식: 이념성향, 재난피해, 정부대응, 재난지원금의 영향

박 선 경(인천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신 진 욱(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Ⅰ. 서론
Ⅱ. 이론적 쟁점과 연구 가설
Ⅲ. 자료와 변수 측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국문요약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국가역할 확대의 당위에 관해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복지와 노동보호 등 다양한 국가역할에 대한 국민인식과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시민들의 이념 및 정치적 당파성이라는 장기적 변수와 코로나 피해, 정부대응 및 재난지원금 평가 등 단기적 변수가 향후 국가역할의 확대에 대한 태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결과는 첫째, 이념성향은 국가역할에 대한 태도에 분명한 영향을 미쳤으나, 정치적 당파성의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둘째, 코로나 피해 경험과 정부의 코로나 대응 및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국가역할 강화에 대한 동의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집권당의 지지층이 아닌 경우에도 정부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국가역할 확대를 더 지지했다.

주제어: 코로나19, 국가역할, 국가책임, 이념성향, 재난피해, 정부성과 평가, 재난지원금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성공 조건: 한국 사례의 비교연구

김 정(북한대학원대 조교수)

Ⅰ. 서론
Ⅱ. 이론적 가설: '사회적 위험' 기반 대규모 집합 행동의 논리
Ⅲ. 경험적 검증 (1): 선진산업민주국 비교연구
Ⅳ. 경험적 검증 (2): 한국 사례연구
Ⅴ. 결론

국문요약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보건 목표와 경제 목표 사이 상충관계를 완화하는 상생적 경로를 따르려면 대규모 집합 행동을 통해 시민의 자발적 정책 순응을 담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높은 수준의 위협, 시간적 압박,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위기 정치' 시간은 시민의 '합리적 공포'를 작동시켜 '사회적 위험' 기반 대규모 집합 행동을 가능하도록 만든다. 시민의 민첩한 '위험 인지'가 무임승차의 유인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방역이라는 독특한 공공재의 속성 때문이다. 자신을 공공재 창출의 '최약 고리'로 인지할수록 대규모 집합 행동에 참여할 확률이 높아지고 그 결과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정책 순응도가 높아진다는 이 연구의 가설은 선진산업민주국의 코로나19 방역 정책 결과의 변이를 잘 설명했고, 한국의 경험을 통해서도 지지를 받았다. 한국의 사례는 정부의 민첩한 정책 대응이 '검사 및 격리' 정책의 성공 요인인 반면 시민의 자발적 정책 순응이 '개인위생 및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성공요인이라는 점을 보여줬다.

주제어: 코로나19 팬데믹, 사회적 위험, 사회적 자본, 대규모 집합 행동, 방역 정책

미국패권 변화의 동학과 세계체계분석의 경계들: 이론적 대안 모색을 위한 시론

공 민 석(제주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Ⅰ. 서론
Ⅱ. 세계체계분석과 세계패권의 역사
Ⅲ. 미국패권 변화와 세계체계분석의 분기
Ⅳ. 세계체계분석의 경계들
Ⅴ. 결론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패권 변화에 관한 세계체계분석의 연구들을 비교, 분석하고 이론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세계체계분석에 기반한 미국패권 연구는 1970~80년대 이래 세계자본주의의 구조적 동학에 주목해서 자본주의 세계체계와 미국패권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중요한 기여를 해 왔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쇠퇴, 그리고 미중 패권경쟁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쟁점들 또한 세계체계분석이 지속적으로 천착해 온 문제들이었다. 이 때문에 금융위기 이후 세계체계분석 내부의 논쟁과 연구 또한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세계체계분석에 기반한 미국패권 연구 또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세계체계분석의 대표적 연구들의 이론 구조, 시기별 미국패권 변화의 동학, 미국패권 이후에 대한 설명이 갖는 의의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이론적 대안으로 패권이행의 순환적 성격보다는 진화적 성격을, 패권의 보편성보다는 특수성을, 패권국의 현상유지적 태도보다는 수정주의적 전략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주제어: 세계체계분석, 임마누엘 월러스틴, 조지 모델스키, 윌리엄 톰슨, 죠반니 아리기, 미국패권, 패권이론

신냉전 시대 북극해 딜레마: 국제체제적 분석과 전망

반 길 주(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Ⅰ. 서론
Ⅱ. 문헌연구 및 분석의 틀
Ⅲ. 북극의 부상과 신냉전 이전의 북극해 딜레마
Ⅳ. 신냉전기 북극해 딜레마 양상 추적: 딜레마 D의 부상
Ⅴ. 결론

국문요약

기후변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북극항로가 열리고 있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으로 첨단기술이 발전하면서 항로개척과 북극해 활용의 기회도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극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강대국의 전략적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되레 북극해 활용이 더 제한되는 딜레마에 봉착하고 있다. 북극해 딜레마의 역학이 언제 약하고 언제 강하게 나타나는가? 세력배분이라는 국제체제적 변수와 접근성이라는 두 가지 변수가 딜레마 강도를 좌우한다. 신냉전기는 북극해 접근성이 강화되었지만 미국의 힘의 압도 퇴보로 강대국의 충돌과 갈등이 부상하면서 북극해 딜레마의 강도가 거세졌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인도-태평양지역의 남중국해 갈등처럼 북극해 경쟁도 강대국 경쟁의 대리전 지대로 변화하는 양상에 직면하고 있다. 북극해 경쟁은 근본적으로 국제체제적 요소에 의해 추동되었다는 점에서 행위자가 이를 변화시키는 것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행위자가 북극해에서 우발적 군사충돌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를 위해 "포괄적 북극해 CBM"을 가동시키는 국제적 공조가 요구된다. 나아가 한국은 강대국 경쟁에 뛰어든 미국, 중국, 러시아에 지정학적으로 연결된 국가라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의 북극해 전략을 수립하여 국익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신냉전, 북극해, 대리전, 빙상 실크로드, 신뢰구축조치

김정일의 권력 승계 과정에 대한 연구: '216'의 정치상징화 지속과 북베트남의 교훈을 중심으로

김 상 범(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1968년 2월 16일 김일성 가계의 본격적인 혁명화 작업과 태양의 의미
Ⅳ. 1969년 9월 3일 호치민의 사망 전후 북베트남의 혼란과 북한의 교훈
Ⅴ. 1970년 4월 5일 주언라이의 방북과 '216'호 비행기의 의미
Ⅵ. 결론

국문요약

이 글의 목적은 1968년~1970년 동안 간과되었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소개, 분석을 토대로 김정일의 권력 승계 과정을 보충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김정일은 1968년 2월 16일 자신의 생일에 김일성을 최초로 태양으로 묘사하였으며, 북한 사회가 미래의 태양이자 후계자로서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거부할 수 없는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였다.

청년동맹을 중심으로 한 미래 세대 교육·양성이라는 호치민의 유훈에 따라 북한은 후계자 문제를 체제 유지·발전의 핵심 사안으로 재인식하고, 청년동맹을 중심으로 후계 세습 과정을 재정비하게 되었다. 북한에게 북베트남의 교훈과 호치민의 유훈은 중소의 후계 승계 경험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전용기인 Ⅱ-208이 아닌 Ⅱ-216을 타고 온 주언라이의 외교적 행위는 중국의 국내외적 상황상 북중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화해와 우호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의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북한 사회가 당시 조직과 선전선동을 장악하고 있던 김정일을 후계자로 사실상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김정일, 권력 승계 과정, 216, 호치민의 유언, 북중관계

아베 정권기 개헌 실패의 분석: 개헌과정의 합의제적 특성과 개헌 프레임의 모순을 중심으로

김 성 조(순천대 사회교육과 조교수)

Ⅰ. 들어가며
Ⅱ. 기존문헌 및 이론적 논의
Ⅲ. 개헌의 제도적 절차와 행위자들의 입장
Ⅳ. 2016년 이후의 개헌논의
Ⅴ. 나아가며

국문요약

2016년 7월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여 전후 일본 헌정사에서 최초로 개헌세력이 양원에서 공히 개헌선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소강상태였던 개헌논의는 다시금 활기를 띠게 되었고 자민당 내부에서는 아베 총리의 강력한 리더십 속에서 개헌안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자민당은 2019년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선이 무너지는 3년간 아무런 성과를 만들지 못하였다. 자민당의 개헌안은 국회 내 헌법심사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되고 말았다. 이는 일본 개헌과정의 합의제적 특성과 아베 시기 개헌 논의의 프레임에 내재한 모순이 결합된 결과였다. 일본의 국회 내 개헌 추진 및 논의과정은 여야간 합의를 존중하는 형태로 규범화되어 있어서 일방적인 개헌시도를 어렵게 한다. 또한, 그동안 역사수정주의를 내건 아베 총리의 현상변경적 발언과 정책들은 개헌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위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아베 총리는 개헌안 상정을 포기하게 되었다.

주제어: 개헌, 일본 의회, 합의제, 프레임, 아베 총리

바이든 행정부의 동아태 전략과 한미관계: 관여-헤징의 전략모순

윤 대 엽(대전대 군사학과 조교수)

Ⅰ. 문제제기
Ⅱ. 미국의 동아태 전략과 한미관계: 접근시각
Ⅲ. 북핵 위협과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관계
Ⅳ. 미중 경쟁체제와 한미관계
Ⅴ. 결론 및 함의

국문요약

바이든 행정부 시기 한미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본 연구는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문제와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동아태 전략이 한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핵심 주장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핵무장한 북한의 전략적 위협은 한미관계의의 모순을 심화시킨다. 북한의 비핵화는 협상의 개시와 그 최종상태에 대한 합의일 뿐 북핵문제의 해결은 핵 군축과 핵 균형 두 가지 뿐이다. 두 개의 옵션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미국의 동아태 전략의 변화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한미관계의 모순은 심화된다. 둘째,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쟁적 관여 역시 한미관계의 모순을 심화시킨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정부시기 쟁점화된 미중 경쟁을 제도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며 이는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모순을 심화시킨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경쟁적 관여와 한국의 헤징에서 발생하는 모순의 관리방안으로 한미일 안보협력과 다자적 유연성을 검토한다.

주제어: 한미관계, 바이든 행정부, 북한의 비핵화, 바이든-시진핑 미중경쟁, 한미일 안보협력

중국의 데이터 자원화와 미중 전략경쟁의 성격 변화

이 인 우(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석사수료)
이 희 옥(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문제 제기
Ⅱ. 일반목적기술(GPT)과 데이터 자원화
Ⅲ. 중국의 데이터 자원화: 집중성과 다양성
Ⅳ. 데이터 주권과 거버넌스의 충돌
Ⅴ. 결론

국문요약

본 연구는 일반목적기술(GPT)에 의한 디지털 전환의 결과 새로운 자원으로 등장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미중 관계를 분석했다. 민군겸용 기술인 디지털 기술이 데이터를 연료로 소모하기 때문에 데이터 자원의 확보는 국력 향상에 필수적이다. 미국과 중국은 디지털 전환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였고 데이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의 심화와 데이터 거래를 촉진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은 집중성에서, 미국은 다양성에서 비교우위가 있으나 현재 중국은 다양성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주변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데이터 경쟁력 확보 과정에서 데이터 자원의 특성상 중요정보 유출이라는 외부효과가 발생하며 이를 통제하면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민주주의 체제인 미국은 복잡한 절차, 인권침해 문제 등 정부의 데이터 활용에 많은 제약이 있으나 권위주의 체제인 중국은 정부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즉, 중국은 경쟁력 있는 데이터를 국가 전략자원으로 활용하기 용이하다. 미국이 가치동맹외교를 통해 중국의 체제를 비난하면서 디커플링을 추진하는 핵심은 중국의 데이터 전략을 견제하고 패권을 유지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주제어: 미중전략경쟁, 일반목적기술(GPT), 데이터 전략, 데이터 거버넌스, 데이터 경쟁력

한반도 평화체제 만들기의 국제정치적 기원: 북한자료를 통해서 본 정전협정 4조 60항의 합의과정

구 갑 우(북한대학원대 교수)

Ⅰ. 문제설정
Ⅱ. 정전협상과 외국군 철수의 의제화
Ⅲ. 정전협정 4조 60항의 형성과 북한
Ⅳ. 정전협정 4조 60항 평가: 결론에 대신하여

국문요약

이 논문은 정전협정 4조 60항이 형성되는 미시적 과정을 정전협상 당시 생산된 북한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정전협정 4조 60항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정치회의를 개최하여 외국군 철수 및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을 논의할 것을 규정했다. 즉 정전협정 4조 60항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를 의제로 만들게 하는 국제법적 근거다. 기존 연구는 정전협정 4조 60항을 공산군측 제안을 미국이 수용한 것으로 또는 외국군 철수를 둘러싼 양 진영의 타협의 산물로 보고 있다. 이 조항의 특이성은 정전협정 내에 평화적 해결을 포함하고 있는 다른 정전협정과 달리 외국군 철수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에서 외국군 철수는 북한이 한국전쟁 전부터 주장했던 의제라는 점도 주목의 대상이다. 한국전쟁을 내전으로 규정했던 북한은 정전협상의 과정에서 중국과 함께 즉각적인 외국군 철수를 주장했지만 유엔군측은 수용하지 않았다. 북중이 제기한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동아시아 지역 문제의 의제화는 유엔군측의 반대로 '등'으로 처리되었다.

주제어: 한국전쟁, 정전협상, 정전협정 4조 60항, 한반도 문제, 외국군 철수, 평화적 해결, 평화협정

의회-지배인(Council-Manager) 모델은 한국 지방정치에 적실한 정부형태인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에 관한 비판적 검토

김 한 나(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Ⅰ. 문제 제기
Ⅱ. 지자체 기관구성, 왜 바꾸려 하는가?
Ⅲ. 의회-지배인 모델, 한국 지방정치에 적실한가?
Ⅳ. 의회-지배인 모델, 상반된 이론과 경험적 증거들
Ⅴ. 논의

국문요약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서 지자체의 기관구성 형태가 다양해질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자체 기관구성 형태의 대안으로 자주 거론되는 의회-지배인(CM) 모델이 한국 지방정치 현실에 적실한 모델일 수 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하려는 것이다. 국내 선행연구들은 지방정치에서 되도록 정당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행정·입법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 CM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일당이 독점하는 이원적 구조에서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기존 주장에 모순이 존재함을 지적한다. 또한, 본 연구는 미국과 한국 간 지방정치 환경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20세기 초 미국 도시들에서는 정당 머신정치의 폐해를 막기 위해 CM 모델이 고안되었지만, 한국은 역사적으로 정당이 아닌 관료의 주도로 자치분권이 이루어져 왔고 한국 지방정치에서 정당-시민 간 정치적 연계는 매우 약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CM 모델의 효과에 관하여 상반된 이론과 엇갈린 경험적 결과가 병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 모델을 한국에 도입하고자 할 때는 제도의 한국적 적실성을 신중히 고려하면서 민주적 차원에서 정당(특히 지역 정당)의 역할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지방정치,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의회-지배인 모델, 시장-의회 모델, 지방의회

지경학의 시대:
주체/구조와 안보/경제의 수평적 상호작용

신 욱 희(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Ⅰ. 서론
Ⅱ. 개념적 검토
Ⅲ. 역사적 고찰
Ⅳ. 결론

국문요약

국제관계학에서 상위정치와 하위정치의 상호작용은 국제정치경제 혹은 세계정치경제라는 영역에서 폭 넓게 다루어져 왔다. 그렇지만 통상, 금융 그리고 투자와 원조에 대한 연구에 비해 국제정치의 핵심 주제인 '안보'와 '경제'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론적, 역사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그다지 풍부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많이 언급되는 '지경학'이라는 화두의 등장은 경제와 안보 사이의 상호작용을 본격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글은 개념적 검토와 역사적 고찰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 부분에서는 지경학에 대한 논쟁의 시작과 전개 양상을 서술하고, 이 논쟁의 내용을 패러다임 내 논쟁과 패러다임 간 논쟁으로 나누어 살펴본 후에 논의를 정리할 수 있는 적절한 분석틀을 모색해 볼 것이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 분석틀을 냉전, 탈냉전/세계화, 그리고 탈 · 탈냉전의 시기에 각각 적용하여 그 특징적 양상을 관찰하고, 현재의 시기에 있어서의 이론적, 정책적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지경학 논의는 학문적 연구와 더불어 실천의 대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 국가의 구체적인 정책적 선택에 앞서 그 대상에 대한 이론적, 역사적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경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글은 기본적으로 지경학을 안보와 경제가 수평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열린(open-ended) 과정으로 보고, 이에 대한 경제적 국가책략 수행의 의미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지경학, 주체, 구조, 안보, 경제

보장과 통제:
1987년 수출통제 양해각서로 본 한미동맹의 교환 메커니즘

이 재 원(서울대 국제학연구소 객원연구원)

Ⅰ. COCOM의 재등장과 동맹 관계
Ⅱ. 비대칭 동맹의 안보-자율성 교환 메커니즘: 보장과 통제
Ⅲ. 한미 수출통제 양해각서 체결: 기술이전의 보장과 재수출 통제
Ⅳ. 결론 및 시사점

국문요약

이 연구는 비대칭 동맹의 안보–자율성 교환에 있어서 강압을 통한 동맹제지라는 기존 연구와 달리 어떻게 동맹의 신뢰가 형성되는가를 설명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안보 이익의 공통성 확대와 사회화 과정을 활용하여 보장과 통제라는 동맹의 교환 메커니즘을 소개한 후, 이를 검토하기 위해 한미 간 수출통제 양해각서 체결 과정을 살펴본다. 1984년부터 1986년까지 비공식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국은 북한을 비롯한 공산권으로 유출되는 전략물자가 공동의 안보 이익을 저해한다고 보았다. 한국은 수출통제가 대외 무역 활성화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국방력 강화와 기술 자립을 위해 미국 및 서구권의 첨단 기술 도입이 우선 필요하다고 보았다. 양해각서를 통해 미국은 첨단기술의 원활한 이전을 약속하고 정보 공유를 위한 연례 협의체 개최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반도체 동맹 등 미국 주도의 대중국 견제 및 공급망 재편 압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에 던져주는 시사점이 크다.

주제어: 동맹, 보장과 통제, 수출통제, 협의, 기술이전

대중문화, 소프트파워, 역사에 대한 기억: 일본 대중문화와 일본 정부 과거사 사죄에 관한 미국 국민의 정치인식

장 기 영(경기대 국제학과 조교수)

Ⅰ. 서론
Ⅱ. 대중문화, 소프트파워, 국제관계
Ⅲ. 일본 '대중문화' 매력과 한일 과거사 갈등에 대한 미국 대중의 정치적 인식
Ⅳ. 경험적 분석
Ⅴ. 결론

국문요약

본 연구는 '대중문화(popular culture)' 매력을 포함한 일본의 소프트파워(soft power)가 미국 대중들로 하여금 일본을 더욱 신뢰하게 하고, 나아가 일본 정부의 과거사 사죄 문제에 대하여도 일본에 더욱 우호적인 정치적 태도를 야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소프트파워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국가 또는 정부엘리트가 주도적으로 활용한 대중문화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고, 대중문화가 소프트파워로 작용하는 메커니즘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명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 대중문화나 국가브랜드가 어떻게 소프트파워로 구현되어 국제청중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통계적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2015년에 행해진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설문조사 분석을 통하여 일본의 대중문화 및 브랜드 등에 대해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미국 국민일수록 일본을 더욱 신뢰하고 일본 정부의 과거사 사죄 문제에 대하여도 관대한 정치적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한국 정부의 과거사 문제에 관한 공공외교 전략은 한국과 일본의 '소프트파워' 동학 속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제어: 일본 소프트파워, 일본 대중문화, 국가 신뢰, 과거사 사죄, 미국 국민, 공공외교

중국의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인식 및 정책: 중국몽(中國夢) 실현 과정 속 '도전'을 '기회'로 만들기

서 정 경(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학술연구교수 겸 동북아센터 선임연구원)

Ⅰ. 서론
Ⅱ. 과거 중국의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인식 및 정책
Ⅲ. '이중 압박' 시기 중국의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인식 및 정책: 도전을 기회로
Ⅳ. 결론

국문요약

점증하는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과 위상은 위기에 처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중국은 미국과 주요 국가들, UN 등 국제기구와 공조하여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의 건설적 역할과 성장에 실제로 기여할 수 있을까?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장기적 연구과제의 첫 번째 연구성과로서 우선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를 바라보는 중국의 인식과 수용과정의 변화를 심도있게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는 특히 오늘날의 중국이 '미국의 전면적 압박'과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라는 미증유의 '이중 압박'에 처했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를 바라보는 인식과 정책을 '중국몽 실현과정 속 도전의 기회화'라는 시각으로 해석했다. 그리고 중국의 인식과 정책이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의 발전에 갖는 의미를 도출하였다.

주제어: 중국,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이중 압박, 팬데믹

해방 후 단군 인식의 변화에 관한 연구: 단군 민족주의의 약화와 국수주의의 확산

전 재 호(서강대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조교수)

Ⅰ. 들어가는 말
Ⅱ. 해방 이전 시기: 단군 민족주의의 등장과 확산
Ⅲ. 해방 후~1980년대: 단군 민족주의의 제도화와 변형
Ⅳ. 1990년대 이후: 단군 민족주의의 약화와 국수주의로의 변형
Ⅴ. 나가는 말

국문요약

이 글은 20세기 초 한국에서 민족적 상징으로 등장한 단군에 대한 인식이 해방 후 어떻게 변화했는지, 특히 왜 단군 민족주의가 약화하고 국수주의가 확산했는지를 고찰했다.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에 정당성을 부여했던 단군 민족주의는 해방 후 남북통일에 정당성을, 그리고 대한민국에 민족 정통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했다. 정부 수립 직후 단군 연호, 개천절, 홍익인간 교육이념 채택이 이를 보여준다.

그런데 1960년대부터 단군 민족주의는 변화하기 시작했다. 단군 관련 종교단체가 쇠퇴하고, 기독교를 중심으로 단군 민족주의에 대한 이견이 표출되었으며, 시대적 과제가 변함에 따라 민족적 상징의 역할도 축소되었다. 이에 비해, 단군을 앞세운 재야사학자들은 기성 역사학계를 식민사관이라고 비판하고 단군조선을 '황금시대'로 포장하여 국수주의를 조장하며 세력을 확대했다. 그러나 이러한 국수주의는 기존 단군 민족주의의 흐름에서 완전히 이탈한 행보였다.

21세기 단군 민족주의는 매우 약화했지만,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가 부상할 경우, 제한적이지만 상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제어: 단군, 민족주의, 단군 민족주의, 국수주의, 재야사학자

비대칭 동맹에서 자율-안보 교환 모델의 적실성에 대한 비판적 연구: 1988년 한국의 SDI 참여 결정과 이후 전개를 중심으로

김 재 학(연세대 정치학과 박사과정생)
김 성 현(연세대 정치학과 박사과정생)
배 종 윤(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Ⅰ. 서론
Ⅱ. 비대칭 동맹인 한미동맹과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 참여 문제
Ⅲ. 1988년 한국의 SDI 참여 결정 목적과 배경
Ⅳ. 당시 미국의 국내정치상황과 한국의 인지 여부
Ⅴ. 결론

국문요약

본고는 한국이 1980년대 미국이 주도하는 전략방위구상(SDI)에 참여를 결정하였으나, 이후 해당 결정이 무산된 사건에 대하여 자율-안보 교환 모델에 입각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한국이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자율성을 양도하는 대가로 기대하는 안보 이익과 관련하여 기존의 군사적 안보 이익뿐만 아니라 경제적 영역의 안보 이익까지 포함될 수 있음을 반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는 80년대 한국이 미국 주도의 SDI 참여라는 자율성 양도 결정에 있어 과학기술역량 육성이라는 경제적 동기가 그 중심에 자리잡고 있었으며, 이는 당시 수출지향적이고 중공업 및 전기전자산업 위주의 한국 산업구조가 직면한 상황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한국의 결정이 결국 무산된 것은 당시 미국의 국내정치적 상황이 한국이 SDI 참여를 통해 주요 과학기술을 이전받는 데 불리하게 전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본고는 자율-안보 교환 모델이 거래 행태로서 동맹국 간에 협력이 무산되는 원인에 대하여 함의를 제시한다.

주제어: 한미동맹, 자율-안보 교환모델, 비대칭 동맹, 전략방위구상(SDI), 한국외교정책

탈냉전기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역할 변화

임 기 훈(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차장)

Ⅰ. 서론
Ⅱ. 탈냉전기 미국의 대아시아 국방전략
Ⅲ. 탈냉전기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Ⅳ. 탈냉전기 주일미군의 역할 변화
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상관관계
Ⅵ. 결론

국문요약

본 연구는 탈냉전기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역할 변화를 다룬다.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은 공격적 현실주의에 기반한 아시아 국방전략을 추구하였으며, 이는 한국과 일본의 대미 동맹전략과 결합되어 주한·주일미군의 역할 변화를 견인하였다. 냉전기 지역방위군의 역할을 담당했던 주한미군은 탈냉전기 동북아의 작전적 기동군으로 그 역할이 변화되었다. 반면, 냉전기 동북아에서의 세력균형과 신속대응전력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던 주일미군은 냉전 종식 후에는 아태지역의 전략적 기동군으로 그 역할이 변모되었다.

주한·주일미군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주한·주일미군간 상관관계는 더욱 심화되었다. 특히, 한미·미일동맹간 결속력, 한일관계, 주한·주일미군의 상호 보완적 전력구조 등은 주한·주일미군의 상관관계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주한·주일미군의 역동적 운용을 통해 역내 안보위협에 대응하여 왔으며, 주한·주일미군 전력의 운용은 향후 아태지역 안보지형의 재편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제어: 주한미군, 주일미군, 동맹, 안보전략, 전략적 유연성

2018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구조적 분석: '제재의 정치'와 북한의 미래

안 경 모(국방대 안보정책학과 부교수)

Ⅰ. 서론: 전환은 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Ⅱ. 분석의 틀: 구조적 압력과 전망이론
Ⅲ. 미국의 셈법과 전환의 구조
Ⅳ. 북한의 셈법과 전환의 구조
Ⅴ. 결론: 전환의 시도는 지속될 것인가?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18년 이래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시작된 원인과 동학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북미관계를 전망하고 그것이 갖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려는 시도이다. 특히 본 연구는 정권과 행위자 차원의 변수들보다는 국가 차원의 구조적 변수들에 주목한다. 구조적 조건의 핵심은 바로 '손실의 영역'으로의 진입과 증대된 '현상타파 압력'이다. '위기'라는 표면적 모습과 달리 북미 양자는 '붕괴의 시간표'와 '핵무력 완성의 시간표'라는 서로 다른 전망에 기반하여 3차 북핵위기의 기간 동안 '새로운 핵전략의 전면화'와 '핵능력 완성'이라는 각각의 '이익'을 거두어 왔으며 2017년 말은 이러한 셈법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미관계에 대한 향후 전망 및 우리의 대응과 관련한 고민들은 이와 같은 구조적 압력을 이해하고 이를 현 시점에서 정확히 재평가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주제어: 북한, 미국, 핵위기, 전망이론, 손실의 영역

러시아의 영토확장 행동에 대한 나토와 미국의 군사적 대응 연구: 2008년 러시아–조지아 전쟁, 2014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심으로

남 보 람(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Ⅰ. 서론
Ⅱ. 강대국을 추구하는 국가의 행동
Ⅲ. 2008년 러시아-조지아 전쟁
Ⅳ. 2014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Ⅴ. 결론

국문요약

탈냉전 이후 유럽 질서는 '불균형한 다극체제' 속에 놓이게 되었다. 유럽 주둔 미군은 본격적으로 철수한 반면, 러시아군은 막강한 군사력을 이용하여 주변국을 침공했다. 2008년 러시아–조지아 전쟁, 2014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는 양적, 질적으로 압도적인 군사력을 선보였다. 우크라이나는 물론 나토와 주요회원국은 제대로 된 대처를 할 수 없었다. 당시 나토의 정치적 의지, 나토군의 군사적 능력으로는 러시아의 빠르고 강한 침략에 대처할 수 없었다. 전쟁의 종결을 위해 나선 것도 유엔이나 나토가 아닌 프랑스, 독일 등 개별 국가였다. 2014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영토확장 행동을 막기 위해 나서고 있는 것은 미국이다. 나토군 '준비태세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초고수준준비태세합동특임부대', '증강된 나토대응군' 운용을 주도하고 있다. 일련의 조치들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냉전으로 회귀'를 예단하게 하고 있다. '준비태세실행계획'부터 '증강된 나토대응군'까지의 핵심개념이 냉전기에 버금가는 '전진배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러시아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정치적 행동은 유엔이나 나토가 아닌 개별 강대국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동유럽 약소국을 포함한 러시아 주변국은 다른 강대국의 보호를 받고자 자신의 영토에 외국군 주둔을 허용할 것이다. 미군 등이 현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에 주둔하고 있으며 러시아주변국과 군사안보 협력을 늘리고 있다. 러시아가 주변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수위를 가시적으로 낮추지 않는다면 유럽에서 활동하는 미군 규모는 증가할 것이다. 유럽 질서를 지배하던 '불균형한 다극체제'는 '불균형한 양극체제'로 변모할 것이다. 이것이 '냉전으로 회귀'의 실체이다.

주제어: 불균형한 다극체제, 2008년 러시아–조지아 전쟁, 2014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나토대응군, 증강된 전진배치 전략

한반도 국제관계, 1972~2022: 시공간 복합체 시론

이 혜 정(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Ⅰ. 서론
Ⅱ. 한반도 국제관계의 이론화
Ⅲ. 한반도 국제관계의 동학(1972~2022)
Ⅳ. 결론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반도의 분단과 평화,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역사적, 이론적 특성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집중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한반도 국제관계를 한반도의 세계적 위상을 규율하는 다양한 영역의 시공간 복합체로 개념화하고, 그 역사적 진화를 데탕트 시기 진영체제의 이완, 탈냉전으로 인한 진영체제의 해체와 미국 패권체제로의 전환, 그리고 대테러전쟁 이후 미국 패권체제의 위기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주제어: 한반도 분단, 냉전, 시공간 복합체, 진영체제, 미국 패권

1972년 데탕트의 한계와 국제질서의 혼돈

김 명 섭(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서론
Ⅱ. 1970년대 미국주도 데탕트의 의미와 한계
Ⅲ. 냉전 이후 미국중심적 국제질서의 혼돈
Ⅳ. 결론

국문요약

이 연구는 1970년대 미국이 주도했던 데탕트의 의미와 더불어 그 한계를 재조명하고, 그러한 한계가 냉전이후 미국중심적 국제질서의 혼돈에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를 고찰한다. 닉슨과 키신저에 의해 고안되었던 1970년대 데탕트는 지정학적 현실주의에 입각해서 베이징에 접근함으로써 미·소 양극적 긴장을 완화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이 연구는 닉슨–키신저 데탕트가 전 세계적으로 분출하던 주권에 대한 민족주의적 요구들과 인권에 대한 민주주의적 요구들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었다고 본다. 실제로 데탕트는 1979년 아프가니스탄, 베트남, 이란, 니카라과 등지에서부터 종식을 맞이했다. 1989년 냉전의 종언 또한 주권의지와 인권요구가 분출하면서 시작되었다. 양극체제 종언 이후 미국중심의 단극적 국제질서를 통해 보다 완전한 평화를 가져다 주리라는 희망과 달리 미국중심적 국제질서는 혼돈에 직면해 있다. 1970년대 데탕트처럼 강대국 국제정치 중심의 해결책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분출하는 주권의지와 인권요구가 만들어 내는 변화를 수용하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함께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의 네트워크에 기반한 스파게티그릇 모델의 초국질서만으로는 부족하며 민주적 주권국가들 간의 상호작용이 제도화 된 샐러드그릇 모델의 국제질서가 공존해야 한다.

주제어: 데탕트, 냉전, 국제질서, 주권, 인권

한국 외교정책 50년의 검토와 평가: 중소국 외교론의 관점에서

김 태 현(중앙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Ⅰ. 들어가기
Ⅱ. 이론적 검토
Ⅲ. 한국 외교정책 50년: 역사적 스케치
Ⅳ. 한국 외교정책의 평가: 이중 다변화를 통한 복합적 균형의 지향
Ⅴ. 결론: 한국 외교정책의 과제

국문요약

이 논문은 한국 외교정책 50년을 이론에 비추어 검토하고 평가한다. 기왕의 국제정치 이론이 강대국에 편향되어 강대국에 포위된 중소국의 외교적 행태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 논문은 중소국 외교정책론을 제시하고, 그에 비추어 한국의 외교를 검토, 평가한다. 또 냉전과 탈냉전, 한국의 성장과 민주화 등의 변수가 한국의 외교에 미친 영향도 아울러 검토한다. 강대국을 대하는 중소국의 외교전략 목표는 자율성의 극대화이며, 그것을 위한 전략으로는 국력 증진의 '자강'전략 외, '다변화', '다원화', '다자화', '다층화' 등이 있다. 냉전기 한국은 미국의 정책에 '동화'한 가운데 주로 '자강' 나아가 제한적 '다변화'를 통해 자율성 증진을 추진했다. 탈냉전 시대 한국은 주변 4강을 아우르고, 기타 중소국으로 확장하는 '이중 다변화'와 '다자화'를 통해 자율성의 확대를 추구하고 대체로 성공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장, 미국과 중국 사이 갈등의 심화로 인해 성공은 제한적이었고 앞으로는 더욱 어려운 도전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제어: 한국의 외교정책, 중소국 외교정책론, 국제정치이론, 외교 다변화, 균형잡기, 편승하기

미중 경쟁과 한국의 대응: 냉전의 역사로부터 교훈 찾기

마 상 윤(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Ⅰ. 머리말
Ⅱ. 역사의 교훈
Ⅲ. 냉전기 한국외교의 전략적 선택
Ⅳ. 미중 경쟁기 한국외교의 선택
Ⅴ. 맺음말

국문요약

이 글은 냉전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한국외교에 대한 교훈을 찾아보려는 시도이다. 냉전의 초기 전개 과정과 비교해 볼 때, 미중 경쟁이 아직은 본격적 냉전의 단계에 진입하지 않았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관련국들은 과장된 위협인식과 과도한 대응으로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미소 냉전에서 그러했듯 미중 경쟁에도 안보 딜레마가 작동하고 있는바, 딜레마의 신중한 관리도 필요하다. 냉전기 한국외교에는 동맹, 자주, 외교 다변화의 전략적 선택이 있었다. 미중 경쟁 상황에서도 한국은 한미동맹을 통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력이 필요하다.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미국이 추진하는 동맹 네트워크에 포함되는 것을 꺼려왔으나, 미중 관계의 지속 악화 시 한중관계의 일정한 위축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미중 관계의 악화를 예단하기보다 추이를 잘 살펴 대응해야 하고, 우리의 외교 원칙 공표, 레버리지 확보, 취약성 보완 등 철저한 대비가 우선 필요하다.

주제어: 냉전, 미중 경쟁, 안보 딜레마, 한국외교

한일관계: 50년의 경험과 교훈

박 철 희(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Ⅰ. 한일관계 50년을 보는 잣대와 문제의식
Ⅱ. 냉전기 한일관계의 현실주의적 전개: 1972~1990년
Ⅲ. 탈냉전기 한일관계의 복합적 전개: 1991~2010년
Ⅳ. 미중경쟁 시대의 도래와 한일관계의 악화: 2011~2021년
Ⅴ. 한일관계 50년의 교훈

국문요약

이 글은 한일관계 50년을 냉전기, 탈냉전기, 미중경쟁기 세 개의 시기로 나누어 과거사를 다루는 방식과 양국이 추구한 국가전략 정체성의 정합성이라는 두 개의 변수를 통해 재조명한다. 이 논문은 냉전기에는 협력이 주를 이루나, 탈냉전기에는 협력과 갈등이 복합되고, 미중경쟁기에는 기본적으로 갈등이 늘어났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정치외교 부문에서는 한일이 협력의 증대보다는 갈등과 대립의 심화로 이어지지만, 양국이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적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며, 새로운 접점이 늘어나고, 공통과제가 많다는 점에서, 양국 관계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주제어: 과거사, 국가전략 정체성, 대북 정책, 지역협력, 한미일 협력

남북관계: 50년의 경험과 교훈

홍 용 표(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들어가는 글
Ⅱ. 남북관계의 특징과 정책 방향
Ⅲ. 정부별 남북관계의 진전과 후퇴
Ⅳ. 평가와 교훈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당국 간 남북대화가 시작된 박정희의 제4공화국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의 남북관계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즉, 각 정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대화와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을 중심으로 어떻게 관계가 개선되었으며, 왜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관계가 경색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각 정부 정책의 특징을 분석하는 데 있어 국제정치에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시각을 적용하였다. 아울러 남북관계에서 두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해 남북한의 대외적 행동을 현상유지 및 현상수정 성향으로 분류하고 그 의미를 고찰하였다. 남북한은 통일을 지향하지만, 그 과정에서 각자의 체제에 위기가 닥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감안할 때, 남북한이 독자적으로 현상 유지와 수정 어느 한쪽에 치우친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남한과 북한의 정책 성향을 상대적으로 '소극적' 현상 유지 및 수정, 그리고 '적극적' 현상 유지 및 수정주의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주제어: 남북관계, 현실주의, 자유주의, 현상유지, 현상수정, 대북정책

기술과 국제정치:
기술 패권경쟁시대의 한국의 전략

이 승 주(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Ⅰ. 서론: 기술과 전략 경쟁
Ⅱ. 미중 기술 경쟁의 국제정치적 맥락
Ⅲ. 한국의 기술-산업 연계 대응 전략
Ⅳ. 한국의 양자·지역·다자 복합 전략
Ⅴ. 결론 및 시사점

국문요약

미중 기술패권 경쟁은 다양한 이슈, 분야, 차원을 아우르는 복합 경쟁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기술 경쟁과 차별화된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다면적이고 다차원적인 '혁신 냉전(innovation cold war)'에 돌입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모두 상대국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존재적 위협으로 인식한 결과 기술패권 경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특히, 첨단기술은 선발의 이점이 크고 효과가 누적되며 겸용 기술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중 양국은 기술 경쟁에서 선제적 대응의 유혹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된다. 미국과 중국이 첨단기술을 경제-안보 연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유이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한국 대응 전략의 핵심은 다양한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또 중첩적으로 연계하는 것이다. 이익의 극대화보다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불확실성의 시대 리스크 관리는 정책 간 연계의 수준을 높이고, 대외 환경의 변화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국내 제도적 기반을 형성하며,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과의 국제협력을 적극 확대하는 데서 출발한다.

주제어: 기술 경쟁, 패권, 미국, 중국, 경제-안보 연계

미래 50년 한반도 국제정치와 한국의 선택

전 재 성(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Ⅰ. 서론
Ⅱ. 세계질서의 변화와 3중 복합 게임
Ⅲ. 일국 패권시대의 종말과 미중 간 전략 경쟁
Ⅳ. 미중 전략 경쟁 속 한국이 부딪히는 도전
Ⅴ. 미래 한반도 문제와 남북한 관계
Ⅵ. 결론에 대신하여: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들

국문요약

한반도를 둘러싼 미래 국제환경은 선형적이고 일률적이기보다는 단속적이고 불연속적인 특징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예측이 쉽지 않다. 미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환경을 결정할 요소를 생각해보면 첫째, 지구적 세력배분구조의 변화와 패권국의 존재 여부, 둘째, 지구적, 지역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미중 전략경쟁의 양상 및 결과, 셋째, 북한의 전략 변화 및 남북한 관계, 넷째, 일본과 러시아의 국가전략을 포함한 동북아 세력균형의 변화 및 민족주의의 강화, 다섯째, 보건, 환경 문제 등 지구적 문제의 전개과정 및 지구 거버넌스의 변화, 혹은 근본적인 국제정치 조직원리의 변화 등이다.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칠 기저변수로는 기술과 인구의 변화로 각 국가들의 상대적 국력 분포 및 지구적, 지역적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글은 향후 50년 간 벌어질 한반도를 위시한 국제관계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기보다는 현재의 중요 흐름들을 짚어보고 이러한 흐름들이 미래에 전개될 수 있는 논리적 양상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세계질서의 변화를 탈근대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미중 간 갈등과 경쟁이 장기적으로 전개될 양상, 그리고 남북관계의 변화를 제시해본다. 이러한 중장기 변화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주안점이 무엇인지를 검토해본다.

주제어: 미중 전략 경쟁, 패권, 탈근대 이행, 주권게임, 국제정치게임, 남북관계

유권자 정책 평가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패널 데이터로 본 문재인 정부 후반기 신뢰 하락 분석

노 기 우(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박사수료)
신 정 섭(숭실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조 영 호(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이론적 검토 및 가설
Ⅳ. 연구 설계: 자료와 모델
Ⅴ. 경험 분석
Ⅵ. 결론

국문요약

정부신뢰(government trust)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특정한 시점에 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생각과 태도를 조사하고, 이론적 가설들을 검증해 왔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정부신뢰의 역동적 및 변동적 특성을 밝히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 왔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2020년 여름과 2021년 봄에 시행된 패널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유권자들의 정부신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20년 여름에 비해 2021년 봄 시기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는 약 15% 낮아졌는데, 정부불신 증가의 주된 요인은 정부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였고, 코로나 대응, 경제문제, 부동산 대책 중 정부의 부동산 정책평가가 정부신뢰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유권자들의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이 부동산 정책이었다는 점을 제시한다.

주제어: 정부신뢰, 정책평가, 코로나, 부동산, 문재인 정부, 패널조사

한반도 평화협정과 한반도 영구평화: 평화협정 전문과 목표·이론·내용·과제의 축조해설

박 명 림(연세대 지역학협동과정 주임교수)

Ⅰ. 문제의 제기
Ⅱ. 한반도 평화협정 전문(全文)
Ⅲ. 한반도 평화협정의 기본 철학, 주체, 목표, 범주
Ⅳ. 전쟁상태, 정전상태에서 평화상태로
Ⅴ. 평화지대, 그리고 공동평화와 콘코르디아
Ⅵ. 평화관리, 한반도비핵화, 그리고 관계 정상화
Ⅶ. 인도적 전후처리
Ⅷ. 국내 법률과의 조응관계: 한국과 조선
Ⅸ. 평화협정과 한·조관계, 그리고 국제관계
Ⅹ. 맺음말에 대신하여

국문요약

본고는 현재의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안을 조문별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상세한 이론적, 제도적, 실천적 설명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그리고 북미관계의 정상화라는 세 과제의 동시 실현을 통한 한반도 영구평화의 경로를 모색한다. 평화협정의 당사자로는 한국, 조선, 미국, 중국의 4국을 제안한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전쟁상태와 정전상태는 물론 북핵체제 역시 종식되며,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의 한 조문으로 포함된다. 한국과 조선은 동등한 권리를 갖는 주권국가로서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정상관계(正常關係)로 설정된다.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무력사용은 영원히 금지되며, 한반도 평화관리 남북공동위원회, 한반도평화관리 국제조정위원회, 한반도 핵통제공동위원회가 항구적 평화를 담보한다. 비무장지대는 평화지대로 전환되며, 구역별로 평화와 화해와 치유의 모범적인 장소로 역할한다. 인도적 문제는 전후처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해소한다. 평화협정에 저촉되는 내부 법률과 규정들은 자율적으로 개정하도록 한다. 그러나 평화협정은 동맹을 포함한 타국과의 조약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주한미군은 역내 균형자로서 계속 주둔한다.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에 조응하여 한국 및 미국과 조선은 각각의 수도에 차례대로 연락사무소, 상주대표부, 공식 대사관을 개설한다. 안보 대 안보의 접근방법이다. 조선 및 중국의 유엔과의 정전상태의 예외적인 장기 지속 역시 종식된다. 요컨대 한반도 평화협정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한반도문제와 국제관계의 비정상성과 적대상태를 포괄적이며 동시적으로 일괄 해소하는 첩경인 것이다.

주제어: 한반도 평화협정, 정전협정, 비핵화, 북·미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영구평화, 통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전략경쟁: 쟁점과 접점

김 예 경(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Ⅰ. 들어가며
Ⅱ. 미중 전략경쟁의 쟁점: 국제규범과 이익
Ⅲ. 미중 전략경쟁의 접점: 경제, 기후변화, 한반도 비핵화 등
Ⅳ. 세 가지 대응 유형
Ⅴ. 나가며

국문요약

이 글은 미중 전략경쟁이 갈등 지향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미중은 갈등의 이면에는 항상 협력의 여지가 존재해왔다. 따라서 미중 전략경쟁 과정의 '수사와 실제(rhetoric and reality)'의 간극을 보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미중 전략경쟁의 주요 현안을 '쟁점'과 '접점'으로 구분하여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미중 전략경쟁의 '쟁점'이 되고 있는 '국제규범'과 '이익'을 중심으로 미중 양국의 갈등과 양국의 입장을 제시한다. 둘째, 미중 전략경쟁에서 타협의 여지가 가능한 접점을 제시한다. 미중은 경제분야, 기후변화 및 한반도 비핵화 분야 등에서 이익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야를 둘러싸고 갈등의 관리와 협력의 가능성을 타진해왔다. 마지막으로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한국의 대응 가능한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미중 전략경쟁,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국제법, 동맹, 핵심이익

해상수송로 안보와 미국의 외교정책: 레이건 행정부의 쿠웨이트 유조선 군사적 보호 결정

장 성 일(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강사)

Ⅰ. 서론
Ⅱ. 해상수송로 안보와 미국의 군사력 사용 논의
Ⅲ. 페르시아만 해상수송로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
Ⅳ. 페르시아만에서 미국의 군사력 사용 결정 분석
Ⅴ. 결론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해상수송로 안보와 미국의 군사력 사용 결정이라는 외교정책 간의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기존 연구를 보완하기 위해 1987년 페르시아만에서 미국의 군사력 사용 결정 동인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자료를 포함한 1차연구자료를 활용하여 국가 내 정책결정자 수준에서 군사력의 사용 결정 과정을 분석하고, 해상수송로 안보와 소련 견제라는 주요한 두 요인이 군사력의 사용 결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석한다. 정책결정자 수준에서의 분석 결과, 군사력의 사용 결정 과정에서 해상수송로 안보에 대한 고려가 위기 대응 초기 단계에서부터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고, 미소냉전의 국제정치 구조 즉, 소련에 대한 견제는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해상수송로 안보의 역사적 중요성과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며 해상수송로 안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해상수송로 안보는 미국 외교정책을 이해하는 데에도 여전히 중요하다.

주제어: 미국 외교정책, 군사력의 사용, 해상수송로, 해상교통로, 페르시아만, 항행의 자유

중국의 정보통제와 코로나19 초기대응

정 주 연(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신 은 비(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석사)

Ⅰ. 서론
Ⅱ. 환자 발생과 우한시정부의 대응
Ⅲ. 본격 확산과 중앙 및 우한시정부의 대응
Ⅳ. 결론

국문요약

이 논문은 코로나19의 발생 직후 확산을 막는데 결정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첫 두 달여 동안 중국 정부의 대응을 분석한다. 논문에서는 최초 환자발생 추정 시점인 2019년 12월 1일부터 우한시 봉쇄가 실시된 2020년 1월 23일까지 정부의 방역조치를 추적하면서 그 과정에서 의료기관, 의사, 전문가,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보통제 과정을 세부적으로 재구성하였다. 이 시기 중앙정부와 우한시정부는 신속한 경고와 적극적인 격리 대신 감염병에 대한 정보통제를 통해 상황을 축소 또는 봉합하는데 집중하였고, 효과적인 초기대응은 지연되었다. 중국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정보통제에 치중했다는 사실은 곧 초기대응 지연이 제도나 정책의 '실패'에 기인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선택'이기도 하며, 결과적으로 중앙 및 우한시정부 모두 그 선택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주제어: 중국, 코로나19, 초기대응, 정보통제, 우한시정부, 중앙정부

저출산 ·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아베 정부의 노동시장과 사회복지정책

송 지 연(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Ⅰ. 서론
Ⅱ. 인구구조 변화와 장기불황기 일본 노동시장과 복지국가의 도전 과제
Ⅲ. 총리와 관저 주도의 중앙집중적 정책결정 방식
Ⅳ.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노동시장과 사회복지 정책
Ⅴ. 결론

국문요약

본 논문에서는 아베 정부가 저출산 ·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구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노동시장과 사회복지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아베 정부는 인구변화 시대에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근로환경 개선, 사회복지정책 확대 등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공적연금과 의료보험을 개혁하여 사회복지지출 증가를 억제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동시장과 사회복지정책을 연계한 전략은 아베 정부 시기에 강화된 총리와 관저 주도의 중앙집중적 의사결정 방식을 통해서 추진되었다.

주제어: 저출산 · 고령화, 노동시장, 사회복지정책, 노동력 부족, 재정건전성, 중앙집중적 정책결정

북한 시장화의 정치학: 김정은 시대, 경제적 변화의 정치적 함의

윤 철 기(서울교육대 윤리교육과 부교수)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Ⅲ. 경제잉여의 변화: 외연적 렌트의 감소와 내연적 렌트의 증가
Ⅳ. 계획과 시장의 관계
Ⅴ. 생산관계의 변화: 자본주의 이행논쟁을 통해서 본 '돈주'의 정치경제적 성격
Ⅵ. 정치와 경제의 관계 변화: 토대와 상부구조의 부조화
Ⅶ. 결론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김정은 시대에 경제적 변화의 정치적 함의를 분석하는 데에 있다. 2011년 12월 김정은 집권 이후 십년동안 시장화는 더욱더 확산되고 심화되었다. 그 주요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잉여의 성격 변화이다. 4차 핵실험 이후 고강도 대북제재가 지속되면서 외연적 렌트(external rents)는 감소하고 국내시장에서 발생하는 내연적 렌트(internal rents)는 가장 중요한 권력자원이면서 동시에 시장화 확산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둘째, 경제조정양식의 변화이다.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는 가운데, 계획의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권력기관과 기업소는 시장에 나온 렌트에 의존해서 작동하고 있다. 돈주들은 생산물 시장 외에도 사금융, 사적 고용, 사적 부동산 거래 등을 통해서 렌트를 수취하고 있다. 이러한 렌트는 계획과 지배권력(관료)에게 공여되고 있다. 셋째, 생산관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생산관계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돈주들의 정치경제적 영향력과 자율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와 경제의 관계에서 정치의 우위가 지속되고 있다. 북한체제에서 정치우위의 핵심은 사회경제 부문에 대한 당의 지배가 여전히 실현되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김정은 집권 이후 당은 정치적 기능만이 아니라 시장을 이용하여 사회경제적 기능을 복원하려 시도하고 있다.

주제어: 북한, 김정은 시대, 시장화, 렌트, 경제조정양식, 돈주, 생산관계, 정치와 경제의 관계

한국 유권자의 정치 양극화와 투표 선택: 2012년 및 2022년 대통령 선거 비교

김 정(북한대학원대 부교수)

Ⅰ. 서론
Ⅱ. 이론적 가설: 유권자 정치 양극화, 투표 선택, 민주주의
Ⅲ. 경험적 검증: 2012년 및 2022년 한국 대통령 선거 패널 조사 결과 비교
Ⅳ. 결론

국문요약

이 연구는 유권자의 정치 양극화는 '이념 양극화' 및 '감정 양극화'의 두 차원으로 나눌 수 있고 전자는 민주주의에 건설적 효과를, 후자는 민주주의에 파괴적 효과를 각각 발생시킬 수 있다고 제시한다. 유권자의 정치 양극화는 한편으로 유권자의 '진영간 이질성'이 높아지는 '당파 분열' 현상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유권자의 '진영내 동질성'이 높아지는 '당파 정렬' 현상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념적 당파 분열 혹은 당파 정렬에 기초한 유권자의 투표 선택은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감정적 당파 분열 혹은 당파 정렬에 기초한 유권자의 투표 선택은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험적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유권자의 이념적 및 감정적 당파 분열은 지난 10년 동안 진전이 있었으나 그 수준이 유권자의 정당 지지 분포를 쌍봉 분포로 변화시킬 정도는 아니었다. 둘째, 한국 유권자의 이념적 당파 정렬은 지난 10년 동안 진전이 있었으나 그 수준이 진보 정당 지지 유권자 진영과 보수 정당 지지 유권자 진영의 중첩 규모가 소멸할 정도는 아니었다. 셋째, 한국 유권자의 감정적 당파 정렬은 지난 10년 동안 큰 진전이 있었고 그 수준이 진보 정당 지지 유권자 진영과 보수 정당 지지 유권자 진영의 중첩 규모를 사실상 소멸시킬 정도에 이르렀다. 넷째,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념적 당파 정렬이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강한 영향을 미쳤으나 감정적 당파 정렬은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섯째,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감정적 당파 정렬이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강한 영향을 미쳤으나 이념적 당파 정렬은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념적 당파 정렬의 효과가 하락하고 감정적 당파 정렬의 효과가 상승한 2022년 대통령 선거 결과는 유권자 정치 양극화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개연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주제어: 한국 대통령 선거, 당파 분열, 당파 정렬, 이념 양극화, 감정 양극화